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61-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교수)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 아 정 책 연 구 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차 례

요약	1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조사방법	23
3. 용어의 정의와 보고서 구성	35
II.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38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38
2. 보육료와 보육 비용 지원	44
III.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53
1. 인구학적 특성	53
2. 사회·경제적 특성	67
3. 소결	81
IV. 영유아 양육 특성	83
1. 자녀의 양육자	83
2. 자녀 양육지원과 모의 취업	99
3. 시사점	126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과 요구 총괄	128
1.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128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150
3.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157
4. 취약보육	174
5.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179
6.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189
7. 시사점	212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214

1. 어린이집 이용 아동 특성	214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218
3. 어린이집 서비스	251
4. 취약보육	277
5. 특별활동	281
6. 어린이집 이용 비용	294
7.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304
8. 시사점	311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314
1. 유치원 이용 아동 특성	314
2. 유치원 이용 행태	316
3. 유치원 이용 비용	355
4. 유치원 이용 만족도 및 요구	364
5. 시사점	369
VIII.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371
1.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371
2.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380
3.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내용	391
4.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401
5.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	406
6. 시사점	410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412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412
2.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417
3.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432
4. 시사점	445
X.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447
1.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447
2.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449
3. 개별교육 이용과 비용	460

4. 시사점	468
XI. 보육정책 관련 인식	470
1. 보육·유아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470
2.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477
3. 일반 보육·유아교육 정책 관련 의견	492
4. 시사점	498
XII. 영유아의 보육·교육 수요	500
1.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500
2. 보육 유아교육 수요	505
3. 시사점	510
XIII. 정책제언	512
1. 보육 공급과 이용	512
2. 보육지원의 다양화	515
3. 보육서비스 내용과 질	519
4. 비용	524
참고문헌	527
부록	529
부록 1. 표본설계	531
부록 2. 부록 표	536
부록 3. 가구조사표	555
부록 4. 아동조사표	567

표 차례

〈표 I-2-1〉 가구조사 내용	25
〈표 I-2-2〉 아동조사 내용	26
〈표 I-2-3〉 표본추출단계	28
〈표 I-2-4〉 층별 표본 규모	28
〈표 I-2-5〉 지역별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표본 및 완료 현황	30
〈표 I-2-6〉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31
〈표 I-2-7〉 지역별 가구 최연소 아동의 연령	32
〈표 I-2-8〉 지역별 연령 및 아동수	32
〈표 II-1-1〉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아동 수: 2009-2012년	39
〈표 II-1-2〉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39
〈표 II-1-3〉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2년	40
〈표 II-1-4〉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2	41
〈표 II-1-5〉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42
〈표 II-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43
〈표 II-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2년	43
〈표 II-2-1〉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2	44
〈표 II-2-2〉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2	45
〈표 II-2-3〉 3, 4세 가구원수별 소득인정 기준	49
〈표 II-2-4〉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 대상 등	50
〈표 II-2-5〉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009~2012년	50
〈표 II-2-6〉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2010~2012년	51
〈표 II-2-7〉 국고 지원 예산: 2009~2012년	52
〈표 II-2-8〉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재정: 2012년 예산	52
〈표 III-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53
〈표 III-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55
〈표 III-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56
〈표 III-1-4〉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7
〈표 III-1-5〉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58

〈표 III-1- 6〉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60
〈표 III-1- 7〉 최연소 영유아 모 출신 국가	60
〈표 III-1- 8〉 다문화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61
〈표 III-1- 9〉 다문화가족 자녀 서비스 수혜 경험	63
〈표 III-1-10〉 지역별 영유아의 성별	64
〈표 III-1-12〉 출생순위	65
〈표 III-1-13〉 지역별 영유아의 건강상태	66
〈표 III-2- 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67
〈표 III-2- 2〉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68
〈표 III-2- 3〉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위치 및 근무형태	69
〈표 III-2- 4〉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70
〈표 III-2- 5〉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71
〈표 III-2- 6〉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72
〈표 III-2- 7〉 영유아 가구의 주택소유 특성	73
〈표 III-2- 8〉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74
〈표 III-2- 9〉 소득분위별 평균	74
〈표 III-2-10〉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75
〈표 III-2-11〉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77
〈표 III-2-12〉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78
〈표 III-2-13〉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79
〈표 III-2-1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80
〈표 III-2-15〉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81
〈표 IV-1- 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84
〈표 IV-1- 2〉 최연소 자녀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85
〈표 IV-1- 3〉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86
〈표 IV-1- 4〉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88
〈표 IV-1- 5〉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89
〈표 IV-1- 6〉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91
〈표 IV-1- 7〉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92
〈표 IV-1- 8〉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94
〈표 IV-1- 9〉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95

〈표 IV-1-10〉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97
〈표 IV-1-11〉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98
〈표 IV-2- 1〉	영유아 부모별 양육 태도	99
〈표 IV-2- 2〉	제 특성별 부모의 양육 태도: 5점 척도	100
〈표 IV-2- 3〉	영유아 부모별 부정적 양육 정서	101
〈표 IV-2- 4〉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101
〈표 IV-2- 5〉	남편의 자녀 돌보기 참여 정도: 5점 척도	102
〈표 IV-2- 6〉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104
〈표 IV-2- 7〉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105
〈표 IV-2- 8〉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107
〈표 IV-2- 9〉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108
〈표 IV-2-10〉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육아정보, 조언 제공	109
〈표 IV-2-11〉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자녀 직접 돌보기	110
〈표 IV-2-12〉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경제적 지원	111
〈표 IV-2-13〉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가사 지원	112
〈표 IV-2-14〉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113
〈표 IV-2-15〉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114
〈표 IV-2-16〉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정보 제공	114
〈표 IV-2-17〉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 상담, 아동 진단	115
〈표 IV-2-18〉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116
〈표 IV-2-19〉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장난감·도서 대여	117
〈표 IV-2-20〉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공동육아나눔터	118
〈표 IV-2-21〉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시간제 보육	118
〈표 IV-2-22〉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인지 및 이용 경험	119
〈표 IV-2-23〉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120
〈표 IV-2-24〉	모의 미취업 이유	121
〈표 IV-2-25〉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	122
〈표 IV-2-26〉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123
〈표 IV-2-27〉	제 특성별 모의 취업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124
〈표 IV-2-28〉	제 특성별 모의 취업 중단 시기	125
〈표 V-1- 1〉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양육지원 기관 수	129

〈표 V-1- 2〉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수	129
〈표 V-1- 3〉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130
〈표 V-1- 4〉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31
〈표 V-1- 5〉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7월 1일 기준)	132
〈표 V-1- 6〉 영유아 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	133
〈표 V-1- 7〉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	134
〈표 V-1- 8〉 영아 가구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35
〈표 V-1- 9〉 유아 가구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36
〈표 V-1-10〉 영유아가구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37
〈표 V-1-11〉 영유아가구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38
〈표 V-1-12〉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140
〈표 V-1-13〉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특성	141
〈표 V-1-14〉 유치원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특성	141
〈표 V-1-15〉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142
〈표 V-1-16〉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 변경 의향	143
〈표 V-1-17〉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144
〈표 V-1-18〉 현재 이용기관 이용 지속기간	145
〈표 V-1-19〉 기관별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146
〈표 V-1-20〉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대기 기간	147
〈표 V-1-21〉 입소 대기신청 기관	148
〈표 V-1-22〉 입소 대기신청 기관별 대기기간	149
〈표 V-2- 1〉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1순위)	150
〈표 V-2- 2〉 자녀 연령대별 모의 취업상태	151
〈표 V-2- 3〉 아동 시기별 처음 이용한 개인서비스	151
〈표 V-2- 4〉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152
〈표 V-2- 5〉 최초 이용기관	153
〈표 V-2- 6〉 최초 이용기관별 기관 최초 이용 이유	154
〈표 V-2- 7〉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155
〈표 V-2- 8〉 최초 이용 이유별 최초 이용 월령	156
〈표 V-3- 1〉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158
〈표 V-3- 2〉 총 보육·교육 비용 지불 아동 비율	159

〈표 V-3- 3〉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160
〈표 V-3- 4〉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161
〈표 V-3- 5〉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163
〈표 V-3- 6〉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164
〈표 V-3- 7〉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165
〈표 V-3- 8〉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166
〈표 V-3- 9〉	영유아 연령별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167
〈표 V-3-10〉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168
〈표 V-3-11〉	보육료·교육비 부담 인식	169
〈표 V-3-12〉	보육료·교육비 미지원 시 이용 의사	169
〈표 V-3-13〉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부담 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170
〈표 V-3-14〉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172
〈표 V-3-15〉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173
〈표 V-4 1〉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174
〈표 V-4 2〉	취약보육의 이용	176
〈표 V-4 3〉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중복응답)	176
〈표 V-4 4〉	취약보육 제공시간 평균	176
〈표 V-4 5〉	취약보육의 필요성	177
〈표 V-4 6〉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	178
〈표 V-5- 1〉	특별활동 종류 수	180
〈표 V-5- 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실시 비율	181
〈표 V-5- 3〉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182
〈표 V-5- 4〉	특별활동 운영시간	183
〈표 V-5- 5〉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183
〈표 V-5- 6〉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184
〈표 V-5- 7〉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185
〈표 V-5- 8〉	제 특성별 총 특별활동 이용 비용	185
〈표 V-5- 9〉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187
〈표 V-5-10〉	제 특성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188
〈표 V-5-11〉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제한 의견	189
〈표 V-6- 1〉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 비교	190

〈표 V-6- 2〉 영·유아별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 비교	191
〈표 V-6- 3〉 거주지와 이용 기관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191
〈표 V-6- 4〉 기관별 주변환경 특성	192
〈표 V-6- 5〉 주당 기관 이용 일수	193
〈표 V-6- 6〉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하원 시각	193
〈표 V-6- 7〉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195
〈표 V-6- 8〉 이용기관별 희망 등원시각	196
〈표 V-6- 9〉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시간	196
〈표 V-6-10〉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197
〈표 V-6-11〉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198
〈표 V-6-12〉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시간	199
〈표 V-6-13〉 이용기관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200
〈표 V-6-14〉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빈도	201
〈표 V-6-15〉 기관유형별 도움 정도: 5점 척도	203
〈표 V-6-16〉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의 도움 정도: 5점 척도	204
〈표 V-6-17〉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이용 부모의 누리과정 관련 인식: 5점 척도	205
〈표 V-6-18〉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건강검진관리	206
〈표 V-6-19〉 이용기관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208
〈표 V-6-20〉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209
〈표 V-6-21〉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변화(2004, 2009, 2012)	210
〈표 V-6-22〉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211
〈표 VI-1- 1〉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215
〈표 VI-1- 2〉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모 취업 특성	216
〈표 VI-1- 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면제 및 감면 여부	217
〈표 VI-2- 1〉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 비교	218
〈표 VI-2- 2〉 지역별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의 비교	219
〈표 VI-2- 3〉 영유아별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의 비교	220
〈표 VI-2- 4〉 영유아별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의 비교	220
〈표 VI-2- 5〉 거주지와 어린이집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221
〈표 VI-2- 6〉 거주지와 어린이집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222
〈표 VI-2- 7〉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 규모별 주변환경 특성	222

〈표 VI-2- 8〉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223
〈표 VI-2- 9〉	영유아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	224
〈표 VI-2-10〉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	224
〈표 VI-2-11〉	영유아 및 연령별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 어린이집 변경 의향	225
〈표 VI-2-1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226
〈표 VI-2-13〉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227
〈표 VI-2-14〉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228
〈표 VI-2-15〉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229
〈표 VI-2-16〉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229
〈표 VI-2-1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230
〈표 VI-2-18〉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231
〈표 VI-2-19〉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232
〈표 VI-2-20〉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33
〈표 VI-2-21〉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34
〈표 VI-2-22〉	아동 연령 및 모취업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235
〈표 VI-2-2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초과 이용	235
〈표 VI-2-2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관련 의견	237
〈표 VI-2-25〉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등원시각	238
〈표 VI-2-26〉	제 특성별 희망 등원시각	239
〈표 VI-2-27〉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하원시각	240
〈표 VI-2-28〉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하원시각	240
〈표 VI-2-29〉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희망 이용시간	241
〈표 VI-2-30〉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242
〈표 VI-2-31〉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243
〈표 VI-2-32〉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244
〈표 VI-2-3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245
〈표 VI-2-34〉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46
〈표 VI-2-3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47
〈표 VI-2-36〉	지역 및 모취업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48
〈표 VI-2-37〉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249
〈표 VI-2-38〉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250

〈표 VI-2-39〉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형태	250
〈표 VI-2-40〉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251
〈표 VI-2-41〉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251
〈표 VI-3- 1〉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어린이집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252
〈표 VI-3- 2〉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253
〈표 VI-3- 3〉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254
〈표 VI-3- 4〉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도움 정도 및 5점 평균	256
〈표 VI-3- 5〉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및 5점 척도	257
〈표 VI-3- 6〉	어린이집 유형별 도움 정도 비율 비교	258
〈표 VI-3- 7〉	어린이집 유형별 도움 정도: 5점 척도	258
〈표 VI-3- 8〉	제 특성별 어린이집의 도움정도: 5점 척도	259
〈표 VI-3- 9〉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261
〈표 VI-3-10〉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261
〈표 VI-3-11〉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262
〈표 VI-3-12〉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262
〈표 VI-3-13〉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 여부	263
〈표 VI-3-14〉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 여부	263
〈표 VI-3-15〉	표준보육과정 인지 여부	264
〈표 VI-3-16〉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누리과정 관련 인식 및 만족도	265
〈표 VI-3-17〉	인지도, 참여율, 도움 정도, 참여 의향	266
〈표 VI-3-18〉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을 안다는 바울	266
〈표 VI-3-19〉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	267
〈표 VI-3-20〉	부모참여 도움 정도	269
〈표 VI-3-21〉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인식	269
〈표 VI-3-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5점 척도	270
〈표 VI-3-23〉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271
〈표 VI-3-2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정도: 5점 척도	272
〈표 VI-3-25〉	CCTV 설치 여부: 5점 척도	273
〈표 VI-3-26〉	CCTV 이용 관련 의견: 5점 척도	274
〈표 VI-3-27〉	CCTV 필요성 비율 및 5점 척도	275
〈표 VI-3-28〉	아이사랑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	276

〈표 VI-4 1〉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278
〈표 VI-4 2〉 취약보육의 이용	279
〈표 VI-4 3〉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79
〈표 VI-4 4〉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280
〈표 VI-4 5〉 취약보육의 필요성	280
〈표 VI-5 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종류 수	281
〈표 VI-5 2〉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종류 수	282
〈표 VI-5 3〉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비율	282
〈표 VI-5 4〉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비율	283
〈표 VI-5 5〉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284
〈표 VI-5 6〉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284
〈표 VI-5 7〉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시간	285
〈표 VI-5 8〉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286
〈표 VI-5 9〉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287
〈표 VI-5-10〉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288
〈표 VI-5-11〉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	288
〈표 VI-5-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 비용	289
〈표 VI-5-13〉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291
〈표 VI-5-1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선호도	291
〈표 VI-5-15〉 제 특성별 특별활동 운영 제한 의견	293
〈표 VI-6 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 분포	295
〈표 VI-6 2〉 어린이집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296
〈표 VI-6 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297
〈표 VI-6 4〉 어린이집 유형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298
〈표 VI-6 5〉 제 특성별 보육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보육 비용	299
〈표 VI-6 6〉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담 정도	300
〈표 VI-6 7〉 어린이집 유형 및 보육료 지원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302
〈표 VI-6 8〉 제 특성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303
〈표 VI-7 1〉 어린이집 만족도 및 평균: 5점 척도	304
〈표 VI-7 2〉 어린이집 비용 만족도 백분율	305

〈표 VI-7- 3〉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비교(2004, 2009, 2012)	306
〈표 VI-7- 4〉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308
〈표 VI-7- 5〉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309
〈표 VI-7- 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309
〈표 VI-7- 7〉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사항: 1순위	310
〈표 VII-1- 1〉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특성	315
〈표 VII-2- 1〉	거주지와 유치원 위치 비교	316
〈표 VII-2- 2〉	거주지와 유치원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317
〈표 VII-2- 3〉	유치원 주변 환경 특성	318
〈표 VII-2- 4〉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319
〈표 VII-2- 5〉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이유	319
〈표 VII-2- 6〉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	320
〈표 VII-2- 7〉	현재 이용 유치원 이용 지속기간	321
〈표 VII-2- 8〉	연령별 유치원 등원시각	322
〈표 VII-2- 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시각	322
〈표 VII-2-10〉	연령별 유치원 하원시각	323
〈표 VII-2-1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323
〈표 VII-2-12〉	연령별 유치원 이용시간	324
〈표 VII-2-13〉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	324
〈표 VII-2-14〉	유치원 이용 시 초과 이용	325
〈표 VII-2-15〉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327
〈표 VII-2-16〉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각	328
〈표 VII-2-17〉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각	328
〈표 VII-2-18〉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각	329
〈표 VII-2-1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각	329
〈표 VII-2-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330
〈표 VII-2-21〉	지역 및 기관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330
〈표 VII-2-22〉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332
〈표 VII-2-23〉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332
〈표 VII-2-24〉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333
〈표 VII-2-25〉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334

〈표 VII-2-26〉	연령별 유치원 선택 이유	335
〈표 VII-2-27〉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선택 이유	335
〈표 VII-2-28〉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이유	336
〈표 VII-2-29〉	연령별 유치원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337
〈표 VII-2-30〉	유치원 유형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339
〈표 VII-2-31〉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도움 정도 및 5점 척도	340
〈표 VII-2-32〉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및 5점 척도	341
〈표 VII-2-33〉	유치원 유형별 도움 정도 비율 비교	342
〈표 VII-2-34〉	유치원 유형별 도움 정도: 5점 척도	343
〈표 VII-2-35〉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수	344
〈표 VII-2-36〉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이용 비율	345
〈표 VII-2-37〉	유치원 특기활동 의무 이용 비율	345
〈표 VII-2-38〉	유치원 특기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346
〈표 VII-2-39〉	유치원 특기활동 운영시간	347
〈표 VII-2-40〉	유치원 특기활동 별도 비용 지불 비율	348
〈표 VII-2-41〉	유치원 특기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348
〈표 VII-2-42〉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349
〈표 VII-2-43〉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월평균 비용	350
〈표 VII-2-44〉	유치원 특기활동 만족도: 5점 척도	351
〈표 VII-2-45〉	유치원 이용 유아 특성별 특기활동 선호도	351
〈표 VII-2-46〉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운영 제한 의견	352
〈표 VII-2-47〉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관리	353
〈표 VII-2-48〉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353
〈표 VII-2-49〉	건강검진 결과 제출 여부	354
〈표 VII-2-50〉	유치원 이용 부모의 누리과정 관련 인식 및 만족도	354
〈표 VII-3- 1〉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교육비 면제 및 감면 여부	355
〈표 VII-3- 2〉	지역 및 유치원 유형·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교육비 지원 이유	356
〈표 VII-3- 3〉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 월평균 감면 액수	357
〈표 VII-3- 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358
〈표 VII-3- 5〉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359
〈표 VII-3- 6〉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359

〈표 VII-3- 7〉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360
〈표 VII-3- 8〉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361
〈표 VII-3- 9〉	제 특성별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비용	362
〈표 VII-4 1〉	유치원 만족도 비율 및 평균: 5점 척도	364
〈표 VII-4 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5점 척도	365
〈표 VII-4 3〉	유치원 비용 만족도	366
〈표 VII-4 4〉	유치원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친 영향	367
〈표 VII-4 5〉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	368
〈표 VII-4 6〉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368
〈표 VIII-1- 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율 및 규모	371
〈표 VIII-1- 2〉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372
〈표 VIII-1- 3〉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분포 및 규모	373
〈표 VIII-1- 4〉	지역내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	374
〈표 VIII-1- 5〉	모 취업특성 및 가구소득별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	375
〈표 VIII-1- 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기 및 기간	376
〈표 VIII-1- 7〉	기관 유형 및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376
〈표 VIII-1- 8〉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377
〈표 VIII-1- 9〉	기관 유형 및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378
〈표 VIII-1-10〉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378
〈표 VIII-1-1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소재지 및 이유	379
〈표 VIII-1-1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주변환경 특성	380
〈표 VIII-2- 1〉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시각	381
〈표 VIII-2- 2〉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시각	381
〈표 VIII-2- 3〉	연령 및 기관 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시각	382
〈표 VIII-2- 4〉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시각	382
〈표 VIII-2- 5〉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383
〈표 VIII-2- 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384
〈표 VIII-2- 7〉	모 취업여부 및 기관 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 초과 이용	385
〈표 VIII-2- 8〉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관련 의견	385
〈표 VIII-2- 9〉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시간	387
〈표 VIII-2-10〉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시간	387

〈표 VIII-2-11〉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시각 …	388
〈표 VIII-2-12〉	지역 및 모 취업여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시각 ·	388
〈표 VIII-2-13〉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시간 …	389
〈표 VIII-2-14〉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시간 ·	389
〈표 VIII-2-1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390
〈표 VIII-2-16〉	기관 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391
〈표 VIII-2-17〉	연령 및 기관유형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	391
〈표 VIII-3- 1〉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원장 강조 내용: 1순위	392
〈표 VIII-3- 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	393
〈표 VIII-3- 3〉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및 5점 척도	394
〈표 VIII-3- 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및 5점 척도	394
〈표 VIII-3- 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수 ……………	395
〈표 VIII-3- 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실시 비율 ………	396
〈표 VIII-3- 7〉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	397
〈표 VIII-3- 8〉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운영시간 ……………	397
〈표 VIII-3- 9〉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	398
〈표 VIII-3-10〉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	398
〈표 VIII-3-1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	399
〈표 VIII-3-12〉	연령 및 지역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	400
〈표 VIII-3-13〉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	400
〈표 VIII-3-1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	401
〈표 VIII-4 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종류별 월평균 비용 ……………	402
〈표 VIII-4 2〉	연령 및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종류별 월평균 학원 비용	402
〈표 VIII-4 3〉	제 특성별 월평균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비용 ……………	403
〈표 VIII-4 4〉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평균 ……………	403
〈표 VIII-4 5〉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담에 대한 인식 ……………	404
〈표 VIII-4 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비용 ……………	405
〈표 VIII-5 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친 영향 ……	406
〈표 VIII-5 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기관별 도움 정도 ……………	407

〈표 VIII-5- 3〉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도움정도: 5점 척도	407
〈표 VIII-5- 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및 5점 척도	408
〈표 VIII-5- 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만족도: 5점 척도	409
〈표 VIII-5- 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별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409
〈표 IX-1-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413
〈표 IX-1- 2〉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413
〈표 IX-1- 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414
〈표 IX-1- 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415
〈표 IX-1- 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416
〈표 IX-2- 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418
〈표 IX-2- 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419
〈표 IX-2- 3〉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420
〈표 IX-2- 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422
〈표 IX-2- 5〉 (규칙적으로 맡기는 경우)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422
〈표 IX-2- 6〉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423
〈표 IX-2- 7〉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장소와 집과의 거리	424
〈표 IX-2- 8〉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데려오는 주기	425
〈표 IX-2- 9〉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426
〈표 IX-2-10〉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426
〈표 IX-2-11〉 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비용 시 금액	428
〈표 IX-2-12〉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428
〈표 IX-2-13〉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 비용 지불 여부 및 조정 비율	429
〈표 IX-2-1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 정도	430
〈표 IX-2-1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431
〈표 IX-3- 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433
〈표 IX-3- 2〉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출신국	434
〈표 IX-3- 3〉 비혈연 양육자의 결혼·자녀양육 경험 및 자격 소지 비율	435
〈표 IX-3- 4〉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	435
〈표 IX-3- 5〉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436
〈표 IX-3- 6〉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및 주당 이용 시간	438
〈표 IX-3- 7〉 비혈연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438

〈표 IX-3- 8〉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439
〈표 IX-3- 9〉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시 대처	440
〈표 IX-3-10〉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441
〈표 IX-3-11〉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442
〈표 IX-3-12〉	비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442
〈표 IX-3-13〉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443
〈표 IX-3-1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444
〈표 X-1- 1〉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448
〈표 X-1- 2〉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449
〈표 X-2- 1〉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450
〈표 X-2- 2〉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452
〈표 X-2- 3〉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주당 총 이용시간	453
〈표 X-2- 4〉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454
〈표 X-2- 5〉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 비용	456
〈표 X-2- 6〉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 비용	457
〈표 X-2- 7〉	가구소득별 시간제 학원 월 평균 비용	458
〈표 X-2- 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비교	458
〈표 X-2- 9〉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459
〈표 X-2-10〉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459
〈표 X-3- 1〉	개별 교육 이용 현황	461
〈표 X-3- 2〉	제 특성별 개별 교육 이용 유무	461
〈표 X-3- 3〉	개별 교육 이용	462
〈표 X-3- 4〉	개별 교육 유형별 주된 지도 형태	463
〈표 X-3- 5〉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464
〈표 X-3- 6〉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 비용	465
〈표 X-3- 7〉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466
〈표 X-3- 8〉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466
〈표 X-3- 9〉	개별 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467
〈표 X-3-10〉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467
〈표 XI-1-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470
〈표 XI-1- 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471

〈표 XI-1- 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473
〈표 XI-1- 4〉 공인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474
〈표 XI-1- 5〉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475
〈표 XI-1- 6〉 시간제 돌봄 인지·이용경험 및 필요성	475
〈표 XI-1- 7〉 영아 정기 돌봄 인지·이용 경험 및 필요성	476
〈표 XI-2- 1〉 최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477
〈표 XI-2- 2〉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479
〈표 XI-2- 3〉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481
〈표 XI-2- 4〉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482
〈표 XI-2- 5〉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483
〈표 XI-2- 6〉 정부 지원 비용 양육 부담 완화 정도	484
〈표 XI-2- 7〉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	486
〈표 XI-2- 8〉 전계층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정책 만족도	488
〈표 XI-2- 9〉 보육·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 불만족 이유	489
〈표 XI-2-10〉 보육비 지원의 출산 영향 및 추가 출산 계획	490
〈표 XI-2-11〉 영향을 미친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	491
〈표 XI-2-12〉 추가 출산 계획 시기	491
〈표 XI-2-13〉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492
〈표 XI-3- 1〉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493
〈표 XI-3- 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494
〈표 XI-3- 3〉 보육료 자율적 결정에 대한 의견	496
〈표 XI-3- 4〉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497
〈표 XII-1- 1〉 제 특성별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501
〈표 XII-1- 2〉 현 기관 지속이용 예상 기간	502
〈표 XII-1- 3〉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503
〈표 XII-1- 4〉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의 보내고 싶은 시설 형태	504
〈표 XII-2- 1〉 연령별 해당 개월의 어린이집 수요	506
〈표 XII-2- 2〉 지역별 연령별 해당 개월의 어린이집 수요	507
〈표 XII-2- 3〉 연령별(1월 1일 기준) 해당 개월의 유치원 수요	508
〈표 XII-2- 4〉 연령별 해당 개월의 유치원 수요	509
〈표 XII-2- 5〉 연령별 해당 개월의 기타 시설 수요	510

부록 표 차례

〈부표 IV-2-1〉	맞벌이 여부별 부모의 양육 태도: 5점 척도	536
〈부표 IV-2-2〉	맞벌이 여부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536
〈부표 IV-2-3〉	맞벌이 여부별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	536
〈부표 V-2-1〉	맞벌이 여부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537
〈부표 V-2-2〉	맞벌이 여부별 최초 이용기관	537
〈부표 V-2-3〉	맞벌이 여부별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537
〈부표 V-3-1〉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월 평균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538
〈부표 V-3-2〉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교육비 부담 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538
〈부표 V-3-3〉	맞벌이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	538
〈부표 V-4-1〉	맞벌이 여부별 취약보육의 필요성	538
〈부표 V-4-2〉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기관 이용의 도움 정도: 5점 척도	539
〈부표 VI-2-2〉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 및 희망 이용시간	539
〈부표 VI-2-4〉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 반일제의 도움정도: 5점 척도 ·	540
〈부표 VI-3-2〉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반일제 선택시 고려 요인 ..	541
〈부표 VI-3-3〉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을 안다는 비율과 참여 시 도움정도	541
〈부표 VI-3-4〉	어린이집 부모참여 비율 및 참여 의향	542
〈부표 VI-4-1〉	맞벌이 여부별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	542
〈부표 VI-6-2〉	맞벌이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	543
〈부표 VI-7-1〉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 반일제 만족도: 5점 척도 ..	543
〈부표 VII-2-1〉	맞벌이 여부별 유치원 실제 이용 시간 및 희망 이용 시간	544
〈부표 VII-2-3〉	어린이집·유치원 유형 및 맞벌이 여부별 월평균 교육비	544
〈부표 VIII-2-1〉	맞벌이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실제 이용 시간 및 희망 이용 시간	545
〈부표 VIII-4-1〉	맞벌이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담에 대한 인식 ..	545
〈부표 IX-1-1〉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545
〈부표 IX-2-1〉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45
〈부표 IX-2-2〉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	546
〈부표 IX-2-3〉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546
〈부표 IX-2-4〉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장소와 집과의 거리	546

〈부표 IX-2-5〉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맞벌이 여부별 자녀 데려오는 주기 ..	546
〈부표 IX-2-6〉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547
〈부표 IX-2-7〉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547
〈부표 IX-2-8〉	맞벌이 여부별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 비용 지불 여부 및 조정 비율	547
〈부표 IX-2-9〉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547
〈부표 IX-3-1〉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547
〈부표 IX-3-2〉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자의 결혼·자녀양육 경험 및 자격 소지 비율 ..	548
〈부표 IX-3-3〉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인의 출신국 및 제공 장소	548
〈부표 IX-3-4〉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	548
〈부표 IX-3-5〉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및 주당 이용 시간	548
〈부표 IX-3-6〉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금액	548
〈부표 IX-3-7〉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549
〈부표 X-2-1〉	맞벌이 여부별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549
〈부표 X-2-2〉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	549
〈부표 X-2-3〉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주당 총 이용시간	549
〈부표 X-2-4〉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월평균 이용 비용	549
〈부표 X-2-5〉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550
〈부표 X-3-1〉	맞벌이 여부별 개별 교육 이용 유무 및 만족도	550
〈부표 X-3-2〉	맞벌이 여부별 개별 교육 이용	550
〈부표 X-3-3〉	맞벌이 여부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 비용	550
〈부표 XI-1-1〉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551
〈부표 XI-1-2〉	맞벌이 여부별 공인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551
〈부표 XI-4-1〉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돌봄 인지 및 이용 경험	551
〈부표 XI-2-1〉	맞벌이 여부별 영아 정기 돌봄 인지 및 이용 경험	551
〈부표 XI-2-2〉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552
〈부표 XI-2-3〉	맞벌이 여부별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552
〈부표 XI-2-4〉	맞벌이 여부별 정부 지원 비용 양육 부담 완화 정도	552
〈부표 XI-2-5〉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	552
〈부표 XI-2-6〉	맞벌이 여부별 전계층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정책 만족도	553
〈부표 XI-2-7〉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 불만족 이유	553

〈부표 XI-2-8〉	맞벌이 여부별 보육비 지원의 출산 영향 및 추가 출산 계획	553
〈부표 XI-2-1〉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553
〈부표 XI-3-1〉	맞벌이 여부별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554
〈부표 XI-3-2〉	맞벌이 여부별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554
〈부표 XI-3-3〉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 자율적 결정에 대한 의견	554
〈부표 XI-3-4〉	맞벌이 여부별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554
〈부표 XII-1-1〉	제 특성별 앞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의사	554

그림 차례

[그림 I-2-1]	가구조사 진행 절차	23
[그림 I-2-2]	조사 추진 일정	24
[그림 VI-1-1]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214
[그림 VI-7-1]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306
[그림 VI-7-2]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비교	307
[그림 VII-1-1]	유치원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314
[그림 IX-3-1]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443
[그림 XI-2-1]	최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도	478
[그림 XI-2-2]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481
[그림 XI-2-3]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484
[그림 XI-2-4]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	487
[그림 XI-2-5]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493
[그림 XI-2-6]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없다’는 비율)	498
[그림 XII-2-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과 수요율	506
[그림 XII-2-2]	연령별 유치원 이용률과 수요율	508

요 약

1.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추진되는 조사로, 보육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총 18종의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함.
 - 보육과 유아교육 이용 의사를 파악하여 수요율을 추정함.

2. 조사방법

- 조사는 가구조사, 아동조사의 순으로 실시됨.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수만큼 아동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는 가구조사, 아동조사 2종으로 구성함.
 - 가구조사표는 가구원 및 가구 특성, 아동 부모 특성, 보육·교육에 관한 의견, 영유아 자녀별의 보육·교육 이용 등으로 구성함.
 - 아동조사표는 보육·교육 이용 경험,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요구,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활용 교육 이용, 영유아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등으로 구성함.

□ 표본은 전국 2,500가구를 목표로 추출함.

-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2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이고,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90%의 조사구임.
- 표본의 규모는 전국 300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60가구를 조사하며, 영유아 가구 총 2,500가구를 조사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함.
- 조사구 및 가구를 1차 및 2차 추출단위로 고려하여 전국의 0~5세 아동 분포에 따라 표본을 층별로 비례 배분하여 추출함.
- 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함.

□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였음.

- 조사지도원 14명, 조사원 42명으로 전체 14개팀 56명이 담당하였음.
 - 조사지도원은 조사 완료된 조사표를 검토 및 관리를 담당하고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기간은 2012. 7. 11 ~ 8. 11임.
 - 조사 기간 동안 14개 팀을 운영하여 296개 조사구 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는 아동의 모 등 아동 주 양육자를 원칙으로 하였음.

3. 조사 결과 및 처리

□ 조사완료율은 81.6%임.

- 가구조사 대상 3,099개 가구 중 2,528 가구를 조사하여 조사 완료율 81.6%
- 총 2,528가구에서 영아 1,802명, 유아 1,541명으로 총 3,343명 영유아 개별조사를 실시함.

□ 조사자료 처리 및 자료 오류 수정 후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음.

□ 자료 분석시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가중치는 각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 규모에 따라 모집단 층으로부터 추출된 단위들의 추출확률에 의해 계산됨.

II. 영유아보육사업 현황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 2012년 12월 현재 42,527개소의 어린이집에 148만 7천여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영유아 해당 아동의 52.4%임.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용 아동 비율은 76.7%임.
- 영유아 중 보육 아동 비율은 영아 62.0%, 유아 42.8%로, 전체 평균 52.4%임.
- 전체 보육 공급률은 61.1%임.

□ 보육아동 특성

- 0세와 1세 보육은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이 크고, 2세아는 대부분의 유형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98.2%가 영아임.
- 보육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52,120명임. 전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49.8%임.

2. 보육료와 비용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결정함.

-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어 있음.

□ 2012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은 만3, 4세 소득 하위 30% 이상만 제외되었음.

- 시설보조금 지원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와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되며,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음.
- 부모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2년 현재 1세 미만은 월 755천원, 1세는 월 521천원, 2세는 월 401천원, 3세는 197천원, 4세 이상은 월 177천원임.
- 장애아, 다문화 가족에도 전액 지원함.
-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 3,700원을 월 60시간 지원함.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서비스 대체 양육수당을 지원함.

- 2012년 현재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의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18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10~20만원임.
- 수혜 아동은 2010년 약 49,800명, 2011년 약 89,600명, 2012년 92,818명임.
- 농어촌 거주 영유아와 등록 장애아동에게도 최대 84개월 간 수당을 지원함.
- 보육예산은 국고 약 3조에 달하며,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예산은 약 4,56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됨.

III. 조사 주요결과

1. 아동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의 취업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88명이며, 가구형태는 아버지 한 부모 가구가 0.2%, 어머니 한 부모가 1.1%이고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12.0%이며,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0.2%로 읍·면이 두드러지게 높음.
 - 영유아 가구 중 3.9%의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임. 지역별 결혼이민자 가구 비율은 읍·면 8.2%, 중소도시 2.5%, 대도시 3.4%임. 영아 가구 중 읍·면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구 비율이 10.8%로 높게 나타남.
 -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51.4%, 둘째아 39.4% 셋째아 8.4% 순임.
 -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아동 모의 취업률은 영아 34.2%, 유아 46.9%임.
 - 취업한 아동 모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9.18시간이며, 영유아 취업모의 월소득은 161만 5천원으로 집계됨.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382만 1천원으로, 분포는 149만원 이하가 3.3%, 700만원 이상이 6.7%임.
 - 취업모 가구가 469만 6천원, 미취업모 가구 329만 1천원임.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303만 7천원으로 149만원 이하가 4.2%, 700만원 이상이 2.6%임.

- 취업모 가구가 352만 1천원, 미취업모 가구 272만 8천원임.

2. 영유아 양육 특성

- 낮 시간 동안 주양육자는 기관이 56%, 어머니 37.5%, 조부모 5.4% 순임.
 - 부모 이외의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2세 미만아는 조부모, 3~4세아는 어린이집, 4~5세아는 유치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 평일 시간대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오전 9시까지의 부모가 최저 63.8%로 가장 높고, 이외에 조부모 등 혈연이 최대 8.9%이며, 오전 9시 이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각각 44.5%, 24.3%로 증가함.
 -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후 5시 반과 오후 6시 사이에는 각각 8.8%와 2.8%를 나타냄.
 - 오후 6시 이후에는 어린이집 이용은 10시까지, 유치원은 8시까지 이루어짐.
 - 취업모 자녀 기관 이용은 오전 7시부터 본격화되며, 오후 3시 기준으로 약 77%로 미취업모 자녀 약 44%와 비교됨. 오후 6시 이후 취업모 자녀는 혈연인에 의한 돌봄 비율이 29.5%로 가장 높음.
- 양육태도와 정서 5가지 항목에 걸쳐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움' 등 2개 항목에 대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가 높고,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임.
- 남편의 자녀돌보기 참여 비율은 50.2%이고, 영아가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평일에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은 어머니는 7시간, 아버지는 약 2시간임.
- 남편 이외 양육지원자는 육아정보 부문에서는 이웃, 친구가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정 부모 15.0%, 부인 형제 자매 11.6%임.
 - 자녀돌보기,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자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61.3%, 87.7%, 80.3%임.
- 육아 정보·상담은 친구·동료 39.5%, 육아관련 사이트 37.1%, 집안 어른 12.5%임.

-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인지 비율은 장난감·도서대여 부문에서 가장 높은 28.7%를 나타냈고, 이용 경험 없다는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90%를 육박하며, 장난감·도서 대여와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가 각각 3.91점과 3.92점으로 높게 나타남.
-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 인지 비율은 61.3%이며, 71.8%는 이용 경험 없음.
- 취업 부모의 자녀 양육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출퇴근 시 자녀를 맡기는 어려움'과 '긴급 시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됨.
- 모의 미취업 이유로는 '자녀양육,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62.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가 22.2%임.
- 아이 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5.2%이고, 그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48.7%로 가장 높음.
- 취업 중단 시기는 임신했을 때가 61.3%, 출산휴가 직후가 22.1%임.

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과 비용 총괄

- 미취학아동 중 50.5%는 기관만 다니고 26.9%는 기관과 개인, 9.6%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13.0%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음.
 - 기관 이용은 어린이집 45.1%, 유치원 24.1%, 반일제이상 학원 3.6%, 선교원 0.4%, 시간제 일반학원 12.7%임.
 - 개인서비스는 친조부모 15.2%, 외조부모 16.6%, 친인척 2.9%임.
 - 학습지 이용은 30.5% 수준임.
- 현재 기관 이용 이유는 사회성 발달 28.8%, 전인적 발달 28.3%, 대리보호 12.6%, 초등학교 준비 12.1%,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9.7%, 같이 놀 또래 필요성 3.7%, 예체능 교육 2.6% 순임.
 - 어린이집은 대리보호, 유치원은 전인적 발달과 초등학교 준비, 반일제이상 학원은 초등학교 준비와 예체능 특기교육의 비율이 높음.
 - 현 기관 최초 이용 월령은 37.3개월임. 어린이집 28.3개월, 유치원 51.9개월, 반일제이상학원은 50.5개월임. 이용기간은 어린이집이 14.8개월로 긴 편임.
 - 기관 이용자의 14.3%는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기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함.

－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1순위는 집과의 거리 25.1%, 프로그램 20.8%, 주변의 평판 10.7% 순임. 연령과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입소 전 대기 경험률은 22.6%이고, 기간은 평균 6.4개월임. 입소 대기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3.7%로 다수임.

□ 반일제이상 기관 처음 이용 시기는 평균 37.3개월로 이용시기가 빨라짐.

－ 이용 이유는 사회성 발달 26.9%,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 24.6%임.

□ 정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크게 감소함. 기관 비용은 매우 부담 8.1%, 부담 35.9%로 2009년 조사 결과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은 증가하였음. 가구, 아동 1인 및 기관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총 비용 평균은 261,3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6.6%이고, 비용 지불 가구 평균 비용은 323,0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8.2%임.

• 2009년 조사 시 전체가구 평균은 335,000원으로, 부모 부담이 많이 줄었음.

－ 전체 아동 1인당 평균은 208,7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5.4%이고, 비용 지불 아동 1인당 평균은 274,1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7.1%임. 비용 지불 아동 비율은 76.2%임.,

• 2009년 대비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였음.

－ 기관 이용 총 비용은 161,700원으로 소득 대비 5.0%임. 유치원 193,800원, 어린이집 88,800원, 반일제이상학원 832,300원임. 소득 대비 비율도 어린이집 3.5%, 유치원 6.0%, 반일제이상학원 13.8%임.

• 순보육·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86,900원, 24,800원이고, 학원이 677,900원이고, 영아 6,900원, 유아 114,900원임.

• 추가 비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106,900원, 63,900원이고, 학원이 154,400원이고, 유아 101,800원이고 영아 44,600원임.

• 2009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53,500원이 줄었고, 가구소득 대비 7.7%에서 5.0%로 줄었음.

－ 보호자의 23.5%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고, 그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65,300원임.

- 취약보육은 상시 필요가 시간제 12.1%, 시간연장 7.8%, 24시간 1.2%, 토요일보육 2.5%, 휴일보육 1.7%인데 비하여 이용률은 낮음.
 -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시간제 보육 0.9%이고, 시간연장보육이 0.8%이며, 나머지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0.5% 미만임. 이용기관은 시간제보육은 65.9%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이고 시간연장보육, 토요일보육, 휴일보육은 어린이집 비율이 높음.
 - 아이가 아플 때, 긴급시 돌보아 주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는 비율은 1% 미만임.
-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65.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음. 이전에 비해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짐.
 - 특별활동 의무 수강 비율이 높아, 음악 61.2%, 체육 59.5%, 영어 57.6% 등 무조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별활동은 54.6%만이 오후에만 실시함.
 - 비용은 평균은 66,700원이고 표준편차는 42,700원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61,700원, 68,600원, 반일제이상학원은 123,200원임.
 - 부모들의 특별활동 관련 의견을 보면, 시간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2%, 금액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85.7%, 24개월 미만 영아는 특별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59.4%로 나타났음.
-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기관의 이용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보육·교육기관은 66.2%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29.0%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보다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49.1%로 가장 높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0%임.
 - 아동의 99.1%가 주 5일 이용하고, 평일 평균 7시간 23분으로 2009년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음. 어린이집은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반일제 이상 학원 6시간 31분임.
 - 등·하원 방법은 기관 차량 이용이 54.6%이며, 등원 소요시간은 평균 10.6분임.
 - 기관의 장이 강조하는 내용이 인성지도 52.6%, 균형 있는 발달 13.8%, 안전한 보호 13.2%, 자유놀이 중심활동 9.4%임.

- 부모 서비스 비율은 비교적 높고, 기관 이용으로 양육부담 완화 93.8%,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 88.9%, 육아기술·지식 확대 64.3%, 여가·취미활동 51.9%, 가족갈등 완화 51.1%, 취업 및 구직 36.8% 순으로 도움 된다고 응답함.
- 누리과정은 20.9%는 매우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잘 모른다는 응답은 19.7%임.
 - 누리과정 내용 만족 비율은 44.9%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더 높음.
- 보육·교육기관 건강검진 사전 안내 비율은 어린이집 91.6%, 유치원 86.5%이고, 검진결과 제출은 어린이집 77.0%, 유치원 65.5%임. 건강검진 비율은 어린이집이 81.4%, 유치원은 71.1%임.
- 13개 항목 만족 비율 평균이 어린이집과 반일제이상 학원은 65.1%, 유치원은 66.2%, 기타 기관은 78.7%임. 5점 척도로는 어린이집 3.70점, 유치원 3.74점, 반일제이상학원 3.61점, 기타 4.0점임.
 - 기관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2009년 대비 평균 0.4점 증가함. 13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비용으로 4.0점이 증가하였음.
- 개선사항은 비용이 19.6%로 가장 높고, 시설설비 14.2%, 주변환경 12.3%임.
 - 어린이집은 주변환경과 시설설비, 유치원은 비용이 가장 높음.

4.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 어린이집 이용 아동 1,536명 중 54.7%가 민간개인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머지 19%는 가정어린이집, 16.2%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함.
 - 영아는 민간어린이집이 48.4%, 가정어린이집 34.9%로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은 8.9%로 적음. 유아는 민간어린이집 61.5%, 국공립어린이집 24.7%로 영아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음.
 - 0세는 가정어린이집이 69.2%로 가장 많고, 1세는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43.9%, 46.2%임. 2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이 50% 이상을 차지함.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머니 중 미취업모가 54.1%로 절반 이상이며 취업모 41.5%, 휴직중 3.1%임. 모가 휴직중인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함.
 - 취업모는 0세 아동이 47.1%에서 2세 37.1%로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

을 보임.

- 보육 아동 중 92.8%가 보육료 전액 아동이며, 6.4%는 혜택을 받지 않고 있음.
- 어린이집의 위치는 72.6%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이고, 24.2%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3.1%는 기관과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기관에 다니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사회성 발달이 32.4%로 가장 많고, 전인적 발달 22.2%, 부모 대리보호 18.0%, 양육부담경감 14.3% 순임.
-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는 영아는 20.9개월, 유아 36.8개월로 1년 이상 차이가 남.
- 어린이집 등·하원시각을 보면,
 - 다수인 30.2% 아동이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등원하고, 9시에서 9시 30분은 26.9%, 8시 이전은 9.1%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30%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며, 27.5%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원하고 있음.
 -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은 11.9%이며,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귀가 하는 비율은 10%임.
-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63%이고 37%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는 제공 빈도와 종류에서도 개선됨.
 - 연간보육계획표는 매주 1회가 74.6%, 급간식식단 월 1회 65.5%, 가정통신문 매주 1회가 46.7%, 매일 45.1%, 자녀발달평가는 연 1~2회가 21.6%, 부모상담 연 1~2회가 48.3%, 부모교육 자료는 월1회가 28.9%임.
 - 부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통신문이 3.88점으로 가장 높고, 급간식 식단 3.86점, 보육계획표 3.83점, 자녀발달 평가 3.85점, 부모상담 3.78점, 부모교육 3.72점 순으로 높음.
- 누리과정 이용부모는 누리과정에 대해 76.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안다는 경우에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47.3%만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만족도는 평균 3.4점으로 보통 수준임.
 -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이나 기존과정과의 차이, 만족도는 도시보다 읍·면지역

이 낮음.

- 어린이집 정보 중 부모들은 수입지출 정보 92%, 규정위반 87.3%, 운영위원회 80.3%, 평가인증 점수 78.9%, 사고발생 76.8% 순으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음.
 - 부모 94.1%가 사고발생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피시설 89%, 규정위반 86.9%로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긴급 상황시 또는 아이가 아플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1.7%, 1.1%로 매우 낮음.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66.6%가 특별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특별활동수는 평균 3.2개로 영아 2.8개, 유아 3.4개임.
 - 2세미만아 특별활동 비율은 0세아 5.8%, 1세아 36.8%임.
 - 유아보다 영아가 의무적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 특별활동 비용 지불시 금액은 2012년 기준 영아 54,000원, 유아 66,800원, 전체 61,700원임.
-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총 비용은 88,800원이며, 월보육료는 24,800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은 64,000원임.
 - 추가 비용 지불 아동 기준으로 항목별로는 특별활동비 51,200원, 교재비 8,600원, 급간식비 7,000원, 현장학습비 18,900원을 매월 지불함.
- 어린이집 만족도는 13개 항목에서 5점 평균으로 3.4~3.9점을 나타냄.
 - 교사, 원장, 교육내용은 4점에 가깝고 내부 분위기, 안전관리, 급간식관리, 건강관리 등도 만족도가 높지만, 부모참여는 평균 3.49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비용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60.9%, 불만족 비율은 9.6%임.
 - 2004년, 2009년과 비교할 때 비용 만족도는 5.67점 상승하였으나 원장, 교사, 내부분위기,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부모교육 및 상담 만족도는 감소함.
- 어린이집 개선사항으로 실내설비 및 실내환경이 15.2%로 가장 높고, 주변환경 13.2%, 비용 12.5%, 부모참여 10.6% 순으로 많음.

5. 유치원 이용 및 요구

- 조사대상 유아 744명 중 30.2%는 국공립유치원, 69.8%는 사립유치원을 다님.
 - 연령별로는 3, 4세는 사립유치원, 5세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높음.
 -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40.3%, 읍면지역 거주는 20.3%임. 공립유치원 취업모 비율이 사립유치원 취업모 비율에 비해 더 높음.
- 대도시에서는 같은 동·읍·면에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이 79.5%, 중소도시는 63.0%, 읍·면지역은 81.1%로 조사됨.
 - 읍·면은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 소재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14.0%나 됨.
- 유치원에 다니는 이유는 37.3%가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7.1%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25.2%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임.
 - 5세는 초등학교 준비 이유가 42.5%로 높고, 4세는 전인적 발달 39.9%, 3세 아동은 전인적 발달 44.6%, 사회성 발달 33.3%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유치원 최초 이용시기는 평균 생후 52개월경임.
 - 사립유치원 입학 시기는 50.8개월이고,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55.8개월임.
- 유치원 이용 기간은 평균 12.2개월로 국공립 9.6개월, 사립유치원 13.0개월임.
- 등·하원 및 이용시간 등은 다음과 같음.
 - 전체의 6.2%가 8시 이전에 등원함. 다빈도 등원시각은 8시 30분에서 9시임.
 - 전체 78.1%의 아동이 오후 5시 이전에 귀가함.
 - 유치원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이며,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조금 길어짐.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30~40분 김.
 -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7시간 56분, 미취업모 6시간 39분임.
 - 등원방법은 기관 차량 63.4%, 자가용 9.4%, 보호자 동반 도보가 24.4%임.
 - 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교사가 동승하는 비율은 96.6%임.
- 유치원 선택 이유는 프로그램 중시가 27.1%로 가장 높고, 집과의 거리 20.4%, 주변의 평판 12.2%, 교사 8.5% 등의 순임.

- 유치원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65.8%가 인성지도이고, 균형있는 발달, 자유놀이 중심활동, 안전한 보호 등의 순으로 많음.
- 68.8%가 특기활동을 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한다는 비율이 높아짐. 특별활동 평균 개수는 2.7개임.
 - 프로그램별로 영어 66.2%, 미술 52.4%, 체육 44.8%, 음악 27.1%, 교구 25.2%임.
 - 특기활동을 오후에만 하는 비율이 68.2%이지만, 오전과 오후 15.3%, 오전에만 9.7%로 오전 실시도 상당함.
 - 특기활동 월평균 비용은 68,600원으로 3세 57,900원, 4세 66,200원, 5세 74,500원으로 연령과 함께 높아짐.
 - 특기활동 운영 제한으로 특기활동 비용 상한선이 86.9%로 가장 많이 지지됨.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71.1%, 건강검진 사전안내는 86.5%이고 65.6%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누리과정 내용 인지 비율이 82.2%임. 특히 대도시 유치원 부모가 가장 높음.
- 유치원 학비 지원 비율은 82.4%로 과반수가 전액지원을 받고 있음.
- 일반 아동 교육비는 월 193,800원임. 순교육비 86,900원이고 추가비용 106,900원이며 가구소득대비 6.0%임.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는 평균 36,000원이고, 사립유치원은 241,400원임.
 - 추가 교육비로 월평균 특기교육비 42,600원, 교재비 18,000원, 급간식비 20,800원 종일반비 9,100원, 현장학습비 14,000원을 내고 있음.
 - 유치원 교육 비용에 대하여 56.7%가 부담된다는 응답을 함.
- 조사된 항목들에 대해 만족 비율은 평균 66.3%임.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교사였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부모교육 및 상담임.
 - 유치원 비용에 대해 만족한다가 44.8% 정도이고 18.6%는 만족하지 못함.
- 개선 요구사항 1위는 비용이고, 다음은 시설설비와 실내환경으로 각각 29.4%와 11.5%임. 다음 순으로는 주변환경과 급간식 관리가 있음.
 - 국공립유치원은 시설설비·실내환경, 사립유치원은 비용에서 개선요구가 높음.
 - 부모는 97.7%가 양육수당을 주더라도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함.

6.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반일제 유사 보육·교육기관 이용하는 경우는 조사아동의 5.4%로 나타남.
 - 영어학원(영어유치원) 3.6%, 미술학원 등 1.3%, 선교원 0.5%로 조사됨.
 -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일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며, 영어학원의 경우 특히 그러함.
 - 반일제 이상 교육서비스는 유아가 90% 이상 대다수임. 영어학원은 5세, 미술학원은 4세, 선교원은 5세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음. 만2세는 10% 미만의 이용률을 보임. 미술학원과 선교원은 2~3세 이용률이 영어학원보다 높음.
-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의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더 많음.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과 특기교육 등을 위해 자녀를 기타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에 보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기관 선택의 주 요인임.
- 주 하원시간대가 오후 2~4시, 평균 이용시간 6시간 25분임.
- 월평균 교육비는 영어학원 약 90만원, 미술학원 약 63만원, 선교원 약 35만원임.
- 부모 대상 정보 및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편이고, 특별활동 이용 아동 중 약 1/3 정도가 하며, 특별활동 수는 평균 3개 정도임.

7.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37.2%이며, 단독 이용 비율은 11.3%임.
 - 전체로는 영아 40.8%, 유아 33.5%, 단독 이용은 영아 22.1%, 유아 0.5%임.
 - 서비스 제공자는 0세아의 경우 혈연인은 비동거 친인척이 52.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동거·비동거 조부모가 48.1%이며, 비혈연인으로는 육아전문 파견인력이 35%로 가장 높음.
 - 혈연 단독 이용은 영아 20.9%, 특히 0세아 31.7%로 높음.
 -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수는 평균 1.7명임.
 -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는 너무 어려서 기관 적용이 힘 들까봐가 68.5%임.
- 혈연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혈연 양육자는 비동거 외조부모가 37.1%, 비동거 친조부모 22.8%, 동거 친조부모 18.9%, 동거 외조부모 15.0% 순으로 나타남.
 - 비동거 외조부모 비율은 영아 41.2%, 유아 33.2%로 영아가 높고,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높음.
 - 기관 병행 이용이 68.7%로 다수이며 혈연 단독 이용이 30.3%임.
 - 0세아는 혈연 단독 이용 비율이 87.6%이지만, 점차 기관 중복 이용이 늘어나 3세 이상이 97~98%임.
 - 이용 빈도는 불규칙적 이용이 55.1%, 월~금요일 24.9%, 월~일요일 10.3%임.
 - 서비스 장소는 아이 집이 71.1%이고,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집과의 거리는 도보로 10분 이내가 42.4%임.
 -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이고, 정기적 지불은 24.2%임.
 -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은 약 287,500원임. 비동거 외조부모가 약 34만원, 비동거 친조부모 약 27만원, 동거 외조부모 약 25만원, 비동거 친인척 약 21만원, 동거 친조부모 약 2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월 평균 비용은 영아 324,000원, 유아 241,300원임.
 - 만족도는 이용시간이 5점 만점에서 4.1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용 4.02점, 양육 공간 3.97점이며 양육 방식은 3.79점으로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양육 방식과 양육 공간 부문에서 영아 부모 만족 비율이 73.7%, 86.5%로 유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는 파출부·이웃보육모가 27.4%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이 아이돌보미 26.0%, 기타 20.5%, 베이비시터 13.7%, 동거 비혈연 11.0% 순으로 조사됨. 이용 실태와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소개 경로는 사설 인력 전문기관 29.7%, 지인의 소개 29.3%, 평소 알던 사람 25.6%, 인터넷 8.4% 순임.
 - 비혈연인은 한국인이 87.9%이고,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4.9%, 아이돌보미는 자격증 소지자는 22.3%, 사설업체 교육 이수자는 15.8%임.
 -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이 55.2%이며, 비혈연 단독 28.8%, 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12.3% 순으로 나타남.

- 0세아는 단독 이용이 74.9%인 반면 유아는 기관 중복 이용이 84.4%임.
- 이용 빈도는 월~금요일이 57.4%, 불규칙적 24.0%, 월~토요일 11.5% 순임.
- 서비스 장소는 아이 집이 64.2%이고, 비혈연 양육자의 결근 시에는 친인척에 부탁하는 비율이 58%이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42.0%임.
- 비용은 정기적 지불이 75.0%이며, 지불 안함 20.8%, 현물로 지급 2.8%임.
- 월평균 비용은 579,600원임. 과출부·가사도우미 120만원, 동거 비혈연 약 78만원, 베이비시터 약 87만원, 이웃 보육모 약 52만원, 아이돌보미 약 38만원임.
- 만족 비율은 전문성이 52.6%로 가장 낮고, 이용시간이 86.7%로 가장 높음.

8.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 시간제 학원 이용률은 20.4%이고, 학습지 이용 아동은 30.5%, 교재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4%, 예체능 개별지도는 0.7%임.
 - 연령별로 5세아는 48.5%, 4세아 25.1%, 3세아 14.2%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함.
 - 시간제 학원과 학습지 모두 영아보다 유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시간제 학원은 대도시와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이용률이 높으며,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 중 반일제 기관 미이용 아동 비율은 5.2%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45.2%, 유치원 이용 43.3%, 반일제 이상 학원은 5.8%가 이용함.
 - 어린이집은 영아 72.6%, 유아 40.3%, 유치원은 영아 1.9%, 유아 50.7%가 이용함.
-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영아 90.1%와 유아 68.9%가 학원을 이용하지 않음.
 - 프로그램 수는 1개가 15%, 2개 4.3%, 3개 이상은 1.1% 정도임.
 - 읍·면지역이 미이용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이 이용 프로그램 수가 많음.
 -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임.
 - 프로그램 종류는 체육이 5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미술 32.0%, 음악 23.9% 순임. 0세는 영유아교육전문프로그램 46.0%로 가장 높음.
 - 영어는 연령과 함께 급격히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5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특히 음악,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음. 0세 영아도 미술, 음악, 체육, 언어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4.03시간으로 1~2시간 41.8%, 5~6시간 33.6%, 3~4시간 10.9% 순으로 많음.
 - 5세 아동은 15%가 9시간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별 비용은 영어 137,800원, 음악 80,000원, 체육 79,000원, 수학 77,300원 등의 수준임. 프로그램 만족도는 수학이 4.1점으로 가장 높음.
- 개별 교육서비스 이용자는 조사대상 3,343명 중 33.8%로, 이들 중 학습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91.6%로 대부분이고, 예체능 교육은 1.4%,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13.9%, 인터넷 교육은 0.4%임.
- 개별교육을 받는 0세 아동 중 44.4%는 학습지를 하고, 62.5%는 교재교구를 함. 1세는 교재교구 교육 비중이 줄고 대신 학습지 이용이 65.7%로 늘어남. 3세 이상은 학습지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예체능 교육 비율도 조금씩 늘어남.
 - 개별교육 이용 개수는 1개가 15.5%, 2개 13.5%, 3개 이상이 5% 미만임. 안한다는 비율이 66.2%로 절반 이상 됨.
- 각 교육 서비스별로 교육서비스 형태를 보면, 학습지의 경우 98.6%는 개인교육 형태, 예체능의 경우 87.5%가 개인교육 형태임.
- 개별교육 월평균 비용은 65,890원이고, 예체능 81,300원, 교재교구 75,800원, 학습지 58,600원임.
- 연령별로는 이용 비율이 0세에서는 1.2%, 1세는 13.7%, 2세는 28.9%, 3세는 45.8% 정도이고 4세와 5세는 각각 52.2%, 64.2%임.
- 만족하는 비율은 학습지 72.7%, 예체능 83.7%, 교재교구 교육 89.6%, 인터넷교육 71.2%임. 교재교구나 학습지에 대해 2.8%는 만족도가 낮다는 반응임.

9. 보육·교육 정책 인지 및 의견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어린이집 36.9%로 유치원 49.4%보다 10%p 이상 높음. 특히 읍·면지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반면 믿고 보낼만한 기관이 있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72.5%, 유치원 61.9%임.

- 제도 및 정책 인지도는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임
 - 공공형 등 공인어린이집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54.2%이고, 인지자 중 국공립어린이집 질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0.7% 수준임.
 - 시간제 돌봄, 영아 정기 돌봄 인지율은 각각 59.4%, 55.2%이고, 실제 이용 경험은 각각 4.6%, 2.1%로 낮았으나, 필요성 의견은 모두 60% 이상임.
 -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도는 영아 및 5세 누리과정 지원, 양육수당이 각각 95%, 82%, 72%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보임. 3~4세 누리과정 확대는 51.5%로 가장 낮음.
- 2012년 현재 보육·교육비 지원의 수혜율은 0~4세 지원 52.2%, 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17.8%, 양육수당 3.9%, 지방정부 수당 3.7%, 다문화가족자녀 무상보육 1.7%,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0.6%, 장애아 무상보육 0.2%임.
 - 양육부담 완화에의 도움은 다문화 영유아 무상보육 96.2%, 0~4세 지원 94.8%, 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94.1%, 양육수당과 장애아 무상보육 81.8%로 나타남.
- 개별 정책 만족도는 영아 무상보육 38.6%, 5세 누리과정 지원 33.3%, 누리과정 3~4세 확대 9.8%, 0~2세 양육수당 확대 6.9%임.
- 전 계층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26점으로 만족 53.3%, 불만족 32.4%임. 영아, 읍·면지역, 미취업 가구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불만족 시 이유는 형평성 부족이 68.2%로 가장 높고,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3.9%, 무상보육 실효성 7.3% 등임.
- 조사대상 가구 중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3.1%, 그 동안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출산 결정과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23.7%, 완전 무상보육 실현 시 추가출산 의도가 있다 17.4%로, 저출산 극복에 보육료 지원이 영향력을 가짐을 나타냄.
 - 영아 부모, 대도시지역, 미취업모, 가구소득 중하층에서 긍정적 경향을 보임.
- 아동 양육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80.5%,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18.4%로 부모 우선 책임 의견이 대세임.
 - 국가 우선 책임 의견은 영아, 대도시, 미취업모, 저소득일수록 비율이 높음.
-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비 현금 지원, 서비스 질 향상, 다양성 확보임.

-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는 상한선 부여 62.1%, 정부 결정 31.9%로, 정부의 보육료 제한 의견이 대다수임.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로 적음.
- 육아정책 추진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는 없다가 과반수 이상이고, 있다는 30% 이상임. 추가 세금 부담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유아 부모, 도시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음.

10. 보육·교육기관 이용 수요 추정

- 앞으로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대하여 20.2%는 어린이집만 이용, 27.5%는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8.5%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7%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고 하였음.
- 각 세별로 1월 1일 기준 월령의 희망 이용률과 실제 이용률을 이용하여 보육·교육기관 수요를 추정하였음.
 - 어린이집은 0세아가 15.9%, 1세아는 11.3%의 미충족 수요가 있으나, 2세는 수요 대비 0.5%, 3세는 6.4%, 4세는 5.1%가 희망하는 비율보다 실제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5세는 이용률과 수요율의 차이가 거의 없음.
 - 유치원은 3세가 8.7%, 4세는 6.2%의 미충족 수요가 있고, 5세는 이용률과 수요율의 차이는 0.4%p에 불과함.
 - 기타 기관은 1세아는 이용률과 수요가 동일하고 2세는 0.6%, 3세는 0.2%, 5세는 0.6%의 미충족 수요가 있고, 4세는 이용이 수요에 비하여 0.4%p가 높음.
-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약 13만 2천 정도의 보육·교육 추가 공급이 요청됨.
 - 보육은 전체적으로 69,400명 정도의 추가 보육수요가 있는데, 0,1세가 121,421여명 추가 수요이고, 2세 이상이 52,000여 명의 마이너스 수요가 발생한 결과임.
 - 추가 유아교육 수요는 64,78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유아교육 수요에 영아 포함 시 86,000여명임.
 - 기타 기관은 4,890명의 추가 수요가 있음.

11. 정책제언

□ 조사결과에 의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유아의 어린이집 수요-공급 정책은 유치원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보육정책은 보편성과 선별성이 조화를 이룬 정책 추진이 요청됨.
-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높은 공공 보육·교육기관의 전국 균형 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높이고 각종 지원이나 운영기준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도록 함.
- 보육서비스는 모의 취업 등 가정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공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지역사회 보육정보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부모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관 역할을 하도록 함.
- 민간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파견보육서비스 제공자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하고 관리함.
- 특히 취업 부모를 중심으로 혈연 개인서비스 이용과 요구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함.
- 취약보육은 거점형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수요자가 모이도록 유도함.
-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지침이 지켜져야 하며, 특별활동 중 보육교사가 과정에 포함하여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 건강검진 및 영양 및 안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교육 체계를 갖추어 교육을 강화함.
- 부모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특히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우선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인증 결과 세부 내용을 비롯한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확대함.
- 주 5일제 근로 정착과 더불어 운영일수와 운영시간 기준을 재조정함.
- 부모 대상 정보 및 자료 제공 서비스를 강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조사의 배경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33만 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3년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를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 매 5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4년과 2009년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 결과, 5년의 간격을 둔 조사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004년, 2009년에 전국 단위의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 기초 자료를 생산하여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부각된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처음으로 보육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보육 수요율을 추정하여 보육정책에 활용하였으며,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보육 수요율 추정 이 외에 2004년 대비 부모 비용 부담의 경감과 특별활동의 증가 등 보육비용 증가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재정 지원이 2004년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므로 2009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간 보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여 이후 보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부모의 비용 부담, 만족도, 정책요구도 등이 기초자료들이 이후 비용지원 확대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에 기초가 되었다.

최근 들어, 보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투입되는 재정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5세 누리과정과 0~2세 무상보육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3, 4세 누리과정과 0~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 확대가 예정되고 있어서, 2013년에는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예산이 GDP 대비 1%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육예산 증가와 더불어 보육정책이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

로 부상하면서 부모 등 각 관계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 또한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어린이집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자, 즉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모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갑자기 결정되어 도입된 0~2세 무상보육은 보육서비스 대체 양육수당 확대 등 영아 양육지원 전반에 관한 논란을 야기시키면서 영아기의 자녀양육의 중요성,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선택권 보장,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육정책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만큼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제 보육정책은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 대상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는 전 연령, 전 계층 무상보육이 예상되는 둔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보육실태와 요구의 반영을 통해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등 보육실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더 요청되는 시점이었다. 보육·교육 실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자료 토대 위에 정책을 추진하여야만 부모들의 다양화된 보육·교육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정책은 부모와 아동의 각기 다른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조사를 통한 보육 실태와 요구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나. 조사의 목적

2012년 보육실태조사는 아동 부모의 다양한 보육·교육 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비용,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요구 파악 등 보육 공급과 이용, 운영 전반에 걸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가 부모, 아동 및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용 효율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구조사는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총 18종의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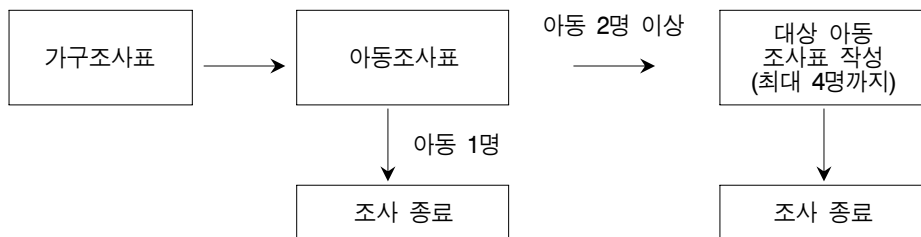
넷째, 보육과 유아교육 이용 의사를 파악하여 수요율을 추정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 절차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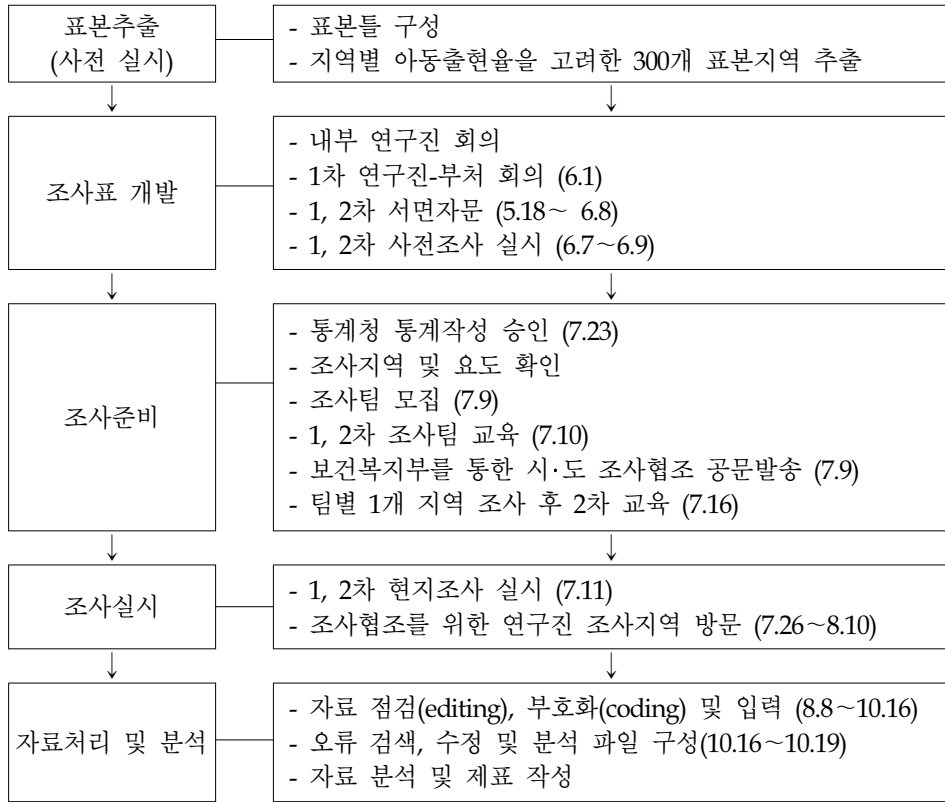
본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 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아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조사는 아동별로 실시하므로 가구내 해당 아동 수만큼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가구조사나 아동조사의 응답자가 동일하고, 특히 조사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반복되는 조사로 조사시간이 길고 응답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조사는 각 조사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유의하도록 하였다.



[그림 1-2-1] 가구조사 진행 절차

본 가구조사는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조사표 개발, 조사 준비, 현지 실사, 자료 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었다(그림 1-2-2 참조).



[그림 1-2-2] 조사 추진 일정

나. 조사 내용

1) 가구조사

조사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이를 모두 포함하되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의 수가 없도록 하였다. 조사표는 연구진, 자문위원 및 관련 부처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한 수정·보완 이외에도 지도원이 하루 동안 현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오류를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는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 보육·교육에 관한 의견, 다문화가정 여부 파악,

영유아 자녀의 보육·교육 이용 실태의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원의 특성으로는 가구원의 성명, 최연소 아동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월 수입,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고,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가구원수, 보육대상 아동 수, 집의 유형, 집의 소유, 주 수입원, 월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지출액 등을 조사하였고, 보육 정책 인지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부모의 특성, 다문화 가정 여부를 파악하였고, 각 아동별 18종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을 조사하였다.

〈표 1-2-1〉 가구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I. 가구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이름, 대상 아동과의 관계, 성, 연령(생년월일, 만나이) · 교육정도: 학교, 졸업여부 · 결혼상태 ·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여부 · 경제활동: 부모의 활동분야,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주말 근무 여부, 모의 미취업 이유 및 계획 · 소득: 가구소득 · 어머니의 일 가정 양립 관련 애로 등
II.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정서 ·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 · 양육지원서비스 유형 · 보육정보센터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III. 보육·교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 정부 비용지원 수혜 여부, 도움 정도 ·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 육아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책임분담, 무상보육 정책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 보육료 상한선 폐지 여부 의견 · 공인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인지 여부 · 아이돌보미 이용 여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 충분 여부 · 어린이집 관련 부모 활동 참여 및 도움, 앞으로 참여 의향 여부
IV. 아동 보육 및 교육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보육자: 부, 모, 조부, 조모,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 이웃모, 베이비 시터 등 · 이용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

(표 I-2-1 계속)

구분	내용
V. 다문화 가정 특성	· 부모 출신국, 양육의 어려움, 자녀발달지원서비스 수혜 유형
VI. 가구 특성	· 일반현황: 가구규모, 세대구성 · 가구유형: 편부모, 조부모 여부 등 · 아동수: 36개월 미만 영아, 3세 이상 미취학 유아, 그 이상 · 주거: 주택 형태, 소유형태 · 가계경제: 가구의 주 수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월평균 가구 총 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액 · 취업관련: 취업 경력 및 특성, 취업시간, 소득 · 육아지원: 육아지원 가능 친인척 여부, 인근 거주 여부, 애로사항 등
VII. 기타	· 추가 출산: 추가출산 계획, 시기, 추가 출산자녀수, 미계획 시 이유,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출산 계획, 보육 및 교육비 전액 지원 시 추가 출산 계획 · 보육교육비 지출 시 줄이는 생활비, 비목

2) 아동조사

아동 조사표는 보육·교육 이용 경험, 영유아의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현재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학원 이용,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활용 교육 이용, 영유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I-2-2〉 아동조사 내용

구분	내용
I. 생활시간조사	· 평일 아동 활동시간과 이용기관, 돌보는 사람 시간 단위 조사
II. 기관별 이용실태	1. 이용 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방과후 보육 · 시설의 물리적 환경: 위치 · 시설의 인적 환경: 교사 자격, 자질, 태도, 철학 등 · 시설 특성: 운영상 강조점, 시설 개방성, 특기교육, 건강·영양·안전 및 부모서비스 제공 등
	2.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및 기간, 최초 이용시기 · 등하원 방법 · 비용: 규모 및 부담 정도, 부가비용, 적정 비용 · 평가: 이용 사유, 선택 시 고려사항, 항목별 만족도, 요구도, 이용 효과 평가, 계속 이용에 대한 태도, 부모참여정도 등

(표 I-2-2 계속)

구분	내용
III. 비공식서비스 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육 제공자: 이웃모, 베이비시터, 기타 친인척 등 · 보육시간 · 비용: 이용료 및 부담정도 · 평가: 기관 불이용 사유, 비공식서비스 계속 사용 여부, 보육이용 시 어려움, 건강·영양·안전 등 만족도, 애로사항, 희망사항 등
IV. 과거 이용 경험	· 기관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기간, 중단시기, 중단사유 등
V. 향후 이용 욕구	· 서비스별 희망이용 여부 및 희망 시기, 이용기간, 이용희망 사유 등
VI. 육아관련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경험, 연령별·시기별 이용희망 서비스 · 향후 보육기관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 · 적정보육비용, 정부제도의 인지 여부

먼저 과거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방과후보육 등 보육·교육 기관별 이용 경험을 조사하고, 이어서 현재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종류를 30분 단위로 조사하며, 기관 및 개별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자), 이용 사유, 이용 기간, 이용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부모서비스, 특별활동 관련사항,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미취학 아동이 향후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 의사를 월 단위로 조사하였다. 이외에 특기교육 등 교육 중심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다. 표본추출

1) 모집단 정의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2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0~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고, 조사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이다. 본 조사에서는 섬 및 특수시설 조사구는 제외하였다.

2) 표본규모

표본의 규모는 전국 300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65가구를 조사하며 조사구내 아동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동보육 수요율을 약 16.7%(2009년 평균)로 추산할 경우 총 2,500가구를 조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층별 아동보육 수요율을 기초로 허용오차 5.3%를 만족하는 규모로서 다음

의 산식으로부터 계산된다.

$$n = \frac{N \sum_h^H N_h P_h Q_h}{N^2 V' + \sum_h^H N_h P_h Q_h}$$

여기서 $V' = d^2/4$ 이며, d 는 목표허용오차, P_h 는 h 층의 모비율이다.

3) 표본설계의 기본 방향

전국보육실태조사는 가구단위 조사로서 조사 관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 및 가구를 1차 및 2차 추출단위로 고려하였다. 층화기준은 전국을 7대시 및 기타 시와 읍·면부로 구분하고, 조사구 유형(일반, 아파트)을 함께 고려하여, 전국의 0~5세 이하의 아동 분포에 따라 표본을 층별로 다음과 같은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다.

〈표 1-2-3〉 표본추출단계

표본추출단위	층화 변수	표본추출방식	표본수	허용오차
조사구	1) 지역(7대도시, 기타시, 읍·면부) 2) 조사구유형(일반, 아파트)	확률비례추출	300조사구	±5.3%
가구	- 조사구 내 가구	계통 추출	19,500가구	

4) 층별 표본규모의 결정

표본규모는 전국 300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 조사구내에서 65가구를 기준으로 65가구 이하는 추가 조사구를 이용하고, 65가구 이상은 계통 추출하도록 하였다.

〈표 1-2-4〉 층별 표본 규모

층	모집단		표 본		
	조사구수	가구수	조사구 추출확률	표본 조사구수	조사대상 가구수
1. 7대시 일반	74,823	4,272,936	0.000989	74	4,820
2. 기타시 일반	51,224	2,881,060	0.000996	50	3,250
3. 읍·면 일반	43,169	2,309,268	0.000996	43	2,770
4. 7대시 아파트	59,820	3,607,375	0.000986	59	3,840
5. 기타시 아파트	57,424	3,456,383	0.000993	57	3,710
6. 읍·면 아파트	16,733	930,444	0.001016	17	1,110
전 체	303,193	17,457,466	0.000993	300	19,500

5) 표본의 대체

2010년도 인구 주택총조사 당시에 확정된 조사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2012년 현재 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라. 현지방문조사 실시

1) 조사준비 절차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전문조사원이 담당하였다. 인원은 지도원 14명과 조사원 42명으로 전체 56명이었다.

조사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본 조사에 앞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2012년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교육 자료는 조사 목적과 조사표 각 문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조사지침서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외에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 현지조사에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현지에서 조사한 조사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지역에 머무는 동안 가구를 재방문하여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이 조사 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중에서 팀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전체 조사기간의 한 달을 넘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각 시·도 및 조사구 관할 시·군·구에 조사 협조를 요청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조사에 사용할 조사표를 조사 협조공문과 함께 미리 조사구 관할 동·읍사무소에 우송하여 보관토록 하였다. 조사구에 도착한 지도원과 조사원은 먼저 관할 동·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인수하고 조사구 요도를 복사하여 통·반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가구수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이 끝나면 지도원은 통반장을 방문하여 조사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에게 조사지역을 할당하였다.

조사원은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도원은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사표 문항의 응답결과를 점검하고 누락사항이 발견되거나 조사표상의 논리가 맞지 않을 경우 재방문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가구명부의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도원에 의한 조사지도 이외에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 주요 지도·감독 내용은 조사지역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상태 파악, 조사 내용 중 보육·교육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이었으며, 이외에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 등이다.

3) 현지조사 결과

주어진 300개 표본조사구에서 실제로 현지 조사한 결과 조사된 296 조사구 내의 총 가구수는 18,465가구이었으며, 이 중에서 영유아 가구는 3,099가구이었고, 이중 2,528가구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본조사구 전체적인 가구조사 완료율은 81.6%이다. 대도시의 동이 85.9%이고 기타 시의 동이 78.7%이며 읍과 면¹⁾이 각각 80.1%, 78.7%이다. 기타 시의 동과 면에서 가장 조사 완료율이 낮았다.

그 결과 2,528가구에서 조사된 영유아 수는 모두 3,343명이다.

〈표 1-2-5〉 지역별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표본 및 완료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조사구	가구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수	
		2010년 센서스 가구수	2012년 가구수	조사 가구수	완료율	가구	아동
대도시의 동	134	7,915	8,361	1,192	85.9	1,024	1,309
기타 시의 동	104	6,402	6,496	1,293	78.7	1,017	1,364
읍	22	1,247	1,450	267	80.1	214	285
면	36	2,137	2,158	347	78.7	273	385
계	296	15,583	18,465	3,099	81.6	2,528	3,343

1)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특별시 및 광역시 동부는 대도시, 각 도 동부는 중소도시, 읍부 및 면부는 읍·면으로 표기하였음.

<표 I-2-6>은 시·도별 조사가구 완료율, 응답 가구 및 아동수를 나타낸다. 가구조사 완료율은 평균 81.6%로 경기, 울산이 8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낮았다.

조사된 가구 및 아동수는 2,528가구 3,343명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024가구 1,309명, 중소도시 1,017가구 1,364명, 읍·면 487가구 670명을 조사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각각 731가구 아동 982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조사된 가구의 최연소 아동 연령은 <표 I-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2012년 출생아를 포함하여 최연소 아동 연령이 0세아인 가구 797가구, 1세아 가구 472가구, 2세 326가구, 3세아 317가구, 4세아 324가구, 5세아 292가구이다.)

<표 I-2-6> 지역별 조사와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단위: 가구, 명, %

구 분	조사 완료			응답 가구 및 아동							
	조사대상 (A)	조사완료 (B)	조사완료율 (B/A*100)	가구조사				아동조사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3,099	2,528	81.6	2,528	1,024	1,017	487	3,343	1,309	1,364	670
서울	437	370	84.7	370	370	-	-	462	462	-	-
부산	121	102	84.3	102	102	-	-	126	126	-	-
대구	202	184	91.1	184	184	-	-	238	238	-	-
인천	141	124	87.9	124	124	-	-	156	156	-	-
대전	91	80	87.9	80	80	-	-	111	111	-	-
광주	107	87	81.3	87	87	-	-	119	119	-	-
울산	163	130	79.8	130	77	-	53	167	97	-	70
경기	945	731	77.4	731	-	574	157	982	-	768	214
강원	8	8	100.0	8	-	-	8	12	-	-	12
충북	85	77	90.6	77	-	63	14	105	-	86	19
충남	167	115	68.9	115	-	58	57	149	-	75	74
전북	122	76	62.3	76	-	64	12	104	-	89	15
전남	130	113	86.9	113	-	40	73	164	-	57	107
경북	129	105	81.4	105	-	68	37	142	-	89	53
경남	225	201	89.3	201	-	125	76	268	-	162	106
제주	26	25	96.2	25	-	25	-	38	-	38	-

2)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이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지역별로 수치가 달라짐.

〈표 1-2-7〉 지역별 가구 최연소 아동의 연령

단위: 가구(%)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세	318	(39.9)	334	(41.9)	145	(18.2)	797	(100.0)
1세	200	(42.4)	176	(37.3)	96	(20.3)	472	(100.0)
2세	127	(39.0)	128	(39.3)	71	(21.8)	326	(100.0)
3세	131	(41.3)	128	(40.4)	58	(18.3)	317	(100.0)
4세	121	(37.3)	137	(42.3)	66	(20.4)	324	(100.0)
5세	127	(43.5)	114	(39.0)	51	(17.5)	292	(100.0)
소계	1,024	(40.5)	1,017	(40.2)	487	(19.3)	2,528	(100.0)

주: 연령은 1월 1일 기준이며, 총계에는 연령 미상 포함됨.

<표 1-2-8>은 지역 및 연령별로 실제로 조사된 아동수를 나타낸다. 영유아 연령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012년 출생아를 포함하여 영아 1,574명, 유아 1,769명으로 영유아 총 3,343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유아는 대도시 1,309명, 중소도시 1,364명, 읍·면이 670명이다.³⁾

〈표 1-2-8〉 지역별 연령 및 아동수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세	213	(40.8)	216	(41.4)	93	(17.8)	522	(100.0)
1세	227	(39.4)	245	(42.5)	104	(18.1)	576	(100.0)
2세	186	(39.1)	174	(36.6)	116	(24.4)	476	(100.0)
3세	186	(39.5)	196	(41.6)	89	(18.9)	471	(100.0)
4세	205	(37.2)	239	(43.4)	107	(19.4)	551	(100.0)
5세 이상	292	(39.1)	294	(39.4)	161	(21.6)	747	(100.0)
소계	1,309	(39.2)	1,364	(40.8)	670	(20.0)	3,343	(100.0)

마. 조사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표는 오른쪽에 마련된 부호화 난에 응답결과를 기록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조사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호화에 대한 확인 작업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3) 가중치 미부여이고, 가중치를 부여하면 지역별로 수치가 달라짐.

부호화가 완료된 조사표는 전산화 입력 작업이 실시되었고,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조사전문가에 의해 자료의 정확도를 검사하여 자료를 수정하는 세척 작업(data cleaning)이 실시되었다. 자료세척 과정에서는 문항간 논리적 모순 여부와 최소, 최대값이 범주 안에 있는지 여부를 주로 점검하여, 조사, 부호화와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전산화된 자료의 수정 작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자료에는 가구 및 아동단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층화하여 표본 조사구 지역적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본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조사구의 추출확률을 기준으로 기본 가중치를 부여하고, 2차로 조사구 내에서 가구조사 완료율과 아동조사 완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역별 가구 수 및 인구수에 따라 조정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었다. 조사자료 분석방법은 기술분석과, 집단간 분포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교차분석(χ^2)과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규명하는 F 및 t값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바. 조사결과 추정

1) 가중치 계산

각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 규모에 따라 모집단 층으로부터 추출된 단위들의 추출확률(p_{hij} : sampling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hij} = p_{hi} \times p_{hj(i)} = \frac{n_h}{N_h} \times \frac{m_h}{M_{hi}} = \frac{n_h m_h}{N_h} \times \frac{1}{M_{hi}}$$

비례배분 하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가중치(w_{hs} : sampling weight)는 다음과 같다.

$$w_{hs} = \frac{1}{p_{hij}} = \frac{N_h}{n_h m_h} \times M_{hi}$$

한편 추출가중치 이외에 조사과정의 무응답, 모집단의 변동을 고려하여 최종가중값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w_{hij} = w_{sh} \times w_{hr} \times w_{ph}$$

w_{rh} 는 무응답 조정 가중값, w_{ph} 는 사후조정 가중값을 나타낸다.

2) 추정

가) 아동의 보육수요율 추정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전국 아동의 보육수요율(P)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hat{P}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여기서 y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보육서비스 아동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hat{V}(\hat{P}) &= \sum_{h=1}^H \hat{V}_h(\hat{P}), \\ \hat{V}_h(\hat{P})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e_{hi.} &= \left(\sum_j w_{hij} (y_{hij} - \hat{P}) \right) / \sum_h \sum_i \sum_j w_{hij}, \\ \bar{e}_{h..} &= \left(\sum_{i=1}^{n_{hi}} e_{hi.} \right) / n_h. \end{aligned}$$

여기서 $h = 1, 2, \dots, L$: 층을 나타내는 첨자

$i = 1, 2, \dots, n_h$: h 층 내의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j = 1, 2, \dots, m_{hi}$: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

n_h : h 층의 1단계 표본 집락수(표본조사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표본 집락의 표본 가구수

$n = \sum_{h=1}^L n_h$: 표본 집락 총수(표본 조사구 총수)

$m = \sum_{h=1}^L \sum_{i=1}^{n_h} m_{hi}$: 총 표본 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의 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보육아동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f_h : h 층의 조사구 추출률

또한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P}) = \frac{\sqrt{\widehat{V}(\hat{P})}}{\hat{P}} \times 100 (\%)$$

3. 용어의 정의와 보고서 구성

가. 용어의 정의

본 조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는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만6세가 넘었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면 영유아로 분류한다. 영아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하고, 유아는 36개월 이상 만6세(72개월)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등 및 부모협동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어린이집은 12시간(07:30~19:30)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대상 아동에 따라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방과후전담어린이집 등이 있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취사부 등을 둔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3세이상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된다. 공립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은 공립이고, 사립학교 내 설치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다.

‘학원 I: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은 미취학 아동이 평일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주로 「학원등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학원, YMCA아기스포츠단, 유아체육단 등이 있다.

‘학원 II: 특기 및 보습 교육기관’은 주당 1~3회 정도 과목 당 1~2시간 정도로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로 「학원등의설립에관한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학원에 주된 교육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구민체육센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공공기관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와 같은 사설 기관에서도 유사한 보육·교육 기능을 하는데 이들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시간제 보육’은 서울시 영유아프라자, 육아지원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비용을 받고 시간제로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경우이다. 일부 어린이집도 시간제 보육을 한다.

‘육아전문파견인력’은 개인의 가정이나 서비스 제공자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양육지원자로 아이돌봄 전문 사업체를 통해 파견되어 아이돌봄 일만 하는 비혈연을 의미한다. 주변의 소개로 일하게 되는 일반 양육 지원 비혈인과 구분하고자 하였다.

‘학습지’는 인쇄물로 된 학습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부모 등 돌보는 이가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학습지를 배부하고 일주일에 1~2번 정도 방문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방문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예체능 방문지도’는 인지적인 학습 외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위하여 특정 개인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이 개인가정을 방문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교재교구 방문지도’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방문하여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경우이다. 몬테소리, 가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교육’, ‘전화교육’은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

여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인터넷 교육은 재미나라, 깨비키즈, 지니키즈, 눈높이 아티맘 등이 있으며 전화교육에는 스마트 앤츠(smarty ants) 등이 있다.

나.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이용과 보육 비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와 가구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은 영유아 양육 특성으로 자녀의 양육자, 자녀양육 지원과 모의 취업 자료를 수록하였다. 제5장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과 요구 총괄 부분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선택 기준 및 이용 이유,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취약보육,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각 서비스별 이용 및 요구로 구성하였다. 제6장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 어린이집 서비스, 취약보육, 특별활동, 이용 비용,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제7장은 유치원, 제8장은 학원 등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제9장은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10장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으로 분류하여, 각각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 실태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프로그램, 특별활동, 만족도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였다. 제11장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정책 관련 인식을 분석하였고, 제12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를 토대로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3장에서는 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향후 정책방향은 제안하였다.

Ⅱ.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제2장에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보육사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본적 보육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이용자 조사로 보육이 중심이지만 이용 현황은 어린이집 이외 유치원 등 아동과 부모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도 보육 이외에 유아교육 현황을 부분적으로 함께 언급하고자 하였다.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영유아보육법 제2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제이다. 또한 사전 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어린이집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절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1) 어린이집 및 아동 규모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 현재 42,52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만 7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영유아만으로는 영유아 해당 아동의 52.4%이다.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어린이집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로 2012년 12월 현재 민간개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7.9%로 보육 아동의 76.7%를 담당하고 있다(표 II-1-1 참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영아 62.0%, 유아 42.8%로 전체 평균 52.4%이다(표 II-1-3 참조).

〈표 II-1-1〉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아동 수: 2009-2012년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직장	
				소계	법인·단체 등	개인				
2012	어린이집수	42,527	2,203	1,444	15,309	869	14,440	113	22,935	523
	(%)	(100.0)	(5.2)	(3.4)	(36.0)	(2.0)	(34.0)	(0.3)	(53.9)	(1.2)
2011	아동수	1,487,361	149,677	113,049	820,170	51,914	768,256	2,913	371,671	29,881
	(%)	(100.0)	(10.1)	(7.6)	(55.1)	(3.5)	(51.7)	(0.2)	(25.0)	(2.0)
2010	어린이집수	39,842	2,116	1,462	15,004	870	14,134	89	20,722	449
	(%)	(100.0)	(5.3)	(3.7)	(37.7)	(2.2)	(35.5)	(0.2)	(52.0)	(1.1)
2009	아동수	1,348,729	143,035	112,688	757,323	50,676	706,647	2,286	308,410	24,987
	(%)	(100.0)	(10.6)	(8.4)	(56.2)	(3.8)	(52.4)	(0.2)	(22.9)	(1.9)
2010	어린이집수	38,021	2,034	1,468	14,677	888	13,789	74	19,367	401
	(%)	(100.0)	(5.3)	(3.9)	(38.6)	(2.3)	(36.3)	(0.2)	(50.9)	(1.1)
2009	아동수	1,279,910	137,604	114,054	723,017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	(100.0)	(10.8)	(8.9)	(56.5)	(4.0)	(52.5)	(0.1)	(22.0)	(1.7)
2009	어린이집수	35,550	1,917	1,470	14,368	935	13,433	66	17,359	370
	(%)	(100.0)	(5.4)	(4.1)	(40.4)	(2.6)	(37.8)	(0.2)	(43.8)	(1.0)
2009	아동수	1,175,049	129,656	112,338	675,714	52,718	622,996	1,655	236,892	18,794
	(%)	(100.0)	(11.0)	(9.6)	(57.5)	(4.5)	(53.0)	(0.1)	(20.2)	(1.6)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표 II-1-2〉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공립	4,501	7,129	126,577	4,502	7,279	126,095	4,525	7,535	127,347
사립	3,887	18,541	412,010	3,922	19,711	438,739	4,013	20,851	486,402
전체	8,388	25,670	538,587	8,524	26,990	546,832	8,538	28,386	613,74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유치원통계.

유치원은 2012년 전국 총 8,538개소이고 이들 중 국공립은 4,525개소로 52.9%, 사립은 4,013개소로 47.0%로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사립유치원보다 많다. 2011년 자료와 비교하면,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2011년 7,279개에서 2012년 7,535개로 256개 학급이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2011년 대비 1,140개의 학급이 증가하

여, 사립유치원의 증가폭이 크다. 유치원의 총 원아 수는 613,749명이다. 공·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127,347명,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486,402명으로, 유치원 원아 수에 있어서는 사립 원아 수가 79.3%로 4분의 3이상을 차지한다(표 II-1-2 참조).

행정통계에 의거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40만 7천명 중 62.0%, 유아는 전체 유아 141만여명 중 어린이집 42.0%, 유치원 40.0%로 총 82.0%의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81만 6천여명 중 74.1%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2년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¹⁾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 ²⁾ (2012)	
							취업	휴직
0세	464,374	177,757	-	-	38.3	-	16.8	12.2
1세	472,275	321,716	-	-	68.1	-	35.0	1.4
2세	470,956	372,811	-	-	79.2	-	41.7	1.2
0~2세 소계	1,407,605	872,284	-	-	62.0	-	27.6	6.6
3세	446,256	259,112	130,986	390,098	58.1	87.4	44.3	0.6
4세	467,432	194,413	229,911	424,324	41.6	90.8	47.0	-
5세	494,810	149,522	251,897	401,419	30.2	81.1	47.6	0.5
3~5세 소계	1,408,498	603,047	612,794	1,215,841	42.8	86.3	46.4	0.5
0~5세 전체	2,816,103	1,475,331	612,794	2,088,125	52.4	74.1	35.4	4.1

주: 인구수는 2012년 12월 주민등록인구임. 모취업률은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자료는 2012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2년 4월 통계로 5세 이상아는 제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치원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2) 보육 공급과 이용의 지역 차이

가) 시·도 차이

보육 공급과 이용은 시·도간의 편차가 크다. 전체 보육 공급률은 61.1%이고 이용률은 52.8%로 정원 충족률은 86.4% 수준인데,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가 공급률과 이용률이 각각 91.2%, 75.9%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다. 서울은 공급률과 이용률이 모두 50% 내외로 가장 낮다. 그러나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은 서울이 91.4%로 가장

높고, 경북과 전북, 세종이 정원충족률이 80% 정도로 가장 낮다.

<표 II-1-4>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2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전체	2,816,103	1,721,917	1,487,361	61.1	52.8	86.4
서울	502,984	261,870	239,335	52.1	47.6	91.4
부산	160,319	84,863	73,991	52.9	46.2	87.2
대구	126,056	79,769	66,795	63.3	53.0	83.7
인천	164,473	88,062	79,751	53.5	48.5	90.6
광주	87,735	61,975	53,378	70.6	60.8	86.1
대전	90,620	54,343	48,432	60.0	53.4	89.1
울산	69,826	38,210	33,800	54.7	48.4	88.5
세종	7,360	5,558	4,547	75.5	61.8	81.8
경기	758,105	447,370	392,515	59.0	51.8	87.7
강원	75,796	56,259	46,007	74.2	60.7	81.8
충북	88,139	61,590	51,467	69.9	58.4	83.6
충남	120,211	81,169	67,626	67.5	56.3	83.3
전북	98,167	74,226	60,401	75.6	61.5	81.4
전남	97,468	68,651	56,481	70.4	57.9	82.3
경북	138,395	96,368	77,010	69.6	55.6	79.9
경남	195,016	129,308	108,931	66.3	55.9	84.2
제주	35,433	32,326	26,894	91.2	75.9	83.2
2011	2,777,209	1,621,948	1,348,729	58.4	48.6	83.2
2010	2,734,976	1,556,808	1,279,910	56.9	46.8	82.2
2009	2,736,539	1,482,416	1,175,049	54.2	42.9	79.3

주: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나) 시·군·구 차이

<표 II-1-5>는 2012년 보육통계의 일부로 시·군·구 단위로 어린이집 전체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평균 및 최대, 최소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군·구 간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간 차이는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보육 공급률은 36.2%~103.8%, 이용률은 29.5%~81.5%에 분포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률은 0.0%~41.3%, 이용률은 0.0%~37.6%에 분포한다.

〈표 II-1-5〉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단위: %

구분	보육 공급률			보육 이용률			국공립 공급률			국공립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66.2	36.0	103.8	55.5	29.5	81.5	6.9	0.0	41.3	6.2	0.0	37.6
서울	54.0	36.2	78.0	49.2	33.3	70.5	12.7	5.6	30.5	11.9	5.5	28.4
부산	55.6	40.9	67.2	48.3	37.1	61.4	9.5	3.4	22.8	8.6	2.7	21.8
대구	65.8	56.8	93.2	54.9	47.5	75.3	2.4	0.8	5.0	2.2	0.7	4.7
인천	52.4	36.0	61.2	47.0	32.7	55.1	8.5	1.9	21.1	7.6	1.9	19.7
광주	69.0	60.9	77.0	58.5	53.2	66.4	3.1	1.7	5.0	2.7	1.3	4.3
대전	60.7	56.0	65.7	53.9	50.1	57.9	2.0	0.2	4.8	1.9	0.2	4.4
울산	54.8	50.7	61.1	48.4	47.0	51.6	3.0	1.4	4.0	2.9	1.3	3.8
세종	75.5	75.5	75.5	61.8	61.8	61.8	6.6	6.6	6.6	6.4	6.4	6.4
경기	64.1	44.7	91.9	55.3	42.0	71.4	6.5	1.4	18.4	6.1	1.4	17.7
강원	68.9	52.4	92.5	56.9	43.8	70.4	12.3	2.6	41.3	10.7	2.2	37.6
충북	70.8	55.9	100.6	57.3	45.3	68.4	8.5	0.8	25.0	7.6	0.8	22.4
충남	72.0	53.8	99.5	58.4	47.5	73.5	5.0	0.0	11.2	4.4	0.0	11.1
전북	70.0	40.8	100.3	56.4	32.1	77.5	6.4	0.0	17.4	5.4	0.0	14.7
전남	67.2	46.2	97.8	53.2	36.5	74.8	5.2	0.0	15.7	4.2	0.0	12.8
경북	63.2	36.5	82.9	50.9	29.5	65.5	11.7	0.0	30.8	9.6	0.0	25.4
경남	65.7	41.5	91.9	55.4	37.7	70.7	8.3	1.6	27.3	7.4	1.3	25.1
제주	95.6	87.5	103.8	77.9	74.2	81.5	5.7	2.7	8.7	5.3	2.4	8.1
2011	63.6	33.1	100.0	52.0	28.9	78.0	6.9	0.2	40.9	6.1	0.2	37.1
2010	62.7	31.6	98.5	50.5	11.6	78.1	7.0	0.0	59.1	5.8	0.0	36.6
2009	58.5	24.6	96.8	45.6	22.0	75.8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나. 보육 아동

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연령 분포

<표 II-1-6>은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다.

0세와 1세 보육은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이 크고, 2세아는 대부분의 유형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동 중 98.2%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1.8% 정도에 불과하다.

〈표 II-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구분								단위:%(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	(수)
전체	12.0	21.6	25.1	17.4	13.1	10.1	0.8	100.0	(1,487,361)
시설유형									
국공립	2.3	12.4	21.1	22.5	21.7	18.6	1.4	100.0	(149,677)
법인	3.0	13.5	22.6	22.8	19.6	16.2	2.3	100.0	(113,049)
법인·단체등	2.5	11.9	20.4	22.8	20.9	16.9	4.6	100.0	(51,914)
민간개인	5.7	17.0	26.4	22.8	15.9	11.7	0.6	100.0	(768,256)
가정	33.5	39.2	25.5	1.3	0.3	0.2	0.0	100.0	(371,671)
부모협동	5.8	13.7	23.4	20.6	18.9	17.0	0.6	100.0	(2,913)
직장	4.2	17.5	22.9	24.0	18.6	12.2	0.5	100.0	(29,881)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2) 다문화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뒤 이은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로 그 의미는 축소되었다. 다만, 2012년의 경우에도 3, 4세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상위 30%도 보육료나 교육비는 전액 지원된다. 2012년 말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52,120명이다.

〈표 II-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2년

구분									단위: 명(%), %
	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보육아동 대비 비율
전체	52,120	6,331	5,965	2,889	27,005	13	9,694	223	3.5
(비율)	(100.0)	(12.1)	(11.4)	(5.5)	(51.8)	(0.02)	(18.6)	(0.4)	
지역규모									
대도시	15,494	2,351	731	422	8,940	5	2,944	101	2.7
중소도시	16,475	1,458	648	458	9,141	1	4,697	72	2.9
읍·면	20,151	2,522	4,586	2,009	8,924	7	2,053	50	5.8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2012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가 104,694명이므로 이들의 49.8%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아동의 비율이 48%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3.5%인데, 지역규모별로 농어촌은 5.7%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2.7%, 3.0%로 도농 간의 차이가 크다.

2. 보육료와 보육 비용 지원

가. 보육 비용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인 비용과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 보육료는 영아는 시설유형간 차이가 없으나 유아는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과 인건비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이 차이가 난다. 0~2세 영아 보육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유아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보육료가 다르다.

〈표 II-2-1〉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2

단위: 천원

시·도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세	4세 이상	3세	4세 이상
서울		251	246	251	246
부산		244	222	263	243
대구		243	224	251	245
인천		257	243	270	258
광주		242	224	259	245
대전	0세: 394	240	225	266	266
울산	1세: 347	247	232	261	244
경기	2세: 286	275	253	278	278
강원	3세: 197	238	222	255	249
충북	4세: 177	250	225	278	272
충남	5세: 200	254	241	276	258
전북		237	214	237	214
전남		240	225	258	247
경북		242	217	263	247
경남		236	221	254	247
제주		223	215	246	246

자료: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표 II-2-1〉은 2012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단가 차이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의하면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기타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별 상한선 실태는 <표 II-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2>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2

시·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월)	차량운행비(월)	기타필요경비
서울	5만원(입소 시) - 체육복,원복은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결정)	매월 수납(분기별 1회이상)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매월 수납(분기별 1회 이상)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구 결정	매월 수납(분기별 1회 이상)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부산	연 9만원	연 12만8천원	국공립: 월6만원 민간·가정: 월 7만원		행사비 연6만원 급식비 1식 1천원
대구	연 9만원	분기별 2만5천원	국공립: 6만원 국공립 외: 7만원	2만원	행사비 연 6만원 급식비 1식 1천원
인천	정부지원시설: 연 8만5천원 민간·가정·부모협동: 연 10만원		정부지원시설: 3만원 민간·가정·부모협동: 4만원		정부지원시설 - 만0-1세 월 5만5천원, 만2-5세 월 4만5천원 - 민간·가정·부모협동시설 만 0-1세 월 7만원, 만2-5세 월 5만원
광주	재원: 8만원(1회) 신입: 2만원	분기 3만원	국공립: 월 7만원 민간·가정: 월 7만원	월 5천원	행사비: 연5만원
대전	연 9만원	분기별 5만5천원	국공립: 5만원 민간 등: 6만원	국공립: 5천원 민간 등: 1만5천원	행사비 : 연 5만원 특성화비용: 월 2만원
울산	연 9만원	분기별 5만원	8만5천원		행사비: 연 10만원 급식비 1식: 1,745원

(표 II-2-2 계속)

시·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기타필요경비
경기	연 10만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 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납		월 1만6천원	행사비, 급식비: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 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납
강원	연 7만원 (재원아 3만원)	분기별 3만원	7만원	1만5천원	
충북	연 9만원	반기별 8만원	국공립: 9만원 국공립 외: 10만원 (24개월 이상)	2만원 (차량운영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차량이용 아동에 한함)	행사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2만원 (매식 1천원)*
충남	연 9만원	연 16만원	국공립, 민간·개인: 10만원	월 3만원	행사비: 연 3만원 급식비: 1식 1천원
전북	연 5만원	분기별 3만원	국공립, 민간·개인: 9만 5천원	월 4만원	행사비: 연 12만원 특성화프로그램비: 월 3만원 급식비: 월 2만원
전남	연 9만원	분기별 5만원	국공립 7만원 국공립외 8만원	월 6천원	행사비: 연 9만원 급식비: 월 1만원 재료비: 연 5만원
경북	연 8만원	연 12만원	국공립, 민간·개인: 월 6만원	월 1만원	행사비: 연 6만원 급식비: 월 1만5천원
경남	연 8만원 (상해보험료: 도지원)	분기 2만5천원	국공립: 8만원 민간·가정: 8만5천원	월 1만원	행사비: 연 5만원
제주	연 6만원 (상해: 5천원포함)	연 5만원	국공립, 민간·개인: 월 6만원	월 1만5천원	행사비: 연 6만원 급식비: 1식 1천원(월 2만원)

주: 가정·영아전담어린이집의 만2세 졸업아동과 전체 어린이집의 5세 졸업아동에 한해 졸업앨범비 6만원, 졸업액자제작비 2만원 한도로 별도수납 가능.
자료: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에서 필요경비를 결정하는데 강남구는 특별활동비로 21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행사비는 연 16만원, 현장학습비 분기 6만원, 차량운행비 월 5만원, 급간식비 1일에 1,000원 수납이 가능하다.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이 교육비와 그 밖의 납부금 이외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특기교육비이다. 이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으로 이 비용 역시 규제

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특기활동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이후 방과후 시간에 실시 되도록 한다.

나. 부모 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재정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보조금 지원

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 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4)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되고, 이러한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 민간 일반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어린이집에도 지원한다. 이외에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다.

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아동별로 하므로 부모 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하반기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2년 12월 현재 총 778개가 선정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여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정원이 20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월 96만원이 지급되며, 21~40인은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인 560만원, 98~141인 824만원, 142인 이상 860만원이다. 기존에 지원받던 영아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된다.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한 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이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유형의 구분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으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⁵⁾ 부산시도 '09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10~20개소를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 공보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부산시로부터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인건비 지원 조건은 국공립과 동일한 보육료 수납,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⁶⁾, 종사자 전원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 등이다.

5) 서울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의 기본평가 통과, 시간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이 기본 조건임. 또한 이들 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종사자 전원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 수납 등이 요구됨.

6) 제도 도입 첫 해 기준임.

2) 부모 보육료 지원

2012년 현재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4년 이후 확대하여 2012년에는 0~2세 전 소득계층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하고, 3, 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 75%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보육비 지원 기준단가는 연도별 다소 증가해 왔는데, 2012년 현재 영아의 경우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1세 미만 보육아동은 월 75만 5천원, 1세 월 52만 1천원, 2세 보육아동은 월 40만 1천원이고, 유아의 경우 3세 아동은 19만 7천원, 4세 이상 보육아동은 월 17만 7천원이다.

〈표 II-2-3〉 3, 4세 가구원수별 소득인정 기준

구분	지원 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3-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주: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5세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누리과정은 만 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을 도입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로, 지원단가는 2012년도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다⁷⁾.

그 비용 지원도 5세아 모두에게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하였는데, 지원 단가를 점차 늘려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있다⁸⁾. 정부는 지원금 재원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과 동일한 지방교육재정

7)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의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 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9월 5일자로 고시되었음

8) 2012년 현재 월 7만원이 기준인데, 복지부는 이 중 일부를 누리과정 교사수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나 보조교사 이용으로 사용할 것은 권고함.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아동 1인당 45,000원 정도임.

교부금이다.

〈표 II-2-4〉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 대상 등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지원 단가						
기본보육료	361,000	174,000	115,000	-	-	종일반비 별도*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200,000
전체	755,000	521,000	401,000	197,000	177,000	200,000
보육료 상한선	755,000	521,000	401,000	351,000	246,000	246,000
정부지원 수준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지원 대상	전계층	전계층	전계층	소득하위	70%	전계층

주: 보육료 상한액은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이며, 시·도마다 차이가 있음

* 종일반비는 45,000원 정도임

이외에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0세~12세 미취학 장애아는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할 경우 1세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 3, 4세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 3,700원을 월 60시간 지원한다. 이외에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비용⁹⁾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0~4세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15만 4천여명에 이른다(표 II-2-5 참조).¹⁰⁾

〈표 II-2-5〉 보육료 지원 아동 수: 2009~2012년

구분	합계	단위: 명				
		0~4세 보육료	만5세아무상 보육료	장애아무상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다문화아동
2009	794,755	671,721	107,951	15,083	(60,704)	-
2010	878,880	760,110	103,832	14,938	(142,210)	-
2011	991,310	851,362	99,334	14,405	-	26,209
2012	1,345,184	1,154,166	142,772	13,022	-	35,224

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아동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과 중복되므로 집계에서 제외하고, 2012년 방과후를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9)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 3,900원임.

10) 2013년 전 계층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 아동 수 통계 자료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함.

3) 양육수당 등

2012년 기준으로 자녀 관련 현금 지원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0년에 도입한 제도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서비스 대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012년 지원 대상은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가구)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180만원이고,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월 10~20만원이다. 양육수당 수혜아동은 2010년 약 49,800만명이고 2011년은 약 89,600명, 2012년 92,8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II-2-6 참조).

〈표 II-2-6〉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2010~2012년

구분	단위: 명(%)			
	0세아	1세아	2세아	계
2010	22,870	26,978	-	49,848
(전체아동 대비비율)	(5.21)	(6.13)	-	(5.74)
2011	36,621	38,408	14,610	89,639
(전체아동 대비비율)	(8.47)	(8.83)	(3.33)	(6.86)
2012	35,514	40,997	16,307	92,818
(전체아동 대비비율)	(7.65)	(8.68)	(3.46)	(6.59)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및 내부자료.

2012년부터 복지부가 취학전 농어촌 거주 아동과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에게도 최대 84개월간 수당을 지원한다.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은 농림부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농지 5만㎡, 농어업 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¹¹⁾인 자의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농식품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농특회계)이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된 것이다. 지원액은 보육료 지원의 45%이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2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기준에 의한다.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선별적 복지로 특별한 아동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아동에게는 최고 20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며,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3세까지 월 15만원을 지원

11)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미만임.

하고, 장애아동 입양 시 양육보조금으로 중증 아동 627,000원, 경증 아동 551,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는 12세미만 자녀에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조손 및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에 월 5만원을 아동양육비로 지원한다.

4) 소요예산

보육예산은 국고 약 3조에 이르는데, 이중 96.4%가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과 부모 지원에 사용된다(표 II-2-7 참조).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예산은 4,560여억원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된다(표 II-2-8 참조).

〈표 II-2-7〉 국고 지원 예산: 2009~2012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비율)
어린이집 운영지원	343,856	349,528	395,023	423,152	(14.0)
보육료지원	1,282,168	1,632,204	1,934,611	2,391,291	(79.0)
어린이집 기능보강	21,437	9,438	14,650	11,867	(0.4)
보육 인프라 구축	29,787	12,181	16,250	15,377	(0.5)
어린이집 평가인증	4,191	3,401	4,975	6,026	(0.2)
어린이집 지원(공공형 등)	15,301	55,093	23,077	78,207	(2.6)
양육수당	8,100	65,664	89,794	102,646	(3.4)
기타	-	-	-	-	-
전체	1,704,840	2,127,510	2,478,380	3,028,567	(100.0)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II-2-8〉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재정: 2012년 예산

단위: 백만원

지역	유아교육비지원				교육활동지원			총합계
	5세 유아학비	종일반비	기타 유아학비	소계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 유아교육진흥사업비	소계	
총계	388,122	67,297	80	455,499	384	84	468	455,967

주: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도 유아교육예산 집행 현황 및 2012년 예산. 내부자료
출처: 권미경 외(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유아정책연구소 재인용.

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제3장은 가구조사 결과에 기초한 영유아 가구와 부모, 영유아 등 가구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전체적으로 영아 가구와 유아 가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가구, 부모, 영유아의 인구학적 특성을 다루었으며, 제2절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학적 및 근로 특성을 제시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 영유아 가구는 총 2,528가구이다. 가구에 영아가 있는 영아 가구가 1,595가구이고, 가구에 유아가 있는 유아 가구가 1,601가구이다. 즉 668가구는 가구에 영아와 유아가 모두 있다.

가. 가구 특성

1) 가구 규모

본 2012년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지역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원 규모는 평균 3.88명으로 4명인 가구가 4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3명인 가구가 36.4%, 5명 가구 13.6%, 6명 이상 5.3%의 순이다. 이러한 가구규모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읍·면의 경우 5명 가구가 20.3%, 6명이상 가구가 7.7%로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고 마찬가지로 평균도 읍·면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가구원수												
2명	0.3	0.5	-	0.3	0.2	0.9	0.3	0.5	0.2	0.9	0.2	0.5
3명	46.0	43.2	29.9	42.0	18.5	18.4	11.5	17.1	39.9	37.4	26.0	36.4
4명	39.8	36.8	41.4	38.9	60.7	55.9	56.1	57.8	45.0	42.9	45.7	44.3
5명	9.4	14.2	19.1	13.0	13.7	19.4	21.8	17.7	10.0	14.3	20.3	13.6
6명 이상	4.5	5.2	9.7	5.7	7.0	5.3	10.3	6.9	4.9	4.6	7.7	5.3

(표 III-1-1 계속)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평균 (표준편차)	3.74 (0.88)	3.81 (0.91)	4.13 (1.04)	3.84 (0.93)	4.12 (0.86)	4.10 (0.80)	4.33 (0.93)	4.15 (0.86)	3.81 (0.87)	3.85 (0.87)	4.12 (0.97)	3.88 (0.90)
아동수												
1명	53.7	45.6	38.5	47.8	21.0	19.9	13.1	19.0	46.3	40.1	32.6	41.3
2명	38.3	41.6	45.7	40.9	65.0	62.7	66.1	64.3	45.2	48.0	52.0	47.5
3명 이상	8.0	12.8	15.8	11.3	14.0	17.4	20.8	16.7	8.5	12.0	15.4	11.2
영아												
없음	10.0	10.8	10.4	10.4	68.5	68.2	62.3	67.1	43.1	47.2	44.9	45.1
1명	81.7	79.8	79.9	80.6	30.7	30.9	35.8	31.8	51.7	47.3	49.1	49.4
2명 이상	8.3	9.4	9.7	9.0	0.8	0.9	1.9	1.1	5.3	5.5	5.9	5.5
유아												
없음	64.0	59.5	56.1	60.8	6.7	8.0	10.6	8.0	40.5	35.3	34.4	37.3
1명	31.8	35.4	36.3	34.0	82.9	81.4	74.0	80.6	53.4	57.7	55.0	55.4
2명 이상	4.2	5.1	7.6	5.2	10.4	10.5	15.4	11.4	6.1	6.9	10.6	7.2
초등학생												
없음	88.1	83.6	82.4	85.3	54.3	53.4	51.4	53.4	73.2	69.5	66.5	70.5
1명	9.5	12.3	14.0	11.4	40.8	39.2	40.6	40.1	24.0	25.7	28.0	25.4
2명 이상	2.4	4.1	3.6	3.3	4.9	7.4	8.0	6.6	97.1	95.1	94.5	95.8
중학생 이상												
없음	93.7	92.1	93.6	93.0	93.7	92.1	93.6	93.0	95.8	94.3	94.1	94.9
1명	5.2	6.7	4.5	5.7	5.2	6.7	4.5	5.7	3.3	4.8	3.5	4.0
2명 이상	1.1	1.2	1.9	1.3	1.1	1.2	1.9	1.3	0.9	1.0	2.4	1.2
계 (수)	100.0 (645)	100.0 (638)	100.0 (312)	100.0 (1,595)	100.0 (621)	100.0 (649)	100.0 (331)	100.0 (1,601)	100.0 (1,024)	100.0 (1,017)	100.0 (487)	100.0 (2,528)

영아가 있는 가구원 규모는 평균 3.84명으로 3명인 가구가 4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4명인 가구가 38.9%, 5명 가구 13.0%, 6명 이상 5.7%의 순이다. 이러한 가구규모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읍·면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와 달리 가구원 규모가 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

유아가 있는 가구원 규모는 평균 4.15명으로, 가구의 가구원 규모가 영아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별 분포는 4명인 가구가 5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명인 가구가 17.7%, 3명 가구 17.1%, 6명 가구 6.9%의 순이다. 유아 가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구규모가 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구원 평균은 역시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2009년 조사에서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평균이 3.99명이었으며 4명인 가구가 43.2%로 가장 많고, 3명 가구 32.0%, 5명 가구 16.3%, 6명 가구 7.4%의 순으로 나타

난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체적인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5인 이상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구 형태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는 아버지 한부모 가구가 0.2%이고, 어머니 한부모 가구가 1.1%이다.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4.6%였으며, 한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6.1%였다.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적으로 0.2%이었으며, 읍·면이 1.1%이다. 읍·면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구성된 가구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표 III-1-2 참조).

유아 가구의 가구형태를 보면, 영아 가구에 비하여 아버지 한부모 혹은 어머니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2009년 조사¹²⁾보다 2012년 조사에서는 부부와 자녀 구성 가구 비율이 5% 이상 늘어났고, 한부모 가구가 줄었다.

〈표 III-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조부모+부모+자녀	4.1	4.3	9.4	5.1	4.7	2.7	6.1	4.1	4.5	3.5	7.3	4.6
조부모+한부모+자녀	0.3	1.0	1.1	0.7	1.1	0.6	1.0	0.9	0.8	0.9	0.9	0.8
한 조부모+부모+자녀	6.9	4.3	8.7	6.2	5.4	5.6	9.9	6.4	6.4	4.4	9.5	6.1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0.5	0.2	-	0.3	0.8	0.3	0.6	0.6	0.8	0.3	0.4	0.5
부부+자녀	87.5	89.2	78.0	86.4	86.6	88.3	81.4	86.3	86.5	89.0	79.7	86.3
어머니 한부모+자녀	0.6	0.8	1.1	0.8	1.1	1.9	0.6	1.4	1.0	1.6	0.7	1.1
아버지 한부모+자녀	-	0.3	-	0.1	-	0.6	0.3	0.3	-	0.4	0.4	0.2
(한)조부모+자녀	0.2	-	1.8	0.4	0.2	-	-	0.1	0.1	-	1.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3) 동거 가구원

조사대상 가구의 부모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보면, 영유아 가구로는 부 비동거

12)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81.1%,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4.9%, 3세대 이상 가구 13.5%로 보고되었음.

가 2.5%, 모 비동거 0.8%이고, 친조부모 동거의 경우 조모는 8.3%, 조부는 4.0%가 동거하며, 외조부모 동거는 외조모는 3.3%, 외조부는 1.8%가 동거한다. 지역적으로는 읍·면 지역에서 모의 비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부모, 특히 친조모의 동거 비율이 12.8%로 현저하게 높다(표 III-1-3 참조).

2009년 조사에서 부 동거 96.4% 모 동거 97.4%, 친조부 동거 6.5%, 친조모 동거 10.6%, 외조부 동거 2.2%, 외조모 동거 4.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본 조사에서는 부와 모 동거 비율이 높아졌으며 친조부모, 외조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낮아졌다.

〈표 III-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부	98.1	98.0	96.4	98.0	96.4	97.8	97.8	97.2	97.4	97.7	97.1	97.5
모	99.7	99.5	97.8	99.3	99.8	99.0	99.0	99.3	99.7	99.2	98.0	99.2
친조부	3.2	3.0	10.1	4.3	3.7	2.7	6.1	3.7	3.4	2.7	7.9	4.0
친조모	8.4	6.2	14.7	8.7	7.3	7.6	9.6	7.9	8.4	6.3	12.8	8.3
외조부	2.0	1.3	4.3	2.1	2.4	0.4	3.8	1.9	2.0	1.0	3.1	1.8
외조모	3.2	3.6	3.2	3.4	4.4	1.6	4.5	3.2	3.8	2.7	3.5	3.3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영아 가구의 경우 부 비동거 2.0%, 모 비동거 0.7%이고, 친조부모 동거는 조모는 8.7%, 조부는 4.3%가 동거하며, 외조부모 동거는 외조모는 3.4%, 외조부는 2.1%가 동거한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에서 부 그리고 모의 동거 비율이 더 높고 읍·면 지역에서 친조부모, 외조부모, 특히 친조모의 동거 비율이 14.7%로 높다.

유아 가구의 경우 부 비동거 비율이 2.8%로 영아 가구보다 높았으며, 모의 비동거 비율은 영아 가구와 같다. 친조부모 동거는 조모는 7.9%, 조부는 3.7%가 동거하며 외조부모 동거는 외조모 3.2%, 외조부 1.9%로, 영아 가구에 비해 조금씩 낮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영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에서 친조부모, 외조부모 동거 비율이 더 높으나 지역별 차이는 영아 가구보다 적다.

나. 부모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도록 하

였다. 부모가 부재인 경우를 제외한 아동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II-1-4>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3.9	5.9	7.8	5.4	11.3	13.5	20.2	13.6
30~34세	25.0	30.7	26.6	27.5	38.4	42.7	39.3	40.2
35~39세	39.9	36.5	35.6	37.8	36.6	31.7	32.6	34.0
40~44세	22.0	23.6	22.4	22.7	12.6	10.8	6.7	10.9
45세 이상	9.1	3.2	7.6	6.6	1.2	1.2	1.2	1.2
평균(표준편차)	37.6(5.3)	36.5(4.9)	37.0(5.8)	37.1(5.3)	34.7(4.4)	34.0(4.5)	33.2(4.8)	34.2(4.6)
2009년	35.7(4.5)	35.8(4.7)	36.2(5.2)	35.8(4.7)	33.0(4.3)	33.1(4.9)	32.9(4.9)	33.0(4.5)
2004년	38.1(5.4)	38.1(5.4)	38.3(5.7)	38.1(5.4)	35.4(5.1)	35.3(5.1)	34.7(5.3)	35.2(5.2)
결혼상태								
유배우	99.4	99.1	96.6	98.8	97.1	97.8	98.0	97.5
미혼	0.5	0.9	3.2	1.1	2.4	1.5	2.0	2.0
사별·별거·이혼	0.1	-	0.2	0.1	0.5	0.6	-	0.5
학력								
무	-	-	-	-	-	-	1.7	0.3
초	0.5	0.7	1.0	0.7	0.7	0.5	0.2	0.6
중	1.2	0.5	3.9	1.4	2.7	1.3	6.2	2.7
고	27.6	29.9	39.3	30.4	30.6	35.9	40.1	34.2
3년제 대학	14.4	19.3	16.3	16.6	20.3	22.1	18.2	20.7
4년제 대학	46.9	42.9	32.9	43.0	39.6	37.4	30.8	37.3
대학원 이상	9.3	6.7	6.6	7.8	6.2	2.7	2.7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30)	(961)	(479)	(2,470)	(1,050)	(975)	(478)	(2,503)

<표 III-1-4>는 조사대상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먼저 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37.1세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다. 결혼상태는 98.8%가 유배우 상태이며,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교육정도는 대학 이상이 67.4%, 고등학교 수준은 30.4%이며 중학 이하는 2.1%이다. 읍·면 지역에서 대학 이상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이 도시보다 배우자 부재 비율이 비교적 높다.

영유아 모의 특성으로 연령은 30대가 74.2%로 평균 34.2세이며, 지역적으로 읍·면 지역 모의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상태가 97.5%이며

학력은 대학 이상이 62.2%로 가장 많고, 읍·면 지역에서 고졸 비율이 40.1%, 중학 이하의 비율 8.1%로 도시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도시일수록 대학 이상 비율이 높다(표 III-1-4 참조).

2009년 조사¹³⁾를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의 평균 연령은 조금 높아졌고 유배우인 경우가 늘어났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 건강 특성

영유아 가구 부모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부 97.9%가 이상이 없고, 1.2%가 장애, 0.8%가 질병, 그리고 0.1%가 질병과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모는 전체 중 장애가 있다는 비율은 0.6%, 질병이 있다 1.1%, 질병과 장애가 있다는 비율이 0.1%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III-1-5 참조).

2009년 조사에서 부의 장애 비율은 1.8%, 모의 장애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30대 남성의 재가장애인 출현율을 3.17%로 추정하였고, 30대 여성의 재가장애인 출현율을 1.64%로 추정하였다. 또한 40대 남성의 재가장애인 출현율을 6.23%로 추정하였고, 40대 여성의 재가장애인 출현율은 2.81%로 추정하였다(김성희 외, 2011). 이에 의하면 본 조사 아동 부모의 장애 비율은 평균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부												
장애	0.9	0.4	2.8	1.0	1.1	1.0	1.3	1.1	1.3	0.6	2.1	1.2
질병	0.8	0.4	0.8	0.6	1.6	1.3	0.6	1.3	0.9	0.6	0.8	0.8
장애 및 질병	0.2	-	-	0.1	0.4	-	0.6	0.3	0.2	-	0.2	0.1
양호	98.1	99.3	96.4	98.3	96.9	97.7	97.5	97.3	97.7	98.8	96.9	9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53)	(606)	(306)	(1,565)	(377)	(355)	(173)	(905)	(1,030)	(961)	(479)	(2,470)

13) 영유아 부의 평균 연령은 35.8세, 모의 평균 연령은 33.0세임. 또한 결혼상태는 유배우인 경우가 부 96.9%, 모 96.2%였으며, 학력은 대학 이상인 경우가 부 57.8%, 모 52.9%였음.

(표 III-1-5 계속)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모												
장애	0.9	0.2	0.8	0.6	0.6	0.5	-	0.5	0.7	0.4	0.5	0.6
질병	0.8	0.7	2.0	1.0	0.4	2.2	1.3	1.3	0.6	1.4	1.7	1.1
장애 및 질병	-	-	-	-	0.2	-	0.6	0.2	0.1	-	0.2	0.1
양호	98.3	99.1	97.2	98.4	98.7	97.3	98.1	98.1	98.6	98.2	97.5	9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58)	(614)	(306)	(1,578)	(392)	(361)	(172)	(925)	(1,050)	(975)	(478)	(2,503)

영아 가구의 부모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부의 98.3%가 이상이 없고 1.0%가 장애, 0.6%가 질병이 있다고 하였고, 모는 전체 중 98.1%가 이상이 없고, 장애가 있다는 비율은 0.6%, 질병이 있다는 비율은 1.0%이다.

유아 가구의 부모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부의 97.3%가 이상이 없고 각각 1.1%, 1.3%가 장애, 질병이 있다고 하였고, 0.3%가 장애와 질병이 있다고 하였다. 모는 전체 중 장애가 있다는 비율은 0.5%였고 질병이 있다는 비율은 1.3%로 나타났으며, 0.2%가 장애와 질병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부의 장애 비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1-5 참조).

3) 다문화가족 부모

가) 다문화가족 부모 특성

다음 <표 III-1-6>은 조사대상 아동 부모의 결혼이민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영유아 가구 중 3.9%는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였다. 지역별로는 모가 결혼이민자인 비율이 읍·면 8.2%, 중소도시 2.5%, 대도시 3.4%로 지역 간 편차가 있다.

2009년 조사¹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모의 결혼이민자 비율이 늘어났으며, 특히 읍·면 지역은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하다.

14) 2009년도 조사에서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비율은 부는 대도시 0.4%, 중소도시 0.1%, 읍·면 지역 0.0%로 전체적으로 0.2%로 나타났고, 모는 대도시 2.4%, 중소도시 3.2%, 읍·면 지역 6.9%로 전체적으로 3.5%로 나타났음.

〈표 III-1-6〉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부	0.6	-	0.4	0.3	0.3	-	0.3	0.2	0.4	-	0.2	0.2
모	3.0	3.3	10.8	4.5	3.6	2.8	4.8	3.5	3.4	2.5	8.2	3.9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영아 가구의 경우 4.5%는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3%는 부가 결혼이민자였다. 지역별로는 모가 결혼이민자인 비율이 읍·면 10.8%, 중소도시 3.3%, 대도시 3.0%로, 읍·면 지역에서 모의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다.

유아 가구의 경우 3.5%는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였다. 지역별로는 모가 결혼이민자인 비율이 읍·면 4.8%, 중소도시 2.8%, 대도시 3.6%로 읍·면 지역에서 모의 결혼이민자 비율이 다소 높다(표 III-1-6 참조).

〈표 III-1-7〉 최연소 영유아 모 출신 국가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중국	16.7	23.8	10.3	16.2	40.9	31.6	6.3	28.1	28.6	29.6	10.5	22.0
베트남	66.7	52.4	75.9	66.2	31.8	42.1	68.8	45.6	48.6	48.1	68.4	56.0
일본	5.6	19.0	3.4	8.8	4.5	26.3	6.3	12.3	5.7	18.5	5.3	9.0
필리핀	-	-	6.9	2.9	9.1	-	12.5	7.0	5.7	-	10.5	6.0
캄보디아	5.6	4.8	-	2.9	9.1	-	6.3	5.3	8.6	3.7	2.6	5.0
우즈베키스탄등	5.6	-	-	1.5	4.5	-	-	1.8	2.9	-	-	1.0
기타	-	-	3.4	1.5	-	-	-	-	-	-	2.6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	(18)	(27)	(62)	(21)	(15)	(18)	(54)	(32)	(26)	(39)	(97)

조사된 영유아 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5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2.0%, 일본 9.0%, 필리핀 6.0%, 캄보디아 5.0% 순이며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도 있다. 특히 영아 가구에서 모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응답이 66.2%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III-1-7 참조).

2009년 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인 모의 출신국이 베트남 36.2%, 중국 29.7%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8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주민 실태조사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

는 집단은 중국 출신으로 조선족을 포함하여 총 57.8%였다. 이렇게 중국 출신 모의 비율이 최근 들어 감소한 이유로는 조선족 등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이민 초기에는 중국 동포 등 중국 국적자가 많았으나 최근 몇 년 간 중국 국적자 여성의 결혼 이민이 줄어든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한국 사회에 진입하여 그 비율이 급증하였다. 일찍이 결혼 이민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이미 초등학생 이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애로 및 요구

다문화 가족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을 아이와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대외적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대응,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의 부재, 자녀지도 및 교육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된 7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지도 및 교육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대외적 자신감 결여, 양육방식의 갈등 순이며, 가장 어려움이 적은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의 부재였다(표 III-1-8 참조).

2009년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으로 응답되었고, 자녀 학습지도, 양육방식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2년 조사결과를 보면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경감된 것으로 보이며, 자녀 학습지도 및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부담 정도는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8〉 다문화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점(명)

구분	아이와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	양육방식 갈등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지원 부재	자녀지도 교육	(수)
전체	2.63	3.16	2.79	2.99	2.70	2.61	3.21	(101)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69	3.17	2.88	3.01	2.77	2.64	3.20	(66)
유아	2.48	3.15	2.57	2.94	2.55	2.54	3.22	(35)
t	0.9	0.1	1.6	0.3	0.9	0.4	-0.1	

(표 III-1-8 계속)

구분	아이와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	양육방식 갈등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지원 부재	자녀지도 교육	(수)
지역규모								
대도시	2.54	2.99	2.62	2.81	2.57	2.52	3.03	(44)
중소도시	2.17	3.44	2.82	3.08	2.67	2.46	3.13	(54)
읍·면	3.02	3.17	2.95	3.12	2.87	2.80	3.45	(3)
F	6.7**	2.7	1.3	1.1	0.8	1.0	1.8	
모취업 여부								
취업	2.78	3.18	0.95	0.98	0.94	1.12	0.89	(44)
미취업	2.50	3.14	0.90	1.00	1.11	1.08	1.08	(54)
부재 등	2.71	3.13	1.07	-	0.73	0.73	1.48	(3)
F	1.1	0.0	0.5	0.7	0.1	0.2	1.0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11	3.71	3.03	2.95	2.74	2.93	2.95	(9)
150~199만원	2.92	3.21	2.89	3.08	2.55	2.32	2.98	(20)
200~249만원	2.55	3.52	3.14	3.17	3.10	2.49	3.77	(13)
250~299만원	2.77	3.15	2.72	3.14	3.15	2.96	3.38	(21)
300~349만원	2.42	3.03	2.75	2.74	2.35	2.78	2.65	(18)
350~399만원	2.98	2.62	2.62	2.99	2.76	1.68	3.54	(4)
400~499만원	2.60	3.00	2.56	2.83	2.04	1.95	3.23	(9)
500~599만원	2.18	3.00	2.40	3.17	2.38	3.16	3.66	(5)
700만원 이상	2.00	2.50	2.50	1.50	1.50	3.00	1.50	(2)
F	0.9	1.4	0.6	0.9	2.5*	1.8 [#]	2.8**	

$p < .1$, ** $p < .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영아인 경우, 아이와의 의사소통능력 부족,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양육방식을 둘러싼 가족과의 갈등 등에서 유아인 경우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지만,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는 자녀지도 및 교육에서 영아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로 보면, 대부분 읍·면 지역에서 양육방식을 둘러싼 가족과의 갈등, 대외적 자신감 결여, 돌봄 지원의 부재, 자녀 지도 및 교육 등 다문화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와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읍·면 지역에서 중소도시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한편 모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경우 아이와의 의사소통능력 부족,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 돌봄지원 부재 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모가 미취

업한 경우에는 대외적 자신감 결여,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정도가 더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이 적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으나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 지원 부재, 자녀 지도 및 교육 등은 오히려 소득수준이 중간 정도일수록 어려움이 더 많았다.

다)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서비스

<표 III-1-9>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서비스 수혜 경험을 조사한 것인데, 영아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혜 경험 정도가 20.0%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학습지도에 대한 수혜 경험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영유아 모두 자녀 건강검진으로 17% 수준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한국어 교육, 예체능 교육 등에 대한 수혜 경험 정도가 높았으며, 읍·면 지역에서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서비스 수혜 경험이 높으나,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서비스 수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별로는 미취업일 경우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녀 건강검진 서비스를 수혜받은 경험이 24.1%로 취업모와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I-1-9> 다문화가족 자녀 서비스 수혜 경험

구분	단위: %							(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학습 지도	예체능 교육	자녀건강 검진	상담 및 치료	체험 활동	
전체	19.0	1.9	16.2	9.5	17.3	8.6	14.4	(10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0.0	-	13.3	8.0	17.3	9.3	14.7	(67)
유아	17.2	6.7	23.3	10.0	17.2	6.7	13.8	(35)
지역규모								
대도시	4.9	2.4	9.8	4.9	19.5	12.2	12.2	(36)
중소도시	36.0	-	8.0	23.1	23.1	16.0	20.0	(26)
읍·면	23.7	2.6	28.9	2.6	13.2	-	13.2	(40)
모취업여부								
취업	15.2	4.3	-	6.5	8.9	4.3	8.9	(44)
미취업	22.4	-	-	12.1	24.1	12.1	19.0	(55)
모 부재	-	-	-	-	-	-	-	(2)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아동 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다음은 보육·교육 대상 영유아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가구에서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52.7%, 여자가 47.3%로 조사되었다. 영아 가구에서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53.5%, 여자가 46.5%로 조사되었으며, 유아 가구에서 아동의 성별은 남자가 52.0%, 여자가 48.0%로 조사되었다(표 III-1-10 참조).

2009년 조사에서 영유아 아동 중 남자의 비율은 51.2%, 여자의 비율은 48.8%로, 이에 비해 2012년 조사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I-1-10〉 지역별 영유아의 성별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남자	55.6	52.1	51.4	53.5	53.4	50.4	52.7	52.0	55.3	50.3	51.9	52.7
여자	44.4	47.9	48.6	46.5	46.6	49.6	47.3	48.0	44.7	49.7	48.1	4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아동과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자녀가 99.0%를 차지하고, 손자는 친손자녀 0.4%, 외손자녀 0.7%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가구주의 친손자녀 비율이 1.5%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영아 가구의 경우, 읍·면 지역에서 가구주의 친손자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유아 가구의 경우 대도시에서 가구주의 외손자녀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 전체적으로 영아 가구와 유아 가구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표 III-1-11 참조).

2009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2년 조사에서 가구주의 자녀 비율이 다소 높아졌고 손자녀 비율은 낮아졌다. 2009년 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친손자녀 비율이 1.7%, 외손자녀 비율이 1.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앞서 살펴본 가구형태에서 부부와 자녀 가구 비율이 높아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⁵⁾

15) 2009년도는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의한 해체가족의 증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표 III-1-11〉 지역별 영유아와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자녀	99.4	99.0	97.5	98.9	98.9	99.7	99.0	99.3	99.0	99.3	98.0	99.0
친손자녀	0.2	-	2.2	0.5	-	-	0.3	0.1	0.2	-	1.5	0.4
외손자녀	0.5	1.0	0.4	0.6	1.1	0.3	0.6	0.7	0.8	0.7	0.4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51.4%, 둘째아 39.4%, 셋째아 8.4%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12 참조).

2009년 조사에서는 첫째아 49.5%, 둘째아 39.4%, 셋째아 9.9%, 넷째아 1.1%, 다섯째아 0.1%로 나타나, 2012년 조사에서는 첫째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2〉 출생순위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수)
전체	51.4	39.4	8.4	0.8	0.1	100.0(3,343)
영유아구분						
영아	51.3	38.4	9.5	0.8	-	100.0(1,802)
유아	51.5	40.3	7.0	1.0	0.2	100.0(1,541)
연령						
0세	50.2	39.4	9.8	0.5	-	100.0(802)
1세	54.3	35.6	9.4	0.8	-	100.0(538)
2세	49.8	39.9	9.5	0.9	-	100.0(462)
3세	53.6	39.1	6.9	0.4	-	100.0(503)
4세	51.1	40.1	6.2	2.4	0.2	100.0(556)
5세이상	50.2	41.4	7.9	0.3	0.3	100.0(482)
지역규모						
대도시	54.1	37.8	7.0	1.0	0.1	100.0(1,348)
중소도시	50.4	40.5	8.5	0.5	-	100.0(1,325)
읍·면	46.9	40.5	11.2	1.2	0.2	100.0(670)
모 취업여부						
취업	46.7	43.7	8.8	0.7	0.1	100.0(1,056)
휴직중	64.1	31.7	4.1	-	-	100.0(152)
미취업	52.7	37.7	8.5	1.0	0.1	100.0(2,115)
부재 등	76.0	24.0	-	-	-	100.0(20)
2009년	49.5	39.4	9.9	1.1	0.1	100.0(3,302)

영유아 첫째는 영아와 유아 간에 차이가 거의 없으나, 영아의 셋째아 비율이 유아보다 조금 높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도시일수록 첫째아 비율이 높고,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셋째아 비율이 높아 지역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 취업여부별로 살펴볼 경우, 휴직 중인 어머니의 첫째아 비율이 높고, 모 부재 등의 경우에는 셋째아 이상은 조사되지 않았다.

2) 아동의 건강 특성

영유아 가구 중 아동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98.3%가 이상이 없고, 0.5%가 장애, 1.2%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 사는 아동보다 읍·면 지역 아동이 상대적으로 질병이 더 많다(표 III-1-13 참조).

2009년 조사에서 영유아 장애 비율은 0.6%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0.9%, 중소도시 0.3%, 읍·면 0.7%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2012년 조사결과는 이에 비해 전체 영유아 장애 비율은 동일하나 대도시 장애 유아 비율은 줄어든 반면, 중소도시 장애 유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3〉 지역별 영유아의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장애	0.2	0.9	0.4	0.5	0.4	0.5	0.6	0.5	0.3	0.7	0.5	0.5
질병	1.1	0.2	0.8	0.7	1.9	0.7	4.3	1.8	1.5	0.5	2.2	1.2
양호	98.8	98.9	98.8	98.8	97.7	98.8	95.0	97.7	98.2	98.8	97.4	9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59)	(615)	(309)	(1,583)	(393)	(365)	(175)	(933)	(1,052)	(980)	(484)	(2,516)

영아와 유아 가구를 나누어 보면, 영아 가구에서 아동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98.8%가 이상이 없고, 0.5%가 장애, 0.7%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아동 간 건강상태 차이는 크지 않다.

유아 가구에서는 97.7%가 양호하고 2.3%가 장애나 질병이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유아의 질병 비율이 4.3%로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조사된 비율이 대도시 97.7%, 중소도시 98.8%로 95.0%인 읍·면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II-1-13 참조).

2. 사회·경제적 특성

가.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1) 모의 취업

조사 대상인 영유아 가구의 모가 현재 일하는 비율은 35.4%로 나타났다. 휴직 중인 경우도 4.1%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취업은 59.7%로 조사되었다.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아동 모의 취업률을 최연소아동 중심으로 보면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34.2%, 유아인 경우는 46.9%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영아일 때 휴직 중인 경우가 6.6%, 유아일 때 휴직 중인 경우가 0.5%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09년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영유아 모의 취업률이 35.8%, 미취업률이 61.6%로, 2012년보다 약간 높다. 최연소 아동이 영아일 경우 취업률은 29.9%였고, 유아일 경우 44.9%이었다.

〈표 III-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수)
전체	35.4	4.1	59.7	0.9	100.0(2,51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6	6.6	64.8	0.9	100.0(1,583)
유아	46.4	0.5	52.4	0.8	100.0(933)
연령					
0세	16.8	12.2	71.1	-	100.0(785)
1세	35.0	1.4	63.1	0.5	100.0(472)
2세	41.7	1.2	53.6	3.6	100.0(326)
3세	44.3	0.6	54.5	0.6	100.0(317)
4세	47.0	-	52.3	0.7	100.0(324)
5세이상	47.6	0.5	50.7	1.2	100.0(292)
2009년	35.8		61.6	4.8	100.0(2,548)
2004년	33.2		64.7	2.1	100.0(2,962)

주: 2009, 2004년 경우 휴직 중이 취업에 포함.

아동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나타내었다. 2009년 조사에서도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경우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의 취업률이 28.8%, 유아인 경우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의 취업률이 39.1%, 그리고 육아휴직을 포함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률은 33.7%로 조사되어 2012년 조사 결과

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체 여성취업률¹⁶⁾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조사 대상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율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직업

<표 III-2-2>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부모의 취업여부와 직종을 나타낸다.

먼저 부의 직업은 미취업 2.4%와 군인 포함한 기타 1.8%, 모름, 무응답 0.1%를 제외한 95.7%가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이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가 28.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5.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1%, 판매종사자 9.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6%, 관리자 6.9%, 서비스 종사자 6.0% 순이다.

모의 경우에는 미취업 62.1%와 모름, 무응답 0.1%를 제외한 37.8%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모두 12.9%도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 서비스종사자 3.6%, 판매종사자 3.5%, 단순노무종사자 2.6% 순이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영유아 가구								
관리자	8.5	4.4	8.7	6.9	0.1	0.1	0.4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6	11.9	9.2	13.1	13.6	12.2	13.0	12.9
사무종사자	29.0	32.0	19.4	28.6	14.4	13.3	9.0	12.9
서비스종사자	5.9	6.7	4.6	6.0	3.1	4.1	3.6	3.6
판매종사자	10.0	10.4	8.5	9.9	3.7	3.4	3.1	3.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	0.2	11.9	2.6	0.5	-	3.8	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1	18.5	13.8	15.8	1.1	0.4	0.6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0	6.6	6.3	7.6	0.5	0.2	0.2	0.3
단순노무종사자	3.8	6.8	5.8	5.3	2.2	2.3	4.4	2.6
기타(사병 포함)	0.3	0.3	9.4	1.8	-	-	0.2	-
미취업	2.7	2.2	2.2	2.4	60.8	63.9	61.3	62.1
모름, 무응답	-	0.1	0.2	0.1	-	0.1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30)	(962)	(480)	(2,472)	(1,050)	(975)	(478)	(2,503)

16) 2012년 7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임(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3) 종사상의 위치 및 근무형태

<표 III-2-3>은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의 위치와 근무형태를 나타낸다. 먼저 부는 70.2%가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13.6%가 자영업자, 5.0%가 고용주, 4.7%가 임시근로자, 4.0%가 일용근로자이다. 90.2%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7.3%가 불규칙한 출퇴근자라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모는 23.1%가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6.9%가 임시근로자이며, 3.3%가 무급가족종사자, 2.8%가 자영업자, 2.0%가 일용근로자이다. 30.2%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3.6%가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며 0.8%는 출퇴근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4.0%는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 지역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6.8%로 대도시 3.6%, 중소도시 1.4%보다 높으며,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는 비율도 5.8%로 대도시 4.2%, 중소도시 2.0%로 높다.

<표 III-2-3>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위치 및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종사자 위치								
고용주	4.8	5.3	4.7	5.0	0.8	0.5	0.9	0.7
자영업자	14.0	11.6	17.1	13.6	2.4	2.1	5.4	2.8
상용근로자	70.3	70.4	69.7	70.2	23.6	23.7	20.5	23.1
임시근로자	4.9	5.2	3.3	4.7	7.1	6.7	6.8	6.9
일용근로자	3.9	4.6	3.1	4.0	1.5	2.4	2.0	2.0
무급가족종사자	0.1	-	-	-	3.6	1.4	6.8	3.3
무직	2.1	3.0	2.0	2.4	61.0	63.4	57.7	61.4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90.8	90.4	88.0	90.2	30.0	30.2	30.8	30.2
불규칙하게 출퇴근	7.1	6.5	9.3	7.3	4.2	2.0	5.8	3.6
출퇴근하지 않음	-	0.1	0.7	0.2	0.4	0.8	2.0	0.8
무직	2.1	3.0	2.0	2.4	61.0	63.4	57.5	61.3
휴직중	-	-	-	-	4.5	3.6	3.8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00)	(997)	(482)	(2,479)	(1,021)	(1,010)	(480)	(2,511)

4)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에서 출근하는 시각과 집으로 귀가하는 시각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시각으로 산출한 시간에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통근 시간과 사업장에서 갖게 되는 휴게시간도 포함된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부의 근로 및 근로 소요시간은 평균 12.09시간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50.45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은 최연소 자녀연령이나 지역 등 가구 특성별로 별 차이가 없다. 취업모의 하루 근로 및 근로 소요시간은 9.18시간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39.95시간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연소 자녀연령 구분별로도 큰 차이 없이 영아와 유아가 각각 39.55시간, 40.3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의 근로시간도 지역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9년 조사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질문하였을 때 부의 하루 근로시간은 9.6시간, 모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출되었다. 2012년 조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을 포함시킨 근로시간을 산출한 것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2009년과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III-2-4〉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근로 및 근로 소요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부			모		
	평일 근로 소요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평일 근로 소요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전체	12.09	50.45	(2,418)	9.18	39.95	(83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2.07	49.97	(1,542)	9.35	40.37	(427)
유아	12.13	51.22	(876)	9.02	39.55	(410)
지역규모						
대도시	11.85	49.50	(975)	9.24	40.38	(350)
중소도시	12.41	51.35	(978)	9.29	39.25	(317)
읍·면	11.96	50.60	(465)	8.86	40.38	(170)
2009년 조사	9.60	52.40	(2,335)	8.00	43.50	(868)
2004년 조사				8.36	48.30	(930)

주: 2004년 조사에서는 취업부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5) 취업 부모의 근로소득

<표 III-2-5>는 취업한 부모의 근로소득 수준을 제시한 표이다. 먼저 부의 경우 근

로소득은 평균 314만 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연소 자녀의 연령별로는 영아 299만 3천원, 유아 339만 6천원으로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다. 또한 이러한 자녀의 연령별 부의 근로소득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329만 4천원, 읍·면 325만 8천원, 중소도시 294만 6천원 순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지역간 차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2-5〉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314.7	(2,419)		161.5	(83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99.3	(1,542)	-5.8***	171.6	(427)	2.3*
유아	339.6	(877)		152.1	(410)	
지역규모						
대도시	329.4	(975)	13.0***	177.1	(350)	9.3***
중소도시	294.6	(979)		154.5	(318)	
읍·면	325.8	(465)		142.5	(169)	
2009년	241.8	(2,335)		146.5	(868)	
2004년				115.4	(774)	

* $p < .05$, *** $p < .001$

취업한 모의 경우 근로소득은 161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의 경우 영아 자녀가 있을 때보다 유아 자녀가 있을 때 소득이 더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영아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는 영아 보육비용을 포함한 기대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보육비용의 저하와 더불어 기대임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취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표 III-2-5 참조).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의 근로소득이 177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154만 5천원, 읍·면 지역 142만 5천원 순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읍·면 지역의 소득이 중소도시 소득보다 높은 이유로는 조사 시점이 7, 8월로 특용 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시기로, 읍·면 지역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읍·면 지역 가구 중 조사 대상에 비교적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이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인 소득 평균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읍·면 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중소도시에는 노동자 계층이 많이 거주함으로써 비

교적 비슷한 소득 수준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2009년 조사 결과 취업부 월 평균 근로소득 241만 8천원, 취업모의 146만 5천원에 비하여 증가된 결과라 하겠다.

나. 주택 특성

1) 주택형태

영유아 가구의 주택 형태는 단독 21.3%, 아파트 66.1%, 연립 다세대주택 11.0%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단독주택은 읍·면 지역에, 아파트는 중소도시에서 비율이 높다(표 III-2-6 참조). 영아 가구와 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특성 분포와 유사하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다.¹⁷⁾

〈표 III-2-6〉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단독주택	20.4	17.1	32.0	21.2	23.4	18.6	30.1	22.7	20.9	17.3	31.1	21.3
아파트	62.1	68.0	64.7	64.9	61.0	70.0	67.0	65.9	62.8	69.6	66.0	66.1
연립 다세대주택	16.9	11.3	2.5	12.1	15.1	8.8	2.2	9.9	15.9	10.0	2.2	11.0
영업용 건물 내	0.6	3.6	0.7	1.8	0.5	2.7	0.6	1.4	0.4	3.1	0.7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2) 주택 소유 여부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49.2%, 전세 30.6%이고, 전·월세 13.6%, 사글세 0.8%이다. 지역별로는 자가 비율이 대도시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소유만으로 보면 7.6%가 주택을 소유하지만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무주택 비율은 43.0%이다(표 III-2-7 참조).

영아 가구의 거주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48.4%, 전세 32.7%이고, 전·월세 12.3%,

17) 2009년 조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27.8%, 아파트 52.4%,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 17.8%로 나타남.

사글세 0.8%이다. 지역별로는 자가비율이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비율은 6.6%이며, 무주택 비율은 44.9%이다.

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49.6%, 전세 28.6%이고, 전·월세 15.3%, 사글세 0.9%이다. 영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의 자가비율이 높다.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비율은 8.4%로 영아 가구보다 높았으며, 무주택 비율은 41.7%로 영아 가구보다 낮다.

2009년 조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44.2%, 전세 32.8%, 전월세 14.5% 등으로 나타났고, 무주택 비율은 46.8%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를 이와 비교해봤을 때 자가 비율이 2009년보다 증가했으며 무주택 비율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7〉 영유아 가구의 주택소유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거주주택형태												
자가	54.1	42.4	47.7	48.4	55.2	42.3	54.3	49.6	55.4	42.7	49.7	49.2
전세	33.2	38.1	19.7	32.7	29.6	32.7	17.9	28.6	31.1	34.9	19.4	30.6
전월세	8.1	14.0	18.3	12.3	9.1	19.5	18.2	15.3	8.5	16.4	19.0	13.6
사글세	1.2	0.5	0.4	0.8	1.1	0.9	0.3	0.9	1.1	0.7	0.4	0.8
기타	3.3	5.1	14.0	5.9	4.9	4.6	9.3	5.6	4.0	5.3	11.5	5.9
주택소유												
있음	4.1	8.9	7.5	6.6	7.3	9.8	7.7	8.4	6.1	9.0	8.2	7.6
없음	41.7	48.6	44.4	44.9	37.1	47.8	37.8	41.7	38.3	48.3	42.0	43.0
무응답	-	0.2	0.4	0.1	0.2	0.1	-	0.1	0.1	0.1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 중 1.4%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 지역 순서로 비율이 높아진다.

영아 가구의 경우 읍·면 지역의 급여 대상 비율이 2.5%로 높으며, 유아 가구의 경우 대도시 지역의 급여 대상 비율이 2.0%로 가장 높다(표 III-2-8 참조).

2009년 조사에서 영유아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자는 전체 2.3%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2009년 조사보다 적게 표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8〉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단위: %(가구)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급여 대상	1.7	1.3	2.5	1.7	2.0	0.9	1.6	1.4	1.4	1.3	1.5	1.4
비급여	98.3	98.7	97.5	98.3	98.0	99.1	98.4	98.6	98.6	98.7	98.5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5)	(638)	(312)	(1,595)	(621)	(649)	(331)	(1,601)	(1,024)	(1,017)	(487)	(2,528)

2) 소득 수준

가) 지역별 소득 수준

먼저 분석에 앞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근거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2012년 2/4분기와 3/4분기 소득 분위별 평균과 본 조사 대상의 소득 분위별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III-2-9>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조사대상의 소득 1분위는 통계청 자료의 소득 1분위보다 소득 수준이 높으며, 10분위는 소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조사대상의 소득 분포가 다소 고르며,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2-9〉 소득분위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4분기	83.2	172.0	236.2	290.0	335.8	383.2	437.4	505.7	599.8	898.5
3/4분기	84.8	179.2	243.3	296.5	345.4	397.0	455.1	524.8	637.9	977.0
보육실태	141.5	207.1	247.7	277.4	308.6	352.8	407.8	475.7	558.5	850.4

<표 III-2-10>은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82만 1천원이며, 표준편차는 212만 6천원으로 편차가 크다. 영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67만 6천원이며 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91만 3천원으로, 유아 가구가 영아 가구보다 월 소득이 24만원 정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가구는 월 평균 150만원 미만인 3.3%, 150~199만원이 7.7%, 200~249만원이 12.0%, 250~299만원이 15.9%, 300~349만원이 14.5%, 350~399만원이 7.8%, 400~499만원이 16.3%, 500~599만원이 10.2%, 600~699만원이 5.8%, 700만원 이상이 6.7%이다. 지역별로는 월 평균 소득이 대도시의 경우 399만 3천원, 중소도시의 경우 353만 3천원, 읍·면 지역의 경우 408만 1천원으로, 읍·면 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0〉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149만원 이하	2.3	5.4	2.2	3.5	2.6	4.3	1.6	3.1	2.4	4.8	1.8	3.3
150~199만원	8.5	7.6	8.6	8.2	7.5	7.0	6.1	7.1	7.8	7.5	7.3	7.7
200~249만원	13.0	16.4	11.5	14.1	11.2	12.0	7.3	10.8	11.3	13.5	9.9	12.0
250~299만원	16.2	19.7	17.6	17.9	13.8	14.4	14.1	14.2	15.1	17.1	15.2	15.9
300~349만원	13.0	15.0	11.1	13.4	13.0	17.1	14.4	15.0	13.5	16.2	13.0	14.5
350~399만원	7.3	7.6	8.6	7.6	9.1	8.2	8.6	8.6	7.7	7.7	8.2	7.8
400~499만원	14.8	14.1	16.8	14.8	15.8	16.8	20.1	17.0	15.7	16.1	18.1	16.3
500~599만원	11.6	7.6	8.2	9.5	10.7	10.7	10.9	10.8	11.6	8.8	10.2	10.2
600~699만원	6.1	3.0	5.4	4.6	7.3	4.8	8.6	6.4	6.8	4.3	6.8	5.8
700만원이상	7.3	3.6	10.0	6.3	8.8	4.8	8.3	7.0	8.1	4.1	9.5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4)	(638)	(312)	(1,594)	(620)	(648)	(331)	(1,599)	(1,023)	(1,016)	(487)	(2,526)
평균	385.4	336.5	393.5	367.6	403.6	367.6	417.9	391.3	399.3	353.3	408.1	382.1
(표준편차)	(208.3)	(191.0)	(204.4)	(202.4)	(229.6)	(207.3)	(213.6)	(218.2)	(222.0)	(198.6)	(214.0)	(212.6)

2009년 조사¹⁸⁾와 비교해봤을 때 전체 평균 소득은 85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읍·면 지역의 가구 소득 증가폭은 대도시, 중소도시의 소득 증가폭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읍·면 지역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평균 가구원 수가 대도시 3.81명, 중소도시 3.85명, 읍·면 지역 4.12명으로 나타나 읍·면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가구원 수가 0.3명 정도 많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 수입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가구 소득으

18) 영유아 가구의 전체 평균 소득이 297만 2천원이었고, 대도시 321만원, 중소도시 286만 1천원, 읍·면 지역 260만 3천원임.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아 가구는 월 평균 150만원 미만이 3.5%, 150~199만원이 8.2%, 200~249만원이 14.1%, 250~299만원이 17.9%, 300~349만원이 13.4%, 350~399만원이 7.6%, 400~499만원이 14.8%, 500~599만원이 9.5%, 600~699만원이 4.6%, 700만원 이상이 6.3%이다. 지역별로는 월 평균 소득이 대도시의 경우 385만 4천원, 중소도시의 경우 336만 5천원, 읍·면 지역의 경우 393만 5천원으로, 읍·면 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가 있는 가구로 한정지어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이 영유아 전체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유아 가구는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이 3.1%, 150~199만원이 7.1%, 200~249만원이 10.8%, 250~299만원이 14.2%, 300~349만원이 15.0%, 350~399만원이 8.6%, 400~499만원이 17.0%, 500~599만원이 10.8%, 600~699만원이 6.4%, 700만원 이상이 7.0%이다. 영아 가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소득 하위층은 영아 가구에 집중된 반면 유아 가구는 소득 상위층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월 평균 소득이 대도시의 경우 403만 6천원, 중소도시의 경우 367만 6천원, 읍·면 지역의 경우 417만 9천원으로, 영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4분기와 3/4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은 각각 394만 2천원, 414만 2천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본 조사의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나) 모 취업여부별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별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면 전체 영유아 가구의 취업모의 소득수준은 469만 6천원이고 표준편차는 239만원 2천원으로 편차가 크며, 모가 휴직 중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과 표준편차가 각각 464만원, 258만 4천원으로 모가 취업중인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모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과 표준편차가 각각 329만 1천원, 172만 1천원으로 취업모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모 부재인 가구는 월 평균소득 150만원 미만이 26.3%에 달한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차이는 140만원이다(표 III-2-11 참조).

영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취업모의 소득수준은 475만 5천원이며 휴직 중인 경우 소득수준은 464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315만 3천원으로 조사되어,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차이는 160만원 정도이다.

〈표 III-2-11〉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149만원 이하	2.1	2.1	3.9	27.3	3.5	2.1	6.7	3.2	45.5	3.1	2.2	2.0	3.6	26.3	3.3
150~199만원	2.4	-	11.4	-	8.2	2.4	-	10.4	9.1	7.1	2.4	-	11.0	5.3	7.7
200~249만원	4.5	4.2	19.0	9.1	14.1	5.3	-	14.7	27.3	10.8	4.7	4.0	16.5	21.1	12.0
250~299만원	10.2	13.7	21.0	54.5	17.9	11.0	3.3	16.9	-	14.2	10.3	13.1	19.2	31.6	15.9
300~349만원	10.2	16.8	14.6	-	13.4	12.4	13.3	16.8	18.2	15.0	11.8	16.2	16.0	10.5	14.5
350~399만원	9.3	14.7	6.4	-	7.6	10.4	23.3	7.1	-	8.6	9.6	15.2	6.4	-	7.8
400~499만원	24.3	20.0	10.7	-	14.8	22.5	26.7	13.2	-	17.0	23.5	21.2	12.0	-	16.3
500~599만원	13.1	10.5	8.0	-	9.5	12.9	6.7	9.6	-	10.8	12.9	10.1	8.7	-	10.2
600~699만원	11.2	5.3	1.9	9.1	4.6	11.3	6.7	3.2	-	6.4	11.3	6.1	2.7	5.3	5.8
700만원 이상	12.6	12.6	3.2	-	6.3	9.9	13.3	4.9	-	7.0	11.3	12.1	3.9	-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27)	(107)	(1,053)	(7)	(1,594)	(596)	(34)	(958)	(11)	(1,599)	(836)	(112)	(1,562)	(16)	(2,526)
평균	475.5	464.1	315.3	279.3	367.6	459.4	467.3	345.9	179.2	391.6	469.6	464.0	329.1	243.3	382.1
(표준편차)	(227.6)	(264.1)	(160.1)	(165.7)	(202.4)	(237.7)	(276.1)	(188.8)	(82.4)	(218.6)	(239.2)	(258.4)	(172.1)	(135.6)	(212.6)

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보면 취업모의 소득은 월 평균 459만 4천원이고 휴직 중인 경우 467만 3천원이며, 미취업모의 소득은 345만 9천원으로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차이는 114만원 정도이다. 모 부재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 150만원 미만이 45.5%로 영아 가구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가구소득 차이는 영아 가구가 유아 가구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취업모의 근로 소득에서 설명했듯이 영아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영아 보육비용을 포함한 기대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모의 취업률의 증가가 주로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의 취업 비율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 역시 여전하다고 하겠다.

다)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영유아가 있는 가구 전체의 평균은 382만 1천원인데, 가구 규모별로는 2인 가구가 138만 4천원, 3인 가구가 평균 363만 2천원, 4인 가구가 평균 382만 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빈도 분포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이 8.6%이다(표 III-2-12 참조)

2012년도 2/4분기와 3/4분기 우리나라 4인 가구의 명목소득 각각 458만 3천원, 489만 6천원과 비교하면¹⁹⁾, 영유아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III-2-12〉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49만원 이하	58.3	4.4	2.1	3.5	0.8	3.3
150~199만원	8.3	8.7	6.5	9.0	5.3	7.7
200~249만원	25.0	12.7	12.1	10.4	9.1	12.0
250~299만원	8.3	16.6	16.6	12.5	15.2	15.9
300~349만원	-	15.5	14.9	14.5	6.1	14.5
350~399만원	-	7.2	8.3	6.4	10.6	7.8
400~499만원	-	15.2	16.9	16.8	18.2	16.3
500~599만원	-	8.8	10.5	12.5	11.4	10.2
600~699만원	-	5.7	5.5	6.4	7.6	5.8
700만원 이상	-	5.2	6.5	8.1	15.9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	(901)	(1,147)	(329)	(135)	(2,526)
평균	138.4	363.2	382.4	399.3	490.6	382.1
(표준편차)	(71.9)	(202.1)	(197.6)	(238.8)	(286.1)	(212.6)

3) 지출

가) 지역별 지출수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303만 7천원으로 소득과의 차이는 약 79만원이다. 분포는 200~249만원, 250~299만원이 각각 19.5%, 17.3%로 가장 많다. 500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도 10% 정도로 나타났다(표 III-2-13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 308만 4천원, 중소도시 290만 7천원, 읍·면 322만 3천원으로 조사되어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평균 지출이 적다.

2009년 조사²⁰⁾와 비교해봤을 때 전체 평균 지출은 63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읍·면 지역의 가구 지출 증가폭은 대도시, 중소도시의 지출 증가폭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

19) 2/4분기와 3/4분기의 2인 가구의 명목 소득은 각각 277만 4천원, 280만 4천원임. 3인 가구의 명목 소득은 각각 404만 9천원, 423만 3천원임. 영유아 가구는 1인 가구가 없으므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평균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20) 영유아 가구의 전체 평균 지출이 240만 1천원이었고, 대도시 253만 7천원, 중소도시 234만 4천원, 읍·면 지역 217만 4천원으로 나타남.

로 나타났다.

〈표 III-2-13〉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149만원 이하	3.8	5.1	4.3	4.4	3.4	4.0	1.6	3.3	3.8	5.0	3.1	4.2
150~199만원	14.7	17.6	14.1	15.7	11.4	9.6	10.6	10.6	12.7	14.4	11.5	13.2
200~249만원	23.1	21.9	21.7	22.4	19.4	17.4	14.4	17.6	20.8	18.6	18.8	19.5
250~299만원	15.4	19.9	13.4	16.8	16.0	19.3	15.7	17.3	16.5	19.5	13.9	17.3
300~349만원	13.0	12.3	14.1	12.9	13.0	15.0	18.3	14.9	12.5	13.8	16.3	13.7
350~399만원	9.5	9.0	8.3	9.1	9.8	11.4	8.7	10.2	9.6	10.1	8.2	9.5
400~499만원	10.9	7.9	14.1	10.2	14.7	15.1	17.0	15.3	12.5	11.6	15.0	12.6
500~599만원	5.4	3.8	3.6	4.5	7.7	5.5	8.7	6.9	7.0	4.7	6.8	6.0
600~699만원	1.7	0.3	2.5	1.3	1.6	0.6	2.9	1.4	1.6	0.5	2.9	1.4
700만원이상	2.6	2.1	4.0	2.7	3.1	2.1	2.2	2.5	3.0	1.9	3.5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4)	(638)	(312)	(1,594)	(620)	(649)	(331)	(1,600)	(1,023)	(1,017)	(487)	(2,527)
평균	296.0	278.1	307.7	291.1	319.7	305.6	330.9	315.9	308.4	290.7	322.3	303.7
(표준편차)	(139.8)	(142.5)	(149.0)	(142.7)	(155.2)	(134.6)	(140.3)	(144.2)	(148.9)	(139.5)	(148.7)	(145.5)

영아 가구만을 살펴보면 월 평균 지출은 291만 1천원으로 영유아 가구 전체보다 10만원 이상 적다. 소득과의 격차는 76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분포는 200~249만원이 22.4%, 250~299만원이 16.8%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296만원, 중소도시 278만 1천원, 읍·면 지역 307만원 7천원으로 조사되어, 읍·면 지역의 지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가구를 살펴보면 월 평균 지출은 315만 9천원으로 나타나 영아 가구보다 24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는 영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200~249만원이 17.6%, 250~299만원이 17.3%로 가장 많다. 유아 가구 역시 전체 영유아 가구, 영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월 평균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모 취업여부별 지출수준

모 취업여부별로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을 보면 취업모 가구의 지출 수준은 전체 평균이 303만 7천원 수준이고 표준편차가 145만 5천원으로 편차가 크다. 모가 취

업한 경우는 352만 1천원, 152만 2천원이며, 모가 미취업인 경우는 272만 8천원으로 취업모와 미취업 모 간에 80만원 정도의 지출액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월 평균 지출액이 374만 1천원으로, 취업 중인 경우보다 월 평균 지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부재 중인 경우는 월 평균 지출 수준이 220만원으로 모 취업 및 미취업 가구보다 적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149만원 이하	3.1	-	5.2	20.0	4.4	2.9	-	3.2	36.4	3.3	3.2	-	4.7	21.1	4.2
150~199만원	5.7	4.2	21.0	-	15.7	5.6	-	14.3	9.1	10.6	5.6	4.0	18.2	5.3	13.2
200~249만원	11.7	10.5	27.5	50.0	22.4	9.2	6.9	23.4	27.3	17.6	9.8	11.0	25.3	47.4	19.5
250~299만원	17.0	26.3	15.9	10.0	16.8	18.0	17.2	17.1	-	17.3	17.9	26.0	16.5	5.3	17.3
300~349만원	15.6	22.1	11.0	10.0	12.9	14.6	24.1	14.7	27.3	14.9	14.8	21.0	12.6	15.8	13.7
350~399만원	12.7	10.5	7.6	-	9.1	13.2	10.3	8.3	-	10.2	12.5	10.0	7.9	-	9.5
400~499만원	17.5	12.6	7.1	-	10.2	22.8	24.1	10.2	-	15.3	20.6	14.0	8.1	-	12.6
500~599만원	9.6	4.2	2.4	10.0	4.5	9.1	3.4	5.6	-	6.9	9.3	4.0	4.3	5.3	6.0
600~699만원	2.9	3.2	0.5	-	1.3	1.8	10.3	1.0	-	1.4	2.4	4.0	0.7	-	1.4
700만원 이상	4.3	6.3	1.7	-	2.7	2.9	3.4	2.3	-	2.5	3.8	6.0	1.8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27)	(107)	(1,053)	(7)	(1,594)	(597)	(34)	(958)	(11)	(1,600)	(837)	(112)	(1,562)	(16)	(2,527)
평균	352.5	373.6	258.7	240.5	291.1	349.5	394.0	292.4	184.7	315.9	352.1	374.1	272.8	220.0	303.7
(표준편차)	(152.5)	(223.8)	(115.3)	(119.4)	(142.7)	(146.8)	(196.0)	(135.0)	(79.7)	(144.2)	(152.2)	(220.8)	(125.5)	(101.0)	(145.5)

영아 가구만을 살펴보면 월 평균 지출액은 291만 1천원이다. 취업모 가구의 지출 수준은 352만 5천원이며, 미취업인 경우 258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모가 부재인 경우 240만원 5천원으로 취업 및 미취업 모와 많은 차이가 있다. 영유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모가 휴직 중일 경우 지출액은 373만원 6천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유아 가구만을 살펴보았을 때 월 평균 지출액은 315만 9천원으로 영아 가구보다 24만원 가량 높았다.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349만 5천원으로 영아가 있는 취업모 가구보다 더 적었다. 유아 미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292만 4천원으로 영아 가구의 미취업모 가구보다 더 많다. 유아 가구 역시 모가 휴직 중인 경우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는데, 월 평균 394만원 정도였다. 한편 유아 가구에서 모가 부재할 경우 월 평균 지출액은 184만 7천원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 가구규모별 지출수준

가구규모별 가구 지출 수준을 보면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4인 가족이 평균 308만 9천원으로 산출되었고, 영유아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평균 303만 7천원으로 4인 가족과 유사하다(표 III-2-15 참조).

〈표 III-2-15〉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49만원 이하	46.2	6.5	3.0	1.7	-	4.2
150~199만원	15.4	17.6	11.5	9.3	7.6	13.2
200~249만원	30.8	20.9	18.4	20.3	17.6	19.5
250~299만원	7.7	18.0	18.5	14.0	10.7	17.3
300~349만원	-	11.8	15.0	14.8	13.7	13.7
350~399만원	-	8.5	10.3	6.4	18.3	9.5
400~499만원	-	8.6	13.8	18.6	15.3	12.6
500~599만원	-	5.3	6.1	8.1	5.3	6.0
600~699만원	-	1.4	0.9	2.6	3.1	1.4
700만원 이상	-	1.3	2.6	4.1	8.4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	(901)	(1,147)	(330)	(135)	(2,527)
평균	145.8	276.7	308.9	335.2	377.1	303.7
(표준편차)	68.6	128.3	137.3	164.7	199.7	144.6

3. 시사점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의 취업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부의 평균 연령은 37.1세, 모는 34.2세이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는 어머니 한부모 가구가 1.1%, 아버지 한부모 가구가 0.2%이고,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은 12.0%이다.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적으로 0.2%이고 읍·면이 1.1%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읍·면은 3세대 이상 가구가 18.1%로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영유아 가구 중 3.9%가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이며, 영유아 모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는 읍·면 8.2%, 대도시 3.4%, 중소도시 2.5%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382만 1천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2012

년 2/4분기와 3/4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이 394만 2천원, 414만 2천원임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를 둔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분포상으로 200만원 미만이 11.0%이고, 200~349만원 사이에 42.4%이며 349만원 이하가 53.4%이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순이다. 읍·면지역 408만 1천원, 대도시 399만 3천원, 중소도시 353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303만 7천원이고 구간별로는 200~249만원이 19.5%, 250~299만원이 17.3%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322만 3천원, 대도시 308만 4천원, 중소도시 290만 7천원으로 조사되어,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평균 지출이 높다.

넷째, 어머니의 부재 비율을 포함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취업한 비율은 39.5%이며, 최연소 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34.2%, 유아인 경우는 46.9%이다. 또한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나타낸다.

다섯째, 조사 대상 영유아의 출생 순위는 첫째아 51.4%, 둘째아 39.4%, 셋째아 8.4% 순이다.

IV. 영유아 양육 특성

제4장에서는 조사 대상 영유아의 주 양육자와 부모 양육 실태, 그리고 모의 취업과 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우선 낮 시간 기준의 주양육자를 조사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각 시간대별 이용 기관 또는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루었다. 이때 특히 자녀 연령과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이용 실태에 주목하였다. 제2절에서는 양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남편 외 양육 지원자, 육아 정보 습득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모의 경력 단절 및 사유, 모의 취업 계획 등을 분석하여 모의 취업과 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자녀의 양육자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과 평일 하루 기준으로 이용기관 또는 돌보는 사람에 자녀 연령과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낮 시간 돌보는 사람

낮 시간 동안의 주양육자 즉 해당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5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37.5%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5.4%이었다. 영유아 구분별로 보면, 영아는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53.9%로 20.9%인 유아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도 영아가 7.7%로 유아 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에 맡기는 비율은 1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3세 이후로는 7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이외 연령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각각 8.1%와 10%를 나타낸다(표 IV-1-1 참조).

〈표 IV-1-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 척	비혈 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 에 맡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0.1	37.5	0.1	1.9	3.5	0.1	0.5	0.1	56.0	0.1	100.0(3,343)	
영유아구분												
영아	0.1	53.9	0.4	2.7	5.0	0.1	0.8	0.2	36.7	-	100.0(1,802)	529.5(9)***
유아	0.2	20.9	-	1.0	1.9	0.1	0.2	0.1	75.5	0.1	100.0(1,541)	
연령												
0세	0.1	80.6	-	2.6	5.5	0.1	0.7	0.3	10.1	-	100.0(802)	
1세	-	42.2	-	3.1	6.9	-	1.2	0.2	46.4	-	100.0(538)	
2세	-	24.3	1.1	2.6	2.6	0.4	0.6	-	68.4	-	100.0(462)	1043.3(45)***
3세	0.2	23.8	-	1.0	3.2	-	0.4	0.4	71.1	-	100.0(503)	
4세	0.2	20.0	-	1.2	1.2	0.4	0.2	-	76.4	0.4	100.0(556)	
5세	-	19.5	-	0.8	1.4	-	0.2	-	78.2	-	100.0(482)	
지역규모												
대도시	0.1	40.9	0.1	1.8	4.8	-	1.2	0.1	51.0	-	100.0(1,348)	73.8(18)***
중소도시	0.1	34.7	0.3	1.4	2.8	0.3	-	0.2	60.1	0.1	100.0(1,325)	
읍·면	0.3	35.5	0.2	2.9	1.6	0.2	-	-	59.3	-	100.0(670)	
모취업 여부												
취업	0.4	9.7	0.4	4.2	8.8	0.4	1.5	0.4	74.0	0.2	100.0(1,056)	
휴직중	-	61.8	-	0.7	2.8	-	-	-	34.7	-	100.0(152)	1001.2(27)***
미취업	-	51.4	-	0.1	0.6	-	-	-	47.9	-	100.0(2,115)	
부채 등	-	-	-	45.8	4.2	-	-	-	50.0	-	100.0(20)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	45.1	-	2.9	2.9	-	-	-	49.0	-	100.0(98)	
150~199만원	-	42.9	-	-	-	0.4	-	-	56.7	-	100.0(245)	
200~249만원	-	45.8	-	0.5	0.7	-	-	-	53.0	-	100.0(416)	
250~299만원	0.2	43.8	0.6	1.2	1.0	0.8	-	-	52.5	-	100.0(537)	
300~349만원	-	43.2	-	1.9	1.0	-	-	-	53.9	-	100.0(511)	440.4(81)***
350~399만원	-	36.7	-	1.8	4.3	-	-	-	57.2	-	100.0(280)	
400~499만원	0.4	29.2	-	2.8	5.0	-	0.4	0.2	62.1	-	100.0(525)	
500~599만원	-	33.6	-	2.9	6.4	-	-	-	56.8	0.3	100.0(350)	
600~699만원	-	17.5	-	5.4	7.8	-	-	0.6	68.7	-	100.0(153)	
700만원이상	-	28.4	0.4	1.3	10.2	-	6.4	1.7	51.7	-	100.0(225)	

*** $p < .001$

낮 시간 동안의 주양육자는 지역규모, 모의 취업,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지역규모별로 중소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는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각각 60.1%와 59.3%로 높고,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은 대도시 지역이 40.9%로 이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

이 74.0%로 가장 높고,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은 9.7%이며, 이외에도 조부모와 비혈연 및 육아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3.0%, 1.9%로 상대적으로 높다. 휴직 중인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61.8%로 가장 높아 직접 양육 실태를 확인시켜준다. 가구소득별로 비교하면 월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가구는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45.1%로 높는데 반해 기관 이용 비율이 4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외에도 월 가구소득이 3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40%대로 평균보다 높고, 월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6~13%대로 평균보다 높다. 이는 차상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돌볼 가능성이 높고,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양육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표 IV-1-1 참조).

<표 IV-1-2>는 최연소자녀 연령별로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를 부모 이외에 누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1세 미만과 1세~2세 미만인 경우는 조부모가 각각 82.6%, 74.2%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외에 가정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세~3세 미만인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고, 해당 비율은 3세~4세 미만아의 경우는 70.1%로 높아진다. 반면에 4세~5세 미만아는 56.1%가 유치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취학전 5세아의 경우 89.0%로 증가한다. 이는 아동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부모,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유치원 순으로 부모 이외의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2〉 최연소 자녀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1세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전 (5세)
조부모	82.6	74.2	30.6	4.8	0.6	0.2
친인척	4.1	4.4	2.4	0.8	0.3	0.2
탁아모 등 비혈연인	1.4	1.4	1.0	0.5	0.1	-
가정어린이집	4.6	10.8	24.8	12.9	4.3	0.6
가정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1.7	5.6	38.6	70.1	37.9	9.0
유치원	-	-	0.4	9.9	56.1	89.0
(반일제)학원	-	-	0.1	0.3	0.5	1.0
부모만 가능	5.6	3.6	2.1	0.7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5)	(2,525)	(2,526)	(2,527)	(2,527)	(2,527)

나.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평일 시간대를 오전(07:00~12:00), 오후(12:01~18:00), 늦은 오후(18:01~22:30)로 구분하여 이용기관 또는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영유아 구분, 자녀 연령별, 모의 취업 여부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1) 영유아 전체

먼저 전체 영유아 통계를 제시하였다. 오전 시간대에는, 오전 9시까지 주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최저 63.8%로 가장 낮고 이외에도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비율이 최대 8.9%로 높다.

〈표 IV-1-3〉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2	-	94.7	-	-	4.7	0.4
07:31~08:00	1.0	0.4	91.8	-	-	6.3	0.5
08:01~08:30	6.1	2.7	81.5	0.1	-	8.9	0.7
08:31~09:00	16.5	10.4	63.8	1.4	-	7.1	0.8
09:01~09:30	30.7	19.5	40.9	3.2	-	5.0	0.7
09:31~10:00	40.2	23.9	28.2	3.9	0.1	3.2	0.5
10:01~10:30	43.6	24.2	24.2	4.0	0.3	3.1	0.5
10:31~11:00	44.4	24.2	23.4	4.0	0.5	3.0	0.6
11:01~11:30	44.5	24.2	23.1	4.0	0.6	3.1	0.6
11:31~12:00	44.5	24.3	23.0	4.0	0.5	3.1	0.6
12:01~12:30	44.7	24.3	23.0	4.0	0.2	3.2	0.6
12:31~13:00	44.5	24.3	23.2	4.0	0.2	3.3	0.6
13:01~13:30	44.0	24.1	23.8	4.0	0.1	3.4	0.6
13:31~14:00	43.8	24.1	23.8	4.0	0.1	3.6	0.5
14:01~14:30	43.4	21.9	25.5	3.8	1.1	3.8	0.6
14:31~15:00	42.3	19.6	28.5	3.1	1.6	4.1	0.7
15:01~15:30	39.2	16.3	33.3	2.0	3.6	4.8	0.8
15:31~16:00	34.8	13.7	39.5	1.2	4.4	5.6	0.8
16:01~16:30	26.4	10.6	49.2	0.7	5.1	7.0	1.0
16:31~17:00	20.4	8.0	56.5	0.6	5.2	8.1	1.1
17:01~17:30	12.6	4.6	64.7	0.3	5.2	11.4	1.1
17:31~18:00	8.8	2.8	70.7	0.1	4.2	12.3	1.1

(표 IV-1-3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18:01~18:30	4.2	1.1	78.9	-	2.4	12.4	0.9
18:31~19:00	1.8	0.4	85.3	-	1.1	10.5	0.9
19:01~19:30	0.9	0.2	90.7	-	0.3	7.3	0.6
19:31~20:00	0.5	0.1	92.7	-	-	6.2	0.5
20:01~20:30	0.2	-	95.3	-	-	4.2	0.3
20:31~21:00	0.1	-	96.3	-	-	3.4	0.2
21:01~21:30	0.1	-	97.3	-	-	2.6	0.1
21:31~22:00	0.1	-	97.4	-	-	2.5	-
22:01~22:30	-	-	97.6	-	-	2.4	-

오전 9시 이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각각 44.5%, 24.3%로 나타나며, 반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최저 23.0%,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3.0%로 감소한다(표 IV-1-3 참조).

12시 이후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기관 이용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비율이 급격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과 6시 사이에는 각각 8.8%와 2.8%로 감소한다. 반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70.7%까지 증가하며, 혈연인이 돌보는 비율도 이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3~4%대를 유지한다.

오후 6시 이후 늦은 오후 시간대에는 부모가 주로 돌보며, 조부모와 친인척 등의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6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4.2%에서 1% 미만으로 급감한다. 본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은 최대 오후 10시까지, 유치원은 최대 오후 8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자녀 연령별

가) 0세 영아

0세아의 오전 시간대 이용기관과 주양육자를 살펴보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5~95%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 7시 30분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시작되어 최대 13.9%까지 증가하며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약 8~9% 수준을 나타낸다(표 IV-1-4 참조).

오후 시간대는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최소 11.1%였다가 이후 10% 미만

으로 감소하며, 이와 동시에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많게는 약 84%까지 증가한다. 즉, 0세아 중 10~13% 정도는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나, 이 외 아동은 부모 또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이나 비혈연이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5.6	-	-	4.3	-
07:31~08:00	0.6	-	93.9	-	-	5.2	0.3
08:01~08:30	2.7	-	87.6	-	-	9.2	0.6
08:31~09:00	4.2	-	86.0	-	-	8.9	0.9
09:01~09:30	7.6	-	82.6	-	-	8.5	1.3
09:31~10:00	10.1	-	79.6	-	0.1	8.9	1.3
10:01~10:30	13.1	-	76.7	-	0.1	9.0	1.2
10:31~11:00	13.3	-	76.3	-	0.1	9.0	1.3
11:01~11:30	13.9	-	75.7	-	0.2	8.9	1.3
11:31~12:00	13.9	-	75.6	-	0.2	9.0	1.3
12:01~12:30	14.1	-	75.1	-	0.2	9.2	1.4
12:31~13:00	13.9	-	74.8	-	0.5	9.5	1.3
13:01~13:30	13.2	-	75.9	-	0.2	9.4	1.3
13:31~14:00	12.8	-	75.4	-	0.4	10.2	1.2
14:01~14:30	11.9	-	75.8	-	0.5	10.6	1.2
14:31~15:00	11.1	-	77.1	-	0.2	10.3	1.3
15:01~15:30	9.4	-	78.3	-	0.2	10.8	1.3
15:31~16:00	8.8	-	79.0	-	-	10.8	1.3
16:01~16:30	7.0	-	81.9	-	-	9.8	1.3
16:31~17:00	6.5	-	81.9	-	-	10.2	1.3
17:01~17:30	5.0	-	83.4	-	-	10.4	1.2
17:31~18:00	3.9	-	83.7	-	-	11.2	1.1
18:01~18:30	2.7	-	85.8	-	-	10.9	0.6
18:31~19:00	1.0	-	89.1	-	-	9.4	0.6
19:01~19:30	0.4	-	92.9	-	-	6.2	0.4
19:31~20:00	0.4	-	94.2	-	-	5.2	0.3
20:01~20:30	0.2	-	96.1	-	-	3.6	0.1
20:31~21:00	-	-	96.2	-	-	3.7	0.1
21:01~21:30	-	-	96.8	-	-	3.2	-
21:31~22:00	-	-	97.3	-	-	2.7	-
22:01~22:30	-	-	97.4	-	-	2.6	-

오후 6시 이후로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최소 85.8%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

차 증가하며,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돌봄은 오후 8시를 기점으로 5% 미만으로 감소한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6시 이후 3% 미만으로 낮아져서 미미한 수준을 나타낸다. 0세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종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나,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을 감안하면 보육서비스가 요구되는 시간대는 최소 오후 8시까지임을 알 수 있다.

나) 1세 영아

1세아의 경우 오전 시간대 이용기관과 주양육자를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본격화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당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최대 6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세아는 0세와는 달리 기관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오전 9시 30분 이후로는 50% 이하로 감소한다.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0% 미만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오후 4시를 기점으로 50%를 육박하여 최대 약 70%까지 증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10% 이상으로 증가한다.

오후 6시 이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5% 이하 수준을 보이며,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 또한 부모가 돌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 역시 오후 7시를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점차 감소한다.

〈표 IV-1-5〉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3	-	92.9	-	-	5.8	1.0
07:31~08:00	2.8	-	88.7	-	-	7.5	1.0
08:01~08:30	9.7	-	76.6	-	-	12.4	1.4
08:31~09:00	19.2	-	67.6	-	-	11.7	1.5
09:01~09:30	37.4	0.2	52.3	0.2	-	8.3	1.5
09:31~10:00	54.3	0.2	37.9	0.3	0.2	6.1	1.1
10:01~10:30	60.6	0.2	30.1	0.3	1.4	6.1	1.2
10:31~11:00	62.3	0.2	28.0	0.3	2.6	5.4	1.2
11:01~11:30	62.2	0.2	27.5	0.3	3.0	5.6	1.2
11:31~12:00	62.2	0.2	28.2	0.3	2.3	5.6	1.2

(표 IV-1-5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12:01~12:30	62.8	0.2	28.7	0.3	1.1	5.6	1.2
12:31~13:00	61.8	0.2	30.0	0.3	0.9	5.6	1.2
13:01~13:30	59.6	0.2	31.6	0.3	0.2	6.8	1.2
13:31~14:00	59.2	0.2	32.0	0.3	0.1	6.9	1.2
14:01~14:30	59.1	0.2	31.8	0.3	0.2	7.0	1.2
14:31~15:00	58.8	0.1	32.6	0.1	0.1	7.0	1.2
15:01~15:30	53.9	0.1	37.0	0.1	-	7.4	1.5
15:31~16:00	44.2	0.1	44.1	0.1	-	10.0	1.5
16:01~16:30	32.6	-	54.2	0.1	-	11.3	1.8
16:31~17:00	26.2	-	59.7	0.1	-	12.0	1.9
17:01~17:30	16.4	-	68.0	0.1	-	13.8	1.7
17:31~18:00	13.3	-	71.2	-	-	13.5	1.9
18:01~18:30	5.5	-	80.0	-	-	12.7	1.8
18:31~19:00	2.3	-	84.7	-	-	11.2	1.7
19:01~19:30	1.0	-	89.8	-	-	7.9	1.2
19:31~20:00	0.3	-	91.1	-	-	7.4	1.1
20:01~20:30	0.3	-	93.9	-	-	5.3	0.6
20:31~21:00	0.2	-	95.8	-	-	4.0	-
21:01~21:30	0.2	-	97.0	-	-	2.8	-
21:31~22:00	0.2	-	97.1	-	-	2.8	-
22:01~22:30	-	-	97.3	-	-	2.7	-

다) 2세 영아

다음은 2세아의 시간대별 이용 서비스와 주 양육자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전 9시 이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50%를 육박하여 12시에는 최대 84.3%를 차지하며, 부모와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의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각각 최소 11.2%, 1.3%를 나타낸다. 또한 앞서 살펴본 1세아와 달리 오전 8시 30분부터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표 IV-1-6 참조).

12시 이후 오후 시간에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80%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후 6시에는 최소 13.0%까지 떨어진다. 이와 연동하여 3시반 이후부터 부모와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돌보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외에도 반일제 학원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나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비율은 0, 1세와는 달리 1% 이하로 떨어진다.

〈표 IV-1-6〉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단위: %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3	-	94.1	-	-	5.2	0.3
07:31~08:00	1.1	-	89.0	-	-	9.5	0.3
08:01~08:30	7.9	-	80.6	-	-	11.2	0.3
08:31~09:00	24.1	0.7	65.6	0.7	-	8.8	0.1
09:01~09:30	54.5	1.2	37.8	1.0	-	5.4	0.1
09:31~10:00	76.6	1.2	19.1	1.1	-	1.9	
10:01~10:30	82.5	1.2	13.2	1.4	0.1	1.3	0.3
10:31~11:00	84.3	1.2	11.4	1.4	0.1	1.3	0.3
11:01~11:30	84.3	1.2	11.2	1.4	0.1	1.5	0.3
11:31~12:00	84.2	1.2	11.3	1.4	0.1	1.5	0.3
12:01~12:30	84.2	1.2	11.1	1.4	-	1.8	0.3
12:31~13:00	84.2	1.2	11.1	1.4	-	1.8	0.3
13:01~13:30	84.3	1.2	11.0	1.4	-	1.8	0.3
13:31~14:00	83.9	1.2	11.4	1.4	-	1.8	0.3
14:01~14:30	83.7	1.2	11.0	0.7	0.4	2.3	0.6
14:31~15:00	81.4	1.2	12.7	0.6	0.4	2.7	0.9
15:01~15:30	76.9	1.2	17.1	0.5	0.2	3.2	0.9
15:31~16:00	67.9	0.6	25.7	0.5	0.2	4.1	1.0
16:01~16:30	51.0	0.3	40.2	0.5	-	7.0	1.0
16:31~17:00	36.4	-	53.0	0.5	-	9.1	1.0
17:01~17:30	19.5	-	64.2	0.1	0.1	15.1	1.0
17:31~18:00	13.0	-	69.6	0.1	0.6	15.6	1.0
18:01~18:30	5.0	-	77.7	0.1	0.7	16.0	0.6
18:31~19:00	2.3	-	82.7	0.1	0.2	14.1	0.6
19:01~19:30	0.8	-	90.2	0.1	-	9.0	-
19:31~20:00	0.3	-	94.6	-	-	5.1	-
20:01~20:30	0.1	-	94.9	-	-	5.0	-
20:31~21:00	0.1	-	94.9	-	-	5.0	-
21:01~21:30	0.2	-	96.8	-	-	3.0	-
21:31~22:00	0.2	-	95.9	-	-	3.9	-
22:01~22:30	-	-	96.2	-	-	3.8	-

늦은 오후 시간대의 경우 오후 7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하고,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한다. 즉 오후 7시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90% 수준을 넘어서고,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1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표 IV-1-6 참조).

라) 3세 유아

3세아의 오전 시간대 이용기관과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시에는 최대 55.8%까지 증가하며, 이에 연동하여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최소 3.5% 수준까지 감소한다.

〈표 IV-1-7〉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확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1	-	94.4	-	-	5.0	0.6
07:31~08:00	1.2	0.5	92.2	-	-	5.5	0.6
08:01~08:30	6.0	3.4	81.3	-	-	8.5	0.8
08:31~09:00	20.9	13.3	56.9	1.6	-	6.2	1.1
09:01~09:30	40.0	25.4	26.1	4.3	-	3.6	0.6
09:31~10:00	53.7	33.8	6.8	5.0	0.1	0.2	0.4
10:01~10:30	55.7	34.7	3.8	5.2	0.1	0.2	0.4
10:31~11:00	55.7	34.7	3.6	5.2	0.2	0.2	0.4
11:01~11:30	55.7	34.7	3.6	5.2	0.2	0.2	0.4
11:31~12:00	55.8	34.7	3.5	5.2	0.2	0.2	0.4
12:01~12:30	55.8	34.7	3.5	5.2	0.2	0.2	0.4
12:31~13:00	55.8	34.7	3.6	5.2	0.1	0.2	0.4
13:01~13:30	55.8	34.6	3.9	5.2	-	0.2	0.4
13:31~14:00	55.8	34.6	3.9	5.2	-	0.2	0.4
14:01~14:30	55.5	31.5	6.4	5.0	0.7	0.4	0.4
14:31~15:00	53.9	27.2	12.8	3.3	0.9	1.4	0.5
15:01~15:30	50.0	22.4	19.6	2.6	3.1	1.7	0.6
15:31~16:00	44.9	18.4	29.0	1.2	3.0	2.9	0.6
16:01~16:30	33.4	15.2	41.1	0.9	3.0	5.0	1.4
16:31~17:00	26.4	12.3	49.8	0.9	2.5	6.2	1.9
17:01~17:30	16.5	6.7	60.4	0.5	1.9	11.9	2.2
17:31~18:00	10.2	3.6	69.7	-	1.6	12.8	2.1
18:01~18:30	6.5	2.2	76.7	-	0.4	12.4	1.7
18:31~19:00	2.9	1.0	83.6	-	0.1	10.6	1.8
19:01~19:30	1.5	0.6	88.9	-	-	7.4	1.7
19:31~20:00	0.4	0.2	92.7	-	-	5.3	1.4
20:01~20:30	0.2	-	94.9	-	-	3.7	1.2
20:31~21:00	-	-	96.0	-	-	3.2	0.8
21:01~21:30	-	-	97.2	-	-	2.2	0.6
21:31~22:00	-	-	97.8	-	-	1.9	0.3
22:01~22:30	-	-	98.1	-	-	1.9	-

또한 유치원 이용이 본격화되어 해당 비율은 오전 8시에 3.4%이었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12시에 최대 34.7%까지 증가한다. 이외에도 이전 연령대에 비해 반일제 학원 이용이 증가하는데, 해당 비율은 오전 8시 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대 5.2%까지 높아진다(표 IV-1-7 참조).

오후 시간대의 경우, 오후 3시 30분 이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오후 6시에는 최소 10.2%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 역시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18.4%로 감소하고 오후 5시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은 오후 2시 30분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5% 미만으로 감소하고, 오후 4시 이후로는 1% 이하로 떨어진다. 이들 기관 이용과 연동하여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오후 6시에는 70%에 달한다. 이와 동시에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도 증가하여 오후 6시에 이르면, 12.8%를 나타낸다.

오후 6시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최대 6.5%, 2.2%이며, 점차 감소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8시 30분, 유치원은 오후 8시 이후 이용하는 비율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연동하여 오후 7시 30분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90%를 상회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한다.

마) 4세 유아

다음은 4세아의 시간대별 이용 서비스와 주 양육자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오전 시간대에는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비율은 각각 21.2%, 20.1%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12시에 최대 43.5%, 47.0%를 나타낸다. 3세 이하 영유아와 달리 4세아의 경우는 유치원 이용 비율이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 기관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최소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최대 6.6%에 달한다(표 IV-1-8 참조).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기관 이용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각 14.2%와 9.2%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설학원의 경우는 오후 1시 이후부터 이용 비율이 증가하여 대체로 오후 5, 6시까지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관 이용 비율의 감소와 연동하여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55.9%,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11.0%로 급증한다.

늦은 오후 시간대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이용하고, 유치원의 경우 오

후 8시까지 이용하며, 대체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증가하여 오후 7시 이후에는 90%대를 나타낸다.

<표 IV-1-8>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단위: %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4	-	95.2	-	-	4.0	0.4
07:31~08:00	1.1	0.7	91.4	0.1	-	6.3	0.5
08:01~08:30	7.5	5.6	79.8	0.2	-	6.4	0.5
08:31~09:00	21.2	20.1	52.5	2.1	-	3.6	0.5
09:01~09:30	34.5	37.7	20.3	5.0	-	2.1	0.4
09:31~10:00	39.8	46.1	7.0	6.5	0.3	0.3	-
10:01~10:30	43.0	47.0	2.7	6.6	0.3	0.3	-
10:31~11:00	43.5	47.0	2.2	6.6	0.3	0.3	-
11:01~11:30	43.5	47.0	2.2	6.6	0.3	0.3	-
11:31~12:00	43.5	47.0	2.2	6.6	0.3	0.3	-
12:01~12:30	43.8	47.0	2.2	6.6	-	0.3	-
12:31~13:00	43.8	47.0	2.2	6.6	-	0.3	-
13:01~13:30	43.8	46.9	2.2	6.6	0.1	0.3	-
13:31~14:00	43.8	46.8	2.4	6.6	0.1	0.3	-
14:01~14:30	43.4	42.5	6.9	6.3	0.6	0.4	-
14:31~15:00	42.1	39.3	10.6	5.7	1.5	0.8	-
15:01~15:30	40.5	32.4	18.3	4.4	3.1	1.2	0.1
15:31~16:00	36.6	26.2	27.5	2.3	5.2	2.0	0.2
16:01~16:30	29.8	21.8	35.6	1.8	6.6	3.9	0.4
16:31~17:00	22.6	16.2	47.0	1.4	6.3	5.9	0.6
17:01~17:30	14.2	9.2	55.9	0.7	8.3	11.0	0.6
17:31~18:00	9.5	5.5	64.7	0.2	7.2	12.5	0.4
18:01~18:30	4.7	3.1	74.5	0.1	4.7	12.5	0.4
18:31~19:00	2.1	0.6	85.6	0.1	1.0	10.3	0.4
19:01~19:30	1.5	0.4	90.5	0.1	0.4	7.0	0.1
19:31~20:00	1.0	0.1	93.6	-	-	5.3	-
20:01~20:30	0.2	-	96.6	-	-	3.3	-
20:31~21:00	0.2	-	97.7	-	-	2.2	-
21:01~21:30	-	-	98.2	-	-	1.8	-
21:31~22:00	-	-	97.9	-	-	2.1	-
22:01~22:30	-	-	98.3	-	-	1.7	-

바) 5세 유아

<표 IV-1-9>는 5세아의 시간대별 이용 서비스와 주 양육자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1-9〉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단위: %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5.3	-	-	4.4	0.2
07:31~08:00	-	1.0	93.8	-	-	4.9	0.3
08:01~08:30	4.9	7.0	80.4	0.4	-	6.8	0.5
08:31~09:00	16.0	26.8	49.0	3.8	-	3.9	0.5
09:01~09:30	24.6	49.9	15.6	8.2	0.2	1.6	-
09:31~10:00	27.6	59.0	3.1	9.9	0.2	0.3	-
10:01~10:30	28.8	59.3	1.9	9.9	0.2	-	-
10:31~11:00	29.4	59.3	1.2	9.9	0.2	-	-
11:01~11:30	29.4	59.4	0.9	9.9	0.3	-	-
11:31~12:00	29.4	59.4	0.9	9.9	0.3	-	-
12:01~12:30	29.4	59.4	0.9	9.9	0.3	-	-
12:31~13:00	29.4	59.4	0.9	9.9	0.3	-	-
13:01~13:30	29.4	58.8	1.6	9.9	0.3	-	-
13:31~14:00	29.3	58.8	1.6	9.9	0.1	0.3	-
14:01~14:30	29.2	53.1	4.3	9.7	3.4	0.3	-
14:31~15:00	28.5	47.7	8.7	8.5	5.9	0.7	-
15:01~15:30	25.8	40.4	13.8	4.3	13.1	2.5	0.1
15:31~16:00	24.2	35.3	18.8	3.2	16.0	2.4	0.1
16:01~16:30	17.9	25.9	31.6	1.2	19.0	4.3	0.1
16:31~17:00	14.1	19.2	40.2	0.7	20.2	5.4	0.1
17:01~17:30	9.0	11.8	50.9	0.6	19.4	8.1	0.3
17:31~18:00	6.1	7.4	61.3	0.2	15.2	9.4	0.4
18:01~18:30	1.9	1.8	76.1	-	8.2	11.4	0.5
18:31~19:00	0.8	0.9	84.4	-	4.5	8.9	0.5
19:01~19:30	0.1	0.4	92.0	-	1.1	6.3	0.1
19:31~20:00	0.1	0.4	93.3	-	-	6.1	0.1
20:01~20:30	0.1	-	95.4	-	-	4.4	0.1
20:31~21:00	-	-	97.2	-	-	2.8	0.1
21:01~21:30	-	-	97.8	-	-	2.2	-
21:31~22:00	-	-	98.0	-	-	2.0	-
22:01~22:30	-	-	98.0	-	-	2.0	-

5세아는 오전 8시부터 기관 이용이 본격화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어린이집은 최대 29.4%, 유치원은 59.4%를 나타낸다. 특히 유치원 이용 비율은 어린이집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4세아의 경우 해당 기관별 이용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관 이용과 연동하여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0.9%,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0.3%까지 낮아진다(표 IV-1-9 참조).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3시 이후 기관 이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후 6시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6.1%, 유치원의 경우 7.4%를 나타낸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도 오후 3시 이후 5%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오후 3시 이후 특기 및 보습학원 등 사설학원 이용 비율은 이전 연령대에 비해 급증하여 최대 20.2%까지 높아진다. 한편 부모와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의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오후 5시 이후 증가하여 오후 6시에는 각각 61.3%, 9.4%에 달한다.

늦은 오후시간대에는 어린이집은 오후 8시 반, 유치원은 오후 8시까지, 특기 및 보습학원 등 사설학원은 오후 7시 반까지 각각 이용하며, 이들 기관 이용과 연동하여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오후 7시를 기점으로 90%를 상회한다. 이와 동시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돌보는 비율도 오후 8시를 기점으로 5% 미만으로 감소한다.

3) 모의 취업 여부별

가) 취업모 자녀

취업모의 오전 시간대 이용기관과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비교적 이른 오전 7시부터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이 시작되어 오전 8시부터 본격화되며 12시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55.3%, 유치원의 경우 29.0%를 나타낸다. 또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기관 이용 비율 증가와 연동하여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30%대로 감소하다가 9시 30분 이후에는 10% 이하로 급격히 낮아진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오전 7시 이후 점차 증가하여 오전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20.9%을 나타내며, 기관 이용시간인 오전 9시 반 이후로는 약 7% 수준으로 감소한다.

오후 시간대 오후 3시 반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유치원은 오후 4시 이후 20% 이하로 감소한다. 오후 6시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최소 20.2%, 6.2%를 나타낸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의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오후 3시 이후 10~20%대를 보이며, 오후 6시에는 28.3%를 나타낸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은 오후 3시 이후 1%대로 낮아지고, 기타 사설학원은 5%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오후 5시 반 이후 다시 감소한다.

늦은 오후 시간대에는 어린이집은 오후 10시, 유치원은 오후 8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오후 6시 30분 이후 66.0%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반면에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오후 7시를 기점으로 16.4%로 점차 감소하다가 오후 8시 이후 10% 미만으로 떨어진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0.5	-	87.5	-	-	10.4	1.1
07:31~08:00	2.8	0.7	80.7	-	-	14.3	1.4
08:01~08:30	14.4	4.8	57.9	0.1	-	20.9	2.0
08:31~09:00	32.6	15.9	31.8	1.1	-	16.3	2.3
09:01~09:30	45.0	24.0	13.9	3.5	-	11.6	1.9
09:31~10:00	52.0	28.9	6.4	4.1	-	7.2	1.4
10:01~10:30	54.3	29.0	3.9	4.1	0.4	6.7	1.5
10:31~11:00	55.1	29.0	3.3	4.1	0.4	6.5	1.6
11:01~11:30	55.3	29.0	2.7	4.1	0.4	6.8	1.6
11:31~12:00	55.3	29.0	2.7	4.1	0.4	6.8	1.6
12:01~12:30	55.5	29.0	2.9	4.1	-	6.8	1.6
12:31~13:00	55.5	29.0	2.8	4.1	-	7.0	1.6
13:01~13:30	55.1	29.0	2.5	4.1	0.1	7.6	1.6
13:31~14:00	54.9	29.0	2.5	4.1	0.1	7.7	1.6
14:01~14:30	54.6	28.4	2.9	3.7	0.5	8.1	1.7
14:31~15:00	53.8	26.9	3.5	3.6	1.3	9.0	1.9
15:01~15:30	52.2	24.7	4.7	1.8	4.1	10.2	2.2
15:31~16:00	49.1	22.9	7.4	1.3	5.0	12.2	2.3
16:01~16:30	43.4	18.3	12.4	1.2	6.1	15.9	2.6
16:31~17:00	37.6	14.9	17.3	1.0	6.9	19.3	3.0
17:01~17:30	25.7	8.9	27.0	0.5	8.0	26.9	3.1
17:31~18:00	20.2	6.2	35.5	0.2	6.3	28.3	3.2
18:01~18:30	10.7	2.8	51.2	0.1	3.0	29.5	2.7
18:31~19:00	4.6	1.2	66.0	0.1	1.0	24.4	2.7
19:01~19:30	2.3	0.7	78.6	-	0.2	16.4	1.7
19:31~20:00	1.2	0.4	82.9	-	-	14.1	1.4
20:01~20:30	0.7	-	90.1	-	-	8.4	0.9
20:31~21:00	0.2	-	92.9	-	-	6.4	0.5
21:01~21:30	0.2	-	94.3	-	-	5.2	0.3
21:31~22:00	0.2	-	94.8	-	-	4.9	0.1
22:01~22:30	-	-	95.5	-	-	4.5	-

나) 미취업모 자녀

미취업모 자녀는 오전 8시 반부터 기관 이용이 본격화되어 12시에는 어린이집 38.8%, 유치원 21.9%로 이용 비율이 증가한다. 취업모와 비교하여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사설학원 이용과 주민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내 공공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이용 비율이 높다. 한편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최소 33.8%를 나타내며, 조부모와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은 1% 내외로 취업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IV-1-11〉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7.4	-	-	0.9	-
07:31~08:00	0.1	0.2	98.4	-	-	1.3	-
08:01~08:30	1.9	1.7	94.3	0.1	-	2.0	-
08:31~09:00	8.4	7.6	80.6	1.6	-	1.8	-
09:01~09:30	23.3	17.3	55.0	3.0	-	1.2	-
09:31~10:00	33.9	21.4	39.6	3.8	0.2	1.0	-
10:01~10:30	38.0	21.8	34.8	4.0	0.3	1.1	0.1
10:31~11:00	38.6	21.8	33.9	4.0	0.6	1.1	0.1
11:01~11:30	38.7	21.9	33.7	4.0	0.7	1.1	0.1
11:31~12:00	38.8	21.9	33.8	4.0	0.5	1.1	0.1
12:01~12:30	38.9	21.9	33.5	4.0	0.4	1.2	0.1
12:31~13:00	38.6	21.9	33.9	4.0	0.4	1.3	0.1
13:01~13:30	38.1	21.7	34.9	4.0	0.1	1.2	-
13:31~14:00	37.8	21.7	35.0	4.0	0.2	1.4	-
14:01~14:30	37.4	18.6	37.3	3.8	1.4	1.5	-
14:31~15:00	36.2	15.9	41.6	2.9	1.8	1.5	-
15:01~15:30	32.3	12.1	48.2	2.1	3.3	2.0	-
15:31~16:00	27.2	9.0	56.2	1.2	4.1	2.2	-
16:01~16:30	17.3	6.6	68.5	0.5	4.7	2.3	0.1
16:31~17:00	11.3	4.5	76.9	0.3	4.4	2.4	0.2
17:01~17:30	5.8	2.5	84.1	0.3	3.8	3.3	0.2
17:31~18:00	3.1	1.1	89.0	-	3.2	3.5	0.1
18:01~18:30	0.9	0.3	93.5	-	2.1	3.1	-
18:31~19:00	0.4	-	95.7	-	1.1	2.8	-
19:01~19:30	0.2	-	97.6	-	0.3	1.9	-
19:31~20:00	0.1	-	98.2	-	-	1.7	-
20:01~20:30	-	-	98.5	-	-	1.5	-
20:31~21:00	-	-	98.6	-	-	1.4	-
21:01~21:30	-	-	99.4	-	-	0.6	-
21:31~22:00	-	-	99.5	-	-	0.5	-
22:01~22:30	-	-	99.5	-	-	0.5	-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기관 이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오후 6시에는 어린이집 3.1%, 유치원 1.1%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설학원과 문화센터

등의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나 6시까지 이어져 취업모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편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기관 이용 비율과 연동하여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56.2%에서 점차 증가하여 오후 6시에는 89.0%를 나타낸다. 이는 동일 시간대 취업모인 경우 부모가 돌보는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기관 이용 비율과 대조를 이룬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모든 시간대에서 90%를 상회한다. 반면에 기관 이용이나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돌보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을 나타낸다(표 IV-1-11 참조).

2. 자녀 양육지원과 모의 취업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남편 외 양육자 등의 양육 실태와 취업모의 양육 시 애로사항, 모의 경력 단절 여부 및 사유 등 모의 취업과 양육지원 현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육 실태

1) 부모의 양육 태도와 양육 정서

가) 양육 태도

<표 IV-2-1>은 2세 이상 아동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2-1〉 영유아 부모별 양육 태도

단위: %(명)

구분	모					부					계(수)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자기 힘으로 하게 함	0.3	1.9	21.3	60.0	16.5	-	6.0	21.4	57.2	15.3	100.0(1,716)
모르는 것 몇 번이라도 설명	0.2	1.7	24.7	57.3	16.1	0.2	3.1	28.3	54.7	13.7	100.0(1,716)
칭찬을 자주 함	0.1	1.7	20.8	54.8	22.7	0.1	2.7	26.2	49.6	21.3	100.0(1,716)
기본생활습관을 가르침	0.1	0.8	8.9	64.0	26.2	0.4	4.9	19.5	57.5	17.6	100.0(1,716)
TV, 컴퓨터시간 지키게 함	0.9	11.0	19.0	49.2	20.0	0.8	17.0	26.4	41.4	14.4	100.0(1,716)

그 결과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한 긍정적인 응답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해당 비율은 '기본 생활습관을 가르침' 항목에서 가장 높고, 'TV, 컴퓨터 시간을 지키게 함'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은 어머니 90.2%, 아버지 75.1%이고, 후자의 경우는 각각 69.2%, 55.8%로 나타났다(표 IV-2-1 참조).

〈표 IV-2-2〉 제 특성별 부모의 양육 태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모						부					
	자기 힘으 로하 게함	모르 는 것은 몇 번이 라도 설명 함	칭찬 을 자주 함	기본 생 활 습 관 을 가 르 침	TV, 컴 퓨 터 시 간 을 지 키 게 함	(수)	자기 힘으 로하 게함	모르 는 것에 몇 번이 라도 설명 함	칭찬 을 자주 함	기본 생 활 습 관 을 가 르 침	TV, 컴 퓨 터 시 간 을 지 키 게 함	(수)
전체	3.89	3.86	3.99	4.15	3.76	(1,885)	3.79	3.77	3.91	3.87	3.54	(1,85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89	3.89	4.04	4.13	3.67	(961)	3.85	3.78	3.97	3.85	3.46	(953)
유아	3.88	3.84	3.96	4.17	3.85	(924)	3.94	3.75	3.86	3.89	3.62	(902)
t	0.2	1.6	3.4*	-1.6	-4.3***		-0.2	0.9*	3.4**	0.3	-3.33**	
지역규모												
대도시	3.89	3.92	3.99	4.20	3.84	(740)	3.78	3.81	3.94	3.81	3.56	(720)
중소도시	3.86	3.86	4.03	4.10	3.68	(762)	3.83	3.74	3.90	3.88	3.42	(752)
읍·면	3.88	3.87	3.95	4.14	3.69	(383)	3.76	3.83	3.90	3.97	3.56	(383)
F	0.1	1.2	0.4	1.8	2.2		1.2	0.7	0.4	5.6**	0.7	
모취업 여부												
취업	3.89	3.90	4.05	4.13	3.70	(706)	3.77	3.79	3.92	3.87	3.53	(682)
휴직중	3.96	3.99	4.09	4.26	4.03	(52)	4.00	3.88	4.22	4.06	3.78	(51)
미취업	3.88	3.87	3.96	4.15	3.77	(1,127)	3.80	3.75	3.88	3.86	3.53	(1,107)
부채 등												
부채 등	4.27	4.1	3.87	4.33	3.80	(15)	4.27	4.1	3.87	4.33	3.80	(15)
F	0.3	1.3	2.1	3.0*	3.6*		3.3*	1.7	3.3*	2.9*	1.4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3.85	3.84	3.80	4.14	3.55	(50)	3.86	3.67	3.65	3.75	3.40	(35)
150~199만원	3.85	3.85	3.89	4.13	3.49	(126)	3.74	3.69	3.72	3.99	3.26	(119)
200~249만원	3.82	3.75	3.91	4.03	3.54	(209)	3.72	3.61	3.84	3.70	3.36	(210)
250~299만원	3.85	3.74	3.93	4.18	3.61	(274)	3.80	3.63	3.82	3.89	3.41	(272)
300~349만원	3.88	3.88	4.00	4.09	3.65	(303)	3.77	3.76	3.82	3.82	3.44	(303)
350~399만원	3.85	3.92	4.08	4.20	3.91	(155)	3.77	3.81	4.04	3.88	3.52	(151)
400~499만원	3.91	3.88	4.02	4.17	3.88	(317)	3.74	3.86	3.99	3.94	3.63	(315)
500~599만원	4.03	3.97	4.10	4.14	3.92	(209)	3.85	3.84	3.97	3.73	3.61	(207)
600~699만원	3.95	4.08	4.03	4.23	3.94	(100)	3.85	4.06	4.11	3.91	3.63	(101)
700만원이상	4.04	4.11	4.12	4.21	3.97	(140)	3.98	4.02	4.08	4.02	3.88	(140)
F	1.4	3.7***	2.6**	1.0	5.2***		1.6	4.1***	4.4***	1.9*	4.4***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태도를 많이 가짐을 나타냄.

최연소 자녀 연령별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칭찬을 자주함’에, 유아인 경우는 ‘TV, 컴퓨터 시간을 지키게 함’에 보다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의 아버지들이 ‘기본생활습관을 가르침’에 보다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표 IV-2-2 참조).

나) 양육 정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정서를 조사한 결과, ‘양육 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은 경우’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머니는 각각 52.2%, 22.2%이고,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36.1%, 14.4%였다. 전반적으로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다고 느끼는 경우’에 비해 양육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높다(표 IV-2-3 참조).

〈표 IV-2-3〉 영유아 부모별 부정적 양육 정서

단위: %(명)

구분	모					부					계(수)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님	아님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움	3.1	22.2	22.5	42.0	10.2	3.3	31.2	29.3	32.1	4.0	100.0(2,512)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움	11.2	37.1	29.6	20.2	2.0	12.0	47.3	26.3	13.3	1.1	100.0(2,512)

〈표 IV-2-4〉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모			부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스러움	(수)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스러움	(수)
전체	3.34	2.65	(2,512)	3.02	2.44	(2,47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38	2.66	(1,588)	3.07	2.43	(1,570)
유아	3.26	2.69	(924)	2.95	2.46	(902)
t	3.0**	-0.7		3.0**	-0.7	
지역규모						
대도시	3.27	2.57	(1,021)	2.99	2.40	(997)
중소도시	3.38	2.67	(1,011)	3.04	2.43	(997)
읍·면	3.36	2.69	(480)	3.06	2.50	(478)
F	3.2*	3.6*		1.3	1.8	

(표 IV-24 계속)

구분	모			부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스러움	(수)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스러움	(수)	
모취업여부							
취업	3.26	2.58	(837)	3.00	2.43	(810)	
휴직중	3.57	2.45	(112)	3.23	2.15	(111)	
미취업	3.36	2.67	(1,563)	3.02	2.45	(1,537)	
부채 등	-	-	-	3.43	2.64	(14)	
F	5.6**	4.6*		2.7	3.9**		

* $p < .05$, ** $p < .01$

주: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정서가 강함을 나타냄.

구체적으로는 양육방식에 대한 혼란은 영아인 경우,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는 유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지역규모별로는 부모 구분없이 읍·면 지역일수록 부정적인 양육정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부정적인 양육정서를 더 느끼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미취업 영아 어머니 대상으로 양육 방식에 관한 교육 강화나 이용 시설 마련 등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이 더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IV-24 참조).

2) 부모의 자녀양육 분담

평소에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 자녀 돌보기에 남편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V-2-5〉 남편의 자녀 돌보기 참여 정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안함	안 함	보통	참여함	적극 참여함		
전체	1.2	6.9	41.7	25.2	25.0	100.0(2,459)	3.66(0.9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1	6.4	39.3	26.4	26.8	100.0(1,565)	3.71(0.97)
유아	1.3	7.7	45.5	23.2	22.2	100.0(894)	3.57(0.96)
$X^2(df)/t$			14.3(4)**				3.49***
지역규모							
대도시	0.9	8.6	39.3	23.2	27.9	100.0(955)	3.76(1.27)
중소도시	1.6	5.2	44.3	26.5	22.4	100.0(992)	3.53(1.28)
읍·면	0.7	6.8	41.1	26.9	24.4	100.0(472)	3.61(1.04)
$X^2(df)/F$			23.9(8)**				17.50***

(표 IV-2-5 계속)

구 분	전혀 안함	안 함	보통	참여함	적극 참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모취업 여부							
취업	0.7	6.0	42.1	24.1	27.0	100.0(810)	3.66(1.19)
휴직중	-	5.9	31.7	18.8	43.6	100.0(111)	4.04(1.19)
미취업	1.5	7.4	42.1	26.2	22.7	100.0(1,537)	3.58(1.27)
부재 등	-	-	-	100.0	-	100.0(1)	4.00(-)
X ² (df)/F				-			7.3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3.4	52.5	30.5	13.6	100.0(47)	3.44(.99)
150~199만원	3.9	7.2	45.6	24.4	18.9	100.0(175)	3.25(1.41)
200~249만원	0.7	8.2	43.8	28.1	19.2	100.0(295)	3.56(1.10)
250~299만원	1.3	6.5	33.9	31.8	26.6	100.0(379)	3.89(1.24)
300~349만원	0.6	5.8	41.9	25.9	25.9	100.0(400)	3.82(1.11)
350~399만원	0.5	3.6	45.3	20.3	30.2	100.0(203)	3.84(1.12)
400~499만원	1.7	8.3	39.7	23.8	26.5	100.0(400)	3.49(1.36)
500~599만원	1.2	6.6	45.3	17.6	29.3	100.0(261)	3.64(1.20)
600~699만원	0.7	8.9	47.9	18.5	24.0	100.0(124)	3.31(1.40)
700만원 이상	1.2	8.2	36.5	29.4	24.7	100.0(173)	3.68(1.02)
X ² (df)/F				-			15.12***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점, 참여하지 않는다 2점, 보통 3점, 참여한다 4점, 적극 참여한다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음.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0.2%이고, 이들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25%이다. 자녀 돌보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이다. 즉, 본 조사의 영유아 부는 자녀 돌보기에 스스로 잘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영아인 경우가 53.2%로 유아 45.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남편이 자녀돌보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남편이 자녀 돌보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250~400만원 미만이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3)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가) 평일

조사일 전날²¹⁾ 기준으로 자녀가 평일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표 IV-2-6〉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1.6	37.9	26.2	12.5	10.7	100.0(3,343)	7.05(3.49)
영유아 구분								
영아	1.5	9.7	26.0	21.6	22.3	18.8	100.0(1,802)	8.35(3.93)
유아	0.8	13.5	49.8	30.9	2.5	2.5	100.0(1,541)	5.76(2.34)
X ² (df)/t			640.5(5) ^{***}					23.1 ^{***}
연령								
0세	1.4	6.3	12.7	16.4	34.8	28.5	100.0(802)	10.01(3.79)
1세	1.9	12.9	31.4	22.7	16.4	14.8	100.0(538)	7.53(3.91)
2세	1.3	11.8	41.5	28.8	8.8	7.7	100.0(462)	6.51(2.99)
3세	1.6	12.8	47.2	33.7	1.6	3.1	100.0(503)	5.90(2.48)
4세	0.6	14.2	49.3	30.3	3.0	2.6	100.0(556)	5.77(2.41)
5세	0.3	13.5	52.2	29.2	2.9	2.0	100.0(482)	5.64(2.17)
X ² (df)/F			1044.9(25) ^{***}					202.5 ^{***}
지역규모								
대도시	1.0	14.7	39.5	22.2	13.1	9.6	100.0(1,348)	6.83(3.56)
중소도시	1.0	9.0	35.2	30.4	14.1	10.3	100.0(1,325)	7.32(3.34)
읍·면	1.9	9.5	40.0	26.9	7.2	14.5	100.0(670)	7.02(3.59)
X ² (df)/F			73.0(10) ^{***}					7.0 ^{**}
모취업 여부								
취업	3.1	30.2	52.4	11.3	2.1	0.9	100.0(1,056)	4.48(2.33)
휴직중	1.4	6.9	26.9	22.8	31.0	11.0	100.0(152)	8.30(3.59)
미취업	-	1.9	31.3	34.9	16.9	14.9	100.0(2,115)	8.36(3.22)
부재 등	-	-	-	-	-	100.0	100.0(20)	-
X ² (df)/F				-				629.9 ^{***}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	11.7	32.0	21.4	13.6	21.4	100.0(98)	7.61(3.86)
150~199만원	-	4.1	34.7	32.5	13.1	15.7	100.0(245)	8.09(3.39)
200~249만원	-	3.6	35.2	32.5	15.0	13.6	100.0(416)	7.94(3.33)
250~299만원	-	9.1	32.2	28.9	15.1	14.7	100.0(537)	7.68(3.51)
300~349만원	0.6	7.1	41.8	25.2	17.3	8.1	100.0(511)	7.31(3.26)
350~399만원	1.4	13.7	39.2	27.7	9.4	8.6	100.0(280)	6.81(3.28)
400~499만원	3.6	13.5	39.1	25.8	9.9	8.1	100.0(525)	6.46(3.47)
500~599만원	1.4	17.6	36.4	26.6	9.0	9.0	100.0(350)	6.57(3.49)
600~699만원	3.6	18.2	53.9	14.5	4.8	4.8	100.0(153)	5.30(2.94)
700만원이상	0.4	28.7	40.1	13.5	11.0	6.3	100.0(225)	5.78(3.51)
X ² (df)/F			314.1(45) ^{***}					19.7 ^{***}

** $p < .01$, *** $p < .001$

우선 어머니와 평일에 함께 지내는 시간은 평균 약 7시간으로 전반적으로 4~6시

21) 일요일, 공휴일 등 전날이 휴일이면 가장 최근에 이용한 날이 기준일이 됨.

간이 37.9%로 가장 높고, 3시간 이하인 경우도 12.7%를 차지한다. 영유아 구분별로 보면, 영아는 평균 약 8시간 21분으로 평균 5시간 46분인 유아에 비해 오랜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0세아가 평균 약 10시간으로 가장 많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5세아는 5시간 38분 정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인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4시간 29분으로 미취업모 8시간 22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짧은 경향을 보인다(표 IV-2-6 참조).

<표 IV-2-7>은 평일에 영유아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나타낸다.

〈표 IV-2-7〉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단위: %(명), 시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3	67.5	12.9	1.0	0.6	2.7	100.0(3,343)	2.03(1.73)
영유아 구분								
영아	14.1	69.2	12.5	1.1	1.0	2.1	100.0(1,802)	2.10(1.85)
유아	16.5	65.9	13.2	1.0	0.2	3.2	100.0(1,541)	1.95(1.58)
$X^2(df)/t$			17.9(5)**					2.4*
연령								
0세	12.3	69.5	12.7	1.5	2.0	2.0	100.0(802)	2.27(2.15)
1세	14.9	72.8	10.2	0.4	-	1.7	100.0(538)	1.88(1.48)
2세	16.2	64.7	14.9	0.9	0.4	3.0	100.0(462)	2.05(1.65)
3세	15.4	66.3	14.0	1.0	-	3.4	100.0(503)	2.00(1.49)
4세	18.0	64.0	13.4	1.4	0.6	2.6	100.0(556)	1.97(1.79)
5세	16.2	67.1	12.4	0.8	-	3.5	100.0(482)	1.90(1.48)
$X^2(df)/F$				-				4.4**
지역규모								
대도시	14.7	70.5	11.4	0.6	-	2.8	100.0(1,348)	1.81(1.39)
중소도시	16.0	66.4	13.2	1.0	1.1	2.3	100.0(1,325)	2.12(1.86)
읍·면	15.2	62.8	15.7	2.2	0.9	3.3	100.0(670)	2.34(2.06)
$X^2(df)/F$			39.0(10)***					22.5***
모취업 여부								
취업	14.6	65.3	14.9	1.4	0.3	3.5	100.0(1,056)	2.12(1.70)
휴직중	6.9	73.8	15.2	1.4	0.7	2.1	100.0(152)	2.29(1.94)
미취업	16.2	68.6	11.7	0.8	0.7	1.9	100.0(2,115)	1.95(1.70)
부재 등	16.0	44.0	8.0	-	-	32.0	100.0(20)	2.39(3.13)
$X^2(df)/F$				-				3.8

(표 IV-2-7 계속)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9.7	43.7	12.6	4.9	-	29.1	100.0(98)	3.00(2.59)
150~199만원	10.4	65.3	14.6	0.4	3.4	6.0	100.0(245)	2.46(2.41)
200~249만원	16.9	61.5	17.2	1.7	0.5	2.2	100.0(416)	2.10(1.72)
250~299만원	13.4	71.7	11.8	0.8	0.2	2.1	100.0(537)	2.00(1.46)
300~349만원	17.5	69.0	11.3	0.8	0.6	0.8	100.0(511)	1.87(1.62)
350~399만원	14.3	68.8	12.5	1.4	1.1	1.8	100.0(280)	2.06(1.72)
400~499만원	18.5	68.4	10.7	0.4	-	2.1	100.0(525)	1.88(1.64)
500~599만원	14.4	67.4	15.9	1.2	0.6	0.6	100.0(350)	1.95(1.64)
600~699만원	18.1	69.9	10.8	0.6	-	0.6	100.0(153)	1.88(1.63)
700만원이상	13.1	75.4	10.6	0.8	-	-	100.0(225)	1.97(1.42)
X ² (df)/F				-				5.7***

* $p < .05$, ** $p < .01$, *** $p < .001$

평일에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2시간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시간분포별로는 1~3시간이 가장 높아 전체의 67.5%를 차지한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다는 비율은 15.3%로 어머니보다 월등히 많다. 자녀 연령별로는 평균 약 1시간 52분인 유아에 비해 영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평균 2시간 6분으로 약간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거나 휴직 중인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7 참조).

나) 주말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평균 약 12시간으로 전반적으로 10시간 이상인 비율이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영유아별로 보면, 유아는 평균 약 12시간 16분으로 평균 약 11시간 40분인 영아에 비해 길다. 자녀 연령별로도 전반적으로 10~12시간과 13시간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해당 시간은 미취업 모가 취업모나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길고, 가구소득별로는 집단 간의 평균 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일관성은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2-8〉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1.1	3.2	6.9	38.4	49.6	100.0(3,343)	12.05(2.83)
영유아 구분								
영아	0.2	1.0	3.0	7.9	42.1	45.8	100.0(1,802)	11.97(2.62)
유아	1.4	1.3	3.4	5.9	34.7	53.3	100.0(1,541)	12.03(3.02)
$X^2(df)/t$			40.9(5) ^{***}					-1.6
연령								
0세	-	0.8	4.2	9.4	46.6	38.9	100.0(802)	11.73(2.63)
1세	0.6	1.9	2.3	5.4	37.6	52.2	100.0(538)	12.19(2.68)
2세	0.4	0.2	1.7	8.2	39.4	50.1	100.0(462)	12.13(2.52)
3세	1.4	1.4	2.8	5.5	35.5	53.5	100.0(503)	12.24(2.92)
4세	1.2	1.4	2.8	8.2	36.7	49.7	100.0(556)	11.95(3.05)
5세	1.5	1.1	4.4	4.5	32.5	56.0	100.0(482)	12.16(3.08)
$X^2(df)/F$			93.6(25) ^{***}					3.0*
지역규모								
대도시	0.4	1.4	4.5	8.7	43.9	41.2	100.0(1,348)	11.68(2.80)
중소도시	0.8	1.1	2.4	5.8	33.9	55.8	100.0(1,325)	12.27(2.77)
읍·면	1.7	0.3	1.9	5.0	34.9	56.1	100.0(670)	12.46(2.92)
$X^2(df)/F$			93.6(10) ^{***}					22.5 ^{**}
모취업 여부								
취업	2.3	2.4	4.8	6.1	36.5	47.8	100.0(1,056)	11.68(3.46)
휴직중	-	0.7	3.4	18.6	36.6	40.7	100.0(152)	11.55(2.71)
미취업	-	0.4	2.4	6.6	40.0	50.5	100.0(2,115)	12.28(2.40)
부재 등	-	-	-	-	-	100.0	100.0(20)	-
$X^2(df)/F$				-				19.2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1.0	3.8	12.5	34.6	48.1	100.0(98)	11.81(2.91)
150~199만원	-	-	2.6	6.7	48.5	42.2	100.0(245)	12.19(2.30)
200~249만원	-	0.5	5.6	4.4	39.8	49.8	100.0(416)	12.11(2.71)
250~299만원	-	1.0	2.5	8.5	35.9	52.0	100.0(537)	12.16(2.57)
300~349만원	1.0	1.2	2.7	7.7	41.2	46.2	100.0(511)	11.89(2.88)
350~399만원	-	1.8	1.8	6.5	43.4	46.6	100.0(280)	12.12(2.53)
400~499만원	3.6	1.1	3.2	6.9	35.6	49.6	100.0(525)	11.72(3.49)
500~599만원	0.3	-	3.7	6.9	32.9	56.2	100.0(350)	12.40(2.48)
600~699만원	1.2	1.8	1.8	6.0	23.4	65.9	100.0(153)	12.53(2.94)
700만원 이상	-	3.8	4.7	5.5	44.9	41.1	100.0(225)	11.73(2.95)
$X^2(df)/F$				-				2.7 ^{**}

* $p < .05$, ** $p < .01$, *** $p < .001$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평균 약 9시간 19분으로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짧다. 영유아별로는 약 9시간 13분인 영아에 비해

유아를 둔 아버지가 평균 9시간 26분으로 약간 길고, 자녀 연령별로는 0세아를 둔 아버지가 평균 약 9시간으로 가장 짧고 3세아가 9시간 41분으로 가장 길다.

〈표 IV-2-9〉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	11.4	13.1	13.6	28.9	30.3	100.0(3,343)	9.32(4.38)
영유아구분								
영아	1.8	12.6	13.5	13.7	32.4	26.1	100.0(1,802)	9.21(4.25)
유아	3.6	10.2	12.7	13.5	25.5	34.5	100.0(1,541)	9.43(4.51)
$X^2(df)/t$			48.3(5) ^{***}					-1.4
연령								
0세	1.2	13.8	14.3	14.6	33.1	23.0	100.0(802)	9.07(4.23)
1세	2.5	9.3	13.1	13.9	34.2	27.0	100.0(538)	9.46(4.14)
2세	1.9	14.0	12.5	12.1	29.3	30.2	100.0(462)	9.16(4.40)
3세	2.2	10.5	13.8	9.5	28.4	35.7	100.0(503)	9.68(4.43)
4세	5.0	10.2	12.0	17.0	24.4	31.3	100.0(556)	9.18(4.54)
5세	3.6	10.1	12.4	13.8	24.1	36.0	100.0(482)	9.42(4.53)
$X^2(df)/F$			88.6(25) ^{***}					1.5
지역규모								
대도시	2.9	11.6	16.9	16.2	31.2	21.1	100.0(1,348)	8.65(4.19)
중소도시	2.4	11.0	9.8	11.7	29.9	35.3	100.0(1,325)	9.82(4.32)
읍·면	3.1	11.7	11.1	11.2	21.1	41.8	100.0(670)	9.84(4.74)
$X^2(df)/F$			135.3(10) ^{***}					29.4 ^{***}
모취업 여부								
취업	2.2	9.9	11.4	13.0	28.7	34.8	100.0(1,056)	9.75(4.30)
휴직중	0.7	9.0	11.7	20.0	30.3	28.3	100.0(152)	9.79(4.03)
미취업	3.2	12.4	14.2	13.5	29.1	27.7	100.0(2,115)	9.05(4.42)
부재 등	-	12.0	8.0	12.0	16.0	52.0	100.0(20)	9.66(5.33)
$X^2(df)/F$				-				6.8 ^{***}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1.9	11.7	8.7	6.8	19.4	51.5	100.0(98)	9.44(4.92)
150~199만원	3.4	19.5	21.7	10.5	22.8	22.1	100.0(245)	7.67(4.55)
200~249만원	3.1	11.9	14.8	10.4	31.5	28.3	100.0(416)	9.11(4.53)
250~299만원	2.1	13.8	9.9	15.1	31.4	27.7	100.0(537)	9.24(4.31)
300~349만원	5.4	10.6	15.6	19.8	25.0	23.5	100.0(511)	8.61(4.36)
350~399만원	2.9	9.3	12.2	15.1	33.0	27.6	100.0(280)	9.45(4.15)
400~499만원	2.1	11.2	11.0	13.6	29.0	33.1	100.0(525)	9.70(4.35)
500~599만원	1.7	6.9	13.5	14.1	30.0	33.7	100.0(350)	9.96(4.05)
600~699만원	2.4	7.8	10.8	6.0	18.7	54.2	100.0(153)	10.87(4.38)
700만원이상	0.4	9.7	11.0	12.7	38.6	27.5	100.0(225)	9.87(3.91)
$X^2(df)/F$			198.8(45) ^{***}					9.7 ^{***}

*** $p < .001$

또한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아버지가 주말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고, 어머니가 취업과 휴직중인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4) 남편 외 양육 지원자

육아정보, 조언 제공, 자녀 직접 돌보기, 경제적인 지원, 가사 지원으로 나누어 남편 이외에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각각 질문하였다.

우선 육아정보 및 조언 제공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웃,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정 부모 15.0%, 부인 형제 자매 11.6% 순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와 유아 모두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얻는 비율이 각각 52.0%, 61.4%로 높고, 특히 영아는 시부모나 친정 부모로부터 도움을 얻는 비율이 유아보다 4~5%p 정도 많다. 또한 모가 취업하거나 휴직중인 경우에는 친정부모와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은 시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고, 도시 지역은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육아정보나 조언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모가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육아정보, 조언 제공

단위: %(명)

구 분	시 부모	친정 부모	남편 형제자매	부인 형제자매	이웃 친구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7.1	15.0	2.9	11.6	55.5	0.4	7.5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5	16.9	3.4	11.4	52.0	0.5	7.2	100.0(1,595)	37.6(6)***
유아	4.7	11.6	2.1	11.9	61.4	0.2	8.0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7.3	13.8	3.3	11.2	58.4	0.6	5.4	100.0(1024)	21.7(12)*
중소도시	6.5	15.1	3.0	12.2	55.4	0.1	7.8	100.0(1017)	
읍·면	8.6	14.5	2.9	11.5	51.8	1.1	9.7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9.9	17.3	1.9	10.5	53.0	0.2	7.0	100.0(837)	10.7(3)***
휴직중	6.3	22.3	5.4	16.1	45.5	0.9	3.6	100.0(112)	
미취업	5.4	13.2	3.1	12.0	58.0	0.4	7.9	100.0(1,563)	
부계 등	37.5	12.5	18.8	-	6.3	6.3	18.8	100.0(16)	

* $p < .05$, *** $p < .001$

자녀 직접 돌보기 부문에서는 양육 지원자가 없다는 비율이 61.3%로 가장 높고, 친정부모 16.4%, 시부모 15.3% 순으로 많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유아에 비해 높고 양육 지원자가 없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친정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 높고,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자녀 직접 돌보기

단위: %(명)

구 분	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형제자매	부인 형제자매	이웃 친구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15.3	16.4	0.6	2.8	2.5	1.0	61.3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6.1	18.3	0.8	2.8	2.2	1.1	58.7	100.0(1,595)	16.7(6)*
유아	14.1	13.7	0.5	2.8	3.2	0.8	65.0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16.5	17.8	0.4	2.4	4.7	1.1	57.2	100.0(1,024)	54.0(12)***
중소도시	13.2	16.3	1.3	3.2	1.3	0.9	63.9	100.0(1,017)	
읍·면	17.3	13.9	0.4	2.7	0.4	0.7	64.6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24.7	26.2	0.8	3.7	1.8	2.3	40.5	100.0(837)	-
휴직중	14.0	38.0	2.0	1.0	1.0	-	44.0	100.0(112)	
미취업	9.3	9.7	0.6	2.4	3.1	0.3	74.7	100.0(1,563)	
부재 등	80.0	10.0	5.0	-	-	-	5.0	100.0(16)	

* $p < .05$, *** $p < .001$

<표 IV-2-12>는 남편 이외의 양육 지원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 부문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로 가장 많고, 시부모 6.6%, 친정부모 4.5% 순이다. 영아의 경우는 유아에 비해 시부모와 친정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아의 경우 경제적 지원자가 없다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90.6%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친정부모, 읍·면 지역에서는 시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인 경우에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외에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월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가구는 시부모와 친정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14.5%, 12.0%

로 150만원 이상 가구에 비해 높다(표 IV-2-12 참조).

〈표 IV-2-12〉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경제적 지원

단위: %(명)

구 분	시부모	친정 부모	남편 형제자매	부인 형제자매	이웃 친구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6.6	4.5	0.5	0.4	0.3	87.7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0	4.8	0.6	0.4	0.1	86.1	100.0(1,595)	20.4(5)**
유아	4.3	4.1	0.4	0.2	0.4	90.6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6.7	4.7	1.1	0.3	0.3	87.0	100.0(1,024)	3.8(2) [†]
중소도시	5.1	4.8	0.1	0.4	0.1	89.6	100.0(1,017)	
읍·면	9.5	3.7	0.2	0.4	0.4	85.7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4.5	3.8	0.6	0.2	-	90.9	100.0(837)	3.4(3) [†]
휴직중	8.9	4.0	-	1.0	2.0	84.2	100.0(112)	
미취업	7.5	5.1	0.5	0.4	0.3	86.2	100.0(1,563)	
부재 등	5.3	5.3	-	-	-	89.5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4.5	12.0	-	2.4	-	71.1	100.0(83)	3.5(9)***
150~199만원	9.4	8.9	2.1	1.0	0.5	78.0	100.0(191)	
200~249만원	9.3	3.6	-	-	-	87.1	100.0(302)	
250~299만원	6.2	6.2	0.7	-	-	86.8	100.0(403)	
300~349만원	5.4	3.3	0.5	0.5	-	90.2	100.0(367)	
350~399만원	8.2	4.6	0.5	-	-	86.7	100.0(196)	
400~499만원	4.6	2.7	0.2	0.7	0.5	91.3	100.0(412)	
500~599만원	5.8	2.3	-	-	0.4	91.5	100.0(258)	
600~699만원	2.0	4.1	-	-	2.0	91.8	100.0(147)	
700만원 이상	6.5	4.7	1.2	-	-	87.6	100.0(170)	

* $p < .05$, ** $p < .01$, *** $p < .001$

가사 지원 부문에서는 지원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정부모 9.8%, 시부모 7.8%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는 유아에 비해 시부모와 친정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아의 경우는 남편 이외에 가사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8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친정부모, 읍·면 지역에서는 시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시부모와 친정부모에게 가사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남편 이외 양육 지원자: 가사 지원

단위: %(명)

구 분	시부모	친정 부모	남편 형제자매	부인 형제자매	이웃 친구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7.8	9.8	0.6	0.5	-	1.0	80.3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1	11.2	0.6	0.6	-	1.2	78.3	100.0(1,595)	15.2(6)*
유아	7.6	7.7	0.3	0.3	0.1	0.6	83.4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7.9	12.1	1.0	0.7	-	1.7	76.6	100.0(1,024)	6.9(2)**
중소도시	7.0	8.4	0.1	0.4	0.1	0.3	83.7	100.0(1,017)	
읍·면	9.9	7.5	0.2	0.4	-	1.1	80.8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14.1	13.8	0.5	0.6	-	1.6	69.5	100.0(837)	43.0(3)***
휴직중	5.9	22.8	2.0	3.0	-	-	66.3	100.0(112)	
미취업	4.1	6.5	0.4	0.3	0.1	0.7	87.9	100.0(1,563)	
부채 등	42.1	21.1	-	-	-	-	36.8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4.6	13.4	0.0	1.2	-	-	70.7	100.0(82)	5.2(9)***
150~199만원	2.6	7.9	0.5	0.5	-	-	88.5	100.0(191)	
200~249만원	8.9	5.3	0.3	0.7	-	0.3	84.5	100.0(304)	
250~299만원	8.5	6.0	0.5	0.2	-	-	84.8	100.0(402)	
300~349만원	7.4	7.9	0.3	-	-	-	84.5	100.0(367)	
350~399만원	6.6	9.1	1.5	0.5	-	-	82.2	100.0(197)	
400~499만원	9.0	10.5	0.5	0.2	0.2	0.5	79.1	100.0(411)	
500~599만원	4.7	12.5	1.2	0.4	-	0.4	80.9	100.0(257)	
600~699만원	9.6	16.4	-	2.1	-	2.1	69.9	100.0(146)	
700만원 이상	10.0	21.2	0.6	0.6	-	10.6	57.1	100.0(170)	

* $p < .05$, ** $p < .01$, *** $p < .001$

5) 육아정보 습득

가) 육아정보 습득 경로

자녀 양육 시에 육아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동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아관련 사이트 37.1%, 집안 어른 12.5%, 관련 서적 7.1%로 나타났다.

〈표 IV-2-14〉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단위: %(명)

구 분	집안 어른	친구·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육아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12.5	39.5	37.1	3.2	7.1	0.1	0.6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4.4	34.8	40.6	2.6	7.0	0.1	0.5	100.0(1,595)	51.0(6)***
유아	9.6	46.9	31.5	4.0	7.3	0.1	0.7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12.3	40.7	36.8	2.8	7.0	-	0.5	100.0(1,024)	19.6(12)
중소도시	11.8	39.9	38.3	2.6	6.7	0.1	0.6	100.0(1,017)	
읍·면	14.8	35.7	35.0	5.3	8.1	0.4	0.7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13.4	39.9	36.3	3.3	6.1	0.3	0.7	100.0(837)	-
휴직중	10.0	37.0	45.0	2.0	6.0	-	-	100.0(112)	
미취업	11.8	39.7	37.3	2.9	7.8	-	0.5	100.0(1,563)	
부채 등	47.4	15.8	5.3	26.3	-	-	5.3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2.8	36.7	25.7	4.1	9.2	-	1.5	100.0(84)	97.9(54)***
150~199만원	16.2	44.0	31.2	2.1	5.6	0.3	0.6	100.0(191)	
200~249만원	10.1	41.5	37.8	2.2	7.5	0.1	0.7	100.0(301)	
250~299만원	15.4	35.6	40.6	4.1	3.8	-	0.5	100.0(404)	
300~349만원	12.2	36.8	39.8	2.1	8.3	-	0.9	100.0(366)	
350~399만원	12.5	45.6	33.0	3.5	5.1	-	0.3	100.0(196)	
400~499만원	12.1	41.2	35.2	3.0	7.8	0.3	0.4	100.0(411)	
500~599만원	9.3	39.6	40.5	3.2	6.8	0.2	0.3	100.0(257)	
600~699만원	14.6	31.8	35.1	6.2	12.3	-	-	100.0(148)	
700만원 이상	6.3	42.8	39.5	3.1	7.9	-	0.5	100.0(171)	

*** $p < .001$

영아를 둔 부모는 육아관련 사이트 이용 비율이 4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구·동료 34.8%, 집안 어른이 14.4%인 반면, 유아를 둔 부모는 친구·동료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이 46.9%, 육아관련사이트 31.5%로 영아와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친구·동료에게, 읍·면 지역에서는 집안 어른에게 육아관련 지식 및 조언을 얻는다는 비율이 높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는 집안 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특히 휴직 중인 어머니들이 육아 관련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 가구소득별로는 15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에서 집안 어른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22.8%로 월등히 높다(표 IV-2-14 참조).

나) 보육정보센터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인 보육정보센터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

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그리고 이용 시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사업별 인지율이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장난감·도서 대여 부분이 인지율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움되는 정도는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5점 만점에서 평균 3.92점으로 높다(표 IV-2-15 참조).

각 사업별로는 육아정보 제공 부문에 대해서는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5%이나 이들 중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94.8%였다.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보면, 영아에 비해 유아를 둔 부모가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더 높고, 해당 비율은 읍·면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정보센터가 도시 지역 위주로 설치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해당 인지도와 이용률이 더 높았다.

〈표 IV-2-15〉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5점 평균	(수)
육아정보제공	21.5	0.6	2.8	1.8	94.8	100.0(2,528)	3.79	(113)
육아상담, 아동진단	18.5	0.1	1.1	1.2	97.5	100.0(2,528)	3.73	(49)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19.8	0.3	1.3	1.2	97.2	100.0(2,528)	3.92	(75)
장난감·도서 대여	28.7	1.3	2.7	2.3	93.6	100.0(2,528)	3.91	(171)
공동육아나눔터	14.7	0.2	0.3	0.5	99.0	100.0(2,528)	3.79	(20)
시간제 보육	21.2	0.1	0.4	0.6	98.9	100.0(2,528)	3.89	(26)

육아정보 제공의 도움정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79점이었고, 영아와 대도시 지역,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V-2-16 참조).

〈표 IV-2-16〉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정보 제공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21.5	0.6	2.8	1.8	94.8	100.0(2,528)	3.79	(11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9.2	0.1	2.3	1.4	96.2	100.0(1,595)	3.81	(63)
유아	25.2	1.3	3.7	2.3	92.6	100.0(933)	3.77	(50)
X ² (df)/t	13.0(1)***			22.6(3)***			3.7***	

(표 IV-2-16 계속)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지역규모								
대도시	25.9	0.3	4.2	2.6	92.9	100.0(1,024)	3.85	(66)
중소도시	19.6	0.9	2.1	1.4	95.6	100.0(1,017)	3.70	(34)
읍·면	15.9	0.7	1.1	0.7	97.6	100.0(487)	3.76	(13)
$X^2(df)/F$	22.7(2) ^{***}	25.7(6) ^{***}					7.9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2.6	0.2	3.1	1.9	94.8	100.0(1,157)	3.81	(50)
유치원만 이용	24.0	1.9	3.4	1.7	93.1	100.0(566)	3.70	(32)
둘 다 이용	19.1	-	1.4	2.1	96.5	100.0(140)	3.19	(7)
미이용	18.2	0.3	2.1	1.3	96.3	100.0(665)	4.02	(24)
$X^2(df)/F$	7.8(3) [#]	-					4.2 ^{**}	

$p < .1$, ** $p < .01$, *** $p < .001$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상담 및 아동 진단 서비스 제공은 인지 비율이 18.5% 정도였고, 이들 중 이용 경험은 2.5%에 불과하다. 영유아별로는 유아는 영아에 비해, 대도시 지역이 이외 지역에 비해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이용 경험은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에 더 많았다. 육아 상담 및 아동 진단의 도움정도는 5점 만점에서 3.73점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낮다. 유아보다는 영아,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도움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2-17 참조).

〈표 IV-2-17〉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육아 상담, 아동 진단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18.5	0.1	1.1	1.2	97.5	100.0(2,528)	3.73	(4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6.3	-	0.6	0.8	98.6	100.0(1,595)	3.76	(23)
유아	22.0	0.3	1.9	1.8	95.9	100.0(933)	3.72	(26)
$X^2(df)/t$	13.1(1) ^{***}	-					3.7 ^{***}	
지역규모								
대도시	22.2	0.1	1.5	1.3	97.0	100.0(1,024)	3.91	(22)
중소도시	16.2	0.1	1.0	1.3	97.7	100.0(1,017)	3.61	(17)
읍·면	15.0	0.4	0.7	0.9	98.0	100.0(487)	3.48	(10)
$X^2(df)/F$	16.4(2) ^{***}	-					7.9 ^{***}	

(표 IV-2-17 계속)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9.2	0.1	0.8	1.4	97.7	100.0(1,157)	3.65	(22)
유치원만 이용	19.8	0.3	2.4	1.4	95.9	100.0(566)	3.65	(15)
둘 다 이용	17.0	-	1.4	0.7	97.9	100.0(140)	4.00	(3)
미이용	16.4	0.1	0.6	0.7	98.5	100.0(665)	4.08	(9)
X ² (df)/F	3.1(3)			-			1.3	

*** $p < .001$

<표 IV-2-18>은 체험 등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지율은 19.8%이고, 이용 경험 비율은 2.8%로 낮다.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영아에 비해 인지율과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 지역의 인지율과 이용 경험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지역간 형평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프로그램 이용 시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92점으로 높은 수준인데, 유아를 둔 부모와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용 기관별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인지율이 높고, 이용 경험은 둘 다 이용하는 경우가 더 높다. 도움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낮다.

<표 IV-2-18>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점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19.8	0.3	1.3	1.2	97.2	100.0(2,528)	3.92	(7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7.4	0.3	1.0	0.6	98.0	100.0(1,595)	3.88	(41)
유아	23.7	0.2	1.8	2.0	95.9	100.0(933)	3.95	(34)
X ² (df)/t	-			-			2.9**	
지역규모								
대도시	23.6	0.6	2.3	1.6	95.5	100.0(1,024)	3.86	(50)
중소도시	18.1	0.1	0.7	1.2	98.1	100.0(1,017)	4.05	(19)
읍·면	15.2	0.2	0.7	0.2	98.9	100.0(487)	3.98	(6)
X ² (df)/F	17.4(2)***			-			0.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0.9	0.2	1.1	1.6	97.1	100.0(1,157)	3.79	(32)
유치원만 이용	21.3	0.2	1.9	1.0	97.0	100.0(566)	3.95	(19)
둘 다 이용	17.0	0.7	2.8	0.7	95.7	100.0(140)	4.17	(8)
미이용	17.3	0.4	1.0	0.6	97.9	100.0(665)	4.05	(16)
X ² (df)/F	5.1(3)			-			0.9	

** $p < .01$, *** $p < .001$

〈표 IV-2-19〉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장난감·도서 대여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28.7	1.3	2.7	2.3	93.6	100.0(2,528)	3.91	(171)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8	1.4	2.1	2.3	94.2	100.0(1,595)	3.96	(108)
유아	30.1	1.2	3.6	2.5	92.7	100.0(933)	3.86	(63)
$X^2(df)/t$	5.1(1)	1.5(1)					1.6	
지역규모								
대도시	34.9	2.3	4.6	3.3	89.8	100.0(1,024)	4.01	(110)
중소도시	25.3	0.7	1.4	1.8	96.1	100.0(1,017)	3.61	(44)
읍·면	21.9	0.9	1.3	1.1	96.7	100.0(487)	4.02	(17)
$X^2(df)/F$	35.6(2) ^{***}	46.0(6) ^{***}					19.0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30.5	1.3	2.4	2.6	93.6	100.0(1,157)	3.85	(77)
유치원만 이용	27.9	1.2	4.2	2.4	92.2	100.0(566)	3.86	(43)
둘 다 이용	28.4	0.7	3.5	3.5	92.2	100.0(140)	3.67	(12)
미이용	26.3	1.8	1.6	1.6	95.0	100.0(665)	4.20	(39)
$X^2(df)/F$	4.0(3)	13.2(9)					2.1 [#]	

$p < .1$, ^{***} $p < .001$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율은 28.7%로 타 서비스에 비해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이용 경험 비율은 6.4%이다. 인지율은 영아에 비해 유아가 6%p 정도 높고,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장난감과 도서 대여 이용자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고, 영아인 경우와 대도시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이용자가 인지도는 높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기관 미이용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V-2-19 참조).

공동육아나눔터 제공 및 지원에 대해서는 안다는 비율이 14.7%이고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로 극소수이다. 인지율과 이용 경험은 영아보다 유아가 높고, 대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서 3.79점으로 높은 편이다. 영아를 둔 부모와 대도시 지역에서 도움 정도가 높다. 이용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높고, 도움 정도는 평균 3.80점으로 높은 편이다(표 IV-2-20 참조).

〈표 IV-2-20〉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공동육아나눔터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수)	평균	(수)
전체	14.7	0.2	0.3	0.5	99.0	100.0(2,528)	3.79	(2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2.5	0.2	0.2	0.3	99.3	100.0(1,595)	3.90	(11)
유아	18.2	0.2	0.5	0.7	98.6	100.0(933)	3.69	(9)
$X^2(df)/t$	15.8(1)***			-			1.5	
지역규모								
대도시	17.8	0.4	0.5	0.8	98.4	100.0(1,024)	3.88	(14)
중소도시	12.3	0.1	0.1	0.1	99.7	100.0(1,017)	3.43	(4)
읍·면	13.0	-	0.2	0.4	99.3	100.0(487)	3.63	(2)
$X^2(df)/F$	13.8(2)**			-			4.9**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6.1	0.3	0.3	1.0	98.5	100.0(1,157)	3.80	(11)
유치원만 이용	14.0	0.2	0.7	-	99.2	100.0(566)	3.44	(5)
둘 다 이용	10.6	-	-	0.7	99.3	100.0(140)	4.00	(1)
미이용	13.8	0.1	0.1	0.1	99.6	100.0(665)	4.31	(3)
$X^2(df)/F$	4.2(3)			-			1.2	

** $p < .01$, *** $p < .001$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지율은 21.2%, 이용 경험률은 1.1%이다. 영아에 비해 유아가,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경험이 높다. 시간제 보육 이용자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3.89점으로 영아를 둔 부모와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부모의 인지도가 높다(표 IV-2-21 참조).

〈표 IV-2-21〉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시간제 보육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수)	평균	(수)
전체	21.2	0.1	0.4	0.6	98.9	100.0(2,528)	3.89	(2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7.7	-	0.5	0.3	99.3	100.0(1,595)	3.95	(11)
유아	26.8	0.3	0.3	1.1	98.3	100.0(933)	3.85	(15)
$X^2(df)/t$	29.8(1)***			-			2.3	
지역규모								
대도시	24.6	0.3	0.4	1.1	98.3	100.0(1,024)	3.81	(13)
중소도시	19.7	-	0.3	0.2	99.5	100.0(1,017)	4.37	(7)
읍·면	16.7	-	0.9	0.2	98.9	100.0(487)	3.65	(6)
$X^2(df)/F$	13.8(2)**			14.9(6)*			3.8*	

(표 IV-2-21 계속)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수)	평균	(수)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2.7	0.1	0.2	0.9	98.8	100.0(1,157)	3.79	(11)
유치원만 이용	24.2	0.2	0.5	0.3	99.0	100.0(566)	3.92	(7)
둘 다 이용	16.3	-	1.4	-	98.6	100.0(140)	4.06	(4)
미이용	17.2	0.3	0.4	0.1	99.1	100.0(665)	4.01	(4)
X ² (df)/F	13.2(3)**			-			0.1	

* p < .05, ** p < .01, *** p < .001

다)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인지와 이용 경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 인지 여부와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표 IV-2-22〉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 분	인지율	이용 경험				(수)
		자주	가끔	1-2번	경험 없음	
전체	61.3	4.5	10.6	13.1	71.8	(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1.8	4.6	11.6	14.2	69.7	(1,595)
유아	60.6	4.4	9.2	11.2	75.2	(933)
X ² (df)/t	0.34(1)		9.8(3)			
지역규모						
대도시	60.5	4.9	13.1	15.1	67.0	(1,047)
중소도시	61.7	3.6	9.5	11.8	75.1	(1,028)
읍·면	53.4	5.7	7.5	11.3	75.5	(453)
X ² (df)/F	9.4(2)**		26.5(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64.5	6.9	14.7	15.5	62.8	(1,157)
유치원만 이용	59.0	3.4	7.4	13.0	76.2	(566)
둘 다 이용	75.2	7.8	8.5	19.1	64.5	(140)
미이용	49.4	0.7	7.2	7.8	84.3	(665)
X ² (df)/F	54.9(3)***		126.4(9)***			

** p < .01, *** p < .001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3%이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8.2%이다. 인지율은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부모보다 영아인 부모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용 경험도 마찬가지로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 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 인지율이 높고, 특히 대도시의 부

모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보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에 대한 인지율이 높고, 마찬가지로 이용 경험 역시 어린이집만 이용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다 이용하는 부모가 더 많다(표 IV-2-22 참조).

나. 모의 취업과 양육지원

1) 취업모의 자녀양육 애로 사항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를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참여 부담이 5점 만점에 3.24점으로 가장 높고, 이른 출근으로 인한 어려움도 평균 3점으로 높은 편이다. 최연소 자녀 연령별로 보면, 이른 출근과 야간근무로 인한 어려움이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중소도시 지역의 부모들이 타 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23 참조).

〈표 IV-2-23〉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구분	이른 출근	퇴근시간	야간근무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단위: 점(명) (수)
전체	3.00	2.98	2.80	2.99	3.24	(94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12	3.04	2.92	2.97	3.15	(534)
유아	2.87	2.90	2.66	3.00	3.33	(414)
t	2.8**	1.5	3.0**	.31	-1.9	
지역규모						
대도시	2.86	2.83	2.69	2.84	3.21	(397)
중소도시	3.19	3.24	2.98	3.15	3.61	(368)
읍·면	3.04	3.05	2.73	2.76	3.19	(184)
F	5.6**	8.8***	5.5**	8.7**	10.4***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2) 모의 미취업 이유와 취업 계획

미취업 모를 대상으로 현재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하였다.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전체의 62.3%로 가장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고, 다음

으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22.2%,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4〉 모의 미취업 이유

단위: %(명)

구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자녀양육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주위의 반대	건강상 이유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3.8	7.9	22.2	62.3	0.8	2.7	0.3	100.0(1,56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1	5.6	23.2	64.8	0.7	2.2	0.3	100.0(1,054)	31.6(6)***
유아	5.0	12.4	20.2	57.6	0.8	3.9	0.2	100.0(509)	
지역규모									
대도시	3.8	4.7	24.2	63.1	0.8	3.1	0.3	100.0(624)	29.2(12)**
중소도시	3.4	10.0	23.3	60.4	0.6	1.9	0.3	100.0(643)	
읍·면	4.7	10.5	14.5	65.2	1.2	3.9	-	100.0(29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8	25.0	16.1	41.1	-	16.1	-	100.0(50)	176.2(54)***
150~199만원	2.9	17.6	24.7	50.0	-	4.1	0.6	100.0(161)	
200~249만원	0.8	8.3	20.9	65.7	0.4	3.9	-	100.0(253)	
250~299만원	2.7	7.1	22.7	62.4	1.0	4.1	-	100.0(288)	
300~349만원	5.3	4.5	24.1	63.7	2.0	0.4	-	100.0(277)	
350~399만원	1.0	5.2	18.6	74.2	1.0	-	-	100.0(113)	
400~499만원	7.6	2.7	23.8	64.3	-	1.1	0.5	100.0(190)	
500~599만원	5.2	5.2	20.9	65.7	0.7	0.7	1.5	100.0(139)	
600~699만원	7.5	12.5	22.5	57.5	-	-	-	100.0(35)	
700만원 이상	8.5	-	20.3	71.2	-	-	-	100.0(56)	

** $p < .01$, *** $p < .001$

최연소 자녀 연령별로 보면, 영아 부모는 유아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의 비율이 각각 64.8%, 22.2%로 높으며, 유아 부모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12.4%로 영아 부모 5.6%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영아인 경우보다 일하려는 의향이 높아지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냈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읍·면 지역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취업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24 참조).

<표 IV-2-25>는 모가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할 계획이 있

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계획 없음 29.6%, 현재 구직 중 4.2%, 취업교육 훈련 중 1.5% 순이다.

〈표 IV-2-25〉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

단위: %(명)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4.2	1.5	64.5	0.3	29.6	100.0(1,56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1	1.2	67.4	-	28.3	100.0(1,054)	23.3(4)***
유아	6.4	1.9	58.9	0.8	32.0	100.0(509)	
지역규모							
대도시	4.5	1.7	65.7	-	28.1	100.0(624)	7.9(9)
중소도시	4.3	1.4	64.8	0.5	29.0	100.0(643)	
읍·면	3.1	1.2	60.5	0.4	34.8	100.0(29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6.1	-	55.4	-	28.6	100.0(56)	136.5(36)***
150~199만원	11.2	0.6	67.1	0.6	20.6	100.0(170)	
200~249만원	3.6	0.8	73.5	0.4	21.7	100.0(253)	
250~299만원	3.4	4.4	60.7	0.3	31.2	100.0(295)	
300~349만원	3.7	1.2	70.2	-	24.9	100.0(245)	
350~399만원	3.1	-	73.5	-	23.5	100.0(98)	
400~499만원	2.2	1.6	58.9	-	37.3	100.0(185)	
500~599만원	-	-	64.4	0.7	34.8	100.0(135)	
600~699만원	4.9	-	34.1	-	61.0	100.0(41)	
700만원 이상	-	1.7	45.8	-	52.5	100.0(59)	

*** $p < .001$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모가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는 의견이 67.4%로 유아에 비해 높고, 유아를 둔 어머니는 현재 구직중인 경우와 취업 훈련 중인 비율이 각각 6.4%와 1.9%로 영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현재 구직중이거나 취업교육 훈련 중인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반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읍·면 지역이 타 지역보다 5%p 이상 높고,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IV-2-25 참조).

<표 IV-2-26>은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취업 계획 시기에 대한 결과이다.

5년 이내가 전체의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은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3년 이내 25.3%, 2년 이내 16.0% 순이다. 이는 현재 미취업모인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시기는

주로 막내 자녀의 취학 이후임을 암시한다. 최연소 자녀 연령별로는 유아인 경우는 2년 이내가 영아보다 높고, 영아의 경우는 3년 이내와 5년 이내가 유아보다 많다. 지역별로는 1년 이내는 읍·면 지역에서 높고, 2년~5년 이내는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2-26〉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계(수)	X ² (df)
전체	5.0	3.8	9.8	16.0	25.3	31.0	9.1	100.0(1,11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	4.5	9.8	15.2	26.1	31.1	9.8	100.0(764)	18.3(6)**
유아	8.3	2.0	9.8	17.8	23.9	30.7	7.5	100.0(350)	
지역규모									
대도시	3.7	5.0	7.2	17.1	23.9	34.6	8.5	100.0(445)	
중소도시	7.0	3.1	11.6	14.8	27.7	27.3	8.5	100.0(467)	24.3(12)*
읍·면	3.0	2.4	12.0	16.2	22.8	31.1	12.6	100.0(20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0.0	15.0	7.5	15.0	27.5	20.0	5.0	100.0(40)	
150~199만원	11.8	2.2	13.2	10.3	27.2	30.1	5.1	100.0(136)	
200~249만원	3.5	3.5	10.1	12.1	33.3	31.8	5.6	100.0(198)	
250~299만원	7.0	8.0	8.0	21.9	22.4	24.4	8.5	100.0(201)	
300~349만원	3.8	2.2	10.3	14.7	21.2	33.2	14.7	100.0(184)	-
350~399만원	1.3	1.3	9.3	18.7	21.3	40.0	8.0	100.0(75)	
400~499만원	0.9	1.7	12.9	24.1	21.6	29.3	9.5	100.0(116)	
500~599만원	1.1	1.1	5.7	17.2	28.7	36.8	9.2	100.0(87)	
600~699만원	13.3	6.7	-	-	13.3	33.3	33.3	100.0(15)	
700만원 이상	-	3.4	10.3	10.3	27.6	37.9	10.3	100.0(29)	

* $p < .05$, ** $p < .01$

3) 모의 경력 단절

가) 모의 취업 중단 여부와 중단 사유

아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5.2%로 조사되었고, 그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48.7%, 몸이 힘들어서 32.3%,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 11.4%로 조사되었다(표 IV-2-27 참조).

취업 중단 경험 여부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읍·면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 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된 이유로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도시 지역에서 더 높았다.

〈표 IV-2-27〉 제 특성별 모의 취업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취업 중단 여부		취업 중단 사유					계(수)	
	있다	(수)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	발전가 능성이 희박하 여	몰이 힘들어서		기타
전체	25.2	(3,325)	3.8	48.7	11.4	1.2	32.3	2.5	100.0(850)
영유아 구분									
영아	26.0	(1,796)	2.3	48.4	11.5	0.5	34.6	2.8	100.0(460)
유아	24.4	(1,529)	5.5	49.3	11.2	1.7	30.1	2.2	100.0(390)
X ² (df)		1.3(1)				-			
지역규모									
대도시	26.9	(1,346)	3.9	49.9	13.1	0.8	28.8	3.6	100.0(364)
중소도시	26.7	(1,316)	3.7	50.6	9.7	2.0	32.6	1.4	100.0(350)
읍·면	17.6	(663)	4.0	37.4	10.1	-	45.5	3.0	100.0(136)
X ² (df)		21.2(2) ^{***}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6.0	(95)	-	46.2	11.5	-	-	42.3	100.0(23)
150~199만원	25.1	(244)	2.9	58.8	-	1.5	2.9	33.8	100.0(65)
200~249만원	28.4	(408)	3.5	45.2	11.3	1.7	1.7	36.5	100.0(111)
250~299만원	31.3	(535)	6.9	39.0	11.3	0.6	2.5	39.6	100.0(162)
300~349만원	27.8	(509)	3.0	53.0	11.9	0.7	2.2	29.1	100.0(145)
350~399만원	19.8	(280)	1.8	56.4	10.9	-	-	30.9	100.0(63)
400~499만원	23.0	(525)	4.9	47.2	15.4	1.6	3.3	27.6	100.0(122)
500~599만원	23.9	(252)	2.4	54.2	15.7	-	3.6	24.1	100.0(84)
600~699만원	22.6	(349)	2.6	39.5	13.2	-	5.3	39.5	100.0(35)
700만원 이상	16.1	(152)	5.3	57.9	5.3	5.3	2.6	23.7	100.0(39)
X ² (df)		31.0(9) ^{***}				-			

*** $p < .001$

나) 취업 중단 시기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업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중단 시기는 임신했을 때가 전체의 61.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출산·출산휴가 직후 22.1%, 자녀가 1~2세일 때 7.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분별로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임신했을 때와 1세 이전, 유아인 경우는 1~2세, 3세~취학전까지가 높게 나타났다. 임신했을 때 취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이는 모의 취업 중단 시기는 임신 중, 출산, 또는 출산휴가

직후에 주로 행해지고, 자녀의 취학 전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는 임신 중이나 출산·출산휴가 직후에 취업 중단이 행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2-28〉 제 특성별 모의 취업 중단 시기

단위: %(명)

구분	임신 했을 때	출산·출산 휴가 직후	1세 이전	1~2세	3세~ 취학전	계(수)	X ² (df)
전체	61.3	22.1	3.9	7.3	5.5	100.0(850)	
영유아구분							
영아	69.8	21.9	4.4	3.2	0.7	100.0(460)	68.9(4)***
유아	52.0	22.4	3.5	11.4	10.7	100.0(390)	
연령							
0세	73.1	21.4	4.9	0.5	-	100.0(203)	90.2(2)***
1세	72.5	20.4	2.8	4.2	-	100.0(140)	
2세	60.7	24.1	5.4	7.1	2.7	100.0(117)	
3세	54.3	22.5	1.6	14.0	7.8	100.0(132)	
4세	52.7	25.2	4.6	6.1	11.5	100.0(146)	
5세	49.7	19.6	4.2	14.0	12.6	100.0(112)	
지역규모							
대도시	57.9	24.8	4.7	7.5	5.2	100.0(364)	7.1(8)
중소도시	63.0	20.6	3.7	6.6	6.0	100.0(350)	
읍·면	69.0	17.0	2.0	8.0	4.0	100.0(136)	
모취업여부							
취업	62.5	23.6	5.1	7.4	1.4	100.0(213)	-
휴직 중	45.5	36.4	-	-	18.2	100.0(12)	
미취업	61.2	21.4	3.6	7.2	6.5	100.0(62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76.9	15.4	7.7	-	-	100.0(23)	-
150~199만원	72.1	17.6	5.9	2.9	1.5	100.0(65)	
200~249만원	76.5	13.9	2.6	6.1	0.9	100.0(111)	
250~299만원	64.4	18.8	3.8	7.5	5.6	100.0(162)	
300~349만원	58.6	24.1	3.0	7.5	6.8	100.0(145)	
350~399만원	60.0	29.1	1.8	3.6	5.5	100.0(63)	
400~499만원	56.9	23.6	4.9	8.9	5.7	100.0(122)	
500~599만원	46.3	37.8	3.7	4.9	7.3	100.0(84)	
600~699만원	52.6	21.1	5.3	10.5	10.5	100.0(35)	
700만원 이상	37.8	18.9	5.4	24.3	13.5	100.0(39)	

*** $p < .001$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자녀의 양육자와 모의 취업 및 양육지원 현황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 시간 주 양육자와 평일 시간대별 양육 실태에 의하면, 조부모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식은 기관 이용이나 부모 양육이 주를 이루나, 이외에도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4%를 나타내며, 2세 미만아인 경우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최연소 자녀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조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1세 미만인 경우는 82.6%, 1세~2세 미만인 경우는 74.2%에 달한다. 한편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경향은 취업모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조부모 양육지원의 모색 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1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평일 이용 시간대별 이용 기관과 돌보는 사람에 의하면, 취업모와 미취업모는 이용 시간대별로 양육 실태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재편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취업모의 자녀는 오전 7시부터 기관 이용이 시작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26%로 나타난다. 반면, 미취업모의 자녀들은 9시 이후 기관 이용이 본격화되어 오후 3시 반 이후 기관 이용률은 약 3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미취업모 자녀들의 경우 오후 3시까지 반일제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실제 이용시간에 맞추어 반일제로 한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과수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0세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오전 시간대에 최대 13.9%에 불과하므로 0세아의 기관 보육은 취업모에 우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정서를 보면 특히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에서 어머니에 비해 턱없이 짧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방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전문적이고 신뢰할만한 강사를 확보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말 등 이용 시간을 다양화하며,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육아관련 정보나 상담이 육아관련 사이트나 육아관련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은 약 40% 수준에 불과하고 친구·동료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지역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기관인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장난감·도서 대여 부문의 인지율이 약 29%로서 가장 높고,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서비스 항목들에서 90%를 육박하므로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사업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도움 정도를 나타낸 육아정보 제공, 육아상담 및 아동 진단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가 미흡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모의 미취업 주된 이유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이 약 22%로 나타나므로 취업모 위주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모의 상당수가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간과의 불일치를 일·가정 양립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므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취업 중단 시 주된 사유로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48.7%로 가장 많이 지적되므로 취업모 위주의 보육서비스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모의 경력 단절은 임신 중이나 출산 또는 출산휴가 직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출산·양육 친화적인 노동 문화의 형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는 평균 약 3.7점(5점 만점) 수준이고 적극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하며,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약 2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어머니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조성 및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남성의 양육 참여 정도는 영아에 비해 유아를 둔 경우가 더 낮고, 적극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모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가정 양립 갈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남성 대상 부모교육 강화 이외에도 배우자 휴가제도 등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남성 양육 참여 지원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과 요구 총괄

제5장은 18개 유형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제1절에서는 아동단위로 조사된 보육 및 유아교육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서비스 이용 경험, 제3절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가구 및 아동단위로 분석하였고, 제4절에서는 취약보육을 다루었다.

1.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본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 시간제 보육기관 등 8종의 기관과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의 개별적 보육서비스, 그리고 학습지, 예체능 방문, 교재교구 방문, 전화교육, 인터넷 등 총 18종류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²²⁾

반일제이상 학원과 일반학원의 차이는 제1장 용어 정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시간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학원을 의미하며, 일반학원은 피아노나 미술처럼 특정한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일주일에 일정 횟수를 주로 시간제로 이용하는 학원이다. 영유아아기는 하지만 쓰기, 읽기, 셈하기 등을 위하여 다니는 보습학원도 일반학원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이용자 관점의 구분이나 동일한 하나의 학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가.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 서비스 수

먼저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V-1-1>은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서비스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22.7%는 아무 곳도 다니지 않지만 59.9%의 아동은 1종의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17.4%가 두

22) 2009년과 비교하여 조사 대상이 영유아로 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특기적성, 방과후보육, 개별 및 그룹 지도를 삭제함.

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과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높아진다. 2009년에 비하여 아무 곳도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은 감소하고 두 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양육지원 기관 수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없음	43.7	1.4	78.7	23.7	9.4	2.4	1.0	0.9	22.7	33.7
1가지	53.0	67.0	20.9	71.3	84.0	82.6	73.5	50.4	59.9	57.7
2가지	3.2	29.9	0.4	4.8	6.2	14.4	25.1	45.6	16.5	8.1
3가지 이상	0.1	1.7	-	0.2	0.4	0.6	0.4	3.1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02)	(1,541)	(802)	(538)	(462)	(503)	(556)	(482)	(3,343)	(3,303)

한편 개인서비스는 63.6%는 이용하지 않지만 36.0%의 아동이 한 가지 종류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고, 0.4%의 아동이 두 가지 이상 개인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는 유아보다는 영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2009년과 비교하면, 개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감소하고 한 가지 이상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표 V-1-2 참조).

〈표 V-1-2〉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수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없음	60.3	66.9	59.2	59.5	63.1	61.5	67.5	70.6	63.6	74.2
1가지	39.0	32.9	40.5	39.3	36.7	38.3	32.5	28.9	36.0	25.5
2가지 이상	0.7	0.2	0.3	1.2	0.2	0.2	-	0.5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02)	(1,541)	(802)	(538)	(462)	(503)	(556)	(482)	(3,343)	(3,303)

<표 V-1-3>은 기관과 개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나타낸다. 미취학 아동의 50.5%는 기관만 다니고 26.9%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며, 9.6%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13.0%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은 영아와 유아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개인서비스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영아 18.9%, 유아 0.3%

이고, 미이용도 영아는 24.9%, 유아 1.1%이다. 2009년과 비교하여 기관과 개인서비스 모두 이용한다는 비율은 10%p 이상 증가하고 반대로 아무 곳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0%p 감소하였다. 개인이나 기관 서비스만 이용한다는 비율은 변동이 없다.

〈표 V-1-3〉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기관	35.6	65.7	14.1	45.7	58.8	59.7	66.9	68.7	50.5	49.9
기관+개인	20.6	32.9	7.3	30.7	31.7	37.9	32.1	30.4	26.9	16.3
개인서비스	18.9	0.3	33.5	9.7	5.2	0.6	0.4	-	9.6	9.5
미이용	24.9	1.1	45.1	13.9	4.3	1.8	0.6	0.9	13.0	2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02)	(1,541)	(802)	(538)	(462)	(503)	(556)	(482)	(3,343)	(3,303)

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율

1)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표 V-1-4〉는 영유아 아동연령별로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을 나타낸다. 연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먼저,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을 보면 어린이집 45.1%, 유치원 24.2%로 조사되었다. 2011년 보육통계인 각각의 이용 비율 48.0%, 20.3%와 비교하여 어린이집은 낮고 유치원은 높게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보육통계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2년 상반기 동안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반일제이상 학원 3.6%, 선교원 0.4%이고 시간제 일반학원 12.6%로 조사되었다. 개인서비스는 친조부모 15.2%, 외조부모 16.6%, 친인척 2.9%로 조사되었고, 학습지 이용은 30.5% 수준이다.

아동구분 및 연령별로 각 서비스 주체의 이용 비율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영아를 보면 기관서비스는 어린이집이 47.9%이고 비공식 보육이 40.2%로 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세의 경우 조부모 등의 비공식 서비스 이용비율이 36.3%로 어린이집 이용률 14% 수준보다는 더 높다. 영아는

친인척은 2.7%, 비혈연은 1.7%이고 학습지는 9.2%이다.

유아는 기관 이용률이 어린이집 42.3%, 유치원 48.3%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더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다. 반일반 이상학원은 6.8%이고 일반학원 시간제 이용은 24.4%로 조사되었다. 비공식보육은 28.5%이고 학습지는 52.0%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4>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47.9	42.3	14.2	63.4	85.2	56.1	44.5	30.0	45.1
유치원	0.2	48.3	-	0.2	0.6	34.7	47.5	59.2	24.2
반일제이상 학원	0.4	6.8	-	0.2	1.3	4.5	5.6	9.5	3.6
선교원	0.1	0.7	-	0.2	-	0.6	1.2	0.3	0.4
특기 및 보습학원	1.0	24.4	-	0.4	3.2	7.3	16.6	43.3	12.6
지역아동센터·주민센터	0.2	2.0	0.3	-	0.2	1.6	1.4	2.9	1.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9.1	6.2	6.8	15.4	6.0	6.1	7.4	5.3	7.6
시간제보육 등	0.7	1.1	0.4	1.5	0.4	2.2	1.0	0.5	0.9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16.0	14.4	16.4	15.8	15.9	16.4	14.7	12.6	15.2
외조부모	19.1	14.1	19.9	20.0	16.8	17.4	12.7	12.7	16.6
친인척	2.7	3.0	2.5	2.5	3.4	1.8	4.0	3.2	2.9
비혈연	1.7	1.6	1.5	2.5	1.1	2.8	0.8	1.2	1.6
육아전문 파견인력	0.7	0.3	0.8	1.0	0.2	0.4	0.2	0.3	0.5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4.1	4.0	0.7	5.2	8.2	4.9	4.6	2.7	4.0
예체능 방문	0.2	1.3	-	0.2	0.2	0.2	1.2	2.3	0.7
학습지(방문 포함)	9.2	52.0	0.5	8.5	23.5	42.4	48.7	61.9	30.5
인터넷교육	0.1	0.1	-	0.2	-	-	0.2	0.2	0.1
(수)	(1,802)	(1,541)	(802)	(538)	(462)	(503)	(556)	(482)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음 <표 V-1-5>는 조사 시점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이다. 연령별 기관이용률이 1월 1일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7.7%로 1월 1일 기준에 비하여 약 1/2 규모이고, 5세아 이용률은 33.1%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V-1-5〉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7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41.7	47.8	7.7	42.6	77.6	71.4	50.2	33.1	45.1
유치원	0.1	42.4	-	0.2	-	17.8	41.5	56.8	24.1
반일제이상 학원	0.3	6.2	-	0.2	0.6	2.4	6.0	8.4	3.6
선교원	0.1	0.6	-	-	0.2	0.4	0.4	0.8	0.4
특기 및 보습학원	0.6	21.8	-	0.2	1.7	5.1	12.2	36.3	12.7
지역아동센터·주민센터	0.1	1.9	-	0.4	-	0.6	1.9	2.6	1.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9.6	6.1	3.5	14.5	11.3	5.1	7.9	5.7	7.6
시간제보육 등	0.7	1.1	0.4	0.4	1.3	1.4	1.7	0.7	0.9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16.3	14.4	14.2	19.2	15.8	17.4	15.1	12.3	15.2
외조부모	19.5	14.4	21.3	18.2	18.8	16.5	16.6	12.0	16.6
친인척	2.6	3.0	2.4	2.8	2.8	2.2	4.1	3.0	2.9
비혈연	1.8	1.6	1.8	1.9	1.7	1.8	2.1	1.2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0.8	0.3	0.6	0.9	0.9	0.4	0.2	0.3	0.5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3.6	4.4	0.4	2.8	7.7	6.8	3.1	3.6	4.0
예체능 방문	0.2	1.2	-	0.2	0.2	-	1.0	1.8	0.7
학습지(방문 포함)	6.4	48.9	-	4.5	15.4	35.4	48.3	56.8	30.6
인터넷교육	0.1	0.1	-	0.2	-	-	0.2	0.1	0.1
(수)	(1,574)	(1,769)	(522)	(576)	(476)	(471)	(551)	(747)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2) 지역규모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표 V-1-6>은 영유아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지역규모별로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기관은 영유아 전체로 보면 읍·면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다. 읍·면 지역은 어린이집 이용률이 50.2%로 도시지역 43.5%, 44.7%보다 높고 반면에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은 도시에 비하여 낮다. 유치원 이용률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에 비해 낮다. 문화센터와 특기보습학원 이용률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높다.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은 친조부모에 의한 비율이 읍·면이 19.5%로 대도시 14.9%, 중소도시 13.7%에 비해서 높으나 외조부모에 의한 비율은 대도시가 19.4%로 중소도시와 읍·면 14~15%보다 높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영아와 유

아로 구분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비혈연 보육은 전체적으로 1.6% 수준인데, 대도시에서 그 비율이 다소 높다.

〈표 V-1-6〉 영유아 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영유아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43.2	49.5	56.4	48.0	43.8	39.8	43.9	42.3	43.5	44.7	50.2	45.1
유치원	-	0.6	-	0.2	45.2	50.4	50.9	48.2	22.6	25.4	25.4	24.2
반일제이상 학원	0.6	0.5	-	0.4	7.6	7.9	2.4	6.8	4.1	4.1	1.2	3.6
선교원	-	-	0.3	0.1	0.3	0.6	1.7	0.7	0.1	0.3	1.0	0.4
특기 및 보습학원	1.7	0.6	0.3	1.0	24.5	24.4	24.0	24.4	13.1	12.4	12.1	12.7
지역아동센터 등	0.3	0.2	-	0.2	1.7	2.6	1.7	2.0	1.0	1.4	0.9	1.1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13.4	7.0	3.1	9.1	9.1	4.0	4.2	6.2	11.3	5.5	3.5	7.6
시간제보육 등	1.4	0.2	0.3	0.7	2.1	0.3	0.3	1.1	1.7	0.3	0.5	1.0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15.9	13.6	22.0	16.0	13.9	13.7	17.0	14.4	14.9	13.7	19.5	15.2
외조부모	22.9	17.4	13.4	19.1	15.9	10.8	17.3	14.1	19.4	14.1	15.2	16.6
친인척	2.3	3.2	2.4	2.7	2.2	4.0	2.8	3.0	2.3	3.6	2.6	2.9
비혈연	2.6	0.8	1.7	1.7	1.2	2.1	1.4	1.6	1.9	1.4	1.4	1.6
육아전문 파견인력	0.6	0.9	0.7	0.7	-	0.8	-	0.3	0.3	0.8	0.3	0.5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5.5	3.0	3.1	4.1	5.1	3.1	3.1	4.0	5.3	3.0	3.1	4.0
예체능 방문	-	0.2	0.3	0.1	1.7	0.9	1.4	1.3	0.8	0.5	0.9	0.7
학습지(방문 포함)	10.3	8.5	8.3	9.2	52.1	56.0	42.7	52.0	31.2	32.1	25.4	30.5
인터넷교육	0.1	-	-	0.1	0.1	0.2	0.3	0.2	0.1	0.1	0.2	0.1
(수)	(728)	(716)	(358)	(1,802)	(620)	(609)	(312)	(1,541)	(1,348)	(1,325)	(670)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3)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가구소득별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를 알아보면, 대체로 어린이 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일반학원, 조부모, 비혈연의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은 499만원 이하 가구소득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500만원 이상 가구소득에서는 이용률이 더 낮다. 유치원도 소득 수준 600만원 이상에서는 이용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반일제이상학원과 일반학원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 혈연에 의한 양육 지원에서 외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350~399만원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이하 소득계층에서의 이용률 10%대와 비교된다.

〈표 V-1-7〉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149 이하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699	700 이상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37.9	49.4	44.3	51.7	46.0	49.6	48.1	37.8	41.6	30.9	45.2
유치원	26.2	19.0	24.5	18.8	26.7	25.2	24.5	31.7	27.7	19.5	24.2
반일제이상 학원	-	-	0.2	0.6	1.7	2.5	3.4	4.3	15.1	18.2	3.6
선교원	-	0.4	0.5	0.2	0.2	-	0.4	0.6	0.6	1.3	0.4
특기 및 보습학원	4.8	6.0	7.5	7.4	11.0	14.7	13.9	18.5	28.3	22.6	12.6
지역아동센터 등	-	1.9	2.2	-	1.9	-	1.1	0.6	2.4	1.3	1.1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1.9	1.9	5.3	4.7	9.8	11.2	8.1	10.7	9.1	11.9	7.6
시간제보육 등	-	0.4	0.5	1.0	1.3	0.4	1.7	0.6	1.2	0.8	0.9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13.6	10.0	14.8	17.1	12.5	15.8	16.3	16.4	17.5	18.3	15.3
외조부모	9.7	7.4	10.7	10.3	13.5	21.6	20.2	21.0	35.5	26.4	16.6
친인척	2.9	5.2	2.9	3.3	3.1	1.8	2.8	2.0	3.0	1.7	2.9
비혈연	-	1.1	1.2	0.8	0.6	0.7	1.3	3.2	1.2	8.1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2.9	-	-	0.2	0.2	-	0.6	0.6	0.6	2.1	0.5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	0.4	3.1	2.5	3.5	3.6	6.0	6.1	4.8	8.1	4.0
예체능 방문	1.0	-	-	0.2	0.8	0.7	0.7	0.9	0.6	3.8	0.7
학습지(방문 포함)	21.4	19.4	25.2	24.9	34.6	37.8	31.6	34.1	44.0	35.6	30.6
인터넷교육	-	0.4	0.2	-	-	-	0.2	-	-	-	0.1
(수)	(98)	(245)	(416)	(537)	(511)	(280)	(525)	(350)	(153)	(225)	(3,340)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음 <표 V-1-8>은 가구소득별로 3세 미만 영아만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어린이집, 외조부모, 비혈연인, 학습지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들 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평균 비용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가구는 어린이집과 외조부모 이용 비율이 각각 39.7%, 8.8%로 각각의 전체 이용 평균인 48.0%, 19.1%보다 낮다. 비혈연인 이용률은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12.2%로 그 이하 소득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학습지 이용도 가구소득 300만원을 경계로 이용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표 V-1-8〉 영아 가구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구분	단위: %(명)										
	149 이하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39.7	41.4	42.5	47.3	50.0	53.3	53.6	48.4	62.9	39.5	48.0
유치원	-	1.4	0.5	-	-	-	0.4	-	-	-	0.2
반일제이상 학원	-	-	-	-	-	0.7	-	0.6	2.9	1.8	0.4
선교원	-	-	0.5	-	-	-	-	-	-	-	0.1
특기 및 보습학원	3.4	-	-	0.4	0.4	-	1.1	4.5	4.2	0.9	1.1
지역아동센터 등	-	-	0.5	-	-	-	0.8	-	-	-	0.2
문화센터등 시설기관	1.8	3.6	6.8	6.5	13.7	14.2	8.7	9.2	14.3	13.0	9.1
시간제보육 등	-	0.7	0.9	0.4	0.8	-	1.1	0.7	-	0.9	0.7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12.1	13.7	14.0	19.7	13.3	17.2	15.5	16.3	21.1	19.1	16.1
외조부모	8.8	7.2	11.8	12.9	16.6	23.7	24.9	26.6	42.9	29.6	19.1
친인척	5.3	1.4	2.7	3.6	3.3	2.2	3.4	0.7	2.8	1.7	2.7
비혈연	-	0.7	0.5	-	0.8	0.7	1.1	3.3	1.4	12.2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3.4	-	-	0.4	0.4	-	1.1	0.7	1.4	2.6	0.7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	0.7	1.8	3.2	4.6	3.0	6.0	5.8	5.7	8.8	4.1
예체능 방문	1.7	-	-	-	0.4	-	-	-	-	0.9	0.2
학습지(방문 포함)	8.8	4.3	5.9	6.8	10.0	9.0	13.2	11.0	10.0	14.8	9.3
인터넷교육	-	0.7	-	-	-	-	-	-	-	-	0.1
(수)	(58)	(140)	(222)	(279)	(240)	(134)	(265)	(153)	(71)	(115)	(1,67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유아 역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소득수준과 관계있음을 나타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감소하고 반일제이상 학원과 특기 및 보습학원의 이용 비율은 증가한다. 가구소득 150~200만원 미만 가구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58.1%인 반면에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그 절반 수준인 23.0%에 불과하다. 유치원은 일관성은 없으나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 이용률은 37.7%로 평균에 10%p 이상 미달한다. 특히 특기 및 보습학원에서 소득수준간 이용률 격차가 크다.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는 6.5%인 반면에 700만원 이상은 43.8%로 이용 비율이 6.7배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예·체능방문 서비스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소득수준 200만원을 경계로, 그리고 다시 300만원을 경계로 10%p 이상씩 증가하는 양상이다. 개인 서비스 중 외조부모의 지원은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경우에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표 V-1-9 참조).

〈표 V-1-9〉 유아 가구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구분	단위: %(명)										
	149 이하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699	700 이상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37.0	58.1	46.1	56.4	41.8	45.8	42.8	29.5	26.0	23.0	42.3
유치원	60.0	38.3	52.6	41.1	53.3	48.6	48.0	57.0	48.4	37.7	48.3
반일제이상 학원	-	-	0.5	1.3	3.3	4.2	6.7	7.3	24.0	33.1	6.8
선교원	-	0.8	0.5	0.4	0.4	-	0.7	1.0	1.0	2.5	0.7
특기 및 보습학원	6.5	12.5	16.1	15.7	21.7	28.5	26.4	29.9	46.9	43.8	24.4
지역아동센터 등	-	3.9	4.2	-	3.8	-	1.5	1.0	4.2	2.5	2.1
문화센터등 시설기관	2.2	0.8	3.7	2.5	6.3	8.3	7.4	11.9	5.3	10.7	6.2
시간제보육 등	-	-	-	1.7	1.7	0.7	2.2	0.5	2.1	0.8	1.1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15.6	5.5	15.7	13.6	11.7	14.6	17.1	16.6	14.7	18.2	14.4
외조부모	11.1	7.0	9.4	7.2	10.4	20.0	15.6	16.6	30.5	23.8	14.1
친인척	-	9.3	3.1	3.0	2.9	1.4	2.2	2.6	3.2	1.7	3.0
비혈연	-	1.6	2.1	1.7	0.4	0.7	1.5	3.1	-	4.1	1.6
육아전문 파견인력	2.2	-	-	-	-	-	-	0.5	-	1.7	0.2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	-	4.7	1.7	2.5	4.1	5.9	6.7	4.2	7.4	4.0
예체능 방문	37.0	35.2	47.6	46.2	59.2	64.6	49.8	52.8	68.8	55.4	52.0
학습지(방문 포함)	-	-	-	0.4	1.3	1.4	1.5	1.5	1.0	6.6	1.3
인터넷교육	-	-	0.5	-	-	-	0.4	-	-	-	0.1
(수)	(45)	(104)	(174)	(229)	(240)	(130)	(239)	(179)	(82)	(117)	(1,539)

주: 중복응답 결과임.

4)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영아, 유아 및 영유아 모의 취업상태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는 <표 V-1-10>과 같다. 영유아 전체로 보면 취업모 자녀의 서비스 이용 비율이 다른 부모 자녀보다 대체로 높다. 어린이집 이용은 취업모 자녀와 미취업모 자녀가 각각 56.3%, 39.7%로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16.6% 이상 높고, 유치원도 취업모 자녀가 29.1%로 미취업모 자녀 22.8%보다 높다. 친·외조부모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도 취업모의 자녀 비율이 각각 23.2%, 27.3%로 미취업모의 10.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모가 육아휴직 중인 자녀의 친·외조부모 이용률은 각각 18.8%, 29.2%로 나타나 미취업모 자녀보다 이용률이 더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 비율도 32.6%이다. 육아휴직자 자녀는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높는데, 영아의 경우도 29.7%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그런데 영아와 유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모 72.2%, 미취업모 39.7%로 조사되었고, 유아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모 45.9%, 미취업모 39.6%이다. 취업모의 경우 유아에 비해서 영아가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하고 미취업모의 경우는 영아와 유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10> 영유아가구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영유아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부재 등	전체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부재 등	전체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부재 등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72.2	29.7	39.7	85.7	47.9	45.9	44.4	39.6	45.5	42.3	56.3	32.6	39.7	68.0	45.1
유치원	0.2	-	0.3	-	0.2	47.7	37.0	49.0	45.5	48.3	29.1	6.9	22.8	20.0	24.2
반일제이상 학원	1.4	-	0.1	-	0.4	5.6	18.5	7.5	-	6.8	3.9	3.4	3.5	-	3.6
선교원	-	-	0.1	-	0.1	0.3	3.7	0.9	-	0.7	0.2	0.7	0.5	-	0.4
특기 및 보습학원	1.6	-	0.9	-	1.0	26.9	30.8	22.5	18.2	24.4	16.9	5.6	10.9	8.0	12.7
지역아동센터 등	-	-	0.3	-	0.2	1.6	-	2.4	-	2.0	1.0	-	1.3	-	1.1
문화센터등 시설기관	6.6	6.8	10.4	-	9.1	5.2	3.7	7.1	-	6.2	5.7	6.2	8.8	-	7.6
시간제보육 등	0.7	-	0.8	-	0.7	1.5	-	0.9	-	1.1	1.2	-	0.9	-	0.9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23.9	16.1	12.6	42.9	16.0	22.9	30.8	7.2	81.8	14.5	23.2	18.8	10.1	60.0	15.2
외조부모	32.9	29.4	12.7	7.1	19.1	23.6	29.6	7.0	-	14.1	27.3	29.2	10.1	4.0	16.6
친인척	3.4	3.4	2.4	-	2.7	3.1	3.7	2.9	-	3.0	3.2	3.4	2.6	-	2.8
비혈연	5.7	-	0.3	-	1.7	2.8	-	0.8	-	1.6	3.9	-	0.6	-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1.8	0.8	0.3	-	0.7	0.7	-	0.1	-	0.4	1.2	0.7	0.2	-	0.5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3.6	5.1	4.2	-	4.1	3.2	18.5	4.2	-	4.0	3.4	7.6	4.2	-	4.0
예체능 방문	0.2	-	0.2	-	0.2	1.3	-	1.4	-	1.3	0.8	-	0.7	-	0.7
학습	12.1	10.9	8.0	-	9.2	52.3	74.1	51.6	9.1	52.0	36.5	22.8	28.2	4.0	30.6
인터넷교육	-	-	0.1	-	0.1	0.1	3.7	-	-	0.1	0.1	0.7	0.1	-	0.1
(수)	(456)	(122)	(1,215)	(9)	(1,802)	(600)	(30)	(900)	(11)	(1,541)	(1,056)	(152)	(2,115)	(20)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5)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표 V-1-11>은 부모 맞벌이 여부별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모의 취업여부별 비교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영유아 전체로 보면, 맞벌이가구 자녀의 서비스 이용 비율이 대체로 높다. 어린이

집 이용은 맞벌이가 53.5%, 외벌이가 40.4%로 맞벌이인 경우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은 맞벌이가 약간 높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친·외조부모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도 맞벌이의 경우 각각 22.7%, 26.6%로 외벌이의 11.3%, 10.5%보다 더 이용 비율이 높다.

이 같은 경향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보았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어린이집 이용률에서 맞벌이가구 영아는 63.0%, 맞벌이가구 유아는 45.6%로 줄어들었고, 개별서비스는 맞벌이가구 영아 이용률은 친조부모가 22.2%, 외조부모 32.3%로 외조부모 비율이 높다.

〈표 V-1-11〉 영유아가구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영유아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63.0	40.8	42.4	48.0	45.6	40.0	46.2	42.3	53.5	40.4	44.1	45.1
유치원	0.2	0.3	-	0.2	47.4	48.6	53.8	48.2	25.8	23.2	23.7	24.1
반일제이상 학원	1.1	0.1	-	0.4	6.2	7.4	-	6.8	3.8	3.6	-	3.6
선교원	-	0.1	-	0.1	0.3	0.9	-	0.7	0.2	0.5	-	0.4
특기 및 보습학원	1.3	0.9	-	1.0	29.0	21.7	14.8	24.4	16.3	10.8	6.7	12.7
지역아동센터 등	-	0.3	-	0.2	1.7	2.3	-	2.0	0.9	1.3	-	1.1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6.7	10.5	-	9.1	5.0	7.1	3.7	6.2	5.7	8.9	1.7	7.6
시간제보육 등	0.6	0.8	-	0.7	1.6	0.9	-	1.1	1.1	0.9	-	0.9
개인 양육지원												
친조부모	22.2	13.4	3.0	16.0	23.2	9.0	3.7	14.4	22.7	11.3	3.4	15.2
외조부모	32.3	12.2	30.3	19.1	21.7	8.6	33.3	14.1	26.6	10.5	31.7	16.6
친인척	3.7	2.0	12.1	2.7	3.4	2.8	-	3.0	3.5	2.4	6.7	2.8
비혈연	4.4	0.5	-	1.7	2.6	1.0	-	1.6	3.5	0.7	-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1.3	0.5	-	0.7	0.6	0.1	3.7	0.4	0.9	0.3	1.7	0.5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4.1	4.2	-	4.1	3.4	4.4	-	4.0	3.7	4.3	-	4.0
예체능 방문	0.2	0.2	-	0.2	1.4	1.3	-	1.3	0.8	0.7	-	0.7
학습	12.0	8.1	6.1	9.3	53.8	51.2	40.7	52.0	34.7	28.5	20.3	30.6
인터넷교육	-	0.1	-	0.1	0.2	0.1	-	0.1	0.1	0.1	-	0.1
(수)	(559)	(1,210)	(33)	(1,802)	(582)	(931)	(28)	(1,541)	(1,141)	(2,141)	(61)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1) 아동 및 부모 특성

전체 영유아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선교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비율은 0세아 14.2%, 1세아 64.0%, 2세아 87.1%, 3세아 95.9%, 4세아 98.8%, 5세아 99.0%이다.

이들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기관 분포는 어린이집이 61.4%, 유치원이 33.1%, 반일제이상 학원이 4.9%, 선교원 등 기타는 0.5%이다(표 V-1-12 참조).

이들 4개 기관 이용 아동 특성을 요약하여 비교한다면 어린이집은 취업모, 저소득, 읍·면지역 아동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유치원은 중소도시, 미취업모, 중위소득 아동이, 반일제이상 학원은 대도시, 휴직 중, 고소득층 아동이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0세 100.0%, 1세 99.0%, 2세 97.8%이고 유아는 3세 58.3%, 4세 44.7%, 5세 30.0%로 총 42.9%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64.3%로 가장 많고, 취업모가 62.7%로 미취업모 59.7%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149만원 이하 계층이 59.1%로 비교적 낮고 그 이후는 60% 이상을 유지하다가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이 되면 50% 이하로 감소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률도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3세 36.3%, 4세 48.4%, 5세 60.1%로 유아의 49.4%가 이용한다. 영아도 소수 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거주아동이 34.3%로 읍·면지역이나 대도시보다 다소 비율이 높다. 미취업모가 34.3%로 취업모 32.7%보다 많고 휴직중이 17.5%이다. 가구소득별로는 149만원 이하 40.9%로 비교적 높고 그 이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600~699만원 34.0%, 700만원이상 27.3%로 고소득층 자녀의 이용률이 낮았다.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적으로 5% 정도인데 연령별로는 유아가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며, 지역규모는 도시에서 높고 특히 휴직 중인 부모들의 아동 이용이 높으며 소득이 600만원 이상부터 17.7%, 26.7%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한다기보다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는 거의 차이가 없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V-1-12〉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계(수)	단위: %(명) X ² (df)
전체	61.4	33.1	4.9	0.5	100.0(2,392)	
영유아구분						
영아	98.5	0.5	0.9	0.1	100.0(879)	712.4(3) ***
유아	42.9	49.4	7.0	0.7	100.0(1,513)	
연령						
0세	100.0	-	-	-	100.0(125)	
1세	99.0	0.3	0.3	0.3	100.0(348)	
2세	97.8	0.7	1.5	-	100.0(406)	-
3세	58.3	36.3	4.7	0.6	100.0(487)	
4세	44.7	48.4	5.7	1.2	100.0(547)	
5세	30.0	60.1	9.6	0.3	100.0(479)	
지역규모						
대도시	61.8	32.2	5.9	0.2	100.0(918)	
중소도시	59.8	34.3	5.5	0.4	100.0(965)	-
읍·면	64.3	32.8	1.6	1.3	100.0(509)	
모취업 여부						
취업	62.7	32.7	4.4	0.2	100.0(930)	
휴직중	73.0	17.5	7.9	1.6	100.0(66)	-
미취업	59.7	34.3	5.3	0.7	100.0(1,378)	
부재 등	77.3	22.7	-	-	100.0(1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9.1	40.9	-	-	100.0(68)	
150~199만원	71.9	27.6	-	0.5	100.0(164)	
200~249만원	63.4	35.5	0.3	0.7	100.0(286)	
250~299만원	72.5	26.4	0.8	0.3	100.0(372)	
300~349만원	61.3	36.1	2.2	0.3	100.0(371)	-
350~399만원	64.2	32.6	3.3	-	100.0(207)	
400~499만원	63.0	32.1	4.4	0.5	100.0(383)	
500~599만원	50.8	42.6	5.8	0.8	100.0(249)	
600~699만원	47.5	34.0	17.7	0.7	100.0(127)	
700만원 이상	44.2	27.3	26.7	1.8	100.0 (163)	

*** $p < .001$

<표 V-1-13>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어린이집 유형별, 모의 취업 및 맞벌이 여부별 특성이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취업모 47.1%로 미취업모 43.3%보다 약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률이 약간 더 높았다.

맞벌이 여부별로도 0세 맞벌이 54.8%, 외벌이 45.2%로 맞벌이가 더 높게 나타났

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보다 외벌이의 이용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취업모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다. 미취업모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외벌이가구 자녀의 민간어린이집 이용이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표 V-1-13〉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특성

단위: %(명)

구분	모취업				맞벌이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41.5	3.1	54.1	1.2	41.9	56.4	1.7	100.0(1,536)
연령								
0세	47.1	9.6	43.3	-	54.8	45.2	-	100.0(125)
1세	39.5	2.0	57.8	0.7	39.3	58.7	2.0	100.0(345)
2세	37.1	5.1	55.1	2.8	41.4	56.6	2.0	100.0(397)
3세	39.8	2.1	57.4	0.7	37.8	59.7	2.5	100.0(298)
4세	48.2	1.8	49.1	0.9	45.9	51.8	2.3	100.0(227)
5세	45.7	0.5	53.3	0.5	41.3	58.7	-	100.0(144)
기관유형								
국공립	51.4	1.2	44.5	2.9	50.4	46.7	2.9	100.0(173)
법인어린이집	45.5	5.1	48.5	1.0	44.4	52.5	3.0	100.0(115)
법인·단체 등	50.0	3.1	46.9	-	45.5	54.5	-	100.0(37)
민간어린이집	37.8	1.7	59.5	1.0	36.9	61.6	1.5	100.0(872)
가정	39.4	7.0	53.3	0.3	44.3	54.4	1.4	100.0(309)
직장	84.2	10.5	5.3	-	94.7	5.3	-	100.0(29)

〈표 V-1-14〉 유치원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특성

단위: %(명)

구분	모취업				맞벌이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40.3	1.4	57.8	0.5	37.9	60.4	1.7	100.0(744)
연령								
3세	37.9	0.6	61.6	-	34.5	64.4	1.1	100.0(161)
4세	39.1	2.5	58.4	-	38.7	59.2	2.1	100.0(279)
5세	42.3	1.0	55.6	1.0	39.0	59.2	1.8	100.0(301)
기관유형								
국공립	45.2	1.1	53.7	-	45.0	52.4	2.6	100.0(168)
사립	38.7	1.4	59.2	0.6	35.6	62.8	1.6	100.0(576)

주: 1, 2세아 3명 제외함.

유치원 이용 아동의 연령별로 모의 취업 및 맞벌이 여부 특성을 보면, 3세는 취업 모 37.9%, 미취업모 61.6%, 4세는 취업모 39.1%, 미취업모 58.4%, 5세는 취업모 42.3%, 미취업모 55.6%로 전반적으로 취업모 자녀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모 자녀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취업모 및 맞벌이 자녀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V-1-14 참조).

2) 이용 이유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28.8%, 전인적 발달 28.3%로 57.1%가 아동 발달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대리보호는 12.6%이다. 이외 초등학교 준비 12.1%,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9.7%, 같이 놀 또래 필요성 3.7%, 예·체능교육 2.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이유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어린이집이 18.0%이고 유치원은 4.4%이며 학원이 0.8%의 순으로 어린이집이 대리보호 기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에 유치원은 전인적 발달이 37.4%로 높고 초등학교 준비도 27.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초등학교 준비라는 응답이 8.3%이지만, 예체능 특기교육의 비율이 41.3%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아서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등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예·체능 특기교육임을 알 수 있다(표 V-1-15 참조).

〈표 V-1-15〉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2.3	37.4	38.8	61.5	28.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4.5	27.1	8.3	-	12.1
특기교육을 위하여	0.5	0.9	41.3	-	2.6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18.0	4.4	0.8	-	12.6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2.5	25.2	9.1	15.4	28.8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5.2	1.2	0.8	7.7	3.7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4.3	2.6	0.8	7.7	9.7
보육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2.5	0.9	-	-	1.8
기타	0.4	0.4	-	7.7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만일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관 이용에 어떤 변화를 둘 것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전체의 14.3%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82.5%는 그대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16.2%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80.4%는 그대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유치원 이용 부모는 97.2%가 그대로 다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어린이집의 대리보호,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보면,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경우 21.8%가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75.3%는 그대로 동일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유아는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는 의견이 4.5%이고 91.7%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학원에 비해 돌볼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 동일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V-1-16 참조).

〈표 V-1-16〉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 변경 의향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아무데도 안 보냄	16.2	-	14.3	21.8	21.7	6.2	-	4.5
다른 기관으로 옮김	3.3	2.8	3.2	2.9	2.9	4.1	2.8	3.8
현재 이용 기관에 계속 보냄	80.4	97.2	82.5	75.3	75.4	89.7	97.2	9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7)	(37)	(326)	(195)	(196)	(92)	(37)	(130)

집에서 돌볼 사람이 있다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 옮길 생각인지를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 11명 중 어린이집 이용자는 55.6%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며 44.4%는 유치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였다. 유치원 이용자 1인은 다른 반일제 학원을 선택하였다.

3) 최초 이용 시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아이가 몇 개월 때 처음 보냈는지 조사한 결과, <표 V-1-17>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37.3개월에 현 기관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

났고, 기관별로 어린이집은 28.3개월, 유치원은 51.9개월, 반일제이상학원은 50.5개월이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가장 어린 시기부터 이용하는 기관으로, 영아 20.9개월, 유아 36.8개월에 이용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현재 연령구분에 따라 보면 영아 21.1개월, 유아 45.4개월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반일제이상 학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36.1개월, 미취업모는 38.7개월에 현 기관을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을 보면 취업모는 26.7개월, 미취업모는 30.0개월에 현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유치원의 경우는 취업모 자녀가 52.0개월, 미취업모 자녀가 52.1개월에 다닌 것으로 조사되어, 어린이집은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기가 빠르고 유치원은 이용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본 결과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시작 시기 조사이므로 모든 기관의 최초 이용시기와는 같지 않다.

〈표 V-1-17〉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3	13.9 (1,536)	51.9	10.5 (744)	50.5	12.3 (92)	42.0	13.9 (20)	37.3	17.1 (2,392)
영유아구분										
영아	20.9	9.1 (867)	33.6	10.0 (3)	31.1	3.9 (8)	26.0	- (1)	21.1	9.2 (879)
유아	36.8	13.6 (669)	52.0	10.5 (741)	51.7	11.7 (84)	43.6	13.6 (19)	45.4	14.1 (1,513)
t		-26.2***		-3.4**		-11.1***		-1.3		-51.3***
지역규모										
대도시	28.6	14.0 (591)	51.3	10.5 (282)	47.5	12.5 (43)	54.7	5.9 (2)	37.0	16.8 (918)
중소도시	27.6	13.5 (605)	52.3	10.5 (311)	54.0	11.6 (39)	44.6	9.1 (10)	37.6	17.4 (965)
읍·면	29.1	14.4 (340)	52.7	10.8 (151)	49.0	11.7 (10)	35.4	16.0 (8)	37.3	17.3 (509)
F		1.4		1.3		4.1*		1.9		0.3
모취업여부										
취업	26.7	14.3 (613)	52.0	10.3 (280)	52.2	13.8 (33)	51.5	20.8 (4)	36.1	17.9 (930)
휴직중	22.3	15.3 (48)	50.4	8.3 (13)	50.9	20.1 (4)	43.0	- (1)	29.7	19.0 (66)
미취업	30.0	13.3 (862)	52.1	10.6 (446)	49.5	11.0 (55)	40.4	13.8 (15)	38.7	16.3 (1,378)
부재 등	21.2	11.1 (13)	38.6	18.9 (5)	-	-	-	-	25.0	14.5 (18)
F		11.1***		2.6*		0.6		0.4		12.5***

* $p < .05$, ** $p < .01$, *** $p < .001$

4) 현 이용기관 이용 기간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이용기간은 평균 13.9개월이었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이

14.8개월, 유치원이 12.2개월, 학원이 13.0개월로 어린이집 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용기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취업모인 경우는 17.1개월, 미취업모는 13.2개월로 이용 지속기간이 조사되어 취업모의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기간이 긴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1-18 참조).

〈표 V-1-18〉 현재 이용기관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4.8	13.0	(1,536)	12.2	9.5	(744)	13.0	10.4	(92)	15.1	14.3	(20)	13.9	11.9	(2,392)
영유아구분															
영아	8.3	7.1	(867)	4.0	-	(3)	3.5	1.4	(8)	4.0	-	(1)	8.3	7.2	(879)
유아	22.4	13.6	(669)	12.3	9.5	(741)	13.6	10.4	(84)	16.2	14.5	(19)	16.7	12.7	(1,513)
t		620.6***			-24.7***			-9.1***			-0.8			-21.0***	
지역규모															
대도시	16.0	13.8	(591)	12.5	9.7	(282)	15.2	11.4	(43)	16.0	4.8	(2)	14.8	12.6	(918)
중소도시	14.2	12.6	(605)	12.4	9.8	(311)	10.3	8.5	(39)	8.2	10.9	(10)	13.3	11.5	(965)
읍·면	13.8	11.5	(340)	11.2	8.2	(151)	15.8	10.3	(10)	19.8	17.9	(8)	13.1	10.7	(509)
F		4.1*			1.0			3.7*			0.8			5.5**	
모취업여부															
취업	17.1	13.6	(613)	12.8	9.8	(280)	11.4	8.8	(33)	10.0	18.7	(4)	15.4	12.5	(930)
휴직중	11.0	9.8	(48)	13.3	12.8	(13)	9.5	13.5	(4)	4.0	-	(1)	11.2	10.5	(66)
미취업	13.2	12.2	(862)	11.6	8.8	(446)	14.2	11.0	(55)	16.5	14.6	(15)	12.8	11.1	(1,378)
부채 등	19.7	17.2	(13)	33.6	18.0	(5)	-	-	-	-	-	-	22.7	17.9	(18)
F		13.0***			9.3***			1.4			0.3			15.1***	

* $p < .05$, ** $p < .01$, *** $p < .001$

5)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 현재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장, 교사, 운영시간, 비용, 프로그램, 건강·영양, 기관 학급 규모, 내부 분위기, 안전한 보호, 집과의 거리, 기관설비, 국공립여부, 주변의 평판, 주변입지, 평가인증 통과 여부, 차량 운행 여부, 특별프로그램, 형제가 다님, 기타 등 19개 항목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는 집과의 거리 25.1%, 프로그램 20.8%, 주변의 평판 10.7%, 원장 8.4%, 교사 7.8% 순이다. 2순위를 보면 여기에 내부 분위기와 안전한 보호가 추가되

는 경향이다.

〈표 V-1-19〉 기관별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선교원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원장	9.9	6.7	6.5	2.9	2.7	1.4	18.3	7.5	8.4	5.2
교사	7.9	8.6	8.4	6.0	2.5	7.6	20.4	1.4	7.8	7.6
운영시간	3.1	4.4	1.6	1.9	0.5	1.1	-	-	2.4	3.4
비용	2.9	2.4	5.8	3.0	1.8	0.9	-	-	3.9	2.5
프로그램	14.1	11.0	26.9	22.3	62.6	14.3	31.6	35.9	20.8	15.1
건강·영양	3.0	7.7	2.0	6.7	0.4	4.0	16.5	-	2.6	7.2
기관 학급 규모	0.9	1.1	0.6	0.6	3.3	3.7	-	-	0.9	1.1
내부 분위기	3.0	7.9	1.5	8.3	2.4	7.5	-	18.9	2.4	8.0
안전한 보호	3.4	9.5	1.8	5.0	8.9	4.6	-	4.2	3.1	7.8
집과의 거리	29.6	13.6	20.4	13.6	4.3	7.9	-	11.4	25.1	13.3
기관설비	1.2	1.6	1.7	4.0	1.2	0.4	-	-	1.4	2.3
국공립 여부	4.3	2.0	2.9	2.7	-	-	-	-	3.6	2.1
주변의 평판	10.4	15.1	12.2	14.3	5.6	32.8	3.2	18.2	10.7	15.7
주변입지	0.6	1.5	1.2	2.7	-	0.9	-	-	0.8	1.8
평가인증 통과 여부	0.8	1.3	-	0.3	-	-	-	-	0.5	0.9
차량 운행 여부	1.3	1.9	2.2	1.1	-	1.0	-	-	1.6	1.6
특별프로그램	0.3	1.1	1.5	0.9	2.8	9.7	10.0	2.4	0.9	1.5
형제가 다님	2.6	1.9	2.1	2.9	0.9	2.5	-	-	2.3	2.2
기타	0.8	0.7	0.6	0.8	-	-	-	-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1,536)	(744)	(744)	(92)	(92)	(20)	(20)	(3,343)	(3,343)

기관유형별로는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은 거리, 프로그램과 주변의 평판 등 3가지 요인이 주된 선택 이유인 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부모는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내용, 주변의 평판, 원장, 교사의 순이고, 유치원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을 가장 우선시 한다.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 역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데 그 비율이 62.6%로 두드러지게 높다. 즉, 어린이집은 근거리 여부, 유치원은 프로그램과 거리, 반일제이상 학원은 어떤 프로그램인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19 참조).

이와 같은 기관 선택 이유는 이용하는 목적이나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보육·교육기관 이용 대기

보육·교육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에 대해서는 22.6%가 대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9.8%, 1세 30.6%, 2세 30.4%, 3세 33.5%, 4세 22.4%, 5세 17.3%로 1~3세 아동이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영아보다 유아가 더 비율이 높았고, 지역규모는 대도시가 26.3%로 읍면지역과 16.8%p의 차이를 보였고, 모취업 여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1-20 참조).

〈표 V-1-20〉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대기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대기경험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다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개월미만	10~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전체	22.6	(3,343)	20.8	15.3	11.2	7.0	22.2	14.9	8.7	100.0(713)	6.4
영유아구분											
영아	21.5	(1,802)	23.5	18.2	13.3	10.5	17.1	11.0	6.4	100.0(357)	5.0
유아	23.8	(1,541)	18.2	12.4	9.3	4.0	26.8	18.4	10.8	100.0(356)	7.6
X ² (df)/t	-						44.7(7) ^{***}				4.0*
연령											
0세	9.8	(802)	26.0	26.0	12.3	4.1	16.4	9.6	5.5	100.0(75)	4.2
1세	30.6	(538)	17.2	15.9	15.2	16.6	18.6	13.1	3.5	100.0(151)	5.1
2세	30.4	(462)	29.1	17.0	11.3	7.1	16.3	9.2	9.9	100.0(131)	5.4
3세	33.5	(503)	21.2	10.0	8.2	4.7	28.2	18.2	9.4	100.0(145)	7.3
4세	22.4	(556)	19.8	9.9	10.8	2.7	25.2	16.2	15.3	100.0(120)	8.2
5세 이상	17.3	(482)	12.4	18.6	9.7	4.4	25.7	21.2	8.0	100.0(91)	7.3
X ² (df)/F	146.7(5) ^{***}						92.3(35) ^{***}				6.1 ^{***}
지역규모											
대도시	26.3	(1,348)	20.9	13.6	11.7	7.6	19.3	16.7	10.1	100.0(337)	6.8
중소도시	21.1	(1,325)	19.0	17.6	10.0	6.5	24.0	13.6	9.3	100.0(270)	6.3
읍·면	16.8	(670)	23.7	14.4	13.4	7.2	27.8	11.3	2.0	100.0(106)	4.6
X ² (df)/F	24.5(2) ^{***}						20.2(14)				4.0*
모취업여부											
취업	21.9	(1,056)	17.4	15.3	14.5	4.1	20.7	19.4	8.6	100.0(236)	6.9
휴직중	24.8	(152)	27.8	8.3	2.8	-	25.0	25.0	11.1	100.0(40)	6.8
미취업	22.8	(2,115)	20.9	15.6	10.5	9.2	23.1	12.2	8.6	100.0(434)	6.2
모부재	32.0	(20)	85.7	14.3	-	-	-	-	-	100.0(3)	1.2
X ² (df)/F	2.0(3)						-				2.1 [#]

$p < .1$, * $p < .05$, *** $p < .001$

보육·교육기관 대기기간은 평균 6.4개월이다. 기간 분포를 보면 5~10개월 미만이

22.2%로 가장 높고, 다음이 1개월이 20.8%, 2개월이 15.3%, 10~15개월 미만이 14.9% 순이다.

연령별로는 0세는 1~2개월이 가장 많고, 1~5세는 5~10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구간으로 나타났고, 평균 개월수는 0세는 4.2개월, 1세 5.1개월, 2세 5.4개월, 3세 7.3개월, 4세 8.2개월, 5세 7.3개월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영아보다 대기기간이 길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개월이 20.9%로 가장 높으나 모든 구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고, 중소도시와 읍·면에서 5~10개월 미만이 각각 24.0%, 27.8%로 높았다. 평균 개월 수는 대도시가 6.8개월, 중소도시 6.3개월로 읍·면 4.6개월에 비하여 평균 대기기간이 길었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모든 기간 구분 분포가 비슷한데 평균으로는 취업모 6.9개월로 미취업모 6.2개월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V-1-20 참조).

〈표 V-1-21〉 입소 대기신청 기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병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43.7	3.2	23.1	12.7	1.8	3.0	0.5	11.9	0.1	100.0(697)
영유아구분										
영아	38.6	3.9	32.1	23.4	1.4	-	-	0.6	-	100.0(352)
유아	48.6	2.6	14.9	2.3	2.1	5.7	1.0	22.5	0.3	100.0(345)
연령										
0세	36.6	1.4	19.7	39.4	1.4	-	-	1.4	-	100.0(73)
1세	37.4	3.4	27.9	29.9	1.4	-	-	-	-	100.0(150)
2세	41.0	5.8	42.4	8.6	1.4	-	-	0.7	-	100.0(129)
3세	50.3	2.4	21.3	2.4	3.6	4.7	0.6	14.2	0.6	100.0(141)
4세	47.6	1.9	9.5	1.9	1.0	6.7	1.9	29.5	-	100.0(116)
5세	46.4	3.6	10.0	3.6	0.9	6.4	0.9	28.2	-	100.0(88)
지역규모										
대도시	48.3	2.9	24.5	10.9	0.3	2.7	-	10.4	-	100.0(333)
중소도시	37.4	2.6	23.0	14.3	3.4	3.0	-	15.8	0.4	100.0(260)
읍·면	46.2	5.4	18.3	14.0	3.2	3.2	4.3	5.4	-	100.0(104)

<표 V-1-21>은 입소 대기신청 기관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적으로 입소 대기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3.7%, 민간어린이집이 23.1%, 가정어린이집 12.7%, 사립유치원 11.9%의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유사하고, 1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으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도 28~30% 수준이고, 2세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유사하다. 3세~5세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민간어린이집 수요는 감소하고 사립유치원의 대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도시와 읍·면이 높고 민간어린이집은 읍·면보다 도시가 높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도시가 10.4%, 중소도시 15.8%인 반면에 읍·면은 5.4%로 도시지역이 대기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입소대기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기기간을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이 9.70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은 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이 6.41개월, 5.43개월로 길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병설유치원이 약 4개월로 어린이집보다 짧았다.

영아와 유아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이 평균 7.71개월, 11.17개월로 다른 기관보다 대기기간이 길었다.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0세는 직장어린이집이 평균 12개월로 가장 길지만 1세 이후 연령은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기간이 길었다. 3세는 법인어린이집이 12.22개월로 나머지 연령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길다.

〈표 V-1-22〉 입소 대기신청 기관별 대기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 집	법인 어린이 집	민간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국공립 (병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F	(수)
전체	9.70	6.41	3.40	3.42	5.43	4.06	2.44	4.10	6.00	21.8 ^{***}	(697)
영유아구분											
영아	7.71	5.58	3.16	3.31	4.74	-	-	2.90	-	13.9 ^{***}	(352)
유아	11.17	7.64	3.88	4.37	5.89	4.06	2.44	4.13	6.00	12.1 ^{***}	(345)
연령											
0세	6.81	3.03	3.73	2.17	12.00	-	-	4.00	-	4.8 ^{**}	(73)
1세	7.70	6.49	3.09	3.48	4.87	-	-	-	-	9.7 ^{***}	(150)
2세	8.12	5.31	3.07	5.50	3.07	-	-	1.00	-	4.2 ^{**}	(129)
3세	10.63	12.22	2.59	5.79	5.46	3.05	1.00	3.75	6.00	6.1 ^{***}	(141)
4세	12.60	4.84	3.05	4.60	7.45	6.89	3.84	4.49	-	4.2 ^{***}	(116)
5세	10.68	4.44	8.75	3.00	6.02	2.50	1.00	4.06	-	4.5 ^{***}	(88)
지역규모											
대도시	9.69	9.47	3.49	4.09	5.03	5.10	-	4.41	-	11.5 ^{***}	(333)
중소도시	11.23	3.43	3.35	2.64	5.42	3.17	-	3.81	6.00	18.0 ^{***}	(260)
읍·면	6.16	3.92	3.09	3.60	3.65	3.18	2.44	4.11	-	1.7	(104)

$p < .1$, * $p < .05$, *** $p < .001$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가. 연령대별 기관 이용 경험과 모 취업상태

5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이후부터 현재 연령까지 각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이용한 기관과 개인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세 미만까지의 이용 1순위 기관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 7.8%, 6~12개월 미만 21.7%, 1세~2세 미만 56.4%, 2세~3세 미만 81.8%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세~4세 미만이 되면 74.5%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하고 5세는 34.4%가 된다(표 V-2-1 참조).

〈표 V-2-1〉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1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특기학원	지역아동 센터 등	문화센터 등	선교원	계(수)
6개월 미만	7.8	-	-	-	-	0.9	-	100.0(1,165)
6~12개월 미만	21.7	-	-	-	0.1	7.7	0.1	100.0(1,222)
1세~2세 미만	56.4	0.3	0.2	0.2	0.2	10.3	0.1	100.0(1,737)
2세~3세 미만	81.8	1.0	1.8	0.5	-	4.7	-	100.0(1,814)
3세~4세 미만	74.5	16.8	4.6	0.6	0.1	1.2	-	100.0(1,654)
4세~5세 미만	55.9	37.0	6.4	-	-	0.2	-	100.0(1,265)
5세이상 취학전	34.4	57.0	8.4	0.1	-	0.2	-	100.0(735)

반면에 유치원은 연령과 이용이 더불어 증가한다. 이용률이 낮은 하지만 6개월 미만부터 문화센터 등의 기타 사설기관도 이용하고 1, 2세에 가장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세~2세 미만부터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기타 특기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3세 이상부터 유치원 이용도 증가하며 5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이용 1순위 기관이 된다.

자녀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경험을 모의 취업상태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전일제 및 시간제 취업이 연령과 더불어 증가함을 잘 나타낸다. 6개월 미만은 휴직 및 출산휴가중이 10.7%로 나타났고, 6개월~12개월 미만부터 전일제 취업이 17.3%, 1세~2세 미만 24.0%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5세 이상 취학 전은 33.9%가 전일제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2-2 참조).

〈표 V-2-2〉 자녀 연령대별 모의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전일제 취업중	시간제 취업중	학업 및 취업훈련중	전업주부	휴직 및 출산휴가중	계(수)
6개월미만	11.7	1.8	0.1	75.6	10.7	100.0(3,325)
6~12개월미만	17.3	2.4	0.2	75.8	4.4	100.0(3,044)
1세~2세미만	24.0	3.9	0.2	70.3	1.7	100.0(2,804)
2세~3세미만	27.3	4.6	0.2	66.3	1.5	100.0(2,227)
3세~4세미만	30.3	5.8	0.2	62.4	1.3	100.0(1,755)
4세~5세미만	34.0	7.6	-	57.7	0.7	100.0(1,289)
5세이상 취학전	33.9	8.3	-	56.8	1.1	100.0(740)

이용기관에 이어 개인서비스 이용을 살펴보았다. 혈연인은 6개월 미만은 외조부모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2개월 미만은 외조부모가 32.0%, 친조부모가 31.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세~3세 미만은 외조부모가 15.8%, 친조부모가 13.1%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5세 이상 취학전 연령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혈연인은 1세 이전에 친인척, 육아전문인력, 기타 비혈연인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7~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V-2-3 참조).

〈표 V-2-3〉 아동 시기별 처음 이용한 개인서비스

단위: %(명)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친인척	육아전문 인력	기타비혈연	계(수)
6개월미만	38.1	44.4	3.9	1.9	3.0	100.0(1,165)
6~12개월미만	31.4	32.0	3.0	0.9	3.0	100.0(1,222)
1세~2세미만	13.1	15.8	1.3	0.5	1.5	100.0(1,737)
2세~3세미만	3.7	5.0	0.7	0.2	0.5	100.0(1,814)
3세~4세미만	1.1	0.7	0.3	0.1	-	100.0(1,654)
4세~5세미만	0.5	-	-	-	-	100.0(1,265)
5세이상 취학전	-	-	-	-	-	100.0(735)

나.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1) 최초 이용 기관 시기 유형

반일제이상 기관을 맨 처음 이용한 시기는 평균 26.7개월이다. 분포로는 생후 12

개월 미만 6.3%, 12~23개월 18.3%, 24~35개월 21.7%, 36~47개월 24.9% 48~59개월 17.0%, 60개월 이상 11.8%이다(표 V-2-4 참조).

기관 이용은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24개월 이전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비율은 영아 60.6%, 유아 6.7%이다. 이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년도가 최근일수록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모 취업 여부별로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빨리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6.3	18.3	21.7	24.9	17.0	11.8	100.0(2,392)	26.7	12.4	
영유아구분										
영아	16.4	44.2	32.1	7.2	-	-	100.0(879)	19.4	9.0	-25.7***
유아	1.3	5.4	16.5	33.6	25.5	17.7	100.0(1,513)	30.5	12.2	
연령										
0세	67.3	32.7	-	-	-	-	100.0(125)	8.4	4.3	
1세	9.7	71.4	18.8	-	-	-	100.0(348)	17.9	5.7	
2세	8.4	26.2	50.7	14.6	-	-	100.0(406)	23.7	9.1	188.0***
3세	1.9	11.1	23.9	51.2	11.9	-	100.0(487)	26.9	10.5	
4세	2.4	4.9	18.5	29.3	35.6	9.3	100.0(547)	29.8	12.2	
5세 이상	-	1.5	9.3	23.9	28.2	37.1	100.0(479)	33.7	12.7	
지역규모										
대도시	6.6	16.8	23.9	25.7	17.3	9.6	100.0(918)	26.9	11.9	
중소도시	6.8	18.7	18.8	24.2	18.4	12.9	100.0(965)	26.4	12.9	0.5
읍·면	4.7	20.6	22.8	24.4	13.3	14.2	100.0(509)	27.0	12.4	
모취업 여부										
취업	7.6	21.1	21.0	21.7	17.4	11.0	100.0(930)	24.5	12.5	
휴직중	26.2	19.7	11.5	23.0	14.8	4.9	100.0(66)	20.9	12.5	27.7***
미취업	4.2	16.1	22.5	27.5	17.1	12.7	100.0(1,378)	28.6	12.0	
부재 등	27.3	22.7	31.8	9.1	9.1	-	100.0(18)	23.3	10.6	
2009년 조사	8.0	23.0	33.0	26.7	8.1	1.2	100.0(2,112)	30.0	13.0	-
2004년 조사	1.8	8.3	19.8	35.2	25.3	9.6	100.0(5,171)	41.4	13.7	-

*** $p < .001$

2004년, 2009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2004년도 조사에서는 최초 기관 이용 평균 월령이 41.4개월로 나타났고, 2009년 조사에서는 30.0개월로 나타났다. 이를 참

고할 때, 본 조사에서는 최초 기관 이용 평균 월령이 26.7개월로 나타나 영유아들의 최초 기관 이용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영유아가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 88.1%, 유치원 8.5%, 반일제이상 학원 3.0%, 기타 0.5% 순이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비율이 높다.

2009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은 83.4%이고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은 각각 12.8%, 3.6%이다. 이에 비하여 2012년 조사에서는 최초 이용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비율은 증가하고 유치원과 반일제이상학원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보편성의 확대를 반영한다(표 V-2-5 참조).

〈표 V-2-5〉 최초 이용기관

구분	단위: %(명)				계(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88.1	8.5	3.0	0.5	100.0(2,441)
영유아구분					
영아	99.2	0.1	0.7	-	100.0(914)
유아	82.3	12.9	4.1	0.7	100.0(1527)
X ² (df)			153.3(3) ^{***}		
연령					
0세	100.0	-	-	-	100.0(139)
1세	99.4	0.3	0.3	-	100.0(362)
2세	98.8	-	1.2	-	100.0(413)
3세	88.0	7.6	3.8	0.6	100.0(494)
4세	83.3	13.5	2.4	0.8	100.0(553)
5세	77.3	16.3	5.6	0.8	100.0(480)
X ² (df)			-		
2009년 조사	83.4	12.8	3.6	1.6	100.0(2,112)

*** $p < .001$

2) 최초 기관 이용 이유

자녀가 보육·교육 및 반일제이상 기관을 처음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6.9%,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16.9%로 43.8%가 아동발달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은 24.6%이었다.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용했다는 응답도 17.6%를 차지했다(표 V-2-6 참조).

최초 이용기관별로 기관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우보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

았다. 유치원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우보다 사회적 발달과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이용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반일제 이상의 다른 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 놀이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용했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 전액 지원을 이유로 든 비율도 2.9%나 되었다.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보기인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양육 부담 경감이 각각 2.9%, 17.6%로 높기 때문에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인적 발달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사회적 발달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2-6〉 최초 이용기관별 기관 최초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상대 없음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기타	계(수)
전체	16.9	1.4	0.7	24.6	26.9	8.8	2.9	17.6	-	100.0(2,441)
어린이집	14.1	0.5	0.2	27.3	25.9	9.2	3.2	19.5	-	100.0(2,185)
유치원	37.1	10.8	1.9	5.2	36.2	4.2	0.9	3.8	-	100.0(179)
반일제이상	36.5	1.4	12.2	2.7	33.8	10.8	1.4	1.4	-	100.0(59)
기타	58.3	-	-	8.3	16.7	8.3	-	8.3	-	100.0(18)
2009년 조사	20.4	1.3	0.5	35.4	24.3	9.1	-	-	0.2	100.0(2,112)

<표 V-2-7>은 기관 최초 이용 이유의 특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아동 연령별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0세아의 경우 10% 정도가 보육료 전액 지원이 이용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고 31.1%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용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보낸다는 비율은 38.7%이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 보다는 사회적 발달이나 전인적 발달과 같은 아동 중심의 이유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영아는 5.5%가 전액 지원, 23.1%가 양육부담 경감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는 사회적 발달,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전인적 발달 및 놀이상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보육료 전액 지원이 이유가 된 비율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높다.

모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취업모이거나 모가 부재한 경우 미취업모보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기관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고, 미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발달 33.8%,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 11.2%로 취업모에 비하여 자녀의 사회적 발달이나 또래 관계가 중요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V-2-7〉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봄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기타	계(수)
전체	16.9	1.4	0.7	24.6	26.9	8.8	2.9	17.6	-	100.0(2,441)
영유아구분										
영아	13.7	-	-	28.9	20.2	8.5	5.5	23.1	-	100.0(914)
유아	18.6	2.2	1.0	22.5	30.4	9.0	1.6	14.8	0.1	100.0(1,527)
X ² (df)				118.8(8) ^{***}						
연령										
0세	6.7	-	-	38.7	8.4	5.0	10.1	31.1	-	100.0(139)
1세	14.0	-	-	29.3	19.0	9.3	5.9	22.4	-	100.0(362)
2세	15.8	-	-	25.7	24.5	8.7	3.9	21.4	-	100.0(413)
3세	14.2	0.2	1.8	25.8	29.8	9.8	0.8	17.6	-	100.0(494)
4세	18.3	2.8	0.4	23.1	28.2	10.5	3.6	13.1	-	100.0(553)
5세	22.0	3.2	0.8	19.5	32.7	7.2	0.6	13.9	0.2	100.0(480)
X ² (df)				-						
지역규모										
대도시	15.7	0.6	1.0	24.5	27.4	9.1	2.9	18.7	-	100.0(842)
중소도시	16.3	2.0	0.4	25.4	27.9	7.6	3.5	16.8	0.1	100.0(983)
읍·면	21.1	2.0	0.4	23.3	24.0	10.8	1.8	16.5	-	100.0(516)
X ² (df)				29.8(16) [*]						
모취업 여부										
취업	14.2	1.1	0.3	39.7	18.6	5.9	2.1	18.2	-	100.0(938)
휴직중	14.5	-	3.2	38.7	19.4	3.2	1.6	19.4	-	100.0(67)
미취업	19.2	1.7	0.8	12.9	33.8	11.2	3.6	16.8	0.1	100.0(1,416)
부재 등	8.0	-	-	48.0	-	8.0	-	36.0	-	100.0(20)
X ² (df)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0.0	-	-	35.7	20.0	8.6	8.6	17.1	-	100.0(70)
150~199만원	9.5	2.1	-	15.9	38.6	13.8	3.2	16.9	-	100.0(170)
200~249만원	15.9	1.4	-	15.9	29.3	9.0	6.9	21.7	-	100.0(290)
250~299만원	18.0	2.4	0.3	22.8	23.7	11.0	3.2	18.3	0.3	100.0(377)
300~349만원	16.2	1.4	0.5	22.8	28.8	11.0	2.7	16.5	-	100.0(380)
350~399만원	14.2	-	0.5	23.3	35.2	6.4	3.2	17.4	-	100.0(211)
400~499만원	16.3	1.4	0.2	29.6	22.8	8.7	1.4	19.5	-	100.0(390)
500~599만원	17.7	2.6	2.2	27.7	25.5	6.6	1.1	16.6	-	100.0(256)
600~699만원	31.9	-	0.7	27.8	22.2	3.5	1.4	12.5	-	100.0(129)
700만원 이상	20.8	-	3.0	35.1	22.0	4.2	0.6	14.3	-	100.0(166)
X ² (df)				-						

* $p < .05$, *** $p < .001$

가구소득별로는 일관성 있는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이 149만원 이하와 700만원 이상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모두 35%대로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또한 이들 두 집단이 사회성 발달을 이유로 든 비율은 각각 20%, 22%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형태나 취업 내용은 다르겠으나 이들 집단의 모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 <표 V-2-8>은 기관 최초 이용 이유별 아동 월령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이의 발달이나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았다.

<표 V-2-8> 최초 이용 이유별 최초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12~23	24~35	36~47	48~59	60개월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미만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이상				
전체	6.3	18.3	21.7	24.8	17.0	11.8	100.0(2,392)	26.7	12.4	
전인적 발달	2.9	14.7	20.9	27.6	16.6	17.3	100.0(384)	32.5	11.7	
초등학교 준비	-	-	5.6	50.0	16.7	27.8	100.0(28)	47.3	14.8	
특기 교육	-	-	5.9	64.7	5.9	23.5	100.0(13)	40.3	8.2	
부모가 돌봄 어려움	13.1	23.6	19.0	18.3	17.0	9.0	100.0(613)	18.8	10.6	
사회성 발달	0.8	12.9	22.9	27.2	23.7	12.6	100.0(624)	32.0	10.4	
놀이상대 없음	1.4	15.6	26.5	30.3	13.7	12.3	100.0(214)	28.4	10.5	
전액 지원	27.4	34.2	20.5	6.8	6.8	4.1	100.0(76)	18.5	11.0	
양육 부담 경감	8.2	23.5	24.5	24.2	11.2	8.4	100.0(439)	22.5	9.6	
기타	-	-	-	100.0	-	-	100.0(1)	5.0	0.0	
$X^2(df)/F$									114.4***	

*** $p < .001$

최초 이용 월령 평균으로 보면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19개월,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놀이상대 30개월, 초등학교 준비, 특기활동 40~47개월이다. 즉 20~30개월에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대리 보호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30개월 이상부터는 아동의 발달이나 초등학교 준비 등을 위하여 유치원이나 학원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만일제이상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가. 가구단위 총 비용

<표 V-3-1>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구당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아동수,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261,3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6.6%이다. 2009년 조사 결과인 335,000원 14.1%, 2004년 조사인 266,800원 10.8%와 비교하여 부모 부담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비용 지불 가구의 총 비용은 가구당 323,000원이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8.2%이다.

전체 가구를 아동수별로 보면 1명, 2명, 3명 이상 가구는 각각 227,600원, 334,100원, 522,100원이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5.5%, 9.1%, 14.4%이다. 비용 지불 가구만 보면 1명 301,500원, 2명 353,400원, 3명 536,6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7.3%, 9.7%, 14.9%이다.

지역별로는 전체는 대도시 288,200원, 중소도시 254,900원, 읍·면 211,600원으로 조사되었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대도시 6.8%, 중소도시 7.0%, 읍·면이 5.2%이다. 비용 지불 가구는 각각 355,900원, 320,000원, 255,400원이고 비율은 각각 8.5%, 8.8%, 6.3%로 도시가 다소 높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전체는 취업모 가구 390,400원, 미취업모 192,900원, 휴직 중이 193,300원으로 조사되었고 가구소득 대비 각각 8.2%, 5.7%, 5.2%이다. 비용 미지불 가구를 제외하면 평균은 각각 416,500원, 255,800원, 353,700원이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취업모 8.8%, 미취업모 7.6%, 휴직중이 9.5%이다. 실제 지불 정도는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보다 높고 가계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직 중인 경우는 비용 액수는 취업모 가구보다 낮으나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크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가구당 지출하는 아동 보육·교육 비용은 거의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균이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는 99,900원이고 150~199만원은 105,500원, 200~249만원은 131,700원, 250~299만원은 127,400원, 300~349만원은 181,100원, 350~399만원은 259,700원, 400~499만원은 290,600원, 500~599만원은 403,900원, 600~699만원은 529,800원,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13,000원을 보육·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1〉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가구					비용 지불 가구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수)	소득 대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수)	소득 대비 비율
전체	261.3	338.7	2,562	(2,528)	6.6	323.0	349.1	2,562	(2,047)	8.1
아동수										
1명	227.6	311.3	2,500	(1,755)	5.5	301.5	325.8	2,500	(1319)	7.2
2명	334.1	367.9	2,562	(732)	9.1	353.4	369.2	2,562	(690)	9.7
3명 이상	522.1	589.3	2,025	(41)	14.4	536.6	590.9	2,025	(39)	14.8
F	38.3***				93.1***	12.9***				43.3***
지역규모										
대도시	288.2	375.2	2,562	(1,023)	6.8	354.2	386.8	2,562	(832)	8.4
중소도시	254.9	326.9	2,519	(1,017)	7.0	320.0	336.6	2,519	(826)	8.8
읍·면	211.6	260.2	1,970	(487)	5.2	255.4	265.6	1,970	(390)	6.3
F	8.6**				9.9**	10.6**				15.4
모취업 여부										
취업	390.4	383.2	2,500	(837)	8.2	416.5	381.8	2,500	(782)	8.8
휴직중	193.3	346.8	2,519	(112)	5.2	353.7	405.2	2,519	(60)	9.5
미취업	192.9	286.9	2,562	(1,562)	5.7	255.8	305.1	2,562	(1,192)	7.6
부재	219.0	262.6	928	(16)	11.6	258.5	267.1	928	(14)	13.7
F	69.8***				26.6***	35.9***				8.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99.9	123.4	692	(75)	10.7	127.4	126.2	692	(58)	13.7
150~199만원	105.5	134.3	1,080	(184)	6.1	150.2	137.8	1,080	(125)	8.6
200~249만원	131.7	157.3	928	(304)	6.2	186.8	157.5	928	(225)	8.8
250~299만원	127.4	138.5	930	(387)	4.8	176.0	134.0	930	(295)	6.6
300~349만원	181.1	178.0	956	(405)	5.7	220.8	172.8	956	(324)	7.0
350~399만원	259.7	253.1	1,428	(207)	7.2	309.7	246.8	1,428	(174)	8.6
400~499만원	290.6	282.8	1,783	(402)	6.8	331.3	278.7	1,783	(344)	7.8
500~599만원	403.9	426.9	2,145	(263)	7.6	454.0	426.7	2,145	(229)	8.6
600~699만원	529.8	460.5	1,974	(125)	8.4	561.5	454.9	1,974	(115)	8.9
700만원 이상	713.0	607.1	2,562	(173)	7.7	814.2	581.6	2,562	(158)	8.8
F	93.0***					84.7***				7.1
2009년 조사	335.0	366.4	3,206.0	(2,547)	14.1					
2004년 조사	266.8	256.0	5,225.0	(3,655)	10.8					

*** $p < .001$

이같은 결과는 비용지불 아동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는 127,400원, 150~199만원 150,200원, 200~249만원 186,800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600~699만원 561,500원, 700만원 이상은 814,2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러한 비용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낮아진다.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전체 가구의 가구소득에서 보육·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산출되었고 이후는 8.6%부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츰 감소하는 경향이다.

나. 아동 1인당 비용

보육·교육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 1인당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상 아동 중 조사된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비율을 알아보았다. 영유아는 76.2%가 비용을 지불하고 23.8%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은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0세아 중에서는 24.0%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5세가 되면 95.0%가 비용을 지불한다.

2009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0세는 20.9%로 2012년도 24.0%에 비해 지불 아동이 증가한 반면에 5세는 2009년도에 98.9%였으나 2012년도에는 95.0%로 비율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비용 지불 비율 증가는 조기교육 열풍의 연령 하향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표 V-3-2 참조).

〈표 V-3-2〉 총 보육·교육 비용 지불 아동 비율

구분	단위: %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본 조사	24.0	71.9	90.7	97.4	96.6	95.0	76.2
2009년 조사	20.9	49.5	75.9	92.4	96.7	98.9	70.1
2004년 조사	15.6	32.0	50.2	71.9	89.8	97.1	67.0

〈표 V-3-3〉은 영아와 유아의 지불하는 금액 분포를 나타낸다. 영아는 43.8%가 지불하지 않고, 10만원 미만이 31.6%를 차지하지만 5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6.1%이다. 유아는 5~20만원 사이에 1/3 정도가 분포하고 50만원 이상은 17.0%이다.

영유아 각 연령별로 지불하는 금액 분포를 보면, 0세아는 76.1%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나 60만원 이상도 3.8%이다. 1세아는 28.1% 정도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48.3%는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며 7.9%는 6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2세아는 9.3%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나, 15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비율은 67.0%로 늘어난다. 3세 유아는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며 50만원 이상도 16.0%인데, 4, 5세가 되면 높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지불하지 않는다는 아동 비율은 감소하였고 비용이 높은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영아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아동 비율이 9%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불한다는 비용분포는 10만원 미만에 다수가 분포한다. 유아는 미지불 비율은 2009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6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비율이 5%p 정도 증가하였다.

〈표 V-3-3〉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단위: %(명)

구분	본 조사									2009년 조사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미지불	43.8	3.8	76.1	28.1	9.3	2.6	3.4	5.0	23.9	53.1	4.0	29.9	
49천원 이하	16.4	4.7	7.1	30.0	17.0	6.9	6.6	1.5	10.6	9.6	6.0	7.9	
50~99천원	15.2	7.6	4.1	18.8	29.3	10.1	6.4	6.4	11.4	8.0	11.4	9.5	
100~149천원	8.7	13.2	2.7	6.0	20.7	15.6	13.0	11.5	10.9	4.9	11.5	8.0	
150~199천원	3.6	14.1	1.0	2.3	9.3	14.0	14.4	13.9	8.9	3.0	11.8	7.1	
200~249천원	1.8	11.6	0.7	2.1	3.0	10.5	12.4	12.1	6.7	2.8	9.4	6.2	
250~299천원	1.3	8.3	0.5	1.3	2.2	6.9	9.0	8.9	4.8	3.2	9.6	6.2	
300~349천원	1.5	6.6	0.8	1.9	2.4	5.9	5.8	7.9	4.0	3.6	8.6	6.0	
350~399천원	0.5	6.0	-	0.6	1.1	4.0	6.0	7.6	3.2	2.6	6.7	4.5	
400~499천원	1.1	7.1	1.1	1.0	1.3	7.5	7.4	6.5	4.1	2.7	9.6	6.0	
500~599천원	1.9	4.5	2.1	2.5	0.9	4.9	4.4	4.2	3.2	2.8	3.9	3.3	
600천원 이상	4.2	12.5	3.8	5.4	3.7	11.1	11.4	14.4	8.4	3.7	7.5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02)	(1,541)	(802)	(538)	(462)	(503)	(556)	(482)	(3,343)	(1,743)	(1,560)	(3,301)	

<표 V-3-4>는 비용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아동을 대상, 그리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만을 선별하여 산출한 비용을 아동연령, 지역규모, 모의 취업여부, 가구 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영유아를 보면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은 208,700원이다. 표준편차가 286,700원이다. 이 비용은 0세아 66,600원부터 연령이 많아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5세아는 349,000원이 된다. 표준편차도 연령을 따라 점차 증가한다. 전체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평균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5.4%이고, 0세 아동이 1.3%로 가장 낮고 4,5세아는 8.7%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V-3-4〉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208.7	286.7	(3,343)	5.4	274.1	300.0	(2,482)	7.1
연령								
0세	66.6	214.6	(802)	1.3	276.5	365.8	(198)	5.6
1세	116.1	227.4	(538)	2.6	161.5	254.3	(373)	3.6
2세	137.9	209.6	(462)	3.8	152.2	215.2	(412)	4.1
3세	281.0	248.2	(503)	7.7	288.6	247.2	(486)	8.0
4세	313.4	308.0	(556)	8.7	324.2	307.6	(546)	9.0
5세	349.0	337.3	(482)	8.7	367.2	336.2	(467)	9.2
F	121.7***			195.5***	41.8***			66.8***
지역규모								
대도시	238.6	328.6	(1,348)	5.9	308.0	343.5	(1,024)	7.6
중소도시	207.9	264.4	(1,325)	5.6	275.9	272.1	(974)	7.4
읍·면	135.9	195.6	(670)	3.6	181.9	207.0	(484)	4.8
F	27.0***			27.0***	28.2***			30.4***
모취업여부								
취업	307.6	332.4	(1,056)	6.5	336.5	333.4	(956)	7.1
휴직중	156.6	272.0	(152)	5.0	300.7	314.6	(78)	9.7
미취업	159.1	244.7	(2,115)	4.7	229.1	264.9	(1,430)	6.8
부재 등	187.5	237.3	(20)	10.0	206.9	241.2	(18)	11.1
F	70.5***			22.3***	26.8***			7.3***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82.1	106.6	(98)	10.1	127.3	109.0	(66)	15.4
150~199만원	89.7	115.8	(245)	5.4	135.3	118.6	(152)	8.2
200~249만원	109.7	141.5	(416)	5.2	171.0	144.0	(277)	8.0
250~299만원	103.7	118.6	(537)	3.9	146.1	116.7	(363)	5.5
300~349만원	151.3	164.3	(511)	4.9	196.9	161.7	(379)	6.3
350~399만원	200.3	209.8	(280)	5.5	247.5	206.6	(217)	6.8
400~499만원	219.3	239.8	(525)	5.1	265.2	239.6	(417)	6.2
500~599만원	319.0	319.4	(350)	6.1	389.8	311.5	(277)	7.4
600~699만원	450.0	439.4	(153)	7.1	478.9	437.7	(138)	7.6
700만원 이상	572.9	540.9	(225)	6.3	691.8	520.5	(195)	7.6
F	108.3***			11.6***	101.4***			17.2***
2009년 조사	189.5	234.6	(3,303)	6.4	270.3	238.0	(2,316)	9.2
2004년 조사	157.6	174.8	(2,960)	6.4	235.0	165.4	(1,984)	9.6

*** $p < .001$

2009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영유아의 1인당 평균 비용은 19,200원이 증가했고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보면 3,800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가

구소득 대비 비율은 2009년 6.4%에서 2012년 5.4%로 1%p 줄어들었고,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한 영유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2009년 9.2%에서 2012년 7.1%로 2.1%p 감소하였다. 정부 지원 확대로 부모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가구 및 모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이 각각 238,600원, 207,900원, 135,900원으로 차이가 있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도 취업모가 307,600원으로 미취업모 159,100원에 비하여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별에 따라서도 정적 관계를 보여서, 소득수준 149만원 이하는 82,100원인데 비하여 700만원 이상은 572,900원을 지출한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최고 10.1%이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금액은 많아지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6.3%까지 낮아진다.

한편,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평균 274,100원이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7.1%이다. 이 역시 아동 및 가구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V-3-4 참조).

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1) 기관별 이용 비용

가) 순 비용 및 총 비용

다음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에 관한 것으로, 기관 이용 부모에게 지난 1개월 동안 지불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부모 부담 비용은 일정한 월 보육비나 교육비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추가비용으로는 현장 학습비, 특기 교육비, 급간식비, 교재비, 차량이용비, 기타로 나누어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얼마를 수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분기나 반기별로 내는 비용은 월 단위로 환산하도록 하였다.

<표 V-3-5>는 보육료 감면, 면제에 대한 구분이나 아동연령 구별 없이 이러한 총 보육·교육비 및 순보육·교육비를 기관별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무 비용도 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1.5%이다. 순수한 보육료나 교육비를 전혀 안 낸다는 비율이 58.4%이므로 46.9%는 면제 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총 비용 5만원~10만원을 지출하는 아동 비율이 20.2%로 가장 많고 24.9%가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어린

이집과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아동은 각각 10.5%, 39.5%, 100.0%의 아동이 지출비용이 월 20만원이 넘는다. 순보육·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면 안 내거나 월 5만원 이하가 67.2%로 조사되었고, 12.5%가 2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2009년과 비교하여 안 낸다는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3-5〉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단위: %(명)

구분	총 비용					순보육·교육비용				
	어린이 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어린이 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안녕	15.2	6.4	-	-	11.5	76.4	34.5	-	-	58.4
1~5만원	22.5	11.8	-	-	17.7	7.3	12.9	-	-	8.8
5~10만원	27.3	10.2	-	-	20.2	7.6	26.0	-	-	13.3
10~15만원	17.0	15.4	-	-	15.6	1.6	7.0	-	-	3.3
15~20만원	7.6	16.5	-	-	10.1	4.0	3.5	2.5	23.1	3.8
20~25만원	3.8	12.7	-	16.7	6.6	2.1	4.1	-	23.1	2.7
25~30만원	2.7	6.9	0.8	25.0	4.1	0.9	5.5	7.4	7.7	2.8
30~35만원	1.7	5.5	5.8	8.3	3.2	0.1	1.8	3.3	7.7	0.9
35~40만원	1.4	4.4	5.0	16.7	2.7	0.1	1.6	0.8	30.8	0.8
40만원 이상	0.9	10.0	88.4	33.3	8.3	-	3.0	86.0	7.7	5.3
계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1)	(20)	(2,392)	(1,536)	(744)	(92)	(20)	(2,392)
2009년 조사 안내는 비율	7.3	2.7	-	-	5.6	30.6	15.1	-	4.5	24.6

<표 V-3-6>은 전체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든 월 평균 총비용을 나타낸다. 실제로 낸 금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161,700원이다. 이는 소득대비 5.0%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은 78,900원이고 82,700원은 추가로 내는 비용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부담 비용은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약간씩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비용은 반일제이상학원이 832,3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치원 193,800원, 어린이집 88,800원이고 기타는 348,300원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도 어린이집은 3.5%인데 비하여 유치원은 6.0%이고 반일제이상학원은 13.8% 수준이다.

이를 순보육·교육비와 추가 비용으로 구분해 보면, 순보육·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86,900원, 24,800원이고, 학원이 677,900원이고, 추가로 내는 비용은 반일제이상학원이 15만원 수준으로 유치원 106,900원 수준이나 어린이집 63,900원보다 많다.

이러한 기관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2009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

는 53,500원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에는 총 비용 197,900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은 132,400원이고 65,500원은 추가로 내는 비용이었다. 또 가구 소득대비 7.7%이었으나 본 조사는 5.0%로 2009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3-6〉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61.7	78.9	82.7	(2,392)	5.0
어린이집	88.8	24.8	63.9	(1,536)	3.5
유치원	193.8	86.9	106.9	(744)	6.0
반일제이상	832.3	677.9	154.4	(92)	13.8
기타	348.3	270.7	77.5	(20)	9.3
F	1025.7***	1379.7***	94.5***		221.0***
2009년 조사					
전체	197.9	132.4	65.5	(2,050)	7.7
어린이집	168.1	114.3	53.8	(1,342)	7.4
유치원	229.3	141.4	87.9	(612)	8.0
반일제이상	468.6	370.8	97.7	(75)	12.0
기타	216.7	170.4	46.3	(20)	8.7
F	118.0**	109.8**	54.9**		15.8**
2004년 조사					
전체	171.0	135.0	36.0	(1,607)	8.3
어린이집	164.7	135.2	29.5	(819)	8.3
유치원	173.8	126.8	47.0	(487)	7.7
반일제이상	193.2	153.7	39.7	(244)	9.4
선교원	141.9	123.7	19.2	(57)	9.2
F	10.5**	7.2**	26.3**		1.5

** $p < .01$, *** $p < .001$

다음 <표 V-3-7>은 순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항목별, 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 수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항목별로는 평균적으로 특기교육비 65,400원, 급간식비 32,500원, 교재비 31,200원, 종일반비 57,000원 정도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기교육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65,400원, 61,700원으로 조사되었고 반일제이상학원은 119,600원으로 조사되어 반일제이상학원이 월등하게 높았고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서 반일제이상학원이 더 많은 비용

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기준으로는 현장학습비는 전체 월 평균 13,000원, 특기교육비는 40,100원, 급간식비 11,100원, 교재비 12,000원, 종일반 비용 3,200원으로 조사되었다. 특기교육과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이 가장 높고, 그 이외는 모두 반일제이상 학원이 가장 높다.

〈표 V-3-7〉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구분	단위: 천원(명)				
	특별(특기)활동 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전체 아동					
전체	40.1	12.0	11.1	3.2	13.0
어린이집	39.0	7.7	3.4	-	12.1
유치원	42.6	18.0	20.8	9.1	14.0
반일제이상	38.9	24.0	40.8	3.0	17.0
기타	25.7	15.7	19.3	-	16.9
F	1.5	67.1***	274.8**	63.7**	5.6**
(수)	(2,392)	(2,392)	(2,392)	(2,392)	(2,392)
비용지불 아동					
전체	65.4	31.2	32.5	57.0	20.0
어린이집	61.7	26.5	18.8	-	18.9
유치원	68.3	33.8	34.8	56.4	20.6
반일제이상	119.6	45.4	66.6	73.0	27.4
기타	64.3	39.5	41.0	-	28.1
F	27.5**	20.9**	106.4***	1.0	8.4***
(수)	(1,452)	(924)	(813)	(130)	(1,541)

** $p < .01$, *** $p < .001$

나) 연령별 기관 이용 비용

다음 <표 V-3-8>에는 아동연령별 보육·교육비 부모 부담을 제시하였다. 총 비용은 영아 51,500원, 유아 216,700원이다. 순 보육료는 영아 6,900원, 유아 114,900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추가비용도 유아 101,800원이고 영아 44,600원으로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 영아 부모에 비하여 유아의 부모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용이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영아와 유아 구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

세를 기준으로 부모부담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순수한 보육료와 교육비는 3세부터 늘기 시작하여 3~5세는 10만원~13만원선이다. 추가비용은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3세아는 92,700원이지만 4, 5세는 10만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다.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을 보면 영아 2.2%, 유아 6.1%로 유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별로는 무상보육·교육에서 제외된 3, 4세가 각각 6.0%, 6.8%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액 지원 대상인 5세아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8〉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전체	161.7	78.9	82.7	(2,392)	5.0
영유아구분					
영아	51.5	6.9	44.6	(879)	2.2
유아	216.7	114.9	101.8	(1,513)	6.1
t	-25.3***	-20.1***	-26.5***		-22.3***
연령					
0세	3.7	-	3.7	(125)	0.6
1세	33.9	3.5	30.4	(348)	1.4
2세	77.2	11.3	66.0	(406)	2.7
3세	206.6	113.9	92.7	(487)	6.0
4세	225.8	126.7	99.1	(547)	6.8
5세 이상	217.3	106.7	110.6	(479)	5.6
F	76.7***	44.9***	83.8***		100.7***

*** $p < .001$

〈표 V-3-9〉는 총 보육·교육비의 아동연령별 차이를 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의 순 보육료는 0~2세아는 없고, 3세는 73,100원, 4세는 55,400원, 5세 14,200원이다. 총 비용도 비용 수치가 크기는 하지만 경향성은 순보육비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교육비는 순교육비 및 총비용 모두 3, 4세가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5세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향이다. 4세와 5세를 비교하면 4세 총 비용과 순보육·교육 비용이 5세보다 각각 9만원, 8만원 정도가 높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총비용은 5세가 943,300원으로 가장 많고, 순교육비도 753,700원이다. 기타 기관 이용 시에도 소요되는 총 비용은 5세가 427,700원으로 가장 많고 순교육비는 338,100원 수준이다.

〈표 V-3-9〉 영유아 연령별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구분	단위: 천원(명)							F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전체	
어린이집								
총비용 ¹⁾	3.7	31.2	67.7	163.0	131.2	111.1	88.8	158.7***
순보육비	-	-	-	73.1	55.4	14.2	24.8	102.5***
(수)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유치원								
총비용	-	194.0	113.1	218.1	245.2	152.2	193.8	14.6***
순교육비	-	78.0	58.2	120.4	127.5	47.4	86.9	24.2***
(수)	-	(1)	(2)	(161)	(279)	(301)	(744)	
반일제이상 학원								
총비용	-	800.0	658.3	636.2	782.2	943.3	832.3	3.5*
순교육비	-	500.0	514.5	546.3	654.6	753.7	677.9	2.5*
(수)	-	(1)	(7)	(20)	(32)	(32)	(92)	
기타								
총비용	-	254.0	-	356.8	330.6	427.7	348.3	0.5
순보육·교육비	-	200.0	-	281.1	252.1	338.1	270.7	0.4
(수)	-	(1)	-	(8)	(9)	(2)	(20)	

* $p < .05$, *** $p < .001$

주: 총비용은 순보육·교육비와 추가비용을 합산한 총 보육·교육비용을 말함.

영아도 보육료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육료를 내는 부모도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제외하였음.

다) 부모 및 가구 특성별

다음 <표 V-3-10>는 기관 이용 비용의 부모와 가구 특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읍·면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휴직 중 및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순 비용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특히 추가비용에서 미취업모와 휴직 중인 부모가 취업모보다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 역시 부담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하는 기관이용 비용이 순 비용 및 추가 비용 모두 많다. 보육·교육 비용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을 제외하더라도 200만원대 수입은 10만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350만원인 가구는 평균 14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은 절대 액수는 적지만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의 비율이 전체가 5.0%인데 비하여 149만원 이하는 12.9%, 150~199만원은 6.6%, 200~249만원은 5.7%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아 저소득 가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낸다(표 V-3-10 참조).

〈표 V-3-10〉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구분	전체 비용	순보육·교육비	추가비용	(수)	단위: 천원(명), %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61.7	78.9	82.7	(2,392)	5.0
지역규모					
대도시	182.0	89.7	92.4	(918)	5.4
중소도시	171.4	87.4	84.0	(965)	5.4
읍·면	94.4	36.2	58.2	(509)	3.1
F	27.9 ^{***}	16.3 ^{***}	29.3 ^{***}		34.2 ^{***}
모취업여부					
취업	149.7	73.9	75.8	(930)	3.9
휴직중	175.7	85.6	90.1	(66)	8.3
미취업	170.5	83.2	87.3	(1,378)	5.6
부채 등	115.2	22.0	93.3	(18)	7.3
F	2.2 [#]	1.3	4.3 ^{**}		29.0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94.6	20.2	74.5	(68)	12.9
150~199만원	93.2	23.1	70.1	(164)	6.6
200~249만원	103.7	28.0	75.8	(285)	5.7
250~299만원	97.0	27.4	69.6	(372)	4.3
300~349만원	122.9	47.8	75.2	(369)	4.6
350~399만원	139.8	60.1	79.7	(207)	4.3
400~499만원	156.0	77.1	78.7	(382)	3.9
500~599만원	231.5	129.9	101.5	(249)	5.0
600~699만원	305.3	180.2	125.1	(127)	5.1
700만원 이상	399.1	293.3	106.7	(168)	4.8
F	50.5 ^{***}	54.2 ^{***}	10.3 ^{***}		22.1 ^{***}

$p < .1$, ** $p < .01$, *** $p < .001$

2) 비용 부담

가) 부담에 대한 인식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내는 비용이 가정경제에 비추어 부담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0.3%, 부담 안됨 22.9%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33.2%이며 적당하다는 22.9%이다. 반면, 매우 부담 8.1%, 부담 35.9%로 44.0%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부담이 안 된다는 비율은 기타 시설의 이용이 가장 낮고,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높다.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보육·교육비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육·교육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낮아졌다.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은 대폭 증가하였다(표 V-3-11 참조).

〈표 V-3-11〉 보육료·교육비 부담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안됨	전혀 부담 안됨	계(수)
전체	8.1	35.9	22.9	22.9	10.3	100.0(2,138)
기관유형						
어린이집	4.7	28.8	23.9	28.9	13.7	100.0(1,314)
유치원	11.7	45.1	20.6	16.3	6.3	100.0(712)
반일제이상	21.5	52.9	24.0	1.7	-	100.0(92)
기타	18.2	36.4	45.5	-	-	100.0(20)
2009년 조사	17.7	46.5	20.1	9.7	6.0	100.0(1,910)
2004년 조사	12.7	45.4	31.2	7.6	3.1	100.0(1,609)

<표 V-3-12>는 보육·교육비 미지원시 기관 이용 의사를 나타낸다. 보육·교육비 미지원시에도 74.7%는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22.0%가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이 이용 부모 중 지원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다.

〈표 V-3-12〉 보육료·교육비 미지원 시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전체	74.7	22.0	3.3	100.0(2,392)
기관유형				
어린이집	66.4	29.4	4.2	100.0(1,536)
유치원	86.7	11.4	2.0	100.0(744)
반일제이상	97.5	1.7	0.8	100.0(92)
기타	83.3	16.7	-	100.0(20)

<표 V-3-13>은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의 응답을 영유아 구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가구소득, 지원 여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보육·교육비 미지원시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증가한다. 그리고 유아의 경우 매우 부담 10.6%, 부담 43.5%로 54.1%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육·교육비 미지원시 83.2% 이용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전액지원 대상인 5세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V-3-13〉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부담 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기관 비용의 부담정도							미지원 시 이용의사			
	매우 부담	부담	적당	아님	전혀 아님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전체	8.1	35.9	22.9	22.9	10.3	100.0(2,138)	2.9	74.7	22.0	3.3	100.0(2,392)
영유아구분											
영아	2.0	17.1	24.1	35.3	21.5	100.0(670)	3.5	57.7	37.9	4.4	100.0(879)
유아	10.6	43.5	22.4	17.8	5.7	100.0(1,468)	2.7	83.2	14.1	2.8	100.0(1,513)
$X^2(df)/t$	303.0(4)***						18.5***	191.5(2)***			
연령											
0세	-	3.4	10.3	27.6	58.6	100.0(35)	4.4	46.2	51.9	1.9	100.0(125)
1세	1.7	8.8	18.8	40.6	30.1	100.0(264)	3.9	50.8	44.0	5.2	100.0(348)
2세	2.4	23.5	28.5	32.5	13.1	100.0(371)	3.2	66.1	29.5	4.5	100.0(406)
3세	11.3	48.1	19.5	17.4	3.8	100.0(475)	2.5	79.3	17.7	3.1	100.0(487)
4세	11.6	46.4	21.1	18.6	2.3	100.0(535)	2.5	81.7	14.6	3.7	100.0(547)
5세	9.4	37.8	25.5	17.5	9.7	100.0(458)	2.8	87.2	11.0	1.8	100.0(479)
$X^2(df)/F$	303.0(4)***						88.7***	191.5(2)***			
지역규모											
대도시	7.8	37.4	22.6	22.3	9.9	100.0(833)	2.9	75.3	21.4	3.2	100.0(918)
중소도시	10.0	39.3	21.7	20.7	8.3	100.0(867)	2.8	74.7	21.3	4.0	100.0(965)
읍·면	4.7	24.7	26.2	28.9	15.5	100.0(438)	3.3	73.1	24.9	2.0	100.0(509)
$X^2(df)/F$	52.0(8)***						24.7***	5.9(4)			
모취업 여부											
취업	6.1	33.7	22.8	25.5	12.0	100.0(823)	3.0	84.3	13.4	2.3	100.0(930)
휴직중	11.1	29.6	13.0	27.8	18.5	100.0(57)	3.1	87.1	11.3	1.6	100.0(66)
미취업	9.6	37.4	23.1	20.9	8.9	100.0(1,242)	2.8	67.8	28.1	4.2	100.0(1,378)
부재 등	-	55.0	30.0	15.0	-	100.0(16)	2.6	36.4	63.6	-	100.0(18)
$X^2(df)/F$	-						7.3**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6.4	47.5	19.7	13.1	3.3	100.0(60)	2.4	52.2	41.8	6.0	100.0(68)
150~199만원	9.0	38.6	20.5	19.9	12.0	100.0(139)	2.9	49.2	47.0	3.8	100.0(164)
200~249만원	13.7	42.0	17.6	19.2	7.5	100.0(260)	2.6	56.4	39.0	4.5	100.0(286)
250~299만원	5.7	33.5	23.6	24.2	13.0	100.0(323)	3.1	64.8	30.9	4.4	100.0(372)
300~349만원	6.0	41.0	25.2	19.6	8.2	100.0(332)	2.8	80.1	17.4	2.5	100.0(371)
350~399만원	7.9	37.4	20.5	28.4	5.8	100.0(183)	2.9	76.3	19.1	4.7	100.0(207)
400~499만원	5.8	35.6	20.3	25.3	12.9	100.0(347)	3.0	82.6	13.5	3.9	100.0(383)
500~599만원	13.7	24.8	27.4	27.8	6.4	100.0(225)	2.9	87.9	10.5	1.6	100.0(249)
600~699만원	2.3	33.8	33.8	16.5	13.5	100.0(116)	3.1	92.2	7.1	0.7	100.0(127)
700만원 이상	7.1	29.9	22.1	24.7	16.2	100.0(152)	3.1	97.0	2.4	0.6	100.0(163)
$X^2(df)/F$	110.0(36)***						5.2**	56.1(18)*			
지원 여부											
전액 지원	5.7	32.7	23.5	26.2	11.9	100.0(1,758)	3.1	71.0	25.4	3.7	100.0(2,012)
일부 감면	26.3	52.6	21.1	-	-	100.0(17)	2.0	90.0	5.0	5.0	100.0(17)
혜택 없음	19.7	50.7	20.0	7.1	2.5	100.0(363)	2.2	95.1	3.8	1.1	100.0(363)
$X^2(df)/F$	-						94.8***	-			

* $p < .05$, *** $p < .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에서 부담된다는 비율이 낮다. 그리고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더 기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육·교육비 미지원시 취업모는 84.3%, 미취업모는 67.8%가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가구소득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보육·교육비 미지원시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부모 중 현재의 보육·교육비가 적당하다는 경우는 22.9%에 지나지 않았고 44.0%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개별 가정의 보육·교육비용의 부담 정도는 거주지역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 읍·면 지역의 경우가 부담스럽다는 가구가 도시 지역보다 적다. 이는 보육·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대비 월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비율도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용지원 여부에 따라서는 전액지원 아동의 경우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이 38.1%이지만 38.4%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보육료는 전액지원 되지만 유아는 차액 부담이 있고 이외 기타 비용 등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보육료 일부감면 아동은 78.9%가 부담스럽다고 하였고,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19.7%가 매우 부담된다, 50.7% 부담되는 편이므로 모두 70.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주요한 과제가 된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 보호자에게 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더 낼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체 부모의 23.5%는 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76.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기관별로 추가부담을 하겠다는 비율은 선교원과 같은 기타 기관 이용 부모가 가장 높고, 반일제 이상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의 순서이다.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좋은 서비스에 대한 추가 부담 의사 비율이 3.1%p 가량 감소하였다.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한 얼마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추가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보육·교육기관 이용아동의 23.5%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월 평균 165,3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V-3-14 참조).

〈표 V-3-14〉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3.5	76.5	100.0(2,392)	165.3	116.4	30	700	(555)
기관유형								
어린이집	25.0	75.0	100.0(1,536)	162.6	115.8	30	700	(368)
유치원	20.3	79.7	100.0(744)	158.5	106.8	50	500	(154)
반일제이상	25.6	74.4	100.0(92)	229.4	154.8	50	500	(27)
기타	33.3	66.7	100.0(20)	237.1	106.8	50	300	(6)
X ² (df)/F	7.3(3) [#]			3.8 [*]				
2009년 조사	26.6	73.4	100.0(2,050)	109.6	96.6	10	900	(546)
2004년 조사	29.0	71.0	100.0(1,608)	-	-	-	-	-

$p < .1$, * $p < .05$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비율이나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아동의 연령,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및 자녀가 취원한 보육·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V-3-15 참조).

비율은 영유아별로는 영아는 23.8%, 유아는 23.4%로 거의 같지만, 연령별로 1세아가 27.6%로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가장 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추가부담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는 25.0%, 미취업모는 21.9%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추가부담 의사가 있었으며, 비용 지원 여부에 따라 전액 지원은 22.3%, 일부감면은 38.1%, 지원 혜택이 없는 아동은 29.6%만이 비용을 더 내더라도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받겠다는 의견이다.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은 전체는 165,300원인데, 영아는 174,200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유아 160,800원보다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1세아가 가장 많은 208,900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많은 178,600원을 추가 지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취업모는 175,000원, 미취업모는 155,000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하여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비용이 더 컸으며, 최대 소득구간에서의 금액은 233,500원이었다.

비용 지원여부별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197,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액

지원은 159,100원, 일부감면은 104,400원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V-3-15〉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3.5	76.5	100.0(2,392)	165.3	116.4	30	700	(555)
영유아구분								
영아	23.8	76.2	100.0(879)	174.2	127.1	30	600	(209)
유아	23.4	76.6	100.0(1,513)	160.8	110.4	30	700	(346)
X ² (df)/t	-			1.3				
연령								
0세	20.2	79.8	100.0(125)	208.9	152.4	50	600	(21)
1세	27.6	72.4	100.0(348)	163.6	132.0	30	600	(92)
2세	22.0	78.0	100.0(406)	176.2	115.3	30	500	(96)
3세	26.7	73.3	100.0(487)	166.4	109.2	30	700	(116)
4세	22.8	77.2	100.0(547)	149.4	98.8	50	550	(127)
5세	21.4	78.6	100.0(479)	164.6	120.0	50	500	(103)
X ² (df)/F	8.6(5)			1.7				
지역규모								
대도시	25.2	74.8	100.0(918)	178.6	127.5	30	700	(223)
중소도시	24.3	75.7	100.0(965)	157.1	102.6	30	500	(230)
읍·면	18.2	81.8	100.0(509)	147.7	114.8	30	500	(102)
X ² (df)/F	8.9(2)*			3.2*				
모취업 여부								
취업	25.0	75.0	100.0(930)	175.0	123.1	30	700	(240)
휴직중	40.3	59.7	100.0(66)	200.3	133.5	30	500	(27)
미취업	21.9	78.1	100.0(1,378)	155.0	108.1	30	550	(285)
부채 등	13.6	86.4	100.0(18)	81.8	78.8	50	200	(3)
X ² (df)/F	14.0(3)**			2.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5	95.5	100.0(68)	41.6	30.7	30	100	(4)
150~199만원	14.6	85.4	100.0(164)	104.0	38.9	30	300	(19)
200~249만원	15.0	85.0	100.0(285)	126.0	91.1	30	500	(44)
250~299만원	23.2	76.8	100.0(370)	141.0	88.8	50	500	(72)
300~349만원	21.5	78.5	100.0(369)	155.4	110.8	50	500	(76)
350~399만원	20.5	79.5	100.0(206)	147.5	94.7	50	500	(48)
400~499만원	27.9	72.1	100.0(383)	171.8	125.9	50	500	(118)
500~599만원	31.5	68.5	100.0(249)	177.5	118.3	30	700	(71)
600~699만원	32.6	67.4	100.0(127)	206.2	125.1	50	500	(44)
700만원 이상	34.8	65.2	100.0(170)	233.5	146.5	30	600	(59)
X ² (df)/F	67.7(9)***			5.4***				
지원여부								
전액지원	22.3	77.7	100.0(2,012)	159.1	113.6	30	600	(440)
일부감면	38.1	61.9	100.0(17)	104.4	62.4	50	300	(5)
혜택없음	29.6	61.9	100.0(363)	197.2	125.6	50	700	(110)
X ² (df)/F	11.5(2)**			5.7**				

$p < .1$, * $p < .05$, ** $p < .01$, *** $p < .001$

4. 취약보육

본 절에서는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의 시간연장형 보육과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에 대하여 필요성, 현재 및 과거 이용, 앞으로의 이용 의사를 제 특성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긴급시

어린이집은 긴급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에도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긴급상황시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8%이며, 아이가 아플 때 돌보아 주는 사람이나 시설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아동 및 부모 특성별 차이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긴급상황과 아이가 아플 때 모두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차이는 조부모, 친인척 및 비혈연의 이용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V-4-1 참조).

〈표 V-4-1〉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분	긴급시					아플때				계(수)
	부모	혈연	비혈연	어린이집	기타	부모	혈연	비혈연	어린이집	
전체	60.1	34.6	3.7	0.8	0.8	78.3	20.1	1.0	0.5	100.0(3,343)
영유아구분										
영아	59.7	35.7	3.2	0.8	0.7	78.4	20.0	1.1	0.4	100.0(1,802)
유아	60.7	33.4	4.2	0.8	1.0	78.3	20.2	1.0	0.5	100.0(1,541)
X ² (df)			4.9(4)					0.5(3)		
연령										
0세	62.1	34.4	3.1	0.1	0.3	80.1	19.0	0.7	0.3	100.0(802)
1세	57.5	35.7	3.7	2.1	1.0	75.0	22.3	2.1	0.6	100.0(538)
2세	58.2	37.9	2.4	0.6	0.9	79.5	19.4	0.6	0.4	100.0(462)
3세	60.2	33.9	4.1	1.0	0.8	76.7	21.5	1.6	0.2	100.0(503)
4세	59.1	33.9	5.2	1.4	0.4	76.3	21.1	1.0	1.6	100.0(556)
5세	62.0	32.7	3.6	0.2	1.5	80.9	18.6	0.5	-	100.0(482)
X ² (df)			-					-		

(표 V-41 계속)

구분	긴급시					아플때				계(수)
	부모	혈연	비혈연	어린이집	기타	부모	혈연	비혈연	어린이집	
지역규모										
대도시	56.4	39.1	3.3	1.0	0.2	71.5	26.7	1.2	0.6	100.0(1,348)
중소도시	62.0	31.2	4.8	0.4	1.6	84.9	13.8	1.0	0.3	100.0(1,325)
읍·면	65.5	30.9	2.2	1.0	0.3	80.5	18.1	0.7	0.7	100.0(670)
$X^2(df)$	53.1(8) ^{***}					77.1(6) ^{***}				
모취업여부										
취업	45.1	49.5	3.9	1.0	0.5	61.1	35.7	2.2	1.1	100.0(1,056)
휴직중	45.5	53.1	-	1.4	-	69.0	29.7	-	1.4	100.0(152)
미취업	70.0	24.5	3.9	0.7	1.0	89.1	10.3	0.5	0.1	100.0(2,115)
부재 등	8.0	92.0	-	-	-	8.0	92.0	-	-	100.0(20)
$X^2(df)$	-					-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69.9	24.3	2.9	1.9	1.0	83.7	15.4	1.0	-	100.0(98)
150~199만원	78.7	18.3	2.6	0.4	-	89.6	9.3	1.1	-	100.0(245)
200~249만원	67.0	28.9	2.2	0.7	1.2	85.9	12.9	0.5	0.7	100.0(415)
250~299만원	76.9	20.4	1.2	1.2	0.4	87.4	11.7	0.2	0.8	100.0(537)
300~349만원	61.1	35.6	2.3	0.8	0.2	81.4	17.8	-	0.8	100.0(509)
350~399만원	57.4	39.7	1.4	0.4	1.1	77.0	23.0	-	-	100.0(280)
400~499만원	52.6	40.0	5.3	0.8	1.3	72.1	26.0	1.5	0.4	100.0(524)
500~599만원	51.4	39.6	7.5	0.9	0.6	72.0	25.1	2.6	0.3	100.0(350)
600~699만원	40.4	54.8	4.2	0.6	0.0	62.4	35.8	1.2	0.6	100.0(153)
700만원이상	32.2	56.9	8.8	0.4	1.7	60.0	35.8	4.2	-	100.0(230)
$X^2(df)$	-					-				

*** $p < .001$

나. 기관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토요일보육 등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0.9%이고, 시간연장보육이 0.8%이며, 나머지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1% 내외로 비슷하다(표 V-42 참조).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빈도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간제보육은 65.9%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시간연장보육은 100.0%가 어린이집이고, 토요일보육과 휴일보육은 어린이집이 각각 88.3%, 100.0%로 조사되었다(표 V-43 참조).

〈표 V-4-2〉 취약보육의 이용

구분	단위: %(명)					계(수)
	없음	월1~2회	월3~4회	주1~2번	주3회 이상	
시간제보육	99.1	0.7	0.1	0.1	0.1	100.0(3,343)
시간연장보육	99.2	0.4	-	0.1	0.3	100.0(3,343)
24시간보육	100.0	-	-	-	-	100.0(3,343)
토요보육	99.5	0.4	0.1	-	-	100.0(3,343)
휴일보육	99.9	0.1	-	-	-	100.0(3,343)

〈표 V-4-3〉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공공육아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시간제 보육	21.0	(8)	13.1	(2)	65.9	(20)
시간연장보육	100.0	(23)	-		-	
토요보육	88.3	(17)	4.1	(1)	7.7	(1)
휴일보육	100.0	(2)				

다음으로 취약보육 1회 이용 시간을 질문한 결과, 시간제보육은 2시간, 시간연장보육은 2.3시간, 토요보육은 5.5시간, 휴일보육은 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4-4 참조).

〈표 V-4-4〉 취약보육 제공시간 평균

구분	단위: 시간(명)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토요보육	휴일보육
평균	2.0	2.3	5.5	4.4
표준편차	0.7	0.9	1.5	0.7
(수)	(30)	(23)	(19)	(2)

다. 취약보육의 필요성

<표 V-4-5>는 전체 조사대상 중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의 필요성을 종류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시간제 보육에 대해 41.8%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외 시간연장보육 34.4%, 24시간보육 11.7%, 토요 보육 26.3%, 휴일보육 18.1%로 조사되어서 취약보육 중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최다 빈도는 시간제는 1주일에 1~2번, 시간연장보육은 한달에 1~2번, 24시간제 보육은 1년에 1~2번, 토요보육과 휴일보육은 한 달에 1~2번이다.

〈표 V-4-5〉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2004년조사 '없음' 비율	2009년조사 '없음' 비율
시간제 보육	12.1	16.9	10.6	2.2	58.2	100.0(3,343)	36.6	47.2
시간연장 보육	7.8	9.7	13.1	3.8	65.6	100.0(3,343)	58.7	65.1
24시간 보육	1.2	1.4	2.9	6.2	88.3	100.0(3,343)	79.4	88.6
토요보육	2.5	4.3	13.2	6.2	73.7	100.0(3,343)	-	-
휴일보육	1.7	1.7	7.6	7.1	81.9	100.0(3,343)	75.3	76.6

취약보육의 필요성을 이전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취약보육이 필요 없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된 다섯 가지 유형 중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이 필요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2004년도에 36.6%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고 2009년도 47.2%, 2012년도 58.2%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보육도 2004년도와 2009년 조사에서는 필요 없다는 비율이 75~76% 수준이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81.9%로 다소 증가하였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보육의 보편적 이용, 휴일보육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은 별 차이가 없었다.

다음 <표 V-4-6>은 네 가지 종류의 취약보육 필요성의 제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먼저 시간제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영아가 14.0%로 유아 10.1%보다 현저하게 높다. 연령별로는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0세는 15.9%, 1세는 16.1%, 2세는 8.9%, 3세 12.4%, 4세 10.6%, 5세 8.0%로 연령이 낮을수록 좀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보다는 읍·면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149만원 이하는 12.7%, 150~199만원 13.8%, 200~249만원 12.4%, 250~299만원 13.2%, 300~349만원 12.1%, 400~499만원 10.9%로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700만원 이상은 6.7%로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로 한다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연장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이 10.0%로 대도시의 6.8%로 높게 나타나 읍·면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시간연장보육 필요성은 149만원 이하는 6.8%, 150~199만원 8.2%, 200~249만원 6.1%, 250~299만원 11.0%로 점점 증가하다가

700만원 이상에서 2.5%로 떨어진다.

24시간의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낮는데 상시 필요하다라는 응답에서 영아가 유아보다 약간 더 높고, 읍·면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가구소득계층에 따라서는 150~199만원이 3.0%, 200~249만원 2.4%, 250~299만원 1.4% 700만원 이상이 0.4%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음을 볼 수 있다.

토요보육과 휴일보육은 상시 필요보다는 1주일에 1~2번 필요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토요보육은 연령별로는 0세는 3.1%, 1세는 5.0%, 2세 6.0%, 3세 4.5%, 4세 4.4%, 5세 3.5%로 약간의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읍·면에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필요로 한다는 정도가 높다. 특히 휴직중인 모가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49만원 이하가 13.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필요성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보육의 경우도 토요보육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V-4-6〉 제 특성별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토요보육		휴일보육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전체	12.1	16.9	7.8	9.8	1.2	1.4	2.5	4.3	1.8	1.7
영유아구분										
영아	14.0	20.8	7.8	11.1	1.5	1.1	2.7	4.5	1.8	1.9
유아	10.1	13.1	7.7	8.4	0.9	1.7	2.3	4.1	1.7	1.4
X ² (df)	30.0(4) ^{***}		11.5(4) [*]		9.7(4) [*]		3.1(4)		8.7(4) [*]	
연령										
0세	15.9	22.0	7.7	8.6	2.0	0.5	2.9	3.1	1.9	1.5
1세	16.1	17.0	8.9	11.0	1.5	1.0	2.7	5.0	1.7	1.9
2세	8.9	22.9	6.9	15.1	0.9	1.7	2.6	6.0	1.7	2.4
3세	12.4	17.3	7.5	9.4	1.0	2.2	1.2	4.5	1.4	1.6
4세	10.6	12.6	8.4	9.4	1.6	2.0	3.8	4.4	3.0	2.0
5세	8.0	10.2	7.3	6.8	0.3	1.2	2.0	3.5	1.1	0.9
X ² (df)	109.9(20) ^{***}		46.1(20) ^{***}		35.0(20) [*]		42.8(20) ^{**}		36.5(20) [*]	
지역규모										
대도시	12.0	20.5	6.8	11.1	1.6	0.9	1.6	3.7	1.5	1.2
중소도시	11.4	14.6	7.9	8.4	1.1	1.2	3.4	3.8	1.9	2.0
읍·면	14.0	13.4	10.0	9.3	0.5	2.9	2.8	6.7	2.1	2.1
X ² (df)	85.2(8) ^{***}		79.2(8) ^{***}		105.6(8) ^{***}		147.9(8) ^{***}		103.2(8) ^{***}	

(표 V-4-6 참조)

구분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토요보육		휴일보육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상시	1주일에 1~2번
모취업여부										
취업	11.1	13.5	10.9	10.3	0.8	1.8	2.7	4.3	0.9	1.5
휴직중	11.0	18.6	6.9	9.7	2.1	1.4	2.8	7.6	1.4	2.1
미취업	12.7	18.3	6.2	8.9	1.4	0.9	2.5	3.7	2.2	1.5
부채 등	7.7	50.0	3.8	50.0	-	20.0	-	28.0	-	20.0
X ² (df)	-		97.4(12) ^{***}		-		-		-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12.7	18.6	6.8	13.6	-	8.7	4.8	13.5	1.9	8.7
150~199만원	13.8	25.7	8.2	10.8	3.0	2.2	3.3	8.2	3.7	2.2
200~249만원	12.4	15.3	6.1	7.0	2.4	1.2	3.6	3.6	2.9	1.0
250~299만원	13.2	19.5	11.0	12.0	1.4	0.4	4.9	4.7	3.1	1.4
300~349만원	12.1	15.9	9.2	9.2	1.5	0.8	2.5	5.2	1.3	2.5
350~399만원	12.2	15.1	8.3	7.2	1.1	0.4	0.7	3.6	0.7	1.1
400~499만원	10.9	15.4	6.9	11.1	0.8	2.1	1.9	2.8	1.3	1.1
500~599만원	15.3	14.4	6.9	10.1	-	1.4	0.9	1.7	0.0	0.6
600~699만원	9.6	10.2	8.4	6.0	0.6	1.2	1.2	3.0	0.6	2.4
700만원이상	6.7	19.2	2.5	10.0	0.4	0.4	1.3	2.1	1.2	1.2
X ² (df)	87.4(36) ^{***}		69.1(36) ^{**}		-		135.1(36) ^{***}		117.6(36) ^{***}	

* $p < .05$, ** $p < .01$, *** $p < .001$

5.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 이용

1) 종류 및 개수

<표 V-5-1>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34.5%인 반면, 65.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활동 과목수는 3개 17.9%, 2개 17.0%, 4개 10.6%, 1개는 10.3%의 순이다.

아동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는 연령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은 종류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 지역 61.3%, 중소도시 68.5%, 대도시 64.5%의 아동이 1개 이상의 특별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2009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2004년도 55.7%, 2009년 41.5%, 본조사 34.5%로 이전에 비해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만 살펴보면, 2004년도에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개수는 1개이고 2009년도는 2개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3개로 조사되어 특별활동의 개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V-5-1〉 특별활동 종류 수

구분												계(수)	평균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전체	34.5	10.3	17.0	17.9	10.6	6.0	2.5	0.7	0.4	0.2	0.1	100.0(2,392)	3.0
영유아구분													
영아	49.9	8.1	14.9	14.3	7.7	3.7	0.7	0.4	0.1	0.1	-	100.0(879)	2.8
유아	26.7	11.3	18.0	19.6	12.1	7.2	3.4	0.9	0.6	0.2	0.1	100.0(1513)	3.1
X ² (df)/t													-3.7***
연령													
0세	94.2	4.8	-	-	-	-	-	-	-	-	-	100.0(125)	1.5
1세	63.4	7.4	14.9	8.1	3.2	2.6	0.3	-	-	-	-	100.0(348)	2.4
2세	28.3	9.6	18.7	22.7	12.8	5.4	1.2	0.7	0.2	0.2	-	100.0(406)	2.9
3세	23.1	13.0	19.6	21.4	10.7	6.6	3.5	1.2	0.6	0.2	-	100.0(487)	3.0
4세	28.1	11.4	16.5	21.2	11.6	5.9	3.5	0.6	0.8	0.4	-	100.0(547)	3.0
5세	28.3	10.1	17.9	17.2	13.5	8.6	3.1	0.6	0.2	0.3	0.3	100.0(479)	3.1
X ² (df)/F													5.6***
지역규모													
대도시	35.5	8.9	18.3	15.7	12.6	6.0	2.5	0.2	0.1	0.2	-	100.0(918)	3.0
중소도시	31.5	11.6	16.1	20.4	11.0	5.8	1.5	1.1	0.6	0.1	0.2	100.0(965)	3.0
읍·면	38.7	10.4	15.6	16.9	5.3	6.2	4.7	0.9	0.9	0.4	-	100.0(509)	3.1
X ² (df)/F													1.1
기관유형													
어린이집	33.5	8.4	14.9	20.1	11.4	6.8	3.2	0.9	0.5	0.2	0.1	100.0(1,536)	3.2
유치원	31.2	14.1	22.6	15.4	9.3	5.1	1.1	0.5	0.4	0.2	0.1	100.0(744)	2.7
반일제이상	65.6	8.2	4.9	7.4	11.5	0.8	1.6	-	-	-	-	100.0(92)	2.9
기타	58.3	-	16.7	8.3	-	8.3	8.3	-	-	-	-	100.0(20)	3.2
X ² (df)/F													12.5***
2009년조사													
전체	41.5	16.7	16.6	12.8	6.4	2.8	1.1	0.9	0.7	0.5	-	100.0(2,048)	
어린이집	39.4	15.3	16.8	14.4	7.7	3.4	1.0	0.9	0.7	0.3	0.1	100.0(1,341)	
2004년조사													
전체	55.7	21.4	13.3	5.9	2.2	0.4	1.0	-	-	-	-	100.0(1,605)	
어린이집	52.9	22.4	16.0	6.7	1.0	0.2	0.7	-	-	-	-	100.0(820)	

*** $p < .001$

<표 V-5-2>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에서는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이용프로그램,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실시하는 특별활동은 영어 70.5%, 체육 59.3%, 미술 44.7% 순이다. 반면, 한자는 1.5%, 영어 외 외국어 1.3%, 컴퓨터는 0.2%로 실시율이 낮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일제이상학원은 체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컴퓨터와 외국어 특별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특별활동 과목의 이용 비율이 증가되었다. 특히 미술, 음악, 체육, 영어, 교구이용 프로그램은 200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영어는 2009년 38.8%가 이용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70.5%로 크게 증가되었다. 2004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5년간 전반적으로 약간씩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조사 결과와 본 조사 결과를 보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년 간의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V-5-2 참조).

<표 V-5-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44.7	40.7	59.3	17.3	11.1	17.7	0.2	30.8	1.5	70.5	1.3	3.0
어린이집	40.9	48.2	67.2	14.0	11.8	18.1	0.2	33.9	1.5	74.4	1.5	3.0
유치원	52.4	27.1	44.7	23.4	9.8	14.6	0.2	25.1	1.5	66.1	1.1	3.1
반일제이상	33.3	38.1	61.9	14.6	11.9	48.7	-	31.7	2.4	36.6	-	2.4
기타	40.0	40.0	80.0	20.0	25.0	25.0	-	25.0	-	60.0	-	-
2009년 조사												
전체	21.1	15.7	23.1	9.2	8.1	10.4	0.5	16.1	2.6	38.8	1.1	2.7
어린이집	21.1	17.6	25.9	8.5	7.8	10.1	0.1	18.6	2.7	41.8	1.1	3.1
2004년 조사												
전체	17.0	7.6	8.3	6.8	4.7	8.0	1.9	8.0	-	21.4	-	1.4
어린이집	15.0	6.6	8.0	8.3	3.9	5.6	2.1	8.4	-	26.2	-	1.1

2) 선택 여부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가계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은 아동이 교육을 받는 영어, 체육, 음악 과목의 경우, 음악

61.2%, 체육 59.5%, 영어 57.6%가 선택의 여지없이 해당기관에 다니는 한 무조건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5-3 참조).

〈표 V-5-3〉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49.4	61.2	59.5	53.9	49.7	50.4	-	52.3	-	57.6	-	-
어린이집	55.8	63.5	59.2	67.9	57.8	55.6	100.0	57.8	53.3	58.3	53.3	76.7
유치원	42.1	57.3	64.4	40.2	34.0	48.1	-	42.8	62.5	57.1	40.0	37.5
반일제이상	14.3	20.0	19.2	16.7	20.0	11.1	66.7	7.7	-	31.3	50.0	-
기타	50.0	100.0	66.7	100.0	100.0	-	-	100.0	54.2	100.0	-	61.7
(수)	(325)	(386)	(555)	(128)	(90)	(142)	(1)	(243)	(20)	(628)	(11)	(30)

기관별 차이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면, 과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컴퓨터와 과학이 의무적으로 수강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외국어와 한자가 53.3%로 가장 낮다. 영어도 58.3%가 무조건 수강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은 체육, 한자가 어린이집에 비하여 무조건 수강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V-5-3 참조).

3) 특별활동 운영 시간 및 이용 횟수

특별활동이 어느 시간대에 운영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V-5-4>와 같다. 특별활동은 54.6%가 오후에만 운영되고 있고 오전에 운영되는 경우는 33.8%이며, 이중 오전 시간에만 운영되는 경우가 15.0%이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오후에만 운영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영유아 구분과 지역, 기관유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오후에만 운영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운영한다는 비율이 높다. 오전 운영이 어린이집 38.3%, 유치원 25.2%로 특히 어린이집이 높다.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를 보면, 영어는 2.2회, 수학 1.9회, 컴퓨터 1.9회 순으로 나타나 2~3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영어가 2.0회, 수학 1.8회, 한글 1.7회 순이고 유치원은 컴퓨터 3.0회, 영어 2.7회, 수학 2.2회, 한글 2.0회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실시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표 V-5-5 참조).

〈표 V-5-4〉 특별활동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오전에만	오후에만	모름	계(수)
전체	18.8	15.0	54.6	11.5	100.0(1,563)
영유아구분					
영아	15.6	27.4	39.9	17.1	100.0(420)
유아	20.0	10.6	59.6	9.8	100.0(1143)
X ² (df)		96.6(3) ^{***}			
연령					
0세	-	16.7	33.3	50.0	100.0(9)
1세	8.1	30.6	34.2	27.0	100.0(115)
2세	18.6	26.9	42.1	12.4	100.0(296)
3세	19.7	9.6	60.0	10.7	100.0(381)
4세	14.2	11.3	61.8	12.7	100.0(412)
5세	24.5	11.1	57.8	6.6	100.0(350)
X ² (df)		145.8(15) ^{***}			
지역규모					
대도시	20.6	13.4	56.7	9.3	100.0(591)
중소도시	17.6	13.1	57.9	11.5	100.0(657)
읍·면	17.7	22.7	41.9	17.7	100.0(315)
X ² (df)		37.6(6) ^{***}			
기관유형					
어린이집	20.1	18.2	47.3	14.5	100.0(1,005)
유치원	15.4	9.8	68.0	6.8	100.0(513)
반일제이상	39.0	2.4	48.8	9.8	100.0(35)
기타	-	25.0	75.0	-	100.0(10)
X ² (df)		-			

*** $p < .001$

〈표 V-5-5〉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1.5	1.3	1.2	1.2	1.9	1.8	1.9	1.5	1.4	2.2	1.4	1.3
어린이집	1.3	1.2	1.1	1.1	1.8	1.7	1.0	1.4	1.2	2.0	1.4	1.1
유치원	1.8	1.6	1.5	1.4	2.2	2.0	3.0	1.7	1.7	2.7	1.5	1.6
반일제이상	2.0	1.6	1.1	1.0	2.1	1.3	-	1.2	1.0	2.2	-	2.0
기타	1.1	1.0	1.1	1.0	1.0	2.9	-	1.0	-	3.4	-	-
F	20.4 ^{***}	9.6 ^{***}	15.2 ^{***}	7.5 ^{***}	1.4	2.0	-	4.5 ^{**}	1.5	30.4 ^{***}	0.1	1.6
(수)	(662)	(613)	(917)	(226)	(168)	(255)	(2)	(457)	(31)	(1,093)	(20)	(52)

** $p < .01$, *** $p < .001$

나. 특별활동 비용

1) 비용 별도 지불

<표 V-5-6>은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육비 이외에 별도 비용 지불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기존 보육·교육비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반면, 다른 과목들은 80% 이상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어 92.5%, 교구 89.6%, 과학 89.3%, 미술 89.0%, 음악 88.8%가 별도의 교육비를 내고 수업을 받는다.

시설유형별로 모든 과목에서 어린이집이 별도 비용 지불 비율이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집이 외부 강사를 이용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것이지만, 이보다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상한선을 두고 있고, 유치원 교육비는 자율화되어 있다는 데서 상당한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V-5-6>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89.0	88.8	86.9	89.3	87.4	85.4	50.0	89.6	83.3	92.5	90.9	79.2
어린이집	91.9	90.6	90.3	90.5	87.9	86.7	-	91.4	80.0	95.6	87.5	76.7
유치원	84.6	82.0	76.9	88.3	86.8	80.2	100.0	84.2	87.5	86.6	100.0	82.4
반일제이상	92.9	93.8	92.3	83.3	80.0	94.7	-	100.0	100.0	80.0	-	100.0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79.2
(수)	(662)	(613)	(917)	(226)	(168)	(255)	(2)	(457)	(31)	(1,093)	(20)	(52)

2) 특별활동 비용

다음 <표 V-5-7>은 특별활동 과목별로 지불하는 월평균 이용 비용에 관한 것이다. 월평균 이용 비용은 영어가 가장 높은 30,100원이며, 최대 18만원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프로그램의 월 평균 비용은 24,700원, 최대 13만원을 내고 있다. 미술의 월 평균 비용은 24,200원이고 최대 18만원까지 교육비를 내고 있으며, 음악은 월 평균 19,400원, 최대 1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있다.

<표 V-5-7>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별					F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미술	24.2	18.4	5.0	180.0	20.3	27.9	63.6	22.8	27.6***	(596)	
음악	19.4	12.3	5.0	100.0	18.4	19.4	45.7	15.9	14.1***	(535)	
체육	20.4	12.9	5.0	130.0	19.1	22.2	37.1	23.3	10.2***	(798)	
과학	18.4	14.4	4.0	160.0	15.4	21.1	32.4	15.8	2.6	(201)	
수학	18.9	12.4	2.0	75.0	16.2	23.9	30.0	15.9	2.7*	(146)	
한글	21.1	15.5	3.0	96.0	19.2	22.3	33.0	28.6	3.8*	(217)	
교구	24.7	17.6	3.0	130.0	23.5	25.9	42.3	19.2	4.2**	(417)	
한자	15.1	7.4	5.0	35.0	14.7	13.7	35.0	-	4.3*	(26)	
영어	30.1	22.2	5.0	180.0	25.5	39.2	64.9	17.3	40.4***	(1,027)	
외국어	19.9	9.1	8.0	40.0	19.1	21.7	-	-	0.0	(19)	
기타	22.3	11.9	6.0	50.0	16.4	31.4	30.0	-	6.3**	(42)	

* $p < .05$, ** $p < .01$, *** $p < .001$

주: 컴퓨터의 경우 사례수가 1이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비를 기관별로 보면, 영어와 미술 과목은 기관유형에 따라 월평균 비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영어의 경우 어린이집은 월 평균 25,500원을 내는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에서는 월평균 64,900원, 유치원 39,200원을 내고 있다. 미술은 유치원에서 미술교육을 받을 때는 월 평균 27,900원을 내고 있고 기타반일제 학원에서는 63,600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20,300원을 평균적으로 내고 있다.

<표 V-5-8>은 총 특별활동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5~10만원 미만 43.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3~5만원 미만 22.6%, 10~15만원 미만 12.1%, 2~3만원 미만 6.6%, 무료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66,700원이고 표준편차는 42,700원이다.

<표 V-5-8> 제 특성별 총 특별활동 이용 비용

단위:%(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 만원	2~3 만원 미만	3~5 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 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표준 편차
영유아구분												
영아	5.9	0.2	4.6	13.4	27.6	38.1	9.3	0.5	0.2	100.0(420)	54.6	31.7
유아	6.6	2.1	2.0	4.3	20.7	44.8	13.1	3.9	2.4	100.0(1,143)	70.8	45.2
$\chi^2(df)/t$						86.3(8)***					-7.7***	

(표 V-5-8 계속)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0세	28.6	-	-	14.3	57.1	-	-	-	-	100.0(9)	29.3	5.3
1세	9.8	-	7.1	25.0	30.4	24.1	2.7	0.9	-	100.0(115)	41.9	27.9
2세	3.8	0.3	4.1	9.0	26.2	44.1	11.7	0.3	0.3	100.0(296)	59.6	31.9
3세	6.2	1.9	2.1	5.9	22.3	45.6	13.7	2.1	0.3	100.0(381)	64.8	35.6
4세	7.6	1.4	2.5	3.4	20.3	50.3	11.0	2.8	0.6	100.0(412)	65.5	35.3
5세	6.2	2.8	1.5	3.6	19.8	40.1	14.5	6.2	5.3	100.0(350)	79.6	55.9
$X^2(df)/F$						-					18.2***	
지역규모												
대도시	3.8	0.3	3.7	6.1	24.0	42.6	13.2	3.3	2.9	100.0(591)	70.1	48.2
중소도시	9.1	0.6	1.8	6.5	19.8	45.2	12.6	2.8	1.5	100.0(657)	67.3	38.2
읍·면	6.2	7.2	2.9	8.0	25.4	39.1	8.3	2.5	0.4	100.0(315)	57.1	37.1
$X^2(df)/F$						102.8(16)***					8.7**	
기관유형												
어린이집	5.0	0.3	2.5	7.8	24.0	46.9	10.7	1.6	1.0	100.0(1,005)	61.7	34.8
유치원	9.0	4.1	3.4	4.8	20.4	37.3	15.1	3.2	2.7	100.0(513)	68.6	45.4
반일제이상	4.9	-	-	2.4	12.2	26.8	7.3	34.1	12.2	100.0(35)	123.2	77.0
기타	-	-	-	-	40.0	60.0	-	-	-	100.0(10)	64.3	40.6
$X^2(df)/F$						-					26.5***	

*** $p < .001$

연령별로 보면 0세는 무료가 28.6%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57.1%는 3~5만원 미만으로 평균 29,300원을 지불하고 있다. 1세는 3~5만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비용은 41,900원이다. 2세~5세 아동은 5~1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평균 비용은 각각 59,600원, 64,800원, 65,500원, 79,6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도 증가한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16,200원 정도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5~1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평균을 보면 대도시가 70,100원, 중소도시가 67,300원, 읍·면이 57,100원으로 도시로 갈수록 비용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5~1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일제이상은 15~20만원 미만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비용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61,700원, 68,600원으로 유치원이 약간 높은 정도이나 반일제이상 학원은 123,200원으로 어린이집 비용의 약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특별활동 만족도

기관 이용 아동은 상당수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무료 또는 유료로 참여하고 있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체로 3.55~3.97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과목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교구 3.87점이다.

기관별 차이는 대체로 뚜렷하지 않았으나, 교구 과목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 반일제 이상의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표 V-5-9참조).

〈표 V-5-9〉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3.81	3.80	3.81	3.85	3.80	3.85	3.87	3.65	3.75	3.55	3.97
어린이집	3.79	3.81	3.81	3.74	3.76	3.79	3.85	3.67	3.75	3.62	3.94
유치원	3.84	3.75	3.80	3.97	3.86	3.94	3.84	3.58	3.75	3.34	4.03
반일제이상	3.91	3.89	4.03	3.80	4.41	4.07	4.59	4.00	3.94	-	4.00
기타	4.42	4.00	4.25	3.67	3.45	3.66	3.82	-	3.91	-	-
F	1.4	0.6	2.3 [#]	3.7 [*]	2.2 [#]	2.2 [#]	7.3 ^{***}	0.1	0.5	1.3	0.3
(수)	662)	(611)	(917)	(226)	(167)	(255)	(456)	(31)	(1,092)	(20)	(52)

$p < .1$, * $p < .05$, *** $p < .001$
 주: 컴퓨터의 경우 사례수가 1이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라.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

제 특성별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는 <표 V-5-10>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33.0%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2.3%는 체육, 10.8%는 미술, 10.7%는 한글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는 체육이, 유아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교구, 1세, 2세는 체육, 3세~5세는 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대도시에서 그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읍·면에서는 교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면, 유치원 이용 부모는 미술, 영어, 한글을, 어린이집 아동 부모는 체육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5-10〉 제 특성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외국어	기타	계(수)
전체	10.8	8.5	22.3	2.6	1.6	10.7	0.1	8.3	0.9	33.0	0.1	0.7	100.0(1,560)
영유아구분													
영아	10.8	15.2	30.4	0.5	1.0	6.1	-	12.3	0.2	22.8	-	0.7	100.0(418)
유아	10.8	6.3	19.5	3.3	1.8	12.4	0.2	6.9	1.3	36.3	0.5	0.8	100.0(1,142)
연령													
0세	-	20.0	-	-	-	-	-	60.0	-	20.0	-	-	100.0(9)
1세	11.7	19.8	26.1	-	-	9.0	-	21.6	-	9.9	-	1.8	100.0(115)
2세	10.7	13.1	32.4	0.7	1.4	5.2	-	7.9	0.3	27.9	-	0.3	100.0(294)
3세	10.4	4.8	22.4	1.9	1.3	12.0	-	9.9	0.5	36.8	-	-	100.0(381)
4세	10.7	5.6	18.6	2.3	2.8	14.1	0.6	5.9	2.3	34.7	1.1	1.1	100.0(412)
5세	11.1	8.1	17.9	5.3	1.5	11.1	-	5.3	0.9	37.3	0.4	1.1	100.0(349)
지역규모													
대도시	10.7	9.5	22.9	1.7	1.1	9.3	0.3	5.9	0.5	37.2	0.3	0.8	100.0(591)
중소도시	11.2	7.3	21.4	3.0	2.5	11.4	-	9.4	0.7	31.7	0.6	0.7	100.0(654)
읍·면	10.1	9.1	23.2	3.6	0.7	12.7	-	11.2	2.9	26.1	-	0.4	100.0(315)
기관유형													
어린이집	8.5	9.8	26.4	1.6	1.7	9.7	-	8.5	1.2	32.0	0.4	0.3	100.0(1,003)
유치원	15.1	6.5	14.7	4.5	1.6	12.5	0.4	7.0	0.7	35.1	0.4	1.6	100.0(512)
반일제이상	9.5	0.8	26.2	-	-	11.9	-	21.4	-	26.2	-	-	100.0(35)
기타	25.0	-	25.0	-	-	-	-	-	-	50.0	-	-	100.0(1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대상 아동, 수납비용, 과목 수나 실시 시간대 등 제한이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 제한이 필요하다는 43.2%, 금액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85.7%, 24개월 미만 영아는 특별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59.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용기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5점 척도화하여 살펴보면 특별활동 시간대 제한이 필요하다는 3.1점, 금액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4.1점,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특별활동 금지는 3.6점이다. 즉,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비용, 대상 및 시간대 제한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용하는 기관별 차이는 유치원 이용 부모가 시간대 제한을 선호 비율 48.6%, 영아 특별활동 금지에 동조하는 비율 62.4%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응답 비율 각각 57.8%, 40.4%보다 다소 높았다(표 V-5-11 참조).

〈표 V-5-11〉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제한 의견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는 비율			5점 평균		
	특별활동 시간대 제한	금액 상한선	24개월미만 영아 특별활동 금지	특별활동 시간대 제한	금액 상한선	24개월미만 영아 특별활동 금지
전체	43.2	85.7	59.4	3.1	4.1	3.6
어린이집	40.4	85.0	57.8	3.1	4.1	3.5
유치원	48.6	86.9	62.4	3.3	4.1	3.6
F	-	-	-	15.1***	0.4	4.8*
(수)	(2,280)	(2,280)	(2,280)	(2,280)	(2,280)	(2,280)

* $p < .05$, *** $p < .001$

6.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가. 물리적 특성

1) 거주지와 이용 기관의 행정구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택에서 집과의 거리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므로 기관의 지역별 균등 배치는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된다.

본 조사에서는 이용기관의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용기관의 소재가 이용 영유아 가정의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행정적으로 동일한 동·읍·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시·군·구는 같더라도 읍·면·동은 다른 지역에 있는지, 혹은 아예 다른 시·군·구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6.2%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29.0%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개별적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4.7%는 시·군·구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이 접근성이 비교적 높아 같은 동·읍·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72.6%인 반면, 만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곳까지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동일 동·읍·면의 학원에 다니는 비율은 39.7%에 불과하다.

거주지내 이용기관 위치 여부를 지역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기관과 같은 동·읍·면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대도시의 경우 어린이집은 71.7%, 유치원은 52.3%이고 중소도시의 어린이집은 74.2%, 유치원은 60.1%, 읍·면은 어린이집이 71.3%, 유치원이

70.9%로 어린이집은 비슷하지만 유치원은 도시로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V-6-1 참조).

〈표 V-6-1〉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 비교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전체					
기관과 같은 동·읍·면	72.6	59.0	39.7	33.3	66.2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4.3	36.3	38.0	41.7	29.0
기관과 다른 시·군·구	3.2	4.7	22.3	25.0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X^2(df)$	158.1(6) ^{***}				
대도시					
기관과 같은 동·읍·면	71.7	52.3	46.7	-	63.8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4.4	40.1	21.7	100.0	29.4
기관과 다른 시·군·구	4.0	7.6	31.7	-	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91)	(282)	(43)	(2)	(918)
중소도시					
기관과 같은 동·읍·면	74.2	60.1	36.4	100.0	67.4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4.1	39.0	52.7	-	30.7
기관과 다른 시·군·구	1.7	0.9	10.9	-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05)	(311)	(39)	(10)	(965)
읍·면					
기관과 같은 동·읍·면	71.3	70.9	-	16.7	69.2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4.6	22.3	62.5	50.0	24.8
기관과 다른 시·군·구	4.2	6.8	37.5	33.3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40)	(151)	(10)	(8)	(509)

*** $p < .001$

이와 같은 분석을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에 비해 영아가 가까운 동일 행정구역내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영아의 경우에도 21.4%가 거주지 동·읍·면 외부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가 이용하는 기관도 상당한 수가 접근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61.7%가 거주지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표 V-6-2 참조).

〈표 V-6-2〉 영·유아별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 비교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어린 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어린 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기관과 같은 동·읍·면	76.0	25.0	42.9	-	75.4	68.6	59.2	39.5	36.4	61.7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1.0	75.0	28.6	100.0	21.4	28.0	36.1	38.6	36.4	32.8
기관과 다른 시·군·구	3.0	-	28.6	-	3.2	3.4	4.7	21.9	27.3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3)	(8)	(1)	(879)	(669)	(741)	(84)	(19)	(1,513)
X ² (df)						97.0(6) ^{***}				

*** $p < .001$

이용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다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49.1%로 가장 높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0%, 기관이 거주지 근처이나 행정구역상의 구분에 따른 결과라는 응답 10.3% 순이다(표 V-6-3 참조).

기관별 차이를 보면 어린이집은 이용하는 좋은 기관을 보내고 싶어서가 40.4%,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가 34.0%의 응답을 보였고, 유치원의 경우는 47.4%가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하고 28.9%가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64.3%가 좋은 기관을 이유로 들었다. 즉, 좋은 기관을 찾아서 보내는 비율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다소 높은 경향이다.

〈표 V-6-3〉 거주지와 이용 기관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4.0	28.9	32.1	-	31.0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40.4	47.4	64.3	66.7	49.1
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8.5	18.4	-	33.3	10.3
기타	17.0	5.3	3.6	-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7)	(48)	(18)	(4)	(137)

2) 이용기관의 주변환경

<표 V-6-4>는 조사대상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지역 주변환경을 나타

낸다. 전체적으로 일반아파트 지역이 45.0%, 주변 일반주택지역이 41.5%,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이 0.2%, 상가지역이 6.4%, 공장(단)지역 0.3%, 농·어가지역이 4.0%, 공원·녹지지역 2.5%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보면 일반주택지역이 44.7%, 일반아파트 지역이 43.2%,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이 0.2%, 상가지역이 4.0%, 공장(단)지역 0.5%, 농·어가지역이 5.4%, 공원·녹지지역 2.0% 등으로 전체 비율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일반아파트지역을 주변으로 둔 비율에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치원은 일반아파트지역에서 51.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는 특히 상가지역 주변에 많고 일반 주택지역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6-4 참조).

〈표 V-6-4〉 기관별 주변환경 특성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일반 주택지역	44.7	39.1	19.7	30.8	41.5
일반 아파트지역	43.2	51.2	28.7	23.1	45.0
영구임대 아파트지역	0.2	-	1.6	7.7	0.2
상가지역	4.0	4.3	49.2	7.7	6.4
공장(단)지역	0.5	-	-	-	0.3
농·어가지역	5.4	2.1	-	-	4.0
공원·녹지지역	2.0	3.2	0.8	30.8	2.5
기타	0.1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나. 이용 시간

1) 주당 기관 이용 일수

일주일 중 기관을 이용하는 요일의 유형을 보면 99.1%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관에 다니고 있다. 0.2%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관을 이용하며 0.4%는 격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이 소수 있고 이외 기관은 모두 주 5일 이용이다(표 V-6-5 참조).

2009년도 조사에서는 월~금요일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89.7%이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99.1%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월~금요일로 주 5일을 이용하고 있다.

〈표 V-6-5〉 주당 기관 이용 일수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단위: %(명)
						2009년 조사
월~토요일까지	0.4	-	-	-	0.2	4.5
월~토요일까지(토 격주)	0.7	-	-	-	0.4	5.3
월~금요일	98.5	100.0	100.0	100.0	99.1	89.7
일주일에 1~2번	0.1	-	-	-	0.1	
일주일에 3~4번	0.3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100.0(2,049)

2) 평일 이용시간

가) 평일 등·하원 시각

본 조사에서는 아동의 평일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을 조사하였다. 2004년 및 2009년 종전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시각과 집에 돌아오는 시각을 조사하였다.

〈표 V-6-6〉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하원 시각

등원시각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전체	
7:30까지	0.9	0.4	0.8	-	0.7	14:00까지	3.1	7.2	1.7	25.0	4.5	
7:31~8:00	8.1	5.8	-	-	6.9	14:01~15:00	8.8	22.2	40.8	58.3	15.1	
8:01~8:30	20.7	28.6	14.8	7.7	23.0	15:01~16:00	27.4	24.5	36.7	8.3	26.8	
8:31~9:00	30.2	37.0	43.4	38.5	33.2	16:01~17:00	29.9	23.6	12.5	8.3	26.8	
9:01~9:30	26.9	24.4	38.5	46.2	26.8	17:01~17:30	10.2	9.5	6.7	-	9.8	
9:31~10:00	10.6	3.8	2.5	7.7	7.9	17:31~18:00	10.3	6.8	-	-	8.6	
10:01이후	2.5	-	-	-	1.6	18:01~19:00	8.2	5.4	0.8	-	6.9	
						19:01이후	2.0	0.9	0.8	-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1)	(744)	(92)	(20)	(2,387)	(수)	(1,536)	(744)	(92)	(20)	(2,392)	

평일에 아동이 기관에 등원하는 시각을 보면, 가장 많은 33.2%의 아동이 8시 31분 이후부터 9시까지 등원하고, 다음이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가 26.8%이며 8시부터 8시 30분이 23.0%이다.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도 7.6%이다. 등원시각의 기관

별 차이는 8시까지 등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어린이집 9.0%, 유치원 6.2%이고 그 이외 기관은 아주 소수이다(표 V-6-6 참조).

하원시각은 전체적으로는 오후 4시에서 5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집에 온다는 아동 비율이 각각 26.8%, 26.8%이고 15.1%는 2~3시 사이에 집에 오고 있었다. 오후 6시 이후는 8.5%이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은 가장 많은 29.9%의 아동이 오후 4시~5시 사이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27.4%의 아동은 오후 3시~4시 사이에 귀가하였다. 유치원은 53.9%의 아동이 오후 4시까지 집으로 돌아오고, 6시 이후에 온다는 아동은 6.3%이다. 반일제이상학원은 79.2%가 오후 4시까지 집에 오고 있다.

나) 평일 이용시간

이와 같은 영유아의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²³⁾ 여기에는 이용하는 기관에 가고 오는데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

산출한 아동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6.5%, 15.9%이고 8시간 이상은 28.4%이며, 평균 7시간 23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35분이다. 기관 이용시간은 2004년도 조사 결과인 평균은 6시간 42분에 비하여 40분 정도가 길어진 것이고, 2009년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다.

기관별로 보면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이 가장 길고 기타 기관이 가장 짧다. 어린이집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5.7%, 10.5%이고 8시간 이상은 31.0%이다.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4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9분이다. 유치원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7.6%, 21.3%이고 8시간 이상은 27.5%이며, 평균은 7시간 12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31분이다. 반일제이상학원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4.9%, 44.3%이고 8시간 이상은 8.2%이며, 평균은 6시간 31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7분이다.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41.7%, 41.7%이고 평균은 5시간 26분이고 표준편차는 58분이다.

2009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특히 유치원의 평균 이용시간이 평균 34분 가량 증가하였다(표 V-6-7 참조).

23) 가정 사정 및 이동 거리에 따라서도 등원 및 하원시각이 달라지고, 이동시간이 포함되므로 기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비해서는 길 것으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20분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표 V-6-12 참조).

〈표 V-6-7〉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5시간까지	5.7	7.6	4.9	41.7	6.5
5~6시간	10.5	21.3	44.3	41.7	15.9
6~7시간	26.3	21.8	19.7	8.3	24.4
7~8시간	26.5	21.7	23.0	8.3	24.7
8~9시간	14.9	16.5	6.6	-	14.9
9~10시간	10.0	8.0	0.8	-	8.8
10시간 이상	6.1	3.0	0.8	-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평균	7시간 34분	7시간 12분	6시간 31분	5시간 26분	7시간 23분
표준편차	1시간 36분	1시간 31분	1시간 7분	58분	1시간 35분
F	-	-	29.5***	-	-
2009년 조사	7시간 45분	6시간 37분	6시간 16분	6시간 7분	7시간 21분
2004년 조사	7시간 20분	5시간 51분	6시간 20분	6시간 14분	6시간 42분

*** $p < .001$

다) 희망 이용시간

다음은 이용기관별로 희망하는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희망 등원시각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37.1%는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등원을 희망하고, 19.5%는 9시에서 9시 30분, 17.4%는 8시에서 8시 30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시 이전까지 등원하길 원한다는 응답자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시간인 8시 이전에 7.6% 정도가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당수가 일찍 등원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8시 이전만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21%, 유치원은 11.4%, 반일제 이상학원은 7.4%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일찍부터 이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 하원시각을 보면, 전체 응답자 23.8%는 15시~16시에 하원하길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17.4%는 16시 31분~17시, 14.0%는 17시 31분~18시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모든 기관에서 전체응답률 순으로 1, 2번째와 비슷하게 나왔으나 18시 이후부터 하원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22.3%가 18시 이후에 하원하기를 원했고 유치원은 12.5%, 반일제이상 학원은 3.3%만이 18시 이후에 하원을 원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자가 늦게까지 이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V-6-8 참조).

〈표 V-6-8〉 이용기관별 희망 등원시각

단위: %(명)

희망 등원시각						희망 하원시각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7:30까지	6.0	3.0	3.3	-	4.8	14:00까지	1.9	3.8	1.7	16.7	2.6
7:31~8:00	15.0	8.4	4.1	7.7	12.2	14:01~15:00	7.0	14.7	27.3	41.7	10.7
8:01~8:30	16.1	20.7	12.4	7.7	17.4	15:01~16:00	20.6	26.6	46.3	16.7	23.8
8:31~9:00	31.5	45.0	51.2	53.8	37.1	16:01~16:30	7.3	8.7	3.3	8.3	7.6
9:01~9:30	19.8	17.9	26.4	23.1	19.5	16:31~17:00	19.1	15.6	9.9	8.3	17.4
9:31~10:00	10.5	5.2	2.5	-	8.3	17:01~17:30	5.7	6.4	4.1	-	5.8
10:01이후	1.1	-	-	7.7	0.7	17:31~18:00	16.1	11.7	4.1	-	14.0
						18:00~19:00	12.4	8.5	1.7	8.3	10.5
						19:00~19:30	3.1	1.5	0.8	-	2.4
						19:31이후	6.8	2.5	0.8	-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수)	(1,536)	(744)	(92)	(20)	(2,392)

〈표 V-6-9〉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5시간까지	4.0	4.7	3.3	23.1	4.3
5~6시간	9.4	15.3	27.9	30.8	12.4
6~7시간	19.1	22.6	32.0	23.1	20.9
7~8시간	21.6	22.1	21.3	7.7	21.7
8~9시간	15.6	17.5	9.8	7.7	15.9
9~10시간	12.6	8.1	3.3	7.7	10.6
10~11시간	9.0	6.4	0.8	-	7.7
11시간 이상	8.7	3.2	1.6	-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36)	(744)	(92)	(20)	(2,392)
평균	8시간 21분	7시간 45분	6시간 59분	6시간 17분	8시간 4분
표준편차	2시간 1분	1시간 42분	1시간 22분	1시간 23분	1시간 56분
F			35.2***		

*** $p < .001$

이용기관별로 총 희망 이용시간을 산출한 결과, 21.7%가 7~8시간이고, 20.9%는 6~7시간, 15.9%는 8~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은 어린이집은 21.6%가 7~8시간 이용을 희망했고, 유치원은 6~7시간과 7~8시간이 모두 22%대로 유사하고 반일제 이상학원은 32.0%가 6~7시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9 참조).

평균적으로 희망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은 8시간 21분, 유치원 7시간 45분, 반일제

이상학원 6시간 59분, 기타 6시간 17분으로 실제 이용시간보다 평균 40분 정도 길다. 이와 같은 실제 이용시간에 비하여 희망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현상은 2009년 보육실태조사나 다른 이용시간 조사(서문희·양미선, 2011)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부모들이 시간 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등·하원 방법 및 시간

1) 등·하원 방법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등·하원 방법은 <표 V-6-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원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54.6%로 가장 많고,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33.3%, 가족이 자가용으로 아동을 데려다주는 경우가 10.7%이다. 아동 혼자서 걸어가거나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일부 있다. 등원시 기관별 차량 이용 비율은 반일제이상학원이 95.9%로 가장 높고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간다는 비율은 어린이집이 40.7%로 가장 높다. 이용 기관 차이는 어린이집이 기관 차량 이용 비율이 낮고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간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하원 방법은 등원 방법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등원 방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가족과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 보호자와 걸어서 등·하원 한다는 비율도 이전 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에 비해 거주지 근처에서 등·하원 하는 영유아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표 V-6-10 참조).

<표 V-6-10>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가족과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자녀혼자걸 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54.6	10.7	0.4	0.9	33.3	0.2	100.0(2,392)
어린이집	46.4	12.0	0.6	0.1	40.7	0.2	100.0(1,536)
유치원	63.4	9.4	0.1	2.3	24.4	0.4	100.0(744)
반일제이상	95.9	1.7	-	-	2.5	-	100.0(92)
기타	58.3	25.0	-	-	16.7	-	100.0(20)

(표 V-6-10 계속)

구분	기관차량 이용	가족과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자녀혼자걸 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하원							
전체	55.7	9.5	0.7	1.2	32.4	0.5	100.0(2,392)
어린이집	47.6	10.8	1.0	0.4	39.9	0.3	100.0(1,536)
유치원	64.6	8.3	0.1	2.8	23.1	1.1	100.0(744)
반일제이상	95.0	1.7	0.8	-	2.5	-	100.0(92)
기타	76.9	7.7	-	-	15.4	-	100.0(20)
2009년 조사							
등원	60.5	8.5	0.7	2.3	28.0	-	100.0(2,046)
하원	62.2	7.3	0.9	2.5	27.1	-	100.0(2,043)
2004년 조사							
등원	68.0	7.3	0.4	8.6	14.7		100.0(1,608)
하원	69.7	6.0	0.5	9.2	13.5	0.1	100.0(1,609)

<표 V-6-11>은 차량 동승자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94.5%가 등·하원시 교사가 동승한다고 응답하였고 등원시에만 동승하는 경우가 2.4%, 하원시에만 동승하는 경우가 2.3%이며, 교사 없이 차량을 운행한다는 경우는 0.4%로 극소수이었다.

〈표 V-6-11〉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 동승	하원시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름	
전체	94.5	2.4	2.3	0.4	0.3	100.0(1,422)
어린이집	92.8	2.5	4.1	0.1	0.5	100.0(812)
유치원	96.9	2.2	0.4	0.5	-	100.0(508)
반일제이상	96.6	3.4	-	-	-	100.0(86)
기타	80.0	-	-	20.0	-	100.0(16)

2) 등·하원 시간

다음은 차량을 이용하든, 걸어가든 집에서 보육·교육기관까지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6분이며, 73.4%가 10분 이하, 20.3%가 11~20분, 5.4%가 21~30분, 0.8%가 31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균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의 순서로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표 V-6-12 참조).

〈표 V-6-12〉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시간

구분					계(수)	단위: %(명), 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73.4	20.3	5.4	0.8	100.0(2,392)	10.6	7.1	
어린이집	78.7	15.5	4.7	1.1	100.0(1,536)	9.7	7.2	
유치원	68.3	24.7	6.5	0.5	100.0(744)	11.6	7.0	20.9***
반일제이상	40.5	52.1	7.4	-	100.0(92)	13.7	5.9	
기타	90.9	9.1	-	-	100.0(20)	9.8	8.6	

*** $p < .001$

라.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1) 기관에서 강조하는 내용

기관장의 운영 방침을 보호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관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보육·교육기관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부모가 인식하는 바를 토대로 기관의 장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부모에게 운영 방침 또는 장점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균형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 자유놀이 중심활동,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특별활동프로그램, 충분한 휴식, 기타 등 10가지 항목을 놓고 기관장이 강조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먼저 1순위를 보면 <표 V-6-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성지도를 가장 강조한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균형 있는 발달 13.8%, 안전한 보호 13.2%, 자유놀이 중심활동 9.4%이다.

2012년 조사결과는 대부분 영역에서 이전 조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안전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관이 2004년도에는 7.8%, 2009년도에는 10.5%, 2012년 조사에서는 13.2%로 다소 증가한 반면,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2004년도에는 7.2%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것이 2009년 조사에서는 3.7%로, 2012년도에는 3.0%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용기관별 차이로는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 유치원은 인성지도, 반일제 학원은 인지교육에서 각기 다른 기관보다 비율이 높다.

〈표 V-6-13〉 이용기관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단위: %(명)

구분	1순위					2009년 조사	2순위				
	어린이 집	유치 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어린이 집	유치 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균형있는 발달 인성지도	11.6	16.6	22.0	16.7	13.8	12.2	16.4	20.0	16.5	25.0	17.6
안전한 보호	46.7	65.9	34.1	83.3	52.6	55.3	21.1	20.2	29.8	16.7	21.2
자유놀이 활동	18.7	4.1	8.1	-	13.2	10.5	15.6	11.0	5.8	-	13.5
급간식·건강관리	11.4	5.2	13.8	-	9.4	6.6	16.5	17.4	16.5	16.7	16.8
인지교육	5.3	2.2	0.8	-	4.0	5.8	12.1	7.5	0.8	-	10.0
자녀 부모 관계	1.7	2.5	11.4	-	2.4	4.1	3.3	7.0	16.5	8.3	5.2
특별활동	1.9	0.6	0.8	-	1.4	1.2	4.5	7.4	3.3	25.0	5.5
충분한 휴식	2.7	2.7	8.9	-	3.0	3.7	9.4	8.6	9.9	-	9.1
없음	0.1	-	-	-	-	0.3	0.8	0.1	-	-	0.5
기타	0.1	0.2	-	-	0.1	-	0.1	0.2	-	8.3	0.2
계	-	-	-	-	-	0.3	0.4	0.5	0.8	-	0.4
(수)	100.0 (1,536)	100.0 (744)	100.0 (92)	100.0 (20)	100.0 (2,392)	100.0 (2,047)	100.0 (1,536)	100.0 (744)	100.0 (92)	100.0 (20)	100.0 (2,392)

2순위 결과도 전체적으로는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기관별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모두 인성지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관리가 비교적 높고, 유치원의 경우는 균형있는 발달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제도권 두 기관과 비교하여 인성지도, 인지교육의 비율이 높다(표 V-6-13 참조).

2) 부모서비스 및 참여

부모서비스는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 자녀발달평가 등 정보의 제공과 부모상담에 대해서 제공여부와 도움되는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고 부모상담 등을 통해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육기관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부모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보육·교육 계획표는 기관에서 아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보육·교육 계획 제공 빈도는 매주 1회 77.1%로 가장 많고, 월 1회 21.1%가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 큰 차이 없이 모두 주 1회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급간식단 제공은 월 1회 65.1%이고 매주 31.3%이며 2.9%가 매

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통신은 매주 1회 제공 54.8%, 매일 제공 36.1%이며 월 1회 제공은 6.2%이다.

〈표 V-6-14〉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빈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전체	2009년 조사	2004년 조사
보육교육계획							
매일	1.0	0.5	2.5	-	0.9	3.4	0.9
매주 1회	74.5	84.8	57.5	76.9	77.1	79.8	81.5
월 1회	23.7	14.7	31.7	23.1	21.1	15.5	15.4
기타	0.1	-	3.4	-	0.2	-	-
제공 안함	0.3	-	-	-	0.2	-	-
모름	0.3	-	5.0	-	0.4	1.4	2.1
급간식 식단							
매일	3.2	2.3	3.3	-	2.9	4.7	1.6
매주 1회	30.9	33.0	23.1	50.0	31.3	39.1	49.0
월 1회	65.5	64.1	68.6	41.7	65.1	53.6	40.8
기타	-	0.1	-	-	-	-	-
제공 안함	0.1	0.4	-	8.3	0.2	-	-
모름	0.3	-	5.0	-	0.4	2.6	8.7
가정통신문							
매일	45.1	22.5	28.7	15.4	36.6	40.6	19.6
매주 1회	46.7	69.8	52.5	69.2	54.8	49.0	60.7
월 1회	5.9	5.4	13.9	15.4	6.2	6.4	11.9
기타	1.4	1.3	-	-	1.3	0.6	2.2
제공 안함	0.5	1.1	-	-	0.7	-	-
모름	0.3	-	4.9	-	0.4	3.3	5.6
발달평가							
매일	7.6	0.9	1.7	-	5.1	9.0	1.7
매주 1회	6.3	5.7	6.6	8.3	6.1	6.4	5.8
월 1회	14.3	19.2	29.8	-	16.6	10.4	10.0
분기 1회	17.5	26.6	43.0	50.0	22.0	17.3	13.7
연 1~2회	21.6	26.5	9.9	16.7	22.6	19.2	19.7
제공 안함	19.2	12.9	3.3	16.7	16.3	24.6	49.1
모름	13.4	8.3	5.8	8.3	11.3	13.0	-
부모상담							
매일	2.5	0.4	2.5	-	1.8	1.7	-
매주 1회	3.9	1.1	7.4	-	3.1	2.1	-
월 1회	7.0	6.4	9.0	-	6.9	9.8	-
분기 1회	26.6	35.1	41.8	16.7	30.1	20.5	-
연 1~2회	48.3	53.8	22.1	75.0	48.9	41.0	-
제공 안함	6.1	1.6	4.9	8.3	4.6	12.7	-
모름	5.6	1.7	12.3	-	4.6	12.3	-

(표 V-6-14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전체	2009년 조사	2004년 조사
부모교육 자료							
매일	0.6	2.5	3.3	-	1.3	-	-
매주 1회	17.3	15.9	7.4	36.4	16.4	-	-
월 1회	29.1	25.7	28.7	9.1	27.8	-	-
분기 1회	10.4	19.6	22.1	18.2	14.0	-	-
연 1~2회	18.0	23.0	9.8	18.2	19.3	-	-
제공 안함	14.4	5.9	14.8	18.2	11.6	-	-
모름	10.2	7.4	13.9	-	9.4	-	-
계(수)	100.0(1,536)	100.0(744)	100.0(92)	100.0(20)	100.0(2,392)	100.0(2,050)	100.0(1,610)

발달평가에 대한 통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6.3%로 다른 정보 제공에 비하여 높고 부모가 보육·교육 기관으로부터 발달평가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는 비율 또한 11.3%이다. 반면, 5.1%가 매일, 16.6%가 월 1회, 22.6%가 연 1~2회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사하지만, 어린이집은 매일 제공한다는 비율이 7.6%로 다른 기관들보다 높다.

부모 상담은 연 1~2회 제공한다고 가장 많다. 분기 1회가 30.1%, 월 1회가 6.9%이며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6%,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는 비율 또한 4.6%이다. 부모교육 자료에 대한 통지는 월 1회 제공한다는 비율이 27.8%, 연 1~2회는 19.3%인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V-6-14 참조).

3) 기관 이용의 부모 지원 효과

보육·교육기관에 아동을 보내는 것이 가정 또는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 및 구직활동, 업무 또는 가사의 능률 향상, 여가·취미활동, 육아기술·지식 확대, 학업 및 취업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기타 등의 아홉 가지 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V-6-15>를 보면, 전체적으로 양육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경우가 93.8%로 가장 높았고, 가사를 포함한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가 88.9%로 그 다음 순으로 높았다. 육아기술·지식 확대 64.3%, 여가·취미활동 51.9%, 가족갈등 완화 51.1%, 취업 및 구직 36.8%의 순서로 도움된다고 하였다. 기관유형별로 모든 영역에서 전체 응답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5점 척도화하여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이집이 취업 및 구직과 양육부

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고, 반일제이상학원이 여가·취미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균이 가장 높고, 이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V-6-15〉 기관유형별 도움 정도: 5점 척도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타	단위: %(명), 점	
						(수)	$\chi^2(df)/F$
도움된다는 비율							
취업 및 구직	36.8	38.8	35.3	23.1	33.3	(852)	13.1(3)**
업무 능력 향상	88.9	89.4	89.3	80.2	91.7	(2,124)	10.0(3)*
여가·취미활동	51.9	50.6	51.3	70.5	58.3	(1,237)	18.2(3)***
육아기술·지식	64.3	63.4	65.7	66.9	58.3	(1,551)	1.8(3)
학업 훈련	13.1	12.6	13.6	15.6	8.3	(335)	1.3(3)
양육부담 완화	93.8	94.7	92.7	89.3	100.0	(2,238)	9.1(3)*
추가 출산	16.4	18.6	12.8	13.1	25.0	(419)	14.2(3)**
가족갈등 완화	51.1	52.0	51.2	38.5	58.3	(1,276)	8.4(3)*
기타	100.0	100.0	100.0	-	-	(4)	-
5점 평균							
취업 및 구직	4.12	4.13	4.09	4.09	4.74	(852)	1.9
업무 능력 향상	4.04	4.06	4.01	3.96	4.20	(2,124)	2.4#
여가·취미활동	3.96	3.94	3.96	4.15	4.12	(1,237)	3.1*
육아기술·지식	3.84	3.86	3.80	3.81	4.06	(1,551)	1.4
학업 훈련	3.92	3.94	3.85	4.14	4.35	(335)	1.6
양육부담 완화	4.09	4.13	4.04	3.98	3.82	(2,238)	6.6***
추가 출산	3.99	4.04	3.90	3.73	4.11	(419)	2.0
가족갈등 완화	3.87	3.88	3.87	3.68	3.82	(1,276)	2.0
기타	4.16	4.00	5.00	.	.	(4)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아동의 연령, 영유아구분, 지역,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V-6-16 참조).

먼저 자녀 연령 구분에 따르는 보육·교육 기관의 도움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분에서도 대부분 영역에서 유아보다는 영아가 조금 더 만족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이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취업 및 구직, 여가·취미활동, 육아기술·지식, 가족갈등 완화 측면에서 도움 받은 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취업한 모의 경우 취업 및 구직에 도움 정도가 미취업 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취업 및 구직에 도움 정도와 학업 훈련이 더 높

게 나타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6-16〉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의 도움 정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취업 및 구직	업무능 률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 술·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 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기타
전체	4.12	4.04	3.96	3.84	3.92	4.09	3.99	3.87	4.16
영유아구분									
영아	4.19	4.07	3.94	3.85	4.03	4.17	4.12	3.88	4.00
유아	4.08	4.02	3.97	3.83	3.87	4.05	3.90	3.87	4.21
t	2.7**	2.0#	-0.8	0.6	2.0*	4.7***	3.4**	0.2	-0.5
연령									
0세	4.31	4.23	4.23	3.98	4.35	4.30	4.26	3.96	4.00
1세	4.19	4.10	3.93	3.84	4.05	4.21	4.10	3.88	-
2세	4.14	4.01	3.88	3.83	3.89	4.11	4.11	3.84	4.00
3세	4.05	4.02	3.95	3.85	3.88	4.07	3.93	3.90	-
4세	4.05	4.02	3.96	3.88	4.01	4.02	4.03	3.87	4.21
5세	4.13	4.02	4.00	3.78	3.78	4.07	3.71	3.85	-
F	2.8*	3.6**	3.1**	2.0#	3.2**	7.4***	4.4**	0.7	0.1
지역규모									
대도시	4.09	4.04	3.92	3.77	3.87	4.08	3.97	3.87	4.42
중소도시	4.13	4.03	3.95	3.83	3.87	4.10	3.96	3.84	4.00
읍·면	4.17	4.04	4.08	3.98	4.14	4.09	4.11	3.94	-
F	1.2	0.2	5.7**	12.7***	4.1*	0.3	1.3	2.7#	1.3
모취업 여부									
취업	4.15	4.07	3.91	3.85	3.95	4.10	3.98	3.93	4.16
휴직중	4.24	4.12	3.96	3.74	3.49	4.16	4.21	3.93	-
미취업	3.97	4.01	3.98	3.83	3.92	4.08	3.98	3.83	-
부재 등	4.13	4.13	4.29	3.51	5.00	4.34	4.00	3.90	-
F	5.6**	2.5#	1.4	0.8	2.0	1.8	0.6	3.6*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10	4.06	3.79	3.71	3.09	4.05	4.12	3.80	-
150~199만원	3.98	3.93	3.84	3.76	3.84	4.04	4.01	3.71	-
200~249만원	4.11	4.07	3.95	3.81	3.85	4.12	3.96	3.82	-
250~299만원	4.10	4.06	3.94	3.81	3.98	4.18	4.05	4.00	4.00
300~349만원	3.99	4.02	3.97	3.85	3.93	4.11	4.00	3.91	-
350~399만원	4.13	4.02	3.85	3.83	3.88	4.11	3.75	3.76	-
400~499만원	4.16	4.05	3.97	3.88	3.90	4.04	4.04	3.90	4.00
500~599만원	4.28	4.13	4.18	3.98	3.89	4.18	4.07	3.89	4.68
600~699만원	4.26	3.99	4.01	3.78	3.99	4.04	3.90	3.86	-
700만원 이상	4.01	3.99	3.95	3.78	4.19	3.89	3.91	3.85	-
F	2.7**	2.1*	3.1**	2.0 ^o	1.8#	4.3***	0.8	2.9**	2.3
(수)	(902)	(2,177)	(1,270)	(1,574)	(320)	(2,297)	(402)	(1,250)	(6)

$p < .1$, * $p < .05$, ** $p < .01$, *** $p < .001$

4) 누리과정 인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존 과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누리과정을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는 <표 V-6-17>과 같다.

먼저 누리과정 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 59.4%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20.9%는 매우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잘 모른다는 응답도 19.7%로 나와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부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6.2%인 반면에 읍·면은 16.7%만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중소도시 25.8%, 읍·면 20.4%, 대도시 13.9%로 대도시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지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인지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V-6-17>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이용 부모의 누리과정 관련 인식: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인지				기존 과정과의 차이				만족 정도		
	매우 잘 알	어 느 정 도 알	잘 모 름	계(수)	없 음	어 느 정 도 있 음	많 은 차 이 있 음	계(수)	만족 비율	평균	(수)
전체	20.9	59.4	19.7	100.0(460)	46.7	49.7	3.6	100.0(375)	44.9	3.42	(375)
지역규모											
대도시	26.2	59.9	13.9	100.0(188)	41.9	52.1	6.0	100.0(165)	51.2	3.46	(165)
중소도시	17.0	57.2	25.8	100.0(179)	47.9	50.3	1.8	100.0(139)	37.1	3.37	(139)
읍·면	16.7	63.0	20.4	100.0(93)	56.3	42.5	1.1	100.0(71)	44.8	3.41	(71)
X ² (df)/F		15.0(4)**				10.5(4)*				0.9	
기관유형											
어린이집	22.1	54.9	23.1	100.0(150)	52.7	45.3	2.0	100.0(118)	48.0	3.46	(118)
유치원	20.4	61.8	17.8	100.0(310)	44.1	51.9	4.0	100.0(257)	43.3	3.40	(257)
X ² (df)/t		3.1(2)				3.7(2)				1.2	

* $p < .05$, ** $p < .01$

누리과정을 안다는 경우에 그 내용이 기존 과정과 차이에 대하여 46.7%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49.7%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41.9%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중소도시는 47.9%, 읍·면은 56.3%가 응답하여 대도시보다는 읍·면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은 52.7%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유치원은 44.1%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누리과정을 아는 경우, 44.9%가 누리과정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누리과정을 안다는 비율은 유치원 이용 부모가 높고, 인지한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서 다소 높다. 이러한 경향은 이용 아동의 연령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V-6-17 참조).

5) 건강검진

본 조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기관에서의 건강검진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V-6-18〉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건강검진관리

단위: %(명)

구분	건강검진			안내			제출			계(수)
	받음	안 받음	잘 모름	받음	안 받음	잘 모름	제출	미제출	잘 모름	
전체	77.8	21.0	1.2	89.8	8.3	1.9	73.0	25.5	1.6	100.0(2,280)
영유아구분										
영아	78.2	20.9	0.9	89.3	9.3	1.4	75.0	23.5	1.5	100.0(870)
유아	77.6	21.0	1.4	90.0	7.7	2.3	71.9	26.5	1.6	100.0(1,410)
X ² (df)		1.2(2)			3.8(2)			2.5(2)		
연령										
0세	67.3	30.8	1.9	84.6	12.5	2.9	63.5	34.6	1.9	100.0(125)
1세	77.1	22.2	0.7	87.9	11.1	1.0	72.5	25.8	1.6	100.0(346)
2세	81.9	17.3	0.8	91.7	7.0	1.3	79.9	19.1	1.0	100.0(399)
3세	80.4	18.3	1.3	88.5	8.5	3.0	74.8	23.9	1.3	100.0(459)
4세	76.2	21.4	2.4	89.5	7.9	2.6	69.4	27.9	2.6	100.0(506)
5세	76.5	22.8	0.7	91.5	7.1	1.4	71.6	27.2	1.2	100.0(445)
X ² (df)		21.7(10)*			15.7(10)			21.9(10)*		
지역규모										
대도시	79.7	19.6	0.7	90.8	7.7	1.5	72.9	25.4	1.7	100.0(873)
중소도시	73.8	24.5	1.7	89.1	9.0	2.0	70.2	28.1	1.7	100.0(916)
읍·면	82.0	16.7	1.4	89.0	7.8	3.2	79.2	19.9	0.9	100.0(491)
X ² (df)		17.2(4)**			5.7(4)			12.4(4)*		
기관유형										
어린이집	81.4	17.9	0.7	91.5	7.6	0.9	77.1	21.9	1.0	100.0(1,536)
유치원	71.1	26.6	2.2	86.5	9.6	3.8	65.5	31.9	2.6	100.0(744)
X ² (df)		36.6(2)***			26.8(2)***			38.9(2)***		

* p < .05, ** p < .01, *** p < .001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77.8%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고 21.0%는 받은 적이 없다. 연령별로 보면 0세가 67.3%로 다소 낮고, 그 이외 연령은 77~82%에 분포한다.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79.7%, 중소도시는 73.8%, 읍·면은 82.0%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읍·면이 더 높게 나타났고,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아동은 81.4%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유치원 원아는 71.1%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한편, 보육·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받았다는 비율은 89.8%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고 일관성도 없으며,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거의 없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 91.5%, 유치원 86.5%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다소 높았다.

건강검진 후 보육·교육기관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73.0%는 제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5.5%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제출 비율이 영아는 75.0%, 유아는 71.9%이고, 연령별로는 0세는 63.5%로 다소 낮고, 1세는 72.5%, 2세 79.9%, 3세 74.8%, 4세 69.4%, 5세 71.6%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72.9%보다는 읍·면이 79.2%로 높고,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이 77.1%로 유치원 65.5%보다 높았다.

마.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만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술하였다.

1) 기관 전반에 대한 만족도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의 13가지 항목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가지 보기를 주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표 V-6-19>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여 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V-6-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3개 항목 중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 76.7%이며 교육내용 73.7%, 원장 73.6% 순이다.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부모참여 51.8%이고 이외 부모교육 및 상담, 비용 역시

50%대로 모두 만족도가 낮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기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만족도가 거의 비슷하다. 13개 항목 만족 비율 평균이 어린이집과 반일제이상 학원은 65%, 유치원은 66%, 기타 기관은 79% 수준인데 항목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집은 부모참여와 부모교육 및 상담 부문이 가장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고 유치원은 비용이 44.8%로 만족도가 낮으며, 반일제이상학원은 비용이 25.0%인 반면에 교육내용은 만족한다는 비율은 91.7%이다.

2004년, 2009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2004년도 실태조사가 4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족한다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반일제이상학원과 기타는 2009년도에 비교했을 때 약 15~20% 정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V-6-19 참조).

〈표 V-6-19〉 이용기관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수)
원장	73.6	75.1	70.0	76.9	83.3	(2,391)
교사	76.7	76.5	75.6	84.3	100.0	(2,391)
주변환경	61.2	59.4	66.3	47.1	75.0	(2,391)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64.6	62.2	70.4	56.2	58.3	(2,391)
교재교구 및 장비	65.0	62.7	67.4	76.2	75.0	(2,391)
내부 분위기	70.9	68.2	74.4	80.2	81.8	(2,391)
비용	53.9	61.0	44.8	25.0	66.7	(2,391)
건강관리	67.7	68.4	66.8	62.8	83.3	(2,391)
급간식관리	69.1	70.2	66.6	70.0	83.3	(2,391)
안전관리	71.8	73.1	69.2	73.6	75.0	(2,391)
교육내용	73.7	71.3	75.2	91.7	91.7	(2,391)
부모참여	51.8	47.7	59.4	47.9	75.0	(2,391)
부모교육 및 상담	52.4	50.8	54.9	53.7	75.0	(2,391)
전체 평균	65.6	65.1	66.2	65.1	78.7	(2,391)
2009년 조사	63.8	63.1	66.5	57.4	57.9	(2,043)
2004년 조사	78.7	78.7	81.6	72.7	81.2	(1,484)

주: 2004년도 조사는 4점 척도이고, 2009년과 2011년도 조사는 5점 척도임. 2004년, 2009년 기타는 선교원임.

<표 V-6-20>에서는 만족 정도를 5점 척도화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전체 기관 13개 항목 전체 평균은 3.51~3.92점 사이로 항목별로는 교사 3.92점, 원장 3.86점, 교육내용 3.81점, 내부 분위기와 안전관리는 각각 3.79점, 급간식관리 3.76점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비용 3.52점, 부모참여 3.51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은 교사가 3.90점, 유치원은 교사가 3.96점, 반일제이상학원은 교육내용이 4.03점, 기타가 교사가 4.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04년과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2004년도는 4점 척도이므로 이를 감안하고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는 약간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만족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V-6-20 참조).

〈표 V-6-20〉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	(수)	F
원장	3.86	3.87	3.86	3.81	4.12	(2,391)	0.7
교사	3.92	3.90	3.96	3.90	4.30	(2,391)	2.3 [#]
주변환경	3.63	3.60	3.72	3.28	3.97	(2,391)	12.8 ^{***}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68	3.64	3.79	3.47	3.63	(2,391)	10.2 ^{***}
교재교구 및 장비	3.70	3.66	3.77	3.78	3.95	(2,391)	5.4 ^{**}
내부 분위기	3.79	3.75	3.84	3.91	4.01	(2,391)	5.7 ^{**}
비용	3.52	3.65	3.37	2.76	3.80	(2,391)	45.3 ^{***}
건강관리	3.74	3.74	3.75	3.63	4.08	(2,391)	2.2 [#]
급간식관리	3.76	3.77	3.75	3.69	4.05	(2,391)	1.1
안전관리	3.79	3.80	3.78	3.77	3.96	(2,391)	0.4
교육내용	3.81	3.77	3.85	4.03	4.18	(2,391)	16.9 ^{***}
부모참여	3.51	3.44	3.65	3.45	4.02	(2,391)	3.9 ^{**}
부모교육 및 상담	3.53	3.49	3.58	3.50	3.94	(2,391)	3.7 [*]
전체 평균	3.71	3.70	3.74	3.61	4.00	(2,391)	
2009년 조사	3.69	3.68	3.72	3.55	3.47	(2,042)	
2004년 조사	3.58	3.58	3.64	3.46	3.63	(2,043)	

$p <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004년도 조사는 4점 척도이고, 2009년과 2011년도 조사는 5점 척도임. 2004년, 2009년 기타는 선교원임.

2004년,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의 만족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2004년은 4점 척도, 2009년과 2012년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두 100점으로 환산하여 환산한 점수로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V-6-21>과 같다. 기관 만족도는 2009년 대비 2012년 평균 0.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항목 중 7개 항목은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비용이 4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변환경으로 2.0점이 증가하였다. 교재교구 및 장비, 부모 참여는 0.8점이 증가하였고 교육내용은 0.6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은 0.4점이 증가하였으며 주변환경은 0.2점이 증가하였다. 이외에 부모교육 및 상담은 변화가 없고, 원장, 교사, 내부분위기,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6개 항목은 낮아졌다.

사실 최근 3년간 보육서비스의 질은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이러한 응답 배경에는 부모들의 기대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6-21〉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변화(2004, 2009, 2012)

단위: 점

구분	2004년(수=1,042)		2009년(수=2,042)		2012년(수=2,449)		100점 환산 변화량
	4점 평균	100점 환산	5점 평균	100점 환산	5점 평균	100점 환산	
원장	3.08(0.48)	77.0	3.91(0.72)	78.2	3.86(0.76)	77.2	▽1.0
교사	3.06(0.52)	76.5	3.96(0.68)	79.2	3.92(0.76)	78.4	▽0.8
주변환경	2.80(0.60)	70.0	3.53(0.80)	70.6	3.63(0.81)	72.6	△2.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2.76(0.60)	69.0	3.66(0.78)	73.2	3.68(0.77)	73.6	△0.4
교재교구 및 장비	2.84(0.56)	71.0	3.66(0.70)	73.2	3.70(0.72)	74.0	△0.8
내부 분위기	2.94(0.52)	73.5	3.81(0.65)	76.2	3.79(0.68)	75.8	▽0.4
비용	2.69(0.65)	67.3	3.32(1.01)	66.4	3.52(0.95)	70.4	△4.0
건강관리	2.88(0.54)	72.0	3.71(0.69)	74.2	3.74(0.67)	74.8	▽0.6
급간식관리	2.91(0.55)	72.8	3.78(0.74)	75.6	3.76(0.74)	75.2	▽0.4
안전관리	2.94(0.49)	73.5	3.80(0.68)	76.0	3.79(0.69)	75.8	▽0.2
교육내용	2.97(0.49)	74.3	3.78(0.65)	75.6	3.81(0.65)	76.2	△0.6
부모참여	2.70(0.62)	67.5	3.47(0.76)	69.4	3.51(0.76)	70.2	△0.8
부모교육 및 상담	2.67(0.65)	66.8	3.53(0.76)	70.6	3.53(0.76)	70.6	-
평균	2.86	71.5	3.69	73.8	3.71	74.2	△0.4

2) 개선 요구 사항

본 조사에서는 기관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13가지 항목을 보기로 주고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6-22>는 이러한 조사 결과 중 1, 2순위로 응답한 사항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개선사항은 비용으로 19.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시설설비 14.2%, 주변환경 12.3%이다.

이용하는 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주변환경과 시설설비가 각각 13.3%, 1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비용은 전체보다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V-6-22〉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어린 이집	유치 원	선교 원	반일제 영어 학원	반일제 미술 학원	전체	어린 이집	유치 원	선교 원	반일제 영어 학원	반일제 미술 학원
원장	2.8	2.9	3.0	-	1.1	-	2.8	2.9	3.0	-	1.1	-
교사	4.8	5.8	3.7	-	-	-	4.8	5.8	3.7	-	-	-
주변환경	12.3	13.3	9.8	16.7	18.4	12.9	12.3	13.3	9.8	16.7	18.4	12.9
설비·실내환경	14.2	15.2	11.5	50.0	19.5	9.7	14.2	15.2	11.5	50.0	19.5	9.7
교재교구·장비	8.7	9.6	8.1	-	-	9.7	8.7	9.6	8.1	-	-	9.7
내부 분위기	3.1	3.4	2.8	8.3	-	3.2	3.1	3.4	2.8	8.3	-	3.2
비용	19.6	12.5	29.4	16.7	41.4	45.2	19.6	12.5	29.4	16.7	41.4	45.2
건강관리	5.2	6.7	3.3	-	-	3.2	5.2	6.7	3.3	-	-	3.2
급간식관리	6.4	6.4	7.0	-	2.3	3.2	6.4	6.4	7.0	-	2.3	3.2
안전관리	5.1	5.2	5.1	-	4.6	6.5	5.1	5.2	5.1	-	4.6	6.5
교육내용	4.3	4.0	5.7	-	-	-	4.3	4.0	5.7	-	-	-
부모참여	8.6	10.5	5.2	-	11.5	3.2	8.6	10.5	5.2	-	11.5	3.2
부모교육·상담	4.7	4.6	5.3	8.3	1.1	3.2	4.7	4.6	5.3	8.3	1.1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25)	(1,483)	(730)	(20)	(65)	(27)	(2,325)	(1,483)	(730)	(20)	(65)	(27)

유치원의 경우, 비용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설비는 11.5%로 다른 보육·교육 기관보다는 비율이 낮았다. 선교원은 시설설비·실내환경이 50.0%로 가장 높았다. 주변환경이나 부모교육 및 상담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은 비용이 41.4%로 다른 기관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았고,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주변환경과 시설설비 비율이 높고 부모 참여 비율이 높다. 반일제이상 미술 등 학원도 영어 학원과 마찬가지로 비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설설비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용기관별 개선사항 2순위를 살펴보면, 교재교구비 및 장비, 급간식관리, 부모교육 및 상담 비율이 11% 수준으로 높았다(표 V-6-22 참조).

7.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교육 기관의 보편적 이용이 정책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반일제이상 기관 처음 이용 시기는 평균 37.3개월로,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이용 이유는 사회성 발달 26.9%, 돌보기 어렵기 때문은 24.6%, 전인적 발달은 16.9%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이용 이유도 사회성 발달 28.8%, 전인적 발달 28.3%이고 대리보호는 12.6%, 초등학교 준비 12.1%,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9.7%, 같이 놀 또래 필요성 3.7%, 예·체능교육 2.6% 순이다.

둘째, 개인서비스 이용과 요구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조사 결과 친조부모 15.2%, 외조부모 16.6%, 친인척 2.9%이다. 아동 중 26.9%는 기관과 개인, 9.6%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한다.

셋째, 접근성의 중요성과 제고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가 접근성이다. 그러나 이용하는 기관은 29.0%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0%이다.

넷째,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는 프로그램이다. 연령과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보호자의 23.5%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고, 그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65,300원이다.

다섯째, 국공립 보육·교육기관의 확충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육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률은 22.6%이고, 기간은 평균 6.4개월인데, 입소 대기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3.7%로 다수이다.

여섯째,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하면서 부모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무상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평균은 161,700원으로 소득대비 5.0%이다. 2009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53,500원이 줄었고, 가구소득대비 7.7%에서 5.0%로 줄었다. 그러나 순보육·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86,900원, 24,800원이고, 반일제 이상 학원이 677,900원이고, 추가 비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106,900원, 63,900원이고, 학원이 154,400원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사항도 비용으로 19.6%이다.

영유아 가구당 보육·교육 비용 지출은 261,3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6.6%

인데, 2009년 조사 결과인 335,0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 14.1%와 비교하여 부모 부담이 많이 줄었다. 또한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전체 아동 평균은 208,7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5.4%인데, 이 역시 2009년 대비 비용은 유사하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6.4%에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4.0%는 보육·교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다.

일곱째, 취약보육은 여전히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 긴급시 돌보아 주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는 비율은 1% 미만이고,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시간제 보육 0.9%이고, 시간연장보육이 0.8%이며, 나머지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1% 내외이다. 그러나 취약보육의 필요성은 상시 필요가 시간제 보육 12.1%, 시간연장보육 7.8%, 24시간보육 필요성 11.2%, 토요일 보육 필요성 22.5%, 휴일보육 필요성 11.7%이다.

여덟째, 특별활동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아동의 65.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오전 실시 비율은 어린이집은 38.3%, 유치원 25.2%이다. 의무 수강도 전체적으로 음악 61.2%, 체육 59.5%, 영어 57.6% 등으로 특별활동 의무 수강이 높다. 부모들 의견은 특별활동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43.2%, 금액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85.7%, 24개월 미만 영아는 특별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59.4%로 나타났다. 비용은 평균은 66,700원이고 표준편차는 42,700원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61,700원, 68,600원, 반일제 이상 학원은 123,200원이다.

아홉째, 어린이집 운영 주 5일제 정착과 운영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아동의 99.1%가 주 5일 이용한다. 평일 평균 7시간 23분으로 2009년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은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반일제 이상 학원 6시간 31분이다.

열번째, 부모에게 정보 및 자료 제공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누리과정 이용 부모의 20.9%는 누리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잘 모른다 응답은 19.7%이다.

열한번째,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 건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건강검진 사전 안내 비율은 어린이집 91.5%, 유치원은 86.5%이고, 검진 결과 제출은 어린이집 77.1%, 유치원 65.5%이다. 건강검진 비율은 어린이집은 81.4%, 유치원은 71.1%이다.

열두번째, 개선 필요성 가장 많이 응답한 개선사항은 비용 이외에 시설설비 14.2%, 주변환경 12.3%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시설설비와 주변환경, 유치원은 비용이 가장 높다.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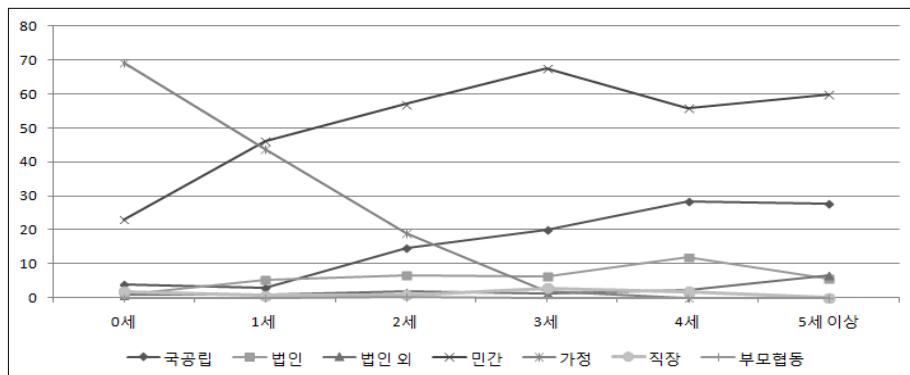
제6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어린이집 이용 행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개선 요구 등을 영유아의 연령 및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어린이집 이용 아동 특성

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총 1,536명이다.

[그림 VI-1-1]은 아동 연령을 1월 1일 보육연령으로 환산하여 연령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전반적 경향은 가정어린이집은 3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1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2세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VI-1-1]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나.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1) 영유아 특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536명의 특성별 이용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VI-1-1>과 같이,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54.7%로 절반 이상이고, 가정 19.0%, 국공립 16.2% 순이다²⁴⁾. 나머지는 5% 내외이다.

이용 아동 연령으로 보면, 영아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48.4%, 34.9%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8.9%로 적었다. 유아도 민간어린이집이 61.5%로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24.7%로 영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0세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고, 1세는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2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에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취업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취업 형태보다도 많았고, 미취업모는 민간어린이집, 휴직중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 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VI-1-1 참조).

〈표 VI-1-1〉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구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계(수)	X ² (df)
전체	16.2	6.5	2.2	54.7	19.0	1.3	0.1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8.9	5.3	1.4	48.4	34.9	0.9	0.1	100.0(867)	308.8(6)***
유아	24.7	8.0	3.1	61.5	0.9	1.7	-	100.0(669)	
연령									
0세	3.8	1.0	1.0	23.1	69.2	1.9	-	100.0(125)	
1세	3.0	5.2	1.0	46.2	43.9	0.7	-	100.0(345)	
2세	14.7	6.6	1.8	57.0	19.0	0.8	0.3	100.0(397)	-
3세	20.1	6.4	1.4	67.5	1.8	2.8	-	100.0(298)	
4세	28.2	11.8	2.3	55.9	-	1.8	-	100.0(227)	
5세 이상	27.7	5.6	6.7	60.0	-	-	-	100.0(144)	
지역규모									
대도시	18.7	7.5	1.8	55.5	15.2	1.4	-	100.0(591)	
중소도시	11.9	4.3	1.4	57.6	23.9	1.0	-	100.0(605)	53.3(12)***
읍·면	19.7	9.3	4.8	46.4	18.0	1.4	0.3	100.0(340)	

24) 보육통계와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과대 표집되었음.

(표 VI-1-1 계속)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계(수)	X ² (df)
모취업 여부									
취업	20.1	7.2	2.6	49.5	18.1	2.6	-	100.0(613)	
휴직중	6.7	11.1	2.2	31.1	44.4	4.4	-	100.0(48)	-
미취업	13.4	5.9	1.8	59.9	18.8	0.1	0.1	100.0(862)	
부채 등	41.2	5.9	-	47.1	5.9	-	-	100.0(13)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5.0	5.0	-	57.5	22.5	-	-	100.0(41)	
150~199만원	14.3	8.3	3.0	63.9	10.5	-	-	100.0(127)	
200~249만원	10.9	7.1	5.5	60.1	14.8	1.1	0.5	100.0(188)	
250~299만원	18.0	10.9	1.1	52.6	16.9	0.4	-	100.0(272)	
300~349만원	15.5	5.0	2.3	52.1	24.7	0.5	-	100.0(238)	
350~399만원	13.8	8.7	0.7	59.4	17.4	-	-	100.0(141)	-
400~499만원	19.1	5.5	2.3	53.5	18.8	0.8	-	100.0(254)	
500~599만원	15.4	2.3	1.5	53.8	23.8	3.1	-	100.0(139)	
600~699만원	37.3	-	1.5	29.9	28.4	3.0	-	100.0(62)	
700만원 이상	5.4	6.8	2.7	55.4	21.6	8.1	-	100.0(74)	

*** $p < .001$

2) 모 취업 특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모 취업 형태를 조사한 결과, 모가 미취업인 경우가 54.1%로 가장 많고, 취업모 41.5%, 휴직중 3.1% 순이다. 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미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 비율은 0세 아동 47.1%에서 2세 37.1%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가 휴직중인 경우는 0세가 9.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이는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VI-1-2 참조).

〈표 VI-1-2〉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별 모 취업 특성

구분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부채	단위: %(명) 계(수)
전체	41.5	3.1	54.1	1.2	100.0(1,536)
0세	47.1	9.6	43.3	-	100.0(125)
1세	39.5	2.0	57.8	0.7	100.0(345)
2세	37.1	5.1	55.1	2.8	100.0(397)
3세	39.8	2.1	57.4	0.7	100.0(298)
4세	48.2	1.8	49.1	0.9	100.0(227)
5세	45.7	0.5	53.3	0.5	100.0(144)

3) 보육료 지원 여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아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은 6.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는다.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중 전액 지원이 92.8%로 다수였고, 0.8%만이 일부 감면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영아는 100%가 지원을 받지만, 유아 중 13.7%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나머지 86.2%는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받았다. 만3, 4세 중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은 3세 21.6%, 4세 15.9%로 3세가 많은데, 이들은 소득상위 30%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VI-1-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면제 및 감면 여부

구분	전액 지원	일부 감면	아무 혜택 없음	단위: %(명) 계(수)
전체	92.8	0.8	6.4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100.0	-	-	100.0(867)
유아	84.5	1.7	13.7	100.0(669)
연령				
0세	100.0	-	-	100.0(125)
1세	100.0	-	-	100.0(345)
2세	100.0	-	-	100.0(397)
3세	74.6	3.9	21.6	100.0(298)
4세	83.6	0.5	15.9	100.0(227)
5세	100.0	-	-	100.0(144)
지역규모				
대도시	91.7	0.2	8.1	100.0(591)
중소도시	92.8	1.9	5.3	100.0(605)
읍·면	95.2	-	4.8	100.0(340)
모취업 여부				
취업	91.2	0.6	8.2	100.0(613)
휴직중	93.5	-	6.5	100.0(48)
미취업	93.8	1.0	5.3	100.0(862)
부재 등	100.0	-	-	100.0(1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88.2	-	11.8	100.0(173)
법인	91.9	-	8.1	100.0(115)
법인·단체 등	93.9	-	6.1	100.0(37)
민간	92.4	1.5	6.1	100.0(872)
가정	99.3	-	0.7	100.0(309)
직장	63.2	5.3	31.6	100.0(29)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모가 취업중일 때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않는 아동이 많았고, 직장어린이집 31.6%와 국공립어린이집 11.8%는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가. 어린이집의 입지

1)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행정구역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 어린이집의 소재지와 이용 영유아 가정의 거주지를 비교하였다. 응답자 72.6%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7.3%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3.1%는 기관과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기관에 다니고 있었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다소 높아져서 어린이집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VI-2-1 참조).

〈표 VI-2-1〉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 비교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2009년	2004년
같은 동·읍·면	81.1	38.8	51.5	73.0	80.8	31.6	100.0	72.6	68.7	65.6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5.2	58.2	45.5	24.4	17.8	21.1	-	24.2	29.1	29.3
기관과 다른 시·군·구	3.7	3.1	3.0	2.6	1.4	47.4	-	3.1	2.2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1,536)	(1,342)	(819)

주: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임.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같은 동·읍·면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국공립 81.1%, 가정 80.8%로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직장어린이집은 행정구역이 다른 곳까지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47.4%로 높았다(표 VI-2-1 참조).

지역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 74.2%,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각각 71.7%, 71.1%로 세 지역 모두 3/4 정도가 동일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중소도시는 접근성이 개선된 반면, 읍·면지역은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동일 동·읍·면에 속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은 도시지역이 높았다(표 VI-2-2 참조).

〈표 VI-2-2〉 지역별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의 비교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2009년	2004년
대도시										
같은 동·읍·면	76.3	40.4	63.6	73.3	83.2	-	-	71.7	74.2	62.9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7.8	53.2	36.4	24.1	15.8	33.3	-	24.2	22.1	30.1
기관과 다른 시·군·구	5.9	6.4	-	2.6	1.1	66.7	-	4.1	3.7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수)	(82)	(51)	(11)	(340)	(97)	(10)		(591)	(492)	(345)
중소도시										
같은 동·읍·면	74.3	36.0	62.5	74.3	82.7	50.0	-	74.2	57.8	57.5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1.4	64.0	37.5	24.6	16.5	16.7	-	24.1	40.9	38.1
기관과 다른 시·군·구	4.3	-	-	1.2	0.7	33.3	-	1.7	1.3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수)	(54)	(26)	(11)	(350)	(150)	(14)		(605)	(601)	(268)
읍·면										
같은 동·읍·면	98.2	39.3	35.7	69.6	71.7	66.7	100.0	71.1	84.7	80.6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8	60.7	57.1	24.4	24.5	-	-	24.7	14.1	16.5
기관과 다른 시·군·구	-	-	7.1	5.9	3.8	33.3	-	4.1	1.2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7)	(38)	(15)	(182)	(62)	(5)	(1)	(340)	(248)	(206)

거주지 내 어린이집 위치 여부를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아에 비해 영아가 거주지와 가까운 동일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아의 경우 24%가 거주지와 다른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유아 31.3%는 행정구역이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유아보다 영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열악했다. 그러나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 어린이집 접근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VI-2-3 참조).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아 76.7%와 유아 82.2%가 동일 동·읍·면에 속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영아보다 유아의 접근성이 높았다. 반면에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동일 동·읍·면 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81.2%, 76.2%이지만, 유아는 동일 동·읍·면에 속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66.7%, 70.2%로 영아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표 VI-2-3〉 영유아별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의 비교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2009년	2004년
영아										
같은 동·읍·면	76.7	47.6	54.5	76.2	81.2	50.0	100.0	76.0	71.5	58.9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7.8	52.4	36.4	20.5	17.4	16.7	-	21.0	26.3	33.3
기관과 다른 시·군·구	5.5	-	9.1	3.3	1.4	33.3	-	3.0	2.2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9)	(53)	(14)	(435)	(304)	(11)	(1)	(867)	(552)	(129)
유아										
같은 동·읍·면	82.2	32.1	52.2	70.2	66.7	23.1	-	68.7	66.7	66.8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4.4	62.5	47.8	27.9	33.3	23.1	-	27.9	31.3	28.6
기관과 다른 시·군·구	3.4	5.4	-	1.9	-	53.8	-	3.4	2.2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수)	(124)	(62)	(23)	(437)	(5)	(18)		(669)	(790)	(690)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거주지와 동일한 동·읍·면 내 기관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모가 미취업인 경우 76.2%로 취업모 67.3%보다 높아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다소 높다(표 VI-2-4 참조).

〈표 VI-2-4〉 영유아별 거주지와 어린이집 위치의 비교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취업모								
같은 동·읍·면	84.0	20.0	64.7	69.7	68.1	18.8	-	67.3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1.2	73.3	29.4	27.1	30.1	25.0	-	27.8
기관과 다른 시·군·구	4.8	6.7	5.9	3.2	1.8	56.3	-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수)	(87)	(46)	(18)	(326)	(113)	(23)		(613)
미취업모								
같은 동·읍·면	76.1	56.3	31.3	76.0	87.7	-	100.0	76.2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21.1	43.8	62.5	22.1	11.0	-	-	21.9
기관과 다른 시·군·구	2.8	-	6.3	1.8	1.3	-	-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수)	(80)	(63)	(17)	(521)	(177)	(3)	(1)	(862)

2) 거주지와 어린이집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가) 어린이집 유형별 비교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41.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 31.3%, 집 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서가 8.3% 순이다.

〈표 VI-2-5〉 거주지와 어린이집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구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33.3	-	45.5	33.3	33.3	31.3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66.7	66.7	50.0	22.7	33.3	55.6	41.7
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기타	-	-	-	18.2	-	-	8.3
	33.3	-	50.0	13.6	33.3	11.1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	(2)	(2)	(38)	(6)	(11)	(67)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각각 66.7%로 높은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주변에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어서가 45.5%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가 상이하였다(표 VI-2-5 참조).

나) 지역 및 아동연령별 비교

지역 및 아동연령별로 거주지와 어린이집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영아 43.5%, 유아 37.5%로 영아가 유아보다 다소 높았다. 즉, 영아가 유아보다 접근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일부는 좋은 기관을 찾아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3% 정도 증가하여 질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 외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대도시는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이유와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많았다(표 VI-2-6 참조).

〈표 VI-2-6〉 거주지와 어린이집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전체	2009년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0.4	37.5	38.5	10.0	45.5	34.0	35.9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43.5	37.5	38.5	60.0	27.3	40.4	37.6
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13.0	4.2	7.7	-	18.2	8.5	11.5
기타	13.0	20.8	15.4	30.0	9.1	17.0	1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6)	(31)	(30)	(12)	(25)	(67)	(418)

3) 어린이집의 주변환경

<표 VI-2-7>은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환경을 조사한 결과이다. 일반 주택 지역과 아파트지역이 88% 정도 된다. 취약지역인 농어가지역과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5% 내외로 소수이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은 줄고, 일반 아파트지역이 1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증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표 VI-2-7〉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 규모별 주변환경 특성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어린이집 유형						전체	2009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일반 주택지역	51.7	40.2	38.6	57.7	43.9	45.5	50.2	19.9	10.5	44.7	47.1
일반 아파트지역	39.9	51.3	33.4	31.7	11.2	18.2	39.1	79.4	26.3	43.1	34.8
영구임대아파트지역	-	0.5	-	0.8	-	-	0.1	-	-	0.2	0.4
상가지역	4.6	3.9	2.8	4.5	5.1	3.0	3.6	0.7	57.9	4.0	9.1
공장(단)지역	0.8	0.2	0.7	0.8	-	3.0	0.5	-	5.3	0.5	1.0
농·어가지역	2.6	0.5	21.4	0.8	34.7	27.3	4.3	-	-	5.3	6.1
공원·녹지지역	0.5	3.1	3.1	3.7	5.1	3.0	1.9	-	-	2.1	1.0
기타	-	0.3	-	-	-	-	0.2	-	-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91)	(605)	(340)	(173)	(115)	(37)	(872)	(309)	(29)	(1,535)	(1,342)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아파트지역이 79.4%로 다수이고, 직장어린이집은 상가지역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은 일반 주택지역이 40~50%대이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아파트 지역이 31.7%, 법인은 농어가 지역이 34.7%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어린이집 절반 이

상이 일반 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중소도시는 일반 주택단지와 아파트지역이 대부분이고, 읍·면지역은 농어가 지역이 21.4%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

1) 이용 이유

다음 <표 VI-2-8>은 어린이집 이용 이유를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취업 여부별로 나타낸 표이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사회성 발달이 32.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인적 발달 22.2%, 부모 대리보호 18.0%, 양육부담 경감 14.3% 순이다. 이외에 초등학교 준비나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특기교육 등은 5% 내외이다.

<표 VI-2-8>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구분	단위: %(명)							2009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전인적 발달	28.3	20.2	36.4	23.8	11.5	22.2	22.2	28.5
초등학교 준비	5.7	4.0	6.1	5.7	-	-	4.4	4.5
특기교육	0.8	-	-	0.5	0.3	-	0.5	0.9
부모 대리보호	16.4	18.2	12.1	16.1	24.0	44.4	18.0	29.0
사회성 발달	30.7	37.4	27.3	33.8	28.9	27.8	32.4	29.0
같이 놀 친구 없음	3.7	11.1	12.1	4.6	5.9	-	5.2	7.7
기타	0.4	1.0	-	0.2	0.3	-	0.4	0.4
양육 부담 경감	11.5	4.0	6.1	12.8	26.5	5.6	14.3	-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2.5	4.0	-	2.4	2.4	-	2.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536)	(1,343)

2009년 조사에서는 전인적 발달, 부모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 다소 높아지고 전인적 발달은 낮아졌다. 특히 부모 대리보호는 10% 이상 낮아진 대신 양육 부담경감 비율이 높아졌다. 즉, 어린이집 이용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용 어린이집별로도 사회성 발달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양육부담 경감이 26.5%, 부모 대리보호가 24%로 사회성 발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직장어린이집은 부모 대리보호가 44.4%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높

았다.

어린이집 이용 이유를 아동 연령별로 보아도 전반적으로 사회성 발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영아는 부모 대리보호와 양육부담 경감이 유아보다 높고, 유아는 전인발달이 영아보다 높아 연령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0세는 부모 대리보호와 양육부담 경감이 가장 많고, 1세는 사회성 발달과 부모 대리보호, 2~4세는 사회성 발달, 전인적 발달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5세는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외에도 초등학교 준비가 높게 나타나 4세 이하와 차이를 보인다(표 VI-2-9 참조).

〈표 VI-2-9〉 영유아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인적 발달	17.9	27.3	5.8	14.8	23.3	27.5	27.5	27.4
초등학교 준비	-	9.4	-	-	-	1.4	6.0	24.9
특기교육	0.1	0.9	-	-	0.3	1.1	0.5	1.0
부모대리보호	21.7	13.7	36.5	22.3	17.5	18.0	11.5	10.2
사회성 발달	31.4	33.8	8.7	33.4	35.7	39.1	35.8	23.9
같이 놀 친구 없음	6.6	3.6	2.9	8.2	6.3	3.5	5.0	2.0
기타	0.2	0.6	-	0.3	0.3	0.4	0.9	0.5
양육 부담 경감	19.3	8.6	38.5	18.0	15.2	8.5	7.8	9.1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2.7	2.1	7.7	3.0	1.5	0.7	5.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표 VI-2-10〉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전인적 발달	21.3	23.5	21.6	19.3	17.0	25.2	5.6
초등학교 준비	3.8	4.3	6.2	4.5	-	4.8	-
특기교육	0.3	0.3	1.0	-	-	0.9	-
부모 대리보호	19.9	17.4	15.5	34.5	23.4	4.4	44.4
사회성 발달	32.1	31.7	34.7	24.0	34.0	39.3	11.1
같이 놀 친구 없음	5.2	3.7	7.9	4.3	-	6.3	-
기타	0.3	0.5	0.3	0.2	2.1	0.5	-
양육 부담 경감	13.8	15.8	12.0	11.8	21.3	15.3	38.9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3.2	2.7	0.7	1.4	2.1	3.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91)	(605)	(340)	(613)	(48)	(862)	(13)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사회적 발달, 전인적 발달, 부모 대리보호, 양육부담 경감 순으로 많았다. 도시지역은 읍면지역보다 부모 대리보호와 양육부담 경감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모는 부모 대리보호가 34.5%로 휴직중이나 미취업모보다 높았으며, 양육부담 경감이 휴직 중 21.3%, 미취업 모 15.3%로 취업모 11.8%보다 높았다(표 VI-2-10 참조).

2) 대리보호 인력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 의사

부모가 취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중 16.2%가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고, 80.4%는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겠다고 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 21.8%가 아무데도 안 보내겠다고 응답한데 반해 유아는 6.2%로 영아가 기관 변경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유아는 현 기관을 계속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유아는 돌볼 사람이 있어도 기관 이용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표 VI-2-11〉 영유아 및 연령별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 어린이집 변경 의향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영아	유아	전체
아무데도 안 보냄	21.8	6.2	39.5	20.9	11.6	11.5	-	-	16.2	35.5	11.6	25.7
다른 기관으로 옮김	2.9	4.1	-	6.0	1.4	5.8	4.0	-	3.3	4.3	9.6	6.2
현 기관에 계속 보냄	75.3	89.7	60.5	73.1	87.0	82.7	96.0	100.0	80.4	60.2	78.8	6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5)	(92)	(47)	(81)	(67)	(45)	(30)	(17)	(287)	(552)	(790)	(385)
X ² (df)	11.3(2)**											

** p < .01

자녀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0세가 39.5%로 가장 많고, 1세 20.9%, 2세와 3세가 11.6%, 11.5%로 낮아졌다. 특히 1세는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영아와 유아 모두 낮아졌고, 대신 현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는 비율은 10%p 이상 높아져서 기관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 현 이용기관 이용 시기

1) 최초 이용 시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처음 어린이집을 이용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생후 28.3개월부터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2-12 참조).

〈표 VI-2-1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3.6	14.2 (173)	31.1	14.5 (115)	37.5	17.4 (37)	29.9	12.8 (872)	17.1	9.0 (309)	29.8	15.1 (29)	28.3	13.9 (1,536)
영유아구분														
영아	22.3	9.4 (49)	22.7	8.1 (53)	27.2	9.0 (14)	23.3	8.6 (435)	16.7	8.4 (304)	19.1	8.3 (11)	20.9	9.1 (867)
유아	38.2	13.3 (124)	37.6	15.0 (62)	42.5	18.4 (23)	35.8	13.1 (437)	37.2	16.3 (5)	35.5	15.0 (18)	36.8	13.6 (669)
t	-10.6***		-6.3***		-3.2**		-16.3***		-3.0**		-3.1**		-26.2***	
지역규모														
대도시	32.7	15.2 (82)	31.5	14.7 (51)	30.4	12.8 (11)	29.6	13.0 (340)	17.2	9.6 (97)	36.3	12.9 (10)	28.6	14.0 (591)
중소 도시	35.7	14.1 (54)	29.5	14.0 (26)	32.4	11.8 (11)	30.0	12.3 (350)	16.9	9.0 (150)	28.2	16.4 (14)	27.6	13.5 (605)
읍·면	32.7	11.9 (37)	32.0	15.0 (38)	45.9	20.2 (15)	30.1	13.6 (182)	17.3	7.9 (62)	16.6	10.8 (5)	29.1	14.5 (340)
F	1.16		0.2		3.3#		0.1		0.1		2.7#		1.4	
모취업여부														
취업	30.3	13.9 (87)	32.7	16.1 (46)	28.6	11.1 (18)	28.4	13.7 (326)	15.0	9.0 (113)	30.7	14.9 (23)	26.7	14.3 (613)
휴직중	25.4	18.4 (4)	37.3	17.1 (5)	34.9	9.6 (2)	27.8	16.7 (16)	14.2	9.0 (18)	14.7	7.7 (3)	22.3	15.3 (48)
미취업	37.7	13.9 (80)	28.8	12.4 (63)	47.1	18.8 (17)	31.2	11.9 (521)	19.1	8.6 (177)	45.8	- (3)	30.0	13.3 (862)
모부재	30.8	0.6 (2)	40	(1)	-	-	13.7	5.9 (9)	3	(1)	-	-	21.2	11.1 (13)
F	6.1***		1.0		-		7.9***		6.6***		1.4		11.1***	

$p < .1$, ** $p < .01$, *** $p < .001$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17.1개월, 직장 29.8개월, 민간 29.9개월 순으로 빠르고,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은 30개월 이상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이용시기가 이르며, 영아 평균 20.9개월, 유아 36.8개월로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평균 16.7개월로 가장 이르고, 유아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시 35.5개월로 가장 빨랐다. 2009년 조사는 30.7개월로 약 2개월 정도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도시일수록, 직장어린이집은 읍·면지역일수록 이용시기가 빨랐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휴직중이 22.3개월로 가장

빠르지만, 취업모 26.7개월, 미취업모 30.0개월, 모 부재 등이 21.2개월 순으로 모 부재와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이 빨랐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집별로 보면,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가장 빠르고 미취업이 가장 늦었다(표 VI-2-12 참조).

2) 현 이용기관 이용 기간

다음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몇 개월째 다니고 있는지를 조사한 표이다. 조사결과, 평균 14.8개월로 2009년 조사보다 2개월 정도 길어졌다.

〈표 VI-2-13〉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8.8	14.3 (173)	16.1	12.0 (115)	17.9	17.6 (37)	15.8	13.2 (872)	8.1	7.4 (309)	13.9	11.7 (29)	14.8	13.0 (1,536)
영유아구분														
영아	10.7	9.2 (49)	9.3	7.1 (53)	5.1	4.7 (14)	8.2	6.9 (435)	7.9	7.0 (304)	8.7	6.4 (11)	8.3	7.2 (867)
유아	22.1	14.7 (124)	21.3	12.4 (62)	24.1	18.3 (23)	22.7	13.7 (437)	16.7	16.5 (5)	16.7	13.1 (18)	22.4	14.0 (669)
t		-7.3***		-6.0***		-4.6***		-19.5***		-1.3		-1.8#		-23.9***
지역규모														
대도시	20.9	15.5 (82)	16.7	12.6 (51)	19.2	20.4 (11)	16.2	13.9 (340)	8.7	6.7 (97)	12.9	10.1 (10)	16.0	13.8 (591)
중소 도시	16.9	14.4 (54)	14.3	10.1 (26)	19.1	16.3 (11)	16.1	12.9 (350)	7.9	8.2 (150)	11.8	14.4 (14)	14.2	12.6 (605)
읍·면	16.7	10.8 (37)	16.6	12.9 (38)	16.2	17.0 (15)	14.2	11.7 (182)	7.4	6.2 (62)	20.0	11.67 (5)	13.8	11.5 (340)
F		2.6#		0.3		0.1		1.2		0.6		0.6		4.1†
모취업여부														
취업	21.3	15.6 (87)	17.1	11.6 (46)	30.2	17.2 (18)	17.8	13.1 (326)	9.2	8.0 (113)	13.4	11.5 (23)	17.1	13.6 (613)
휴직중	19.4	13.9 (4)	6.8	11.4 (5)	4.0	0.0 (2)	8.7	8.8 (16)	12.0	8.7 (18)	19.9	19.0 (3)	11.0	9.8 (48)
미취업	16.7	12.3 (80)	16.4	12.2 (63)	6.2	6.3 (17)	14.5	12.9 (521)	6.6	6.2 (177)	11.0	(3)	13.2	12.2 (862)
모부재	5.0	3.6 (2)	2.0	(1)			32.7	14.2 (9)	26.0	(1)	-		19.7	17.3 (13)
F		4.4**		1.5		14.2***		10.3***		7.2***		0.3		13.0***

$p < .1$, * $p < .05$, ** $p < .01$, *** $p < .001$

이용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8.8개월로 가장 길고, 가정어린이집이 8.1개월로 가장 짧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지역이 도시일수록 이용기간이 길었다. 아동 연령별로는 영아가 8.3개월, 유아 22.4개월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와 유아 간에 이용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모가 부재 중인 경우 19.7개월, 취업모 17.1개월, 미취업

13.2개월, 휴직중 11.0개월로 모 부재와 취업모 자녀의 이용기간이 가장 길었다.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주당 기관 이용 일수

일주일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요일의 유형을 보면, 98.4%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1% 정도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 중 반 정도는 격주로 토요일에도 다니고 있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9년 88.5%로 10%p 정도 높아졌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반대로 낮아졌다. 이는 주 5일 근무 확대 등 부모의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표 VI-2-14 참조).

영유아 및 연령별로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비율이 95% 내외로 가장 많았다. 특히 0세 3.8%는 일주일에 3~4번, 5세 이상 3.1%는 토요일 격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연령보다 높았다.

<표 VI-2-14>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월~토요일까지	0.6	0.3	-	1.0	0.5	0.4	-	0.5	0.5	5.8
월~토요일까지(토 격주)	0.1	1.3	1.0	-	-	1.1	-	3.1	0.7	4.9
월~금요일	98.5	98.3	94.2	98.7	99.5	98.2	100.0	96.4	98.4	88.5
일주일에 1~2번	0.2	-	1.0	0.3	-	-	-	-	0.1	0.8
일주일에 3~4번	0.5	0.1	3.8	-	-	0.4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1,342)

이를 지역이나 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표 VI-2-15>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에 높았다. 특히 취업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또는 토요일 격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을 하지 않는 미취업모보다 많았다.

〈표 VI-2-15〉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부재
월~토요일까지	0.6	0.2	0.3	1.0	-	0.1	-
월~토요일까지(토 격주)	0.6	1.0	0.3	1.1	-	0.5	-
월~금요일	97.9	98.3	99.3	97.4	97.8	99.0	100.0
일주일에 1~2번	0.3	0.2	-	0.2	2.2	-	-
일주일에 3~4번	0.5	0.3	-	0.3	-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91)	(605)	(340)	(613)	(48)	(862)	(13)

4) 이용 시간

가) 등·하원 시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평일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을 조사하였다. 등·하원 시각은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시각과 집에 돌아오는 시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용 아동의 평일 어린이집 등원시각은 다수인 30.2%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원하고, 9시부터 9시 30분 26.9%, 8시부터 8시 30분 20.7% 순으로 많았다. 오전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은 9.1%로 많았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5% 정도 낮아졌고, 8시 이전과 오전 9시 30분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오전 9시 30분 이후는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표 VI-2-16〉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1.6	0.3	2.9	2.6	0.5	0.4	0.5	-	1.0	2.1	
7:31~8:00	7.5	8.7	13.3	8.2	5.3	5.6	11.0	10.3	8.1	7.4	
8:01~8:30	14.6	27.6	11.4	13.5	16.5	23.2	31.5	29.7	20.7	18.4	
8:31~9:00	29.2	31.3	20.0	26.6	33.5	32.4	31.1	30.8	30.2	35.9	
9:01~9:30	29.3	24.2	19.0	32.2	29.9	32.0	17.8	20.0	26.9	26.4	
9:31~10:00	14.1	6.6	25.7	12.5	12.2	6.0	7.3	6.7	10.6	7.7	
10:01이후	3.6	1.3	7.6	4.3	2.0	0.4	0.9	2.6	2.5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4)	(667)	(125)	(343)	(396)	(297)	(226)	(144)	(1,531)	(1,343)	
X ² (df)	70.1(6) ^{***}		150.7(30) ^{***}								

*** p < .001

영유아 연령별로 보면, 0세와 1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모두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특히, 0, 1세아가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이르게 등원하는 비율이 높아 7시 30분 이전이 0세 2.9%, 1세 2.6%이었다. 0세와 1세는 8시 이전과 9시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도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유아 80% 이상이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등원하며, 영아에 비해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아는 9시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I-2-17>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 및 거주지역, 모취업별로 등원 시각을 조사한 것이다. 가정과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모두 8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아동 70~80%가 등원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아동 절반 정도가 8시 이전에 등원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많고, 법인과 법인·단체 등, 민간어린이집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가정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등원하는 아동이 많았다.

<표 VI-2-1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7:30까지	0.8	2.0	-	0.2	2.8	5.6	0.8	1.2	1.0	1.8	2.2	0.1	5.6
7:31~8:00	8.6	11.2	2.9	7.0	8.0	44.4	8.3	6.8	10.1	16.4	4.3	2.1	-
8:01~8:30	29.4	28.6	17.6	20.9	10.4	27.8	18.0	19.5	29.2	33.0	10.9	12.3	5.6
8:31~9:00	20.0	32.7	47.1	34.1	26.4	11.1	25.4	34.4	31.9	23.8	39.1	34.3	44.4
9:01~9:30	22.9	18.4	32.4	28.4	29.2	11.1	28.9	28.8	19.1	17.0	28.3	34.8	5.6
9:31~10:00	14.3	7.1	-	7.9	18.1	-	14.3	8.0	7.6	5.6	10.9	13.8	33.3
10:01이후	4.1	-	-	1.5	5.2	-	4.3	1.2	1.0	2.4	4.3	2.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0)	(309)	(26)	(591)	(601)	(339)	(608)	(48)	(862)	(13)
X ² (df)							61.2(12) ^{***}						

*** p < .001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 영유아가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많고, 9시 30분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은 반대로 도시지역이 많았다. 모취업에 따라서는 8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취업모 18.2%, 모가 휴직중인 경우 6.5%, 미취업모 2.2%로 취업모 자녀인 경우가 많으며, 9시 30분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은 취업모 자녀가 8%인 반면 휴직중과 미취업모 자녀가 15.2%, 16.4%로 2배 정도 많았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을 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0%가 오후 4시

에서 5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며, 27.5%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원하고 있었다. 특히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11.9%로 10%의 오후 6시 이후보다 다소 많았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귀가하는 비율은 2009년보다 10%p 이상 늘었다.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2004년보다 늘어났지만 2009년보다는 감소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가 유아보다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높아 영아 14.1%, 유아 9.5%이었다. 오후 6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0세와 1세가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34%, 1세 14.7%이고, 오후 6시 이후는 0세가 19.4%로 가장 많고, 다음은 4세 12.7%, 3세 11.7% 순으로 많았다.

〈표 VI-2-18〉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2004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5.3	0.6	16.5	7.2	0.8	0.7	1.4	-	3.1	3.6	10.3
14:01~15:00	8.8	8.9	17.5	7.5	7.4	9.9	5.9	10.7	8.8	15.7	21.4
15:01~16:00	28.6	26.0	11.7	33.1	29.9	25.5	22.6	30.6	27.5	17.1	16.4
16:01~17:00	28.9	31.0	17.5	25.2	35.0	34.0	34.4	23.0	30.0	22.4	15.1
17:01~17:30	9.1	11.6	8.7	6.2	11.4	10.3	11.8	12.8	10.2	11.9	23.6
17:31~18:00	9.6	11.2	8.7	11.5	8.4	7.8	11.3	15.8	10.3	10.8	11.3
18:01~19:00	7.6	8.9	16.5	6.9	5.6	8.9	11.3	6.1	8.1	13.1	1.5
19:01 이후	2.1	1.9	2.9	2.3	1.5	2.8	1.4	1.0	1.9	5.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35)	(397)	(298)	(227)	(144)	(1,536)	(1342)	(822)
X ² (df)	32.7(6) ^{***}		180.5(35) ^{***}								

*** p < .001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별로 하원시각을 보면, 가정과 민간,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10~20%가 오후 3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갔고, 직장어린이집 40%는 오후 6시 이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가정어린이집도 10%대로 많았다. 도시지역일수록 오후 3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다소 높고, 모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에도 많았다. 특히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는 오후 2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12.8%로 높고, 오후 6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은 취업모 자녀 20.6%, 휴직중 6.4%, 미취업모 2.5% 순이었다.

〈표 VI-2-19〉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취업			
	국공 립	법인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모 부재
14:00까지	2.4	-	3.1	1.1	10.8	-	-	3.3	3.4	2.4	1.6	12.8	3.8	-
14:01~15:00	2.9	7.1	9.4	10.7	9.4	5.0	-	9.2	8.7	8.3	5.1	4.3	12.1	-
15:01~16:00	20.0	28.3	40.6	31.1	22.9	5.0	100.0	27.2	28.4	25.5	15.5	23.4	37.2	11.1
16:01~17:00	40.0	39.4	37.5	26.1	28.1	35.0	-	30.4	28.4	31.7	30.2	34.0	29.8	11.1
17:01~17:30	12.7	10.1	-	11.1	6.9	5.0	-	9.5	9.9	12.4	10.7	4.3	8.8	72.2
17:31~18:00	7.8	10.1	6.3	11.6	9.7	10.0	-	9.4	10.7	11.7	16.2	14.9	5.8	-
18:01~19:00	10.6	5.1	3.1	6.7	10.1	35.0	-	8.3	8.3	7.6	16.6	4.3	2.0	5.6
19:01 이후	3.7	-	-	1.6	2.1	5.0	-	2.7	2.0	0.3	4.0	2.1	0.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	(115)	(37)	(872)	(309)	(29)	(1)	(591)	(605)	(340)	(613)	(48)	(862)	(13)
X ² (df)				-					10.9(14)					-

나) 이용시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4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36분이었다. 이용시간대별로는 7~8시간과 6~7시간이 26.5%, 26.3%로 많고, 8~9시간도 14.9%이었다. 본 조사 결과는 2004년 조사에 비해 15분 정도 길어졌지만 2009년보다는 짧아졌다. 이용시간 분포별로 보면, 5시간까지는 2004년 14.6%에서 2009년 7.3%, 본 조사에서 5.7%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9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2004년 19.5%, 2009년 35.6%에서 본 조사 16.1%로 절반 이상 줄었다. 대신 6~8시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었는데, 이는 오후 3~5시 사이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표 VI-2-20 참조).

이용 아동 연령별로 보면, 영아가 유아보다 이용시간이 짧아 영아 7시간 20분, 유아 7시간 49분으로 30분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이용시간 분포별로는 영아는 5시간이 10%로 유아보다 어린이집 단시간 이용이 많았고, 8시간 이상은 유아가 영아보다 8%p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도 0~2세보다 3~5세의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서 0세가 평균 7시간으로 가장 짧고, 4세가 7시간 58분으로 가장 길었다. 특히 0세는 5시간까지가 30.5%, 10시간 이상이 16.2%로 동일 연령 내의 이용시간의 편차가 컸다. 8시간 이상은 4세 38.6%, 5세 38.1%, 3세 31.6% 순으로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표 VI-2-20〉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조사	2004년 조사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9.8	1.0	30.5	11.2	3.3	1.1	2.3	-	5.7	7.3	14.6
5~6시간	11.7	9.2	9.5	12.8	11.4	10.5	4.5	12.2	10.5	15.3	19.1
6~7시간	26.6	26.0	13.3	29.9	27.6	28.1	22.3	26.4	26.3	17.6	15.1
7~8시간	24.9	28.3	15.2	18.8	32.2	28.8	32.3	23.4	26.5	18.9	15.7
8~9시간	13.2	16.9	10.5	11.5	15.2	14.4	18.6	18.3	14.9	18.0	15.8
9~10시간	7.1	13.3	4.8	7.6	7.3	11.2	13.6	16.2	10.0	12.7	11.2
10시간 이상	6.7	5.3	16.2	8.2	3.0	6.0	6.4	3.6	6.1	22.9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1,343)	(821)
X ² (df)	74.1(6) ^{***}		252(30) ^{***}								
평균	7시간 20분	7시간 49분	7시간	7시간 16분	7시간 29분	7시간 43분	7시간 58분	7시간 47분	7시간 34분	7시간 45분	7시간 20분
표준편차	1시간 44분	1시간 23분	2시간 25분	1시간 53분	1시간 19분	1시간 26분	1시간 21분	1시간 24분	1시간 36분	1시간 59분	1시간 56분
F	34.0 ^{***}		9.2 ^{***}								

*** p < .001

이용 어린이집 및 지역, 모취업별로 평균 이용시간을 산출한 결과, 직장어린이집이 9시간 33분으로 가장 길고, 국공립도 7시간 52분, 법인 7시간 48분으로 이용시간이 긴 편이었다. 반면에, 가정어린이집은 7시간 9분으로 가장 짧았다. 사간 분포로는 법인·단체 등과 국공립어린이집은 7~8시간이 39.4%, 37.7%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은 18.1%, 직장 15.8%로 적었다. 6~7시간은 직장어린이집 제외한 나머지 유형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이 27.8%, 민간 15.6%, 법인·단체 등 15.1% 순으로 많았다. 9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직장어린이집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VI-2-21 참조).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일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긴데 읍·면이 7시간 45분으로 전체 평균보다 10분 정도 길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7시간 28분, 7시간 35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용시간 분포별로 보면, 7~8시간은 읍·면지역이 30.9%로 가장 많고, 6~7시간은 대도시가 28.8%로 많았다. 6시간 이하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5%p 이상 많고, 9시간 이상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았다.

모 취업별로는 취업모 아동이 평균 8시간 23분, 모가 부재인 아동 7시간 58분으로 휴직중과 미취업모 아동 7시간 15분, 6시간 56분보다 1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시간 이하는 휴직중과 미취업모 자녀가 취업모보

다 많고, 9시간 이상은 반대로 취업모 자녀가 휴직중이나 미취업모 자녀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10시간 이상은 취업모 자녀가 12.8%로 다른 취업형태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VI-2-21〉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모 부재
5시간까지	2.5	1.0	3.0	3.5	17.0	-	6.5	6.0	3.8	3.5	13.0	7.0	5.6
5~6시간	6.6	8.1	12.1	12.1	10.8	-	11.0	11.2	7.9	4.8	6.5	15.2	-
6~7시간	22.1	24.2	27.3	28.3	26.0	5.3	28.8	25.7	22.0	12.2	17.4	38.2	5.6
7~8시간	37.7	32.3	39.4	25.1	18.1	15.8	26.8	24.0	30.9	24.7	37.0	27.1	38.9
8~9시간	13.5	21.2	12.1	16.3	10.1	21.1	12.4	17.2	15.5	22.3	15.2	8.6	44.4
9~10시간	9.4	7.1	6.1	10.6	9.4	26.3	7.2	10.2	15.8	19.7	6.5	2.9	-
10시간 이상	8.2	6.1	-	4.1	8.7	31.6	7.3	5.6	4.1	12.8	4.3	1.0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591)	(605)	(340)	(613)	(48)	(862)	(13)
X ² (df)	35.4(12) ^{***}									-			
평균	7시간 52분	7시간 48분	7시간 11분	7시간 33분	7시간 9분	9시간 33분	7시간 28분	7시간 35분	7시간 45분	8시간 23분	7시간 15분	6시간 56분	7시간 58분
표준편차	1시간 27분	1시간 16분	1시간 9분	1시간 28분	2시간 1분	1시간 36분	1시간 3분	1시간 38분	1시간 28분	1시간 36분	1시간 49분	1시간 16분	1시간 7분
F	12.5 ^{***}						3.5 ⁵			124.1 ^{***}			

* $p < .05$, *** $p < .001$

다음 <표 VI-2-22>는 아동 각 세별, 모 취업 여부별로 이용시간을 산출한 것이다.

영아와 유아 모두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영아 중 취업모 자녀가 평균 8시간 15분, 미취업모 6시간 41분으로 1시간 30분 이상 차이가 났고, 유아도 마찬가지로 취업모가 평균 8시간 33분, 미취업모 7시간 13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연령별로 보아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0세는 취업모가 8시간 9분으로 미취업모 5시간 51분보다 2시간 이상 이용시간이 많았고, 1세는 취업모 8시간 21분이고 모가 부재인 경우가 6시간 1분이었다. 2세 또한 취업모 자녀가 8시간 12분, 미취업모가 6시간 58분이었으며, 3세는 취업모와 모가 부재인 자녀가 8시간 31분, 8시간 23분으로 길고, 미취업모가 7시간 10분으로 짧았다. 4세와 5세 또한 취업모 자녀가 각각 8시간 38분, 8시간 29분으로 길고, 미취업모 자녀가 7시간 21분, 7시간 12분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표 VI-2-22〉 아동 연령 및 모취업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취업모 아동								
평균	8시간 15분	8시간 33분	8시간 9분	8시간 21분	8시간 12분	8시간 31분	8시간 38분	8시간 29분
표준편차	1시간 47분	1시간 23분	2시간 23분	1시간 58분	1시간 20분	1시간 26분	1시간 21분	1시간 13분
(수)	(326)	(287)	(53)	(134)	(139)	(117)	(100)	(70)
모휴직중 아동								
평균	7시간 12분	7시간 28분	6시간 37분	6시간 43분	7시간 38분	7시간 53분	6시간 58분	6시간 30분
표준편차	1시간 58분	1시간 16분	2시간 43분	2시간 24분	1시간 17분	1시간 14분	1시간 18분	-
(수)	(36)	(12)	(12)	(7)	(17)	(6)	(5)	(1)
미취업모 아동								
평균	6시간 41분	7시간 13분	5시간 51분	6시간 33분	6시간 58분	7시간 10분	7시간 21분	7시간 12분
표준편차	1시간 21분	1시간 7분	1시간 47분	1시간 26분	1시간 3분	1시간 10분	1시간 2분	1시간 6분
(수)	(497)	(365)	(60)	(201)	(236)	(173)	(120)	(72)
모부재 아동								
평균	7시간 46분	8시간 28분	-	6시간 1분	8시간 2분	8시간 23분	8시간 30분	8시간 30분
표준편차	1시간 17분	7분	-	2시간 1분	1시간 1분	14분	-	-
(수)	(8)	(5)	(-)	(3)	(5)	(2)	(2)	(1)
전체								
평균	7시간 20분	7시간 49분	7시간	7시간 16분	7시간 29분	7시간 43분	7시간 58분	7시간 47분
표준편차	1시간 44분	1시간 24분	2시간 25분	1시간 54분	1시간 19분	1시간 26분	1시간 21분	1시간 24분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F	62.5***	65.0***	13.3***	27.6***	33.4***	25.1***	21.6***	17.7***
2009년 평균	7시간 42분	7시간 48분	8시간 6분	7시간 51분	7시간 34분	7시간 44분	7시간 50분	7시간 51분

*** $p < .001$

다) 평소 이용시간 초과 빈도

다음은 아동이 평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하는지를 조사한 표이다.

〈표 VI-2-2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초과 이용

단위: %(명)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3~4회	매일	없음	계(수)
전체	8.8	6.9	1.0	0.5	82.9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7.8	7.5	0.9	0.2	83.6	100.0(867)
유아	10.7	6.0	1.4	0.3	81.6	100.0(669)

(표 VI-2-23 계속)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3~4회	매일	없음	계(수)
연령						
0세	5.8	10.6	1.0	-	82.7	100.0(125)
1세	9.2	8.9	1.3	0.3	80.3	100.0(345)
2세	7.3	5.6	0.8	0.3	86.1	100.0(397)
3세	8.8	4.9	0.7	0.4	85.2	100.0(298)
4세	10.9	7.7	1.8	0.9	78.6	100.0(227)
5세 이상	13.3	5.1	1.5	-	80.1	100.0(144)
지역규모						
대도시	12.1	7.0	1.7	0.3	78.9	100.0(591)
중소도시	7.0	6.0	0.5	0.5	86.0	100.0(605)
읍·면	7.3	7.6	1.0	-	84.1	100.0(340)
모 취업여부						
취업	8.9	8.8	1.9	0.6	79.7	100.0(613)
휴직중	8.7	4.3	-	-	87.0	100.0(48)
미취업	9.6	5.4	0.6	-	84.4	100.0(862)
부재 등	-	-	-	-	100.0	100.0(1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1.4	4.1	0.8	-	83.7	100.0(173)
법인	5.1	12.1	-	-	82.8	100.0(115)
법인·단체등	6.1	9.1	-	-	84.8	100.0(37)
민간	9.1	6.0	1.7	0.5	82.7	100.0(872)
가정	9.4	9.1	0.3	-	81.1	100.0(309)
직장	5.3	10.5	-	-	84.2	100.0(29)
부모협동	-	-	-	-	100.0	100.0(1)

조사결과, 아동의 82.9%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8.8%는 월 1회 이상, 6.9%는 월 2~4회 정도이었다. 영유아별로 보면, 월 1회 이하는 유아 10.7%로 영아 7.8%보다 많고, 월 2~4회는 영아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도 월 1회 이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월 2~4회는 0세가 10.6%로 상위 연령보다 많았다(표 VI-2-23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월 1회 이하는 대도시가 12.1%로 7%대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모 취업별로도 미취업모는 월 1회, 취업모는 월 2~4회가 많았다. 이용 어린이집 별로도 월 1회 이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0%, 월 2~4회는 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이 10%대로 높았다.

라) 이용시간 만족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를 기준 보육시간으로 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시작시간은 전체적으로 83.9%, 끝나는 시간은 65.2%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작시간에 대해 3.9%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고, 12.2%는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끝나는 시간은 너무 늦다는 의견이 2.5%, 32.4%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여 현재보다 더 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고 있었다(표 VI-2-24 참조).

〈표 VI-2-2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전체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chi^2(df)$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chi^2(df)$	
전체	83.9	3.9	12.2		65.2	32.4	2.5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85.0	3.0	12.1	3.6(2)	65.6	32.8	1.6	5.1(2) [#]	100.0(867)
유아	82.8	4.9	12.3		64.6	32.0	3.4		100.0(669)
연령									
0세	83.8	2.9	13.3	14.5(10)	67.3	31.7	1.0	16.2(10) [#]	100.0(125)
1세	85.2	3.3	11.5		65.8	33.2	1.0		100.0(345)
2세	84.8	3.0	12.1		64.9	32.8	2.3		100.0(397)
3세	78.8	4.6	16.6		64.1	32.7	3.2		100.0(298)
4세	85.9	3.6	10.5		62.3	35.9	1.8		100.0(227)
5세	85.2	6.6	8.2		67.9	26.5	5.6		100.0(144)
지역규모									
대도시	80.4	5.3	14.3	13.3(4) [*]	64.5	33.3	2.2	1.8(4)	100.0(591)
중소도시	86.5	2.2	11.2		64.4	32.9	2.7		100.0(605)
읍·면	85.9	4.5	9.7		68.2	29.4	2.4		100.0(340)
모취업 여부									
취업	83.8	4.5	11.7	-	65.3	33.6	1.1	13.0(6) [*]	100.0(613)
휴직중	69.6	4.3	26.1		63.0	34.8	2.2		100.0(48)
미취업	85.6	3.4	10.9		65.5	30.9	3.6		100.0(862)
부재 등	47.1	-	52.9		47.1	52.9	-		100.0(1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5.1	3.7	21.2	-	64.3	34.0	1.6	19.8(16) [*]	100.0(173)
법인	87.9	6.1	6.1		66.7	28.3	5.1		100.0(115)
법인·단체등	78.8	9.1	12.1		48.5	51.5	-		100.0(37)
민간	86.5	3.4	10.1		64.7	32.3	3.0		100.0(872)
가정	84.0	2.8	13.2		67.2	32.1	0.7		100.0(309)
직장	68.4	31.6	-		88.9	11.1	-		100.0(29)
2009년 조사	86.5	4.8	8.7		71.0	25.8	3.2		100.0(1,536)

$p < .1$, * $p < .05$

어린이집 시작시간을 제 특성별로 보면, 영아와 유아 각각 12% 정도가 너무 늦다고 응답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도시지역일수록, 모가 부재이거나 휴직인 경우에 너무 늦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용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21.2%,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 모두 10% 정도가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이용자를 보면, 영아와 유아 30% 정도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고, 도시지역일수록, 모가 부재 또는 취업모인 경우, 그리고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가 많았다.

마) 희망 등·하원시각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희망 등원시각을 보면,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가 31.5%로 가장 많고, 다음이 9시에서 9시 30분까지로 19.8%이었다. 7시 30분 이전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아동은 6% 정도로 소수였다.

〈표 VI-2-25〉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7:30까지	6.2	5.7	8.7	7.5	4.5	6.7	6.8	2.6	6.0
7:31~8:00	13.3	16.9	16.3	15.7	10.9	15.2	18.2	17.4	15.0
8:01~8:30	11.7	21.0	11.5	7.9	14.6	16.6	23.6	24.6	16.0
8:31~9:00	31.5	31.6	24.0	30.2	34.3	35.0	29.1	29.7	31.5
9:01~9:30	22.6	16.6	12.5	24.3	24.0	19.8	14.5	14.4	19.8
9:31~10:00	12.6	8.3	22.1	12.5	10.1	6.7	7.7	11.3	10.6
10:01이후	2.1	-	4.8	2.0	1.5	-	-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X ² (df)	51.8(6) ^{***}		109.4(30) ^{***}						

*** $p < .001$

연령별로는 유아가 영아보다 일찍 오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았다. 7시 30분 이전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차이가 없지만,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오기를 바라는 비율은 유아 21%, 영아 11.7%로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 8시 이전에 오기를 바라는 비율은 21%인데 3~5세가 20~25% 정도로 0~2세보다 많았다. 반면에 9시 31분 이후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0세 26.9%, 1세 14.5%, 2세 11.6% 순으로 6~11%대의 3~5세보다 많았다.

다음 <표 VI-2-26>은 희망 등원시각을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 모취업별로 조사한 표이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이용자가 7시 30분 이전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10%대로 높고, 가정어린이집은 9시 30분 이후에 오기를 바라는 비율이 19.2%로 타 어린이집 유형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9시 31분 이후 등원을 바라는 비율이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많았다. 또한 7시 30분 이전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휴직중과 모 부재가 10%대로 높고, 취업모도 9.1%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9시 30분 이후에 등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미취업모가 13.8% 정도로 월등히 많았다.

<표 VI-2-26> 제 특성별 희망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 업	모부 재
7:30까지	11.1	7.1	6.1	3.8	7.3	10.5	-	6.0	6.3	5.2	9.1	13.0	3.1	11.1
7:31~8:00	17.6	15.2	12.1	14.4	14.6	21.1	-	13.5	15.3	17.6	21.9	10.9	9.9	11.1
8:01~8:30	21.7	20.2	12.1	16.8	7.7	26.3	-	14.4	17.4	16.9	26.0	15.2	8.7	5.6
8:31~9:00	26.2	33.3	45.5	33.5	29.3	10.5	-	27.9	31.5	39.3	22.7	28.3	37.7	66.7
9:01~9:30	11.9	17.2	12.1	22.0	22.0	26.3	-	21.1	21.3	14.1	11.0	23.9	26.7	-
9:31~10:00	9.8	7.1	12.1	9.0	16.4	5.3	100.0	15.7	7.3	5.5	7.7	8.7	13.1	-
10:01이후	1.6	-	-	0.5	2.8	-	-	1.3	0.9	1.4	1.6	-	0.7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591)	(605)	(340)	(613)	(48)	(862)	(13)
X ² (df)								48.1(12) ^{***}						

*** p < .001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희망 하원시각을 보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가 20.7%로 가장 많았다.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하기를 희망하는 아동 비율은 영아가 많고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영아와 유아 차이가 없으나 5시 31분 이후에 귀가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유아가 더 많았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0세는 오후 2시 이전과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3시 이전에 귀가하기를 바라는 비율 또한 0세가 27.4%로 나머지 연령 4~11% 보다 높았다. 한편,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0세가 13.2%로 4~9%의 나머지 연령보다 다소 높았다(표 VI-2-27 참조).

<표 VI-2-27> 연령 및 영유아별 희망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14:00까지	3.0	0.7	12.3	3.3	0.5	-	1.8	0.5	1.9	
14:01~15:00	8.3	5.7	15.1	8.2	6.6	7.4	2.3	7.1	7.1	
15:01~16:00	20.3	21.1	12.3	22.0	21.0	21.6	14.0	28.6	20.7	
16:01~16:30	7.7	6.7	3.8	6.6	9.8	8.5	7.7	3.6	7.2	
16:31~17:00	20.3	17.6	14.2	19.7	22.5	18.7	16.7	16.8	19.0	
17:01~17:30	5.2	6.3	3.8	3.0	7.3	5.3	10.9	2.6	5.7	
17:31~18:00	14.1	18.6	8.5	15.4	14.4	15.5	19.5	21.9	16.2	
18:00~19:00	11.8	13.0	10.4	14.1	10.4	12.7	14.9	10.7	12.4	
19:00~19:30	3.1	3.0	6.6	2.0	3.0	3.5	2.7	2.6	3.1	
19:31이후	6.2	7.3	13.2	5.9	4.5	6.7	9.5	5.6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X ² (df)	22.2(9)**		171.3(45)***							

** p < .01, *** p < .001

<표 VI-2-28>은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 모취업별로 희망 하원시각을 조사한 표이다.

<표 VI-2-28>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계
14:00까지	1.2	2.0	-	0.6	6.3	-	-	1.4	2.6	2.1	0.6	6.5	2.7	-
14:01~15:00	3.3	5.1	3.0	7.7	10.1	5.0	-	6.7	8.0	5.9	4.5	6.5	9.2	-
15:01~16:00	14.7	23.5	18.2	23.7	17.1	5.0	100.0	23.7	17.9	19.0	8.6	10.9	30.7	-
16:01~16:30	6.1	8.2	6.1	6.9	10.1	-	-	7.6	7.8	5.5	4.6	13.0	9.1	-
16:31~17:00	21.6	19.4	12.1	18.9	17.4	30.0	-	18.9	18.8	20.0	17.3	19.6	19.8	41.2
17:01~17:30	7.8	10.2	3.0	5.8	2.8	-	-	3.7	5.8	10.0	7.4	4.3	4.5	5.9
17:31~18:00	14.3	17.3	36.4	17.0	12.2	15.0	-	14.5	13.8	24.1	23.7	19.6	10.3	17.6
18:00~19:00	13.9	12.2	6.1	11.3	13.6	30.0	-	11.9	14.5	8.6	18.6	10.9	7.3	29.4
19:00~19:30	8.2	1.0	3.0	2.2	1.7	5.0	-	3.3	3.9	1.0	5.1	2.2	1.6	5.9
19:31이후	9.0	1.0	12.1	5.8	8.7	10.0	-	8.1	6.8	3.8	9.6	6.5	4.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591)	(605)	(340)	(613)	(48)	(862)	(13)
X ² (df)								55.5(18)***						

*** p < .001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오후 2시 이전에 귀가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이 6.3%로 타 어린이집 유형보다 많고, 특히 3시 이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도 가정어린이집이 많았다. 반면 오후 7시 30분 이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법인·단체 등과 직장, 국공립어린이집이 10% 내외로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2시 이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오후 7시 31분 이후는 도시지역일수록 높았다. 또한 모가 휴직중인 경우는 2시 이전, 미취업모는 3시 이전, 취업모는 오후 7시 31분 이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았다(표 VI-2-28 참조).

바) 희망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희망 이용시간을 산출한 결과, 평균 8시간 21분이고, 표준편차는 2시간 2분이다. 실제 이용시간 7시간 34분보다 47분 정도가 길다. 8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45.8%이고, 6시간 이하는 13.4% 정도였다. 12시간 이상 이용하기를 바라는 아동도 7.2%나 되었다.

〈표 VI-2-29〉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6.5	1.3	23.8	5.9	2.3	1.4	1.8	0.5	4.1
5~6시간	10.2	8.3	11.4	10.8	9.5	8.9	4.1	12.7	9.3
6~7시간	19.4	18.9	7.6	21.6	20.6	20.9	14.0	20.8	19.1
7~8시간	22.5	20.6	11.4	19.7	27.6	21.6	23.1	16.2	21.6
8~9시간	14.7	16.7	14.3	13.1	15.6	15.6	17.2	17.8	15.6
9~10시간	9.8	15.7	4.8	10.8	10.6	14.9	15.4	17.3	12.6
10~11시간	8.8	9.0	9.5	9.2	8.5	7.4	12.7	7.1	8.9
11~12시간	1.6	1.4	4.8	1.3	1.0	0.7	3.2	0.5	1.5
12시간이상	6.5	8.1	12.4	7.5	4.3	8.5	8.6	7.1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X ² (df)	39.8(8) ^{***}		203.3(40) ^{***}						
평균	8시간 9분	8시간 35분	7시간 57분	8시간 11분	8시간 11분	8시간 29분	8시간 54분	8시간 22분	8시간 21분
표준편차	2시간 5분	1시간 56분	2시간 56분	2시간 8분	1시간 45분	1시간 58분	1시간 54분	1시간 53분	2시간 2분
F/t	-4.1 ^{***}		5.4 ^{***}						

*** p < .001

영유아별 차이를 보면, 영아는 평균 8시간 9분, 유아 8시간 35분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고, 이용시간 구간별로는 5시간 이하 동안 어린이집 이용을 바라는 비율은 영아가 유아보다 다소 많고, 8시간 이상은 영아보다 유아가 많아 장시간 이용을 희망하였다.

연령별로도 5시간 이하는 연령이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고, 8시간 이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 특히 0세와 1세는 12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12.4%, 7.5%로 많았다. 앞서 이용시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세와 1세는 동일 연령 내에서 희망 이용시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표 VI-2-29 참조).

다음은 이용 어린이집 및 지역, 모취업별로 희망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희망 이용시간이 평균 9시간 20분으로 가장 길고, 가정어린이집이 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정어린이집의 희망 등원시간이 늦고 희망 하원시간이 빠르기 때문이다. 희망 이용시간 분포별로는 5시간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 11.8%로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보다 월등히 많았고, 8시간 이상은 직장, 국공립, 법인·단체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12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직장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0%대로 높았다(표 VI-2-30 참조).

〈표 VI-2-30〉 제 특성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5시간까지	2.0	3.1	-	2.3	11.8	-	3.8	4.8	2.8	2.1	10.6	5.3	-
5~6시간	8.2	8.2	6.1	9.7	10.4	4.8	9.7	9.4	8.6	4.5	4.3	13.6	-
6~7시간	11.8	20.4	12.1	21.9	18.8	4.8	21.8	17.2	17.2	8.6	10.6	28.0	5.6
7~8시간	19.2	25.5	24.2	21.9	20.5	28.6	23.2	19.8	21.7	16.4	25.5	25.1	33.3
8~9시간	18.0	14.3	36.4	16.2	10.4	9.5	12.9	17.2	18.3	21.4	14.9	11.2	11.1
9~10시간	16.3	14.3	3.0	12.7	9.0	23.8	10.2	11.6	20.0	20.4	17.0	5.8	38.9
10시간	10.6	12.2	3.0	8.2	9.7	4.8	8.3	10.6	6.9	14.7	4.3	5.0	5.6
11시간	-	-	-	2.2	1.4	4.8	1.9	1.5	0.7	2.2	4.3	0.7	-
12시간이상	13.9	2.0	15.2	5.0	8.0	19.0	8.3	7.8	3.8	9.7	8.5	5.3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591)	(605)	(340)	(613)	(48)	(862)	(13)
X ² (df)							40.5(16)**						
평균	8시간 53분	8시간 17분	8시간 53분	8시간 17분	8시간	9시간 20분	8시간 18분	8시간 26분	8시간 21분	9시간 11분	8시간 15분	7시간 42분	9시간 5분
표준편차	2시간 1분	1시간 48분	1시간 58분	1시간 54분	2시간 20분	1시간 54분	2시간 4분	2시간 6분	1시간 46분	1시간 54분	2시간 13분	1시간 53분	1시간 17분
F	5.9***						0.5			72.6***			

** p < .01, *** p < .001

5) 등·하원 방법 및 시간

가) 등·하원 방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등원시 기관차량 이용과 보호자와 걸어서가 40%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과 자가용 이용이 11.9%, 나머지 방법은 1% 미만이다. 하원방법도 등원 시와 마찬가지로 기관차량 이용과 보호자와 걸어서가 가장 많았다(표 VI-2-31 참조).

이용 어린이집별로 등·하원 방법을 보면, 등원 시 기관차량 이용 비율은 법인이 77.8%로 높고, 가족과 자가용은 직장이 84.2%로 가장 높으며, 가정은 보호자와 걸어서가 64.8%로 높았다. 하원방법도 대체로 등원방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VI-2-31〉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가족과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46.4	11.9	0.7	0.1	40.7	0.2	100.0(1,536)
국공립	30.5	16.0	2.1	-	50.2	1.2	100.0(173)
법인	77.8	7.1	-	-	15.2	-	100.0(115)
법인·단체등	66.7	15.2	-	-	18.2	-	100.0(37)
민간	57.7	7.7	-	0.2	34.3	-	100.0(872)
가정	17.4	16.7	1.0	-	64.8	-	100.0(609)
직장	5.3	84.2	5.3	-	5.3	-	100.0(29)
하원							
전체	47.6	10.8	1.1	0.4	39.9	0.3	100.0(1,536)
국공립	37.7	14.3	3.3	0.4	44.3	-	100.0(173)
법인	71.7	9.1	-	-	15.2	4.0	100.0(115)
법인·단체등	69.7	12.1	-	-	18.2	-	100.0(37)
민간	58.3	6.0	0.2	0.6	34.9	-	100.0(872)
가정	17.8	17.1	1.0	-	64.1	-	100.0(609)
직장	5.3	78.9	10.5	-	5.3	-	100.0(29)

나)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자녀가 이용하는 등·하원 차량에 교사가 동승하는지 조사한 결과, 92.5%가 등·하원시 모두 동승하고, 등원 또는 하원 시에만 동승하는 비율은 각각 2~4%대로 낮았다. 연령별로도 등·하원시 교사가 모두 동승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특히 0세는 등·하원시 동승 비율이 80%로 가장 낮지만 등원시 동승은 5%로 높았다. 모른다는

비율도 15%나 되었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읍·면지역일수록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등원시 동승은 도시일수록 높고, 하원시 동승은 읍·면지역일수록 높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등·하원시 동승이 전반적으로 90% 이상을 나타내지만, 가정어린이집이 91.9%로 가장 낮았다. 등원 시에만 동승은 가정어린이집이 4.8%, 하원시 동승은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4.3% 정도 되었다(표 VI-2-32 참조).

〈표 VI-2-32〉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구분	등하원시 모두	등원시	하원시	동승 안함	모름	단위: %(명)
						계(수)
전체	92.5	2.6	4.1	0.1	0.6	100.0(812)
영유아구분						
영아	93.7	2.9	2.3	0.3	0.9	100.0(380)
유아	91.6	2.3	5.8	-	0.2	100.0(432)
연령						
0세	80.0	5.0	-	-	15.0	100.0(26)
1세	95.6	0.9	3.5	-	-	100.0(142)
2세	94.0	3.7	1.9	0.5	-	100.0(212)
3세	95.9	1.2	2.3	-	0.6	100.0(194)
4세	92.1	5.0	2.9	-	-	100.0(146)
5세	84.6	0.9	14.5	-	-	100.0(92)
지역규모						
대도시	93.6	2.1	4.3	-	-	100.0(270)
중소도시	91.0	4.0	3.7	-	1.3	100.0(316)
읍·면	93.3	1.0	5.2	0.5	-	100.0(22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0.0	-	-	-	-	100.0(63)
법인	98.7	1.3	-	-	-	100.0(86)
법인·단체등	95.7	-	4.3	-	-	100.0(26)
민간	93.2	3.1	2.9	0.2	0.6	100.0(563)
가정	91.9	4.8	-	-	3.2	100.0(71)
직장	100.0	-	-	-	-	100.0(3)

다) 등·하원 소요시간

다음 <표 VI-2-33>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등원 소요시간은 평균 9.7분으로 2009년 조사 11.7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0분 이하가 78.7%로 가장 많고, 11~20분 15.6%, 21~30분 4.7%, 31분 이상 1% 순으로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등원에 소요시간이 긴 편이며 영아보다 유아가 더 길었다. 10분 이하는 0~1세가 많고, 11~20분은 3세, 21~30분과 31분 이상은 4세가 많았다.

영유아별로는 영아 평균 9.2분, 유아 10.4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10분 이하는 영아보다 유아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평균 10.9분으로 가장 긴 편인데, 10분 이하는 중소도시, 11~20분과 21~30분은 읍면지역이 대체로 많았다.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직장이 평균 18.4분으로 가장 길고, 법인 12.1분, 법인·단체 등 11.2분, 국공립 10.2분, 민간 9.8분, 가정 7.5분 순이다. 특히 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의 편차가 10분대로 컸다.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 등원 시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어 등·하원 소요시간이 짧은 것이다. 따라서 10분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적었다. 11~20분과 21~30분은 직장어린이집이 높았다.

〈표 VI-2-33〉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소요시간					X ² (df)	평균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8.7	15.6	4.7	1.0	100.0(1,536)		9.7	7.2	
영유아구분									
영아	81.3	13.8	4.2	0.6	100.0(867)	8.2(3)*	9.2	6.7	-3.2**
유아	75.7	17.6	5.3	1.4	100.0(669)		10.4	7.6	
연령									
0세	87.4	12.6	-	-	100.0(125)		7.2	4.8	5.4***
1세	84.9	12.1	2.0	1.0	100.0(345)		8.8	6.5	
2세	77.0	15.4	7.1	0.5	100.0(397)		10.0	7.2	
3세	73.2	20.8	4.9	1.1	100.0(298)		10.6	8.0	
4세	77.3	13.2	7.3	2.3	100.0(227)		10.8	7.8	
5세	77.6	17.9	3.6	1.0	100.0(144)		9.7	6.8	
지역규모									
대도시	76.9	16.4	4.9	1.8	100.0(591)		10.1	7.7	10.7***
중소도시	83.8	12.8	2.9	0.5	100.0(605)	26.2(6)***	8.7	6.3	
읍·면	72.4	19.3	7.9	0.3	100.0(340)		10.9	7.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8.0	12.7	9.0	0.4	100.0(173)		10.2	7.8	14.4***
법인	73.5	12.2	6.1	8.2	100.0(115)		12.1	10.6	
법인·단체등	69.7	24.2	6.1	-	100.0(37)	-	11.2	6.4	
민간	77.2	18.0	4.3	0.5	100.0(872)		9.8	6.8	
가정	89.5	9.4	0.3	0.7	100.0(309)		7.5	5.0	
직장	31.6	36.8	31.6	-	100.0(29)		18.4	10.1	

* p < .05, ** p < .01, *** p < .001

라. 어린이집 선택시 고려사항

부모가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였다(표 VI-2-34 참조). 전체적으로 집과의 거리가 29.5%로 가장 많고, 프로그램 14.1%, 주변의 평판 10.4%, 원장 9.9%, 교사 7.9% 순이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집과의 거리와 프로그램, 주변의 평판이 중요한 선택 이유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VI-2-34〉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2009년	2004년
원장	6.5	4.0	8.8	9.1	17.6	-	9.9	-	10.6
교사	7.8	8.1	8.8	7.6	9.3	-	7.9	9.2	5.8
운영시간	0.8	1.0	2.9	3.7	3.5	5.6	3.0	4.6	5.2
비용	6.1	2.0	-	2.9	0.3	5.6	2.9	8.3	8.4
프로그램	14.7	7.1	14.7	18.0	3.5	33.3	14.1	11.0	13.3
건강·영양	3.3	2.0	8.8	2.6	3.8	-	3.0	-	3.7
기관 학급 규모	1.2	1.0	5.9	0.9	-	-	0.9	-	2.7
내부 분위기	0.4	2.0	2.9	3.8	3.5	5.6	3.1	-	3.2
안전한 보호	2.4	7.1	2.9	2.7	3.8	11.1	3.3	-	5.1
집과의 거리	18.4	25.3	14.7	29.5	43.6	5.6	29.5	30.2	25.6
기관설비	1.6	1.0	2.9	1.0	1.0	11.1	1.3	5.7	3.3
국공립 여부	26.5	-	-	0.1	-	-	4.4	-	1.5
주변의 평판	7.3	24.2	20.6	11.4	4.5	5.6	10.4	15.6	8.3
주변입지	-	1.0	-	0.6	1.7	-	0.7	-	1.9
평가인증 통과 여부	0.4	2.0	-	1.0	0.7	-	0.9	-	-
차량운행 여부	-	10.1	2.9	1.0	0.3	-	1.3	0.8	-
특별프로그램	0.4	-	-	0.4	-	-	0.3	0.4	-
형제가 다님	1.6	2.0	2.9	2.9	2.1	11.1	2.6	5.3	-
기타	0.4	-	-	1.0	0.7	5.6	0.8	8.9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535)	(1,342)	(821)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선택 이유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 여부와 근거리, 법인어린이집은 근거리와 평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평판 및 프로그램과 근거리, 민간어린이집은 근거리와 프로그램, 가정어린이집은 근거리와 원장, 직장어린이집은 프로그램을 주된 선택이유로 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서비스의 질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이유가 되고 있었다.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근거리가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영유아별로 보면, 어린이집 선택 이유에서 영아와 유아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모두 집과의 거리와 주변의 평판을 주로 고려하지만 영아는 원장, 유아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표 VI-2-35〉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원장	11.8	7.9	17.3	12.8	9.3	8.1	8.7	6.6
교사	7.9	7.9	10.6	8.2	6.8	5.3	10.5	9.1
운영시간	2.5	3.6	3.8	3.6	1.5	4.6	2.7	3.6
비용	1.7	4.3	-	0.7	3.0	2.5	7.8	3.0
프로그램	8.7	20.3	1.9	5.6	12.6	19.4	12.8	29.9
건강·영양	2.1	4.0	3.8	1.6	2.3	7.0	2.7	1.0
기관 학급 규모	0.7	1.0	-	1.0	0.5	1.4	0.5	1.0
내부 분위기	3.3	2.6	1.9	2.6	4.3	2.5	2.7	2.5
안전한 보호	4.8	1.7	2.9	4.9	5.1	2.8	1.8	-
집과의 거리	36.2	21.9	41.3	40.0	32.1	24.3	18.7	21.8
기관설비	0.9	1.4	1.0	1.0	0.8	1.4	0.9	2.0
국공립 여부	2.4	6.6	2.9	1.3	3.0	3.5	9.1	8.1
주변의 평판	9.4	11.4	6.7	9.8	9.8	12.0	13.2	8.6
주변입지	1.1	0.1	-	1.6	1.3	0.4	-	-
평가인증 통과 여부	1.1	0.6	-	2.0	0.8	0.7	0.9	-
차량 운행 여부	1.1	1.6	-	1.0	1.5	2.5	1.8	-
특별프로그램	0.1	0.4	1.0	-	0.3	-	0.9	0.5
형제가 다님	3.6	1.6	4.8	1.6	4.5	1.1	1.4	2.0
기타	0.5	1.1	-	0.7	0.5	0.7	2.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X ² (df)	128.2(18) ^{***}		-					

*** p < .00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별로 보면, 집과의 거리, 원장 및 교사, 프로그램, 주변의 평판 등을 주로 고려하지만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0세는 집과의 거리와 원장 및 교사를 어린이집 선택 시 주로 고려하였고, 1세는 집과의 거리와 원장, 주변의 평판에 비중을 두었다. 2세도 물론 집과의 거리를 주로 고려하지만 프로그램과 평판도 고려하고 있었다. 3세는 집과의 거리와 프로그램 평판을 고려하며, 4세는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변의 평판, 교사, 5세는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교사에 대해서 비중을 두었다.

다음은 거주지역 및 모의 취업여부별로 어린이집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표 VI-2-36 참조). 지역적 차이를 보인 2009년 조사와 달리 지역 차이가 없었다. 세 지역 모두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원장, 주변의 평판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항목별로 보면, 집과의 거리와 주변의 평판, 비용은 도시지역 부모가 읍·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읍·면지역 부모는 원장과 교사를 더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는 교사, 휴직중인 어머니는 기관설비, 미취업모는 교사, 모부재는 집과의 거리를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표 VI-2-36〉 지역 및 모취업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원장	8.0	10.2	13.8	9.6	6.4	10.3	11.8
교사	6.7	8.2	9.3	6.2	10.6	9.2	-
운영시간	3.2	3.2	2.4	4.8	6.4	1.5	5.9
비용	4.1	2.4	1.0	1.4	2.1	3.6	29.4
프로그램	12.0	15.0	17.0	15.2	12.8	13.5	5.9
건강·영양	2.4	3.8	3.1	2.7	6.4	3.1	-
기관 학급 규모	1.0	0.5	1.0	0.8	-	1.0	-
내부 분위기	3.5	3.8	0.3	2.9	-	3.3	-
안전한 보호	3.2	2.7	4.8	3.5	6.4	2.5	35.3
집과의 거리	30.8	31.2	23.5	28.0	29.8	31.0	11.8
기관설비	1.8	0.3	1.7	0.8	2.1	1.3	-
국공립 여부	6.5	2.4	3.5	6.4	2.1	2.9	-
주변의 평판	9.9	11.6	9.0	8.8	12.8	11.8	-
주변입지	1.0	0.2	1.0	0.3	-	1.0	-
평가인증 통과 여부	1.0	0.9	0.7	0.6	-	1.1	-
차량 운행 여부	1.9	1.0	0.7	2.9	-	0.2	-
특별프로그램	0.5	-	0.3	0.2	2.1	0.4	-
형제가 다님	1.6	2.2	5.5	3.5	-	2.1	-
기타	1.1	0.3	1.0	1.4	-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91)	(605)	(340)	(613)	(48)	(862)	(13)

가구소득별로는 150~199만원 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집과의 거리 여부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가 많았다. 특히, 14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비용과 원장에 대해 비중을 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150만원 이상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표 VI-2-37 참조).

〈표 VI-2-37〉 가구소득별 어린이집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149만원 이하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원장	17.9	8.1	8.3	11.3	11.9	11.8	9.7	9.0	1.5	8.3
교사	2.6	6.7	6.7	7.9	12.4	8.1	8.9	6.0	7.4	2.8
운영시간	2.6	5.9	1.7	1.9	4.1	0.7	2.3	5.3	1.5	6.9
비용	17.9	2.2	10.0	1.1	0.5	1.5	1.9	2.3	1.5	1.4
프로그램	12.8	27.4	14.4	14.0	9.2	15.4	10.5	15.8	7.4	15.3
건강·영양	7.7	0.7	1.7	3.0	4.1	1.5	3.9	5.3	2.9	-
기관 학급 규모	-	0.7	1.1	0.8	1.8	0.7	0.8	0.8	1.5	-
내부 분위기	-	2.2	3.3	1.9	2.8	1.5	6.6	-	4.4	2.8
안전한 보호	5.1	2.2	7.2	4.5	2.3	2.2	1.2	3.0	2.9	5.6
집과의 거리	25.6	18.5	22.2	32.5	29.8	37.5	29.2	30.8	39.7	33.3
기관설비	-	0.7	1.7	2.3	0.5	-	0.4	3.0	1.5	1.4
국공립 여부	-	5.9	3.3	3.4	3.7	0.7	4.3	6.0	19.1	4.2
주변의 평판	7.7	9.6	16.1	9.8	11.5	10.3	12.1	6.8	4.4	5.6
주변입지	-	3.0	-	-	0.9	-	1.2	0.8	-	-
평가인증 통과 여부	-	-	-	1.1	0.5	2.9	0.8	0.8	-	1.4
차량 운행 여부	-	0.7	-	1.9	-	1.5	2.3	3.0	-	1.4
특별프로그램	-	-	0.6	0.4	-	0.7	0.4	-	-	-
형제가 다님	-	4.4	1.7	1.9	2.3	1.5	3.1	0.8	2.9	8.3
기타	-	0.7	-	0.4	1.8	1.5	0.4	0.8	1.5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	(127)	(188)	(272)	(238)	(141)	(254)	(139)	(62)	(74)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평가인증이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9%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고 7.8%는 받지 않았다.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15.5%였고, 평가인증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3.8%나 되었다.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비율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84.8%, 국공립어린이집 83.3%, 법인어린이집 79.8%로 80% 수준이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71.3%, 64.8%로 80% 미만을 나타내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안 받았다는 비율이 20.6%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았다. 평가인증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장어린이집이 21.1%로 많고,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모두 1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평가인증 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은 법인어린이집 이용 부모 5.1%,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4.8% 순으로 많았다.

〈표 VI-2-38〉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구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평가인증 받음	83.3	79.8	84.8	71.3	64.8	73.7	72.9
평가인증 안받음	0.4	1.0	6.1	6.7	20.6	-	7.8
평가인증 여부 모름	14.6	14.1	6.1	17.3	12.2	21.1	15.5
평가인증 제도 모름	1.6	5.1	3.0	4.8	2.4	5.3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535)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경우 평가인증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인증 44.7%, 신규인증 15.3%로 재인증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신규 또는 재인증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40%로 많았다.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별로 보면, 재인증은 법인·단체 등과 국공립어린이집이 67.9%, 66.8%로 많고, 신규인증은 가정이 24.2%로 많았다. 평가인증 형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가정어린이집 52.2%, 법인어린이집 50%대로 많았다(표 VI-2-39 참조).

〈표 VI-2-39〉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형태

구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재인증	66.8	47.4	67.9	42.2	23.7	42.9	44.7
신규인증	9.8	2.6	-	16.9	24.2	14.3	15.3
모름	23.4	50.0	32.1	40.9	52.2	42.9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8)	(97)	(32)	(613)	(202)	(24)	(1,116)
$X^2(df)$				95.9(10) ^{***}			

*** $p < .001$

다음 <표 VI-2-40>는 자녀가 이용할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표이다.

전체 응답자 중 63%는 영향을 미쳤고, 37%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부모 중 9.4%만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였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5세 이상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 모두 60% 이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반면, 5세 이상은 55.2%로 적었다. 영아와 유아 부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이 영아 부모 64.1%, 유아 부모 62%가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표 VI-2-40〉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많이 영향 있음	8.2	10.6	10.1	7.6	8.1	13.6	7.8	9.7	9.4
어느 정도 영향 있음	55.9	51.4	52.2	57.4	55.6	51.9	56.9	45.5	53.6
전혀 영향 없음	35.9	38.0	37.7	35.0	36.3	34.6	35.3	44.8	3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97)	(519)	(83)	(227)	(287)	(221)	(178)	(120)	(1,116)
X ² (df)	3.1(2)		12.4(10)						

이를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직장 69.2%, 국공립이 68.8%, 민간 63.4% 순으로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가정 42.8%, 법인 40.5%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공립 16.6%는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응답하여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어린이집 선택시 평가인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2-41 참조).

〈표 VI-2-41〉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의 영향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많이 영향 있음	16.6	8.9	13.8	7.7	7.0	7.7	13.2	7.7	4.7
어느 정도 영향 있음	52.2	50.6	48.3	55.7	50.3	61.5	53.0	54.8	52.8
전혀 영향 없음	31.2	40.5	37.9	36.6	42.8	30.8	33.8	37.5	4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8)	(97)	(32)	(613)	(202)	(24)	(445)	(424)	(247)
X ² (df)	20.1(10)*						16.5(4)**		

* $p < .05$, ** $p < .01$

3. 어린이집 서비스

가. 기관에서 강조하는 내용

부모 응답을 통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들에게 운영 방침 또는 장점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균형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 자유놀이 중심활동,

급간식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충분한 휴식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VI-3-1>과 같이, 전체적으로 인성지도를 강조한다는 응답 비율이 4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전한 보호 18.7%, 균형있는 발달 11.7%, 자유놀이중심 활동 11.4%,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 5.3% 순이었다. 2004년, 2009년과 비교하면 항목별 우선순위는 동일하지만 인성지도는 감소하고, 안전한 보호와 자유놀이중심 활동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VI-3-1〉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어린이집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09년	2004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균형있는 발달	9.0	11.2	11.8	11.9	13.5	10.5	11.5	12.3	10.7	11.7	11.8	11.5
인성지도	58.6	56.1	47.1	50.7	21.5	47.4	50.9	46.1	38.8	46.7	50.6	52.0
안전한 보호	16.4	14.3	8.8	14.2	36.5	15.8	17.5	20.6	17.3	18.7	14.2	10.7
자유놀이중심 활동	6.6	11.2	14.7	11.7	13.2	21.1	10.2	11.1	14.5	11.4	7.6	8.0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	6.1	6.1	-	3.2	10.8	-	4.0	4.4	9.7	5.3	7.0	6.7
인지교육	-	-	-	2.7	1.0	-	1.9	1.5	1.0	1.6	3.5	3.9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2.5	-	14.7	1.6	1.7	-	1.8	0.7	4.8	1.9	1.3	1.2
특별활동프로그램	0.8	1.0	2.9	3.9	1.4	5.3	2.1	3.1	3.1	2.7	3.3	5.2
충분한 휴식	-	-	-	-	0.3	-	-	0.2	-	0.1	0.6	0.7
기타	-	-	-	-	-	-	-	-	-	-	0.1	0.1
없음	-	-	-	0.1	-	-	0.2	-	-	0.1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591)	(605)	(340)	(1,536)	(1,341)	(81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별로 어린이집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인성지도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영아는 안전한 보호와 자유놀이중심 활동이 25.3%, 14.6%로 많고, 유아는 균형있는 발달과 안전한 보호가 11.0%, 11.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0세 49.5%는 안전한 보호를 강조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1세 이상은 인성지도가 많이 강조되고 있었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는 연령이 어릴수록 강조되는 비율이 많아지고, 균형있는 발달과 인성지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이다.

〈표 VI-3-2〉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균형있는 발달	12.2	11.0	16.2	11.1	11.9	10.6	10.0	12.2
인성지도	36.7	58.2	15.2	29.5	47.7	55.5	60.0	60.2
안전한 보호	25.3	11.2	49.5	25.9	18.2	12.7	13.6	6.1
자유놀이중심 활동	14.6	7.7	7.6	20.3	11.9	7.8	8.2	7.1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	6.2	4.0	7.6	7.9	4.5	4.9	2.7	4.1
인지교육	0.9	2.6	1.9	0.3	1.3	2.5	1.4	4.1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2.1	1.6	1.0	2.3	2.3	1.1	1.4	3.1
특별활동프로그램	1.9	3.6	-	2.3	2.3	4.6	2.7	3.1
충분한 휴식	0.1	-	1.0	0.3	-	-	-	-
없음	-	0.1	-	-	-	0.4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나. 부모서비스 및 참여

1) 정보 제공

가) 정보 제공 빈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를 보육계획,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보육 내용을 담고 있는 주간 또는 월간, 연간 보육계획표 제공 빈도는 매주 1회가 74.6%로 많고, 23.7%는 월 1회 제공하였다. 이용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없지만,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은 월 1회가 많았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할 때 매주 2회 제공이 감소하였다(표 VI-3-3 참조).

급간식 식단은 65.5%가 월 1회 제공받았고, 매주 1회는 30.9% 정도였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도 월 1회가 가장 많지만, 법인어린이집은 매주 1회가 45%로 높았다. 2004년, 2009년과 비교할 때, 급간식 식단의 월 1회 제공 비율은 증가하였다.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와 매일이 46.7%, 45.1%로 많았다. 국공립과 법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은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높지만, 법인·단체 등과 민간은 매주 1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표 VI-3-3〉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2009년	2004년
보육계획표										
매일	0.4	1.0	-	1.3	0.7	-	-	1.0	3.5	0.6
매주 1회	79.5	77.8	78.8	77.0	62.7	68.4	-	74.6	77.8	83.2
월 1회	19.7	21.2	18.2	21.4	34.5	31.6	100.0	23.7	17.1	13.5
기타	0.4	-	-	-	0.3	-	-	0.2	1.6	-
제공 안함	-	-	-	0.2	0.7	-	-	0.3	-	2.7
모름	-	-	3.0	-	1.0	-	-	0.3	-	-
급간식 식단										
매일	4.1	1.0	6.1	24	5.2	-	-	3.2	4.5	1.5
매주 1회	32.0	45.0	33.3	29.6	30.0	10.5	-	30.9	36.7	50.7
월 1회	63.9	52.0	60.6	67.9	63.4	89.5	100.0	65.5	56.0	40.6
기타	-	-	-	-	-	-	-	-	2.8	0.3
제공 안함	-	-	-	-	0.3	-	-	0.1	-	6.9
모름	-	2.0	-	-	1.0	-	-	0.3	-	-
가정통신문										
매일	48.6	50.5	28.1	40.7	53.7	63.2	100.0	45.1	48.1	20.7
매주 1회	41.6	47.5	65.6	51.2	36.9	31.6	-	46.7	42.3	58.9
월 1회	3.3	2.0	3.1	7.3	5.6	5.3	-	5.9	6.1	12.0
분기 1회	4.5	-	3.1	0.1	1.0	-	-	1.1	-	1.2
연 1~2회	1.6	-	-	0.1	0.3	-	-	0.4	-	0.6
제공 안함	0.4	-	-	0.6	0.7	-	-	0.5	-	6.3
모름	-	-	-	-	1.7	-	-	0.3	3.5	-
자녀발달평가										
매일	4.5	6.1	12.5	6.7	13.2	5.6	-	7.7	12.7	3.0
매주 1회	3.3	8.1	9.4	7.0	6.3	5.6	-	6.3	5.4	6.0
월 1회	22.9	19.2	12.5	12.7	9.7	22.2	-	14.3	10.4	10.5
분기 1회	16.7	21.2	18.8	19.1	10.4	44.4	-	17.5	17.1	11.5
연 1~2회	19.6	25.3	28.1	24.5	13.2	16.7	-	21.6	18.5	18.7
제공 안함	12.2	11.1	18.8	20.4	25.0	5.6	100.0	19.2	24.6	50.4
모름	20.8	9.1	-	9.6	22.2	-	-	13.5	11.3	-
부모상담										
매일	2.4	4.1	-	0.7	6.9	-	100.0	2.5	-	-
매주 1회	1.6	2.0	12.1	3.3	8.0	-	-	4.0	4.3	-
월 1회	4.5	9.2	6.1	8.0	5.2	10.0	-	7.0	10.0	-
분기 1회	23.7	28.6	39.4	28.3	20.1	60.0	-	26.6	19.7	-
연 1~2회	65.7	42.9	36.4	49.0	36.1	30.0	-	48.3	40.0	-
제공 안함	1.2	8.2	3.0	5.4	12.2	-	-	6.0	13.7	-
모름	0.8	5.1	3.0	5.2	11.5	-	-	5.6	12.3	-

(표 VI-3-3 계속)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2009년	2004년
부모교육 자료										
매일	-	1.0	-	0.6	1.4	-	-	0.7	-	-
매주 1회	17.2	18.2	12.1	16.4	21.1	10.0	-	17.4	-	-
월 1회	34.8	26.3	33.3	27.5	26.6	50.0	100.0	28.9	-	-
분기 1회	10.7	3.0	21.2	11.4	7.6	20.0	-	10.4	-	-
연 1~2회	19.3	23.2	18.2	19.2	12.1	10.0	-	18.0	-	-
제공 안함	9.0	16.2	12.1	14.3	20.1	5.0	-	14.5	-	-
모름	9.0	12.1	3.0	10.5	11.1	5.0	-	10.2	-	-
(수)	(173)	(115)	(37)	(872)	(309)	(29)	(1)	(1,536)	(1,342)	(821)

주: 2009년 조사결과는 기타와 모름이 동일 범주로 통계 처리됨.

자녀발달평가는 연 1~2회 21.6%, 분기 1회 17.5%, 월 1회 14.3% 순이었다. 부모 중 19.2%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13.5%는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월 1회가 많고, 법인과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연 1~2회가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분기 1회가 많았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미제공 비율이 20.4%, 25%로 높았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할 때 제공받았다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부모상담은 연 1~2회가 48.3%, 분기 1회가 26.6%로 많았다. 아동 부모 중 6%는 부모상담을 하지 않았고, 5.6%는 실시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용 어린이집 모두에서 연 1~2회, 분기 1회 순으로 부모상담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어린이집 11.5%, 법인 5.1%, 민간 5.2%는 부모상담 실시 주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자료는 월 1회가 28.9%, 연 1~2회 18%, 매주 1회 17.4% 순으로 많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대부분 월 1회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이 많지만, 가정 20.1%는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나) 도움정도

다음은 보육계획표와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자녀발달평가, 부모교육 등의 정보 제공과 부모상담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표 VI-3-4>에 제시한 도움된다는 비율은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다. 부모서비스 6가지 항목 중에서 도움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가정통신문 제공이었다. 가정통신문이 도움되는 비율은 84.7%로 가장 높

고, 급간식 식단 80.5%, 보육계획표 79.5%, 발달평가 78.2% 순이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부모상담은 9.1%p 증가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도움된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급간식 식단은 2.8%p 정도 줄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계획표와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부모교육의 도움 정도가 낮고, 법인·단체등은 가정통신문과 발달평가의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3-4〉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도움 정도 및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도움된다는 비율						5점 척도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전체	79.5	80.5	84.7	78.2	75.5	71.2	3.88	3.89	3.97	3.90	3.85	3.80
국공립	81.6	82.0	80.7	78.0	81.9	73.0	3.91	3.88	3.95	3.89	3.93	3.80
법인	80.8	78.4	86.7	77.2	74.4	80.0	3.89	3.87	3.98	3.85	3.80	3.89
법인·단체등	84.4	81.8	79.4	74.1	80.6	75.9	3.90	3.92	3.92	3.82	3.86	3.90
민간	80.4	81.7	86.3	79.4	74.5	70.6	3.89	3.89	3.98	3.91	3.83	3.78
가정	73.0	75.5	83.6	74.2	70.6	66.5	3.79	3.86	3.96	3.85	3.90	3.80
직장	94.7	94.7	84.2	83.3	84.2	83.3	4.07	4.35	4.10	4.12	4.18	3.99
부모협동	100.0	100.0	100.0	-	100.0	100.0	4.00	4.00	4.00	-	5.00	4.00
(수)	(1,527)	(1,530)	(1,522)	(1,053)	(1,361)	(1,165)	(1,527)	(1,530)	(1,522)	(1,053)	(1,361)	(1,165)
F							1.5	2.2*	0.3	0.9	2.4*	0.7
2009년	81.6	83.3	85.6	78.8	66.4	-	3.91	3.91	4.01	3.93	3.68	-

* $p < .05$

도움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모든 항목이 3~4점 사이로 보통 이상 도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의 도움 정도가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고, 보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 자료는 3.8~3.9점 정도로 높았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급간식 식단과 부모상담, 부모교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례수가 적은 부모협동을 제외하면, 직장어린이집이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부모교육에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다(표 VI-3-4 참조).

다) 만족도

보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부모교육 등의 정보제공과 부모상담 등과 같은 부모서비스에 대한 만족 비율과 5점 척도화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앞서 도움되는 비율을 산출한 것과 동일하게 만족한다는 비율은 만족한다고 매우 만족하는 응답 비율을 합산하였다.

<표 VI-3-5>와 같이, 급간식 식단정보 제공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보육계획표, 부모상담은 70%대이고, 부모교육 자료는 66.2%로 가장 낮았다.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급간식 식단과 발달평가, 부모상담의 만족도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급간식 식단이 11%p 증가하였고, 부모상담도 6.7%p 증가한 반면, 보육계획표는 3.5%p 감소하였다.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가정통신문, 급간식 식단, 보육계획표, 자녀발달 평가 모두 3.8점대로 높았다. 특히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부모교육에서 이용 어린이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가정통신문과 보육계획표의 만족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고, 급간식 식단이나 발달평가, 부모상담은 증가하였다.

<표 VI-3-5>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 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교 육자료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전체	73.9	88.0	77.9	74.2	70.4	66.2	3.83	3.86	3.88	3.85	3.78	3.72
국공립	78.7	84.5	80.7	76.8	76.6	70.5	3.90	3.99	3.88	3.86	3.87	3.76
법인	77.8	91.7	75.8	78.2	71.0	73.2	3.89	3.86	3.86	3.86	3.79	3.86
법인·단체등	71.9	85.3	78.8	74.1	65.6	64.3	3.75	3.93	3.91	3.81	3.68	3.67
민간	74.4	89.6	78.8	74.4	68.9	64.9	3.82	3.83	3.87	3.84	3.74	3.69
가정	66.4	86.9	73.0	67.8	67.3	61.6	3.77	3.79	3.87	3.84	3.82	3.71
직장	89.5	61.1	89.5	83.3	89.5	88.9	3.98	4.33	4.28	4.04	4.12	4.13
부모협동	100.0	100.0	100.0	-	100.0	100.0	4.00	4.00	4.00	-	5.00	5.00
(수)	(1,527)	(1,530)	(1,522)	(1,053)	(1,361)	(1,165)	(1,527)	(1,530)	(1,522)	(1,053)	(1,361)	(1,165)
F							1.6	4.8***	1.6	0.4	3.0**	2.7*
2009년	77.4	77.0	77.9	71.7	59.5	-	3.86	3.84	3.90	3.83	3.62	-

* $p < .05$, *** $p < .001$

2) 부모지원

<표 VI-3-6>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부모의 취업이나 학업 또는 가사,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표이다. 도움된다는 비율은 매우 도움된다는 도움된다는 응답을 합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 94.7%, 업무능력 향상 89.5%, 육아기술지식 63.3%, 가족갈등 완화 52%, 여가취미활동 50.6%, 취업 및 구직 38.8%, 추가 출산 18.5%, 학업훈련 12.6%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나 육아지식 확대, 가족관계 개선 뿐 아니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저출산 완화, 기혼 여성의 인력 활용을 위해 보육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추가 출산이나 취업 및 학업 또는 직업 훈련 지원 기능이 부족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취업 및 구직, 출산에 대한 도움은 직장과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57.9%, 41.1%로 많았다. 학업훈련과 가족갈등 완화는 직장어린이집, 여가·취미활동과 양육부담 완화는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I-3-6> 어린이집 유형별 도움 정도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 능력 향상	여가·취미 활동	육아기 술·지식	학업 훈련	양육 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 갈등 완화	기타	(수)
전체	38.8	89.5	50.6	63.3	12.6	94.7	18.5	52.0	100.0	(1,535)
국공립	39.8	89.4	45.9	59.4	9.8	94.7	16.7	43.4	100.0	(173)
법인	37.8	85.9	44.9	60.6	13.1	89.9	14.1	52.5	-	(115)
법인·단체 등	21.2	57.6	42.4	63.6	12.1	72.7	3.0	24.2	-	(37)
민간	38.0	90.6	52.1	64.9	13.2	95.9	18.1	55.5	100.0	(872)
가정	41.1	90.9	53.3	61.3	13.2	96.2	23.3	50.9	-	(309)
직장	57.9	94.7	52.6	89.5	15.8	89.5	31.6	68.4	-	(29)

다음 <표 VI-3-7>은 어린이집 이용의 도움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것이다.

<표 VI-3-7> 어린이집 유형별 도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 능력 향상	여가·취미 활동	육아기 술·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기타
전체	4.13	4.06	3.94	3.86	3.94	4.13	4.04	3.88	4.00
국공립	4.14	4.02	3.94	3.93	3.47	4.13	3.72	3.88	4.00
법인	4.04	4.10	3.89	3.93	3.89	4.01	4.10	3.83	-
법인·단체 등	3.70	3.92	3.84	3.75	3.31	4.04	4.55	3.78	-
민간	4.09	4.04	3.94	3.81	4.01	4.12	4.02	3.86	4.00
가정	4.26	4.11	3.97	3.91	4.10	4.19	4.23	3.96	-
직장	4.20	4.14	3.74	3.87	4.00	4.17	4.26	4.06	-
부모협동	-	-	4.00	5.00	-	5.00	4.00	-	-
(수)	(568)	(1,368)	(773)	(987)	(212)	(1,459)	(304)	(834)	(3)
F	2.5*	1.4	0.4	1.8 [#]	3.7**	1.5	3.7**	1.0	-

$p < .1$, * $p < .05$, ** $p < .01$

전반적으로 4점 내외의 도움 정도를 나타내어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취업 및 구직과 양육부담 완화가 각각 4.13점으로 높고, 업무능력 향상 4.06점, 추가 출산 4.04점, 여가·취미활동과 학업 훈련 각각 3.94점, 가족갈등 완화 3.88점, 육아·기술 지식 3.86점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취업 및 구직, 육아·기술지식, 학업훈련, 추가 출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및 구직은 가정어린이집, 육아·기술지식은 부모협동어린이집, 학업훈련은 가정어린이집, 추가 출산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상대적으로 도움받은 정도가 높았다(표 VI-3-7 참조).

<표 VI-3-8>은 이를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 모취업 및 가구소득 수준별로 도움정도 차이를 산출한 것이다.

<표 VI-3-8> 제 특성별 어린이집의 도움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기타
전체	4.13	4.06	3.94	3.86	3.94	4.13	4.04	3.88	4.00
영유아구분									
영아	4.19	4.07	3.94	3.85	4.03	4.17	4.12	3.88	4.00
유아	4.06	4.04	3.94	3.87	3.82	4.08	3.92	3.89	4.00
t	2.6**	0.9	-0.02	-0.5	2.1*	3.2**	2.7**	-0.4	-
연령									
0세	4.31	4.23	4.23	3.98	4.35	4.30	4.26	3.96	4.00
1세	4.18	4.09	3.93	3.83	4.05	4.21	4.10	3.88	-
2세	4.14	4.01	3.88	3.82	3.89	4.11	4.10	3.85	4.00
3세	4.03	4.07	3.94	3.89	3.92	4.10	3.96	3.93	-
4세	4.10	4.04	3.95	3.86	4.04	4.02	4.05	3.92	4.00
5세	4.07	4.01	3.94	3.84	3.52	4.11	3.69	3.79	-
F	2.2#	3.2**	2.8*	1.0	4.0**	4.8***	3.0*	1.2	-
지역규모									
대도시	4.09	4.06	3.93	3.82	3.91	4.12	4.06	3.88	4.00
중소도시	4.19	4.06	3.90	3.82	3.83	4.15	3.98	3.86	4.00
읍·면	4.08	4.04	4.05	4.01	4.23	4.12	4.10	3.95	-
F	2.3	0.2	2.9#	7.2**	3.7*	0.4	0.8	1.5	-
모취업 여부									
취업	4.16	4.06	3.85	3.86	3.90	4.13	4.00	3.94	-
휴직중	4.14	4.09	3.87	3.78	3.48	4.20	4.09	3.89	-
미취업	4.04	4.05	3.98	3.86	4.00	4.12	4.05	3.84	-
부재 등	4.07	4.03	4.00	3.00		4.37	4.00	3.95	-
F	1.5	0.1	2.1#	1.6	2.1	1.2	0.2	2.0	-

(표 VI-3-8 계속)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기타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05	4.02	3.67	3.59	3.16	4.10	3.92	3.77	-
150~199만원	4.03	4.02	3.91	3.89	4.26	4.14	4.06	3.78	-
200~249만원	4.15	4.12	4.02	3.86	3.96	4.11	4.14	3.76	-
250~299만원	4.15	4.10	3.97	3.84	4.08	4.20	4.14	4.02	4.00
300~349만원	4.03	4.04	3.96	3.85	3.90	4.16	3.93	3.94	-
350~399만원	4.14	4.00	3.79	3.84	3.61	4.16	3.68	3.82	-
400~499만원	4.16	4.04	3.96	3.88	3.88	4.02	4.04	3.86	4.00
500~599만원	4.30	4.12	4.18	4.05	4.03	4.27	4.23	3.95	4.00
600~699만원	4.14	3.96	3.72	3.75	3.86	4.08	4.13	3.87	-
700만원 이상	3.95	3.96	3.67	3.70	4.02	3.95	4.03	3.84	-
F	1.5	1.4	3.5***	2.0	1.5	3.4***	1.9 [#]	2.1 [*]	-
(수)	(568)	(1,368)	(773)	(987)	(212)	(1,459)	(304)	(834)	(3)

$p < .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자녀연령별로 보면, 취업 및 구직, 학업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양육부담 완화 및 추가 출산에 대한 도움 정도가 높았다. 유아보다 영아가 취업 및 구직, 학업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에서 도움 정도가 높았고,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여가 취미활동과 육아기술지식, 학업훈련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가 높았으며,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여가 및 취미활동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가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가·취미활동과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건강검진 경험, 어린이집에서의 사전안내 및 검진결과 제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건강검진 실시

먼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건강검진 여부에 대해 81.4%가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 17.9%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아동

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비율이 97%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 아동은 74.6%로 가장 낮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24.7%로 많았다.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I-3-9 참조).

〈표 VI-3-9〉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9.3	83.7	97.0	80.5	74.6	89.5	100.0	80.9	79.4	86.5	81.4
받지 않음	10.2	15.3	3.0	18.8	24.7	10.5	-	18.6	19.6	13.1	17.9
잘 모름	0.4	1.0	-	0.7	0.7	-	-	0.5	1.0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591)	(605)	(340)	(1,536)

유아보다 영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는 비율이 높았다. 유아가 85.1%인데 반해 영아가 78.2%로 영아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은 0세가 30%대로 높았다(표 VI-3-10 참조).

〈표 VI-3-10〉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78.2	85.1	67.3	77.4	81.8	87.3	85.0	82.1
받지 않음	20.9	14.4	30.8	22.0	17.5	12.3	14.1	17.9
잘 모름	0.9	0.4	1.9	0.7	0.8	0.4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X ² (df)	12.0(2)**		-					

** p < .01.

나) 사전 안내

〈표 VI-3-11〉은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에 대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부모 중 91.6%가 사전 안내를 받았고, 7.5%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이 100%로 가장 많고, 국공립, 법인·단체

등, 법인, 민간어린이집은 90%대, 가정어린이집 88.2% 부모만 사전 안내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 10.5%는 사전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았다.

〈표 VI-3-11〉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받음	95.1	91.8	93.9	91.2	88.2	100.0	100.0	91.2	91.1	92.7	91.6
받지 않음	4.5	7.1	6.1	7.8	10.5	-	-	8.0	7.5	6.9	7.5
잘 모름	0.4	1.0	-	1.0	1.4	-	-	0.8	1.4	0.3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591)	(605)	(340)	(1,536)
X ² (df)											2.7(4)

자녀연령별로는 건강검진 여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안내를 받았다는 비율이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많았다. 유아 부모 94.1%와 영아 부모 89.3%가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고, 영아 부모 1.4%는 사전 안내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5세 부모가 96.9%로 가장 높고, 0세가 84.6%로 가장 낮았다. 특히 0세 부모 중 2.9%가 사전 안내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여 상위 연령 부모보다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에 관심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표 VI-3-12 참조).

〈표 VI-3-12〉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89.3	94.1	84.6	87.9	91.6	92.6	93.7	96.9
받지 않음	9.3	5.4	12.5	11.1	7.1	7.1	5.4	3.1
잘 모름	1.4	0.4	2.9	1.0	1.3	0.4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X ² (df)	12.1(2)**							

** $p < .01$

다) 건강검진 결과 제출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 어린이집에 제출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7%는 제출하였고, 나머지 22%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는 비율은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90.9%로 많고, 다음으로 국공립 85.7%, 직장 84.2% 순이었고,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많았다(표 VI-3-13 참조).

〈표 VI-3-13〉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제출	85.7	79.8	90.9	75.4	70.5	84.2	100.0	75.0	75.6	84.1	77.0
미제출	12.7	19.2	9.1	23.8	28.1	15.8	-	23.7	23.3	15.6	22.0
잘 모름	1.6	1.0	-	0.9	1.4	-	-	1.3	1.0	0.3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591)	(605)	(340)	(1,536)
X ² (df)											10.8(4)*

* p < .05

<표 VI-3-14>와 같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는 비율이 5%p 정도 높았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제출하였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3세 부모가 81%로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은 80% 이하로 낮았다.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지 모른다는 비율은 0세, 1세, 2세 모두 1%대로 유아보다 많았다.

〈표 VI-3-14〉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 여부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제출	74.9	79.4	63.5	72.8	79.8	81.0	78.3	78.1
미제출	23.6	20.1	34.6	25.6	19.2	18.3	20.8	21.9
잘 모름	1.5	0.4	1.9	1.6	1.0	0.7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44)
X ² (df)		7.3(2)*						

* p < .05

4) 표준보육과정 인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안다는 비율이 60.8%로 39.2%의 모른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의 표준보육과정 인지도가 높았으나, 모 취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별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 가구의 인지도가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에 비해 높았다(표 VI-3-15 참조).

〈표 VI-3-15〉 표준보육과정 인지 여부

구 분	잘 압	대략 압	모름	계(수)	단위: %(명)
					X ² (df)
전체	21.6	39.2	39.2	100.0(1,29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9.6	38.4	41.9	100.0(911)	10.5(2)**
유아	25.9	40.9	33.2	100.0(386)	
모취업 여부					
취업	24.8	35.7	39.5	100.0(512)	-
휴직	30.0	27.5	42.5	100.0(45)	
미취업	19.1	42.7	38.2	100.0(731)	
모 부재	-	25.0	75.0	100.0(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9.0	42.9	38.1	100.0(36)	39.80(18)**
150~199만원	22.9	29.2	47.9	100.0(98)	
200~249만원	13.0	43.5	43.5	100.0(159)	
250~299만원	17.0	38.8	44.2	100.0(218)	
300~349만원	20.0	50.3	29.7	100.0(212)	
350~399만원	26.6	39.4	34.0	100.0(119)	
400~499만원	24.9	35.9	39.2	100.0(212)	
500~599만원	30.6	32.3	37.1	100.0(118)	
600~699만원	24.2	43.9	31.8	100.0(58)	
700만원 이상	22.6	29.0	48.4	100.0(67)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2.5	36.8	40.7	100.0(1,157)	23.1(2)***
둘 다 이용	14.8	57.7	27.5	100.0(140)	

** $p < .01$, *** $p < .001$

5) 누리과정

취학전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을 만 5세 자녀를 둔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만5세 부모의 54.6%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21.9%는 매우 잘 알고 있어 약 76.5%는 알고 있었다. 반면 23.5%는 잘 모르고 있었다.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도시일수록 높았다.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20%p 정도 차이가 있어 읍·면지역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의 누리과정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83.3%, 법인 81.8%, 법인·단체 등 76.9%, 민간 72.9% 순이었다.

누리과정을 안다는 표준보육과정 또는 유치원교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의 차이를 질문한 결과, 내용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차이가 있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도시일수록 차이가 있다는 비율이 높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많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어린이집 이용 부모 77.8%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는 40%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누리과정을 아는 부모의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46.5%이었다. 거주지역과 이용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대도시와 법인어린이집이 다른 지역 또는 어린이집보다 만족도 및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VI-3-16 참조).

〈표 VI-3-16〉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누리과정 관련 인식 및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내용 인지				기존 과정과의 차이				만족 정도		
	매우 잘 앎	어느 정도 앎	잘 모름	계(수)	별 차이 없음	어느 정도 차이 있음	많은 차이 있음	계(수)	만족한다는 비율	평균	(수)
전체	21.9	54.6	23.5	100.0(150)	52.7	45.3	2.0	100.0(118)	46.5	3.4	(118)
지역규모											
대도시	26.5	55.1	18.4	100.0(67)	47.5	51.3	1.3	100.0(57)	54.1	3.5	(57)
중소도시	16.7	59.1	24.2	100.0(57)	56.9	37.3	5.9	100.0(45)	37.3	3.4	(45)
읍·면	21.2	42.4	36.4	100.0(26)	61.9	38.1	-	100.0(16)	38.1	3.4	(16)
X ² (df)/F	6.9(40)				-				-	0.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7.0	46.3	16.7	100.0(34)	53.3	46.7	-	100.0(29)	54.3	3.6	(29)
법인	27.3	54.5	18.2	100.0(13)	22.2	77.8	-	100.0(8)	77.8	3.8	(8)
법인·단체 등	15.4	61.5	23.1	100.0(9)	54.5	45.5	-	100.0(6)	27.3	3.0	(6)
민간	15.3	57.6	27.1	100.0(93)	55.3	41.2	3.5	100.0(74)	42.9	3.4	(74)
직장	-	-	-	-	-	-	-	-	-	3.0	(1)
X ² (df)/F	-				-				-	1.7	

6) 부모참여에 대한 의견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3가지 활동에 대한 인지도, 참여율과 도움되는 정도, 향후 참여 의향을 조사하였다.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50% 미만 수준이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활동 참여율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실제 참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나머지 항목보다 높았다. 이러한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고, 향후 참여의향은 전반적으로 40%대를 나타내었다.

〈표 VI-3-17〉 인지도, 참여율, 도움 정도, 참여 의향

구분	인지도	참여율	참여의향	단위: %(명)	
				참여시	도움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49.6	8.0	42.7		56.4
부모 모니터링단	34.1	2.4	43.0		55.2
부모 자원봉사	42.7	5.0	42.6		56.3
(수)	(1,297)	(1,297)	(1,297)		

제 특성별로 부모참여 활동 인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표 VI-3-18>에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한 참여와 미참여 비율을 합산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모두 유아 부모, 대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가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VI-3-18〉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을 안다는 비율

구분	단위: %(명)			(수)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전체	49.6	34.1	42.7	(1,29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6.8	33.2	40.1	(911)
유아	55.6	36.0	48.2	(386)
X ² (df)	10.5(4)*	3.6(4)	11.5(4)*	
지역규모				
대도시	54.9	38.9	51.2	(505)
중소도시	46.6	31.6	37.4	(511)
읍·면	44.8	29.2	36.8	(281)
X ² (df)	63.5(8)***	124.2(8)***	74.7(8)***	

(표 VI-3-18 계속)

구 분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수)
가구소득별				
149만원 이하	36.6	28.6	28.6	(36)
150~199만원	46.9	38.1	43.8	(98)
200~249만원	44.2	29.7	34.2	(159)
250~299만원	51.5	36.4	44.0	(218)
300~349만원	49.0	31.4	40.5	(212)
350~399만원	52.1	31.6	48.4	(119)
400~499만원	54.6	37.5	47.9	(212)
500~599만원	41.5	25.2	34.7	(118)
600~699만원	66.7	50.8	61.5	(58)
700만원 이상	45.9	31.1	41.0	(67)
X ² (df)	-	-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8.9	33.1	41.5	(1,157)
둘 다 이용	53.6	41.4	51.8	(140)
X ² (df)	24.8(4) ^{***}	7.6(4)	7.8(4)	

* $p < .05$, *** $p < .001$

부모 참여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를 합산하여 참여율을 산출한 결과,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8%, 부모자원봉사 5.3%, 부모 모니터링단 2.4% 정도이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대도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한 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차이가 없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자원봉사는 영아보다 유아 부모가, 읍면지역에서, 취업모일수록 높았다(표 VI-3-19 참조).

〈표 VI-3-19〉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

단위: %(명)

구 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수)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전체	8.0	2.4	5.3	41.7	43.0	42.6	(1,29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0	2.3	4.5	44.4	46.2	44.6	(910)
유아	7.9	2.5	6.9	35.8	36.1	38.3	(386)
X ² (df)	7.5(3)	3.5(3)	9.5(3) [*]	-	-	-	
지역규모							
대도시	9.4	2.4	5.4	45.2	43.5	44.7	(505)
중소도시	6.3	1.8	4.0	36.8	42.2	39.1	(510)
읍·면	8.4	3.2	7.6	44.6	43.8	45.6	(281)
X ² (df)	28.7(6) ^{***}	-	52.5(6) ^{***}	-	-	-	

(표 VI-3-19 계속)

구 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수)
	운영 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 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모취업							
취업	9.4	3.5	6.8	34.2	34.7	35.1	(512)
휴직	12.2	-	-	46.3	42.5	41.5	(45)
미취업	6.8	1.7	4.3	47.5	49.7	48.8	(730)
부재 등	-	-	-	18.2	18.2	18.2	(9)
$X^2(df)$	-	-	32.6(8) ^{***}	-	-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9	-	-	18.6	14.3	14.3	(36)
150~199만원	11.5	2.1	7.3	36.5	33.3	37.5	(98)
200~249만원	4.5	0.6	1.9	41.6	47.7	43.2	(159)
250~299만원	6.8	3.4	6.8	43.7	44.4	44.7	(218)
300~349만원	6.1	2.6	4.6	40.0	44.6	40.5	(212)
350~399만원	12.8	4.2	4.2	54.7	51.6	51.6	(118)
400~499만원	6.9	2.8	6.0	41.0	41.5	40.7	(212)
500~599만원	4.9	0.8	4.8	48.8	48.4	51.2	(118)
600~699만원	24.2	-	10.8	39.4	43.1	44.6	(58)
700만원 이상	8.2	3.3	4.9	35.0	37.1	42.6	(67)
$X^2(df)$	73.1(27) ^{***}	30.6(27)	57.1(27) ^{***}	-	-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6.7	2.2	5.1	41.5	42.9	42.5	(1,156)
둘 다 이용	16.4	3.6	5.7	43.3	44.0	44.0	(140)
$X^2(df)$	23.3(3) ^{***}	-	-	-	-	-	

* $p < .05$, *** $p < .001$

향후 부모 참여활동 참가 의향은 세가지 항목 모두 유아보다는 영아 부모가, 취업 모보다는 미취업모 가구와 중간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부모 모니터링단과 부모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높았다(표 VI-3-19 참조).

한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참여자의 경우 참여가 도움되었다는 비율은 55~66% 정도이었다. 세 가지 모두 영아보다 유아 부모가, 중소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는 운영위원회와 부모 모니터링단, 미취업모는 부모자원봉사가 더 높았다. 어린이집만 이용한 부모는 운영위원회와 부모 자원봉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이용한 부모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도움 정도가 높았다(표 VI-3-20 참조).

〈표 VI-3-20〉 부모참여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전체	56.4	(112)	55.2	(40)	56.3	(73)
최연소연령구분						
영아	54.3	(73)	55.0	(28)	52.6	(40)
유아	61.3	(39)	55.6	(12)	61.5	(33)
지역규모별						
대도시	55.3	(50)	58.3	(15)	63.0	(32)
중소도시	69.7	(41)	55.6	(13)	78.9	(23)
읍·면	40.0	(21)	50.0	(12)	31.6	(18)
모 취업형태						
취업	64.6	(48)	61.1	(22)	47.1	(35)
휴직	60.0	(6)	-	(1)	66.7	(38)
미취업	51.1	(58)	45.5	(17)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59.2	(92)	50.0	(33)	59.6	(66)
둘 다 이용	50.0	(20)	83.3	(7)	37.5	(7)

7) 어린이집 정보 공시

가) 어린이집 정보 인식정도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시된 9개 항목 중 부모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다. 특히, 부모 중 92%는 수입지출, 87.3%는 규정위반, 80.3%는 운영위원회, 78.9%는 평가인증 접수, 76.8%는 사고발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표 VI-3-21 참조).

〈표 VI-3-21〉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대충 앎	잘 아는 편임	매우 잘 앎	계(수)
원장	23.7	46.1	23.1	5.9	1.2	100.0(1,535)
교사	22.1	48.3	22.2	6.7	0.7	100.0(1,535)
평가인증 여부	8.5	16.6	37.2	30.2	7.5	100.0(1,535)
평가인증 접수	27.4	51.5	12.6	6.8	1.8	100.0(1,131)
대피시설 등	15.2	44.3	22.0	16.5	2.0	100.0(1,535)
운영위원회	37.0	43.3	11.8	6.3	1.5	100.0(1,499)
수입 지출	47.1	44.9	4.8	2.4	0.8	100.0(1,535)
규정위반	37.4	49.9	8.2	3.3	1.2	100.0(1,535)
사고발생	30.7	46.1	13.3	7.3	2.5	100.0(1,535)

자녀의 안전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이나 보육서비스의 질 등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매우 낮았다.

어린이집 정보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보면 원장 및 교사 정보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항목 중 평가인증 여부가 5점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고, 수입지출 및 규정 위반, 운영위원회 등의 정보 인식은 평균 2점 미만으로 낮았다(표 VI-3-22 참조).

〈표 VI-3-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								
	원장 정보	교사 정보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	대피 시설 등	운영위원회	수입지출 정보	규정 위반 정보	사고 발생 정보
전체	2.1	2.2	3.1	2.0	2.5	1.9	1.7	1.8	2.0
영유아구분									
영아	2.1	2.1	3.0	2.0	2.4	1.8	1.6	1.8	2.0
유아	2.2	2.2	3.2	2.1	2.6	2.1	1.7	1.9	2.1
t	0.8	1.6	3.5**	-1.1	4.1***	4.4***	2.9**	2.9**	4.4***
연령									
0세	2.2	2.1	3.0	1.9	2.4	1.8	1.6	1.8	2.1
1세	2.1	2.0	3.0	2.0	2.4	1.7	1.5	1.7	1.9
2세	2.2	2.2	3.1	2.0	2.3	1.8	1.6	1.8	2.0
3세	2.2	2.2	3.1	2.0	2.5	2.0	1.8	1.9	2.1
4세	2.2	2.2	3.1	2.1	2.6	2.1	1.7	1.8	2.2
5세	2.1	2.2	3.4	2.2	2.6	2.1	1.8	1.9	2.1
F	1.1	1.9 [#]	3.2**	1.5	3.5**	6.8***	4.6***	2.0 [#]	2.8*
지역규모									
대도시	2.1	2.2	3.1	2.1	2.5	2.0	1.7	1.8	2.0
중소도시	2.2	2.1	3.1	1.9	2.3	1.8	1.6	1.7	2.0
읍·면	2.2	2.2	3.2	2.1	2.6	2.0	1.7	1.9	2.2
F	1.3	0.6	1.0	5.5	9.0***	7.6**	1.3	5.6**	5.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2	2.4	3.5	2.1	2.9	2.3	2.0	2.1	2.4
법인	2.1	2.2	3.0	2.3	2.4	1.8	1.6	1.8	1.9
법인·단체등	2.3	2.1	3.2	2.2	2.5	2.1	1.8	2.0	2.3
민간	2.1	2.1	3.0	2.0	2.3	1.9	1.6	1.8	2.0
가정	2.2	2.1	3.0	1.9	2.4	1.7	1.5	1.7	2.0
직장	3.1	3.1	3.2	2.4	2.9	2.5	2.3	2.3	2.4
부모협동	2.0	2.0	2.0		2.0	2.0	4.0	5.0	5.0
F	3.8**	8.2***	5.6***	3.1*	10.8***	12.2***	14.7***	9.4***	9.5***

$p < .1$, * $p < .05$, ** $p < .01$, *** $p < .001$

평가인증 여부와 대피시설, 운영위원회, 수입지출, 규정위반, 사고발생 정보에서

영아보다 유아를 둔 부모의 정보 인식 정도가 높았고, 원장 정보와 평가인증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인식 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피시설과 운영위원회, 규정위반 정보는 읍·면이나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인식 정도가 높은 반면, 사고발생 정보는 읍·면이 평균 2.2점, 도시지역이 평균 2점으로 읍·면지역이 더 높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정보 인식 정도가 높았다. 국공립은 평가인증 여부와 대피시설,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정보 인식 정도가 높았다(표 VI-3-22 참조).

나)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총 9종의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부모 94.1%가 사고발생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피시설과 규정위반도 89%, 86.9%로 주로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입지출 정보나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I-3-23 참조).

〈표 VI-3-23〉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	단위: %(명)
						계(수)
원장	0.4	6.8	20.2	59.2	13.3	100.0(1,535)
교사	0.4	5.6	14.9	61.4	17.7	100.0(1,535)
평가인증	0.3	3.6	22.8	59.0	14.3	100.0(1,535)
평가인증 점수	0.4	10.3	28.6	49.5	11.1	100.0(1,514)
대피시설 등	0.2	1.8	9.0	56.5	32.5	100.0(1,535)
운영위원회	0.5	12.0	33.1	43.8	10.6	100.0(1,535)
수입 지출	0.9	16.9	30.8	40.6	10.8	100.0(1,535)
규정위반	0.6	1.9	10.6	54.3	32.6	100.0(1,535)
사고발생	0.7	0.7	4.5	43.2	50.9	100.0(1,535)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정도를 제 특성별로 보면, 사고발생 정보가 평균 4.4점으로 가장 높고 대피시설 평균 4.2점, 규정위반 정보 평균 4.2점으로 높았다. 나머지 항목은 평균 3점대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원장 및 교사 정보, 운영위원회, 규정위반 정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영아와 유아 간에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일수록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정도가 높고,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수입지출 정보 외에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주로 직장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정보

필요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VI-3-24 참조).

〈표 VI-3-2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정보의 필요성 정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								
	원장 정보	교사 정보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접수	대피 시설 등	운영 위원회	수입 지출 정보	규정 위반 정보	사고 발생 정보
전체	3.8	3.9	3.8	3.6	4.2	3.5	3.4	4.2	4.4
연령									
0세	3.7	3.8	3.8	3.6	4.2	3.4	3.3	4.2	4.4
1세	3.8	3.9	3.8	3.6	4.2	3.5	3.5	4.2	4.4
2세	3.8	3.9	3.8	3.6	4.2	3.5	3.4	4.2	4.4
3세	3.9	4.0	3.9	3.6	4.2	3.6	3.5	4.2	4.5
4세	3.8	3.9	3.8	3.6	4.2	3.6	3.5	4.2	4.4
5세	3.7	3.8	3.9	3.5	4.1	3.5	3.3	4.0	4.4
F	2.2 [#]	2.1 [#]	0.4	1.0	1.3	1.9 [#]	1.6	2.6 [*]	1.4
지역규모									
대도시	3.8	3.9	3.9	3.7	4.2	3.6	3.5	4.1	4.5
중소도시	3.8	3.9	3.8	3.6	4.2	3.4	3.3	4.2	4.4
읍·면	3.7	3.8	3.7	3.6	4.1	3.6	3.4	4.2	4.3
F	3.4 [*]	3.5 [*]	9.3 ^{***}	1.4	4.7 ^{**}	6.0 ^{**}	6.0 ^{**}	2.0	3.1 [*]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9	3.9	4.0	3.6	4.2	3.7	3.6	4.2	4.5
법인	3.5	3.8	3.5	3.4	4.0	3.3	3.2	4.1	4.2
법인·단체등	3.6	3.6	3.7	3.3	3.9	3.4	3.1	3.7	4.2
민간	3.8	3.9	3.8	3.6	4.2	3.5	3.4	4.1	4.4
가정	3.8	3.9	3.9	3.7	4.3	3.5	3.5	4.2	4.5
직장	4.1	4.4	4.1	3.7	4.3	3.7	3.4	4.3	4.5
부모협동	4.0	4.0	4.0	4.0	4.0	4.0	4.0	5.0	5.0
F	4.4 ^{***}	2.8 [*]	5.4 ^{***}	2.3 [*]	3.6 ^{**}	2.8 [*]	3.0	3.1 ^{**}	2.3 [*]

$p < .1$, * $p < .05$, ** $p < .01$, *** $p < .001$

8) CCTV

가) CCTV 설치

어린이집 내 IP-TV를 포함한 CCTV 등 설치·운영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CCTV, IP-TV²⁵⁾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25) IP-TV는 촬영된 영상을 동축 케이블을 통해 전송(CCTV)하거나 IP 네트워크 망을 통해 전송하여 DVR이나 비디오 서버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를 말함.

조사결과, 이용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장 25%, 법인·단체 등 23.5%, 법인 21.2% 순이었고, 가정이 3.5%로 가장 낮았다. 한편,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는 법인·단체 등이 35.3%, 국공립 21.2%, 직장 20% 순으로 많았다(표 VI-3-25 참조).

〈표 VI-3-25〉 CCTV 설치 여부: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설치	29.8	21.2	23.5	20.6	3.5	25.0	-
미설치	49.0	61.6	41.2	65.3	84.7	55.0	100.0
모름	21.2	17.2	35.3	14.1	11.8	20.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나) 이용 정도 및 만족도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 가입 여부, 이용 빈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CCTV 이용자로 가입한 부모는 10.5%이었고, 연령별 가입률은 0세 20%, 나머지 연령은 10% 내외로 영아 부모의 가입률이 유아보다 높았다. 읍·면지역과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고, 가정과 직장 어린이집이 20~30%로 나머지 유형보다 높았다(표 VI-3-26 참조).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부모가 75.9%로 과반수였고, 19.6%는 가끔 이용, 나머지는 1~2%로 소수였다. 연령별로는 0세는 매일 이용이 16.7%로 나머지 연령에 비해 높고, 주 2~3회는 1세, 주 1회는 5세가 비교적 높았다. 읍·면지역은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도시는 가끔 이용이 많았다.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중소도시 82.5%, 대도시 72.7%, 읍·면 70.6% 순이었고, 시설유형별로는 매일 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6.8%로 가장 많고, 가끔 이용은 법인·단체등과 가정어린이집이 30%대이었다.

CCTV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비율이 89.3%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2점이었다. 영아보다 유아 부모가 만족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5점 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역별로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중소도시 부모가 88.9%로 비교적 높으나 5점 척도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시설유형별로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한다는 비율이 66.7%로 가장 낮지만 5점 척도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3-26> CCTV 이용 관련 의견: 5점 척도

단위: %, 점(명)

구분	가입 비율	이용 정도						만족도			
		매일 이용	주 2-3회 이용	주 1회 정도	가끔 이용	전혀 이용 안함	계(수)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0.5	2.8	0.7	1.0	19.6	75.9	100.0(288)	89.3	3.2	0.6	(31)
영유아구분											
영아	11.0	3.4	0.8	-	18.6	77.1	100.0(120)	92.3	3.1	0.6	(16)
유아	10.2	3.0	0.6	1.2	19.8	75.4	100.0(168)	94.1	3.2	0.6	(15)
$X^2(df)/t$				-					-0.4		
연령											
0세	20.0	16.7	-	-	50.0	33.3	100.0(7)	100.0	4.0	-	(2)
1세	12.9	-	3.2	-	16.1	80.6	100.0(39)	75.0	2.8	0.5	(7)
2세	9.9	3.7		-	18.3	78.0	100.0(74)	87.5	3.1	0.5	(7)
3세	9.7	1.4	1.4	1.4	22.2	73.6	100.0(68)	83.3	3.0	0.7	(7)
4세	11.4	7.0	-	-	16.3	76.7	100.0(60)	100.0	3.0	-	(6)
5세	9.6	-	-	3.8	19.2	76.9	100.0(40)	100.0	3.7	0.5	(2)
$X^2(df)/F$				-					2.4 [#]		
지역규모											
대도시	11.3	3.0	0.8	0.8	22.7	72.7	100.0(121)	86.7	3.0	0.5	(15)
중소도시	8.7	1.9	-	-	15.5	82.5	100.0(96)	88.9	3.4	0.7	(8)
읍·면	12.0	5.9	2.0	3.9	17.6	70.6	100.0(71)	85.7	3.1	0.5	(8)
$X^2(df)/F$				-					1.5		
아닌아집 유형											
국공립	12.5	6.8	-	-	12.3	80.8	100.0(55)	100.0	3.5	0.5	(5)
법인	4.8	4.8	-	-	19.0	76.2	100.0(30)	100.0	2.8	1.0	(2)
법인·단체등	12.5	-	-	-	37.5	62.5	100.0(11)	100.0	3.0	-	(1)
민간	8.9	1.8	0.6	1.2	21.3	75.1	100.0(167)	85.7	3.0	0.6	(15)
가정	30.0	-	9.1	-	36.4	54.5	100.0(13)	66.7	3.0	0.7	(5)
직장	25.0	-	-	-	-	100.0	100.0(12)	100.0	3.2	0.9	(3)
$X^2(df)/F$				-					0.9		

$p < .1$

주: 만족도 평균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다) CCTV 설치 필요성

<표 VI-3-27>은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 부모 중 74.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5점 척도 평균은 3.9점이었다. 자녀가 어릴수록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1세가 81%, 0세 77.9%, 2세 76.2% 순으로 많

았다.

CCTV 필요 정도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1세가 평균 4점으로 가장 높고 5세가 평균 3.6점으로 낮았다. 이용 어린이집이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어린이집인 경우에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I-3-27〉 CCTV 필요성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9	9.8	14.1	46.0	28.2	100.0(1,536)	3.9	1.0
영유아구분								
영아	2.2	7.3	12.4	47.8	30.2	100.0(867)	3.9	1.0
유아	1.9	12.4	16.3	43.7	25.8	100.0(669)	3.8	1.0
X ² (df)/t			18.0(4)**				2.1	
연령								
0세	2.9	8.7	10.6	51.0	26.9	100.0(125)	3.9	1.0
1세	1.0	5.6	12.5	47.4	33.6	100.0(345)	4.0	0.9
2세	2.8	8.4	12.7	47.6	28.6	100.0(397)	3.9	1.0
3세	1.8	8.8	13.4	46.5	29.6	100.0(298)	3.8	1.0
4세	1.4	10.0	17.7	47.3	23.6	100.0(227)	3.9	0.9
5세	2.0	20.9	18.4	35.7	23.0	100.0(114)	3.6	1.0
X ² (df)/F			54.5(2)***				3.2**	
지역규모								
대도시	2.4	11.5	15.9	44.7	25.5	100.0(591)	3.8	1.0
중소도시	0.9	7.8	12.6	47.9	30.8	100.0(605)	3.9	0.9
읍·면	3.8	9.7	13.8	44.1	28.6	100.0(340)	3.9	1.0
X ² (df)/F			19.2(8)*				2.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9	11.4	14.3	44.1	25.3	100.0(173)	3.7	1.1
법인	1.0	11.1	11.1	58.6	18.2	100.0(115)	3.7	0.9
법인·단체등	-	8.8	20.6	50.0	20.6	100.0(37)	3.9	0.9
민간	1.8	9.0	14.9	43.8	30.5	100.0(872)	3.9	1.0
가정	1.0	8.7	13.2	47.2	29.9	100.0(309)	3.9	1.0
직장	-	21.1	5.3	63.2	10.5	100.0(29)	3.7	0.9
부모협동	-	100.0	-	-	-	100.0(1)	2.0	-
X ² (df)/F			-				1.9#	

$p < .1$,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이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

9) 아이사랑카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의 이용 빈도 및 결제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응답 부모 중 94%는 아이사랑카드를 매달 결제하고, 소수인 0.2%는 분기별로 결제하며, 5.8%는 아이사랑카드가 없었다(표 VI-3-28 참조).

〈표 VI-3-28〉 아이사랑카드 결제 빈도 및 결제방법

단위: %(명)

구분	결제 빈도				결제 방법					
	매달	분기	없음	계(수)	방문	카드 전달	카드 맡김	인터넷	ARS	계(수)
전체	94.0	0.2	5.8	100.0(1,536)	20.9	43.6	7.7	8.3	19.6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99.0	-	1.0	100.0(867)	23.2	41.2	6.3	7.9	21.5	100.0(867)
유아	88.4	0.3	11.3	100.0(669)	17.9	46.7	9.4	8.7	17.3	100.0(669)
X ² (df)					14.8(4)**					
연령										
0세	98.1	-	1.9	100.0(125)	34.3	41.2	2.9	4.9	16.7	100.0(125)
1세	99.7	-	0.3	100.0(346)	22.0	44.3	4.6	7.2	22.0	100.0(346)
2세	98.7	-	1.3	100.0(397)	21.2	38.8	8.4	9.4	22.2	100.0(397)
3세	84.5	0.7	14.8	100.0(298)	21.9	44.6	5.4	8.3	19.8	100.0(298)
4세	82.8	0.5	16.7	100.0(227)	14.9	47.0	13.3	5.0	19.9	100.0(227)
5세	100.0	-	-	100.0(144)	15.8	49.0	11.2	12.2	11.7	100.0(144)
X ² (df)					55.4(20)***					
지역규모										
대도시	93.0	0.2	6.8	100.0(591)	27.9	35.4	8.5	9.1	19.1	100.0(591)
중소도시	94.7	0.2	5.1	100.0(605)	16.5	48.4	5.8	9.9	19.4	100.0(605)
읍·면	94.8	0.3	4.8	100.0(340)	14.9	51.3	9.5	3.3	21.1	100.0(340)
X ² (df)					54.3(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0.6	0.4	9.0	100.0(173)	27.9	29.7	8.1	9.9	24.3	100.0(173)
법인	93.9	0.0	6.1	100.0(115)	22.8	48.9	12.0	10.9	5.4	100.0(115)
법인·단체등	88.2	2.9	8.8	100.0(37)	23.3	36.7	16.7	6.7	16.7	100.0(37)
민간	94.4	0.1	5.5	100.0(872)	16.1	48.8	8.5	7.1	19.5	100.0(872)
가정	99.0	-	1.0	100.0(309)	27.1	39.4	2.8	9.2	21.5	100.0(309)
직장	57.9	-	42.1	100.0(29)	41.7	25.0	-	25.0	8.3	100.0(29)
부모협동	100.0	-	-	100.0(1)	-	-	-	-	100.0	100.0(1)
X ² (df)					76.0(20)***					

** $p < .01$, *** $p < .001$

영아 부모는 99%가 아이사랑카드로 매달 결제하는 반면, 유아 부모는 10%p 낮은 88.4%만 결제하고 있고, 11.3%는 아이사랑카드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3, 4세를 제외

한 나머지 연령 대부분 매달 결제하고 있고, 3, 4세 부모 중 15% 내외는 아이사랑카드가 없었다. 3, 4세는 소득하위 70%만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아이사랑카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거주지역은 도시지역일수록 아이사랑카드가 없다는 부모가 많았다. 이용 어린이집이 가정,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 매달 결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가 없다는 비율이 42.1%이었다. 국공립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도 9%, 8.8%로 10% 가까이 되었는데, 이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인 영아의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이사랑카드 결제방법은 43.6%가 자녀 등하원시 보육교사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20.9%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인터넷 8.3%, ARS 19.6%로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비율이 절반이 조금 못된다. 7.7%는 아예 어린이집에 카드를 맡기고 있었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한다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를 전달하거나 어린이집에 카드를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이나 ARS 결제는 인터넷은 5세가 많고, ARS 결제는 1세와 2세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결제 비율이 높고 카드를 전달하거나 맡기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높았다.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어린이집과의 접근성이나 인터넷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자녀 등·하원 시 아이사랑카드를 전달하거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는 비율은 직장 41.7%로 많고, 다음으로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27.9%, 27.1%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출퇴근 시 자녀와 함께 등·하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등·하원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부모나 가족 등이 직접 등·하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취약보육

가. 긴급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긴급상황이나 아플 때 돌보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VI-41 참조).

〈표 VI-4-1〉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분	긴급상황시 돌보는 사람					아플 때 돌보는 사람				계(수)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 집	기타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 집	
전체	61.3	33.4	2.8	1.7	0.8	77.4	20.2	1.3	1.1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59.8	34.2	3.5	1.7	0.9	77.6	19.9	1.6	0.9	100.0(867)
유아	63.1	32.6	2.0	1.6	0.7	77.0	20.7	1.0	1.3	100.0(669)
X ² (df)			4.0(4)					1.8(3)		
연령										
0세	64.4	32.7	1.9	1.0	-	76.0	21.2	1.0	1.9	100.0(125)
1세	58.9	31.9	4.9	3.3	1.0	76.3	19.7	3.0	1.0	100.0(345)
2세	59.2	36.2	2.8	0.8	1.0	79.2	19.5	0.8	0.5	100.0(397)
3세	59.7	34.6	3.5	1.8	0.4	75.4	22.5	1.8	0.4	100.0(298)
4세	62.7	32.3	1.8	2.7	0.5	75.1	20.4	0.9	3.6	100.0(227)
5세 이상	68.4	30.1	-	-	1.5	81.6	18.4	-	-	100.0(144)
X ² (df)			-					-		
지역규모										
대도시	56.8	37.9	2.7	2.2	0.3	72.5	25.3	1.0	1.3	100.0(591)
중소도시	64.4	29.6	3.6	0.7	1.7	82.4	15.2	1.7	0.7	100.0(605)
읍·면	64.5	31.4	1.7	2.1	0.3	77.9	19.4	1.4	1.4	100.0(340)
X ² (df)			25.4(8)**					22.0(6)**		
모 취업여부										
취업	49.9	45.1	2.9	1.8	0.3	65.6	30.7	1.9	1.8	100.0(613)
휴직중	32.6	63.0	-	4.3	-	56.5	39.1	-	4.3	100.0(48)
미취업	72.9	21.5	3.1	1.3	1.2	89.1	9.5	1.0	0.4	100.0(862)
모부재	5.9	94.1	-	-	-	5.9	94.1	-	-	100.0(13)
X ² (df)			-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1.5	30.8	5.1	-	2.6	77.5	20.0	2.5	-	100.0(41)
150~199만원	77.4	21.8	-	0.8	-	91.7	8.3	-	-	100.0(127)
200~249만원	64.3	31.9	1.1	1.6	1.1	83.4	13.8	1.1	1.7	100.0(188)
250~299만원	75.2	21.1	1.5	2.3	-	85.7	12.8	-	1.5	100.0(272)
300~349만원	62.7	33.2	1.8	1.8	.5	78.1	20.1	-	1.8	100.0(238)
350~399만원	58.4	38.7	0.7	0.7	1.5	76.8	23.2	-	-	100.0(141)
400~499만원	54.5	38.9	3.9	1.6	1.2	70.0	27.2	1.9	0.8	100.0(254)
500~599만원	49.6	35.9	10.7	2.3	1.5	65.4	26.9	6.9	0.8	100.0(139)
600~699만원	47.8	46.3	4.5	1.5	-	62.7	32.8	3.0	1.5	100.0(62)
700만원 이상	31.5	61.6	5.5	1.4	-	68.1	30.6	1.4	-	100.0(74)
X ² (df)			-					-		

** $p < .01$

긴급 상황시 또는 아이가 아플 때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질문에 어린이집이 1.7%, 1.1%로 낮아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 역할 기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긴급 상황 시와 아이가 아플 때 어린이 집에서 돌보아 준다는 응답은 1세가 나머지 연령에 비해 높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많았다. 한편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이 돌보는 비율이 높았다.

나. 기관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토요일보육, 휴일보육 등의 취약보육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약보육은 시간연장보육으로 1.6%이고, 다음은 토요일보육 1.1%, 시간제보육 0.8%, 휴일보육 0.1% 순이며 24시간보육을 이용한 아동은 없었다(표 VI-4-2 참조).

〈표 VI-4-2〉 취약보육의 이용

구분	단위: %(명)					계(수)
	없음	월1~2회	월3~4회	주당1~2번	주당3회 이상	
시간제보육	99.2	0.7	-	-	0.1	100.0(1,536)
시간연장보육	98.4	0.8	-	0.2	0.6	100.0(1,536)
24시간보육	100.0	-	-	-	-	100.0(1,536)
토요일보육	99.0	0.8	0.2	0.1	-	100.0(1,536)
휴일보육	99.9	0.1	-	-	-	100.0(1,536)

〈표 VI-4-3〉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공공육아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수)
시간제보육	33.3(4)	8.3(1)	58.3(7)	(12)
시간연장보육	100.0(22)	-	-	(22)
토요일보육	94.1(16)	5.9(1)	-	(17)
휴일보육	100.0(2)	-	-	(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이 58.3%로 많고, 다음은 어린이집과 공공육아지원센터이었다.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 토요일보육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표 VI-4-3 참조).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시 1회 이용시간을 산출한 결과, 시간제보육은 평균 1.83시간, 시간연장보육 2.33시간, 토요일보육 5.46시간, 휴일보육 4.42시간으로 산출되었다.

〈표 VI-4-4〉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구분	단위: 시간(명)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토요일보육	휴일보육
평균	1.83	2.33	5.46	4.42
표준편차	0.64	0.94	1.72	0.70
(수)	(12)	(22)	(17)	(2)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취약보육의 필요성

<표 VI-4-5>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취약보육 필요성을 취약보육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필요 정도가 가장 높은 취약보육은 시간제와 시간연장보육으로 각각 39.5%, 38.3%이고, 24시간 보육이 10.5%로 가장 낮았다.

〈표 VI-4-5〉 취약보육의 필요성

구분	단위: %(명)					
	상시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1~2회	필요없음	계(수)
시간제보육	10.6	15.8	10.9	2.2	60.5	100.0(1,536)
시간연장보육	7.8	11.4	15.7	3.5	61.7	100.0(1,536)
24시간보육	1.3	1.0	2.5	5.8	89.5	100.0(1,536)
토요일보육	2.7	4.8	15.4	6.4	70.7	100.0(1,536)
휴일보육	1.9	1.7	7.5	7.6	81.3	100.0(1,536)

시간제 보육은 1주일에 1~2회가 15.8%로 가장 많고, 한달에 1~2번 10.9%, 상시 10.6% 순이다. 시간연장보육은 한달에 1~2회가 15.7%, 1주일에 1~2번이 11.4%이고 상시나 1년에 1~2회는 5% 내외 수준이었다. 24시간 보육은 1년에 1~2회, 토요일보육은 한달에 1~2회, 휴일보육은 한달에 1~2회와 1년에 1~2회가 가장 많았다.

5.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 이용

1) 종류 및 개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수를 조사하였다. <표 VI-5-1>과 같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33.4%인 반면, 66.6%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법인·단체 등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영유아 비율이 16.4%p, 14.2%p 정도 증가하였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특별활동 수는 평균 3.2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이용하는 특별활동 개수에 차이가 나는데,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 민간어린이집 평균 3.3개, 법인 2.8개, 가정 2.6개, 직장 2.3개 정도였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이 58.5%로 가장 높지만, 특별활동 1개는 직장어린이집, 2개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는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다.

〈표 VI-5-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종류 수

구분	단위: %(명), 개											비율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이용시 평균	없음 2009년	비율 2004년
전체	33.4	8.5	14.8	20.1	11.4	6.9	3.3	0.9	0.5	0.3	0.1	100.0(1,536)	3.2		
국공립	21.3	9.0	20.5	20.9	7.4	10.2	8.6	1.6	0.4	-	-	100.0(173)	3.3	35.5	42.5
법인	44.3	8.2	12.4	22.7	8.2	3.1	-	-	1.0	-	-	100.0(115)	2.8	34.2	52.2
법인·단체등	36.4	6.1	12.1	15.2	21.2	3.0	6.1	-	-	-	-	100.0(37)	3.3	52.8	44.9
민간	26.6	8.3	14.6	22.7	14.9	7.8	2.9	1.1	0.6	0.4	0.2	100.0(872)	3.3	36.2	55.3
가정	58.5	8.0	12.2	11.5	5.6	3.8	0.3	-	-	-	-	100.0(309)	2.6	60.9	75.0
직장	44.4	16.7	11.1	22.2	5.6	-	-	-	-	-	-	100.0(29)	2.3	48.1	60.0
부모협동	100.0	-	-	-	-	-	-	-	-	-	-	100.0(1)	-	-	-
X ² (df)/F													5.1***		

*** p < .001

다음은 아동의 연령과 지역별로 특별활동 수를 조사한 것이다. 특별활동 수별로 보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연령이 어릴수록 많은데, 특별활동 1개는 2세와 3세가 많고, 2개는 2세, 3개 3세, 4~5개는 5세가 많았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영아가 유아보다 30%p 이상 높지만, 특별활동 3~5개는 영아보다 유아가 월등히

높았다. 특별활동 수 평균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 영아 2.8개, 유아 3.4개로 유아가 많고, 4세와 5세가 각각 3.5개로 2세 이하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표 VI-5-2 참조).

〈표 VI-5-2〉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종류 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평균	
영유아구분														
영아	49.5	8.2	15.1	14.5	7.7	3.6	0.7	0.4	0.1	0.1	-	100.0(867)	2.8	
유아	15.0	8.8	14.6	26.4	15.5	10.6	6.1	1.4	0.9	0.4	0.3	100.0(669)	3.4	
X ² (df)/t													-	-7.3***
연령														
0세	94.2	4.8	-	-	1.0	-	-	-	-	-	-	100.0(125)	1.5	
1세	63.2	7.5	15.0	8.1	3.3	2.6	0.3	-	-	-	-	100.0(345)	2.4	
2세	27.0	9.6	19.2	23.2	13.1	5.3	1.3	0.8	0.3	0.3	-	100.0(397)	2.9	
3세	12.0	9.9	17.6	27.5	14.8	9.9	5.3	1.8	1.1	0.4	-	100.0(298)	3.3	
4세	21.8	8.2	10.9	25.9	13.6	9.5	7.3	0.9	1.4	0.5	-	100.0(227)	3.5	
5세	11.3	8.2	13.8	25.6	18.5	13.3	6.2	1.5	-	0.5	1.0	100.0(144)	3.5	
X ² (df)/F													-	13.4***
지역규모														
대도시	36.0	7.3	15.0	18.8	12.6	6.8	2.9	0.2	0.2	0.3	-	100.0(591)	3.1	
중소도시	29.6	10.2	14.3	21.0	13.1	7.8	1.7	1.4	0.5	-	0.3	100.0(605)	3.1	
읍·면	35.6	7.3	15.6	20.8	5.2	5.2	7.3	1.4	1.4	0.3	-	100.0(340)	3.3	
X ² (df)/F													-	1.4

*** p < .001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종류별 실시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특별활동은 영어 74.4%, 체육 67.2%, 음악 48.2%, 미술 40.9%, 한글 18.0%, 과학 14.1%, 수학 11.6% 순이다(표 VI-5-3 참조).

〈표 VI-5-3〉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40.9	48.2	67.2	14.1	11.6	18.0	33.9	1.5	74.4	1.5	3.0		
국공립	34.9	36.1	72.9	27.7	19.8	22.0	30.1	-	82.8	-	0.5		
법인	51.9	51.8	52.8	9.3	9.4	1.9	30.2	-	74.5	-	-		
법인·단체등	42.9	45.0	66.7	25.0	10.5	20.0	23.8	-	90.0	-	-		
민간	43.8	50.5	65.9	12.3	11.1	19.5	37.0	2.5	75.1	2.5	4.2		
가정	32.8	55.0	69.7	2.5	2.5	12.7	29.4	-	56.3	-	3.4		
직장	18.2	45.5	81.8	-	-	-	18.2	-	60.0	-	-		
(수)	(998)	(1,003)	(999)	(992)	(990)	(995)	(998)	(997)	(1,005)	(994)	(991)		

다음 <표 VI-5-4>는 특별활동 과목별 참여 비율을 아동 연령 및 거주지역별로 조사한 것이다. 영유아별로 보면, 영아는 음악, 체육만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 특별활동은 유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0세는 교구활동, 1세는 음악, 2세는 체육, 3세 이상 연령은 영어를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영어 특별활동은 3세까지 연령과 함께 증가하다가 4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음악과 체육은 도시지역이 읍·면보다 높고, 수학이나 한글, 영어 등 교과 위주의 특별활동은 읍·면지역이 높았다.

<표 VI-5-4>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영유아구분											
영아	38.3	52.3	67.5	4.8	4.5	10.5	32.8	0.5	61.3	0.2	3.5
유아	42.7	45.4	66.9	20.1	16.8	23.2	34.8	2.2	83.4	2.4	2.7
연령											
0세	-	33.3	16.7	-	-	14.3	66.7	-	16.7	-	-
1세	36.0	53.2	61.3	1.8	1.8	10.8	30.6	0.9	42.3	-	3.6
2세	40.4	52.6	71.0	6.0	5.3	10.6	32.9	0.4	69.4	0.4	3.5
3세	41.9	47.6	63.1	13.7	14.9	23.4	31.0	1.6	85.9	1.2	1.6
4세	47.6	41.3	69.0	23.1	16.6	22.5	36.4	3.5	82.6	5.3	3.5
5세	39.3	46.8	70.5	26.6	19.2	23.7	38.7	1.7	80.5	1.1	3.5
지역규모											
대도시	41.9	51.1	67.6	15.6	8.8	14.7	29.0	1.7	77.6	0.5	2.7
중소도시	38.0	51.1	71.1	10.0	12.0	19.3	32.3	1.7	69.7	2.9	3.7
읍·면	45.6	35.5	57.8	19.2	18.0	23.0	48.4	0.5	78.5	1.1	2.2
(수)	(998)	(1,003)	(999)	(992)	(990)	(995)	(998)	(997)	(1,005)	(994)	(991)

2) 선택 여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아동의 발달이나 흥미, 가정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인 음악, 미술, 체육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비율이 체육 59.2%, 음악 63.5%, 미술 55.8%, 과학 67.4%로 높았다(표 VI-5-5 참조).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이용 어린이집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음악과 교구, 법인어린이집은 한글,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수학,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컴퓨터, 직장어린이집은 음악이 가장 많았다. 전반

적으로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의무적으로 특별활동을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I-5-5〉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수)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미술	52.2	44.8	70.0	54.8	74.4	-	50.6	59.6	57.8	55.8	(402)
음악	63.8	51.7	90.0	61.7	71.2	80.0	63.4	62.6	66.2	63.5	(468)
체육	49.3	62.1	78.6	60.5	64.6	66.7	49.1	67.6	62.6	59.2	(665)
과학	47.2	80.0	80.0	79.5	100.0	-	62.3	70.7	74.3	67.4	(113)
수학	52.6	20.0	100.0	60.6	75.0	-	58.8	56.3	60.6	57.8	(105)
한글	46.5	100.0	50.0	54.7	86.7	-	59.3	49.4	61.9	55.8	(168)
교구	60.3	37.5	80.0	57.4	65.7	-	50.9	55.3	71.1	58.1	(316)
한자	-	-	-	57.1	-	-	71.4	33.3	100.0	53.3	(21)
영어	42.8	53.7	66.7	62.8	65.7	50.0	53.5	62.4	60.3	58.3	(745)
외국어	-	-	-	53.3	-	-	50.0	50.0	100.0	52.9	(13)
기타	100.0	-	-	79.2	50.0	-	54.5	85.7	100.0	71.0	(31)

다음 <표 VI-5-6>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을 아동 연령별로 조사한 것이다. 영유아별로 보면,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이 외국어와 한자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모두 유아보다 영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0세는 교구 의무 이용 비율이 75%로 가장 낮았지만, 1세와 2세는 한글, 3세는 외국어와 한자, 4세와 5세는 과학이 가장 높았다.

〈표 VI-5-6〉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미술	59.1	53.6	-	71.8	55.3	48.1	56.1	58.8	(402)
음악	69.3	58.9	100.0	69.5	68.9	63.2	55.7	55.6	(468)
체육	63.6	56.2	100.0	63.2	63.5	59.2	50.0	58.2	(665)
과학	68.4	67.8	100.0	64.7	64.7	59.0	76.1	67.4	(113)
수학	82.4	53.5	100.0	80.0	48.6	50.0	61.8	57.8	(105)
한글	78.6	48.6	100.0	91.7	73.3	45.8	47.4	53.7	(168)
교구	65.6	52.7	75.0	64.7	66.0	48.1	50.8	61.2	(316)
한자	50.0	53.8	-	-	100.0	75.0	33.3	66.7	(21)
영어	65.7	54.6	100.0	76.6	63.0	58.4	50.0	53.2	(745)
외국어	50.0	57.1	-	-	50.0	75.0	33.3	100.0	(13)
기타	71.4	80.0	-	80.0	60.0	50.0	83.3	83.3	(31)

3) 특별활동 운영시간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시간대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조사 결과, 실제로 아동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47.3%가 오후이고, 20.0%는 오전·오후, 18.3%는 오전이었다.

〈표 VI-5-7〉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시간

구분	오전, 오후	오전에만	오후에만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20.0	18.3	47.3	14.5	100.0(1,005)	
영유아구분						
영아	15.8	27.6	39.7	17.0	100.0(416)	51.1(3)***
유아	23.0	11.7	52.5	12.8	100.0(589)	
연령						
0세	-	16.7	33.3	50.0	100.0(9)	89.7(15)***
1세	8.1	30.6	34.2	27.0	100.0(114)	
2세	18.7	27.0	41.9	12.5	100.0(293)	
3세	24.1	11.2	52.6	12.0	100.0(265)	
4세	16.9	11.0	52.9	19.2	100.0(193)	
5세	27.6	13.2	51.7	7.5	100.0(131)	
지역규모						
대도시	23.6	14.2	53.2	9.0	100.0(379)	55.9(6)***
중소도시	19.6	17.2	47.9	15.3	100.0(413)	
읍·면	13.4	29.0	32.8	24.7	100.0(21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9	7.3	61.5	20.3	100.0(140)	-
법인	20.0	14.5	45.5	20.0	100.0(73)	
법인·단체 등	33.3	14.3	38.1	14.3	100.0(25)	
민간	24.4	19.4	45.5	10.6	100.0(630)	
가정	12.6	32.8	31.9	22.7	100.0(113)	
직장	-	-	100.0	-	100.0(19)	

*** p < .001

아동의 연령 및 거주지역,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오후에 참여하고, 어릴수록 오전에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유아는 오후, 영아는 오전에 특별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오전·오후도 영아보다는 유아가 많았다. 또한 거주지역이 도시일수록 오전·오후 또는 오후에만 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은 오전이 많았다. 이용 어린이집이 국공립인 경우에는 대체로 오후에 하고,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은 오전·오후가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은 오전에 특별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 중 10~20%는 자녀의 특별활동 운영시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표 VI-5-7 참조).

4) 특별활동 이용 횟수

특별활동 종류별로 1주일 평균 이용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어가 평균 2회로 가장 많고, 수학 1.8회, 한글 1.7회, 교구 1.4회 순이다. 한자와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모두 최소 주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국공립과 법인,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영어 평균 주 2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수학 5회, 가정어린이집은 영어 1.8회, 직장어린이집은 미술과 교구를 각각 1.8회씩 이용하고 있었다(표 VI-5-8).

〈표 VI-5-8〉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F	
미술	1.3	0.6	1.0	5.0	1.3	1.3	1.4	1.3	1.1	1.8	1.1	(402)
음악	1.2	0.6	1.0	5.0	1.3	1.1	1.3	1.3	1.1	1.0	1.4	(468)
체육	1.2	0.4	1.0	5.0	1.1	1.1	1.1	1.2	1.1	1.4	1.6	(665)
과학	1.1	0.3	1.0	3.0	1.0	1.3	1.0	1.1	1.0	1.0	0.8	(113)
수학	1.8	1.3	1.0	5.0	1.6	1.0	5.0	1.8	1.0	-	5.8***	(105)
한글	1.7	1.2	1.0	5.0	1.7	1.0	2.9	1.8	1.0	-	2.5*	(168)
교구	1.4	0.8	1.0	5.0	1.2	1.2	1.9	1.5	1.3	1.8	1.8	(316)
한자	1.3	0.4	1.0	2.0	1.0	-	-	1.3	-	-	0.1	(21)
영어	2.0	1.0	1.0	5.0	2.0	2.0	2.0	2.0	1.8	2.2	0.8	(745)
외국어	1.4	1.0	1.0	5.0	1.0	-	-	1.4	-	-	0.1	(13)
기타	1.1	0.8	-	5.0	1.0	-	1.0	1.1	1.0	-	0.04	(31)

* $p < .05$, *** $p < .001$

나. 특별활동 비용

1) 비용 별도 지불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표 VI-5-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과목이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고, 영어, 미술, 교구, 음악, 체육 순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할 때, 영어, 기타 외국어와 기타 과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한자, 수학, 교구의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모든 어린이집이 영어 비용 지불 비율이 높았고,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과학, 민간어린이집은 미술과 교구, 가정어린이집은 수학과 교구 등의 비용 지불 비율이 높았다.

〈표 VI-5-9〉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수)	단위: %(명)	
									2009년	증감율
미술	89.7	100.0	88.9	92.0	89.7	100.0	91.9	(402)	78.8	△13.1
음악	88.4	96.6	90.0	90.8	90.9	80.0	90.7	(468)	79.4	△11.3
체육	85.0	100.0	92.9	90.9	94.0	75.0	90.3	(665)	78.1	△12.2
과학	94.3	100.0	100.0	86.3	66.7	-	89.9	(113)	81.7	△8.2
수학	89.5	100.0	100.0	84.8	100.0	-	87.7	(105)	67.3	△20.4
한글	85.7	100.0	100.0	85.3	93.3	-	86.5	(168)	72.8	△13.7
교구	82.8	100.0	83.3	91.9	97.1	100.0	91.2	(316)	75.7	△15.5
한자	-	-	-	80.0	-	-	80.0	(21)	47.2	△32.8
영어	96.2	100.0	94.7	94.7	98.5	83.3	95.6	(745)	88.1	△7.5
기타 외국어	-	-	-	86.7	-	-	86.7	(13)	93.3	▽6.6
기타	100.0	-	-	72.0	100.0	-	76.7	(31)	81.4	▽4.7

2) 특별활동 비용

<표 VI-5-10>은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월평균 이용 비용은 영어가 25,500원이며, 최대 115,000원까지 내고 있었다. 미술 월평균 비용은 20,300원이고 최대 87,000원, 한글 월평균 19,200원이고 최대 96,000원을 내고 있었다. 2009년의 특별활동 과목당 교육 비용과 비교하면, 한자 9,300원, 영어 6,900원, 한글 6,400원 정도 인상되었다.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비는 과목별로 금액이 다양하였다. 영어, 교구, 미술은 과목당 20,000원대로 높고, 한자와 과학이 각각 14,700원, 15,400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교구, 한자, 기타 외국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모두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비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음악과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모두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특별활동비를 많이 내고 있었다. 미술 22,300원, 체육 21,000원, 수학 20,300원, 한글 23,400원, 영어 28,200원으로 대부분 2만원대이었다.

〈표 VI-5-10〉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2009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F		
미술	20.3	13.9	5.0	87.0	16.0	16.8	17.5	22.3	17.9	15.1	2.9*	(368)	15.8
음악	18.4	10.3	5.0	85.0	13.5	14.0	11.9	19.7	20.9	15.2	6.4***	(419)	15.7
체육	19.1	11.5	5.0	130.0	14.1	14.8	15.9	21.0	19.1	26.8	8.7***	(601)	12.0
과학	15.4	6.9	5.0	50.0	12.5	16.6	15.4	17.6	8.5	25.0	4.0**	(100)	10.7
수학	16.2	11.3	2.0	75.0	11.3	10.7	13.1	20.3	6.4	-	5.2**	(90)	12.7
한글	19.2	16.7	3.0	96.0	10.4	9.2	13.9	23.4	13.8	-	5.2**	(143)	12.8
교구	23.5	17.8	4.0	130.0	25.9	24.2	14.3	24.0	18.6	14.1	1.1	(293)	16.0
한자	14.7	7.2	5.0	30.0	5.0	-	-	15.0	-	-	0.8	(17)	5.4
영어	25.5	15.4	5.0	115.0	17.8	26.6	22.3	28.2	25.9	22.4	11.7***	(714)	18.6
기타 외국어	19.1	8.9	10.0	35.0	35.0	-	-	18.7	-	-	1.2	(12)	16.7
기타	16.4	8.7	6.0	42.0	6.0	-	30.0	18.1	10.0	-	1.8	(24)	13.7

* $p < .05$, ** $p < .01$, *** $p < .001$

<표 VI-5-11>은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을 아동 연령 및 거주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VI-5-11〉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20.3	18.4	19.1	15.4	16.2	19.2	23.5	14.7	25.5	19.1	16.4
영유아구분											
영아	18.2	19.1	19.3	18.1	13.8	15.6	20.2	17.3	24.4	32.2	13.6
유아	21.6	17.9	18.9	14.9	16.5	20.2	25.7	14.5	26.0	17.7	19.7
t	-2.6*	1.4	0.5	1.4	-0.8	-1.4	-3.1**	-	-1.3	1.9#	-1.7
연령											
0세	-	15.0	-	-	-	-	29.6	-	20.0	-	-
1세	16.2	16.2	17.2	15.4	13.3	10.3	16.7	20.0	22.6	-	12.7
2세	18.8	20.1	20.0	18.3	13.8	17.5	21.0	10.0	24.8	32.2	13.8
3세	21.4	18.0	19.1	16.7	15.1	17.7	24.6	21.8	25.9	22.1	23.9
4세	18.8	18.1	17.5	15.2	17.8	16.7	20.9	9.5	23.5	13.7	24.4
5세	25.2	17.6	19.9	13.4	16.9	26.8	30.5	13.5	28.6	24.0	12.1
F	3.5**	1.4	1.4	2.0	0.4	3.0*	3.7**	2.3	2.0#	3.1#	2.2
지역규모											
대도시	20.8	17.0	17.6	15.3	15.8	25.3	28.6	15.9	26.9	25.4	15.6
중소도시	20.8	20.4	20.5	13.9	17.4	17.7	22.8	13.7	25.0	19.6	15.1
읍·면	18.5	17.2	19.0	16.9	15.0	12.4	17.5	10.0	23.2	10.0	24.1
F	0.8	5.9**	4.0*	1.5	0.4	7.3**	9.6***	0.2	3.0#	1.2	1.2
(수)	(368)	(419)	(601)	(100)	(90)	(168)	(293)	(17)	(745)	(12)	(24)

$p < .1$, * $p < .05$, ** $p < .01$, *** $p < .001$

유아가 영아보다 미술과 교구 비용이 높았다. 미술은 영아가 18,200원, 유아 21,600원, 교구도 영아 20,200원, 유아 25,700원으로 5,200원 정도 차이가 났다. 연령 별로는 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모두 5세의 월평균 비용이 가장 높고,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음악, 체육, 한글, 교구, 영어 과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음악과 체육은 중소도시가 가격이 높고, 한글, 교구, 영어는 대도시가 높았다. 특히, 한글은 대도시가 25,300원인데 반해 중소도시 17,700원, 읍·면지역 12,400원으로 지역 차가 컸다. 영어 역시 대도시가 26,900원으로 비용이 가장 많고, 중소도시 25,000원, 읍·면 23,200원으로 가격 차이를 나타냈다(표 VI-5-11 참조).

다음 <표 VI-5-12>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월평균 특별활동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월평균 비용은 평균 61,700원이고, 표준편차가 34,800원으로 편차가 컸다. 특별활동을 무료로 하는 5.1%를 제외한 94.9%는 비용을 내고 있었다. 비용 분포별로는 5~10만원이 46.9%, 3~5만원 24%, 10~15만원 10.7%, 2~3만원 7.9% 순이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평균 비용은 22,100원 올랐고, 비용을 내지 않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3~5만원 사이가 감소하고 5~10만원대 비중이 15%p 이상 증가하였다.

<표 VI-5-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 비용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만원 이상	계(수)	단위: %(명), 천원		2009년
										지불시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1	0.3	2.5	7.9	24.0	46.9	10.7	2.6	100.0(1,005)	61.7	34.8	39.6
영유아구분												
영아	5.9	0.2	4.7	13.5	27.8	38.2	9.1	0.5	100.0(416)	54.0	31.1	32.8
유아	4.4	0.5	1.0	4.0	21.3	52.9	11.9	4.0	100.0(589)	66.8	36.3	42.4
X ² (df)/t				71.5(3) ^{***}							-5.7 ^{***}	19.9 ^{**}
연령												
0세	28.6	-	-	14.3	57.1	-	-	-	100.0(9)	29.3	5.3	-
1세	9.8	-	7.1	25.0	30.4	24.1	2.7	0.9	100.0(114)	41.4	27.3	-
2세	3.8	0.3	4.2	9.0	26.0	44.4	11.8	0.3	100.0(293)	59.0	31.2	-
3세	4.8	-	1.6	4.8	21.7	51.0	13.7	2.4	100.0(265)	65.8	32.5	-
4세	5.3	0.6	0.6	2.4	20.0	62.9	7.1	1.2	100.0(193)	61.9	26.5	-
5세	3.4	0.6	-	4.6	22.4	46.0	13.8	9.0	100.0(131)	73.0	47.2	-
X ² (df)/F				-							12.8 ^{***}	
지역규모												
대도시	2.7	0.2	3.7	6.7	27.9	42.1	11.5	4.9	100.0(379)	62.4	40.3	47.0
중소도시	8.3	0.5	1.5	8.0	18.0	51.2	11.7	1.0	100.0(413)	63.3	31.2	35.5
읍·면	2.7	-	2.2	10.2	29.0	47.8	7.5	0.5	100.0(213)	56.7	28.4	32.9
X ² (df)/F				-							2.4	34.8

(표 VI-5-12 계속)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표준 편차	2009년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3	0.5	4.2	9.9	34.6	39.8	1.6	3.1	100.0(140)	46.8	20.7	31.4
법인	1.8	-	-	5.5	34.5	58.2	-	-	100.0(73)	51.7	16.4	30.2
법인·단체등	-	-	-	14.3	28.6	57.1	-	-	100.0(25)	52.3	19.9	36.9
민간	4.3	0.2	1.8	5.3	19.2	51.1	14.8	3.4	100.0(630)	69.3	38.1	44.2
가정	6.7	0.8	4.2	17.5	26.7	31.7	12.5	-	100.0(118)	53.4	33.4	30.7
직장	27.3	-	9.1	9.1	9.1	36.4	9.1	-	100.0(19)	50.9	30.0	38.1
X ² (df)/F				-						15.8***		8.1**
2009년	10.8	1.1	7.4	13.9	33.6	29.6	3.8					

** $p < .01$, *** $p < .001$

아동 연령별로 보면, 영아 월평균 비용이 54,000원인데 반해 유아는 66,800원으로 12,800원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5세가 월평균 73,000원, 0세 29,300원을 지불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0세는 무료가 28.6%로 다른 연령보다 많고, 1세는 2~3만원, 2세 이상 연령은 5~10만원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도 도시일수록 특별활동 비용이 많아서 대도시가 62,400원, 읍·면지역이 56,700원으로 지역차를 나타냈다.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민간 어린이집 69,300원, 가정어린이집 53,400원,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52,300원, 법인어린이집 51,700원, 직장어린이집 50,900원, 국공립어린이집 46,800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2~3만원 정도 특별활동 비용일 오른 것이다. 영아보다 유아, 중소도시,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3) 특별활동 만족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3.6~3.9 사이로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과목을 제외하고 교구 만족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고, 어린이집별로도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수학과 영어 모두 법인·단체 등이 4.69점, 4.0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수학은 국공립어린이집 3.66점, 영어는 가정어린이집 3.4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VI-5-13〉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F	(수)
미술	3.82	3.96	4.00	3.74	3.83	4.04	3.79	1.4	(402)
음악	3.90	3.93	4.02	3.78	3.73	3.87	3.81	1.4	(466)
체육	3.87	3.85	3.84	3.80	3.72	3.94	3.81	0.9	(665)
과학	3.70	3.53	4.00	3.74	4.00	4.00	3.74	0.6	(113)
수학	3.66	3.82	4.69	3.77	4.00	-	3.76	2.5 [#]	(104)
한글	3.75	3.81	4.38	3.76	3.97	-	3.79	1.6	(168)
교구	3.77	3.87	4.00	3.85	3.88	4.00	3.85	0.4	(315)
한자	4.00	-	-	3.66	-	-	3.67	0.1	(21)
영어	3.83	3.87	4.03	3.73	3.49	4.03	3.75	4.5 ^{***}	(744)
기타외국어	3.00	-	-	3.64	-	-	3.62	0.6	(13)
기타	4.00	-	3.00	3.98	3.80	-	3.94	0.9	(31)

$p < .1$, *** $p < .001$

4) 특별활동 선호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영어로 32%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체육 26.4%, 한글 9.8%, 미술 8.5%, 교구 8.4% 순이었다.

영아는 30.4%가 체육, 유아는 38.2%가 영어를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선호하였다. 연령별로는 0세 교구, 1세와 2세는 체육, 3~5세는 영어 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차가 크지 않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영어, 읍·면지역은 교구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영어와 체육, 법인어린이집은 체육,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영어와 체육, 민간어린이집도 영어, 가정어린이집은 체육을 중요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꼽았다(표 VI-5-14 참조).

〈표 VI-5-1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기타	계(수)
전체	8.5	9.7	26.4	1.6	1.7	9.8	8.4	1.2	32.0	0.7	100.0(1,003)
영유아구분											
영아	10.6	15.3	30.4	0.5	1.0	5.9	12.3	0.2	23.0	0.7	100.0(414)
유아	7.1	6.2	23.5	2.4	2.0	12.3	5.9	1.8	38.2	0.7	100.0(589)

(표 VI-5-14 계속)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기타	계(수)
연령											
0세	-	20.0	-	-	-	-	60.0	-	20.0	-	100.0(9)
1세	11.7	19.8	26.1	-	-	9.0	21.6	-	9.9	1.8	100.0(114)
2세	10.4	13.2	32.6	0.7	1.4	4.9	8.0	0.3	28.1	0.3	100.0(291)
3세	8.8	5.6	23.9	2.0	1.6	10.4	6.0	0.4	41.4	-	100.0(265)
4세	6.4	6.4	24.0	1.2	4.1	14.6	7.6	4.7	28.7	2.3	100.0(193)
5세	5.2	6.3	23.0	4.0	1.1	13.2	3.4	1.1	42.5	-	100.0(131)
지역규모											
대도시	8.7	10.9	26.6	1.2	0.5	7.5	7.7	-	36.8	-	100.0(379)
중소도시	8.3	9.2	25.7	1.7	3.2	11.4	7.3	1.0	30.6	1.7	100.0(411)
읍·면	8.6	8.6	26.7	2.1	1.1	10.7	13.4	4.3	24.6	-	100.0(21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1	3.7	35.6	3.1	0.5	9.4	5.2	3.7	36.6	-	100.0(140)
법인	12.7	16.4	21.8	1.8	-	14.5	12.7	-	20.0	-	100.0(73)
법인·단체 등	13.6	4.5	27.3	-	4.5	13.6	-	4.5	31.8	-	100.0(25)
민간	8.9	9.4	22.5	1.5	2.3	9.4	8.3	0.7	35.8	1.2	100.0(629)
가정	13.3	20.8	30.0	-	-	10.0	15.0	-	10.8	-	100.0(117)
직장	10.0	-	50.0	-	-	-	10.0	-	30.0	-	100.0(19)

5) 특별활동 이용 및 비용에 대한 의견

외부 강사가 추가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특별활동 운영시간이나 비용, 연령 제한 등에 관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금액 상한선 두기 85%로 가장 많았고, 24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 특별활동 금지는 57.8%, 오후에만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활동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3% 순이다. 필요성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가지 항목 모두 3~4점대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는 금액 상한선 두기가 평균 4.11점으로 가장 필요도가 높고, 24개월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금지 3.53점, 특별활동 시간 제한두기 3.08점 순이다.

먼저, 특별활동 금액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0~2세 영아가 3~5세 유아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고,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많았으며, 부모협동과 직장어린이집이 90%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법인어린이집은 78.8%로 가장 적었다. 5점 평균으로는 연령 및 지역, 어린이집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5-15〉 제 특성별 특별활동 운영 제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필요하다는 비율			5점 평균			(수)
	특별활동 시간제한	금액 상한선	24개월 미만 영아특별 활동 금지	특별활동 시간제한	금액 상한선	24개월 미만 영아특별 활동 금지	
전체	40.3	85.0	57.8	3.08	4.11	3.53	(1,536)
연령							
0세	38.5	88.6	48.1	2.98	4.23	3.34	(125)
1세	46.7	84.0	52.7	3.18	4.09	3.45	(345)
2세	43.2	87.6	59.5	3.17	4.14	3.52	(397)
3세	39.8	84.2	58.7	3.03	4.05	3.49	(298)
4세	38.6	82.6	63.1	3.05	4.12	3.69	(227)
5세 이상	28.1	83.7	60.7	2.90	4.06	3.62	(144)
F				2.8*	1.1	2.3*	
지역규모							
대도시	42.8	84.7	59.6	3.13	4.11	3.55	(591)
중소도시	39.4	87.4	56.4	3.07	4.14	3.49	(605)
읍·면	37.2	80.6	57.1	2.99	4.03	3.55	(340)
F				1.8	2.0	0.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2.8	81.2	51.6	2.90	4.01	3.36	(173)
법인	31.3	78.8	52.6	2.93	4.02	3.48	(115)
법인·단체 등	43.8	81.8	72.7	3.12	3.94	3.94	(37)
민간	41.0	86.2	60.4	3.10	4.14	3.54	(872)
가정	46.7	86.4	56.1	3.21	4.14	3.59	(309)
직장	55.0	90.0	57.9	3.21	4.24	3.62	(29)
부모협동	-	100.0	100.0	3.00	4.00	4.00	(1)
F				2.5*	1.4	2.0 [#]	

$p < .1$, * $p < .05$

특별활동 시간 제한에 대해 연령, 지역, 어린이집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20~50%대로 유아보다 영아가, 도시지역일수록 많았으며, 공공성이 강한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는 민간이나 가정,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활동 시간제한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5점 척도로 보면,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세와 2세가 각각 3.18점, 3.17점으로 가장 높고, 5세 이상이 2.90점으로 낮았다.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는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각각 3.21점,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이 2.9점과 2.93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24개월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0~70%대로 영아보다는 유아가 많고,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대도시가 많았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60~70%가 24개월 미만 영아 특별활동 금지에 대해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5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령과 어린이집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이용 부모 모두 3.5점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6. 어린이집 이용 비용

가. 어린이집 이용 비용

1) 순수 보육비 및 총 비용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매월 내는 정해진 보육비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등으로 나누어 월평균 비용을 조사하였다. 순수 보육비는 매월 내는 정해진 보육료이며, 총 비용은 보육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표 VI-6-1>은 보육료 지원 여부나 아동 연령 구분없이 이용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집에 매월 내는 총 보육비와 순수 보육비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아무 비용도 내지 않는다는 비율이 15.2%이며, 순수한 보육료를 내지 않는다는 비율은 76.3%이었다. 총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비율은 2009년 7.3%, 순 보육비 30.6%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이는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시행,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무 비용도 내지 않았다는 비율을 이용 어린이집별로 보면, 총비용과 순보육 비용 모두 가정어린이집이 42.4%, 96.9%로 많았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0~2세 무상보육 대상인 영아를 보육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비용을 안낸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비용 5~10만원을 지출하는 아동이 27.3%로 많고, 다음은 1~5만원 22.5%, 10~15만원 17% 순이며, 나머지는 15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다. 30만원 이상은 3.9% 정도이었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도 5~10만원이 많지만, 가정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5만원대도 많았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5.9%는 30만원 이상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한편, 순수한 보육비를 안낸다는 비율을 제외하고는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15~20만원이 10.6%, 26.3%로 많고, 법인어린이집은 5~10만원이 7.1%로 많으며, 민간 어린이집은 1~5만원과 5~10만원이 각각 11% 정도로 많았다.

<표 VI-6-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 분포

단위: %(명)

구분	총 비용								순 보육 비용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안녕	4.1	8.2	27.3	9.3	42.4	21.1	-	15.2	84.5	80.8	81.8	66.6	96.9	52.6	-	76.3
1~5만원	33.3	33.7	18.2	15.8	29.5	15.8	-	22.5	2.4	5.1	6.1	11.2	2.1	-	-	7.4
5~10만원	45.5	33.7	30.3	24.3	19.1	10.5	-	27.3	1.6	7.1	6.1	11.8	0.3	15.8	-	7.6
10~15만원	4.9	15.3	18.2	24.2	8.0	5.3	100.0	17.0	-	-	-	2.8	-	-	100.0	1.6
15~20만원	0.4	4.1	-	12.5	0.3	36.8	-	7.6	10.6	6.1	3.0	2.7	-	26.3	-	4.0
20~25만원	6.1	2.0	3.0	4.6	-	5.3	-	3.8	0.4	-	3.0	3.2	0.7	-	-	2.0
25~30만원	4.5	-	-	3.5	-	-	-	2.7	0.4	-	-	1.5	-	-	-	0.9
30~35만원	0.8	1.0	-	2.2	0.7	5.3	-	1.6	-	1.0	-	0.1	-	5.3	-	0.2
35~40만원	-	2.0	3.0	2.2	-	-	-	1.4	-	-	-	0.1	-	-	-	0.1
40만원 이상	0.4	-	-	1.5	-	-	-	0.9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3)	(115)	(37)	(872)	(309)	(29)	(1)	(1,536)	(173)	(115)	(37)	(872)	(309)	(29)	(1)	(1,536)

다음 <표 VI-6-2>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이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비용과 월 보육료, 추가 비용,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등을 산출한 것이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낸 비용은 88,800원으로 이는 가구소득대비 3.5%에 해당된다.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은 2004년 8.3%, 2009년 7.4%보다 4%p 정도 낮아졌다. 매월 일정하게 내는 보육료는 24,800원이며, 64,000원을 추가로 내고 있었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어린이집에 내는 총 비용은 절반 가량 줄었고, 월 보육료는 1/4 정도로 적게 내고 있었다. 대신,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이 2009년 53,800원보다 10,000원 이상 늘어났다. 즉, 정부지원으로 보육료 부담이 줄어든 대신 일부를 특별활동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전체 비용은 민간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1만원대로 가장 많고, 가정이 33,100원으로 가장 적었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취업모 자녀 55,400원보다 미취업모 자녀가 69,800원으로 추가 비용을 더 많이 내었고,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아동은 305,7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7.0% 수준이나 전액 지원 아동은 73,000원을 부담하고, 가구소득대비 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표 VI-6-2〉 어린이집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구분	전체비용(A)	월 보육료(B)	추가비용(A-B)	(수)	단위: 천원(명), %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2012년	2009년	2004년
전체	88.8	24.8	64.0	(1,536)	3.5	7.4	8.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5.8	23.9	51.8	(173)	2.4	6.1	8.0
법인	69.3	21.3	48.0	(115)	2.6	5.4	8.0
법인·단체 등	68.9	16.1	52.8	(37)	2.6	6.6	6.6
민간	114.8	32.5	82.3	(872)	4.4	8.1	8.9
가정	33.1	2.4	30.7	(309)	1.8	7.3	8.1
직장	111.1	74.6	36.5	(29)	2.2	5.4	3.2
부모협동	100.0	100.0	-	(1)	4.0	6.1	-
F	38.7***	12.7***	44.3***		21.3***		
모취업 여부							
취업	84.1	28.7	55.4	(613)	2.6	-	-
휴직중	85.7	18.0	67.7	(48)	4.7	-	-
미취업	92.2	22.3	69.8	(862)	4.0	-	-
부재 등	108.3	22.1	86.2	(13)	7.7	-	-
F	1.3	1.6	9.4***		23.5***		
감면여부							
전액 지원	73.0	11.5	61.5	(1,421)	3.2	4.6	4.1
일부 감면	178.4	64.5	113.9	(10)	8.0	7.8	7.6
혜택 없음	305.7	212.4	93.3	(105)	7.0	9.6	9.0
F	575.8***	1913.1***	21.1***		66.3***		
2009년	168.1	114.3	53.8	(1,342)			
2004년	164.7	136.4	28.3	(818)			

*** $p < .00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를 기준으로 총비용과 순보육비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총비용은 소득하위 70%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3세와 4세가 163,000원, 131,2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순보육비도 마찬가지로 3세 73,100원, 4세 55,400원, 5세 14,200원 순이다.

직장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 모두 전체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아동 연령별로는 3세가 어린이집에 따라 총비용 95,000원에서 20만원, 4세는 9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순보육비도 대체로 3세가 많고, 4, 5세 순이었다(표 VI-6-3 참조).

〈표 VI-6-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전체	2009년	2004년
전체									
총비용	3.7	31.2	67.7	163.0	131.2	111.1	88.8	168.1	164.7
순보육비	-	-	-	73.1	55.4	14.2	24.8	114.3	136.4
(수)	(125)	(345)	(397)	(298)	(227)	(144)	(1,536)	(1,342)	(818)
국공립									
총비용	-	16.5	42.0	106.7	101.7	65.6	75.8	126.6	151.0
순보육비	-	-	-	47.2	49.0	-	23.9	86.7	124.2
(수)		(8)	(37)	(44)	(47)	(33)	(173)	(215)	(132)
법인									
총비용	-	17.8	40.5	125.0	91.2	71.0	69.3	110.9	151.0
순보육비	-	-	-	62.4	30.1	13.8	21.3	69.5	126.7
(수)		(22)	(30)	(20)	(30)	(12)	(115)	(117)	(55)
법인·단체 등									
총비용	-	5.3	51.0	95.5	176.6	49.2	68.9	143.7	146.4
순보육비	-	-	-	27.5	79.9	2.5	16.1	103.2	132.9
(수)		(5)	(8)	(6)	(8)	(9)	(37)	(53)	(51)
민간									
총비용	8.1	35.7	81.7	185.8	150.6	142.8	114.8	188.4	175.6
순보육비	-	-	-	82.2	60.1	21.5	32.5	124.5	141.8
(수)	(32)	(166)	(237)	(215)	(133)	(89)	(872)	(801)	(498)
가정									
총비용	2.4	28.6	58.9	194.5	110.0	-	33.1	163.0	218.0
순보육비	-	-	-	85.5	-	-	2.4	133.1	207.6
(수)	(84)	(141)	(79)	(4)	(1)		(309)	(126)	(33)
직장									
총비용	9.7	114.1	19.2	122.8	193.2	165.0	111.1	229.2	128.7
순보육비	-	-	-	80.3	138.9	-	74.6	164.3	119.7
(수)	(3)	(3)	(5)	(9)	(8)	(1)	(29)	(26)	(11)

주: 총비용은 순보육·교육비와 추가비용을 합산한 총 보육·교육비용을 말함.

영아는 보육료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육료를 내는 부모도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제외하였음.

2) 항목별 추가 비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순 보육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비용 미지불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 기준으로 특별활동비가 39,000원으로 가장 많고, 현장학습비 12,100원, 교재비 7,700원, 급간식비 3,400원 순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재비, 현장학습비가 가장 높다(표 VI-6-4 참조).

비용지불 아동만을 산출할 때, 특별활동비가 51,200원, 교재비 8,600원, 급간식비 7,000원, 현장학습비 18,900원이었다.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VI-6-4〉 어린이집 유형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기타
전체아동					
전체	39.0	7.7	3.4	12.1	1.8
국공립	34.4	2.1	0.8	13.6	0.9
법인	29.0	4.5	2.6	11.3	0.6
법인·단체 등	31.8	6.3	3.7	9.8	1.2
민간	48.7	11.6	4.8	14.7	2.6
가정	20.7	3.0	1.7	4.6	0.7
직장	21.4	2.1	5.6	7.5	-
F	21.5***	21.4***	9.7***	18.3***	2.1*
(수)	(1,536)	(1,536)	(1,536)	(1,536)	(1,536)
비용지불아동					
전체	51.2	8.6	7.0	18.9	29.7
국공립	40.2	1.3	3.5	15.9	15.8
법인	27.1	4.7	1.3	17.3	19.2
법인·단체 등	54.0	7.8	6.4	13.9	30.3
민간	55.9	12.3	7.9	21.0	33.6
가정	31.8	3.6	4.7	14.8	27.7
직장	28.0	4.9	12.2	20.9	-
F	3.8**	19.0***	2.7*	6.5***	1.2
(수)	(388)	(951)	(293)	(971)	(84)
2009년 전체 아동					
전체 아동	24.0	9.5	6.6	5.4	8.4
비용지불아동	44.4	19.9	27.3	12.9	78.7
2004년 전체 아동					
전체 아동	11.9	5.9	3.7	8.0	3.5
비용지불아동	29.2	12.4	16.3	13.0	22.8

* $p < .05$, ** $p < .01$, *** $p < .001$

주: 2004년, 2009년 기타 항목에는 종일반 비용, 차량운행비, 행사비, 기타 등이 모두 포함됨.

아동 연령 및 지역, 모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별로 추가 비용 액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5>와 같이, 아동 연령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아가 내는 비용이 영아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지역별로는 교재비와 급간식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내는 비용이 많았다. 모취업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별활동비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47,600원으로 가장 많고, 교재비는 미취업모가 9,800원,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는 모가 부재인 경우 7,800원, 29,1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특별활동비와 교재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별활동비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700만원 이상이 49,300원으로 가장 많고, 교재교구비는 소득이 낮을수록 내는 비용이 많아졌다.

〈표 VI-6-5〉 제 특성별 보육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보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기타
전체	39.0	7.7	3.4	12.1	1.8
영유아구분					
영아	25.6	5.1	2.7	9.1	1.0
유아	54.3	10.7	4.2	15.6	2.6
t	-14.6**	-6.9**	-3.5**	-8.6***	-3.0**
지역규모					
대도시	39.0	8.1	4.3	12.9	3.0
중소도시	40.8	9.0	3.3	11.7	0.6
읍·면	35.4	4.3	1.4	11.4	1.3
F	1.7	9.7***	11.2***	1.3	9.8***
모 취업여부					
취업	34.5	5.1	2.8	10.9	2.1
휴직중	47.6	5.7	4.5	9.1	0.7
미취업	41.9	9.8	3.7	12.9	1.6
모부재	40.5	8.9	7.8	29.1	0.0
F	4.7**	11.1***	3.25*	10.2***	0.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3.5	13.8	6.8	14.7	0.5
150~199만원	42.1	12.8	3.0	13.9	2.9
200~249만원	33.4	8.1	4.2	11.7	1.4
250~299만원	34.9	7.9	3.1	11.1	2.1
300~349만원	41.7	9.2	3.9	12.1	0.7
350~399만원	42.9	7.5	3.1	14.5	3.2
400~499만원	36.1	5.5	2.9	12.4	1.6
500~599만원	47.1	5.7	3.4	10.5	1.5
600~699만원	34.5	3.0	2.4	9.3	0.3
700만원 이상	49.3	5.1	2.8	13.0	2.5
F	2.4**	4.4***	1.3	1.4	1.2
(수)	(1,536)	(1,536)	(1,536)	(1,536)	(1,536)

* $p < .05$, ** $p < .01$, *** $p < .001$

나. 비용 부담

1) 부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이다(표 VI-6-6 참조).

〈표 VI-6-6〉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정도						비용 미지원 시 이용의사				
	매우 부담 됨	부담 되는 편	적당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전체	4.7	28.8	23.9	28.9	13.7	100.0(1,314)	3.2	66.4	29.4	4.2	100.0(1,536)
영유아구분											
영아	1.7	16.6	24.0	35.9	21.8	100.0(658)	3.6	57.3	38.2	4.5	100.0(867)
유아	7.6	40.1	23.9	22.4	6.1	100.0(656)	2.8	76.9	19.3	3.9	100.0(669)
X ² (df)/t			166.0(4) ^{***}				13.7 ^{***}			67.3(2) ^{***}	
연령											
0세	-	3.4	10.3	27.6	58.6	100.0(35)	4.4	46.2	51.9	1.9	100.0(125)
1세	1.3	8.4	19.0	40.9	30.4	100.0(261)	3.9	50.8	43.9	5.2	100.0(345)
2세	2.2	23.0	28.1	33.3	13.4	100.0(362)	3.3	65.3	30.1	4.6	100.0(397)
3세	8.6	45.7	20.7	20.0	5.0	100.0(293)	2.7	76.7	19.8	3.5	100.0(298)
4세	7.8	39.3	24.8	25.2	2.9	100.0(222)	2.8	75.1	20.4	4.5	100.0(227)
5세	5.3	33.3	27.5	22.8	11.1	100.0(141)	3.0	79.1	17.3	3.6	100.0(144)
X ² (df)/F			267.4(20) ^{***}				55.3 ^{***}			96.8(10) ^{***}	
지역규모											
대도시	3.7	26.9	24.5	30.2	14.7	100.0(512)	3.3	67.8	28.3	3.8	100.0(591)
중소도시	6.2	34.4	21.2	25.9	12.3	100.0(516)	3.0	65.4	29.4	5.3	100.0(605)
읍·면	4.0	21.1	28.3	32.3	14.3	100.0(286)	3.3	65.5	31.7	2.8	100.0(340)
X ² (df)/F			23.4(8) ^{**}				7.4 ^{**}			4.4(4)	
모 취업여부											
취업	3.9	26.7	23.0	30.6	15.8	100.0(515)	3.3	79.6	17.3	3.2	100.0(613)
휴직중	5.3	15.8	15.8	36.8	26.3	100.0(39)	3.6	82.6	15.2	2.2	100.0(48)
미취업	5.3	30.7	24.6	27.6	11.8	100.0(748)	3.1	56.4	38.5	5.1	100.0(862)
부채 등	-	50.0	37.5	12.5	-	100.0(12)	2.7	17.6	82.4	-	100.0(13)
X ² (df)/F			-				5.8 ^{**}			114.6(6)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8.6	62.9	11.4	11.4	5.7	100.0(35)	2.4	41.0	53.8	5.1	100.0(41)
150~199만원	7.6	42.4	16.9	22.9	10.2	100.0(109)	2.8	45.1	52.6	2.3	100.0(127)
200~249만원	6.7	32.7	22.7	26.7	11.3	100.0(165)	3.0	49.7	44.2	6.1	100.0(188)
250~299만원	2.1	30.3	28.2	26.9	12.4	100.0(229)	3.1	59.8	35.3	4.9	100.0(272)
300~349만원	7.9	28.6	27.0	24.3	12.2	100.0(205)	3.1	71.2	24.7	4.1	100.0(238)
350~399만원	2.5	29.2	21.7	38.3	8.3	100.0(121)	3.2	67.2	27.7	5.1	100.0(141)
400~499만원	2.6	23.5	23.9	31.7	18.3	100.0(219)	3.3	75.1	19.1	5.8	100.0(254)
500~599만원	8.2	21.8	26.4	33.6	10.0	100.0(117)	3.1	78.6	19.8	1.5	100.0(139)
600~699만원	3.4	13.6	35.6	28.8	18.6	100.0(51)	3.5	85.1	14.9	-	100.0(62)
700만원 이상	-	14.3	11.1	39.7	34.9	100.0(63)	3.8	97.3	1.4	1.4	100.0(74)
X ² (df)/F			120.6(36) ^{***}				7.1 ^{***}			142.6(18) ^{***}	
지원 여부											
전액 지원	3.8	26.4	24.8	30.7	14.3	100.0(1,199)	3.3	64.4	31.3	4.4	100.0(1,421)
일부 감면	33.3	66.7	-	-	-	100.0(10)	1.8	91.7	8.3	-	100.0(10)
혜택 없음	13.4	52.6	16.5	9.3	8.2	100.0(105)	2.5	92.7	5.2	2.1	100.0(105)
X ² (df)/F			-				33.5 ^{***}			-	

** $p < .01$, *** $p < .001$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정도가 낮음.

조사결과, 부담된다는 응답이 33.5%로 42.6%의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약 10%p 정도 낮았다. 부담정도는 5점 평균 3.2점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VI-6-6 참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별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영아 18.3%, 유아 47.7%로 유아가 더 많았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아 지는데 3세에서 가장 높은 54.3%를 나타내다가 4세, 5세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육료가 소득하위 70%만 지원되는 3, 4세와 전액 지원되는 5세와의 차이에선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더 많고, 취업모보다 미취업모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부담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육료 지원 여부별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보다 일부 지원을 받는 아동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육료 전액 지원받는 아동 30.2%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 지출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용 미지원 시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를 부가 질문한 결과, 29.4%는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 38.2%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19.3%의 유아보다 많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많아지는데, 0세 51.9%, 1세 43.9%, 2세 30.1% 순이다. 읍·면지역일수록, 미취업모일 경우에 비용 미지원 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소득이 낮을수록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149만원 이하가 53.8%, 150~199만원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액지원 아동은 미이용 의사가 31.3%로 일부 감면 8.3%와 미지원 아동 5.2%보다 월등히 많아 비용 미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더 좋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추가로 더 낼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낼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부모 25%가 추가 부담 의사가 있고, 평균 162,600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어린이집이 국공립인 경우 192,500원으로 가장 많고, 직장어린이집이 99,900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는 부모 41.7%, 혜택을 받지 않는 아동 39.2%, 전액 지원 23.9% 순으로 전액 지원 부모가 추가 부담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추가 부담 비용으로는 혜택을 받지 않는 부모가 평균 175,800원으로 가장 많고, 일부 감면인 경우에는 85,1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VI-6-7〉 어린이집 유형 및 보육료 지원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5.0	75.0	100.0(1,536)	162.6	115.8	30.0	700.0	(36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0.2	69.8	100.0(173)	192.5	109.2	50.0	500.0	(51)
법인	20.2	79.8	100.0(115)	125.7	91.1	50.0	500.0	(19)
법인·단체등	36.4	63.6	100.0(37)	145.3	161.2	50.0	600.0	(10)
민간	25.0	75.0	100.0(872)	152.7	110.1	30.0	700.0	(211)
가정	21.6	78.4	100.0(309)	176.0	132.9	30.0	500.0	(72)
직장	10.5	89.5	100.0(29)	99.9	120.0	50.0	300.0	(4)
X ² (df)/F	10.9(5) [#]			3.8 ^{***}				
지원 여부								
전액 지원	23.9	76.1	100.0(1,421)	162.3	116.8	30.0	600.0	(328)
일부 감면	41.7	58.3	100.0(10)	85.1	25.5	50.0	100.0	(3)
혜택 없음	39.2	60.8	100.0(105)	175.8	111.8	50.0	700.0	(37)
X ² (df)/F	13.1(2) ^{**}			1.4				

$p < .1$, ** $p < .01$, *** $p < .001$

다음 <표 VI-6-8>은 아동 연령 및 거주지역, 모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별 추가 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시 그 비용을 조사한 표이다. 영아보다 유아가 추가 부담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3세, 1세, 5세 순으로 많았다. 추가 부담시 비용은 영아가 173,900원으로 유아 150,800원보다 2만원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0세가 208,900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은 13~17만원 정도였다. 거주지역이 읍·면인 경우보다 도시지역이 추가로 비용을 내겠다는 응답이 많고, 추가 부담시 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15~17만원대를 나타내었다. 취업모와 미취업모는 각각 26.4%, 23.4%로 응답하여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추가 부담 시 비용은 미취업 149,700원, 취업모 176,800원으로 3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서 월소득 25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30% 이상이 추가 부담 의사를 나타내었다. 추가 부담액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208,100원, 149만원 이하는 41,600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컸다.

〈표 VI-6-8〉 제 특성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5.0	75.0	100.0(1,536)	162.6	115.8	30.0	700.0	(368)
영유아구분								
영아	23.9	76.1	100.0(867)	173.9	127.9	30.0	600.0	(206)
유아	26.3	73.7	100.0(669)	150.8	100.7	30.0	700.0	(162)
X ² (df)/t	1.2(1)			1.9 [#]				
연령								
0세	20.2	79.8	100.0(125)	208.9	152.4	50.0	600.0	(21)
1세	27.9	72.1	100.0(345)	163.6	132.0	30.0	600.0	(92)
2세	21.7	78.3	100.0(397)	175.4	116.9	30.0	500.0	(93)
3세	33.1	66.9	100.0(298)	160.2	102.5	30.0	700.0	(78)
4세	17.7	82.3	100.0(227)	148.2	111.2	50.0	550.0	(51)
5세	26.0	74.0	100.0(144)	135.7	88.1	50.0	400.0	(33)
X ² (df)/F	21.2(5) ^{**}			1.6				
지역규모								
대도시	25.1	74.9	100.0(591)	173.7	122.9	30.0	700.0	(140)
중소도시	27.8	72.2	100.0(605)	151.8	102.0	30.0	500.0	(159)
읍·면	19.0	81.0	100.0(340)	163.1	132.3	30.0	500.0	(69)
X ² (df)/F	8.0(2) [*]			1.4				
모 취업여부								
취업	26.4	73.6	100.0(613)	176.8	124.7	30.0	700.0	(163)
휴직중	37.8	62.2	100.0(48)	178.3	108.5	30.0	500.0	(19)
미취업	23.4	76.6	100.0(862)	149.7	107.3	30.0	550.0	(183)
부재 등	16.7	83.3	100.0(13)	81.8	78.8	50.0	200.0	(3)
X ² (df)/F	6.3(3) [#]			2.1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7.7	92.3	100.0(41)	41.6	30.7	30.0	100.0	(4)
150~199만원	19.5	80.5	100.0(127)	104.1	39.5	30.0	300.0	(18)
200~249만원	17.6	82.4	100.0(188)	102.4	51.2	30.0	250.0	(33)
250~299만원	25.9	74.1	100.0(272)	141.3	95.5	50.0	500.0	(55)
300~349만원	21.9	78.1	100.0(238)	179.7	101.9	50.0	500.0	(52)
350~399만원	24.1	75.9	100.0(141)	153.7	102.9	50.0	500.0	(36)
400~499만원	30.0	70.0	100.0(254)	182.2	139.6	50.0	500.0	(82)
500~599만원	31.3	68.7	100.0(139)	199.5	137.6	30.0	700.0	(40)
600~699만원	31.3	68.7	100.0(62)	185.8	114.2	100.0	500.0	(19)
700만원 이상	35.6	64.4	100.0(74)	208.1	143.3	30.0	600.0	(29)
X ² (df)/F	26.9(9) ^{**}			3.9 ^{***}				

$p < .1$, * $p < .05$, ** $p < .01$, *** $p < .001$

7.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변환경, 비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은 2004년과 2009년 조사와 동일하게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VI-7-1 참조).

어린이집 만족도를 5점 평균으로 보면, 13개 항목에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교사, 원장, 교육내용은 4점에 가깝고 내부분위기, 안전관리, 급간식관리, 건강관리 등은 3.5점 이상으로 높았다. 한편, 부모참여, 비용,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은 3.5점 내외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VI-7-1〉 어린이집 만족도 및 평균: 5점 척도

구분						단위: %(명),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원장	0.6	3.2	21.0	59.1	16.0	100.0(1,503)	3.84(.77)
교사	0.6	3.8	19.1	58.4	18.1	100.0(1,503)	3.92(.75)
주변환경	0.5	7.6	32.4	50.5	8.9	100.0(1,503)	3.64(.8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0.5	6.4	30.9	52.9	9.3	100.0(1,503)	3.69(.76)
교재교구 및 장비	0.3	4.5	32.5	54.8	7.9	100.0(1,503)	3.70(.72)
내부 분위기	0.2	2.6	29.0	58.9	9.3	100.0(1,503)	3.78(.69)
비용	0.7	8.9	29.4	46.4	14.5	100.0(1,503)	3.51(.94)
건강관리	0.2	2.9	28.5	59.4	9.0	100.0(1,503)	3.74(.69)
급간식관리	0.6	3.9	25.2	59.0	11.2	100.0(1,503)	3.75(.75)
안전관리	0.2	3.4	23.3	62.6	10.4	100.0(1,503)	3.78(.70)
교육내용	0.1	2.8	25.8	63.0	8.4	100.0(1,503)	3.80(.66)
부모참여	0.8	8.2	43.3	42.1	5.6	100.0(1,503)	3.49(.75)
부모교육	0.5	7.3	41.3	44.1	6.7	100.0(1,503)	3.51(.76)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육료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VI-7-2>와 같다. 전반적으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산한 만족한다는 비율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9.6%로 10% 미만이었다. 이를 보육료 지원 여부별로 보면,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아동 25.8%와 일부

감면받은 아동 15.4%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혜택이 적을수록 불만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이유로는 0~2세 무상보육,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순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산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8.6%였으나, 농어민자녀가 14.3%로 가장 많고, 3~4세 소득하위 70% 이하, 5세 누리과정 순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장애아동 지원은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었다.

<표 VI-7-2> 어린이집 비용 만족도 백분율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지원 여부						
전체	0.7	8.9	29.3	46.4	14.6	100.0(1,535)
전액 지원	0.5	8.0	29.1	47.4	15.1	100.0(1,420)
일부 감면	7.7	7.7	46.2	38.5	-	100.0(10)
혜택 없음	3.1	22.7	30.9	34.0	9.3	100.0(105)
지원시 조건						
전체	0.6	8.0	29.3	47.3	14.8	100.0(1,430)
0-2세 무상보육	0.5	5.7	25.1	51.4	17.3	100.0(864)
5세 누리과정	-	10.3	35.1	45.9	8.8	100.0(143)
3-4세 소득하위 70% 이하	1.1	11.5	35.6	39.0	12.8	100.0(391)
농어민 자녀	-	14.3	28.6	57.1	-	100.0(5)
다문화가족 자녀	-	8.3	29.2	45.8	16.7	100.0(19)
장애아동	-	-	33.3	50.0	16.7	100.0(7)
기타	-	-	-	100.0	-	1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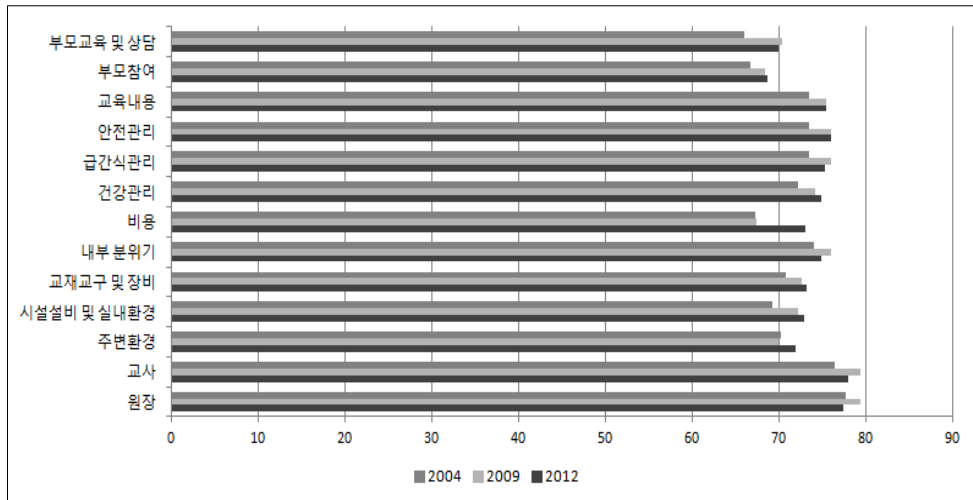
다음 <표 VI-7-3>은 어린이집 만족도를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한 것이다. 어린이집 만족도는 2009년 대비 평균 0.4점 증가하였다. 2004년에서 2009년 평균 1.80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13개 항목별로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보다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건강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7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주변환경만 만족도가 감소한 2009년 조사와 다르게 본 조사에서는 원장 등 6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졌고, 특히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5.67점 증가하였다. 이는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시행,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변환경은 2009년 만족도가 낮아진 유일한 항목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1.98점 증가하였다. 반면, 부모교육 및 상담은 2009년 크게 높아졌지만 본 조사에서는 다소 낮아져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어린이집의 노

력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VI-7-3〉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비교(2004, 2009, 2012)

단위: 점

구분	2004년(수=816)		2009년(수=1,341)		2012년(수=1,341)		100점 환산 변화량
	4점 평균	100점 환산	5점 평균	100점 환산	5점 평균	100점 환산	
원장	3.11(.48)	77.75	3.97(.71)	79.40	3.87(.74)	77.38	▽2.02
교사	3.06(.54)	76.50	3.97(.70)	79.40	3.90(.76)	77.96	▽1.44
주변환경	2.81(.60)	70.25	3.50(.80)	70.00	3.60(.79)	71.98	△1.98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2.77(.59)	69.25	3.61(.79)	72.20	3.64(.77)	72.86	△0.66
교재교구 및 장비	2.83(.57)	70.75	3.63(.70)	72.60	3.66(.71)	73.17	△0.57
내부 분위기	2.96(.52)	74.00	3.80(.67)	76.00	3.75(.68)	74.96	▽1.04
비용	2.69(.67)	67.25	3.37(1.01)	67.40	3.65(.87)	73.07	△5.67
건강관리	2.89(.54)	72.25	3.71(.71)	74.20	3.74(.68)	74.86	△0.66
급간식관리	2.94(.56)	73.50	3.80(.76)	76.00	3.77(.73)	75.32	▽0.68
안전관리	2.94(.50)	73.50	3.80(.69)	76.00	3.80(.68)	75.99	▽0.01
교육내용	2.94(.50)	73.50	3.77(.65)	75.40	3.77(.65)	75.43	△0.03
부모참여	2.67(.61)	66.75	3.42(.78)	68.40	3.44(.77)	68.76	△0.36
부모교육 및 상담	2.64(.66)	66.00	3.52(.79)	70.40	3.49(.76)	69.90	▽0.50
평균	2.87	71.8	3.68	73.6	3.70	73.97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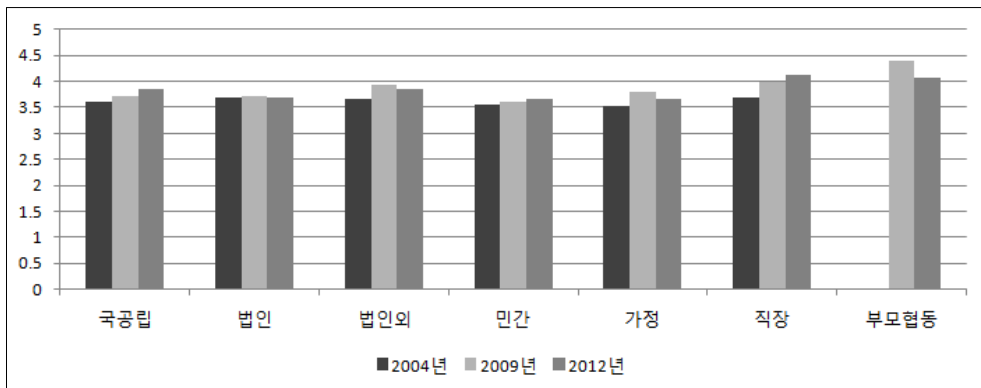


[그림 VI-7-1]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만족도는 직장이 평균 4.13점, 부모협동 4.08점, 법인·단체 등 3.86점, 국공립 3.85점, 법인 3.69점, 가정 3.67점, 민간 3.65점 순이다.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사업주가 운영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 조사에서는 만족도 순서가 법인, 직장, 단체, 국공립, 민간, 가정 순이었고, 2009년에는 부모협동, 직장, 법인·단체 등, 가정, 국공립, 법인, 민간 순이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2004, 2009, 2012년 모두 만족도가 낮아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법인어린이집은 2004년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2009년 크게 낮아졌고 본 조사에서 다시 높아져서 어린이집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은 2004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2009년에 개선되었다가 본 조사에서 다시 낮아져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항목별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원장, 교사, 주변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은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반대로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가장 낮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은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에서 가장 낮았다. 2009년 조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의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만족도가 가장 낮아 영유아의 영양·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표 VI-7-4, 그림 VI-7-2 참조).



[그림 VI-7-2]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비교

〈표 VI-7-4〉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F	(수)
원장	3.90	3.89	3.83	3.83	3.93	4.00	4.00	0.8	(1,534)
교사	4.00	3.88	4.08	3.88	3.84	4.00	4.00	1.4	(1,534)
주변환경	3.58	3.60	3.71	3.57	3.66	3.81	4.00	0.8	(1,534)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76	3.67	3.92	3.60	3.58	4.14	4.00	3.8**	(1,534)
교재교구 및 장비	3.75	3.64	3.88	3.64	3.57	4.19	4.00	4.0**	(1,534)
내부 분위기	3.90	3.80	3.96	3.71	3.66	4.27	5.00	6.3***	(1,534)
비용	3.91	3.55	3.70	3.50	3.86	4.33	3.00	12.9***	(1,534)
건강관리	3.94	3.72	3.92	3.68	3.71	4.29	4.00	7.6***	(1,534)
급간식관리	4.02	3.70	3.95	3.69	3.74	4.39	4.00	9.8***	(1,534)
안전관리	4.03	3.76	3.89	3.75	3.73	4.16	2.00	7.9***	(1,534)
교육내용	3.91	3.81	3.84	3.75	3.65	4.27	5.00	6.4***	(1,534)
부모참여	3.62	3.35	3.72	3.42	3.31	3.85	5.00	6.2***	(1,534)
부모교육 및 상담	3.67	3.56	3.73	3.44	3.42	4.04	5.00	6.2***	(1,534)
전체 평균	3.85	3.69	3.86	3.65	3.67	4.13	4.08		
2009년 조사	3.73	3.71	3.93	3.61	3.81	3.99	4.40		(1,341)
2004년 조사(전환)	3.61	3.70	3.66	3.55	3.54	3.69	-		(816)

** $p < .01$, *** $p < .001$

어린이집 만족도를 자녀 연령별로 비교하였다(표 VI-7-5 참조). 전반적으로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의 만족도 평균이 높았다. 이는 유아 부모보다 영아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2009년 조사와 반대의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에서 영아가 많이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 만족도가 낮아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용 만족도는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실내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은 유아 부모가 영아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13개 항목 중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비용 만족도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4, 5세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0~2세는 2012년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으로 비용 만족도가 높지만, 5세는 누리과정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데도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 등의 기타 경비 부담이 커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7-5>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원장	3.89	3.84	1.2	3.99	3.90	3.85	3.86	3.88	3.78	1.3
교사	3.89	3.91	-0.4	3.99	3.81	3.92	3.90	3.92	3.90	1.2
주변환경	3.61	3.59	0.6	3.79	3.59	3.58	3.61	3.65	3.48	2.5 [*]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60	3.69	-2.2 [*]	3.65	3.53	3.64	3.65	3.80	3.62	3.1 ^{***}
교재교구 및 장비	3.60	3.72	-3.2 ^{**}	3.68	3.53	3.64	3.71	3.79	3.67	3.8 ^{***}
내부 분위기	3.72	3.78	-1.7 [#]	3.75	3.67	3.75	3.79	3.83	3.70	1.8
비용	3.80	3.49	7.0 ^{***}	4.11	3.89	3.65	3.41	3.54	3.53	16.6 ^{***}
건강관리	3.70	3.79	-2.6 ^{**}	3.81	3.67	3.70	3.81	3.80	3.76	2.2 [#]
급간식관리	3.73	3.81	-2.2 [*]	3.76	3.73	3.72	3.83	3.87	3.72	1.9 [#]
안전관리	3.75	3.85	-2.7 ^{**}	3.77	3.73	3.77	3.86	3.90	3.77	2.5 [*]
교육내용	3.74	3.81	-2.1 [*]	3.69	3.69	3.79	3.83	3.86	3.73	2.7 [*]
부모참여	3.38	3.50	-3.0 ^{**}	3.35	3.35	3.42	3.49	3.55	3.46	2.4 [*]
부모교육 및 상담	3.45	3.55	-2.5 [*]	3.49	3.42	3.47	3.54	3.59	3.51	1.6
전체 평균	3.68	3.72		3.76	3.65	3.68	3.71	3.77	3.66	
(수)	(867)	(669)		(125)	(345)	(397)	(298)	(227)	(114)	
2009년 조사	3.71	3.66								

$p < .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VI-7-6>은 지역, 모취업 여부별로 어린이집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VI-7-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채등	F
원장	3.79	3.96	3.87	7.6 ^{**}	3.92	4.16	3.81	3.93	4.8 ^{**}
교사	3.88	3.91	3.91	0.2	3.91	4.19	3.88	3.66	2.9 [*]
주변환경	3.49	3.68	3.68	10.8 ^{***}	3.61	3.68	3.59	3.69	0.3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58	3.68	3.71	3.7 [*]	3.72	3.59	3.58	3.76	4.3 ^{**}
교재교구 및 장비	3.57	3.71	3.76	9.7 ^{***}	3.70	3.68	3.63	3.47	1.6
내부 분위기	3.72	3.77	3.77	1.0	3.79	3.76	3.72	3.39	2.7 [*]
비용	3.68	3.59	3.74	3.4 [*]	3.77	3.74	3.57	3.39	7.2 ^{***}
건강관리	3.72	3.75	3.77	0.6	3.80	3.72	3.70	3.88	2.7 [*]
급간식관리	3.75	3.74	3.86	3.0 [#]	3.82	3.78	3.72	3.93	2.6 [*]
안전관리	3.81	3.77	3.84	1.0	3.85	3.82	3.76	3.88	2.0
교육내용	3.77	3.74	3.84	2.5 [#]	3.80	3.76	3.76	3.47	1.8
부모참여	3.41	3.41	3.54	3.4 [*]	3.49	3.47	3.41	3.09	2.6 [#]
부모교육 및 상담	3.49	3.48	3.53	0.4	3.53	3.45	3.48	3.09	2.3 [#]
전체 평균	3.67	3.71	3.76		3.75	3.75	3.66	3.59	
(수)	(591)	(605)	(340)		(613)	(48)	(862)	(13)	

$p < .1$,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모가 취업중일 때 어린이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 많아 원장,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부모참여는 읍·면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모가 취업한 경우 내부분위기, 비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모가 부재인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에서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높았다.

나. 개선 요구 사항

다음은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만족도에서 조사한 13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1, 2순위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어린이집 개선사항 1순위로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15.2%, 주변환경 13.2%, 비용 1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비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약 10%p 정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주변환경과 교육내용도 다소 감소하였지만 부모참여를 비롯한 나머지 항목 모두 1~9%p 정도 증가하였다.

〈표 VI-7-7〉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사항: 1순위

구분	단위: %(명)							2009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전체	
원장	6.8	-	3.0	2.0	2.2	15.0	2.9	1.7
교사	3.8	2.1	3.0	6.1	8.0	10.0	5.8	3.4
주변환경	20.5	18.9	21.2	11.8	6.5	35.0	13.2	17.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13.7	11.6	24.2	14.3	20.3	-	15.2	14.4
교재교구 및 장비	14.1	10.5	3.0	8.1	10.5	10.0	9.6	8.2
내부 분위기	3.4	1.1	6.1	3.5	4.0	-	3.4	3.0
비용	6.0	12.6	12.1	17.8	3.6	-	12.5	21.5
건강관리	4.7	3.2	6.1	7.2	8.3	5.0	6.7	4.6
급간식관리	4.7	7.4	3.0	6.8	6.9	-	6.4	5.3
안전관리	4.3	10.5	6.1	4.0	7.2	5.0	5.1	4.1
교육내용	6.4	8.4	9.1	2.7	3.6	5.0	4.0	4.4
부모참여	6.0	11.6	3.0	11.1	13.8	10.0	10.6	8.8
부모교육 및 상담	5.6	2.1	-	4.6	5.1	5.0	4.6	3.5
계(수)	100.0(163)	100.0(109)	100.0(36)	100.0(849)	100.0(296)	100.0(29)	100.0(1482)	100.0(1,328)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은 개선사항 1순위로 주변환경을 지적하였고, 법인·단체 등과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을 꼽았으며,

민간어린이집만 비용을 1순위로 들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2004년과 개선사항 응답 비율과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국공립과 민간, 법인어린이집의 개선사항 1순위만 동일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을 지적한 비율이 높아졌고, 가정어린이집은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형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내포한다고 하겠다(표 VI-7-7 참조).

8. 시사점

제6장에서는 어린이집 이용과 요구 조사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는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조사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72.6%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이거나 시군구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4년 65.6%, 2009년 68.7%, 2012년 72.6%로 2004년보다 15%p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개선되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읍·면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가정어린이집이 급속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2009년에 비하여 보육계획표나 급간식식단, 가정통신문,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등의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자녀발달평거나 부모상담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의 도움정도에서 부모상담이 2009년 3.68점에서 3.85점으로 높아졌고 급간식 식단과 발달평가, 부모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과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어머니 중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이며, 취업모는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34.5%가 부모 대리보호인 반면, 휴직중이나 미취업모 21.3%, 15.3%는 양육부담 경감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취업모는 8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18.2%이고, 휴직중과 미취업모는 9시 30분 이후에 등원하는 비율이 15.2%, 16.4%로 취업모보다 많았다. 하원시각도 미취업모는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높고, 오후 6시 이후는 취업모 20.6%가 휴직중이나 미취업모에 비해 많았다. 1일 이용시간도 취업모 아동은 평균 8시간 23분인데 반해 휴직중과 미취업모 아동 7시간 15분, 6시간 56분으로 취업모 아동이 1시간 이상 이용시간이 길었다.

둘째, 누리과정 관련 홍보 및 담당교사 교육 강화 필요성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낮았고,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이에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2.7%로 절반 가량되었다. 특히 읍·면지역일수록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53.5%였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이 새로운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여부 및 점수, 대피시설, 운영위원회, 수입지출, 규정위반, 사고발생 등의 어린이집 정보 중 평가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특히, 수입지출 정보 92%, 규정위반 87.3%, 운영위원회 80.3%, 평가인증 점수 78.9%, 사고발생 76.8% 순으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 94.1%가 사고발생 정보, 대피시설과 규정위반도 89%, 8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로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넷째, 특별활동 운영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2010년 정부가 발표한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에 따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 0세 5.8%, 1세 36.8%가 하고 있고, 영아 평균 2.8개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중 50% 이상이 의무적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아보다는 영아가 의무적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별활동은 오후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전에만 한다는 응답이 18.3%, 오전과 오후에 한다는 비율이 20%로 일과운영 시간에 특별활

동이 실시되고 있어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비용을 보육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시행 및 3, 4세 소득하위 70% 지원 확대 등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월 보육료는 2004년 136,400원, 2009년 114,300원에서 2012년 24,800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이 2004년 28,300원, 2009년 53,800원에서 2012년 64,000원으로 늘어나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어린이집 비용부담에 대해 33.5%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영유아의 영양 및 안전을 강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 2004년에서 2009년 평균 1.80점 증가한 데 반해 2012년 조사에서는 증가폭이 낮았다. 또한 13개 항목별로도 2009년보다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건강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7개 항목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원장, 교사, 영양 및 안전 등 6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졌다.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5.67점 증가하였다.

VII. 유치원 이용 및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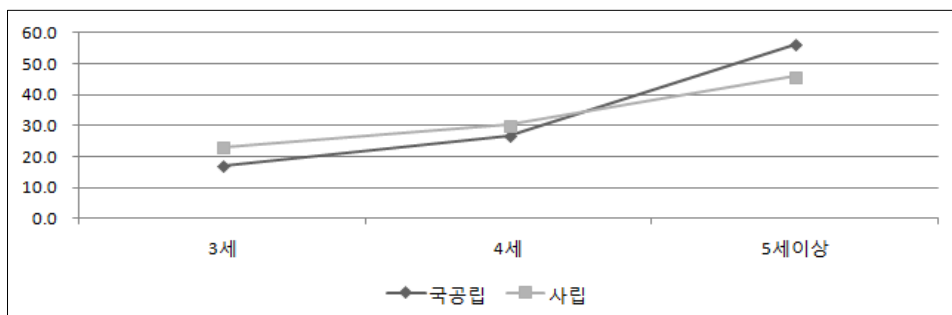
제7장에서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과 이용 실태 및 요구에 관해 아동 연령, 거주 지역규모, 이용기관의 설립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유치원 이용 아동 특성

유치원 이용 가능 아동의 연령은 만3~5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실태조사에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74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744사례 중 세경우가 2세 이하였다. 이들이 매우 소수이므로 3세 이하 집단으로 구분된 백분율을 제시하는 통계분석이 적절해 보이지 않아 연령 비교에서는 제외하였고, 전체 사례 분석에는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가. 유형별 유치원 이용

본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유치원 이용 유아 744명이 다니는 유치원 설립 유형을 보면, 30.2%가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나머지 69.8%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II-1-1] 유치원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다음의 [그림 VII-1-1]은 아동 연령 기준을 1월 1일자로 환산하여 연령별로 기관 유형별 이용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용 비율 자체는 높아지는데, 유치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만 3, 4세 아동의 경우는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나, 5세 이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

나. 유치원 유형별 이용 아동 특성

조사된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40.3%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자를 포함하면 41.7%이다. 연령별로는 자녀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세 모의 취업률이 37.9%인데 반해 5세 모의 취업률은 42.3%로 4.4%p가 더 높다. 비율로는 자녀가 3세일 때에 비해 5세에는 모 취업률이 약 20% 증가한 것이다.

유치원 유형으로 비교해 보면, 국·공립유치원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모인 비율이 사립유치원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모인 비율에 비해 6.5%p가 더 높아서 취업모 가정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1-1〉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특성

단위: %(명)

구분	해당 비율	모 취업여부				지역규모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00.0	40.3	1.4	57.8	0.5	36.3	43.4	20.3	100.0(744)
연령									
3세 ^{주)}	22.0	37.9	0.6	61.6	-	34.5	64.4	1.1	100.0(161)
4세	37.4	39.1	2.5	58.4	-	38.7	59.2	2.1	100.0(279)
5세	40.5	42.3	1.0	55.6	1.0	39.0	59.2	1.8	100.0(301)
유치원 유형									
국·공립	22.6	45.2	1.1	53.7	-	16.1	42.9	41.1	100.0(168)
사립	77.4	38.7	1.4	59.2	0.6	42.2	43.6	14.3	100.0(576)

주: 2세 2명, 1세 1명 등 조사에 포함된 유치원 이용 영아 3명은 3세에 포함함.

26) 본 조사에서 조사된 1세와 2세 3명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2. 유치원 이용 행태

가. 이용 기관의 입지

1) 거주지와 유치원의 행정구역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위치를 지역규모별로 볼 때 대도시에서는 같은 동·읍·면에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이 79.5%, 중소도시는 63.0%, 읍·면지역은 81.1%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 거주지와 다른 동·읍·면 위치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37%로 지역비교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러나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 위치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도시에서는 4.5%를 보였다(표 VII-2-1 참조).

〈표 VII-2-1〉 거주지와 유치원 위치 비교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단위: %(명)	
				2009년	2004년
대도시					
기관과 같은 동·읍·면	79.5	48.1	52.3	70.1	59.9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5.9	43.8	40.1	24.9	31.5
기관과 다른 시·군·구	4.5	8.1	7.6	5.0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4)	(248)	(282)	(241)	(232)
중소도시					
기관과 같은 동·읍·면	63.0	59.6	60.1	49.2	56.1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37.0	39.4	39.0	50.0	41.3
기관과 다른 시·군·구	-	1.1	0.9	0.8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5)	(246)	(311)	(264)	(189)
읍·면					
기관과 같은 동·읍·면	81.1	56.1	70.9	89.8	80.6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17.8	29.8	22.3	8.3	16.5
기관과 다른 시·군·구	1.1	14.0	6.8	1.9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9)	(82)	(151)	(108)	(206)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이용 현황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거주지와 같은 동·읍·면 내 위치한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대도시 48.1%, 중소도시 59.6%, 읍·면 56.1%로 같은 항목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보다 낮은 편이며,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위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은 29~44% 정도로 높았다. 또한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 위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읍·면 지역의 경우 14.0%나 되어 특히 농어촌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경우에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주지와 이용기관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현재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동·읍·면 또는 시·군·구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질적으로 더 좋은 기관을 보내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47.4%로 가장 많았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28.9%, 거리는 가까우나 행정구역 상 구분에 따라서라는 이유는 18.4%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행정구역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곳을 찾아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이용 가정의 경우 다른 행정 구역 기관 이용이 많다는 사실을 연결지어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지역 내를 우선으로 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의 질과 특성을 많이 고려하는 선택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표 VII-2-2 참조).

〈표 VII-2-2〉 거주지와 유치원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단위: %(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09년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2.0	-	30.0	28.9	24.4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48.0	66.7	40.0	47.4	58.2
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16.0	33.3	20.0	18.4	8.0
기타	4.0	-	10.0	5.3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9)	(3)	(16)	(48)	(213)

3) 이용 기관의 주변 환경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 51.1%가 일반 아파트 지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39.0%인 일반 주택지역이었다. 나머지 상가나 농어가, 공원·녹지 지역은 4.4%, 2.2%, 3.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VII-2-3 참조).

유치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일반 주택지역에 절반이 넘는 54.5%가 위치하고 있었고, 반면 사립유치원은 56.9%가 일반 아파트지역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이나 도시규모 등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이 농어가나 상가지역에 위치하는 비율은 각각 6.9%, 5.8%였으나 사립유치원이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비율은 훨씬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일반 아파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읍·면지역에서는 54.7%가 일반 주택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가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10.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I-2-3〉 유치원 주변 환경 특성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09년	2004년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일반주택지역	54.5	34.3	39.8	31.5	54.7	39.0	35.5	46.0
일반아파트지역	32.3	56.9	52.3	58.5	31.8	51.1	42.3	25.8
상가지역	5.8	3.8	4.9	5.0	2.0	4.4	9.5	6.4
농어가지역	6.9	0.8	0.3	0.3	10.8	2.2	9.6 ¹⁾	7.2
공원·녹지지역	0.5	4.2	2.8	4.7	0.7	3.2	3.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744)	(612)	(487)
X ² (df)	63.7(4) ^{***}		97.2(8) ^{***}					

*** $p < .001$

주: 1) 기타 응답 포함.

4) 기관 이용 이유

유치원에 다니는 이유를 보면, 37.3%가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7.1%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25.2%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를 들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응답 사례수가 많은 만5세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함이란 이유가 42.5%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은 19.6%로 타 연령에 비해 낮았다.

4세는 전인적 발달이 39.9%로 평균 수준을 보였으나 초등학교 준비는 5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은 5세보다 높았다. 3세 아동의 경우는 전인적 발달 목적이 44.6%로 다른 연령보다 특히 높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다는 이유 또한 3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연령에서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서 7.9%,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5.1% 등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표 VII-2-4 참조).

〈표 VII-2-4〉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09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4.6	39.9	32.8	37.3	38.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6.8	17.2	42.5	27.1	21.4
특기교육을 위하여	0.6	2.1	0.3	0.9	2.8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7.9	5.5	2.3	4.4	5.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3.3	28.2	19.6	25.2	26.0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7	2.1	0.3	1.1	5.9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5.1	2.5	1.0	2.6	-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	1.3	1.3	1.0	-
기타	-	1.3	-	0.4	0.4
계(수)	100.0(161)	100.0(279)	100.0(301)	100.0(744)	100.0(611)

유치원 유형별 비교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선택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사립유치원 이용 이유는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가장 컸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는 없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라는 응답이 3.7% 나온 점이 특이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일수록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아졌다(표 VII-2-5 참조).

〈표 VII-2-5〉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15.4	44.1	41.5	38.7	25.0	32.9	63.6	39.7	50.0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47.3	21.1	22.8	29.8	31.1	30.5	18.2	24.9	50.0
특기교육을 위하여	1.1	1.0	1.2	0.3	1.4	1.2	-	0.6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2	4.7	6.2	3.3	2.7	9.2	-	1.1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5.0	25.2	23.4	22.9	34.5	21.8	18.2	27.9	-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1	1.3	1.2	1.5	0.7	0.3	-	1.9	-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7	2.4	2.8	2.7	2.0	2.8	-	2.3	-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3.7	-	0.3	0.9	2.0	0.9	-	1.1	-
기타	0.5	0.3	0.6	-	0.7	0.3	-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280)	(13)	(446)	(5)

지역별 특이사항을 보면, 대도시에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읍·면지역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농어촌의 경우 한 마을내에 또래 아동의 수가 많지 않아 기관에 보내겠다는 동기를 갖게 되는 비율이 높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취업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취업모는 전인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았다.

나. 이용 시기

1) 최초 이용 시기

유치원을 최초로 이용하게 된 시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생후 52개월경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읍·면이 52.7개월로 대도시보다 1.5개월 정도 더 늦게 시작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모가 부재하거나 취업 중일 경우가 미취업모 경우 보다는 이용시기가 빨랐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하면, 사립유치원 입학 시기는 50.8개월이었고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55.8개월로 사립유치원을 최초로 이용하는 시기가 국·공립유치원보다 5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2-6 참조).

〈표 VII-2-6〉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5.83	11.45	(168)	50.77	9.94	(576)	51.94	10.52	(744)
지역규모									
대도시	56.81	11.00	(34)	50.41	10.13	(248)	51.26	10.47	(282)
중소도시	58.57	11.34	(65)	51.03	9.84	(246)	52.25	10.46	(311)
읍·면	53.71	11.44	(69)	51.23	9.56	(82)	52.74	10.78	(151)
F	3.3*			0.3			1.3		
모취업 여부									
취업	55.31	11.82	(63)	50.81	9.48	(217)	51.98	10.32	(280)
휴직중	51.42	3.39	(2)	50.19	9.11	(11)	50.40	8.29	(13)
미취업	56.29	11.24	(102)	50.93	10.08	(344)	52.08	10.56	(446)
부재 등	72.00	-	(1)	35.42	15.79	(4)	38.56	18.86	(5)
F	0.5			3.5*			2.6*		

* $p < .05$

2) 유치원 이용 기간

현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기간을 보면, 전체 평균 12.2개월이었고, 국·공립유치

원은 이보다 짧은 9.6개월, 사립유치원은 전체 평균보다 긴 13.0개월 동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1년 정도 이용하는 비율이 높는데 사립유치원은 1년보다 긴 편이고, 국·공립유치원은 그보다는 이용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조사 시점이 7월경인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평균 1년 반 정도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표 VII-2-7 참조).

〈표 VII-2-7〉 현재 이용 유치원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9.60	7.81	(168)	13.02	9.81	(576)	12.23	9.49	(744)
지역규모									
대도시	10.83	8.01	(34)	12.81	9.89	(248)	12.55	9.67	(282)
중소도시	8.69	8.56	(65)	13.07	9.92	(246)	12.36	9.83	(311)
읍·면	9.56	7.24	(69)	13.85	8.98	(82)	11.23	8.20	(151)
F	0.9			0.3			1.0		
모취업 여부									
취업	10.13	7.79	(63)	13.72	10.32	(217)	12.78	9.84	(280)
휴직중	16.00	0.00	(2)	12.74	14.18	(11)	13.30	12.85	(13)
미취업	9.06	7.87	(102)	12.30	8.92	(344)	11.61	8.80	(446)
부채 등	4.00		(1)	36.42	15.62	(4)	33.64	17.96	(5)
F	0.8			9.5***			9.3***		

*** $p < .001$

다. 평일 이용시간

1) 등·하원 시각

다음의 <표 VII-2-8>, <표 VII-2-9>는 유치원 등원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의 6.2% 정도가 8시 이전에 등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이고 사립보다는 국·공립에 다니는 비율이 높으며 3~5세간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아동이 등원하는 시각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였고, 모든 연령에서 37% 내외의 아동이 이 시각에 등원했다. 다음은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28.5%로 높았고,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등원하는 아동은 24.4%였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오전 8시 이전은 차이가 없으나 오

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가 다소 늘어서 등원시각이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표 VII-2-8〉 연령별 유치원 등원시각

구분	연령별				2009년
	3세	4세	5세	전체	(명)
7:30까지	0.6	0.8	-	0.4	0.5
7:31~8:00	5.1	5.9	6.1	5.8	5.4
8:01~8:30	23.2	29.1	30.4	28.5	26.0
8:31~9:00	36.7	37.1	37.5	37.0	40.4
9:01~9:30	29.9	21.1	23.7	24.4	23.4
9:31~10:00	4.5	5.9	2.3	3.8	4.3
계(수)	100.0 (161)	100.0(279)	100.0 (301)	100.0(744)	100.0(611)
X ² (df)		14.4(10)			

〈표 VII-2-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시각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채 등
7:30까지	-	0.5	-	0.9	-	0.9	-	-	-
7:31~8:00	10.1	4.5	7.3	3.9	6.8	9.8	-	3.4	-
8:01~8:30	54.3	20.8	30.6	16.4	52.0	37.0	27.3	22.3	50.0
8:31~9:00	30.9	38.8	28.1	48.5	30.4	27.2	27.3	43.8	50.0
9:01~9:30	4.8	30.4	27.5	27.7	10.1	22.9	45.5	25.3	-
9:31~10:00	-	5.0	6.4	2.7	0.7	2.1	-	5.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280)	(13)	(446)	(5)
X ² (df)	115.9(5) ^{***}		101.0(10) ^{***}			-			

*** $p < .001$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시각을 보면, 78.1%의 아동이 오후 5시 이전에 귀가하고, 5시 이후에는 21.9%가 유치원에 남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29.6%로 이 시각에 하원하는 아동 중 3세아가 33.3%로 귀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후 3~4시 사이에는 24.7%가 하원하여 가장 많은 아동이 하원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5세의 하원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오후 4~5시 사이는 전체적으로 23.8%가 하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6시 이후에 남아 있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높았다(표 VII-2-10 참조).

〈표 VII-2-10〉 연령별 유치원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09년
14:00까지	6.2	7.7	7.2	7.1	15.2
14:01~15:00	27.1	22.2	20.5	22.5	31.7
15:01~16:00	23.2	23.9	25.9	24.7	26.0
16:01~17:00	24.9	21.8	24.6	23.8	10.9
17:01~17:30	10.2	12.8	7.2	9.5	5.0
17:31~18:00	2.8	6.4	9.0	6.9	5.1
18:01~19:00	5.6	5.1	5.6	5.5	5.4
계(수)	100.0(161)	100.0(279)	100.0(301)	100.0(744)	100.0(611)
X ² (df)		15.6(12)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40.9%가 하원하여 도시지역과는 다른 유형을 보였는데 이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중 42.2%가 이 시간대에 하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읍·면지역 유치원의 다수가 국·공립유치원이기 때문이다. 유치원 유형별로도 사립유치원보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이 이 시각에 20%p 이상 많이 하원하였으며,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에 미취업모보다 15%p 더 많이 하원하고 있었다(표 VII-2-11 참조).

〈표 VII-2-1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12.3	5.7	7.1	8.4	5.4	1.9	-	11.1	-
14:01~15:00	11.8	25.7	24.5	25.4	10.7	12.2	9.1	29.6	-
15:01~16:00	23.5	25.1	26.6	21.9	26.8	19.7	-	28.9	-
16:01~17:00	42.2	18.1	17.0	22.8	40.9	33.2	27.3	17.0	50.0
17:01~17:30	2.7	11.5	11.1	8.7	8.1	11.0	45.5	7.4	50.0
17:31~18:00	4.3	7.8	6.5	8.1	4.7	13.2	18.2	2.6	-
18:01~19:00	3.2	6.1	7.1	4.8	3.4	8.8	-	3.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280)	(13)	(446)	(5)
X ² (df)	73.2(7) ^{***}		45.4(12) ^{***}			-			

*** p < .001

2) 평일 이용시간

아동이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7시간 12분, 표준편차 1시간 31분이며, 아동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길었으나 이는 오차 범위 내의 차이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VII-2-12 참조).

〈표 VII-2-12〉 연령별 유치원 이용시간

구분	단위: %(명)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11.9	8.4	5.1	7.5
5~6시간	19.9	21.0	22.2	21.4
6~7시간	25.0	21.4	20.2	21.9
7~8시간	17.6	20.6	24.5	21.7
8~9시간	16.5	16.8	16.6	16.5
9~10시간	5.7	8.8	8.7	8.0
10시간 이상	3.4	2.9	2.8	3.0
계(수)	100.0(161)	100.0 (279)	100.0(301)	100.0(744)
평균	7시간 3분	7시간 13분	7시간 16분	7시간 12분
표준편차	1시간 34분	1시간 32분	1시간 29분	1시간 31분
F			1.0	

〈표 VII-2-13〉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4.3	8.5	7.3	10.1	2.7	2.8	-	11.3	-
5~6시간	16.0	23.1	21.4	24.9	13.5	10.4	9.1	29.3	-
6~7시간	12.8	24.6	25.7	22.6	11.5	16.3	18.2	26.1	-
7~8시간	34.0	17.8	19.3	18.4	33.8	23.6	9.1	20.3	50.0
8~9시간	21.8	14.9	13.1	14.2	29.7	26.4	45.5	8.8	50.0
9~10시간	7.4	8.3	10.1	6.2	7.4	14.4	18.2	3.4	-
10시간 이상	3.7	2.7	3.1	3.6	1.4	6.1	-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7)	(570)	(277)	(309)	(151)	(280)	(13)	(446)	(5)
X ² (df)	38.5(6)**		60.0(12)**			-			
평균	7시간32분	7시간6분	7시간10분	7시간1분	7시간41분	7시간56분	7시간56분	6시간39분	7시간57분
표준편차	1시간26분	1시간32분	1시간13분	1시간34분	1시간14분	1시간28분	1시간9분	1시간20분	1시간12분
t/F	3.5**		10.0**			56.3**			
2009년 조사	6시간41분	6시간35분	6시간31분	6시간32분	7시간1분				
2004년 조사	5시간38분	5시간54분	5시간53분	5시간41분	6시간9분				

** p < .01, *** p < .001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다소 길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유치원 이용시간이 30~40분 길고, 유치원 유형별로도 국·공립유치원 7시간 32분, 사립유치원 7시간 6분으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이 길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유치원 이용시간이 7시간 56분으로, 미취업모 이용시간 6시간 39분과 비교했을 때 1시간 17분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를 2009 보육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치원 종일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을 더 장시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2009년에 비해 이용시간이 대도시 20분, 읍·면 40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은 50분 정도 이용시간이 늘어났고 사립유치원도 30분 가량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

3) 평소 이용시간 초과 빈도

평일에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초과하여 아동이 기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3.1% 정도가 초과 이용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8.4%는 월 1회 이하라고 하였지만, 주 3~4회가 1.1%였고 매일 초과 이용한다는 응답도 0.9% 정도였다.

연령별로는 초과 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 시간 초과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1회 이용은 도시지역일수록 이용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은 94.6%가 초과 이용 경우가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인 경우 미취업모보다 2.5%p 가량 초과 이용 비율이 높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10.3%가 월 1회 이하 초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국·공립유치원보다 많았다(표 VII-2-14 참조).

〈표 VII-2-14〉 유치원 이용 시 초과 이용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3~4회	매일	시간 초과 없음	단위: %(명)
						계(수)
전체	8.4	2.7	1.1	0.9	86.9	100.0(744)
연령						
3세	9.6	2.3	2.8	0.6	84.7	100.0(161)
4세	9.7	3.8	0.4	1.3	84.9	100.0(279)
5세 이상	7.1	2.3	0.8	0.8	89.1	100.0(301)

(표 VII-2-14 계속)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3~4회	매일	시간 초과 없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9.8	2.7	0.9	0.6	86.0	100.0(282)
중소도시	8.9	3.6	1.5	1.5	84.5	100.0(311)
읍·면	4.1	1.4	-	-	94.6	100.0(151)
모취업 여부						
취업	6.7	4.6	1.2	1.8	85.6	100.0(280)
휴직중	-	20.0	-	-	80.0	100.0(13)
미취업	9.8	1.1	0.9	0.2	88.1	100.0(446)
부재 등	-	-	-	-	100.0	100.0(5)
유치원 유형						
국·공립	2.1	1.1	0.5	0.5	95.7	100.0(168)
사립	10.3	3.2	1.3	1.0	84.3	100.0(576)

4) 이용시간 만족도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해 부모가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먼저 시작 시간에 대해서는 84.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6.3%는 너무 이르다, 9.4%는 너무 늦다는 의견이었다. 유치원 시작시간이 너무 늦다와 이르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시작시간 만족도는 만 3세 부모가 77.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너무 이르다 9.6%와 너무 늦다 13.0%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91.9%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의 만족한다는 비율이 사립유치원보다 5%p 정도 높았다.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시작시간이 너무 늦다는 비율이 13.2%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 60.9%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가 34.8%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너무 늦다는 의견은 4.3% 정도였다. 지역별로 볼 때 읍·면지역에서 역시 75.7%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 국·공립 이용시간이 길다는 앞서의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마치는 시간 만족도가 오차 범위 내 이긴 하지만 사립유치원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잡혔다. 취업모 62.6%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끝나는 시간 만족도가 조금 높았으나 취업모나 미취업모나 무관하게 너무 이르게 끝난다는 의견은 35%로 비슷한 정도로 불만을 보였다.

〈표 VII-2-15〉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전체	84.4	6.3	9.4	60.9	34.8	4.3	100.0(744)
연령							
3세	77.4	9.6	13.0	64.2	34.7	1.1	100.0(161)
4세	84.0	5.9	10.1	55.9	39.1	5.0	100.0(279)
5세이상	88.0	4.6	7.4	62.6	32.1	5.3	100.0(301)
X ² (df)		-			-		
지역규모							
대도시	80.1	10.1	9.8	59.2	33.7	7.1	100.0(282)
중소도시	85.2	4.2	10.7	56.5	41.4	2.1	100.0(311)
읍·면	91.9	3.4	4.7	75.7	21.6	2.7	100.0(151)
X ² (df)		17.6(4)**			28.9(4)***		
모 취업여부							
취업	83.4	3.4	13.2	62.6	35.0	2.5	100.0(280)
휴직중	75.0	-	25.0	45.5	18.2	36.4	100.0(13)
미취업	85.1	8.5	6.4	59.7	35.4	4.9	100.0(446)
부재 등	100.0	-	-	100.0	-	-	100.0(5)
X ² (df)		-			-		
유치원 유형							
국·공립	88.4	5.3	6.3	65.1	31.7	3.2	100.0(168)
사립	83.0	6.7	10.3	59.7	35.6	4.7	100.0(576)
X ² (df)		3.3(2)			2.1(2)		

** p < .01, *** p < .001

5) 희망 등·하원 시각

희망하는 등원 시각을 살펴보면, 45.0%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등원시간 분포와 비슷한 경향이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 늦은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등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 3세 22.0%, 4세 17.6%, 5세 이상 15.3%이고, 전체의 11.4%는 오전 8시 이전에 등원하기를 희망하였다(표 VII-2-16 참조).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20.3%가 8시 이전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을 보여 맞벌이 등으로 취업모 가정이 유치원 이용에 대해 희망하는 바를 볼 수 있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55.2%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등원을 원하였으나 읍·면지역에서는

35.1%가 이 시간대를 희망하였고 오히려 37.8%는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이전 이전은 14.9%를 차지하여 읍면지역의 희망 등원시간이 도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II-2-17 참조).

〈표 VII-2-16〉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간

구분	연령			단위: %(명)
	3세	4세	5세이상	전체
7:30까지	2.3	2.1	3.8	3.0
7:31~8:00	10.7	7.6	7.9	8.4
8:01~8:30	16.9	25.2	19.9	20.7
8:31~9:00	41.2	43.7	47.7	45.0
9:01~9:30	22.0	17.6	15.3	17.8
9:31~10:00	6.8	3.8	5.4	5.2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744)

〈표 VII-2-17〉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시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4.8	2.4	2.8	3.3	3.4	6.5	-	0.6	-
7:31~8:00	12.7	7.1	8.6	6.8	11.5	13.8	9.1	4.7	-
8:01~8:30	36.5	15.9	21.5	12.5	37.8	26.2	54.5	16.0	50.0
8:31~9:00	38.1	47.0	39.0	55.2	35.1	35.4	9.1	52.6	50.0
9:01~9:30	4.8	21.8	20.6	18.1	10.8	15.1	27.3	19.6	-
9:31~10:00	3.2	5.8	7.7	4.2	1.4	3.1	-	6.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280)	(13)	(446)	(5)
X ² (df)	66.1(5) ^{***}		63.1(10) ^{***}			-			

*** $p < .001$

〈표 VII-2-18〉은 유치원 이용 아동의 희망 하원시각을 나타낸다. 유치원 이용 아동의 부모가 희망하는 하원시각은 다양했는데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2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15.8%, 오후 2시에서 3시 14.5%의 순으로 많았고, 오후 5시 30분에서 6시도 11.8%, 12.4%는 18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늦은 저녁까지 유치원에 있기를 바라는 비율도 10%가 넘는다.

이러한 희망 하원시각 선호는 지역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읍면보다는 도시에서 오후 6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읍면지역은 9.6% 정도였

으나 대도시 14.4%, 중소도시 11.6%로 도시지역이 많고, 오후 7시 30분 이후 귀가를 바라는 비율은 대도시가 3.1%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모는 34.3%가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하원하기를 원했으나 미취업모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36.0%가 하원을 희망하였다. 오후 7시 이후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취업모 6.5%로 미취업모 2.1%보다 4%p 정도 많았다(표 VII-2-19 참조).

〈표 VII-2-18〉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각

구분	연령				단위: %(명)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14:00까지	3.4	1.3	5.3	3.7	
14:01~15:00	18.2	12.2	14.5	14.5	
15:01~16:00	24.4	29.5	25.4	26.6	
16:01~16:30	10.2	9.3	7.6	8.8	
16:31~17:00	18.2	17.3	14.0	15.8	
17:01~17:30	5.7	7.2	6.3	6.4	
17:31~18:00	8.0	9.3	15.2	11.8	
18:01~19:00	6.3	9.7	8.9	8.5	
19:01~19:30	2.8	1.7	0.5	1.4	
19:31이후	2.8	2.5	2.3	2.5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744)	

〈표 VII-2-1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시각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단위: %(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모 취업여부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8.0	2.6	5.5	2.1	4.1	1.2	-	5.5	-	
14:01~15:00	11.7	15.6	15.9	15.1	10.2	8.0	18.2	19.1	-	
15:01~16:00	20.2	28.4	28.1	26.1	24.5	13.2	18.2	36.0	40.0	
16:01~16:30	14.9	6.9	8.9	7.1	12.9	9.5	-	8.5	-	
16:31~17:00	21.3	14.1	11.3	17.8	20.4	19.0	27.3	13.2	20.0	
17:01~17:30	1.6	7.9	5.8	6.8	6.8	8.3	-	5.1	40.0	
17:31~18:00	9.0	12.5	10.1	13.4	11.6	18.7	18.2	6.8	-	
18:01~19:00	9.6	8.0	8.9	8.0	8.2	15.6	9.1	3.6	-	
19:01~19:30	1.6	1.4	2.4	0.9	0.7	3.1	-	0.4	-	
19:31이후	2.1	2.6	3.1	2.7	0.7	3.4	9.1	1.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280)	(13)	(446)	(5)	
t/F	42.3(9) ^{***}		26.9(18)			-				

*** p < .001

6) 희망 이용시간

유치원 평균 희망 이용시간은 7시간 45분으로 실제 이용시간 7시간 12분보다 33분 정도 길다. 분포별로는 6~7시간과 7~8시간이 22% 수준으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VII-2-20 참조).

〈표 VII-2-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구분	단위: %(명)			
	3세	4세	5세이상	전체
5시간까지	8.5	2.5	4.3	4.7
5~6시간	15.3	13.4	16.3	15.4
6~7시간	22.2	22.7	22.4	22.5
7~8시간	19.9	27.7	19.6	22.1
8~9시간	19.3	13.9	19.1	17.5
9~10시간	6.3	9.7	8.2	8.1
10~11시간	4.5	6.7	6.9	6.3
11~12시간	2.3	0.4	1.0	1.1
12시간 이상	1.7	2.9	2.0	2.2
계(수)	100.0 (161)	100.0(279)	100.0(301)	100.0(744)
평균	7시간 37분	7시간 52분	7시간 45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1시간 45분	1시간 38분	1시간 45분	1시간 42분

〈표 VII-2-21〉 지역 및 기관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6.3	4.2	6.7	3.3	3.4	1.5	-	7.2	-
5~6시간	11.6	16.4	15.3	17.5	10.7	7.6	18.2	20.7	-
6~7시간	14.8	24.9	24.8	22.6	17.4	12.8	-	29.6	40.0
7~8시간	28.0	20.3	19.6	22.8	25.5	19.5	18.2	24.1	-
8~9시간	19.6	17.0	13.5	19.0	23.5	26.2	36.4	10.7	60.0
9~10시간	6.9	8.5	9.2	5.6	12.1	13.7	9.1	4.5	-
10~11시간	9.0	5.5	7.6	5.3	6.0	12.8	9.1	1.9	-
11~12시간	1.1	1.1	0.6	1.8	0.7	1.5	-	0.6	-
12시간 이상	2.6	2.1	2.8	2.1	0.7	4.3	9.1	0.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8)	(576)	(282)	(311)	(151)	(280)	(13)	(446)	(5)
X ² (df)	18.2(8)*		30.5(16)*			-			
평균	7시간56분	7시간42분	7시간40분	7시간45분	7시간57분	8시간35분	8시간9분	7시간9분	8시간3분
표준편차	1시간47분	1시간41분	1시간50분	1시간40분	1시간32분	1시간43분	1시간48분	1시간27분	1시간5분
t/F	1.7		1.5			55.0***			

* $p < .05$, *** $p < .001$

이러한 응답 경향은 아동의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과 무관하게 10% 정도는 10시간 이상 이용을 원하고 있었다(표 VII-2-20 참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6시간 이내의 짧은 이용시간을 원하는 비율이 20%대로 읍·면보다 높았으나 10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도시지역이 높아 도시 가정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읍·면 지역에서 8~10시간 사이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희망 평균 시간으로 보면 읍·면 지역이 7시간 57분으로 가장 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8시간 35분으로 미취업모 7시간 9분보다 1시간 30분 가까이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읍·면지역에 분포가 많은 국·공립유치원에서 평균 희망 이용시간이 사립유치원보다 14분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I-2-21 참조).

7) 등·하원 방법 및 시간

아동이 유치원에 등원하는 방법을 보면,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63.4%로 가장 많고, 보호자 동반 도보 24.4%, 자가용 이용 9.4% 순이었다. 이를 2009년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기관차량 이용이 다소 줄고 보호자와 함께 자가용이나 도보로 등원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VII-2-22 참조).

지역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이 많은 읍·면지역에서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57.8%로 평균보다 낮고 자가용 이용이 24.5%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5세 아동의 경우 혼자 걸어 등원하는 비율이 4.6%를 나타내 연령 차이를 보여 준다. 또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자녀는 자가용으로 등원하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미취업모는 기관 차량 이용 비율이 높았다.

기관 유형별 비교에서는 기관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은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중 34.7%가 기관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이 때 보호자 동반 도보가 36.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은 등원 방법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관차량 이용 비율이 0.9%p 정도 높고 자가용 이용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서 차이를 보인다.²⁷⁾(표 VII-2-23 참조).

27) 가구소득별 비교를 보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이 200만원 이하로 낮은 경우는 보호자 동반 도보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200~600만원 사이에서는 기관차량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 급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는 생략함.

〈표 VII-2-22〉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63.4	9.4	0.1	2.3	24.4	0.4	100.0(744)
연령							
3세	64.8	7.4	0.6	-	27.3	-	100.0(161)
4세	64.1	5.9	-	0.4	29.5	-	100.0(279)
5세이상	62.6	12.2	-	4.6	20.1	0.5	100.0(301)
지역규모							
대도시	62.0	5.5	-	4.3	28.2	-	100.0(282)
중소도시	67.6	6.3	0.3	1.2	24.1	0.6	100.0(311)
읍·면	57.8	24.5	-	0.7	17.0	-	100.0(151)
모취업 여부							
취업	57.8	14.5	-	1.2	25.8	0.6	100.0(280)
휴직중	83.3	8.3	-	-	8.3	-	100.0(13)
미취업	67.0	5.5	0.2	3.2	24.1	-	100.0(446)
부재 등	60.0	40.0	-	-	-	-	100.0(5)
유치원 유형							100.0(16)
국·공립	34.7	20.5	0.5	5.8	36.8	1.6	100.0(168)
사립	72.2	5.9	-	1.3	20.6	-	100.0(576)
2009년 조사	65.4	7.2	0.2	3.5	23.6	-	100.0(609)

〈표 VII-2-23〉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64.4	8.3	0.1	3.0	23.0	1.2	100.0(744)
연령							
3세	67.2	5.6	0.6	-	26.6	-	100.0(161)
4세	63.9	5.9	-	1.3	28.6	0.4	100.0(279)
5세이상	63.5	10.9	-	5.3	18.3	2.0	100.0(301)
지역규모							
대도시	62.6	5.8	-	4.3	25.8	1.5	100.0(282)
중소도시	67.4	6.2	0.3	1.5	23.7	0.9	100.0(311)
읍·면	63.3	17.7	-	2.7	15.6	0.7	100.0(151)
모 취업여부							
취업	57.8	14.5	-	2.5	23.7	1.5	100.0(280)
휴직중	72.7	-	-	-	27.3	-	100.0(13)
미취업	68.7	4.3	0.2	3.2	22.8	0.9	100.0(446)
부재 등	100.0	-	-	-	-	-	100.0(5)
유치원 유형							
국·공립	35.4	18.0	0.5	6.3	34.9	4.8	100.0(168)
사립	73.2	5.3	-	1.9	19.4	0.2	100.0(576)
2009년 조사	66.9	5.9	0.7	4.1	22.4	-	100.0(607)

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교사가 동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VII-2-24>와 같다. 96.6%가 동승하고 있으나 2.2%는 등원시에만 동승하여 하원시의 안전에 우려를 보인다. 특히 등원시에만 동승하는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4.0%로 높았다. 즉, 국·공립유치원은 등원시에만 동승하거나 하원시에만 동승하는 비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등원시에만 동승하는 비율이 3.5%로 평균보다 높아 하원시 아동을 마중할 사람에 대한 요구가 취업모에게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표 VII-2-24 참조).

<표 VII-2-24>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만 동승	하원시만 동승	동승하지 않음	
전체	96.6	2.2	0.4	0.5	100.0(508)
연령					
3세	99.2	-	0.8	-	100.0(111)
4세	96.2	3.8	-	-	100.0(187)
5세이상	95.5	2.6	0.8	1.1	100.0(208)
지역규모					
대도시	94.6	3.6	0.4	1.3	100.0(197)
중소도시	98.3	1.7	-	-	100.0(203)
읍·면	98.9	-	1.1	-	100.0(108)
모취업 여부					
취업	94.6	3.5	0.5	1.5	100.0(174)
휴직중	100.0	-	-	-	100.0(11)
미취업	98.2	1.5	0.3	-	100.0(318)
부재 등	100.0	-	-	-	100.0(5)
유치원 유형					
국·공립	90.7	4.0	1.3	4.0	100.0(68)
사립	97.9	1.9	0.2	-	100.0(440)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은 평균 11.6분으로 68.3%가 10분 이하로 가장 많고, 10~20분 사이는 24.6%, 21~30분은 6.6% 정도였다. 연령별로는 등하원 소요시간이 10분 이하는 3세가 74.2%인데 비해 5세는 63.9%로 10%p가량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33.1%가 11~20분 정도의 소요시간을 보고한 반면 20분 이상은 1.4%로 소수였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20분 이상이 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유치원까지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의 등·하원방법을 같이 고려해 보면, 읍·면지역은 부모가 자가용으로 등·하원 시키는

비율이 높아 거리와 무관하게 소요시간이 적게 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치원 유형간 평균 소요시간 차이는 거의 없으나 10~20분은 국·공립유치원이 많고, 21~30분 사이는 사립유치원이 많았다.

〈표 VII-2-25〉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8.3	24.6	6.6	0.5	100.0(744)	11.6	7.0
연령							
3세	74.2	18.5	7.3	-	100.0(161)	11.0	6.9
4세	71.0	23.1	5.9	-	100.0(279)	11.2	6.5
5세	63.9	28.2	6.9	1.0	100.0(301)	12.1	7.3
지역규모							
대도시	66.4	24.5	8.3	0.9	100.0(282)	11.8	7.6
중소도시	71.2	21.1	7.4	0.3	100.0(311)	11.4	7.0
읍·면	65.5	33.1	1.4	-	100.0(151)	11.7	5.5
유치원 유형							
국·공립	68.6	27.7	2.1	1.6	100.0(168)	11.5	6.2
사립	68.3	23.6	7.9	0.2	100.0(576)	11.6	7.2

라.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유치원 선택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중시한 비율이 2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집과의 거리 20.4%, 주변의 평판 12.2%, 교사 8.5%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이러한 경향에서 일관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이점을 보면 5세는 형제가 다니고 있어서 선택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세는 비용, 3세는 교사와 기관설비, 차량 운행 여부를 고려했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표 VII-2-26 참조).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집과의 거리, 주변의 평판에 의하여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중소도시는 원장을 고려했다는 응답과 비용을 보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읍·면지역은 특히 비용을 고려한 비율이 10.1%로 상당히 높았고 차량운행 여부 또한 7.4%로 중요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표 VII-2-26〉 연령별 유치원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원장	6.2	3.8	8.4	6.6
교사	10.2	5.9	9.4	8.5
운영시간	2.3	1.3	1.5	1.6
비용	3.4	7.2	5.6	5.8
프로그램	27.1	28.4	26.5	27.1
건강·영양	1.7	1.7	2.3	2.0
기관 학급 규모	-	0.4	0.8	0.5
내부 분위기	1.1	1.3	1.8	1.5
안전한 보호	0.6	3.8	0.8	1.7
집과의 거리	22.0	23.3	17.9	20.4
기관설비	3.4	1.7	1.0	1.7
국·공립 여부	1.1	3.0	3.6	2.8
주변의 평판	13.6	10.6	12.8	12.2
주변입지	0.6	1.7	1.3	1.2
차량 운행 여부	4.0	1.3	1.8	2.1
특별프로그램	0.6	2.1	1.5	1.5
형제가 다니고 있어서	-	2.1	3.1	2.1
기타	2.3	0.4	-	0.6
계(수)	100.0(161)	100.0(279)	100.0(301)	100.0(744)

〈표 VII-2-27〉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원장	2.6	7.7	5.5	8.9	3.4	6.2	-	7.0	-
교사	13.6	6.9	6.7	8.6	12.1	8.3	-	8.9	-
운영시간	4.2	0.8	0.6	1.5	4.0	1.8	-	1.5	-
비용	13.6	3.4	2.4	7.1	10.1	4.3	-	7.0	-
프로그램	16.2	30.1	30.6	22.8	28.2	29.5	63.6	24.0	40.0
건강·영양	1.0	2.4	3.1	1.8	0.7	1.8	-	2.1	-
기관 학급 규모	-	0.8	0.9	0.3	-	0.9	-	0.2	-
내부 분위기	1.0	1.6	2.8	0.6	0.7	1.5	-	1.5	-
안전한 보호	3.7	1.3	1.2	1.2	4.7	3.4	-	0.9	-
집과의 거리	14.1	22.2	22.0	20.5	16.1	19.1	18.2	21.1	40.0
기관설비	-	2.3	1.8	2.1	0.7	0.9	-	2.3	-
국·공립 여부	12.0	-	2.4	3.3	2.7	2.5	-	3.4	-
주변의 평판	6.8	14.0	14.1	13.9	4.7	6.2	9.1	16.4	20.0
주변입지	-	1.6	1.5	1.2	-	1.2	9.1	1.1	-
차량 운행 여부	5.8	1.1	0.9	1.5	7.4	4.6	-	0.6	-
특별프로그램	-	1.9	1.2	2.4	-	3.1	-	0.4	-
형제가 다니고 있어서	5.2	1.1	1.5	1.5	4.7	3.7	-	1.1	-
기타	-	0.8	0.6	0.9	-	0.9	-	0.4	-
계(수)	100.0(168)	100.0(576)	100.0(282)	100.0(311)	100.0(151)	100.0(280)	100.0(13)	100.0(446)	100.0(5)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의 부모는 교사, 비용을 고려했다는 비율이 각각 13.6%, 국·공립이라는 점 12.0%로 사립유치원보다 높고 반면,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는 프로그램이 30.1%로 가장 높은 고려 사항이었고 집과의 거리 22.2%, 주변의 평판 등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혀 국·공립 유치원 선택시 고려사항과는 차이를 보였다(표 VII-2-27 참조).

어머니 취업에 따른 유치원 선택 이유를 보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취업모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량 운행 여부를 고려한다는 비율이 4.6%로 높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란 응답도 3.1%로 미취업모보다 높았다. 미취업의 경우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7.0%로 높은 편이고, 특히 주변의 평판을 고려했다는 비율이 16.4%로 취업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VII-2-27참조).

〈표 VII-2-28〉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149만원 이하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원장	13.8	5.9	11.7	3.1	3.1	14.5	6.9	3.6	6.3
교사	-	25.5	1.0	6.2	19.2	2.9	3.8	7.2	6.3	10.9
운영시간	6.9	9.8	1.0	2.1	-	-	-	-	-	6.5
비용	10.3	9.8	6.8	5.2	6.2	5.8	3.1	6.3	4.2	6.5
프로그램	27.6	23.5	31.1	28.9	24.6	13.0	27.5	30.6	25.0	32.6
건강·영양	-	-	1.0	4.1	2.3	7.2	0.8	1.8	-	-
기관 학급 규모	-	-	-	-	-	-	3.1	0.9	-	-
내부 분위기	3.4	2.0	2.9	-	0.8	2.9	1.5	-	-	2.2
안전한 보호	-	-	1.0	7.2	1.5	-	1.5	0.9	2.1	2.2
집과의 거리	13.8	15.7	20.4	16.5	19.2	14.5	20.6	24.3	41.7	19.6
기관설비	-	-	-	2.1	0.8	11.6	1.5	0.9	-	-
국·공립 여부	3.4	-	2.9	3.1	6.2	1.4	1.5	5.4	-	-
주변의 평판	13.8	5.9	15.5	12.4	11.5	15.9	16.0	9.9	6.3	4.3
주변입지	-	-	1.0	5.2	1.5	-	0.8	-	-	2.2
차량 운행 여부	3.4	-	1.0	3.1	-	-	7.6	3.6	-	-
특별프로그램	3.4	-	1.0	-	0.8	4.3	0.8	3.6	4.2	2.2
형제가 다님	-	-	1.0	1.0	2.3	4.3	3.1	-	4.2	6.5
기타	-	2.0	1.0	-	-	1.4	-	0.9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7)	(36)	(95)	(97)	(124)	(59)	(110)	(93)	(51)	(51)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 증가와 비례하는 일관적인 경향을 크게 보이지는 않으나

저소득 가정에서는 비용과 차량 운행 여부, 특별프로그램 등을 선택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은 편이고, 높은 소득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과 집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VII-2-28 참조).

마. 유치원 서비스

1) 기관에서 강조하는 내용

유치원에서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1순위로 65.8%가 인성지도를 꼽았다. 이는 기관유형이나 지역별 비교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강조 내용으로 지적하였다.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유치원에서,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더 많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는 균형있는 발달이 16.6%, 자유놀이 중심 활동이 5.3%, 안전한 보호가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인성지도와 균형있는 발달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안전한 보호나 급간식 등 건강관리, 인지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강조하는 비율을 낮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3.0%가 읽기 및 쓰기 등 인지교육을 중시했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비율도 3.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국·공립 유치원이 많은 읍·면 지역은 자유놀이 중심 활동 강조 비율이 6.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립 비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안전한 보호, 인지교육, 건강관리, 특별활동 강조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표 VII-2-29 참조).

〈표 VII-2-29〉 연령별 유치원 원장이 강조하는 내용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균형있는 발달	14.6	13.5	19.0	18.0	16.2	15.3	18.2	15.6	16.6
인성지도	71.3	70.5	60.7	71.4	64.2	59.5	69.9	72.1	65.8
안전한 보호	3.9	4.2	4.1	2.6	4.5	5.8	3.0	2.7	4.1
자유 놀이 중심 활동	3.9	6.3	5.3	5.8	5.0	5.5	3.9	6.8	5.3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1.7	1.7	2.8	0.5	2.9	4.3	1.2	0.7	2.2
쓰기읽기 강조한 인지교육	2.2	0.8	3.6	-	3.0	4.0	1.5	0.7	2.5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0.6	0.8	0.5	0.5	0.6	0.9	-	0.7	0.6
특별활동 프로그램	1.7	2.1	3.6	-	3.5	4.0	2.4	0.7	2.7
없음	-	-	0.5	1.1	-	0.6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168)	(576)	(282)	(311)	(151)	(744)

2) 부모 참여

가) 정보 제공

(1) 유형별

<표 VII-2-30>은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별 제공 빈도를 조사한 표이다. 유치원 교육계획을 제공하는 경우 매주 1회가 8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4.7%는 월 1회 제공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91.5%가 주1회 제공하고 있고 같은 항목에서 사립은 82.8%로 나타났고, 계획표 제공에 있어 지역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도시가 월1회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급식 및 간식 식단은 월1회가 64.2%로 가장 많고 매주 1회 32.9%, 매일은 2.5% 정도였고 0.5%는 연간 1~2회 이하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공립은 매일이 5.3%, 매주가 35.6%로 사립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립유치원은 월 1회가 60.2%로 높았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대도시에서는 매주 1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통신문이 제공되는 상황을 보면, 매주 1회가 69.6%였고 매일 제공도 22.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국·공립유치원 28.2%는 사립유치원 20.9%에 비해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약간 높고, 매주 1회 제공하는 비율은 사립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매주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25%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월 1회 제공한다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와 읍면지역 소재 유치원에서는 부모 정보 제공에서 유치원 유형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발달 평가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21%로 조사되었다. 분기 1회와 연 1~2회가 각각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월 1회는 19.2% 정도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을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월1회 제공도 국·공립유치원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월1회 제공도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에서는 연 1~2회 제공 비율이 읍면지역보다 10%p 이상 높은 편이었다.

부모상담과 관련해서는 제공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비율이 3.3% 정도였으며, 연 1

~2회 빈도가 53.8%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 유치원에서 부모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제공을 하는 경우 제공 빈도는 국·공립에서 더 자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월 1회 제공하는 빈도 비율이 높고 대도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자료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13.2%로 나타난 가운데, 월 1회 25.9%, 또는 연 1~2회 23.0%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제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비율이 25%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VII-2-30 참조).

〈표 VII-2-30〉 유치원 유형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교육계획표									
매일	-	0.8	0.5	-	0.6	0.3	0.6	0.7	0.5
매주 1회	88.7	81.1	85.2	91.5	82.8	83.7	86.1	84.6	84.8
월 1회	11.3	18.1	14.3	8.5	16.5	16.0	13.4	14.8	14.7
급·간식식단									
매일	0.6	1.7	3.8	5.3	1.4	1.8	1.8	4.7	2.5
매주 1회	35.6	34.5	31.0	35.6	32.2	34.4	33.8	28.4	32.9
월 1회	63.8	63.0	64.6	57.4	66.2	63.5	63.8	66.2	64.2
연 1~2회	-	0.4	-	0.5	-	-	-	0.7	0.1
제공 안함	-	0.4	0.5	1.1	0.2	0.3	0.6	-	0.4
가정통신문									
매일	23.2	24.4	21.1	28.2	20.9	19.0	25.0	25.0	22.5
매주 1회	72.3	68.9	69.2	63.3	71.6	76.8	66.1	62.2	69.6
월 1회	3.4	4.6	6.4	6.9	5.0	3.4	5.7	9.5	5.4
분기 1회	0.6	-	1.5	-	1.1	0.3	1.8	-	0.9
연 1~2회	-	0.8	0.3	-	0.5	-	0.9	-	0.4
제공 안함	0.6	1.3	1.5	1.6	1.0	0.6	0.6	3.4	1.2
자녀발달평가									
매일	2.3	0.4	0.5	1.6	0.5	0.9	0.3	2.0	0.9
매주 1회	3.4	7.1	6.1	5.9	5.8	8.9	3.6	4.1	5.8
월 1회	23.9	18.8	17.5	23.4	17.9	19.9	14.6	28.4	19.2
분기 1회	23.3	23.8	29.2	27.7	26.3	24.2	29.2	25.7	26.6
연 1~2회	25.0	27.6	26.6	15.4	29.8	26.9	30.4	16.9	26.6
제공 안함	10.8	14.2	12.9	11.7	13.3	13.5	11.9	13.5	12.8
모름	11.4	7.9	7.1	14.4	6.4	5.8	10.1	9.5	8.2

(표 VII-2-30 계속)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부모상담									
매일	-	0.4	0.5	1.1	0.2	0.9	-	-	0.4
매주 1회	1.1	0.8	1.3	2.1	0.8	1.2	1.2	0.7	1.1
월 1회	10.2	9.2	2.5	10.6	5.3	5.8	3.6	14.9	6.4
분기 1회	42.9	29.0	35.3	37.6	34.3	34.6	35.0	35.8	35.1
연 1~2회	41.8	55.5	58.4	41.3	57.4	53.2	57.9	45.9	53.8
제공 안함	1.7	2.5	1.0	3.7	1.0	2.1	1.5	0.7	1.6
모름	2.3	2.5	1.0	3.7	1.1	2.1	0.9	2.0	1.7
부모교육자료									
매일	-	1.3	4.3	3.7	2.2	3.0	1.2	4.7	2.5
매주 1회	20.3	13.4	15.5	18.1	15.2	18.6	17.0	6.8	15.9
월 1회	27.7	27.3	24.2	24.5	26.2	25.9	26.5	23.6	25.9
분기 1회	23.2	18.9	18.6	19.1	19.7	17.4	17.6	28.4	19.6
연 1~2회	17.5	24.4	24.2	17.0	24.9	25.9	25.6	11.5	23.0
제공 안함	5.1	7.1	5.6	4.8	6.1	4.6	4.5	12.2	5.9
모름	6.2	7.6	7.6	12.8	5.6	4.6	7.7	12.8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168)	(576)	(282)	(311)	(151)	(744)

(2) 도움정도

기관으로부터의 부모서비스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정통신문 제공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8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계획표 제공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84.1%, 발달평가 통지의 경우 81.2%가 도움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VII-2-31 참조).

〈표 VII-2-31〉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도움 정도 및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도움된다는 비율						5점 평균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 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전체	84.1	80.9	88.5	81.2	73.5	71.1	4.00	3.93	4.03	3.96	3.83	3.81
국·공립	84.6	81.5	87.0	80.1	73.0	70.5	4.01	3.94	3.95	3.86	3.79	3.81
사립	86.1	83.3	82.3	76.3	71.1	68.2	4.00	3.93	4.05	3.99	3.84	3.81
(수)	(617)	(583)	(623)	(446)	(508)	(436)	(744)	(740)	(733)	(568)	(714)	(633)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가정통신문 제공 87.0%, 계획표 제공

84.6%, 급간식 식단 제공 81.5% 순으로 도움 된다고 응답한데 비해, 같은 질문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교육계획표 제공 86.1%, 급간식 식단 제공 83.3%, 가정통신문 제공에 82.3%가 도움된다고 응답하였다(표 VII-2-31 참조).

(3) 만족도

부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정통신문 79.9%, 발달평가 78.4%, 교육계획표 제공에 76.0%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표 VII-2-32 참조).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가정통신문에 80.4%가, 발달평가 통지에 78.4%가, 교육 계획표 제공에 77.5%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 계획표 제공에 82.4%, 가정통신문 제공에 82.2%, 급간식 식단 제공에 81.7%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VII-2-32〉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 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교 육자료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전체	76.0	75.9	79.9	78.4	68.9	65.6	3.88	3.87	3.92	3.89	3.76	3.74
국·공립	77.5	77.2	80.4	78.4	69.0	65.5	3.96	3.97	3.97	3.92	3.82	3.80
사립	82.4	81.7	82.2	78.6	68.9	65.2	3.86	3.85	3.91	3.89	3.75	3.73
(수)	(582)	(566)	(583)	(435)	(489)	(415)	(744)	(740)	(733)	(568)	(714)	(633)

나) 부모지원

자녀의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으로 부모가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양육부담이 완화된다는 응답이 92.6%로 가장 높았고, 업무(가사)능률이 향상된다는 응답이 89.3%, 육아 기술·지식이 확대된다는 응답이 65.7% 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족갈등 완화와 여가취미활동으로 전체적으로 50%대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용하는 기관 차이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가족갈등 완화에서 사립 유치원보다 7%p 높게 차이를 보이고 취업·구직과 양육부담 완화에서도 국공립유치원이 약간 높았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여가·취미 활동과 육아기술·지식 확대에서 국공립유치원보다 7~8%p 높은 차이를 보였고, 이외 학업·훈련, 추가출산에서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VII-2-33 참조).

〈표 VII-2-33〉 유치원 유형별 도움 정도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취업 구직	업무 능력 향상	여가 취미 활동	육아 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 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 갈등 완화	기타	(수)
전체	35.3	89.3	51.2	65.7	13.4	92.6	12.9	51.2	0.1	(744)
국·공립	36.7	89.9	45.2	60.6	11.2	94.7	7.4	56.6	-	(168)
사립	34.8	89.1	53.1	67.3	14.1	92.0	14.6	49.6	100.0	(576)

다음으로 <표 VII-2-34>는 유치원의 이용으로 인해 부모가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보면 취업 및 구직 4.09점, 업무능력 향상, 여가취미활동, 양육부담 완화가 각각 약 4.0점, 학업훈련, 추가출산, 가족갈등 완화 약 3.9점, 육아기술지식 확대 3.8점으로 산출되었다.

아이의 연령별로 보면 1~2세아 부모의 경우 업무능력 향상, 육아기술지식 확대, 양육부담 완화, 가족갈등 완화에 각각 4.0점으로 나타났다. 3세아 부모는 취업 및 구직 4.08점, 양육부담 완화 3.98점이고, 4세아 부모는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학업훈련, 양육부담 완화에 모두 약 4.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취업 및 구직 4.06점, 업무능력향상, 양육부담 완화가 각각 4.0점 정도이고, 가족갈등 완화 3.87점, 여가취미활동, 추가출산 약 3.8점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향상, 여가취미활동, 양육부담 완화에 각각 4.0점 수준이며, 읍·면에서는 취업 및 구직에 4.27점으로 도움 정도가 높고 여가취미활동, 추가출산 약 4.1점, 업무능력향상, 학업훈련, 양육부담 완화 4.0점 수준 등이었다.

모취업 특성에 따른 점수 차이는 취업중인 경우 취업 및 구직 4.16점, 업무능력 향상, 양육부담 완화 약 4.1점, 여가취미활동, 학업훈련 약 4.0점 등으로 산출되었고, 휴직중인 경우 추가출산에 4.61점으로 도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및 구직, 여가취미활동에 4.37점, 업무능력 향상에 4.22점이었다. 한편 미취업의 경우 여가취미활동, 양육부담 완화가 4.0점 정도이고 업무능력 향상, 추가출산은 3.9점 수준이었다.

각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여가·취미활동과 육아기술·지식, 가족갈등 완화 부분에서 이용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의 모의 경우에 여가·취미활동, 육아기술·지식, 가족갈등 완화 부분에서 더 도움을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34〉 유치원 유형별 도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 능률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전체	4.09	4.01	3.96	3.80	3.85	4.04	3.90	3.87
연령								
3세	4.08	3.93	3.94	3.78	3.83	3.98	3.93	3.88
4세	3.97	4.00	3.93	3.91	3.98	4.01	4.05	3.84
5세	4.17	4.05	3.99	3.74	3.79	4.08	3.75	3.88
F	2.4 [#]	1.8	0.5	2.2 [#]	1.0	1.2	1.4	0.2
지역규모								
대도시	4.06	4.01	3.85	3.71	3.69	4.03	3.81	3.87
중소도시	4.01	4.00	4.00	3.81	3.90	4.05	3.92	3.84
읍·면	4.27	4.04	4.15	3.94	4.04	4.05	4.15	3.93
F	4.9 ^{**}	0.4	6.8 ^{**}	5.2 ^{**}	2.7 [#]	0.1	1.0	0.7
모 취업여부								
취업	4.16	4.09	3.95	3.85	4.03	4.08	3.91	3.94
휴직중	4.37	4.22	4.37	3.50	3.20	4.03	4.61	4.00
미취업	3.79	3.94	3.96	3.78	3.75	4.02	3.86	3.82
부재 등	4.44	4.71	4.70	4.44	5.00	4.16		3.00
F	7.4 ^{***}	7.3 ^{***}	1.0	1.8	3.3 [*]	0.7	1.7	1.8
유치원 유형								
국·공립	4.15	4.00	4.11	3.94	3.96	4.05	3.93	4.00
사립	4.07	4.01	3.92	3.76	3.83	4.04	3.90	3.83
t	1.1	-0.2	2.6 [*]	3.0 ^{**}	0.9	0.2	0.1	2.8 ^{**}
(수)	(253)	(663)	(394)	(491)	(107)	(686)	(96)	(384)

$p < .1$, ** $p < .01$,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3) 특기활동

가) 특기활동 이용

(1) 종류 및 개수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특기활동 수는 평균 2.7개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744개 유치원 이용 부모 중 특기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이고, 2개 22.5%, 3개 15.4%, 1개 14.0%, 4개 9.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특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없는 비율이 28.0%, 2개 26.8% 순이었고,

중소도시는 없는 비율이 29.0%, 3개 22.2%, 2개 21.3% 등이고, 읍·면 지역은 특기활동이 없는 비율은 43.5%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1개 16.3%, 2개 15.6%를 보였다.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특기활동이 없는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이 52.7%로 사립유치원 24.7%보다 두 배정도 많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특기활동 수가 1개 11.7%, 2개 10.6%, 3개 11.7% 등이었고, 사립유치원은 1개가 14.9%, 2개 26.2%, 3개 16.5% 등으로 나타났다.

〈표 VII-2-35〉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수

구분	단위: %(명), 개											계(수)	평균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전체	31.2	14.0	22.5	15.4	9.3	5.0	1.1	0.6	0.4	0.2	0.1	100.0(744)	2.7
연령													
3세	33.3	19.2	23.7	14.1	5.1	2.3	1.1	1.1	-	-	-	100.0(161)	2.3
4세	30.5	14.6	21.8	17.6	10.0	2.9	0.4	0.8	0.8	0.4	-	100.0(279)	2.6
5세	30.0	11.5	22.6	14.8	10.9	7.6	1.5	0.3	0.3	0.3	0.3	100.0(301)	2.9
F													6.9**
지역규모													
대도시	28.0	12.2	26.8	11.3	14.0	5.5	1.5	0.6	-	-	-	100.0(282)	2.7
중소도시	29.0	15.1	21.3	22.2	6.2	3.0	1.2	0.6	0.9	0.3	0.3	100.0(311)	2.6
읍·면	43.5	16.3	15.6	8.8	6.1	8.8	-	-	-	0.7	-	100.0(151)	2.7
F													0.3
유치원 유형													
국·공립	52.7	11.7	10.6	11.7	5.9	6.9	-	-	-	-	0.5	100.0(168)	2.8
사립	24.7	14.9	26.2	16.5	10.3	4.5	1.4	0.6	0.5	0.3	-	100.0(576)	2.7
t													0.6

** $p < .01$

〈표 VII-2-36〉은 유치원 특기활동 프로그램별 이용 비율을 나타낸다. 영어가 66.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은 미술 52.4%, 체육 44.8%, 음악 27.1%, 교구 25.2%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별로 보면, 영어, 음악, 체육, 과학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각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도 높아진다. 영어의 경우 5세는 71.3%, 4세는 66.5%, 3세는 53.5%로 나타난다. 교구이용 활동이나 미술 등은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구 이용 활동은 3세가 29.5%로 4, 5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과목에 따라 실시 비율이 차이가 있는데, 미술, 음악은 읍·면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고 체육, 과학, 교수, 영어 등에서는 읍·면지역의 실시 비율이 높았다. 기관별로는 한자, 체육, 과학은 국·공립유치원이 높고, 나

머지 과목은 사립유치원이 높은 편이다.

〈표 VII-2-36〉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52.4	27.1	44.8	23.3	9.6	14.5	0.2	25.2	1.5	66.2	1.1	3.1
연령												
3세	52.5	19.1	38.3	15.3	9.6	13.9	-	29.5	-	53.5	0.9	3.6
4세	53.0	23.8	42.3	21.6	13.2	11.7	0.6	23.8	2.4	66.5	1.2	2.4
5세	52.0	32.5	49.1	27.6	7.5	16.4	-	24.4	1.5	71.3	1.1	3.3
지역규모												
대도시	55.1	33.5	43.9	16.1	14.1	18.2	0.4	24.6	-	65.1	1.7	2.6
중소도시	52.3	25.1	42.4	24.9	7.4	13.1	-	23.9	2.6	66.1	0.8	3.8
읍·면	45.2	14.3	53.6	38.1	4.8	9.5	-	29.8	1.2	69.0		2.4
유치원 유형												
국·공립	49.4	25.8	64.0	42.7	4.5	5.7	-	15.7	4.5	59.6	-	2.2
사립	53.0	27.4	41.0	19.7	10.8	16.2	0.2	27.1	0.9	67.3	1.1	3.1
(수)	(242)	(131)	(229)	(103)	(56)	(72)	(1)	(131)	(9)	(327)	(7)	(20)

특기활동이 선택이 아닌,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의 상황이나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과목마다 다른데, 대체로 체육이나 음악, 영어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교구나 미술 등은 낮았다(표 VII-2-37 참조).

〈표 VII-2-37〉 유치원 특기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연령			지역규모			전체	(수)
	국·공립	사립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미술	62.2	38.5	34.4	53.4	38.5	39.5	42.4	50.0	42.1	(90)
음악	47.8	59.8	63.6	64.1	53.3	53.2	63.9	53.8	57.6	(73)
체육	63.2	64.7	61.4	52.2	71.1	61.4	67.6	64.4	64.3	(127)
과학	50.0	35.6	52.9	40.0	36.5	25.0	42.4	51.5	39.9	(41)
수학	60.0	31.2	18.2	40.9	35.0	25.0	50.0	33.3	34.4	(20)
한글	40.0	49.3	31.2	52.6	53.3	45.2	64.5	-	48.5	(29)
교구	100.0	36.3	31.3	56.4	39.4	35.1	42.9	60.0	42.5	(54)
한자	66.7	75.0	100.0	25.0	62.5	-	83.3	-	64.4	(6)
영어	66.0	55.6	60.7	57.8	55.6	53.0	63.3	51.7	57.1	(162)
외국어	-	40.0	100.0	50.0	33.3	50.0	50.0	50.0	42.7	(3)
기타	100.0	28.6	25.0	33.3	44.4	-	55.6	100.0	37.9	(8)

유치원 이용 아동 연령별로 보면, 과학과 영어는 연령이 낮을수록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한글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미술이나 과학, 수학, 교구, 영어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의무 참여 비율이 높았고 사립유치원은 음악, 과학, 한글 등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여러 영역에서 중소도시 지역의 의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음악, 체육, 수학, 한글, 한자, 교구, 영어 등 대부분의 특기활동 과목에서 중소도시의 의무 참여 비율이 높았다(표 VII-2-37 참조).

<표 VII-2-38>은 유치원에서 특기활동을 1주일 동안 이용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는 5.1회로, 과목별로는 최소 1.4회에서 3회까지 정도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주당 국·공립유치원은 3.9회가 평균이었으나 사립의 경우는 5.4회로 나와 국·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서 특기활동 이용 횟수가 많았다. 특히 수학과 영어에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II-2-38〉 유치원 특기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립	t	
전체	5.1	3.7	1.0	25.0	3.9	5.4	-4.1***	(513)
미술	1.8	1.2	1.0	5.0	1.4	1.9	-2.9***	(242)
음악	1.6	1.0	1.0	5.0	1.5	1.6	-0.6	(131)
체육	1.5	0.9	1.0	5.0	1.2	1.5	-2.4*	(229)
과학	1.4	0.9	1.0	5.0	1.4	1.5	-0.6	(103)
수학	2.2	1.6	1.0	5.0	1.2	2.3	-3.7**	(56)
한글	2.0	1.3	1.0	5.0	2.2	2.0	0.4	(72)
컴퓨터	3.0	-	3.0	3.0	-	3.0	-	(1)
교구	1.7	1.1	1.0	5.0	1.2	1.7	-3.1**	(131)
한자	1.7	0.8	1.0	3.0	1.9	1.4	0.9	(9)
영어	2.7	1.5	1.0	5.0	1.6	2.9	-10.5***	(327)
기타외국어	1.5	0.9	1.0	3.0	-	1.5	-0.9	(7)
기타	1.6	1.1	1.0	5.0	1.0	1.7	-4.1***	(20)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에서 특기활동을 운영하는 시간을 보면, 오후에만 하는 비율이 68.2%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오전과 오후에 하는 비율이 15.3%이고 오전에만 하는 경우도

9.7%로 여전히 오전에 실시하는 유치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오후에만 특기활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가장 많고, 오전에만 운영하는 비율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오후에만 운영하는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2.8%p 정도 높았다(표 VII-2-39 참조).

〈표 VII-2-39〉 유치원 특기활동 운영시간

구분	오전, 오후	오전에만	오후에만	모름	단위: %(명) 계(수)
전체	15.3	9.7	68.2	6.8	100.0(513)
연령					
3세	10.3	6.0	75.2	8.5	100.0(104)
4세	10.9	11.5	71.5	6.1	100.0(202)
5세	20.1	10.2	63.1	6.6	100.0(207)
$X^2(df)$			13.2(6)*		
지역규모					
대도시	15.3	13.2	61.7	9.8	100.0(198)
중소도시	11.3	6.7	76.6	5.4	100.0(221)
읍·면	27.1	9.4	61.2	2.4	100.0(94)
$X^2(df)$			26.0(6)***		
유치원 유형					
국·공립	22.2	8.9	65.6	3.3	100.0(86)
사립	14.1	10.0	68.4	7.5	100.0(427)
$X^2(df)$			5.3(3)		

* $p < .05$, *** $p < .001$

나) 특기활동 비용

(1) 비용 별도 지불 여부

특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과목별로 72.7%~100% 사이의 비율로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 과학, 수학 등은 대부분 연령이 높을수록 비용 지불 비율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동일한 과목에 대해 대도시의 비용 지불 비율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더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I-2-40 참조).

〈표 VII-2-40〉 유치원 특기활동 별도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		(수)
	3세	4세	5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사립	
미술	90.2	86.2	81.7	89.9	84.8	63.2	48.9	90.7	(242)
음악	77.3	89.7	80.0	91.0	72.1	69.2	54.5	86.7	(131)
체육	72.7	87.0	73.1	91.1	72.3	54.5	50.9	84.7	(229)
과학	100.0	94.3	82.7	86.5	86.4	93.8	89.5	87.8	(103)
수학	90.9	85.7	85.0	96.9	64.7	100.0	50.0	89.8	(56)
한글	88.2	63.2	84.4	78.6	77.4	100.0	60.0	81.3	(72)
컴퓨터	-	100.0	-	100.0	-	-	-	100.0	(1)
교구	90.9	94.9	74.6	96.4	87.7	52.0	-	93.6	(131)
한자	75.0	100.0	87.5	-	83.3	100.0	75.0	100.0	(9)
영어	86.9	88.2	85.7	95.3	87.3	63.8	51.9	92.7	(327)
외국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7)
기타	100.0	100.0	70.0	100.0	66.7	100.0	50.0	92.9	(20)

(2) 특기활동 비용

특기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이용 비용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과목별로 최하 14,000원 정도에서 최고 39,000원 정도까지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는 특별활동 과목 중에는 영어의 평균 이용 비용이 39,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이 21,1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I-2-41〉 유치원 특기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립	t	
미술	27.9	19.0	5.0	90.0	16.0	29.0	-6.6***	(211)
음악	19.4	13.5	5.0	75.0	14.3	20.0	-1.4	(103)
체육	22.2	15.6	5.0	110.0	15.1	23.5	-4.4***	(176)
과학	21.1	19.0	4.0	160.0	7.0	27.1	-8.6***	(92)
수학	23.9	13.2	3.0	50.0	4.7	25.0	-9.3***	(49)
한글	22.3	12.3	5.0	70.0	16.4	22.7	-0.9	(72)
교구	25.9	16.8	3.0	100.0	-	25.9	-	(117)
한자	13.7	5.0	8.0	22.0	13.3	14.0	-0.2	(8)
영어	39.2	27.9	5.0	150.0	18.4	41.2	-8.8***	(294)
외국어	21.7	10.1	8.0	40.0	-	23.0	-	(7)
기타	31.4	10.9	18.0	50.0	40.0	30.5	3.1**	(17)

** $p < .01$, *** $p < .001$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의 특기활동 과목에서 유의한 비용 차이를 보였는데, 영어의 경우 사립은 41,200원으로 국·공립 18,400원보다 월등히 높아 가장 큰 비용 차이를 나타냈다. 또 수학이나 과학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이 1만원 이하인데 비해 사립 유치원은 2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있어 차이가 큰 편이었다(표 VII-2-41 참조).

특별활동 이용 비용을 연령별, 지역별로 보면, 모든 특별활동 중 5세에 대한 영어 프로그램이 44,2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이나 과학, 영어 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요구되었으나 한글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과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많은 활동이 읍·면 지역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술 프로그램이나 교구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도시보다 1만원 이상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과학활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2만원 가까이 읍면지역보다 더 내고 있었다(표 VII-2-42 참조).

〈표 VII-2-42〉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구분	단위: 천원(명)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27.9	19.4	22.2	21.1	23.9	22.3	25.9	13.7	39.2	21.7	31.4
연령											
3세	29.5	14.1	24.1	12.6	30.8	28.8	26.9	-	31.3	26.6	26.0
4세	26.3	17.3	23.8	20.6	22.8	25.3	21.6	12.1	34.8	20.0	33.0
5세	28.1	21.6	20.7	23.7	21.0	19.0	28.5	15.0	44.2	20.6	33.5
F	0.5	2.7 [#]	1.0	2.4 [#]	1.9	4.1 [*]	1.9	0.5	6.3 ^{**}	0.1	0.6
지역규모											
대도시	24.8	19.0	19.2	28.5	24.3	21.4	25.8	10.0	39.9	24.1	34.1
중소도시	29.6	19.7	26.1	24.1	22.5	23.1	23.5	12.8	38.2	17.0	27.3
읍·면	35.6	21.4	22.3	8.1	25.0	24.1	35.6	18.0	40.1	-	34.9
F	4.0 [*]	0.1	4.1 [*]	12.0 ^{***}	0.1	0.2	2.7 [#]	0.6	0.2	0.5	0.7
설립유형											
국·공립	16.0	14.3	15.1	7.0	4.7	16.4	-	13.3	18.4	8.0	40.0
사립	29.0	20.0	23.5	27.1	25.0	22.7	25.9	14.0	41.2	22.9	30.5
t	9.6 ^{**}	2.0	7.5 ^{**}	33.7 ^{***}	5.7 [*]	0.8	-	0.0	18.3 ^{***}	0.8	0.9
(수)	(211)	(103)	(176)	(92)	(49)	(60)	(114)	(8)	(294)	(7)	(17)

$p < .1$,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많이 분포하는 비용 범위는 5~10만원 미만으로 37.2%가 이러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월평균 총비용은 평균 68,600원 정도인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3세는 57,900원 정도이고 4세는

66,200원 정도였으며, 5세는 74,500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특별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았다. 또 지역별 비교에서는 대도시가 72,200원인데 비해 읍·면은 56,500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전에 과목당 비용에서는 읍·면지역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월평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대도시가 평균 16,000원 정도나 비용이 높아 더 여러 프로그램을 도시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28,500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74,600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무료가 25.6%로 사립유치원 5.8%의 4배 가까이 된다. 또한 1만원 이하로 특기활동을 이용하는 비율은 51.2%로 5~10만원이 42.6%인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볼 수 있다(표 VII-2-43 참조).

〈표 VII-2-43〉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월평균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	4.1	3.4	4.8	20.4	37.2	15.0	3.2	2.7	100.0(513)	68.6	45.4
연령												
3세	9.4	6.0	3.4	8.5	23.9	33.3	13.7	0.9	0.9	100.0(104)	57.9	39.0
4세	10.2	2.4	4.8	4.8	19.9	39.2	15.1	2.4	1.2	100.0(202)	66.2	40.3
5세	8.3	4.3	2.5	3.3	19.2	37.7	15.6	4.7	4.3	100.0(207)	74.5	49.7
X ² (df)/F					20.7(16)							5.4**
지역규모												
대도시	5.6	-	3.8	5.6	18.4	44.4	17.1	3.0	2.1	100.0(198)	72.2	42.3
중소도시	10.9	0.8	2.5	4.6	23.8	36.8	14.6	2.1	3.8	100.0(221)	68.9	45.1
읍·면	13.3	24.1	4.8	2.4	16.9	19.3	10.8	7.2	1.2	100.0(94)	56.5	53.2
X ² (df)/F					129.9(16)***							3.3*
유치원 유형												
국·공립	25.6	25.6	8.9	8.9	18.9	8.9	3.3	-	-	100.0(86)	28.5	25.9
사립	5.8	-	2.4	4.1	20.8	42.6	17.3	3.9	3.2	100.0(427)	74.6	44.6
X ² (df)/t					-							-12.0***

* $p < .05$, ** $p < .01$, *** $p < .001$

다) 특기활동 만족도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특기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 척도에서 과목에 따라 3.4~4.0점 사이의 점수를 보여, 만족도가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미술 프로그램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고 과학프로그램은 국·공립유치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사립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2-44〉 유치원 특기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3.84	3.75	3.80	3.97	3.86	3.94	4.00	3.84	3.58	3.75	3.34	4.03
국공립	3.61	3.68	3.81	4.16	4.00	4.00		3.94	3.08	3.74	3.00	4.00
사립	3.88	3.76	3.80	3.89	3.84	3.94	4.00	3.83	4.00	3.76	3.37	4.04
t	-2.2*	-0.6	0.1	2.2*	1.7	0.3	-	1.2	-1.8	-0.1	-	-0.1
(수)	(242)	(131)	(229)	(103)	(26)	(72)	(1)	(131)	(9)	(327)	(7)	(20)

* $p < .05$

라) 특기활동에 대한 의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특기활동 프로그램은 영어가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술 14.9%, 체육 14.7%, 한글 12.5%의 순이었다(표 VII-2-45 참조).

〈표 VII-2-45〉 유치원 이용 유아 특성별 특기활동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계(수)
전체	14.9	6.5	14.7	4.7	1.6	12.5	0.4	7.0	0.7	35.1	0.4	1.6	100.0(512)
연령													
3세	13.8	2.6	19.0	1.7	0.9	16.4	-	18.1	0.9	26.7	-	-	100.0(104)
4세	14.4	4.2	13.8	3.6	1.8	13.2	1.2	4.8	0.6	40.1	-	2.4	100.0(202)
5세	15.6	9.5	13.5	6.5	1.8	10.5	-	3.6	0.7	35.6	0.7	1.8	100.0(206)
지역규모													
대도시	14.0	7.6	15.3	2.1	2.1	12.7	0.8	3.4	1.3	37.7	0.8	2.1	100.0(198)
중소도시	16.9	4.2	14.3	5.5	1.7	11.0	-	10.5	0.4	34.6	-	0.8	100.0(220)
읍·면	13.3	9.6	14.5	7.2	-	16.9	-	7.2	-	30.1	-	1.2	100.0(94)
유치원 유형													
국·공립	10.0	15.6	23.3	6.7	-	20.0	-	1.1	1.1	20.0	-	2.2	100.0(86)
사립	16.0	4.7	13.0	4.1	1.9	11.3	0.4	8.1	0.6	38.0	0.4	1.5	100.0(426)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사립유치원에 다닐수록 영어를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고, 특이점으로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세에서 가장 중요성 인식도가 높고 읍·면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중요

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들겠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특히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어머니는 가장 높은 비율인 23.3%가 체육을 중요하다고 본 데 반해 사립유치원 아동의 어머니는 영어를 중요하다고 보고 38.0%가 이를 선택하였다.

<표 VII-2-46>은 유치원의 특기활동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방법은 특기활동 금액 상한선으로 86.9%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사립유치원에서 이러한 의견이 많았다.

〈표 VII-2-46〉 제 특성별 유치원 특기활동 운영 제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활동 시간 제한		금액 상한선	
	필요하다는 비율	5점 평균	필요하다는 비율	5점 평균
전체	48.6	3.25	86.9	4.1
연령				
3세	47.5	3.28	75.7	4.0
4세	48.3	3.27	90.7	4.2
5세	49.7	3.24	89.8	4.2
지역규모				
대도시	51.7	3.33	86.7	4.1
중소도시	47.5	3.24	89.7	4.2
읍·면	44.2	3.12	81.8	4.2
유치원 유형				
국·공립	44.4	3.12	76.2	4.0
사립	49.8	3.29	92.8	4.2
(수)	(744)	(744)	(744)	(744)

주: 5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4) 건강검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세가 69.3%, 4세는 67.8%, 5세는 73.8%로 5세 아동의 건강검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건강검진율이 2.3%p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7.4%와 읍·면이 73.5%로 중소도시 64.1%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VII-2-47 참조).

다음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사전에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86.5%가 검진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고, 9.7%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고 하였다. 연령별로는 5세 이상인 경우 88.8%가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3세나 4세보다 안내 받은 비율이 높았다(표 VII-2-48 참조).

〈표 VII-2-47〉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관리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69.3	67.8	73.8	72.9	70.6	77.4	64.1	73.5	71.1
받지 않음	28.4	28.0	25.2	26.1	26.8	21.4	32.9	23.8	26.7
잘 모름	2.3	4.2	1.0	1.1	2.6	1.2	3.0	2.7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168)	(576)	(282)	(311)	(151)	(744)
X ² (df)	8.2(4)			1.6(2)		15.5(4)**			

** p < .01

〈표 VII-2-48〉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3세	4세	5세이상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2.5	85.3	88.8	84.6	87.0	89.9	85.4	82.3	86.5
받지 않음	10.7	10.1	9.2	10.6	9.5	7.7	11.6	9.5	9.7
잘 모름	6.8	4.6	2.0	4.8	3.5	2.5	3.0	8.2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168)	(576)	(282)	(311)	(151)	(744)
X ² (df)	8.7(4)*			0.9(2)		13.2(4)*			

* p < .05

기관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 잘 모름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나 알림사항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를 비교해 보게 한다(표 VII-2-48 참조).

건강검진 받은 후 결과를 유치원에 제출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65.6%가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31.9%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연령이나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별로도 의미있는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세 이상 집단과 국공립유치원 이용자, 그리고 읍·면지역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제출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다(표 VII-2-49 참조).

〈표 VII-2-49〉 건강검진 결과 제출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3세	4세	5세이상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제출함	65.0	61.2	68.4	67.6	64.8	68.7	60.5	69.6	65.6
제출하지 않음	32.8	34.6	29.8	30.9	32.3	28.8	36.5	28.4	31.9
잘 모름	2.3	4.2	1.8	1.6	2.9	2.5	3.0	2.0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1)	(279)	(301)	(168)	(576)	(282)	(311)	(151)	(744)
X ² (df)		9.5(8)			1.2(2)		6.3(4)		

5) 누리과정

<표 VII-2-50>는 유치원 이용 부모가 누리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누리과정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로 높았고, 대도시 유치원 부모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리과정의 기존 과정과의 차이에 대해 44.1%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55.9%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부모가 사립유치원 아동 부모보다 누리과정이 기존과 다르다는 인식이 조금 낮았고, 만족도는 43.5%, 5점 척도에서 평균 3.40점 수준을 보여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은 편이었다. 지역별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고,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10%p 이상 높았다.

〈표 VII-2-50〉 유치원 이용 부모의 누리과정 관련 인식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누리과정 내용 인지				기존 과정과 누리과정 차이				만족 정도		
	매우 잘 앎	어느 정도 앎	잘 모름	계(수)	별 차이 없음	어느 정도 차이 있음	많은 차이 있음	계(수)	만족한다는 비율	평균	(수)
전체	20.4	61.8	17.8	100.0(310)	44.1	51.9	4.0	100.0(257)	43.5	3.40	(257)
지역규모											
대도시	25.8	62.6	11.6	100.0(121)	25.8	62.6	11.6	100.0(108)	47.4	3.40	(108)
중소도시	17.3	56.2	26.5	100.0(122)	17.3	56.2	26.5	100.0(94)	36.7	3.38	(94)
읍·면	15.8	71.1	13.2	100.0(67)	15.8	71.1	13.2	100.0(55)	46.3	3.42	(55)
X ² (df)/F				16.7(4)**				-		0.1	
유치원 유형											
국·공립	20.8	65.1	14.2	100.0(83)	45.1	47.3	7.7	100.0(68)	52.2	3.46	(68)
사립	20.2	60.6	19.2	100.0(227)	43.7	53.7	2.6	100.0(189)	40.1	3.37	(189)
X ² (df)/t				1.1(2)				4.7(2)		1.0	

** $p < .01$

3. 유치원 이용 비용

1) 교육비 면제 및 감면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율을 보면, 전체에서 82.4%가 전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5세 이상 연령 아동이 97.5%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비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이며 3세의 경우는 67.2%, 4세는 68.5%가 전액지원을 받고 있고 각각 31% 정도는 어떠한 감면 혜택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88.5%가 전액지원을 받는 것으로 답하여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은 79.9%가 전액지원 대상인데 비해 국·공립유치원은 91.0%가 전액지원을 받고 있어 비교적 큰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VII-3-1 참조).

〈표 VII-3-1〉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교육비 면제 및 감면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액 지원	일부 감면	아무런 혜택 없음	계(수)
전체	82.4	1.0	16.6	100.0(744)
연령				
3세	67.2	1.1	31.6	100.0(161)
4세	68.5	0.4	31.1	100.0(279)
5세이상	97.5	1.3	1.3	100.0(301)
지역규모				
대도시	79.8	1.5	18.7	100.0(282)
중소도시	82.2	0.3	17.5	100.0(311)
읍·면	88.5	1.4	10.1	100.0(151)
모취업 여부				
취업	81.3	0.9	17.8	100.0(280)
휴직중	72.7	-	27.3	100.0(13)
미취업	83.4	0.9	15.8	100.0(446)
부재 등	100.0	-	-	100.0(5)
유치원 유형				
국·공립	91.0	-	9.0	100.0(168)
사립	79.9	1.3	18.8	100.0(576)

유치원 교육비 지원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다음은 3~4세 소득하위 7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차등교육비 지원 제

도에 의한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누리과정 혜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소득 가정 지원 제도의 경우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읍·면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보다 누리과정 교육비 감면 혜택 비율이 높았고, 3~4세 차등교육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에서 더 비중이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60.6%가 누리과정 교육비 혜택을 받았고 36.4%는 3~4세 차등 교육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2> 지역 및 유치원 유형·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교육비 지원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사립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채 등
0-2세 무상보육	-	1.4	-	-	0.8	0.4	-	0.8	-
5세 누리과정	57.0	57.2	57.1	62.4	55.4	60.6	50.0	54.2	100.0
34세 소득하위 70% 이하	41.9	38.8	40.6	37.6	41.4	36.4	50.0	43.3	-
다문화가족 자녀	0.8	2.2	1.5	-	1.8	1.9	-	1.3	-
장애아동	0.4	-	-	-	0.2	-	-	0.3	-
기타	-	0.4	0.8	-	0.4	0.7	-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9)	(241)	(128)	(144)	(454)	(222)	(7)	(364)	(5)

다음 <표 VII-3-3>은 유치원 교육비를 감면 받는 경우, 월평균 감면 액수는 평균 168,700원이다. 최소값은 33,000원이고 최대값은 394,000원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3세 아동일 경우 감면액이 189,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세로 167,600원, 5세는 161,600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감면액은 줄어들었다. 이는 교육비 자체가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이며 교육비 대비 감면액의 비율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176,000원 내지 177,000원인데 비해 읍·면 지역의 감면액은 136,000원으로 낮은 액수를 보인다. 이는 교육비가 낮은 읍·면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비교하면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4만원 정도 더 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오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총소득이 200~249만원 범위에 있는 경우 183,800원을 감면받아 최대 비용 수혜대상에 해당된다. 다음은 500~599만원 계층, 400~499만원 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평균 감면액이 91,900원, 사립유치원은 194,700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표 VII-3-3〉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 월평균 감면 액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t	단위: 천원(명) (수)
합계	168.7	55.3	33.0	394.0		(598)
연령						
3세	189.6	30.9	43.0	197.0	12.0***	(107)
4세	167.6	32.6	33.0	177.0		(189)
5세이상	161.5	65.2	33.0	394.0		(299)
지역규모						
대도시	176.3	49.1	33.0	394.0		(229)
중소도시	177.2	48.3	43.0	347.0	31.7**	(241)
읍·면	136.0	67.7	33.0	200.0		(128)
모취업 여부						
취업	166.4	56.1	33.0	286.0		(222)
휴직중	168.9	51.7	59.0	200.0	0.4	(7)
미취업	170.1	55.0	33.0	394.0		(364)
부재 등	187.8	44.5	59.0	200.0		(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50.5	62.5	59.0	200.0		(27)
150~199만원	168.0	59.0	33.0	286.0		(36)
200~249만원	183.8	39.5	59.0	347.0		(91)
250~299만원	155.6	59.0	33.0	200.0		(92)
300~349만원	168.0	52.6	59.0	200.0	2.3*	(105)
350~399만원	165.3	54.8	42.0	200.0		(50)
400~499만원	174.2	51.5	33.0	286.0		(80)
500~599만원	176.2	50.4	37.0	200.0		(56)
600~699만원	154.8	67.3	33.0	200.0		(34)
700만원 이상	163.1	84.5	59.0	394.0		(26)
유치원 유형						
국·공립	91.9	57.8	33.0	197.0	19.4***	(138)
사립	194.7	17.1	100.0	394.0		(574)

* $p < .05$, *** $p < .001$

2) 유치원 교육비

가) 전체 아동 교육비

일반적인 아동이 지불하게 되는 유치원 교육비는 월평균 193,8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순교육비는 86,900원이고 추가비용이 106,900원 정도로 잡혔다. 유치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지불하는 교육비는 평균 36,000원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241,400원으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순교육비는 8,500원이지만 추가 비용이 27,500원 정도였

다(표 VII-3-4 참조).

가구소득별로 보면 최저 비용을 내고 있는 소득범위는 150~199만원으로 84,700원의 전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월 337,500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어서 최저 비용의 4배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은 읍·면지역의 교육비가 당연히 가장 낮아 100,000원이었고, 대도시는 228,8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8,000원 정도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비는 가구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4〉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구분	전체 비용(A)	순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단위: 천원(명)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2012년	2009년
전체	193.8	86.9	106.9	(744)	6.0	8.0	
지역규모							
대도시	228.8	100.0	128.8	(282)	7.1	9.0	8.2
중소도시	200.9	96.5	104.4	(311)	6.1	8.0	7.9
읍·면	100.0	35.8	64.2	(151)	3.2	5.4	5.5
F	35.7**	17.7**	39.5**		23.0**	16.5**	
모취업여부							
취업	197.6	86.5	111.1	(280)	5.0	7.3	6.9
휴직중	286.1	132.7	153.4	(13)	18.3	-	-
미취업	189.4	86.7	102.7	(446)	6.4	8.6	8.03
부재 등	140.6	21.5	119.1	(5)	5.8	5.5	10.7
F	25.9**	37.7**	19.5**		24.9**	5.7**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20.1	38.1	82.0	(23)	18.1	11.9	9.9
150~199만원	84.7	28.7	56.0	(28)	6.3	8.7	8.9
200~249만원	155.3	48.8	106.5	(90)	7.5	10.2	7.9
250~299만원	145.8	47.6	98.0	(90)	6.2	8.7	6.6
300~349만원	159.9	72.6	87.3	(117)	5.7	7.8	7.8
350~399만원	175.1	79.5	95.6	(55)	5.2	6.7	6.9
400~499만원	220.0	102.5	117.5	(109)	5.1	6.1	5.6
500~599만원	299.0	158.1	140.9	(90)	5.9	6.1	5.3
600~699만원	206.4	100.8	105.6	(51)	3.2	5.0	-
700만원 이상	337.5	173.9	163.6	(49)	4.4		
F	17.9**	13.7**	16.2**		18.3**		
유치원 유형							
국·공립	36.0	8.5	27.5	(168)	1.6		
사립	241.4	110.5	130.6	(576)	7.0		
t	-27.6**	-18.4**	-28.7**		328.1**		

** $p < .01$, *** $p < .001$

유치원 교육비를 연령별로 보면, 3세는 218,100원, 4세는 245,200원, 5세는 152,200원으로 4세의 교육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비용을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04년보다는 높아졌으나 2009년에 비하면 비용이 낮아진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VII-3-5 참조).

〈표 VII-3-5〉 유아 연령 및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F	2009년	2004년
전체							
총비용	218.1	245.2	152.2	193.8	14.6***	229.3	173.8
순교육비	120.4	127.5	47.4	86.9	24.2***	141.4	126.8
(수)	(161)	(279)	(301)	(744)		(612)	(487)
국·공립유치원							
총비용	40.9	53.4	26.5	36.0	8.3***	64.6	86.1
순교육비	11.52	19.0	2.65	8.5	9.1***	27.7	49.8
(수)	(28)	(59)	(81)	(168)		(148)	(105)
사립유치원							
총비용	257.7	295.7	198.9	241.4	13.2***	281.7	204.3
순교육비	144.8	156.0	64.0	110.5	21.6***	177.6	153.1
(수)	(133)	(220)	(220)	(576)		(464)	(398)

*** $p < .001$

〈표 VII-3-6〉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특기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전체 아동						
전체	42.6	18.0	20.8	9.1	14.0	2.4
국·공립	9.9	1.9	7.3	1.3	7.1	-
사립	52.4	22.8	24.9	11.5	16.2	3.1
(수)	(744)	(744)	(744)	(744)	(744)	(744)
t	-16.9***	-19.8***	-12.3***	-8.1***	-9.1***	-2.6*
비용지불아동						
전체	68.3	33.8	34.8	56.4	20.6	-
국·공립	29.0	16.4	21.1	34.1	14.6	-
사립	74.1	34.7	37.0	57.7	21.8	-
(수)	(461)	(400)	(463)	(123)	(509)	(24)
t	-11.7***	-6.4***	-6.9***	-1.6	-5.6***	

*** $p < .001$

추가 교육비를 유치원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특기교육비 42,600원은 국·공립에

서는 9,900원이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52,400원으로 사립유치원이 훨씬 교육비가 높으며 각 항목별로 보면, 교재비 18,000원, 급간식비 20,800원, 종일반비 9,100원으로 등으로 추가 교육비가 제시되었다(표 VII-3-6 참조).

3) 항목별 추가 비용

특기교육비, 교재비 등 추가 교육비를 각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 보면 도시가 모든 항목에서 읍·면지역보다 높은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모취업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의 경우보다 종일반비에서 15,000원과 4,500원으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특기교육비도 취업모가 더 많이 내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하는 추가 교육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VII-3-7〉 제 특성별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특기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수)
전체	42.6	18.0	20.8	9.1	14.0	2.4	(744)
지역규모							
대도시	48.5	20.1	26.2	12.1	17.8	4.1	(282)
중소도시	43.3	19.4	19.8	8.8	12.6	0.4	(311)
읍·면	27.8	10.0	11.1	3.3	9.0	3.0	(151)
F	9.4***	11.8***	22.1***	6.1**	18.0***	1.7	
모취업 여부							
취업	46.3	16.1	18.6	15.0	12.0	3.2	(280)
휴직중	61.8	20.4	20.3	37.3	12.7	0.9	(13)
미취업	39.4	19.2	22.2	4.5	15.5	1.9	(446)
부채 등	52.6	21.7	36.1	-	8.8	0.0	(5)
F	1.9	1.3	2.1*	16.4***	3.3*	0.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3.2	10.5	14.3	19.7	12.7	1.6	(27)
150~199만원	17.7	11.2	10.7	2.6	13.8	0.0	(36)
200~249만원	40.7	19.5	23.6	5.3	16.1	1.3	(95)
250~299만원	35.2	16.9	16.9	10.9	16.4	1.9	(97)
300~349만원	34.2	15.9	18.9	4.5	13.7	0.2	(124)
350~399만원	40.5	20.2	18.2	2.9	13.5	0.3	(59)
400~499만원	49.1	21.9	21.9	8.3	13.1	3.2	(110)
500~599만원	61.4	14.9	27.3	16.0	14.6	6.7	(93)
600~699만원	40.9	18.7	21.7	13.7	10.1	0.4	(51)
700만원 이상	68.2	27.2	28.6	19.4	13.1	7.1	(51)
F	6.5***	2.7***	3.4***	4.1***	0.8	0.8	

* $p < .05$, ** $p < .01$, *** $p < .001$

4) 비용 부담

가)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표 VII-3-8>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부모의 교육 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표이다. 이에 대해 부담된다는 의견이 56.7%로 조사되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7%였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비가 높으므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도 읍·면과 도시 지역 간 뚜렷한 부담도 차이를 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63.5%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읍면지역의 유치원은 32.9%만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비 미지원 시에도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6.6%가 이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5세 부모 90%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미지원시 이용에 대한 동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교육비 지원 여부별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가 96.3%로 높은 이용 의사를 밝혔고, 전액 지원 아동 가구는 84.7%로 낮았다.

<표 VII-3-8>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단위: %(명), 천원

구분	교육 비용의 부담 정도							미지원 시 이용 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 안됨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전체	11.6	45.1	20.6	16.3	6.4	100.0(712)	2.6	86.6	11.5	2.0	100.0(744)
연령											
3세	11.0	53.5	17.4	15.1	2.9	100.0(154)	2.4	81.4	16.4	2.3	100.0(161)
4세	13.7	50.4	18.4	15.4	2.1	100.0(272)	2.4	86.1	10.9	2.9	100.0(279)
5세이상	10.5	38.3	22.8	17.7	10.7	100.0(283)	2.8	89.3	9.4	1.3	100.0(301)
X ² (df)/F			-				6.3 ^{***}				-
지역규모											
대도시	11.6	51.9	20.1	12.9	3.5	100.0(276)	2.4	85.9	12.0	2.1	100.0(282)
중소도시	14.7	45.7	19.9	16.0	3.7	100.0(302)	2.5	87.2	10.4	2.4	100.0(311)
읍·면	4.4	28.5	22.6	25.5	19.0	100.0(134)	3.3	87.2	12.2	0.7	100.0(151)
X ² (df)/F			73.1(8) ^{***}				32.8 ^{***}				2.1(4)
모취업 여부											
취업	7.9	42.8	22.3	20.1	6.9	100.0(271)	2.8	91.1	8.0	0.9	100.0(280)
휴직중	25.0	58.3	8.3	8.3	-	100.0(13)	1.9	100.0	-	-	100.0(13)
미취업	14.0	46.1	19.8	14.0	6.0	100.0(424)	2.5	83.2	14.1	2.8	100.0(446)
부재 등	-	100.0	-	-	-	100.0(4)	2.2	100.0	-	-	100.0(5)
X ² (df)/F			-				4.8 ^{**}				-

(표 VII-3-8 계속)

구분	교육 비용의 부담 정도							미지원 시 이용 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 안됨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6.9	30.8	26.9	15.4	-	100.0(25)	2.3	70.4	25.9	3.7	100.0(27)
150~199만원	10.9	28.3	30.4	13.0	17.4	100.0(29)	3.0	58.8	33.3	7.8	100.0(36)
200~249만원	25.0	55.0	9.0	10.0	1.0	100.0(92)	2.1	68.6	29.4	2.0	100.0(95)
250~299만원	11.6	42.1	12.6	18.9	14.7	100.0(91)	2.8	77.3	19.6	3.1	100.0(97)
300~349만원	2.5	58.3	24.2	12.5	2.5	100.0(118)	2.6	94.6	5.4	-	100.0(124)
350~399만원	15.4	50.8	20.0	12.3	1.5	100.0(55)	2.3	91.4	4.3	4.3	100.0(59)
400~499만원	9.9	52.7	14.5	17.6	5.3	100.0(109)	2.6	94.7	4.6	0.8	100.0(110)
500~599만원	14.8	25.0	29.6	26.9	3.7	100.0(91)	2.8	97.3	0.9	1.8	100.0(93)
600~699만원	2.1	41.7	31.3	10.4	14.6	100.0(51)	2.9	100.0	-	-	100.0(51)
700만원 이상	4.4	40.0	22.2	26.7	6.7	100.0(51)	2.9	95.6	4.4	-	100.0(51)
X ² (df)/F	136.6(36) ^{***}						6.1 ^{***}	-			
지원여부											
전액 지원	9.2	44.6	21.0	17.7	7.5	100.0(559)	2.7	84.7	13.0	2.2	100.0(591)
일부 감면	14.3	28.6	57.1	-	-	100.0(7)	2.4	87.5	-	12.5	100.0(7)
혜택 없음	23.0	48.9	16.3	11.1	0.7	100.0(146)	2.2	96.3	3.7	-	100.0(146)
X ² (df)/F	-						12.8 ^{***}	-			

** p < .01, *** p < .001

나)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유치원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비용이 높아진다면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하겠는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추가 부담의사를 나타낸 비율은 20.4%였다. 읍·면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VII-3-9> 제 특성별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0.4	79.6	100.0(744)	158.5	106.8	50.0	500.0	(154)
연령								
3세	15.8	84.2	100.0(161)	173.6	131.2	50.0	500.0	(29)
4세	25.2	74.8	100.0(279)	144.4	81.4	50.0	400.0	(62)
5세 이상	19.8	80.2	100.0(301)	163.7	114.0	50.0	500.0	(63)
X ² (df)/F	-			0.9				

(표 VII-3-9 계속)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지역규모								
대도시	22.9	77.1	100.0(282)	170.4	122.5	50.0	500.0	(67)
중소도시	19.3	80.7	100.0(311)	160.9	99.4	50.0	500.0	(56)
읍·면	17.6	82.4	100.0(151)	116.9	55.1	50.0	200.0	(31)
X ² (df)/F	2.3(2)			2.4				
모취업 여부								
취업	22.8	77.2	100.0(280)	166.7	120.5	50.0	500.0	(66)
휴직중	27.3	72.7	100.0(13)	128.2	55.0	100.0	200.0	(4)
미취업	18.7	81.3	100.0(446)	152.7	95.8	50.0	500.0	(84)
부재 등	-	100.0	100.0(5)					-
X ² (df)/F	-			0.5				
유치원 유형								
국·공립	22.9	77.1	100.0(168)	149.2	102.1	50.0	400.0	(41)
사립	19.6	80.4	100.0(576)	161.7	108.6	50.0	500.0	(113)
X ² (df)/t	1.0(1)			-0.7				
지원여부								
전액 지원	19.2	80.8	100.0(591)	150.5	104.7	50.0	500.0	(112)
일부 감면	28.6	71.4	100.0(7)	144.8	108.9	100.0	300.0	(2)
혜택 없음	25.9	74.1	100.0(146)	188.2	111.7	50.0	500.0	(40)
X ² (df)/F	3.5(2)			1.7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100.0	100.0(27)	-	-	-	-	
150~199만원	2.0	98.0	100.0(36)	100.0		100.0	100.0	(1)
200~249만원	10.8	89.2	100.0(95)	193.2	139.9	50.0	500.0	(11)
250~299만원	16.5	83.5	100.0(97)	138.0	53.6	50.0	200.0	(16)
300~349만원	19.4	80.6	100.0(124)	121.0	119.9	50.0	500.0	(23)
350~399만원	12.7	87.3	100.0(59)	112.1	57.1	50.0	200.0	(11)
400~499만원	26.2	73.8	100.0(110)	151.1	90.8	50.0	500.0	(30)
500~599만원	30.9	69.1	100.0(93)	151.5	98.4	50.0	400.0	(25)
600~699만원	39.6	60.4	100.0(51)	199.8	110.6	50.0	400.0	(20)
700만원 이상	37.8	62.2	100.0(51)	222.7	132.8	50.0	500.0	(17)
X ² (df)/F	56.2(9) ^{***}			2.0 [*]				

* p < .05, *** p < .001

모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추가 부담 비율이 더 높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 부모가 더 많이 추가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평균 158,500원을 더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서, 취업 모 가구, 사립유치원,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가 추가 비용이 더 많았다.

4. 유치원 이용 만족도 및 요구

1) 유치원 만족도

유치원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결과는 <표 VII-4-1>과 같다.

대체로 55~75%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전체 평균이 66.3%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교사와 교육 내용이었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비용이었으며, 부모교육 및 상담도 낮은 편이었다. 대체로 높은 항목으로는 원장, 내부분위기, 시설설비 및 실내 환경, 교육내용 등이었고 낮은 항목으로는 비용과 부모교육 및 상담 외에 부모참여가 있었다. 만족도는 5점 평균 3.74점으로, 이는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주변환경,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이 전체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VII-4-1> 유치원 만족도 비율 및 평균: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전체	국·공립	사립	(수)	전체	국·공립	사립	t
원장	70.0	70.2	70.0	(744)	3.86	3.97	3.83	2.1*
교사	75.6	76.1	75.4	(744)	3.96	4.04	3.93	1.5
주변환경	66.3	73.4	64.1	(744)	3.72	3.80	3.70	1.5
시설설비·실내환경	70.4	60.6	73.4	(744)	3.79	3.66	3.83	-2.7**
교재교구·장비	67.5	66.7	67.7	(744)	3.77	3.78	3.77	0.2
내부분위기	74.4	68.1	76.2	(744)	3.84	3.79	3.86	-1.2
비용	44.8	88.3	31.7	(744)	3.37	4.24	3.11	15.6***
건강관리	66.9	78.7	63.3	(744)	3.75	3.94	3.69	4.3***
급·간식관리	66.6	81.9	62.0	(744)	3.75	3.99	3.68	5.2***
안전관리	69.3	77.2	66.9	(744)	3.78	3.93	3.74	3.2**
교육내용	75.2	81.9	73.2	(744)	3.85	3.97	3.81	2.8**
부모참여	59.4	62.8	58.4	(744)	3.65	3.71	3.63	1.3
부모교육 및 상담	54.9	53.4	55.4	(744)	3.58	3.60	3.58	0.2
전체 평균	66.3	72.3	64.4	(744)	3.74	3.88	3.70	
2009년 조사					3.72	3.69	3.80	-
2004년 조사(전환)					3.64	-	-	-

* $p < .05$, ** $p < .01$, *** $p < .001$

주: 5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함.

유치원 유형별로 만족도 점수를 비교하면, 여러 항목에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장,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등에서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유치원이 만족도가 높았고, 실내시설·설비와 내부 분위기 항목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공립유치원 시설 투자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 변인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VII-4-2>와 같다. 연령별 만족도 점수에서 비용과 원장, 교사, 시설설비, 교육내용, 부모교육 상담 등에서 점수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4, 5세보다는 3세의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비용 항목에서는 만5세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전액지원 영향인 듯하다. 지역별로는 원장, 교사, 주변환경, 안전관리, 교육내용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비용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모취업 여부별 비교에서는 교사, 비용, 교육내용, 부모 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는 대체로 취업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VII-4-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채 등	F
원장	3.98	3.83	3.83	1.4	3.84	3.80	4.06	5.8**	3.92	3.85	3.82	3.96	0.9
교사	4.14	3.84	3.95	4.0**	3.93	3.92	4.11	3.3*	4.06	3.59	3.90	3.55	3.9**
주변환경	3.84	3.69	3.69	1.3	3.69	3.70	3.86	2.4	3.75	3.86	3.71	3.60	0.3
시설설비·실내환경	3.93	3.79	3.73	3.2*	3.83	3.75	3.79	1.0	3.81	4.07	3.77	3.63	0.8
교재교구·장비	3.92	3.71	3.73	3.4**	3.79	3.73	3.81	1.0	3.87	3.91	3.69	4.40	5.4**
내부분위기	4.02	3.76	3.81	5.3***	3.85	3.85	3.81	0.3	3.85	3.72	3.85	3.23	1.4
비용	3.26	3.22	3.50	4.1**	3.28	3.24	3.86	22.9***	3.53	3.24	3.27	2.73	5.4**
건강관리	3.84	3.76	3.70	2.8*	3.79	3.69	3.80	2.0	3.78	3.59	3.73	3.81	0.5
급·간식관리	3.80	3.74	3.72	1.5	3.74	3.71	3.85	1.8	3.84	3.58	3.69	4.18	3.1
안전관리	3.77	3.76	3.80	1.4	3.76	3.72	3.96	6.4**	3.86	3.67	3.73	3.75	2.2
교육내용	3.96	3.78	3.84	2.2#	3.87	3.78	3.97	4.2*	3.95	3.84	3.78	3.71	3.8*
부모참여	3.79	3.56	3.64	3.9**	3.66	3.63	3.68	0.3	3.74	3.68	3.59	3.37	2.8*
부모교육 및 상담	3.75	3.48	3.57	3.9**	3.63	3.53	3.59	1.4	3.69	3.41	3.51	3.37	4.1**
전체 평균	3.85	3.69	3.73		3.74	3.70	3.86		3.82	3.69	3.70	3.64	
(수)	(161)	(279)	(301)		(282)	(311)	(151)		(280)	(13)	(446)	(5)	

$p < .1$,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 비용에 대한 만족도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44.8% 정도이고 18.5%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일부 감면자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VII-4-3 참조).

지원 대상 자격별 비교에서는 누리과정 수혜자가 51.3%가 만족하여 과반수 이상 최고 만족도 비율을 보였다.

〈표 VII-4-3〉 유치원 비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3.1	15.4	36.7	31.2	13.6	100.0(744)
교육비 면제 여부						
전액 지원	3.3	14.4	35.3	32.3	14.7	100.0(591)
일부 감면	14.3	42.9	-	42.9	-	100.0(7)
아무런 혜택 없음	1.5	19.3	45.2	25.2	8.9	100.0(146)
지원 유형						
5세 누리과정	2.3	11.9	34.5	36.5	14.8	100.0(297)
3-4세 소득하위 70 이하	4.8	18.3	34.8	27.8	14.3	100.0(283)
다문화가족 자녀	-	33.3	44.4	22.2	-	100.0(9)
장애아동	-	-	100.0	-	-	100.0(20)
기타	50.0	-	50.0	-	-	100.0(4)

2)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들은 유치원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표현능력 발달 16.4%, 인지 발달 10.2%, 정서 발달 9.4%의 순이었다. 특기활동 과목으로 많이 선택되는 예체능과 관련하여 예체능 능력 발달이 발달하였다는 응답이 의외로 적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제 특성별 비교하여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연령별로는 특히 3세가 정서발달이 상대적으로 높고 4세는 표현능력 발달, 5세는 인지발달을 꼽는 비율이 타 연령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특히 정서발달을 주요 결과라고 보았고, 읍면지역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긍정적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기관유형에 따른 비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공립유치원은 사회성 발달, 사립유치원은 표현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II-4-4 참조).

〈표 VII-4-4〉 유치원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표현능력 발달	예체능 능력 발달	계(수)
전체	9.4	54.6	10.2	5.3	16.4	4.1	100.0(744)
연령							
3세	14.1	50.8	9.6	6.2	16.9	2.3	100.0(161)
4세	5.5	56.1	8.4	4.6	19.8	5.5	100.0(279)
5세	9.7	55.2	11.7	5.1	14.2	4.1	100.0(301)
X ² (df)				-			
지역규모							
대도시	12.8	51.1	12.8	6.4	14.4	2.4	100.0(282)
중소도시	7.1	51.9	9.8	5.6	20.5	5.0	100.0(311)
읍·면	6.8	68.5	5.5	2.7	11.6	4.8	100.0(151)
X ² (df)			30.8(10)**				
유치원 유형							
국·공립	8.5	59.0	9.0	4.3	13.3	5.9	100.0(168)
사립	9.6	53.2	10.6	5.6	17.5	3.4	100.0(576)
X ² (df)			5.8(2)				

** $p < .01$

3) 개선 요구 사항

유치원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요구사항 1위는 비용으로 29.4%이었고, 다음은 시설설비·실내환경으로 11.5%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주변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로 9.9%, 8.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관 유형별 비교에서는 순위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시설설비·실내환경이 32.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교육내용, 주변환경, 안전관리 등인데 비하여, 사립유치원은 비용에서 37.1%의 개선요구를 보였고 다음이 주변환경, 급간식관리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용 개선 요구가 각각 36.2%, 27.0%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이 많은 읍·면지역은 시설설비·실내환경 요구가 2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비용으로 18.7%이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주변환경 비율이 1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II-4-5 참조).

〈표 VII-4-5〉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원장	2.9	3.1	3.7	3.3	0.7	3.0
교사	5.3	3.2	4.0	3.3	3.7	3.7
주변환경	7.1	10.5	9.9	11.1	6.7	9.9
시설설비, 실내환경	32.9	5.8	9.0	6.9	29.1	11.5
교재교구 및 장비	8.2	8.1	7.7	9.0	7.5	8.2
내부 분위기	4.7	2.3	2.2	3.3	3.7	2.9
비용	1.2	37.1	36.2	27.0	18.7	29.4
건강관리	0.6	3.9	2.8	4.2	1.5	3.2
급간식관리	3.5	7.9	6.2	8.4	5.2	7.0
안전관리	7.6	4.4	4.6	6.3	3.0	5.1
교육내용	8.8	5.0	4.3	6.6	6.7	5.7
부모참여	7.1	4.7	5.9	5.1	3.7	5.2
부모교육 및 상담	10.0	4.2	3.4	5.4	9.7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0)	(570)	(279)	(306)	(145)	(730)

4) 양육수당 관련 의견

유치원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준다면 유치원 이용을 중단하겠냐고 질문하였다.

〈표 VII-4-6〉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단위: %(명), 천원

구분	양육수당 지원 시 이용 중단 의견					적정 금액		
	중단하지 않음	중단하고 다른 데 보냄	중단하고 집에서 보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97.7	0.9	1.4	0.1	100.0(744)	281.3	130.5	(18)
연령								
3세	97.2	0.6	2.3	-	100.0(161)	273.0	137.7	(4)
4세	97.5	0.4	1.7	0.4	100.0(279)	307.5	204.5	(5)
5세	98.0	1.3	0.8	-	100.0(301)	270.2	76.5	(9)
지역규모								
대도시	98.2	-	1.8	-	100.0(282)	255.9	89.4	(6)
중소도시	97.0	1.8	0.9	0.3	100.0(311)	297.9	172.0	(8)
읍·면	98.0	0.7	1.4	-	100.0(151)	288.8	40.6	(4)
유치원 유형								
국·공립	98.9	1.1	-	-	100.0(168)	296.2	115.2	(3)
사립	97.3	0.8	1.8	0.2	100.0(576)	279.5	135.4	(15)

이 질문에 97.7%가 중단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중단하고 집에서 돌본다는 의견은 1.4%로 소수였다. 유치원의 경우 영아가 없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양육수당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중단하고 집에서 보겠다는 의견도 대부분 가장 어린 3세 유아의 어머니 응답이었다. 지역이나 유치원 유형별 비교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표 VII-4-6 참조).

5. 시사점

본 장에서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특성, 유치원 이용 행태, 이용 비용, 만족도 및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의 위치가 거주지와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곳을 다니는 비율이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점차로 줄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행정적인 면에서 생활 영역과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기관의 입지가 점차 잘 맞게 정비되어 간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위에 보낼만한 유치원이 있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함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거주지 주변 서비스 이용으로 만족도가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 이용을 위해 타 행정구역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중요시하는 학부모의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읍·면지역 국·공립유치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둘째, 취업모의 유치원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취업모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 평균보다 이른 오전 8시 이전에 아동이 등원하는 비율이 높고 국·공립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며, 오후 5시까지 70%, 6시까지 90%, 7시 이후에 나머지 10%가 하원하였다. 그러나 취업모의 요구를 보면 유치원 이용 시간을 좀 더 늦게까지 늘려달라는 비율이 꾸준히 10%선을 유지하였다. 이들 취업모 10%는 유치원 이용시간이 적절치 않은 것이다. 유치원을 이용하면서도 유치원 이전과 이후 시간에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본적으로 취업모가 출퇴근 시 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 실태조사에 비해 유치원 이용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대부분 등·하원 차량에 교사가 동승하고 있으나 등원시에만 동승하는 경우가 최대 4%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교사 동승률이 100%가 되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차량이 있는 기관을 우선 고려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취업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차량 안전 이용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12년 누리과정으로 유치원 5세아가 모두 전액 지원 대상이 되어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2013년 이후부터는 전 연령에 해당될 것이므로 유치원 아동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순교육비외 추가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 준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II.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제8장에서는 조사대상 아동이 현재 다니는 주 이용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닌, 기타 반일제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주 이용기관으로 반일제 이상의 교육서비스, 즉 대체로 학원과 선교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그 이용 현황과 특성 및 요구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가. 이용률 및 아동 규모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 영어학원²⁸⁾, 주민센터, 선교원 등을 평일 반일제 이상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다니는 기관 한 곳을 질문한 결과, 반일제이상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5.4%인 112명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기관으로서의 기타 반일제이상 교육서비스는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의 3가지 서비스에 해당하며, 각각 비율은 영어학원 3.6%, 미술학원 등 1.3%, 선교원 0.5%로 조사되었다.

전체 영유아 3,343명 중에서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4.1%이다.

〈표 VIII-1-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율 및 규모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결측치	계(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		
이용아동 분포	61.4	33.1	3.6	1.3	0.5	-	100.0(2,449)
전체아동 비율	45.0	24.3	2.7	1.0	0.4	26.8	100.0(3,343)
실제아동 추계	1,188,984	642,051	71,339	26,422	10,569	708,106	100.0(2,642,186)

주: 0~5세 전국 아동수는 2010 인구총조사 결과에 근거함(통계청, 2010). 반올림오차(rounding error)에 의해 총계와 항목별 합에 차이가 있음.

28) 영어학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우나 공식적 용어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영어학원으로 표기함.

현재 0~5세 영유아 수에 이용률을 적용하여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를 다니는 영유아 수를 추정한 결과, 영어학원 71,339명, 미술학원 등 26,422명, 선교원 10,569명으로 전체 약 108,33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이용한 기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74.9%인데 최초 이용기관이 반일제 이상의 학원이라는 비율은 2.2%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 아동의 2.2%가 최초 이용기관으로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를 선택하였다.

〈표 VIII-1-2〉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이용경험 없음	계(수)
비율	66.0	6.4	2.2	0.3	25.1	100.0(3,343)

나. 이용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반일제 서비스 이용 아동 112명의 서비스 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어학원 66.7%, 미술학원 24.1%, 선교원 9.1%로 영어학원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학원을 포함한 학원들이며(이후 미술학원으로 표기), 선교원의 경우 이용률은 낮지만 유의한 서비스 형태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주 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영유아 112명의 해당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반일제 이상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연령 및 지역규모

아동 연령별로 이용 아동 분포를 보면, 영어학원은 취학직전 5세의 이용률이 높고, 미술학원은 4세에서, 선교원은 5세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대체로 유아의 이용률이 90% 이상 다수로 나타났고, 기타 반일제 서비스 이용률이 2세 이하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학원은 유아가 98.9%로 대부분 유아기에 이용하고, 미술학원과 선교원은 2~3세 이용률이 영어학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반일제 서비스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었다. 영어학원의 경우 대도시

와 중소도시에서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도시지역에서 많았다. 미술학원 이용은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많았고, 선교원은 사례수가 적지만 읍·면지역에 많이 분포하였다.

<표 VIII-1-3> 제 특성별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분포 및 규모

단위: %, 명

구분	분포				규모 추정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	계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	계
전체	66.7	24.1	9.1	100.0	-	-	-	-
영유아구분								
영아	1.1	9.1	8.3	3.8	785	2,404	877	4,117
유아	98.9	90.9	91.7	96.2	70,554	24,018	9,692	104,213
X ² (df)		5.2(2) [#]						
연령								
0세	-	-	-	-	-	-	-	-
1세	1.1	-	-	0.7	785	-	-	758
2세	-	9.1	8.3	3.0	-	2,404	877	3,250
3세	8.9	15.2	16.7	11.1	6,349	4,016	1,765	12,025
4세	13.3	51.5	16.7	23.0	9,488	13,607	1,765	24,916
5세	76.7	24.2	58.3	62.2	54,717	6,394	6,162	67,381
X ² (df)		36.0(8) ^{***}						
지역규모								
대도시	44.3	62.5	16.7	46.2	31,603	16,514	1,765	50,048
중소도시	48.9	34.4	33.3	43.9	34,884	9,089	3,519	47,557
읍·면	6.8	3.1	50.0	9.8	4,851	819	5,285	10,616
X ² (df)		27.6(4) ^{***}						
계	100.0	100.0	100.0	100.0				
(수)	(65)	(27)	(20)	(112)	71,339	26,422	10,569	108,330

$p < .1$, *** $p < .001$

현재 0~5세 영유아 수에 연령·지역규모별로 이용률을 적용하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수를 추정한 결과, 2세 이하 영아가 약 4천 여명, 3~5세 유아 약 10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약 5만명, 중소도시 약 4만 7천명, 읍·면지역 약 1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0~5세 연령별 이용률을 살펴보고, 이 이용률을 적용하여 지역내 연령별 반일제 서비스 이용 영유아 수를 추정하면 <표 VIII-1-4>와 같다.

〈표 VIII-1-4〉 지역내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분포				규모 추정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	계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	계
전체	66.7	24.1	9.1	100.0	71,339	26,422	10,569	108,330
대도시								
0세	-	-	-	-	-	-	-	-
1세	-	-	-	-	-	-	-	-
2세	-	5.3	-	1.6	-	876	-	806
3세	15.0	5.3	-	11.5	4,828	876	-	5,793
4세	2.5	68.4	-	23.0	805	11,301	-	11,586
5세	82.5	21.1	100.0	63.9	26,555	3,486	1,622	32,188
(\sum)	(65)	(27)	(20)	(112)	32,188	16,522	1,662	50,373
$X^2(df)$		36.41(6)**						
중소도시								
0세	-	-	-	-	-	-	-	-
1세	2.3	-	-	1.7	807	-	-	805
2세	-	10.0	-	1.7	-	899	-	805
3세	4.5	30.0	25.0	10.3	1,579	2,699	816	4,876
4세	20.5	40.0	50.0	25.9	7,191	3,598	1,633	12,261
5세	72.7	20.0	25.0	60.3	25,502	1,799	816	28,546
(\sum)	(65)	(27)	(20)	(112)	35,079	8,995	3,266	47,340
$X^2(df)$		17.9(8)**						
읍·면								
0세	-	-	-	-	-	-	-	-
1세	-	-	-	-	-	-	-	-
2세	-	-	16.7	7.7	-	-	819	817
3세	-	-	16.7	7.7	-	-	819	817
4세	33.3	-	-	15.4	1,633	-	-	1,635
5세	66.7	100.0	66.7	69.2	3,272	817	3,271	7,346
(\sum)	(65)	(27)	(20)	(112)	4,905	817	4,905	10,616
$X^2(df)$		4.8(6)						

** $p < .01$, *** $p < .001$

2) 모 취업 및 가구소득

기타 반일제이상 서비스 이용 아동 모의 취업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취업모보다 미취업모 아동이 많았다. 영어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모 가구 비중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았다.

기타 기관 서비스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을수

록 아동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구체적 양상에는 3개 반일제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 선교원의 경우 다양한 소득수준 구간에서 이용률이 고르게 분포했다면,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은 고소득일수록 아동 비율이 높았으며 영어학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아동 비율도 높아졌다.

〈표 VIII-1-5〉 모 취업특성 및 가구소득별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

구분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전체(수)	단위: %(명)
					X ² (df)
모 취업여부					
취업	41.6	22.6	15.4	34.6(37)	6.4(4)
휴직중	3.4	3.2	7.7	3.8(5)	
미취업	55.1	74.2	76.9	61.7(70)	
계	100.0	100.0	100.0	100.0(112)	
가구소득					
150~199만원	-	-	7.7	0.7(1)	43.4(16) ^{***}
200~249만원	-	3.1	15.4	2.2(3)	
250~299만원	1.1	6.3	7.7	3.0(3)	
300~349만원	3.3	15.6	7.7	6.7(9)	
350~399만원	4.4	9.4	-	5.2(7)	
400~499만원	16.7	9.4	15.4	14.8(19)	
500~599만원	8.9	21.9	15.4	12.6(17)	
600~699만원	21.1	18.8	7.7	19.3(14)	
700만원 이상	44.4	15.6	23.1	35.6(39)	
계	100.0	100.0	100.0	100.0(112)	

*** $p < .001$

주: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와 모 부재, 모름은 사례수 없음.

다.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등

1) 이용시기 및 기간

현재 반일제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시기는, 영어학원은 5세부터, 미술학원은 4세부터, 선교원은 3세부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의 이용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1~2년이 가장 많은 가운데 3~4년 동안 다닌 경우도 약 7%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체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수요가 많으며 영어학원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II-1-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기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시작시기				이용기간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계(수)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계(수)
12개월 이하	-	-	-	-	44.9	53.1	50.0	47.4(58)
13~24개월이하	2.9	-	-	1.8(3)	41.6	31.3	25.0	37.6(33)
25~36개월이하	14.5	25.0	41.7	20.4(27)	9.0	6.3	8.3	8.3(12)
37~48개월이하	29.0	53.1	25.0	35.4(39)	4.5	9.4	16.7	6.8(9)
49개월 이상	53.6	21.9	33.3	42.5(43)	-	-	-	-
계	100.0	100.0	100.0	100.0(112)	100.0	100.0	100.0	100.0(112)
X ² (df)		14.9(6)*				4.5(6)		

* $p < .05$

2) 이용 이유

현재 반일제 이상 교육서비스 기관에 보내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의 전인적 발달이 41.0%로 가장 많았으나 특기교육을 위해서도 37.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어학원의 경우 특기교육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면, 미술학원과 선교원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아 이용 기관에 따라 이용 이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VIII-1-7〉 기관 유형 및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아이의 전인적 발달	100.0	16.7	29.6	45.5	42.4	34.8	50.0	61.5	41.0
초등학교 준비	-	-	11.1	6.1	9.1	6.7	12.5	-	7.5
특기교육	-	33.3	22.2	36.4	43.9	50.6	15.6	-	37.3
부모 돌보기어려워	-	16.7	-	-	-	1.1	-	-	0.7
사회성 발달	-	16.7	29.6	6.1	4.5	5.6	18.8	15.4	9.7
놀이상대가 없어서	-	16.7	3.7	3.0	-	1.1	3.1	7.7	2.2
양육부담완화	-	-	-	3.0	-	-	-	7.7	0.7
기타	-	-	3.7	-	-	-	-	7.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X ² (df)			-				44.1(14)***		

*** $p < .001$

현재 반일제 이상 교육서비스 기관에 보내는 이유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자녀

연령이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높아질수록 사회성 발달의 이유는 줄고 특기교육과 전인적 발달의 이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 양육부담 완화 등의 보육 수요는 주 이용 동기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1-7 참조).

지역별로 읍·면보다는 도시에서 자녀 특기교육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에서 자녀의 전인적 발달의 수요가 많았다. 대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준비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적 수요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모 취업특성별로 취업모 가구일수록 자녀의 특기교육을 위해서라는 자녀 교육에의 수요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미취업모의 경우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표 VIII-1-8 참조).

<표 VIII-1-8>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38.7	39.7	57.1	31.1	40.0	46.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16.1	-	-	-	40.0	9.8
특기교육을 위하여	38.7	37.9	28.6	60.0	-	28.0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	1.7	-	2.2	-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6.5	15.5	7.1	6.7	-	12.2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3.4	-	-	-	2.4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	-	7.1	-	-	1.2
기타	-	1.7	-	-	20.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49)	(18)	(37)	(5)	(70)

3)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표 VIII-1-9>는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조사한 표이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6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보호와 주변의 평판으로 8.3%, 5.3% 순이었다. 아동 연령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프로그램 요인에 대한 응답이 많아 반일제 교육서비스 선택의 중요 요인은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기관 종류별로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가장 높지만, 영어학원은 프로그램 외에 안전한 보호를 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III-1-9〉 기관 유형 및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원장	-	-	3.7	6.1	-	2.3	3.0	-	2.3
교사	-	-	7.4	6.1	1.5	2.3	3.0	18.2	3.8
운영시간	-	20.0	-	-	-	1.1	-	-	0.8
비용	-	-	3.7	9.1	1.5	-	6.1	18.2	3.8
프로그램	100.0	40.0	63.0	63.6	60.0	60.9	69.7	36.4	61.4
건강·영양	-	-	-	-	3.1	-	-	18.2	1.5
기관 학급 규모	-	-	11.1	-	1.5	2.3	6.1	-	3.0
내부 분위기	-	-	3.7	3.0	-	1.1	6.1	-	1.5
안전한 보호	-	-	-	3.0	15.4	12.6	-	-	8.3
집과의 거리	-	-	3.7	3.0	4.6	5.7	-	-	3.8
기관설비	-	20.0	-	-	-	1.1	-	-	0.8
주변의 평판	-	20.0	3.7	-	7.7	5.7	6.1	-	5.3
특별프로그램	-	-	-	6.1	3.1	3.4	-	9.1	3.0
형제가 다녀서	-	-	-	-	1.5	1.1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지역규모별로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한 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을 주 고려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 외에 그 다음 고려 요인으로 대도시의 경우 주변의 평판을, 중소도시의 경우 안전한 보호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선택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비율은 미취업모가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프로그램 다음으로 안전한 보호와 주변의 평판을 중요시하였고, 미취업모는 기관 학급 규모나 안전한 보호, 집과의 거리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였다.

〈표 VIII-1-10〉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원장	3.4	1.7	-	2.2	16.7	2.4
교사	1.7	5.2	7.7	4.4	16.7	3.7
운영시간	-	1.7	-	2.2	-	-
비용	1.7	3.4	7.7	2.2	-	3.7
프로그램	66.1	55.2	61.5	51.1	66.7	63.4
건강·영양	3.4	-	-	-	-	2.4

(표 VIII-1-10 계속)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기관 학급 규모	1.7	3.4	7.7	-	-	4.9
내부 분위기	1.7	3.4	-	2.2	-	2.4
안전한 보호	-	19.0	-	15.6	-	4.9
집과의 거리	3.4	3.4	7.7	2.2	-	4.9
기관설비	1.7	-	-	2.2	-	-
주변의 평판	10.2	1.7	-	11.1	-	3.7
특별프로그램	5.1	-	7.7	4.4	-	2.4
형제가 다니고 있어서	-	-	-	-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49)	(18)	(37)	(5)	(70)

라.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지리적 특성

기타 보육·교육기관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은 거주지와 같은 동·읍·면에 위치한 경우와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에 위치한 경우가 38~39% 수준이었다. 거주지가 있는 시·군·구가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23.3%이다. 그러나 기관별 차이는 뚜렷하여 미술학원의 경우 가까운 동·읍·면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영어학원과 선교원의 경우 지리적으로 먼 경우가 좀 더 많았다.

〈표 VIII-1-1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소재지 및 이유

구분	소재지				단위: %(명)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전체	
기관과 거주지 관계					
기관과 같은 동·읍·면	27.0	75.0	33.3	39.1	
기관과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	46.1	12.5	41.7	37.6	
기관과 다른 시·군·구	27.0	12.5	25.0	23.3	
계(수)	100.0(89)	100.0(32)	100.0(12)	100.0(133)	
X ² (df)		23.2(4) ^{***}			
소재지 다른 이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3.3	25.0	-	29.0	
좋은 기관에 보내고싶어서	62.5	75.0	66.7	64.5	
집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	-	-	33.3	3.2	
기타	4.2	-	-	3.2	
계(수)	100.0(24)	100.0(4)	100.0(3)	100.0(31)	
X ² (df)				10.8(6) [#]	

p < .1, *** p < .001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보내는 이유로는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64.5%로 가장 많았으나,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30% 수준이었다.

<표 VIII-1-12>는 기타 보육·교육기관이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데, 상가지역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아파트지역 28.4%, 일반주택지역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은 상가와 일반 아파트 지역에 많고, 선교원은 공원 및 녹지와 주택지역에 많이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II-1-1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주변환경 특성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별			지역규모			전체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일반주택지역	19.1	21.9	30.8	37.7	5.2	8.3	20.9
일반아파트지역	30.3	25.0	23.1	26.2	37.9	-	28.4
영구임대아파트지역	2.2	-	7.7	3.3	-	8.3	2.2
상가지역	47.2	53.1	7.7	32.8	56.9	50.0	44.8
공원·녹지지역	1.1	-	30.8	-	-	33.3	3.7
계(수)	100.0(65)	100.0(27)	100.0(20)	100.0(45)	100.0(49)	100.0(18)	100.0(112)

2.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가. 평일 이용시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의 등·하원시각 및 이용시간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하원시각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서비스의 등원시각을 보면, 8시 반에서 9시 30분 사이에 약 42%가 등원하고 있었다. 아동 연령별로 차이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기관은 영어학원, 선교원, 미술학원 순으로 9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 비율이 많았다. 9시 이후 등원 비율은 미술학원, 선교원, 영어학원 순으로 많았다(표 VIII-2-1 참조).

〈표 VIII-2-1〉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7:30까지	-	-	-	2.9	-	1.1	-	-	0.8
7:31~8:00	-	-	-	-	-	-	-	-	-
8:01~8:30	-	33.3	7.7	14.7	15.4	16.9	9.1	7.7	14.3
8:31~9:00	-	16.7	46.2	44.1	43.1	47.2	33.3	38.5	42.1
9:01~9:30	100.0	33.3	42.3	35.3	40.0	33.7	51.5	46.2	39.8
9:31~10:00	-	16.7	3.8	2.9	1.5	1.1	6.1	7.7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의 경우 8시에서 8시 반에 일찍 등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19.7%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 없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등원하고, 일부 취업모 자녀만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등원하고 있었다(표 VIII-2-2 참조).

〈표 VIII-2-2〉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7:30까지	-	1.7	-	2.2	-	-
7:31~8:00	-	-	-	-	-	-
8:01~8:30	19.7	11.7	-	10.9	16.7	15.7
8:31~9:00	32.8	48.3	64.3	41.3	50.0	43.4
9:01~9:30	47.5	33.3	28.6	43.5	33.3	37.3
9:31~10:00	-	5.0	7.1	2.2	-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49)	(18)	(37)	(5)	(70)

다음은 하원시각에 관한 결과이다. 하원시각은 전체적으로 오후 2~3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후 3~4시가 34.3%이며, 4~5시 11.9%, 5~7시 7.5%로 7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 유아의 경우 5세의 오후 2~3시 하원이 가장 많은 점이 특징적이며, 오히려 4세의 경우 오후 4~5시 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 연령별로 영어학원과 미술학원 등의 유형별로 이용시간이 다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관별로는 선교원, 영어학원, 미술학원의 순으로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어학원의 경우 3시 이전이 54.6%로 절반 이상인데 비하여 미술학원 등은 12.1%로 큰 차이를 보인다(표 VIII-2-3 참조).

〈표 VIII-2-3〉 연령 및 기관 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14:00까지	-	-	3.8	5.9	3.1	2.3	3.0	25.0	3.7
14:01~15:00	50.0	57.1	38.5	26.5	50.8	52.3	9.1	58.3	42.5
15:01~16:00	-	-	38.5	35.3	36.9	33.0	48.5	8.3	34.3
16:01~17:00	-	28.6	7.7	23.5	6.2	5.7	33.3	8.3	11.9
17:01~17:30	50.0	-	11.5	5.9	3.1	5.7	6.1	-	6.0
18:01~19:00	-	14.3	-	2.9	-	1.1	-	-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0)	(34)	(64)	(27)	(20)	(111)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은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많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하원시각에 큰 차이 없이 대다수가 오후 2~3시와 3~4시에 하원하고 있었다. 취업모 자녀의 2~3시 하원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4시 이후 다양한 시간대에 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VIII-2-4 참조).

〈표 VIII-2-4〉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14:00까지	4.8	1.7	7.1	4.4	-	3.7
14:01~15:00	24.2	56.9	64.3	46.7	16.7	42.7
15:01~16:00	43.5	29.3	14.3	26.7	66.7	36.6
16:01~17:00	19.4	5.2	7.1	15.6	-	11.0
17:01~17:30	8.1	5.2	-	4.4	16.7	6.1
18:01~19:00	-	1.7	7.1	2.2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48)	(18)	(36)	(5)	(70)

2) 평일 이용시간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5~6시간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8시간 21.7%, 6~7시간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 25분, 표준편차 1시간 9분이다. 5시간 미만의 단시간 이용이 8.0%,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이용이 8.6%로 조사되었으며, 단시간과 장시간 이용의 경우 2세아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가 일부 장시간 보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기타 반일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만 3~5세는 6시간 30분 내외로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다. 영아는 사례수가 적으나 2세의 이용시간이 유아에 비해 이용 시간이 짧다.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여, 반일제 서비스의 이용시간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표 VIII-2-5〉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5시간까지	50.0	14.3	15.4	2.8	6.0	4.6	3.2	41.7	8.0
5~6시간	-	42.9	34.6	33.3	53.7	54.0	22.6	41.7	43.5
6~7시간	-	14.3	34.6	16.7	13.4	14.9	32.3	8.3	18.1
7~8시간	50.0	-	3.8	36.1	22.4	17.2	38.7	8.3	21.7
8~9시간	-	14.3	11.5	5.6	4.5	6.9	3.2	-	6.5
9~10시간	-	-	-	2.8	-	1.1	-	-	0.7
10시간 이상	-	14.3	-	2.8	-	1.1	-	-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X ² (df)						37.6(12) ^{***}			
평균	8시간	5시간 20분	6시간 37분	6시간 32분	6시간 23분	6시간 26분	6시간 45분	5시간 26분	6시간 25분
표준편차	-	49분	1시간 37분	1시간 21분	1시간 1분	1시간 9분	58분	58분	1시간 9분
F						6.38 ^{**}			
2009년 조사									6시간 16분
2004년 조사									6시간 20분

** $p < .01$, *** $p < .001$

기관 종류별로 영어학원의 경우 5~6시간 이용이 54%로 절반이며, 미술학원은 5~8시간 이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선교원은 5시간 미만과 5~6시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미술학원이 6시간 45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영어학원 6시간 26분, 선교원 5시간 26분으로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5~8시간 이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5~6시간

이용이 가장 많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5~6시간의 이용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시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평균 이용시간은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자녀 이용시간이 미취업모 가구의 이용시간보다 많으며 이용시간 편차도 상대적으로 컸다(표 VIII-2-6 참조).

〈표 VIII-2-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9.8	5.2	15.4	2.2	16.7	10.8
5~6시간	31.1	56.9	53.8	57.8	33.3	38.6
6~7시간	26.2	10.3	15.4	17.8	33.3	16.9
7~8시간	23.0	24.1	7.7	11.1	-	28.9
8~9시간	9.8	1.7	-	6.7	16.7	4.8
9~10시간	-	-	7.7	2.2	-	-
10시간 이상	-	1.7	-	2.2	-	-
계(수)	100.0(45)	100.0(49)	100.0(18)	100.0(37)	100.0(5)	100.0(70)
X ² (df)		26.75(12)**			1.59(12)	
평균	6시간 36분	6시간 18분	6시간 7분	6시간 34분	6시간 18분	6시간 20분
표준편차	1시간 8분	1시간 6분	1시간 15분	1시간 20분	1시간 19분	1시간 2분
F		1.7			0.5	

** $p < .01$

3) 평소 이용시간 초과 빈도

부모 사정으로 아이가 평소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질문한 결과, 초과 이용이 없다는 응답이 약 95%로 다수였다. 평소 시간 초과 이용은 월 1회 3.0%, 월 2~4회 2.3%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취업모가 월 1회 이하 평소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종류별로 영어학원의 경우 평소 이용시간 초과가 거의 없었고, 미술학원은 12.1%, 선교원은 16.6%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II-2-7 참조).

〈표 VIII-2-7〉 모 취업여부 및 기관 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 초과 이용
단위: %(명)

구분	모 취업여부			기관유형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월 1회 이하	2.2	-	4.9	1.1	9.1	8.3	3.0
월 2~4회	2.2	-	1.2	1.1	3.0	8.3	2.3
시간초과 없음	95.7	100.0	93.9	97.8	87.9	83.3	94.7
계(수)	100.0(37)	100.0(5)	100.0(70)	100.0(65)	100.0(27)	100.0(20)	100.0(112)

4) 이용시간 만족도

등·하원 시각 및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시작시간 85.1%, 끝나는 시간 69.4%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시작 및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 의견보다 많지만, 보다 긴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으며 주로 시작시간보다는 끝나는 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VIII-2-8 참조).

〈표 VIII-2-8〉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전체	85.1	5.2	9.7	69.4	28.4	2.2	100.0(112)
연령							
1세	50.0	-	50.0	-	100.0	-	100.0(2)
2세	100.0	-	-	57.1	28.6	14.3	100.0(7)
3세	88.5	-	11.5	42.3	57.7	-	100.0(28)
4세	88.2	2.9	8.8	70.6	29.4	-	100.0(41)
5세	83.1	9.2	7.7	81.5	15.4	3.1	100.0(34)
지역규모							
대도시	82.3	4.8	12.9	72.6	24.2	3.2	100.0(45)
중소도시	86.2	6.9	6.9	65.5	32.8	1.7	100.0(49)
읍·면	100.0	-	-	69.2	30.8	-	100.0(18)
모취업 여부							
취업	84.8	-	15.2	82.6	17.4	-	100.0(37)
휴직중	50.0	16.7	33.3	50.0	50.0	-	100.0(5)
미취업	87.8	7.3	4.9	63.4	32.9	3.7	100.0(70)
기관유형							
영어학원	84.3	5.6	10.1	77.5	22.5	-	100.0(65)
미술학원	87.5	6.3	6.3	53.1	37.5	9.4	100.0(27)
선교원	83.3	-	16.7	58.3	41.7	-	100.0(20)

일부 긴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만족 이유에서도 나타나 시작시간 불만족 이유에서는 너무 늦다는 의견이, 끝나는 시간 불만족 이유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시작시간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나, 끝나는 시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용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늦다는 의견이 9.7%로 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끝나는 시간이 이르다는 불만족 의견이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보다는 미취업모의 끝나는 시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높아, 직접 양육하는 모의 보다 긴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평균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어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미술학원과 선교원보다 높아, 기타 반일제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구 특성 및 이용 동기 등에 차이가 있어 이용시간 요구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희망 이용시간

1) 등·하원 시각

희망 등·하원 시각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전 8시 반에서 9시가 52.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오전 9시에서 9시 반, 8시에서 8시 반 순이었다. 8시 이전의 이른 시간 등원에 대해서는 6.8%가 희망 의견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3~5세 유아의 경우 오전 8시 반에서 9시 등원에 대한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일관되게 많았고, 특히 5세에게서 더 많았다. 한편 8시 이전 이른 시간 등원에 대한 의견은 3, 4세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별로 영어학원의 경우 8시 반~9시 등원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면, 미술학원과 선교원 이용 부모의 경우 8시 반~9시 등원 의견이 가장 많고 오전 8시에서 8시 반에 대한 의견은 적었다(표 VIII-2-9 참조).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대도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등원시간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8시 반~9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8시에서 8시 반에 대한 의견은 적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취업모의 경우 8시 이전 등 보다 이른 시작 시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표 VIII-2-10 참조).

<표 VIII-2-9>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시간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7:30까지	50.0	-	7.7	3.0	-	3.4	3.1	-	3.0
7:31~8:00	-	-	3.8	12.1	-	2.2	9.4	7.7	3.8
8:01~8:30	-	33.3	3.8	6.1	15.4	16.9	-	7.7	11.4
8:31~9:00	-	16.7	57.7	51.5	55.4	56.2	37.5	53.8	52.3
9:01~9:30	50.0	33.3	23.1	24.2	27.7	20.2	43.8	23.1	26.5
9:31~10:00	-	16.7	-	3.0	1.5	1.1	6.3	-	2.3
10:01이후	-	-	3.8	-	-	-	-	7.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표 VIII-2-10>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시간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7:30까지	3.2	3.4	-	6.5	20.0	-
7:31~8:00	6.3	1.7	-	4.3	20.0	2.4
8:01~8:30	19.0	5.2	7.7	13.0	-	12.0
8:31~9:00	41.3	62.1	53.8	45.7	60.0	54.2
9:01~9:30	30.2	22.4	30.8	28.3	-	26.5
9:31~10:00	-	5.2	-	2.2	-	3.6
10:01이후	-	-	7.7	-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49)	(18)	(37)	(5)	(70)

<표 VIII-2-11>은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희망 하원시간을 조사한 표이다. 오후 3~4시가 4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후 2~3시 27.9%, 4~5시 14.0%이었다. 아동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5세의 경우 오후 3~4시와 2~3시에 하원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 4세는 1시간 늦은 오후 4시 반에서 5시에 하원을 바라는 비율이 많았다.

이용 기관을 나누어 보면 영어학원 이용 부모의 경우 오후 2~3시, 3~4시 응답 많았다면, 미술학원 이용 부모는 오후 3~4시와 4시 반에서 5시 응답이 가장 많아 늦은 시간 하원을 바라고 있었다. 선교원 이용 부모는 2~3시 하원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시까지 응답도 적지 않아 보다 다양한 이용시간에의 선호를 보였다.

〈표 VIII-2-11〉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14:00까지	-	-	3.6	2.9	3.0	1.1	-	16.7	2.9
14:01~15:00	-	33.3	7.1	20.6	40.9	36.0	3.2	41.7	27.9
15:01~16:00	-	16.7	67.9	26.5	47.0	44.9	51.6	16.7	44.1
16:01~16:30	50.0	-	-	5.9	3.0	2.2	6.5	8.3	3.7
16:31~17:00	-	33.3	3.6	29.4	1.5	4.5	29.0	8.3	10.3
17:01~17:30	-	-	10.7	-	3.0	3.4	3.2	-	3.7
17:31~18:00	-	-	3.6	8.8	1.5	3.4	6.5	-	3.7
18:00~19:00	-	16.7	-	2.9	-	2.2	-	8.3	1.5
19:00~19:30	-	-	-	2.9	-	1.1	-	-	0.7
19:31이후	50.0	-	3.6	-	-	1.1	-	-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하원시간대를 응답하였으며 오후 3~4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오후 2~3시 하원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모의 희망 하원시간이 미취업모보다 다양하였다. 취업모 가구는 최다 빈도가 오후 2~3시, 미취업모는 3~4시이었으나, 취업모 가구는 미취업모에 비해 6시 이후 등 다양한 시간대에 하원하기를 희망하였다(표 VIII-2-12 참조).

〈표 VIII-2-12〉 지역 및 모 취업여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14:00까지	3.3	1.7	7.1	2.2	-	2.5
14:01~15:00	18.3	37.3	42.9	41.3	40.0	21.0
15:01~16:00	48.3	45.8	14.3	21.7	20.0	58.0
16:01~16:30	3.3	1.7	14.3	4.3	-	3.7
16:31~17:00	15.0	5.1	14.3	15.2	20.0	7.4
17:01~17:30	5.0	1.7	-	2.2	-	4.9
17:31~18:00	6.7	1.7	-	4.3	20.0	2.5
18:00~19:00	-	1.7	7.1	4.3	-	-
19:00~19:30	-	1.7	-	2.2	-	-
19:31이후	-	1.7	-	2.2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49)	(18)	(37)	(5)	(70)

2) 희망 이용시간

희망 등·하원시각으로 산출한 희망 이용시간 평균은 7시간 7분으로 실제 이용시간 6시간 25분보다 52분이 길다. 분포로는 6~7시간이 31.3%로 가장 많았고, 5~6시간이 27.6%, 6시간 이상이 20.1% 순이다. 연령별로 5세는 5~8시간 이용으로 응답이 모여 있었다면, 2~4세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희망 이용시간 분포를 보여 어린 아동에 대한 보육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미술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순으로 희망 이용시간이 길었다(표 VIII-2-13 참조).

지역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에 비해 다양한 시간분포와 긴 시간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한편, 취업모의 경우 5~6시간 이용 희망이 가장 많았으나 미취업모에 비해 희망 이용시간이 약 1시간 30분 더 길고, 장시간 이용 수요가 있었다(표 VIII-2-14 참조).

〈표 VIII-2-13〉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5시간까지	-	16.7	7.4	2.9	4.7	3.3	3.1	23.1	5.2
5~6시간	-	16.7	7.4	25.7	39.1	34.4	9.4	30.8	27.6
6~7시간	50.0	16.7	55.6	17.1	29.7	28.9	40.6	23.1	31.3
7~8시간	-	16.7	3.7	31.4	21.9	17.8	31.3	7.7	20.1
8~9시간	-	16.7	18.5	8.6	4.7	11.1	6.3	7.7	9.0
9~10시간	-	-	3.7	11.4	-	1.1	9.4	7.7	3.7
10시간 이상	50.0	16.7	3.7	2.9	-	3.3	-	-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평균	13시간	6시간 56분	7시간 41분	6시간 59분	6시간 56분	7시간 12분	7시간 14분	6시간 40분	7시간 7분
표준편차	-	1시간 21분	2시간 13분	1시간 33분	1시간 20분	1시간 50분	1시간 22분	1시간 20분	1시간 39분
F			4.4**				0.9		

** $p < .01$

〈표 VIII-2-14〉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3.3	6.8	7.1	-	-	7.3
5~6시간	21.7	32.2	42.9	44.4	40.0	18.3
6~7시간	35.0	30.5	21.4	17.8	-	41.5
7~8시간	21.7	20.3	14.3	15.6	-	24.4

(표 VIII-2-14 계속)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8~9시간	15.0	3.4	7.1	11.1	60.0	6.1
9~10시간	3.3	1.7	7.1	4.4	-	2.4
10시간 이상	-	5.1	-	6.6	-	-
계(수)	100.0(45)	100.0(49)	100.0(18)	100.0(37)	100.0(5)	100.0(70)
평균	7시간 13분	7시간 13분	6시간 33분	8시간 7분	7시간 36분	6시간 33분
표준편차	1시간 21분	1시간 59분	1시간 17분	2시간 6분	1시간 57분	1시간 3분
F		1.3			13.6***	

*** $p < .001$

다. 등·하원 방법 및 시간

기타 반일제 서비스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은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III-2-15 참조).

서비스 종류별로는 영어학원, 미술학원의 순으로 90% 이상 차량 이용률이 높고, 선교원도 50% 이상이다.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에 비해 기관 차량 이용이 다소 많고 읍면지역은 자가용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원 방법도 등원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VIII-2-1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등원방법			하원방법				계(수)
	기관 차량	자가용	보호자와 걸어서	기관 차량	자가용	가족과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전체	92.5	4.5	3.0	93.3	3.0	0.7	3.0	100.0(112)
기관유형								
영어학원	97.8	1.1	1.1	96.6	1.1	1.1	1.1	100.0(65)
미술학원	90.6	3.1	6.3	90.6	3.1	-	6.3	100.0(27)
선교원	58.3	25.0	16.7	76.9	7.7	-	15.4	100.0(20)
$X^2(df)$		25.4(4)***				10.2(6)		
지역규모								
대도시	91.9	3.2	4.8	93.5	-	1.6	4.8	100.0(45)
중소도시	94.8	1.7	3.4	94.8	1.7	-	3.4	100.0(49)
읍·면	84.6	15.4	-	84.6	15.4	-	-	100.0(18)
$X^2(df)$		-				13.4(6)*		

* $p < .05$, *** $p < .001$

교사의 차량 동승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하원시 모두 동승하는 경우가 95.3%로 높았고, 등원 또는 하원 시에만 동승하는 비율은 4.7%이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은 등원시에만 동승하는 비율이 2.3%, 6.9% 정도이다(표 VIII-2-16 참조).

등원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약 13분이며, 10분 이하가 45.9%이고 11~20분도 비슷한 수준인 47.4%이었다.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등원 소요시간이 증가하며, 기관은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의 순으로 평균 소요시간이 길게 나타났다(표 VIII-2-17 참조).

〈표 VIII-2-16〉 기관 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만 동승	하원시만 동승	계(수)
전체	95.3	3.1	1.6	100.0(102)
영어학원	97.7	2.3	-	100.0(61)
미술학원	93.1	6.9	-	100.0(25)
선교원	80.0	-	20.0	100.0(16)
X ² (df)		25.3(4) ^{***}		

*** p < .001

〈표 VIII-2-17〉 연령 및 기관유형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10분이하	100	57.1	57.7	60.6	30.8	34.8	56.3	90.9	45.9
11~20분	-	28.6	38.5	27.3	64.6	57.3	37.5	9.1	47.4
21~30분	-	14.3	3.8	12.1	4.6	7.9	6.3	-	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평균	8.3	13.0	12.2	13.1	14.1	14.3	12.1	9.8	13.4
(표준편차)	(3.8)	(8.3)	(6.4)	(8.2)	(4.8)	(6.0)	(5.6)	(8.6)	(6.3)

주: 30분 이상은 없음.

3.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내용

가. 기관장 강조 내용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기관장(원장)이 보육·교육에 있어 가장 강조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인성지도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균형있는 발달 22.1%, 자유놀이 중심의 활동 13.2%, 쓰기·읽기를 강조하는 인지교육 1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영아 부모는 균형있는 발달이 가장 많고, 5세아 부모는 인성지도가 34.8%이며 균형있는 발달과 쓰기·읽기를 강조하는 인지교육을 강조한다는 응답은 24.2%, 12.1%로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 인성지도를 강조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으나, 특히 선교원이 8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술학원 40.6%, 영어학원 31.1%의 순이다. 영어학원은 인성지도 외에 균형있는 발달과 인지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미술학원은 자유놀이 중심 활동과 균형있는 발달, 선교원을 균형있는 발달이 많았다. 응답다 수의 차이 영향도 있겠으나, 영어학원의 경우는 특별활동을 위시한 다양한 활동과 분야에 응답이 퍼져 있는 반면에 미술학원과 선교원은 동질적인 성향이 있음을 보였다.

〈표 VIII-3-1〉 연령 및 기관유형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원장 강조 내용: 1순위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균형있는 발달	50.0	57.1	15.4	14.3	24.2	21.1	21.9	16.7	22.1
인성지도	50.0	28.6	46.2	40.0	34.8	31.1	40.6	83.3	38.2
안전한 보호	-	-	3.8	8.6	9.1	11.1	-	-	7.4
자유 놀이 중심 활동	-	14.3	15.4	17.1	10.6	7.8	34.4	-	13.2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	-	-	-	1.5	1.1	-	-	0.7
쓰기·읽기 등 인지교육	-	-	3.8	14.3	12.1	14.4	3.1	-	10.3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	-	-	2.9	-	1.1	-	-	0.7
특별활동프로그램	-	-	15.4	2.9	7.6	12.2	-	-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7)	(28)	(41)	(34)	(65)	(27)	(20)	(112)

나. 부모서비스 및 참여

1) 부모 서비스 제공 비율

<표 VIII-3-2>는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가 영유아 대상 기관으로서의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표이다. 가정통신문과 보육·교육 계획표는 주로 매주 1회,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자녀발달평가 통지와 부모상담은 분기별 1회로, 부모

교육 자료 제공은 월 또는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는거나 모른다는 부정적 응답은 보육·교육 계획표 4.5%, 급간식 식단 5.2%, 가정통신문 4.5%, 자녀 발달평가 통지 11.2%, 부모상담 15.8%, 부모교육 자료 제공 28.2%로 나타났다. 부모 응답에 의하면, 주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육·교육 계획표와 식단, 가정통신문에 대해서도 제공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5% 내외로 조사되었다.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모 대상 서비스를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대로 부모상담과 부모교육 자료 제공의 부모 지원 측면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3-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구분	영어 학원	미술 학원	선교원	전체	구분	영어 학원	미술 학원	선교원	전체
보육교육계획					발달평가통지				
매일	1.1	6.5	-	2.3	매일	-	6.3	-	1.5
매주 1회	55.1	64.5	76.9	59.1	매주 1회	2.2	15.6	8.3	6.0
월 1회	32.6	29.0	23.1	31.1	월 1회	24.7	43.8	-	26.9
분기 1회	2.2	-	-	1.5	분기 1회	49.4	25.0	50.0	43.4
연 1~2회	2.2	-	-	1.5	연 1~2회	13.5	3.1	16.7	11.2
제공안함	-	-	-	-	제공안함	2.2	6.3	16.7	4.5
모름	6.7	-	-	4.5	모름	7.9	-	8.3	6.7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매일	1.1	9.4	-	3.0	매일	1.1	9.4	-	2.3
매주 1회	25.8	15.6	50.0	26.1	매주 1회	4.4	15.6	-	6.8
월 1회	66.3	75.0	41.7	65.7	월 1회	11.1	3.1	-	8.3
분기 1회	-	-	-	-	분기 1회	43.3	37.5	16.7	40.6
연 1~2회	-	-	-	-	연 1~2회	18.9	31.3	75.0	26.3
제공안함	-	-	8.3	0.7	제공 안함	4.4	3.1	8.3	4.5
모름	6.7	-	-	4.5	모름	16.7	-	-	11.3
가정통신문					부모교육자료				
매일	25.8	37.5	15.4	27.6	매일	2.2	6.1	-	3.0
매주 1회	52.8	50.0	69.2	54.5	매주 1회	5.6	9.1	-	8.9
월 1회	14.6	12.5	15.4	13.4	월 1회	21.3	48.5	-	26.7
분기 1회	-	-	-	-	분기 1회	27.0	9.1	-	22.2
연 1~2회	-	-	-	-	연 1~2회	12.4	3.0	-	11.1
제공안함	-	-	-	-	제공 안함	13.5	21.2	-	15.6
모름	6.7	-	-	4.5	모름	18.0	3.0	-	12.6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65)	(27)	(20)	(112)	(수)	(65)	(27)	(20)	(112)

기관유형별로는 주로 영어학원에서 안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보육교육 계획표와 식단, 가정통신문 등도 미술학원에서 미제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영유아기 육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서 미비한 측면을 드러낸다 하겠다.

2) 부모 서비스 효용성 및 만족도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6개의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정하게 한 결과이다.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80%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통신문과 자녀 발달평가 통지, 부모상담이 3.9~4.1점대로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다. 한편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부모상담, 가정통신문, 자녀발달 평가의 순으로 높았다. 보육·교육 계획표와 급간식 식단은 평균 4점 미만이었다(표 VIII-3-3 참조).

〈표 VIII-3-3〉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도움된다는 비율						5점 평균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전체	84.6	84.1	89.8	86.6	85.0	83.3	3.96	3.99	4.13	4.11	4.16	4.03
영어학원	88.1	89.2	92.8	88.8	88.7	87.1	3.99	4.06	4.19	4.11	4.30	4.04
미술학원	75.8	71.9	81.3	76.7	74.2	70.8	3.83	3.83	4.01	4.04	3.89	3.95
선교원	84.6	81.8	91.7	100.0	90.9	90.0	4.04	3.91	4.07	4.26	4.06	4.15
(수)	(111)	(110)	(111)	(96)	(105)	(91)	(111)	(110)	(111)	(96)	(105)	(91)
F							1.1	1.9	1.1	0.5	3.4*	0.4

* $p < .05$

〈표 VIII-3-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계획 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교 육자료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전체	74.2	71.4	83.5	72.9	77.9	76.3	3.87	3.80	4.00	3.86	3.95	3.89
영어학원	75.9	75.6	83.1	68.8	84.3	83.9	3.83	3.83	4.03	3.77	4.00	3.91
미술학원	65.6	57.6	81.3	75.9	61.3	52.0	3.86	3.62	3.87	3.95	3.77	3.70
선교원	84.6	81.8	91.7	100.0	83.3	90.0	4.20	4.12	4.19	4.34	4.18	4.28
(수)	(111)	(110)	(111)	(96)	(105)	(91)	(111)	(110)	(111)	(96)	(105)	(91)
F							1.4	2.2	1.3	3.3*	2.0	2.9#

$p < .1$, * $p < .05$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6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70~80%대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가정통신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83.5%이고 5점 척조로는 4.0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상담과 부모교육 자료에 대해 만족하였다(표 VIII-3-4 참조).

다. 특별활동

1) 특별활동 이용

가) 종류 및 개수

<표 VIII-3-5>는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별활동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4.9%로, 반일제 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영유아는 약 1/3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수는 평균 2.95개이다. 기관유형별로는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영어학원이 7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선교원 58.3%, 미술학원 51.6% 순으로 많았다. 특별활동 개수는 아동 연령이나 지역,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영유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은 만 5세가, 중소도시에서, 영어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III-3-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수

구분	단위: %(명), 개								평균(표준편차)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계(수)	
전체	64.9	7.5	6.0	7.5	10.4	1.5	2.2	100.0(112)	2.95(1.42)
연령									
1세	50.0	-	-	-	50.0	-	-	100.0(2)	4.00(0.00)
2세	71.4	14.3	-	-	-	14.3	-	100.0(7)	3.24(2.82)
3세	72.0	4.0	12.0	4.0	4.0	-	4.0	100.0(28)	2.79(1.47)
4세	51.4	8.6	14.3	14.3	8.6	2.9	-	100.0(41)	2.56(1.18)
5세	69.2	7.7	-	6.2	13.8	-	3.1	100.0(34)	3.27(1.53)
지역규모									
대도시	68.9	6.6	8.2	8.2	3.3	1.6	3.3	100.0(45)	2.79(1.55)
중소도시	65.5	5.2	3.4	5.2	17.2	1.7	1.7	100.0(49)	3.31(1.32)
읍·면	53.8	15.4	7.7	15.4	7.7	-	-	100.0(18)	2.27(1.18)
기관유형									
영어학원	70.8	5.6	2.2	4.5	13.5	1.1	2.2	100.0(65)	3.36(1.46)
미술학원	51.6	16.1	12.9	12.9	6.5	-	-	100.0(27)	2.20(1.05)
선교원	58.3	-	16.7	8.3	-	8.3	8.3	100.0(20)	3.20(1.58)

가장 많이 하는 특별활동 종류는 체육으로 63.8%이며, 그 다음 한글 45.7%이다. 5세의 경우 체육과 한글, 교구, 음악 특별활동이 상대적으로 많고, 3세는 영어, 체육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지역에서는 미술과 체육, 영어를 많이 하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영어학원에서는 체육과 한글, 교구 특별활동을 많이 하고, 미술학원에서는 체육과 미술 특별활동을 덜 하고 영어를 많이 하며, 선교원에서는 체육과 영어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관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활동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III-3-6 참조).

〈표 VIII-3-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전체	35.4	38.3	63.8	15.2	13.0	45.7	30.4	2.1	39.6	2.1
연령										
1세	100.0	-	100.0	-	-	100.0	-	-	100.0	-
2세	50.0	50.0	50.0	-	-	50.0	100.0	-	-	-
3세	37.5	12.5	62.5	12.5	12.5	25.0	14.3	-	62.5	12.5
4세	52.9	25.0	50.0	18.8	26.7	42.9	5.9	6.3	31.3	-
5세	15.0	60.0	75.0	15.0	5.0	52.4	55.0		38.1	
지역규모										
대도시	42.1	25.0	63.2	25.0	10.5	29.4	10.5	-	47.4	-
중소도시	28.6	52.4	65.0	5.0	15.0	65.0	57.1	4.8	30.0	4.8
읍·면	33.3	42.9	66.7	16.7	-	16.7	16.7	-	33.3	-
기관유형										
영어학원	40.0	40.0	76.0	15.4	3.8	57.7	46.2	3.8	30.8	-
미술학원	20.0	37.5	43.8	12.5	25.0	30.8	6.3	-	46.7	6.3
선교원	40.0	40.0	80.0	20.0	25.0	25.0	25.0	-	60.0	
(수)	(18)	(14)	(23)	(10)	(7)	(15)	(10)	(1)	(21)	(1)

나) 선택여부

〈표 VIII-3-7〉은 이러한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이 다양한 분포를 보여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영어와 체육은 연령이 낮을수록 의무 이용 비율이 높았다. 적은 사례수에서도 2~3세는 중소도시와 읍·면에서, 선교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III-3-7〉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지역규모			(수)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미술	-	100.0	33.3	11.1	33.3	20.0	-	50.0	11.1	33.3	50.0	(18)
음악	-	100.0	100.0	50.0	16.7	10.0	40.0	100.0	60.0	18.2	33.3	(14)
체육	-	100.0	60.0	37.5	6.7	15.8	28.6	66.7	23.1	14.3	75.0	(23)
과학	-	-	50.0	33.3	33.3	25.0	-	100.0	20.0	100.0	100.0	(10)
수학	-	-	100.0	-	100.0	-	25.0	100.0	-	33.3	-	(7)
한글	-	100.0	-	14.3	10.0	13.3	25.0	-	20.0	14.3	-	(15)
교구	-	50.0	50.0	-	-	8.3	-	100.0	-	16.7	-	(10)
한자	-	-	-	-	-	-	-	-	-	-	-	(1)
영어	-	75.0	40.0	28.6	25.0	42.9	100.0	33.3	33.3	100.0	-	(21)

다) 특별활동 시간

반일제 교육서비스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시간은 오후에만 하는 경우가 51.1%로 약 40%가 오전 시간에도 편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 고 응답한 부모도 8.5% 정도로 많았다(표 VIII-3-8 참조).

〈표 VIII-3-8〉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운영시간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오전오후	-	-	25.0	12.5	60.0	26.3	47.6	16.7	42.3	31.3	-	34.0
오전만	-	-	12.5	12.5	-	-	9.5	16.7	3.8	6.3	25.0	6.4
오후에만	100.0	50.0	62.5	56.3	40.0	63.2	38.1	50.0	46.2	50.0	75.0	51.1
모름	-	50.0	-	18.8	-	10.5	4.8	16.7	7.7	12.5	-	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3)	(12)	(17)	(12)	(14)	(23)	(8)	(22)	(13)	(10)	(45)

반일제 교육서비스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1주일 평균 이용횟수는 4.2회로 거의 매일 한다고 할 수 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전체 평균 1주일에 2, 3회로 가장 많다. 기관 종류별로 영어학원에서는 수학과 미술, 영어를 많이 하고, 미술학원에서는 음악과 영어, 교구를, 선교원에서는 영어와 한글을 1주일에 2일 이상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II-3-9 참조).

〈표 VIII-3-9〉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기관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F	
전체	4.2	2.4	1.0	14.0	4.2	4.1	5.1	0.3	(45)
미술	1.8	1.4	1.0	6.0	2.1	1.6	1.1	0.4	(18)
음악	1.6	1.1	1.0	5.0	1.0	2.8	1.0	13.2**	(14)
체육	1.1	0.6	1.0	5.0	1.2	1.0	1.1	0.2	(23)
과학	1.0	0.0	1.0	1.0	1.0	1.0	1.0	-	(10)
수학	1.9	1.1	1.0	3.0	3.0	1.9	1.0	0.4	(7)
한글	1.4	1.0	1.0	5.0	1.2	1.9	2.9	2.3	(15)
교구	1.1	0.4	1.0	2.0	1.1	2.0	1.0	6.0*	(10)
한자	-	-	1.0	1.0	-	-	-	-	(1)
영어	2.3	1.8	1.0	5.0	2.1	2.2	3.4	0.4	(21)

* $p < .05$, ** $p < .01$

2) 특별활동 비용

가) 비용 별도 지불여부

반일제 교육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기타 교육서비스 기관에서 기본과정과 특별활동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특별활동 비용이 일괄적으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II-3-10〉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기관유형			지역규모			(수)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미술	100.0	100.0	100.0	88.9	100.0	90.9	100.0	100.0	88.9	100.0	100.0	(17)
음악	-	100.0	100.0	75.0	100.0	90.9	100.0	100.0	80.0	100.0	100.0	(13)
체육	100.0	100.0	100.0	75.0	100.0	90.0	100.0	100.0	92.3	100.0	75.0	(21)
과학	-	-	100.0	66.7	100.0	75.0	100.0	100.0	80.0	100.0	100.0	(9)
수학	-	-	100.0	75.0	100.0	-	100.0	100.0	66.7	100.0	-	(6)
한글	100.0	100.0	100.0	85.7	100.0	93.3	100.0	100.0	80.0	100.0	100.0	(13)
교구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
한자	-	-	-	100.0	-	100.0	-	-	-	100.0	-	(1)
영어	100.0	-	60.0	80.0	100.0	87.5	71.4	100.0	66.7	100.0	100.0	(18)

나) 특별활동 비용

특별활동 비용은 월 평균 2만원~6만원대로 다양한데, 기관 종류별로 편차가 크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과목이 있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미술과 영어가 57,000원 이상으로 가장 비용이 높고, 수학과 과학이 2만원대로 낮은 수준이었다. 영어학원에서의 특별활동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미술학원, 선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의 경우 미술과 영어가 68,900원, 56,1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학원에서는 영어가 평균 73,000원, 음악 65,200원으로 높았다. 선교원은 과목별 특별활동비가 1만~2만원대이었다.

〈표 VIII-3-1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F	
미술	57.66	44.10	5	180	68.90	48.10	22.85	1.1	(17)
음악	42.12	24.45	10	100	34.56	65.16	15.93	7.3**	(13)
체육	35.27	10.89	5	50	36.71	38.06	23.27	3.0#	(21)
과학	29.44	15.73	5	42	30.26	35.97	15.83	0.5	(9)
수학	27.22	10.96	10	39	15.00	32.19	15.86	1.9	(7)
한글	32.69	8.44	10	50	33.17	32.19	28.61	0.2	(14)
교구	39.97	9.31	10	45	42.95	35.56	19.17	10.7**	(10)
한자	-	-	35	35	35.00	-	-	-	(1)
영어	57.58	56.08	5	180	56.16	72.97	17.26	0.9	(19)
외국어	-	-	-	-	-	-	-	-	-
기타	-	-	30	30	-	30.00	-	-	(1)

$p < .1$, ** $p < .01$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미술과 영어의 경우, 우선 미술 월평균 비용이 3세 83,200원, 5세 65,200원으로 높았으며, 영어 비용은 5세 93,4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대도시의 과목별 특별활동 비용이 높았고,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높았다(표 VIII-3-12 참조).

특별활동에 드는 월평균 총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57,6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편차가 56,000원으로 큰 편이다.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응답이 4.2%로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과 구분이 모호한 특성에 따른 것이다. 월평균 5~10만원대가 가장 많지만 15만원 이상도 41.7%로 높게 나타나 기타 반일제 서비스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특성별로는 5세가, 대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미술학원의 특별활동 평균 비용이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과목

인 영어 특별활동의 비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비용 분포를 보였으며 5만원 이상이 22%로 나타났다(표 VIII-3-13 참조).

〈표 VIII-3-12〉 연령 및 지역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57.7	42.1	35.3	29.4	27.2	32.7	40.0	35.0	57.6	-	30.0
연령											
1세	30.0	-	30.0	-	-	30.0	-	-	30.0	-	-
2세	30.9	30.9	29.0	10.0	-	40.0	40.0	-	-	-	-
3세	83.2	28.9	27.7	20.5	15.9	29.9	19.0	-	30.8	-	30.0
4세	51.5	28.5	34.4	35.2	31.0	34.1	27.6	35.0	32.9	-	-
5세	65.2	48.2	38.7	31.4	25.0	32.0	43.1	-	93.4	-	-
F	0.37	0.74	1.11	0.26	0.78	0.20	7.08**	-	1.94	-	-
지역규모											
대도시	85.4	65.8	41.0	37.8	33.4	36.8	40.0	-	70.5	-	-
중소도시	34.0	33.8	33.6	14.9	22.7	33.0	40.5	35.0	53.1	-	30.0
읍·면	17.7	36.7	20.2	13.0	-	13.6	33.0	-	17.1	-	-
F	4.71*	3.48#	6.39**	2.87	1.45	5.48*	0.25	-	0.73	-	-
(수)	(17)	(13)	(21)	(9)	(7)	(14)	(10)	(1)	(190)	-	(1)

$p < .1$, * $p < .05$, ** $p < .01$

〈표 VIII-3-13〉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	-	-	2.1	14.6	29.2	8.3	31.3	10.4	100.0(45)	57.6	(56.1)
연령												
1세	-	-	-	-	-	-	100.0	-	-	100.0(1)	30.0	(-)
2세	-	-	-	-	50.0	-	-	-	50.0	100.0(3)	-	(-)
3세	-	-	-	-	12.5	50.0	12.5	25.0	-	100.0(12)	30.8	(19.1)
4세	11.8	-	-	-	23.5	35.3	5.9	23.5	-	100.0(17)	32.9	(14.6)
5세	-	-	-	2.0	5.0	20.0	5.0	45.0	20.0	100.0(12)	93.4	(72.7)
지역규모												
대도시	5.3	-	-	-	15.8	31.6	5.3	21.1	21.1	100.0(14)	70.5	(66.1)
중소도시	-	-	-	-	10.0	25.0	10.0	50.0	5.0	100.0(23)	53.1	(47.3)
읍·면	16.7	-	-	16.7	33.3	33.3	-	-	-	100.0(8)	17.1	(20.8)
기관유형												
영어학원	7.7	-	-	3.8	7.7	11.5	11.5	46.2	11.5	100.0(22)	56.2	(43.5)
미술학원	-	-	-	-	25.0	50.0	-	12.5	12.5	100.0(13)	73.0	(71.5)
선교원	-	-	-	-	40.0	60.0	-	-	-	100.0(10)	17.3	(10.4)

3) 특별활동 만족도 및 중요도

특별활동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4점 전후로, 교구와 수학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과학의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한편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은 영어와 체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와 교구 순이었다.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는 교구와 체육을, 미술학원은 한글, 선교원은 미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미술학원은 한글, 영어한글은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VIII-3-1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전체	F	(수)	단위: 점(명), %	
							어머니	중요 고려 비율
미술	3.88	4.00	4.42	3.98	2.0	(18)	10.6	
음악	3.94	3.78	4.00	3.90	0.6	(14)	4.3	
체육	4.04	4.00	4.25	4.06	0.6	(23)	25.5	
과학	3.69	4.00	3.67	3.78	0.3	(10)	-	
수학	4.00	4.46	3.45	4.21	0.7	(7)	-	
한글	3.97	4.46	3.66	4.05	4.4*	(15)	12.8	
교구	4.70	3.44	3.82	4.51	4.5*	(10)	19.1	
영어	3.88	4.00	3.91	3.93	0.2	(21)	27.7	
계	-	-	-	-	-	(118)	100.0(45)	

* $p < .05$

4. 기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가. 이용 비용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788,300원으로 이중 순수한 보육·교육비 평균은 640,800원이었다. 이는 가구소득 대비 13.4%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이 906,8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학원 약 626,700원, 선교원 약 348,300원으로, 기관 종류별로 월 비용의 차이가 크다. 순 교육·보육 비용과 추가 비용 양자에서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순으로 높았다.

〈표 VIII-4-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종류별 월평균 비용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단위: 천원(명), %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788.3	640.8	147.5	(112)	13.4
영어학원	906.8	747.0	159.7	(65)	14.0
미술학원	626.7	486.7	140.0	(27)	13.3
선교원	348.3	270.7	77.6	(20)	9.3
F	17.9 ^{***}	21.1 ^{***}	1.3		3.6 [*]

* $p < .05$, *** $p < .001$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대체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의 경우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순 보육교육비와 추가비용이 함께 증가했다면, 선교원은 순 보육비가 20만원대로 아동의 연령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보였다.

〈표 VIII-4-2〉 연령 및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종류별 월평균 학원 비용

구분	연령					전체	F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총비용	443.7	658.3	601.0	707.3	926.1	788.3	4.8 ^{**}
순보육비	304.2	514.5	512.9	587.9	739.9	640.8	3.7 ^{**}
(수)	(2)	(7)	(28)	(1)	(34)	(112)	
영어학원							
총비용	800.0	692.5	685.9	870.3	980.0	871.0	1.7
순보육비	500.0	515.0	571.2	765.7	814.7	732.9	1.8
(수)	(1)	(4)	(11)	(23)	(26)	(65)	
미술학원							
총비용	-	495.7	558.8	571.8	701.2	587.7	0.5
순보육비	-	381.7	496.7	450.3	518.7	473.3	0.3
(수)	-	(3)	(9)	(9)	(6)	(27)	
선교원							
총비용	254.0		341.0	341.0	346.5	337.2	0.1
순보육비	200.0		259.6	266.3	275.0	261.2	0.1
(수)	(1)	-	(8)	(9)	(2)	(20)	

** $p < .01$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월 비용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의 비용이 더 많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비용이 증가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편차가 큰 편이다(표 VIII-4-3 참조).

<표 VIII-4-3> 제 특성별 월평균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788.3	640.8	147.5	(112)	13.4
지역규모					
대도시	863.2	708.7	154.5	(37)	13.5
중소도시	761.4	608.1	153.2	(5)	13.3
읍·면	553.8	465.2	88.6	(70)	13.5
F	3.7*	3.7*	0.9		0.03
모취업 여부					
취업	704.8	603.4	101.5	(45)	10.5
휴직중	735.5	582.7	152.9	(49)	10.4
미취업	837.9	665.2	172.7	(18)	15.2
F	1.7	0.6	2.7 [#]		12.1 ^{***}
가구소득					
150~199만원	318.0	150.0	168.0	(1)	21.0
200~249만원	290.1	227.8	62.3	(3)	14.7
250~299만원	346.1	268.6	77.5	(3)	13.6
300~349만원	402.5	314.1	88.4	(9)	14.6
350~399만원	600.9	513.6	87.3	(7)	16.9
400~499만원	636.0	550.6	85.4	(19)	15.1
500~599만원	713.0	609.9	103.1	(17)	13.8
600~699만원	1074.0	718.3	355.7	(14)	16.9
700만원 이상	894.1	789.5	104.7	(38)	9.6
F	6.9 ^{***}	5.4 ^{***}	9.7 ^{***}		5.8 ^{***}

$p < .1$, * $p < .05$, *** $p < .001$

<표 VIII-4-4>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평균

단위: 천원(명)

구분	특기교육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수)
전체	34.2	25.0	32.0	5.0	14.8	10.4	(112)
지역규모							
대도시	38.3	28.7	53.6	2.6	22.2	9.1	(45)
중소도시	41.1	20.6	25.3	3.5	8.4	54.4	(49)
읍·면	19.6	9.0	29.4	-	30.7	-	(18)
F	0.5	2.6 [#]	7.6 ^{**}	0.3	12.1 ^{***}	2.0	
모취업 여부							
취업	21.5	22.4	33.0	7.5	16.3	0.7	(37)
휴직중	15.4	44.4	62.8	-	30.2	-	(5)
미취업	48.1	22.3	40.5	0.3	16.5	44.9	(70)
F	2.5 [#]	1.3	1.3	3.5 [*]	1.2	1.7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VIII-4-4>는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기본 보육·교육비 외 추가비용을 조사한 결과로, 특기교육비는 약 34,200원이며, 급간식비 약 32,000원, 교재비 25,000원이었다. 중일반비와 기타 명목으로도 평균 5,000원, 10,4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 학원의 경우 급간식비와 교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소도시의 경우 특기교육비와 기타 항목의 비용이 높았다. 읍·면지역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비용 수준을 보였으나, 현장학습·행사비는 타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특기교육비와 급간식비에서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는 중일반비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 추가비용이 증가하는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표 VIII-4-4 참조).

나. 비용 부담 정도

반일제 교육서비스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1.6%로 많고, 부담되지 않는다 2.2%로 가장 적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특히 4세에서 비용 부담이 크며,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 취업 부모의 비용 부담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표 VIII-4-5 참조).

<표 VIII-4-5>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담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함	부담되지 않음	모름	단위: %(명)
						계(수)
전체	20.9	50.7	26.1	2.2	0.1	100.0(112)
연령						
1세	50.0	50.0	-	-	-	100.0(2)
2세	16.7	66.7	16.7	-	-	100.0(7)
3세	37.0	40.7	18.5	3.7	3.7	100.0(28)
4세	20.6	61.8	17.6	-	-	100.0(41)
5세이상	13.8	47.7	35.4	3.1	3.1	100.0(34)
지역규모						
대도시	24.2	54.8	17.7	3.2	3.2	100.0(45)
중소도시	17.2	46.6	34.5	1.7	1.7	100.0(49)
읍·면	23.1	53.8	23.1	-	-	100.0(18)
모취업 여부						
취업	17.8	53.3	24.4	4.4	4.4	100.0(37)
휴직중	20.0	80.0	-	-	-	100.0(5)
미취업	22.9	48.2	27.7	1.2	1.2	100.0(70)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따른 추가부담 의사를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 있다 약 27%로 나타났으며, 사례수는 적으나 그 비용은 평균 23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녀 나이가 증가할수록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비용수준이 증가했으며, 대도시지역에서 추가 부담 의사와 비용이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관에 따라서는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 의사 비율이 19.1%로 가장 적었으나, 구체적 부담 액수는 292,000원으로 가장 컸다.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 의사가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으나, 부담 액수는 23만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VIII-4-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6.7	73.3	100.0(112)	230.34	148.66	50	500	(33)
연령								
1세	-	100.0	100.0(2)	-	-	-	-	
2세	42.9	57.1	100.0(7)	200.00	-	200	200	(3)
3세	30.8	69.2	100.0(28)	210.79	102.64	50	500	(9)
4세	38.2	61.8	100.0(41)	176.72	132.27	50	500	(14)
5세	18.2	81.8	100.0(34)	326.92	186.89	50	500	(7)
X ² (df)/F	-			2.1				
지역규모								
대도시	38.7	61.3	100.0(45)	241.21	162.26	50	500	(16)
중소도시	17.2	82.8	100.0(49)	219.32	120.65	50	500	(15)
읍·면	7.7	92.3	100.0(18)	97.80		50	200	(2)
X ² (df)/F	9.7(2)**			0.4				
모취업 여부								
취업	20.0	80.0	100.0(37)	207.47	121.01	100	500	(11)
휴직중	83.3	16.7	100.0(5)	330.30	187.47	100	500	(4)
미취업	25.6	74.4	100.0(70)	217.47	149.64	50	500	(18)
X ² (df)/F	-			1.2				
기관유형								
영어학원	19.1	80.9	100.0(65)	291.70	192.55	50	500	(17)
미술학원	43.8	56.3	100.0(27)	165.50	60.08	50	200	(10)
선교원	33.3	66.7	100.0(20)	237.08	106.79	50	300	(6)
X ² (df)/F	7.7(2)*			2.9#				

p < .1, * p < .05, ** p < .01

5.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

가. 아동과 부모에 미치는 영향

1) 기타반일제의 부모 도움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과 언어, 표현능력의 발달에 대한 응답이 20% 이상으로 높았으나, 예체능 능력과 정서발달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어학원의 경우 언어와 표현능력의 발달에, 미술학원은 사회성과 표현능력에, 선교원은 사회성과 언어발달에 긍정응답을 많이 하였다(표 VIII-5-1 참조).

〈표 VIII-5-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자녀의 발달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표현능력 발달	예체능 능력 발달	계(수)
전체	6.1	28.8	13.6	26.5	23.5	1.5	100.0(112)
영어학원	2.2	23.6	13.5	34.8	24.7	1.1	100.0(65)
미술학원	12.9	41.9	12.9	3.2	25.8	3.2	100.0(27)
선교원	16.7	33.3	16.7	25.0	8.3	-	100.0(20)

2) 기타 반일제의 부모 도움

<표 VIII-5-2>는 자녀의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이용으로 8개 사항에 도움 받은 일이 있었다는 비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양육부담의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능률의 향상 80.5%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여가·취미 활동과 육아기술과 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도 높게 응답되어 기타 반일제 서비스 기관의 부모에 미치는 긍정 영향이 나타났다. 한편, 추가출산 의향과 학업 및 훈련, 취업 및 구직에의 직접적인 도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II-5-3>은 이러한 도움 정도의 제 특성별 차이를 5점 평균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취업·구직 및 육아기술·지식에의 도움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특히 만1세 이하일 때 가장 큰 것으로, 양육부담 완화는 미술학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

가출산에의 도움은 자녀가 영아가, 읍·면지역에서, 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선교원 이용자에게서 높게 조사되었다. 대체로 영아와 읍·면지역, 취업모 가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II-5-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기관별 도움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 능력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도움 비율								
전체	23.9	80.5	69.4	66.2	15.0	90.2	13.5	39.8
영어학원	21.3	75.3	74.2	62.9	19.1	92.1	6.7	34.8
미술학원	27.3	90.6	60.6	78.1	6.3	81.3	28.1	46.9
선교원	33.3	91.7	58.3	58.3	8.3	100.0	25.0	58.3
5점 평균								
전체	4.18	3.98	4.15	3.83	4.15	3.96	3.79	3.70
영어학원	4.09	3.96	4.19	4.01	4.28	3.93	3.79	3.74
미술학원	4.09	3.95	4.00	3.38	3.00	4.12	3.69	3.56
선교원	4.74	4.20	4.12	4.06	4.35	3.82	4.11	3.82
F	2.6	1.0	1.1	17.3	6.8	1.2	0.4	0.8
(수)	(31)	(93)	(70)	(73)	(16)	(93)	(19)	(58)

〈표 VIII-5-3〉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도움정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전체	4.18	3.98	4.15	3.83	4.15	3.96	3.79	3.70
연령								
1세	4.65	4.65	-	4.00	-	4.00	-	4.00
2세	4.10	4.10	4.12	3.93	4.00	3.74	4.63	3.56
3세	3.94	4.14	4.10	3.79	3.62	4.29	3.69	3.61
4세	4.48	4.01	4.22	3.79	4.66	3.96	3.86	3.81
5세	4.10	3.85	4.13	3.85	4.24	3.88	3.00	3.68
지역규모								
대도시	4.30	4.05	4.14	3.66	4.26	3.97	3.45	3.70
중소도시	4.02	3.85	4.17	4.01	4.00	3.96	3.97	3.62
읍·면	4.28	4.12	4.05	3.96	4.18	3.91	4.09	4.00
모취업 여부								
취업	4.07	3.96	4.13	3.81	4.05	3.88	4.17	3.66
휴직중	5.00	4.17	4.53	4.53	5.00	4.17	-	4.53
미취업	4.26	3.98	4.14	3.83	4.21	4.00	3.73	3.69
부채 등	4.17	3.98	4.15	3.83	4.15	3.96	3.79	3.70

나. 전반적 만족도

반일제 교육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6.1%로, 기관 종류별로 선교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학원, 영어학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내부분위기에 대한 만족 응답률도 높았다. 반면에 비용과 주변환경, 부모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3개 기관 공통적으로 '교육내용'과 '교사'에 대한 만족 응답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만족 응답이 가장 적은 항목은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은 '비용'이었고, 선교원은 '시설설비'이었다.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기관 종류별 만족도는 미술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반일제 교육서비스의 교사와 내부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개 기관 공통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높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86점으로 가장 낮았고 특히 비용 만족도는 선교원이 가장 높았다

〈표 VIII-5-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및 5점 척도

단위: %, 점(명)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전체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전체	F
원장	73.0	87.5	83.3	77.4	3.73	4.02	4.12	3.84	3.4*
교사	79.8	96.9	100.0	85.7	3.80	4.17	4.30	3.94	6.3**
주변환경	46.1	48.4	75.0	49.2	3.23	3.44	3.97	3.35	3.8*
시설설비·실내환경	50.6	74.2	58.3	56.8	3.38	3.73	3.63	3.49	1.9
교재교구·장비	74.2	78.1	75.0	75.2	3.74	3.87	3.95	3.79	0.8
내부분위기	77.5	87.5	81.8	80.3	3.87	4.01	4.01	3.92	0.5
비용	20.2	37.5	66.7	28.6	2.64	3.10	3.80	2.86	9.2***
건강관리	60.7	68.8	83.3	64.7	3.60	3.74	4.08	3.67	3.9*
급·간식관리	68.5	71.9	83.3	70.7	3.68	3.70	4.05	3.72	2.1
안전관리	78.4	60.6	75.0	73.7	3.79	3.70	3.96	3.79	0.8
교육내용	89.9	96.9	91.7	91.7	3.33	3.78	4.02	3.50	8.2***
부모참여	41.6	65.6	75.0	50.4	3.46	3.63	3.94	3.54	2.6#
부모교육 및 상담	52.2	56.3	75.0	55.2	3.52	3.74	3.99	3.62	-
전체	62.5	71.6	78.7	66.1	3.58	3.60	3.47	3.54	
(수)	(65)	(27)	(20)	(112)	(65)	(27)	(20)	(112)	

$p < .1$,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별로는 8개 항목, 지역별로는 3개 항목, 모취업여부별로는 1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VIII-5-5 참조).

<표 VIII-5-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1세	2세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F
원장	4.65	4.29	3.77	4.00	3.71	2.6*	3.79	3.83	4.12	1.3	3.99	3.58	3.77	1.9
교사	4.65	4.29	4.22	4.03	3.73	4.7**	3.80	3.99	4.36	4.7*	3.97	3.57	3.94	0.9
주변환경	3.96	3.31	3.47	3.51	3.20	1.0	3.17	3.48	3.61	2.4#	3.38	3.01	3.35	0.4
시설실내환경	4.65	3.87	3.60	3.74	3.25	3.0*	3.42	3.54	3.58	0.3	3.34	3.46	3.57	0.9
교재교구장비	4.65	4.19	3.59	3.98	3.71	2.9*	3.83	3.71	3.95	0.9	3.98	4.00	3.68	3.4*
내부분위기	4.65	4.29	3.70	3.92	3.95	1.6	3.86	3.95	4.03	0.4	3.97	4.00	3.88	0.3
비용	3.96	2.95	2.98	3.15	2.62	2.2#	3.03	2.55	3.41	6.0**	2.76	3.24	2.89	0.6
건강관리	4.65	3.06	3.68	3.88	3.60	4.4**	3.73	3.59	3.79	1.1	3.76	4.00	3.60	1.9
급·간식관리	4.65	3.50	3.70	3.86	3.66	2.0	3.74	3.64	3.98	1.8	3.79	4.00	3.66	1.3
안전관리	4.65	3.52	3.89	3.85	3.71	1.9	3.71	3.82	4.00	1.5	3.78	4.11	3.77	0.8
부모참여	4.65	3.86	3.60	3.68	3.31	3.2*	3.57	3.37	3.75	2.0	3.50	3.68	3.49	0.2
부모교육상담	4.65	4.13	3.75	3.63	3.33	4.3**	3.62	3.42	3.74	1.6	3.57	3.68	3.52	0.2
전체	4.54	3.77	3.66	3.77	3.48		3.61	3.57	3.86		3.65	3.70	3.59	
(수)	(2)	(7)	(28)	(41)	(34)		(45)	(49)	(147)		(37)	(5)	(70)	

$p < .1$, * $p < .05$, ** $p < .01$

다. 개선 요구사항

<표 VIII-5-6>는 기타 반일제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표 VIII-5-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별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지역규모			전체
	영어학원	미술학원	선교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원장	1.1	-	-	1.7	-	-	0.8
교사	-	-	-	-	1.7	-	-
주변환경	18.4	12.9	16.7	16.7	16.9	16.7	16.9
시설설비, 실내환경	19.5	9.7	50.0	21.7	11.9	58.3	20.0
교재교구 및 장비	-	9.7	-	-	5.1	-	2.3
내부 분위기	-	3.2	8.3	1.7	1.7	-	1.5
비용	41.4	45.2	16.7	35.0	45.8	25.0	40.0
건강관리	-	3.2	-	1.7	-	-	0.8
급간식관리	2.3	3.2	-	3.3	1.7	-	2.3
안전관리	4.6	6.5	-	8.3	1.7	-	4.6
교육내용	-	-	-	-	-	-	-
부모참여	11.5	3.2	-	8.3	10.2	-	8.5
부모교육 및 상담	1.1	3.2	8.3	1.7	3.4	-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5)	(27)	(20)	(45)	(49)	(18)	(112)

1순위는 비용이었고, 다음으로 시설설비와 주변환경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 영어,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개선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읍·면지역과 선교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설설비에 대한 요구 의견이 가장 많았다.

6. 시사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 이용기관 외에 소위 학원으로 불리우는 기타 반일제 이상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사 아동의 5.4%로 높지않은 수준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일제 학원 이용으로 분류된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선교원의 3개 유형은 조사 결과 공통점과 함께 이질적인 이용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주 하원시간대가 오후 2~4시, 평균 이용시간 6시간 25분으로 길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의 이용률이 높고 비용 지출도 취업모에 비해 많았다.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주로 교육적 수요를 위해 자녀를 보냈으며, 기관 선택의 주 요인은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교사와 프로그램(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기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성지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부모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컸으나, 구체적 비용과 부담도는 3개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보다 긴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의 긴 이용시간 요구가 더 컸다. 부모 대상 정보 및 교육·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한 편이었으며, 특별활동은 이용 아동 중 약 1/3이 하며, 특별활동수는 평균 2.97개였다.

세 종류의 기관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비용과 이용 아동 연령으로, 영어학원은 주로 취학전 5세 대상, 미술학원은 4세, 선교원은 다양한 연령범위를 가지면 5세 이용이 많았다. 월평균 교육비는 영어학원 약 90만원, 미술학원 약 63만원, 선교원 약 35만원으로 실제 비용과 가계부담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일제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나, 그러한 경향은 영어학원에서 가장 컸다. 선교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지 않고, 교육 외에 보육수요도 있었으며 이용 아동의 연령도 낮아 영유아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 살펴본 3개 종류의 기타 반일제 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유아기 국

가수준의 공통과정의 시행하고자 하는 영유아기 보육·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선교원의 경우 사례는 작았지만, 보육과 교육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서비스 형태로 특이점이 있었으며, 영어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 미취업모의 이용이 많은 계층적 특성과 프로그램 중심의 뚜렷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술학원 등은 영어학원과 선교원과 다른 중간 지점으로 교육과 보육에의 수요가 결합되어 있으며, 비용 수준도 양자의 중간이나 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대상 서비스의 기능이 취약함에도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높아, 기타 반일제 서비스를 통해 공통과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제공하지 못 하는 특정 프로그램과 질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기 서비스의 다양화 및 부모선택권 보장의 측면과 취학전 균등선 출발을 지향하는 누리과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반일제 서비스의 편차와 다양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하겠다.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로, 주로 아동의 집이나 돌봄 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제공자에 따라 혈연과 비혈연으로 구분된다.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조부모와 친인척이며, 비혈연은 아이돌보미와 가정보육교사 등 정부 부문 인력과 베이비시터 등 민간 부문 인력을 의미한다. 이때 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 베이비시터는 육아전문파견인력으로 구분된다.

제9장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 또는 중복으로 이용하는 아동 전반을 대상으로 이용 아동 특성을 파악하고, 혈연과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37.2%를 차지한다. 영아가 40.8%로 685명이며, 유아는 33.5%로 558명으로 조사되었다. 제1절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아동 비율, 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아동 특성, 그리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를 분석하였다.

가. 이용 아동 비율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영아 22.1%, 유아 0.5%로 전체 응답자의 11.3%를 차지하고, 개인양육지원과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은 영아 18.7%, 유아 33.0%로 전체 영유아의 25.8%이다. 즉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영아가 22.1%,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유아가 33.0%로 더 많다.

한편 이를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2009년 25.8%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 이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IX-1-1 참조).

〈표 IX-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구분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보육대상 아동(a)	1,677	1,666	3,343	3,304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	685	558	1,243	852
비율(b/a)	(40.8)	(33.5)	(37.2)	(25.8)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371	9	379	312
비율(c/a)	(22.1)	(0.5)	(11.3)	(9.4)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이용 아동(d)	314	549	864	540
비율(d/a)	(18.7)	(33.0)	(25.8)	(16.2)

아동 연령별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단독 이용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연인 경우는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두드러지는데, 비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1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거 조부모가 6.5%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에 의한 돌봄은 0세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은 보이다가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비혈연인 경우는 자녀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표 IX-1-2 참조).

〈표 IX-1-2〉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09년 조사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혈연	20.9	0.5	31.7	12.5	6.3	0.7	0.6	-	10.7	8.7	
동거 조부모	6.5	0.2	9.0	4.2	3.4	0.3	0.3	-	3.4	3.2	
비동거 조부모	12.7	0.1	20.4	7.6	2.0	0.4	0.2	-	6.5	4.8	
동거 친인척	0.4	0.1	1.7	0.6	1.0	-	0.2	-	0.2	0.2	
비동거 친인척	1.3	0.1	0.7	0.1	-	-	-	-	0.7	0.5	
비혈연	1.0	0.1	1.4	0.8	0.3	0.4	-	-	0.5	0.9	
동거 비혈연	0.2	-	0.3	-	-	-	-	-	0.1	0.2	
육아전문 파견인력	0.6	0.1	0.9	0.4	-	0.4	-	-	0.3	0.2	
기타 비혈연	0.3	-	0.1	0.4	0.3	-	-	-	0.1	0.6	
중복이용 포함											
혈연 전체	38.9	31.7	39.7	39.0	37.5	35.9	31.9	28.4	35.3	23.2	
비혈연 전체	2.1	1.4	2.1	3.2	1.1	2.5	0.9	0.9	1.8	1.2	
(수)	(1,677)	(1,666)	(802)	(538)	(462)	(503)	(556)	(482)	(3,343)	(3,304)	

주: 비혈연 중 육아전문파견인력은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가 포함되며, 기타 비혈연에는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보육모가 포함됨.

혈연 양육지원은 전체 응답자의 10.7%로 2009년 8.7%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은 전체의 0.5%로 2009년 0.9%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용 아동 특성

1)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표 IX-1-3>은 혈연 또는 비혈연 양육지원 제공자가 조사 대상 아동을 포함하여 몇 명의 자녀를 돌보는지를 조사한 결과로, 2명은 47.7%, 1명은 전체 응답자의 42.4%로 1명 또는 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명 이상은 9.9%이다. 평균 아동수는 1.7명 수준이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인 경우는 1명을 돌보는 비율이 50.3%로 가장 많고, 유아인 경우는 2명을 돌보는 비율이 56.1%로 높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3명을 돌보는 비율이 16.8%로 이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2명을 돌보는 비율은 휴직 중인 부모에서 2명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X-1-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구분	단위: %(명), 명					계(수)	평균
	1명	2명	3명	4명	5명		
전체	42.4	47.7	8.2	1.4	0.3	100.0(1,203)	1.69
영유아구분							
영아	50.3	40.9	7.6	0.9	0.3	100.0(708)	1.60
유아	32.8	56.1	8.8	2.0	0.4	100.0(495)	1.81
지역규모							
대도시	49.7	44.6	4.1	0.9	0.7	100.0(509)	1.58
중소도시	38.9	49.5	9.2	2.4	-	100.0(468)	1.75
읍·면	31.4	51.8	16.4	0.4	-	100.0(226)	1.86
모 취업여부							
취업	44.9	47.2	6.9	0.9	-	100.0(604)	1.64
휴직중	32.2	54.0	6.9	2.3	4.6	100.0(84)	1.93
미취업	40.6	47.3	10.2	1.8	-	100.0(500)	1.73
부재 등	50.0	43.8	6.3	-	-	100.0(15)	1.52

2) 서비스 제공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아동 특성 분포를 살펴보았다. 0세아를 보면 비동거 친인척 양육의 52.7%를 차지하고, 동거·비동거 조부모에 의한 양육 중 0세아 비율이 48.1%를 차지하며, 육아전문과건인력에 의한 돌봄은 35%로 나타났다. 비동거친인척과 조부모에 의한 돌봄은 1세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4세 이후로는 동거 비혈연에 의한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인 경우는 조부모와 비동거 친인척, 그리고 동거 비혈연과 육아전문과건인력이 주된 서비스 제공자였고, 유아인 경우는 영아에 비해 파출부나 가사도우미 등 기타 비혈연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X-1-4 참조).

〈표 IX-1-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동거 비혈연	육아전문과건인력	기타 비혈연	전체	2009년 조사
영유아구분									
영아	51.4	58.4	46.3	70.3	82.5	71.7	36.3	55.1	31.9
유아	48.6	41.6	53.7	29.7	17.5	28.3	63.7	44.9	25.4
연령									
0세	20.6	27.5	16.5	52.7	32.2	35.0	10.7	24.6	-
1세	15.0	16.9	12.1	12.1	50.3	25.9	16.2	16.1	-
2세	15.8	14.0	17.6	5.4	-	10.8	9.4	14.5	-
3세	13.4	17.7	7.8	10.7	17.5	16.4	28.9	15.9	-
4세	15.4	11.1	23.1	9.6	-	3.1	17.6	13.2	-
5세	19.8	12.9	22.8	9.4	-	8.8	17.2	15.8	-
지역규모									
대도시	39.8	49.8	33.3	54.2	100.0	34.1	56.1	45.0	46.8
중소도시	26.2	40.7	50.0	40.2	-	51.8	25.6	36.8	38.5
읍·면	34.0	9.5	16.6	5.5	-	14.2	18.3	18.2	14.7
모취업 여부									
취업	58.2	61.2	45.0	24.9	100.0	77.2	97.9	59.3	70.5
미취업	39.5	37.9	54.8	75.1	-	22.8	2.1	39.5	23.3
모부재	2.3	1.0	0.2	-	-	-	-	1.3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3)	(702)	(86)	(12)	(6)	(35)	(28)	(1,243)	(1,448)

주: 육아전문과건인력에는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가 포함되며, 기타 비혈연에는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보육모 등이 포함됨.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동거 친인척과 육아전문과건인력, 대도시 지역

에서 기타 비혈연 인력과 비동거 조부모와 비동거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취업모는 조부모와 육아전문과전인력, 기타 비혈연인에 의한 양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이용 이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하였다. 혈연 또는 비혈연 단독 또는 혈연과 비혈연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표 IX-1-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용 애로	비용 부담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데리고 다니기 번거 로움	시설 환경 열악	한 사람이 돌봐 불안	환경 변화로 정서 우려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타	계(수)
전체	68.5	2.0	7.2	0.5	1.2	4.1	3.7	5.8	5.9	1.2	100.0(391)
영유아구분											
영아	69.5	2.1	7.0	0.5	1.3	4.3	3.7	5.3	5.3	0.8	100.0(383)
유아	19.2	-	22.2	-	-	-	-	20.3	27.8	10.6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64.0	4.2	6.3	0.5	2.6	5.3	4.2	5.8	5.3	1.6	100.0(176)
중소도시	71.5	-	10.9	0.7	-	2.9	3.6	7.3	1.5	1.5	100.0(153)
읍·면	75.4	-	1.8	-	-	1.8	1.8	1.8	17.5	-	100.0(62)
모취업여부											
취업	66.4	2.8	1.9	-	2.8	4.7	8.4	6.5	3.7	2.8	100.0(117)
휴직중	87.0	-	4.3	2.2	-	-	-	6.5	-	-	100.0(46)
미취업	65.4	2.2	10.5	0.4	0.9	4.8	2.2	5.3	7.5	0.9	100.0(226)
부재 등	50.0	-	-	-	-	-	-	-	50.0	-	100.0(2)
2009년 조사	30.6	14.7	9.9	0.7	0.6	2.9	2.4	0.6	13.2	24.2	100.0(817)
2004년 조사	53.0	30.8	2.0	-	-	2.5	4.0	-	3.7	4.0	100.0(402)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는 너무 어려 기관 적용이 힘들까봐라는 응답이 전체의 68.5%를 차지하였고, 이외에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가 7.2%, 이용 희망기관 대기자가 많아서와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가 각각 5.8%, 5.9%로 나타났다(표 IX-1-5 참조).

한편 이들 주된 이유를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너무 어려서 기관 적용이 힘들까봐’에 대한 염려는 2004년과 2009년 조사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이용 희

망기관이 대기자가 많아서'는 2009년 0.6%에서 5.8%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4년 3.7%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 13.2%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004년 30.8%, 2009년 14.7%였으나, 2012년에는 2.0%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보육료 지원의 효과를 확인시켜 준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된 너무 어려서 기관 적용이 힘들 것에 대한 우려는 대도시 지역보다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더 높고, 취업모나 미취업모에 비해 휴직 중인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자가 많아서와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더 높아서 해당 지역의 서비스 질과 인프라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 그 밖에도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이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 양육자 등 이용 실태와 비용,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가. 이용 실태

1) 주 양육자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를 주로 돌봐 주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동거 외조부모가 35.2%로 가장 높고, 비동거 친조부모 22.4%, 동거 친조부모 21.3%, 동거 외조부모 12.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영아는 비동거 외조부모 비율이 39.1%로 높고, 유아는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동거 친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비동거 외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조부모에 의한 돌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동거 조부모들이 주된 양육자인 비율이 높

고, 읍·면 지역에서는 동거 조부모에 의한 돌봄 비율이 높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취업모는 동거 외조부모에 의한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외조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표 IX-2-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 모	비동거 친조부 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 ² (df)
전체	21.3	12.7	22.4	35.2	0.9	7.5	100.0(1,133)	
영유아구분								
영아	20.1	11.5	21.9	39.1	1.1	6.3	100.0(668)	12.7(5)*
유아	22.7	14.4	22.9	30.5	0.6	8.9	100.0(465)	
지역규모								
대도시	17.6	12.4	24.9	38.8	0.9	5.4	100.0(475)	114.4(10)***
중소도시	16.6	7.9	24.5	39.9	0.9	10.3	100.0(443)	
읍·면	39.6	23.5	12.0	17.5	0.5	6.9	100.0(215)	
모취업 여부								
취업	20.6	15.0	22.4	35.8	0.5	5.6	100.0(551)	-
휴직중	6.8	14.8	25.0	46.6	-	6.8	100.0(84)	
미취업	23.8	9.7	21.1	33.5	1.7	10.1	100.0(483)	
부재 등	53.3	6.7	40.0	-	-	-	100.0(15)	
2009년 조사	31.2	13.5	19.4	25.8	2.4	7.6	100.0(1,448)	83.0(5)**
2004년 조사	53.8		24		36.7	7.1	100.0(1,009)	38.5(3)**

* $p < .05$, ** $p < .01$, *** $p < .001$

<표 IX-2-2>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혈연 양육지원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비동거 외조부모가 영아인 경우 41.2%, 유아인 경우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는 앞서 살펴본 전체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즉, 이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비동거 외조부모에 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비동거 외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각각 50.0%와 43.5%로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비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용 유형에 따라서는 혈연 단독, 혈연과 기관 중복 이용, 그리고 혈연, 비혈연, 기관을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비동거 외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표 IX-2-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친 조부모	동거 외 조부모	비동거 친 조부모	비동거 외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 ² (df)
전체	18.9	15.0	22.8	37.1	0.3	5.8	100.0(635)	
영유아구분								
영아	14.5	15.4	22.6	41.2	0.3	5.9	100.0(341)	9.8(5)
유아	23.1	14.6	23.1	33.2	0.3	5.6	100.0(294)	
연령								
0세	11.3	12.1	22.6	50.0	-	4.0	100.0(131)	46.4(25)**
1세	14.8	17.6	17.6	43.5	0.9	5.6	100.0(116)	
2세	18.1	16.2	27.6	28.6	-	9.5	100.0(94)	
3세	17.4	10.1	23.9	46.8	-	1.8	100.0(97)	
4세	27.7	15.2	22.3	26.8	-	8.0	100.0(110)	
5세	23.3	18.8	23.3	27.8	0.8	6.0	100.0(87)	
지역규모								
대도시	17.2	14.8	25.1	40.2	0.9	1.8	100.0(293)	76.9(10)***
중소도시	14.4	9.1	23.0	42.0	-	11.5	100.0(237)	
읍·면	32.5	28.2	16.2	18.8	-	4.3	100.0(105)	
이용유형								
혈연 단독	10.4	15.6	19.3	51.1	-	3.7	100.0(144)	-
혈연+비혈연	50.0	-	-	50.0	-	-	100.0(3)	
혈연+기관	21.1	15.0	23.3	33.9	0.4	6.4	100.0(479)	
혈연,비혈연,기관	-	11.1	55.6	33.3	-	-	100.0(9)	

** $p < .01$, *** $p < .001$

2) 중복 이용 여부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보육서비스와의 중복 이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는 기관 보육과의 병행하여 이용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68.7%로 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혈연 단독 이용이 30.3%로 나타났고, 이외에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와 기관 보육과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0.2%와 0.8%에 불과하였다. 즉,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는 2/3 이상이 기관 보육과 병행하여 이용하고, 1/3 정도는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혈연 단독 이용 아동은 전체의 10.7%이다.

〈표 IX-2-3〉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혈연 단독	비혈연 보완	기관 보완	비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전체	30.3	0.2	68.7	0.8	100.0(1,133)
영유아구분					
영아	53.8	0.4	44.9	0.9	100.0(668)
유아	1.3	-	98.0	0.6	100.0(465)
연령					
0세	87.6	0.4	11.9	-	100.0(300)
1세	35.9	0.8	60.7	2.6	100.0(205)
2세	16.7	-	82.7	0.6	100.0(163)
3세	2.1	-	97.5	0.5	100.0(167)
4세	2.1	-	97.9	-	100.0(169)
5세	-	-	98.7	1.3	100.0(129)
지역규모					
대도시	32.8	0.1	66.1	1.0	100.0(475)
중소도시	30.2	0.2	68.9	0.9	100.0(443)
읍·면	24.6	0.6	74.8	-	100.0(215)
모취업 여부					
취업	14.8	0.3	83.5	1.4	100.0(551)
휴직중	52.4	-	47.0	0.6	100.0(84)
미취업	46.5	0.2	53.4	-	100.0(483)
부재 등	20.3	-	79.7	-	100.0(1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3.2	-	66.8	-	100.0(22)
150~199만원	33.9	-	66.1	-	100.0(110)
200~249만원	41.6	-	58.4	-	100.0(203)
250~299만원	29.9	0.4	69.7	-	100.0(192)
300~349만원	24.5	-	75.5	-	100.0(178)
350~399만원	31.7	-	66.7	1.6	100.0(119)
400~499만원	25.4	0.7	73.7	0.2	100.0(184)
500~599만원	16.5	-	81.3	2.3	100.0(069)
600~699만원	22.3	-	75.5	2.2	100.0(30)
700만원 이상	31.4	1.6	55.8	11.3	100.0(26)
(수)	(361)	(4)	(759)	(9)	100.0(1,133)

이를 자녀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0세아는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87.6%로 압도적으로 높고, 1세 이후로는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5세아의 경우 해당 비율은 98.7%에 달한다. 또한 영유아구분에 의하면, 영아는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53.8%로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아는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 비율이 98%를 차지하여 대조를 이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24.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 비율은 74.8%로 도시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가 미취업모에 비해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월 가구소득이 249만원 이하인 가구는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 비율이 70% 수준을 상회하여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표 IX-2-3 참조).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에 1주일 기준으로 자녀를 맡기는 빈도가 얼마인지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불규칙하게 맡기는 비율이 5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금요일 24.9%, 월~일요일 10.3%, 월~토요일 5.6%, 주 2~3회 3.7%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인 경우 불규칙적으로 맡기는 비율이 57%로 유아 52.7%에 비해 높은 반면, 유아인 경우는 월~금요일이나 월~토요일에 맡기는 비율이 각각 26.7%, 7.6%로 영아에 비해 높았다. 이는 영아에 비해 유아가 서비스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의 월~금요일 이용 비율은 29.7%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불규칙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65.7%에 달하여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는 월~금요일 이용이 42.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혈연인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가 이들의 주된 서비스 이용 형태임을 확인시켜 준다(표 IX-2-4 참조).

한편 <표 IX-2-5>는 서비스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오전 5시 이전이 11.9%로 매우 이른 시각에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어 오전 7~8시가 되면 76.5%로 증가하고, 오전 중 서비스 종료 시각은 9~10시가 52.3%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관 이용 등 중복 이용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오후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4~5시에 시작되는 비율이 41.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오후 2시 이전 27.4%, 오후 6~7시 15.4% 순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종료는 주로 6시 이후에 이루어져 해당 비율은 90%를 육박한다.

〈표 IX-2-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0.3	5.6	24.9	3.7	55.1	0.4	100.0(1,133)	
영유아구분								
영아	10.3	4.0	23.5	4.9	57.0	0.3	100.0(668)	14.7(5)*
유아	10.2	7.6	26.7	2.3	52.7	0.6	100.0(465)	
지역규모								
대도시	11.4	4.9	29.7	5.4	48.3	0.4	100.0(475)	50.8(10)***
중소도시	6.8	8.4	23.8	2.6	58.0	0.5	100.0(443)	
읍·면	14.4	2.3	15.7	1.4	65.7	0.5	100.0(215)	
모취업 여부								
취업	10.1	9.7	42.2	3.8	33.5	0.7	100.0(551)	-
휴직중	2.4	1.2	20.0	7.1	69.4	-	100.0(84)	
미취업	10.4	0.4	3.8	3.0	82.2	0.2	100.0(483)	
부채 등	56.3	31.3	12.5	-	-	-	100.0(15)	
2009년 조사	24.3	12.6	27.0	5.4	30.4	0.3	100.0(1,450)	36.2(15)**

* $p < .05$, ** $p < .01$, *** $p < .001$

〈표 IX-2-5〉 (규칙적으로 맡기는 경우)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시작	종료	구분	종료	
5시 이전	11.9	0.3	2시 이전	0.9	
5~6시	3.7	0.1	2~3시	1.6	
7~8시	76.5	10.0	4~5시	7.2	
9~10시	6.6	52.3	6~7시	44.9	
11~12시	1.3	37.3	8~9시	30.3	
			10시 이후	15.0	
계(수)	100.0(335)	100.0(335)	계(수)	100.0(486)	100.0(486)

4) 서비스 장소와 집과의 거리

가) 서비스 장소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에 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 집이 전체 응답자의 71.1%를 차지하였고, 돌보는 사람의 집이 28.9%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읍·면 지역에서는 아이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79.6%로 월등히 높았고, 취업모인 경우는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평균보

다 다소 높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X-2-6 참조).

〈표 IX-2-6〉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구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단위: %(명)
				X ² (df)
전체	71.1	28.9	100.0(1,133)	
영유아구분				
영아	71.2	28.8	100.0(668)	-
유아	70.9	29.1	100.0(465)	
지역규모				
대도시	74.6	25.4	100.0(475)	
중소도시	62.6	37.4	100.0(443)	26.1(2)***
읍·면	79.6	20.4	100.0(215)	
모취업 여부				
취업	68.6	31.4	100.0(551)	
휴직중	77.0	23.0	100.0(84)	
미취업	72.7	27.3	100.0(483)	-
부재 등	81.3	18.8	100.0(15)	

*** $p < .001$

나) (돌보는 사람 집의 경우) 돌보는 장소와 집과의 거리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집과의 거리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는 도보로 10분 이내가 4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차로 30분 이내 28.3%, 도보로 10~20분 이내 13.5%, 차로 30분~1시간 이내 8.6%, 차로 1시간~2시간 3.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는 차로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비율이, 유아는 도보로 10분 이내로 소요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 비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고, 도보 10분~20분 거리의 비율이 17.6%로 이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읍·면 지역에서는 차로 1~2시간 또는 차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비율은 48.2%로 미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를 맡긴 장소와 집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X-2-7〉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장소와 집과의 거리

단위: %(명)

구분	차로 30분 이내	차로 30분~ 1시간	차로 1~2시간	차로 2시간 이상	도보로 10분 이내	도보로 10~20분	도보로 20분 이상	계(수)
전체	28.3	8.6	3.3	2.5	42.4	13.5	1.5	100.0(339)
영유아구분	28.3	8.6	3.3	2.5	42.4	13.5	1.5	100.0(339)
영아	25.9	10.1	5.8	3.2	37.6	14.8	2.6	100.0(197)
유아	30.7	6.5	0.7	2.0	47.7	11.8	-	100.0(142)
지역규모								
대도시	25.7	10.3	4.4	1.5	36.8	17.6	3.7	100.0(124)
중소도시	28.6	6.8	1.9	2.5	47.8	11.8	0.6	100.0(159)
읍·면	34.1	9.1	4.5	6.8	40.9	4.5	-	100.0(56)
모취업 여부								
취업	27.2	7.9	2.1	2.6	48.2	11.0	1.0	100.0(186)
휴직중	10.0	10.0	5.0	-	60.0	15.0	-	100.0(19)
미취업	33.3	9.3	5.4	2.3	30.2	17.1	2.3	100.0(131)
부재 등	-	-	-	33.3	66.7	-	-	100.0(3)

다) (돌보는 사람 집의 경우) 자녀 접촉 빈도

돌보는 사람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자녀를 매일 집에 데려오는지를 질문하였다. 매번 데려오거나 부모가 가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끔 데려오는 경우 7.1%, 가끔 가서 보는 경우 3.7%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보는 경우는 영아에 비해 유아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장소와 집과의 소요 시간이 유아에 비해 영아가 길게 나타난 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2004년과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매번 데려오거나 가서 보는 비율은 2004년 67.6%, 2009년 76.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가끔 만난다고 응답한 경우 며칠에 한 번씩 자녀를 데려오거나 가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약 11일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간은 유아인 경우 약 12.8일로 영아 약 10.4일에 비해 길고, 2009년 조사보다 평균 2.6일이 길어졌다.

자녀를 매번 데려오거나 가서 보는 경우는 읍·면 지역의 해당 비율이 93.2%로 도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는 가끔 데려오거나 가끔 가서 보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해 높았다.

〈표 IX-2-8〉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데려오는 주기

단위: %(명), 일

구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빈도			
	매번 데려오거나 가서 봄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t/F
전체	89.2	7.1	3.7	100.0(339)	11.1	17.5	(44)	
영유아구분								
영아	86.7	8.5	4.8	100.0(197)	10.4	16.7	(33)	-0.4
유아	92.2	5.2	2.6	100.0(142)	12.8	20.1	(11)	
지역규모								
대도시	87.5	8.1	4.4	100.0(124)	11.1	20.9	(14)	0.1(2)
중소도시	89.4	6.2	4.3	100.0(159)	12.0	16.0	(27)	
읍·면	93.2	6.8	-	100.0(56)	6.0	7.0	(3)	
모취업 여부								
취업	87.4	7.4	5.3	100.0(186)	9.9	14.1	(26)	1.4(3)
휴직중	85.0	15.0	-	100.0(19)	4.4	1.5	(3)	
미취업	93.8	4.7	1.6	100.0(131)	30.1	4.2	(12)	
부재 등	-	66.7	33.3	100.0(3)	11.1	49.6	(3)	
2009년 조사	76.0	19.0	5.0	100.0(400)	8.5	7.5	(94)	2.7*
2004년 조사	67.6	21.0	11.4	100.0(290)				

* $p < .05$

또한 가끔 만나는 경우에 만나는 빈도는 읍·면 지역에서 약 6일로 도시 지역에 비해 짧고, 미취업모는 해당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 취약가구의 경우 일부 아동은 초기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IX-2-8 참조).

나. 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자녀를 돌보는 혈연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 중에서 선택하게 한 결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63.2%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24.2%, 부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8.9%,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가 3.7%로 나타났다.

돌보는 사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동거 친조부모와 동거·비동거 친인척인 경

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특히 동거 친인척인 경우는 해당 비율이 95.1%에 달한다. 반면에 동거·비동거 외조부모인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조부모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고, 외조부모에게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4년과 2009년 조사와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2004년과 2009년에 이어 소폭 감소하였고,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9년 68%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IX-2-9〉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전체	24.2	8.9	3.7	63.2	100.0(1,133)	73.1(15) ^{***}
동거 친조부모	18.3	6.1	1.1	74.4	100.0(224)	
동거 외조부모	25.4	16.4	4.8	53.4	100.0(109)	
비동거 친조부모	24.2	3.9	3.3	68.5	100.0(253)	
비동거 외조부모	29.7	12.5	4.7	53.1	100.0(449)	
동거 친인척	4.9	-	-	95.1	100.0(12)	
비동거 친인척	14.4	3.1	6.3	76.2	100.0(86)	

*** $p < .001$

〈표 IX-2-10〉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전체	24.2	8.9	3.7	63.2	100.0(1,133)	68.9(6) ^{***}
영유아구분						
영아	24.1	8.3	4.9	62.7	100.0(668)	
유아	24.2	9.7	2.3	63.8	100.0(465)	
지역규모						
대도시	27.6	6.2	3.0	63.2	100.0(475)	
중소도시	24.7	5.6	5.3	64.4	100.0(443)	
읍·면	14.4	22.2	2.8	60.6	100.0(215)	
모 취업여부						
취업	38.8	11.4	3.5	46.3	100.0(551)	
휴직중	32.2	9.2	3.4	55.2	100.0(84)	
미취업	4.0	5.9	4.2	85.8	100.0(483)	
부재 등	25.0	-	-	75.0	100.0(15)	

(표 IX-2-10 계속)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 ² (df)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8.5	3.7	-	77.8	100.0(18)	
150~199만원	6.7	10.0	6.7	76.7	100.0(58)	
200~249만원	9.4	1.7	0.9	88.0	100.0(104)	
250~299만원	11.3	13.8	9.4	65.4	100.0(168)	
300~349만원	14.7	9.8	1.4	74.1	100.0(149)	201.4(27) ^{***}
350~399만원	30.6	5.4	3.6	60.4	100.0(108)	
400~499만원	26.0	5.6	7.9	60.5	100.0(198)	
500~599만원	37.7	5.8	-	56.5	100.0(142)	
600~699만원	42.4	28.3	-	29.3	100.0(78)	
700만원 이상	37.0	7.6	1.7	53.8	100.0(109)	
2009년 조사	25.5	4.5	2.0	68.0	100.0(1,446)	
2004년 조사	26.6	9.2	1.5	62.7	100.0(1,018)	

*** $p < .001$

주: 2004년 현물지불에는 숙식 제공(0.3%)이 포함됨.

<표 IX-2-10>은 제 특성별 혈연 돌봄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불에 관한 표이다. 읍·면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취업 중이거나 휴직 중인 어머니가 미취업모에 비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격히 증가하여 약 30% 수준이며,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699만원인 경우는 42.4%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비용 수준

혈연 돌봄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전체 월 평균 비용은 약 287,500원으로 파악되었다. 돌봄 제공자별로 평균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동거 외조부모가 약 34만원, 다음으로 비동거 친조부모 약 27만원, 동거 외조부모 약 25만원, 비동거 친인척 약 21만원, 동거 친조부모 약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지불 비용은 동거 친인척 80만원에서 동거 친조부모 1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표 IX-2-11 참조).

<표 IX-2-12>는 제 특성별 혈연 돌봄 제공자의 지불 비용 수준을 나타낸 표이다. 자녀 연령별로 지불 비용을 살펴보면, 영아는 월 평균 지불비용은 평균보다 높은 324,000원으로 유아 241,300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불 비용 최대는 150만원이다.

〈표 IX-2-11〉 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비용 시 금액

단위: %(명), 천원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인척	전체
10만원 미만	23.4	42.0	21.4	23.2	9.1	25.2
10-19만원 이하	35.9	13.0	22.6	13.9	45.5	20.3
20-29만원 이하	17.2	15.9	14.3	10.3	22.7	13.6
30-39만원 이하	12.5	7.2	11.9	11.9	4.5	10.9
40-49만원 이하	-	1.4	6.0	7.2	4.5	4.8
50-59만원 이하	9.4	4.3	14.3	16.0	4.5	12.2
60-69만원 이하	-	1.4	1.2	1.0	4.5	1.2
70-79만원 이하	-	8.7	4.8	5.7	-	4.8
80-89만원 이하	-	1.4	1.2	2.6	4.5	1.8
90-99만원 이하	-	-	-	-	-	-
100만원 이상	1.6	4.3	2.4	8.2	-	5.1
계(수)	100.0(54)	100.0(47)	100.0(89)	100.0(208)	100.0(21)	100.0(419)
평균	204.7	248.1	269.9	344.0	211.2	287.5
표준편차	200.7	291.4	226.4	294.0	193.8	269.7
최고	1,500	1,200	1,000	1,200	800	1,500

〈표 IX-2-12〉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수)
전체	287.5	269.7	1,500	(420)					
영유아구분					가구소득				
영아	324.0	297.0	1,500	(252)	149만원 이하	71.4	15.6	100	(4)
유아	241.3	222.7	1,200	(168)	150~199만원	105.2	124.2	600	(12)
t	3.20**				200~249만원	326.1	290.6	700	(15)
지역규모					250~299만원	95.3	110.4	700	(55)
대도시	362.2	299.4	1,500	(189)	300~349만원	252.2	227.8	800	(41)
중소도시	260.3	216.3	1,000	(162)	350~399만원	258.2	172.5	700	(39)
읍·면	163.3	228.3	1,000	(69)	400~499만원	254.0	202.9	1,000	(79)
F	18.7***				500~599만원	407.0	271.1	1,000	(65)
모취업 여부					600~699만원	264.2	263.0	1,000	(46)
취업	330.6	376.1	1,500	(313)	700만원 이상	533.8	359.2	1,500	(63)
휴직중	206.5	191.8	800	(33)					
미취업	110.9	180.9	1,000	(71)					
부재 등	507.0	226.2	700	(3)					
F	15.8***					13.9***			
2009년 조사	284.8	235.3	2,005	(463)					

** $p < .01$, *** $p < .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지불 비용이 가장 높아 월 362,200원에 이르며, 취업모가 약 33만원으로 미취업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불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위주의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표 IX-2-12 참조).

다음으로, 조부모 대상 지불 비용의 돌봄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부모가 돌봐주며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도 돈을 드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조정 비율은 어느 수준인지를 각각 질문하였다.

〈표 IX-2-13〉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 비용 지불 여부 및 조정 비율

단위: %(명)

구분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 지불 여부					조정시, 현재 금액 대비 비율			
	동일하게 드림	비용 조정	드리지 않음	계(수)	X ² (df)	평균	최소	최대	(수)
전체	54.3	36.1	9.6	100.0(397)		46.2	5	90	(158)
영유아구분									
영아	50.7	37.6	11.8	100.0(240)		45.2	10	90	(100)
유아	59.0	33.9	7.1	100.0(157)	-	47.6	5	90	(58)
지역규모									
대도시	53.9	38.9	7.3	100.0(184)	33.7(4) ***	42.3	10	80	(75)
중소도시	40.9	46.0	13.1	100.0(148)		50.3	5	90	(68)
읍·면	78.3	12.0	9.6	100.0(65)		49.3	30	71	(15)
모취업 여부									
취업	50.5	39.5	10.0	100.0(298)		45.0	5	90	(128)
휴직중	48.6	40.5	10.8	100.0(31)		58.2	20	80	(15)
미취업	79.4	15.9	4.8	100.0(66)	-	42.1	13	50	(14)
부채 등	-	50.0	50.0	100.0(2)		50.0	50	50	(1)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83.3	16.7	-	100.0(4)		50.0	50	50	(1)
150~199만원	92.9	7.1	-	100.0(11)		50.0	50	50	(1)
200~249만원	53.8	15.4	30.8	100.0(14)		50.0	50	50	(3)
250~299만원	84.8	15.2	-	100.0(48)		49.7	30	70	(11)
300~349만원	44.1	38.2	17.6	100.0(38)		41.9	20	50	(10)
350~399만원	38.6	54.5	6.8	100.0(38)	-	47.7	20	70	(21)
400~499만원	50.6	34.6	14.8	100.0(76)		53.0	13	80	(33)
500~599만원	45.6	43.9	10.5	100.0(62)		41.8	10	70	(29)
600~699만원	57.6	37.9	4.5	100.0(46)		47.5	5	90	(22)
700만원 이상	43.4	43.4	13.2	100.0(59)		40.2	20	70	(27)

*** p < .001

우선 자녀를 돌보지 않을 경우 돈을 지불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드린다는 응답이 전체의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용을 조정하겠다는 응답이 36.1%였으며, 드리지 않겠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하였다.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돈을 드리겠다는 응답은 특히 읍·면 지역에서 78.3%로 높고, 돈을 드리지 않겠다는 응답은 유아에 비해 영아가 1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해당 비율이 10.0%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에게 드리는 비용이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은 영아를 둔 부모와와 취업모들 중 일부에 한정됨을 의미한다(표 IX-2-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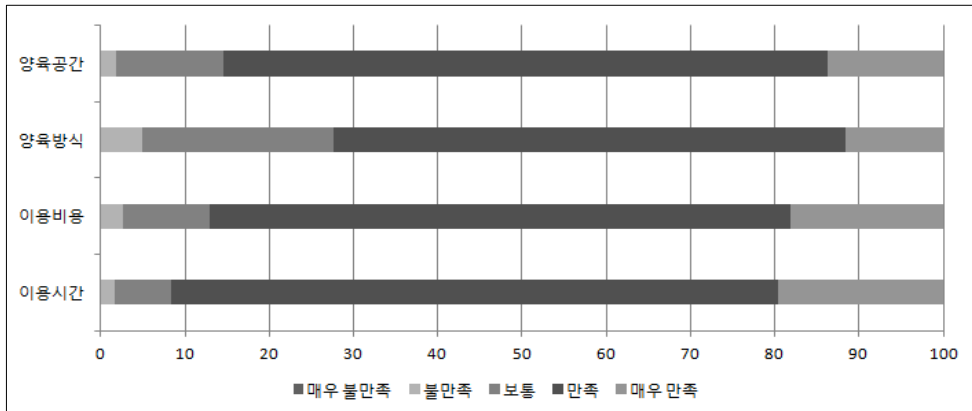
다. 만족도

현재 이용 중인 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 이용 비용, 양육 방식과 양육 환경(공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약 90%를 육박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X-2-1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 정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단위: %(명), 점	
							5점 평균	
							평균	t
이용시간								
전체	0.1	1.5	6.7	72.0	19.7	100.0(1,133)	4.10	
영아	0.2	2.1	6.4	70.4	20.8	100.0(668)	4.10	
유아	0.2	0.8	7.0	73.7	18.3	100.0(465)	4.09	.14
이용비용								
전체	0.1	2.5	10.4	68.9	18.1	100.0(420)	4.02	
영아	0.4	1.6	11.9	64.6	21.4	100.0(252)	4.05	
유아	-	3.6	8.3	74.0	14.1	100.0(168)	3.98	1.12
양육방식								
전체	0.1	4.9	22.7	60.7	11.7	100.0(1,133)	3.79	
영아	-	4.3	21.9	60.7	13.0	100.0(668)	3.83	2.02*
유아	0.2	5.7	23.7	60.6	9.8	100.0(465)	3.74	
양육공간								
전체	0.1	1.8	12.6	71.8	13.7	100.0(1,133)	3.97	
영아	-	0.8	12.7	70.7	15.8	100.0(668)	4.01	
유아	0.2	3.0	12.3	73.3	11.2	100.0(465)	3.92	2.74**

* $p < .05$, ** $p < .01$



[그림 IX-2-1]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또한 각 항목별 5점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4.1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용 비용 4.02점, 양육 공간 3.97점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방식은 3.7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혈연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우나 양육 공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IX-2-15 참조).

<표 IX-2-1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이용시간	이용비용	양육방식	양육공간
전체	4.10	4.02	3.79	3.97
지역규모				
대도시	4.12	4.07	3.77	3.95
중소도시	4.11	4.00	3.81	4.03
읍·면	4.01	3.97	3.80	3.90
F	3.4*	0.9	0.5	4.0*
모취업 여부				
취업	4.15	4.01	3.81	4.00
휴직중	4.19	4.21	4.01	4.09
미취업	4.01	4.04	3.73	3.92
부채 등	3.97	2.91	3.73	3.74
F	6.4*	5.2**	4.2**	3.8*

(표 IX-2-15 계속)

구분	이용시간	이용비용	양육방식	양육공간
이용 유형				
혈연	4.08	4.05	3.86	4.06
혈연+비혈연	3.25	3.00	3.75	4.00
혈연+기관	4.10	4.01	3.76	3.94
혈연+비혈연+기관	3.88	2.67	3.88	3.88
F	3.3*	5.8**	-	3.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02	4.22	3.58	3.88
150~199만원	4.06	4.14	3.68	3.79
200~249만원	3.89	3.47	3.55	3.79
250~299만원	3.93	4.15	3.79	3.93
300~349만원	4.14	4.02	3.72	3.93
350~399만원	4.13	3.99	3.85	3.98
400~499만원	4.17	4.01	3.82	3.98
500~599만원	4.17	3.82	3.81	4.07
600~699만원	4.18	3.99	3.96	4.06
700만원 이상	4.19	4.28	3.93	4.16
F	4.7***	3.4**	3.5***	4.3****
(수)	(1,133)	(420)	(1,133)	(1,133)

* $p < .05$, ** $p < .01$, *** $p < .001$

지역규모별로는 도시 지역의 경우는 읍·면 지역에 비해 이용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양육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비용과 양육 공간에 대하여 혈연 단독 이용인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3.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 양육자 등 이용 실태와 이용 비용,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가. 이용 실태

1) 주 양육자

가) 비혈연 양육자 특성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파출부·이웃보육모가 전체의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 26.0%, 기타 20.5%, 베이비시터 13.7%, 동거 비혈연 11.0%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베이비시터와 아이돌보미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이웃 보육모와 파출부·가사도우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IX-3-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비혈연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기타	계(수)
전체	11.0	26.0	13.7	1.4	27.4	20.5	100.0(84)
영유아구분							
영아	16.7	33.3	16.7	2.4	16.7	14.3	100.0(50)
유아	3.2	16.1	9.7	-	41.9	29.0	100.0(34)
지역규모							
대도시	23.5	20.6	11.8	2.9	32.4	8.8	100.0(40)
중소도시	-	31.0	20.7	-	17.2	31.0	100.0(31)
읍·면	-	27.3	9.1	-	36.4	27.3	100.0(13)
모취업 여부							
취업	13.8	25.9	13.8	1.7	34.5	10.3	100.0(64)
휴직중	-	-	100.0	-	-	-	100.0(1)
미취업	-	29.4	11.8	-	-	58.8	100.0(1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100.0	-	-	-	-	100.0(4)
150~199만원	-	-	-	-	33.3	66.7	100.0(3)
200~249만원	-	20.0	-	-	-	80.0	100.0(3)
250~299만원	-	66.7	-	-	-	33.3	100.0(5)
300~349만원	-	25.0	-	-	25.0	50.0	100.0(6)
350~399만원	-	-	-	-	50.0	50.0	100.0(2)
400~499만원	8.3	16.7	25.0	-	41.7	8.3	100.0(16)
500~599만원	-	38.5	-	7.7	38.5	15.4	100.0(14)
600~699만원	-	-	33.3	-	33.3	33.3	100.0(5)
700만원 이상	28.0	16.0	28.0	-	28.0	-	100.0(26)
2009년 조사	12.7	7.0	9.9	18.3	38.0	14.1	100.0(71)

주: 2009년 조사에서 기타에 가정 보육교사가 포함됨.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인 경우는 이웃 보육모가 41.9%로 영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영아인 경우는 동거 비혈연,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의 비율이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동거 비혈연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이웃 보육모가 각각 36.4%로 이외 지역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동거 비혈연인이 주된 양육자인 경우는 취업모에 한정되며, 미취업모는 아이돌보미 비율이 높다. 이외에도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구체적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아이돌보미에 의한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베이비시터에 의한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X-3-1 참조).

현재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의 출신국은 한국인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국 조선족 9.5%, 중국 한족 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외의 국가는 본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인의 비율은 영아에 비해 유아인 경우 더 높고,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경우는 모두 한국인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인 경우 비혈연 양육자의 출신국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표 IX-3-2 참조).

〈표 IX-3-2〉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출신국

단위: %(명)

구분	전체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한국인	87.9	82.9	93.9	75.8	100.0	100.0	84.2	100.0	100.0
중국조선족	9.5	17.1	-	21.2	-	-	12.3	-	-
중국 한족	2.6	-	6.1	3.0	-	-	3.5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	(50)	(34)	(40)	(31)	(13)	(64)	(1)	(19)

이들 비혈연 양육자는 기혼이면서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기혼이나 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 5.0%, 미혼인 경우 2.4%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 돌봄인 경우는 기혼이면서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92.7%를 차지하여 양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취업모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IX-3-3 참조).

비혈연 양육자가 소지한 육아 관련 자격은 보육교사가 4.9%, 아이돌보미 22.3%, 사설업체 교육 베이비시터 15.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자는 영아

인 경우와 읍·면 지역에서, 사설업체 교육 베이비시터 자격자는 영아인 경우와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X-3-3〉 비혈연 양육자의 결혼·자녀양육 경험 및 자격 소지 비율

단위: %(명)

구분	결혼 및 양육 경험				자격 소지 비율(중복 응답)				
	미혼	기혼·양육경험 유	기혼·양육경험 무	계(수)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사설업체시터	기타	(수)
전체	2.4	92.5	5.0	100.0(84)	4.9	22.3	15.8	4.3	(84)
영유아구분									
영아	-	92.7	7.3	100.0(50)	4.9	24.4	22.0	7.1	(50)
유아	6.1	90.9	3.0	100.0(34)	6.1	18.2	6.3	-	(34)
지역규모									
대도시	-	90.9	9.1	100.0(40)	5.9	15.2	15.2	9.1	(40)
중소도시	6.7	93.3	-	100.0(31)	3.3	26.7	20.0	-	(31)
읍·면	-	100.0	-	100.0(13)	9.1	30.0	9.1	-	(13)
모취업 여부									
취업	3.5	91.2	5.3	100.0(64)	7.0	21.1	15.8	5.3	(64)
휴직중	-	100.0	-	100.0(1)	-	-	100.0	-	(1)
미취업	-	100.0	-	100.0(19)	-	29.4	11.8	-	(19)

나) 비혈연 양육자 소개 경로

현재 자녀를 돌봐주는 양육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X-3-4〉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

단위: %(명)

구분	평소 알던 사람	지인의 소개	지역신문 광고	인터넷	사설인력 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25.6	29.3	0.8	8.4	29.7	6.2	100.0(84)
영유아구분							
영아	14.3	26.2	-	14.3	38.1	7.1	100.0(50)
유아	39.4	30.3	3.0	3.0	18.2	6.1	100.0(34)
지역규모							
대도시	14.7	41.2	2.9	14.7	23.5	2.9	100.0(40)
중소도시	36.7	20.0	-	3.3	33.3	6.7	100.0(31)
읍·면	30.0	20.0	-	-	40.0	10.0	100.0(13)
모취업 여부							
취업	16.1	37.5	1.8	7.1	30.4	7.1	100.0(64)
미취업	58.8	-	-	11.8	23.5	5.9	100.0(19)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설 인력 전문기관 소개 29.7%, 지인의 소개 29.3%, 평소 알던 사람 25.6%, 인터넷 8.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인 경우는 기관 소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인 소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터넷 이용 비율도 이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인 경우는 지인 소개와 기관 소개의 비율이 높았다.

2) 중복 이용 여부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 보육 등 이외 서비스와의 중복 이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이 전체의 55.2%(45 사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비혈연 단독 28.8%(26 사례), 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12.3%(9 사례), 혈연 보완 3.7%(4 사례) 순으로 나타났다.

〈표 IX-3-5〉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구분	비혈연 단독	혈연 보완	기관이용 보완	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전체	28.8	3.7	55.2	12.3	100.0(84)
영유아구분					
영아	47.3	6.7	32.0	14.0	100.0(50)
유아	5.5	-	84.4	10.1	100.0(34)
연령					
0세	74.9	7.1	18.0	-	100.0(21)
1세	26.7	8.2	39.5	25.6	100.0(24)
2세	29.3	-	52.1	18.7	100.0(5)
3세	10.8	-	84.0	5.1	100.0(17)
4세	-	-	100.0	-	100.0(6)
5세	-	-	77.5	22.5	100.0(11)
지역규모					
대도시	34.9	2.0	47.3	15.8	100.0(40)
중소도시	23.7	2.5	61.1	12.7	100.0(31)
읍·면	24.2	12.7	63.0	-	100.0(13)
모취업 여부					
취업	25.4	3.6	55.9	15.1	100.0(64)
휴직중	-	-	-	100.0	100.0(1)
미취업	41.2	4.5	54.3	-	100.0(19)
부재 등					-

영유아 구분에 의하면, 영아는 비혈연 단독 비율이 47.3%로 가장 높고, 유아는 기

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 연령별로는, 0세 아는 비혈연 단독 이용이 74.9%로 압도적으로 높고, 1세 이후 해당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며, 이후 연령대에서는 기관 보육과의 중복 이용 비율이 급증하여 3세아 84%, 4세아 100.0%, 5세아 77.5%를 각각 나타냈다.

한편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혈연 단독 이용 비율이 이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모는 혈연과 기관 모두 중복 이용하는 비율이 15.1%로 나타나는 반면 미취업모의 해당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관 보육서비스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부응하는 정도가 미흡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다양화의 내실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1주일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자녀를 얼마나 자주 맡기는지를 조사하였다. 월~금요일이 전체의 5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불규칙적 24.0%, 월~토요일 11.5%, 주 2~3회 3.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앞서 살펴본 혈연 양육지원서비스와 비교하면, 불규칙적으로 맡기는 비율은 혈연인 경우 55.1%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월~금요일에 맡기는 비율은 혈연인 경우 24.9%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는 월~금요일에 규칙적으로 맡기는 비율이 61.0%로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아는 불규칙적으로 맡기는 비율이 33.3%로 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시간은 주당 평균 약 25시간으로,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약 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 지역, 취업모가 각각 주당 약 33시간, 약 3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비혈연 양육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표 IX-3-6 참조).

다음으로 비혈연 양육자가 평소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시작과 종료 시각을 질문하였다. 우선 오전 시간대의 경우 시작 시각은 주로 오전 7~8시로 해당 비율은 70.4%로 나타났고, 종료 시각은 9시~10시 38.6%, 11시~12시 57.8%로 조사되었다. 또한 오후 시간대의 경우 시작 시각은 2시 이전이 47.5%로 가장 많고, 종료 시각은 6시 이후가 85.7% 대부분으로 나타났다(표 IX-3-7 참조).

이를 혈연과 비교하면, 오전 서비스 시작 시각은 5시 이전 11.9%인 혈연 양육지원에 비해 늦고, 오후 서비스 시작 시각은 2시 이전 27.4%인 혈연 양육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다.

〈표 IX-3-6〉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및 주당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빈도							돌보는 시간(주당)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평균	t/F
전체	2.0	11.5	57.4	3.1	24.0	2.1	100.0(84)	25.4	
영유아구분									
영아	2.4	9.8	61.0	4.9	17.1	4.9	100.0(50)	31.7	2.9**
유아	-	12.1	54.5	-	33.3	-	100.0(34)	17.4	
지역규모									
대도시	2.9	20.6	61.8	2.9	11.8	-	100.0(40)	33.4	
중소도시	-	-	51.6	3.2	38.7	6.5	100.0(31)	18.3	4.3*
읍·면	-	18.2	54.5	9.1	18.2	-	100.0(13)	20.2	
모취업 여부									
취업	1.7	15.5	65.5	3.4	12.1	1.7	100.0(64)	30.4	
휴직중	-	-	-	-	100.0	-	100.0(1)	2.0	7.2**
미취업	-	-	27.8	5.6	61.1	5.6	100.0(19)	8.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	-	-	66.7	33.3	100.0(4)	5.8	
150~199만원	-	33.3	33.3	-	33.3	-	100.0(3)	13.5	
200~249만원	-	-	20.0	-	80.0	-	100.0(3)	4.7	
250~299만원	-	-	50.0	16.7	33.3	-	100.0(5)	10.7	4.3***
300~349만원	-	-	25.0	25.0	50.0	-	100.0(6)	13.3	
350~399만원	-	-	50.0	-	50.0	-	100.0(2)	5.2	
400~499만원	-	8.3	58.3	8.3	16.7	8.3	100.0(16)	28.8	
500~599만원	-	14.3	64.3	-	21.4	-	100.0(14)	18.3	
600~699만원	-	-	100.0	-	-	-	100.0(5)	26.1	
700만원 이상	4.2	16.7	75.0	-	4.2	-	100.0(26)	42.3	

* $p < .05$, ** $p < .01$, *** $p < .001$

〈표 IX-3-7〉 비혈연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오전		오후		
	시작	종료	구분	시작	종료
5시 이전	1.3	3.6	2시 이전	47.5	2.4
5~6시	-	-	2~3시	19.4	6.5
7~8시	70.4	-	4~5시	25.2	5.5
9~10시	28.2	38.6	6~7시	7.0	45.4
11~12시	-	57.8	8~9시	1.0	30.3
			10시 이후	-	10.0
계(수)	100.0(42)	100.0(42)	계(수)	100.0(61)	100.0(60)

4) 서비스 장소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에 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 집이 64.2%, 돌보는 사람의 집이 35.8%이며, 영아는 유아에 비해 아이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2004년에는 아이 집과 돌보는 사람의 집인 경우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아이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여 70%에 달하며, 이러한 경향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읍·면 지역이 63.6%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X-3-8〉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전체	2009년 조사	2004년 조사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아이 집	73.8	51.5	78.8	60.0	36.4	66.7	100.0	56.3	64.2	70.0	44.8
돌보는 사람 집	26.2	48.5	21.2	40.0	63.6	33.3	-	43.8	35.8	30.0	5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0)	(34)	(40)	(31)	(13)	(64)	(1)	(19)	(84)	(90)	(58)
$\chi^2(df)$	4.0(1)*		7.0(2)*			-					

* $p < .05$

5) 결근 및 대처 방법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개인 사정 등으로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거의 없다가 전체의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끔 있는 경우는 12.2%로 조사되었고, 가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이를 돌보는 비혈연 양육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부모 및 친인척에 부탁하는 경우 58%,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 42.0%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아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 지역인 경우와 취업모인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X-3-9 참조)

〈표 IX-3-9〉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시 대처

단위: %(명)

구분	결근 빈도			결근시 대처		
	가끔 있음	거의 없음	계(수)	부모가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	계(수)
전체	12.2	87.8	100.0(78)	42.0	58.0	100.0(13)
영유아구분						
영아	14.7	85.3	100.0(45)	60.0	40.0	100.0(8)
유아	9.7	90.3	100.0(33)	-	100.0	100.0(5)
지역규모						
대도시	16.0	84.0	100.0(34)	25.0	75.0	100.0(8)
중소도시	10.0	90.0	100.0(31)	33.3	66.7	100.0(4)
읍·면	9.1	90.9	100.0(13)	100.0	-	100.0(1)
모취업 여부						
취업	12.5	87.5	100.0(58)	28.6	71.4	100.0(10)
휴직중	-	100.0	100.0(1)	-	-	-
미취업	11.8	88.2	100.0(19)	100.0	-	100.0(3)

나. 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자녀를 돌보는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주로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전체의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8%,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2.8%, 부정기적으로 지불 1.4%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X-3-10 참조).

한편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2004년과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대부분 아이돌보미 사용자로 나타므로 해당 현상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비혈연 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은 대도시 지역, 그리고 취업 모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보육과 중복 이용하는 경우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29.3%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X-3-10〉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함	계(수)
전체	75.0	1.4	2.8	20.8	100.0(84)
영유아구분					
영아	85.0	2.5	2.5	10.0	100.0(50)
유아	62.5	-	3.1	34.4	100.0(34)
지역규모					
대도시	75.8	3.0	9.1	12.1	100.0(40)
중소도시	64.5	3.2	-	32.3	100.0(31)
읍·면	81.8	-	-	18.2	100.0(13)
모취업 여부					
취업	82.8	1.7	5.2	10.3	100.0(64)
휴직중	-	100.0	-	-	100.0(1)
미취업	41.2	-	-	58.8	100.0(19)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85.7	-	-	14.3	100.0(26)
혈연 보완	100.0	-	-	-	100.0(4)
기관 보완	65.9	2.4	2.4	29.3	100.0(45)
비혈연+혈연+기관	66.7	11.1	11.1	11.1	100.0(9)
2009년 조사	90.1	4.2	1.4	4.2	100.0(71)
2004년 조사	88.2	3.9	3.9	3.9	100.0(51)

2) 비용 수준

자녀를 돌보는 비혈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월 평균 579,600원으로 조사되었다(표 IX-3-11 참조).

서비스 제공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출부·가사도우미가 12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거 비혈연 약 78만원, 베이비시터 약 87만원, 이웃 보육모 약 52만원, 아이돌보미 약 38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제공자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비용 범위는 동거 비혈연인 경우는 80만원 이상이 49.8%이고, 아이돌보미는 10만원 이하가 다수로 46.3%를 차지하였으며, 베이비시터는 70~79만원이 64%이었다. 이웃 보육모는 비용 분포가 매우 넓은데 20~29만원이 27.2%로 가장 많았다.

지불 금액 수준을 가구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영아인 경우는 약 69만원으로 유아에 비해 높고, 대도시 지역은 약 75만원으로 이외 지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인 경우는 약 62만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표 IX-3-12 참조).

〈표 IX-3-11〉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동거 비혈연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파출부·가사 도우미	이웃보육모	기타	전체
10만원 이하	-	46.3	-	-	2.0	-	0.5
10-19만원 이하	-	13.6	5.2	-	9.2	-	2.3
20-29만원 이하	-	7.4	4.8	-	27.2	-	1.4
30-39만원 이하	-	-	-	-	4.7	100.0	0.3
40-49만원 이하	-	3.4	7.3	-	11.9	-	0.0
50-59만원 이하	-	-	5.8	-	12.9	-	3.1
60-69만원 이하	17.5	-	12.9	-	7.5	-	0.3
70-79만원 이하	32.7	17.0	64.0	-	7.0	-	0.9
80만원 이상	49.8	10.3	-	100.0	17.5	-	91.1
계(수)	100.0(6)	100.0(20)	100.0(14)	100.0(1)	100.0(25)	100.0(2)	100.0(68)
평균	78.1	38.1	86.8	120.0	52.1	31.0	58.0
표준편차	12.6	53.7	41.3	-	44.7	1.4	47.1
최고	100	180	146	120	160	32	180

〈표 IX-3-12〉 비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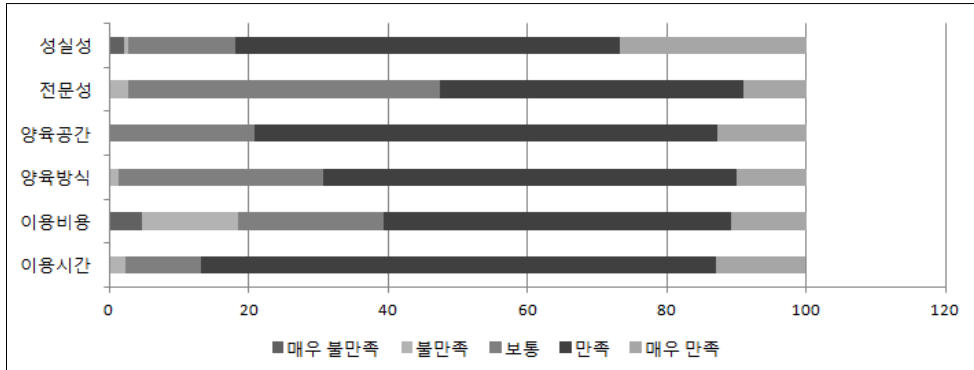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t/F	(수)
전체	57.96	47.12	180		(68)
영유아구분					
영아	69.45	49.61	180	2.5*	(44)
유아	35.73	35.73	130		(24)
지역규모					
대도시	75.01	48.79	180	4.7*	(36)
중소도시	46.29	45.54	160		(21)
읍·면	29.64	16.86	50		(11)
모취업 여부					
취업	61.47	46.16	180	1.2	(59)
휴직중	20.00	0	20		(1)
미취업	33.81	51.64	160		(8)

* $p < .05$

다. 만족도

현재 이용 중인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 이용시간, 이용 비용, 양육방식, 양육 공간, 전문성, 성실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림 IX-3-1]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표 IX-3-13>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t
이용시간								
전체	-	2.2	11.0	73.9	12.8	100.0(84)	3.97	
영아	-	2.4	12.2	70.7	14.6	100.0(50)	3.97	0.01
유아	-	3.0	9.1	78.8	9.1	100.0(34)	3.97	
이용비용								
전체	4.7	13.7	21.0	49.8	10.8	100.0(68)	3.48	
영아	-	19.4	22.2	47.2	11.1	100.0(44)	3.47	-0.1
유아	9.5	4.8	19.0	57.1	9.5	100.0(24)	3.51	
양육방식								
전체	-	1.4	29.3	59.4	10.0	100.0(84)	3.78	
영아	-	2.4	26.2	59.5	11.9	100.0(50)	3.84	0.9
유아	-	2.9	32.4	58.8	5.9	100.0(34)	3.71	
양육공간								
전체	-	-	20.8	66.5	12.7	100.0(84)	3.92	
영아	-	-	19.0	64.3	16.7	100.0(50)	3.98	1.9
유아	-	-	23.5	67.6	8.8	100.0(34)	3.85	
전문성								
전체	-	2.7	44.7	43.5	9.1	100.0(84)	3.59	
영아	-	4.9	43.9	39.0	12.2	100.0(50)	3.58	-0.1
유아	-	-	45.5	48.5	6.1	100.0(34)	3.60	
성실성								
전체	2.0	0.7	15.4	55.2	26.7	100.0(84)	4.04	
영아	-	2.4	11.9	61.9	23.8	100.0(50)	4.10	0.8
유아	3.0	-	21.2	45.5	30.3	100.0(34)	3.96	

전반적으로 각 항목에 따라 만족하는 비율은 심한 격차를 보여 전문성 부문은 52.6%로 가장 낮고, 이용 시간 부문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성실성 4.04점, 이용 시간 3.97점, 양육 공간 3.92점, 양육 방식 3.78점, 전문성 3.59점, 이용 비용 3.48점 순으로 나타나서, 비용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를 자녀 연령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차이 없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표. IX-3-13 참조).

<표 IX-3-14>는 제 특성별로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5점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읍·면 지역에서는 이용 시간과 이용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취업모인 경우는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이용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취업모 위주의 비용지원 강화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또한 이용 유형별로는 혈연, 비혈연, 기관 보육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용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X-3-1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공간	전문성	성실성	(수)
전체	3.97	3.48	3.78	3.92	3.59	4.04	(68)
지역규모							
대도시	3.95	3.32	3.74	3.96	3.46	4.17	(36)
중소도시	3.93	3.46	3.71	3.80	3.66	3.77	(21)
읍·면	4.17	4.05	4.08	4.13	3.78	4.39	(11)
F	0.8	1.9	1.5	1.4	1.1	3.4*	
모 취업여부							
취업	3.99	3.42	3.84	3.99	3.63	4.14	(59)
휴직중	3.00	3.00	2.00	3.00	2.00	2.00	(1)
미취업	3.94	4.01	3.61	3.71	3.51	3.76	(8)
F	0.8	1.0	3.0	2.2	1.5	3.3*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4.19	4.23	4.08	4.12	3.77	4.23	(26)
혈연 보완	3.75	3.50	3.75	3.75	3.75	3.75	(4)
기관 보완	3.91	4.58	3.78	3.96	3.62	4.18	(45)
비혈연+혈연+기관	3.78	3.22	3.33	3.56	3.22	3.22	(9)
F	0.1	1.4	3.3*	2.4	1.4	5.2**	

* $p < .05$, ** $p < .01$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혈연과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영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용 효과적 서비스이므로 특히 1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대상 지원 등이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영아의 비율이 유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단독 이용도 영아인 경우 혈연 특히 비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특히 0세아와 1세아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외에도 기관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 비율이 높아서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모 위주로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혈연 주 양육자로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특히 유아에 비해 영아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취업모의 경우 해당 비율은 35.8%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다. 따라서 취업모 대상으로 기관 미이용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종일제가 원칙인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이 명확히 준수되고, 야간보육 등 취약보육이 내실화가 요구된다. 서비스 중복 이용 여부에 의하면, 기관 보육과의 병행 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취업모인 경우 해당 비율은 더 높았다. 이는 취업모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의 다양화 등의 시도가 실효성이 낮음을 말해준다.

넷째, 개인양육서비스 지원은 취업모 위주로 하고, 비혈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급여액 수준은 현재의 양육수당 수준인 최대 20만원부터 고려해 볼 수 있다. 혈연과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모두에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모가 더 높고, 비혈연 서비스의 경우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은 약 75%에 달하며, 해당 평균 지급액은 월 58만원으로 혈연서비스에 비해 약 2배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 빈도는 비혈연 서비스가 보다 규칙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고 해당 비율은 취업모인 경우 더 높았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이 공인된 훈련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들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혈연과 비혈연 모두에서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양육 방식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또한 비혈연 주 양육자 중 보육교사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고, 공식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 자격소지자나 사설업체배 이비시터로서의 비율은 각각 22.3%, 15.8%에 불과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확보는 당면 과제로 인식된다.

X.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제10장에서는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시간제 학원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하고 아동이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하여 다니는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 이용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교과목 학습 이외에 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과 영유아교육 전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학습지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한 아동이 여러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아동도 있다.

1.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전체 미취학 아동의 20.4%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를 이용하는 아동은 30.5%로 시간제 학원보다는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교재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4.0%였고 예체능 개별지도는 0.7%였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교육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제1절에서는 전체 아동 중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특성 분포를 기술하였다.

가.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표 X-1-1>은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5세아는 48.5%로 거의 둘 중 한 명은 학원에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4세아는 25.1%, 3세아는 14.2%가 시간제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특이점은 1세 아동의 15.6%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들은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 0세도 7% 정도였다.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영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용 정도를 볼 수 있다. 시간제 학원은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으나,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지는 1세까지는 이용률이 8.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늘어나 5세 61.9%가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지는 도시지역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X-1-1〉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시간제 학원	학습지	예체능 개별지도	교재교구 개별 교육	인터넷 교육	(수)
전체	20.4	30.5	0.7	4.0	0.1	(3,343)
영유아구분						
영아	9.9	9.2	0.2	4.1	0.1	(1,802)
유아	31.1	52.0	1.3	4.0	0.1	(1,541)
연령						
0세	7.0	0.5	-	0.7	-	(802)
1세	15.6	8.5	0.2	5.2	0.2	(538)
2세	8.4	23.5	0.2	8.2	-	(462)
3세	14.2	42.4	0.2	4.9	-	(503)
4세	25.1	48.7	1.2	4.6	0.2	(556)
5세	48.5	61.9	2.3	2.7	0.2	(482)
지역규모						
대도시	23.9	31.2	0.8	5.3	0.1	(1,348)
중소도시	18.8	32.1	0.5	3.0	0.1	(1,325)
읍·면	15.1	25.4	0.9	3.1	0.2	(670)
모취업 여부						
취업	22.2	36.5	0.8	3.4	0.1	(1,056)
휴직중	12.4	22.8	-	7.6	0.7	(152)
미취업	20.2	28.2	0.7	4.2	0.1	(2,115)
부재 등	8.0	4.0	-		-	(20)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6.8	21.4	1.0			(98)
150~199만원	9.7	19.4	-	0.4	0.4	(245)
200~249만원	14.8	25.2	-	3.2	0.2	(416)
250~299만원	11.8	24.7	0.2	2.5	-	(537)
300~349만원	22.1	34.7	0.8	3.5	-	(511)
350~399만원	25.5	37.9	0.7	3.6	-	(280)
400~499만원	21.2	31.6	0.7	6.0	0.2	(525)
500~599만원	28.5	34.1	0.9	6.1	-	(350)
600~699만원	37.7	44.0	0.6	4.8	-	(153)
700만원이상	32.6	35.3	3.7	8.3	-	(225)

나.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반일제 기관 이용 비율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반일제 기관을 동시에 이용한다. 본 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45.2%, 유치원 이용 43.3%, 그리고 반일제 이상 학원은 5.8%가 이용하고 있었다.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5.2%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아였고 휴직 중인 어머니의 자녀인 경우가 많았다.

〈표 X-1-2〉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 안함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수)
전체	5.2	45.2	43.3	5.8	0.5	100.0(614)
영유아구분						
영아	25.5	72.6	1.9	-	-	100.0(167)
유아	1.6	40.3	50.7	6.9	0.6	100.0(447)
X ² (df)			260.5(4) ^{***}			
지역규모						
대도시	7.4	46.0	39.7	6.5	-	100.0(297)
중소도시	3.7	42.7	47.3	5.7	-	100.0(227)
읍·면	3.4	50.0	41.9	4.7	-	100.0(90)
X ² (df)			12.3(6)			
모취업 여부						
취업	2.7	48.9	43.8	4.4	0.2	100.0(195)
휴직중	8.8	52.9	26.6	8.8	2.9	100.0(18)
미취업	7.0	42.0	43.7	6.6	0.7	100.0(400)
부재 등	-	-	100.0	-	-	100.0(1)
X ² (df)			22.5(12) [*]			

* $p < .05$, *** $p < .001$

2.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가.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이용 수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의 수를 살펴보면, 시간제 학원을 이용 비율은 20.4% 정도이다. 이 중 학원 프로그램 1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15%이고 2개는 4.3%였으며, 3개 이상은 1.1% 정도였다(표 X-2-1 참조).

〈표 X-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전체	79.6	15.0	4.3	0.8	0.2	0.1	100.0(3,343)
영유아구분							
영아	90.1	7.7	2.0	0.1	0.1	-	100.0(1,802)
유아	68.9	22.4	6.7	1.5	0.2	0.2	100.0(1,541)
연령							
0세	93.0	5.7	1.1	0.1	-	-	100.0(802)
1세	84.4	12.1	3.3	0.2	-	-	100.0(538)
2세	91.6	6.0	1.9	-	0.4	-	100.0(462)
3세	85.8	10.7	3.2	0.2	0.2	-	100.0(503)
4세	74.9	19.8	4.0	1.0	-	0.2	100.0(556)
5세	51.5	33.5	11.4	2.9	0.5	0.3	100.0(482)
지역규모							
대도시	76.1	17.2	5.1	1.2	0.3	0.1	100.0(1,348)
중소도시	81.2	14.0	4.0	0.5	0.1	0.2	100.0(1,325)
읍·면	84.5	11.9	3.3	0.3	-	-	100.0(670)
모취업 여부							
취업	77.8	17.1	3.7	1.1	-	0.3	100.0(1,056)
휴직중	87.6	9.7	2.8	-	-	-	100.0(152)
미취업	79.8	14.3	4.9	0.8	0.2	-	100.0(2,115)
부재 등	92.0	8.0	-	-	-	-	100.0(20)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93.2	3.9	2.9	-	-	-	100.0(98)
150~199만원	90.3	7.5	1.9	0.4	-	-	100.0(245)
200~249만원	85.2	13.1	1.0	0.7	-	-	100.0(416)
250~299만원	88.2	10.3	1.6	-	-	-	100.0(537)
300~349만원	77.9	16.9	4.0	0.6	0.6	-	100.0(511)
350~399만원	74.5	19.8	5.4	0.4	-	-	100.0(280)
400~499만원	78.8	15.2	4.3	0.9	0.4	0.4	100.0(525)
500~599만원	71.5	19.3	8.1	1.2	-	-	100.0(350)
600~699만원	62.3	26.3	9.0	2.4	-	-	100.0(153)
700만원이상	67.4	18.2	10.2	3.4	0.4	0.4	100.0(225)

연령별로는 0세아의 7%, 1세아는 15.6%, 2세아는 8.4%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유아에 해당하는 3세는 14.2%, 4세는 25.1%, 5세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률은 4세부터 급격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1세 아동의 학원 이용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대부분 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나 5세의 경우는 2개가 11.4%, 3개가 2.9%로 이용 프로그램 수가 다양하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면 영아는 평균 90.1%가 학원을 이용하지 않으며 유아는 68.9%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읍·면지역일수록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진다. 대도시지역에서는 2개 프로그램이용이 5.1%, 3개도 1.2%로 조사되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2개가 3.3%, 3개는 0.3% 정도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휴직 중인 어머니의 경우가 학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취업모의 자녀가 1개 이상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22.2%로 가장 높았다. 취업모 자녀의 경우 1개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17.1%였고 2개는 3.7%, 3개는 1.1%였으며 미취업모의 경우 프로그램 2개를 이용하는 비율이 취업모 경우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149만원 이하 소득 가정의 6.8%가 학원을 이용하는데 비해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32.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준다. 학원 프로그램 이용 개수에 있어서도 낮은 소득 가구에서는 1개 이용에 그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프로그램 수도 많아지는데 7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경우 2개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 3개는 3.4%로 나타났다(표 X-2-1 참조).

나. 이용 프로그램 종류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전체적으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미술 32.0%, 음악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로는 시기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보이는데, 0세에는 영유아교육전문프로그램이 46.0%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에서는 체육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술은 2세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가 이후 연령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영어의 경우는 연령과 함께 급격히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지역별로는 이용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는 영유아교육전문 프로그램이 9.3%로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술이나 체육 프로그램 이용률에서도 중소도시와 함께 읍·면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체육프로그램 이용이 월등히 많고 영어도 9.5%로 도시지역 8.4%보다 이용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는 미취업모에 비해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이 11.2%로 상당히 높았고 미취업모는 미술 프로그램 이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로 영아를 양육하는 중일 것으로 추측되는 휴직중인 어머니의 경우는 영유아교육전문 프로그램 이용이 23.5%로 상당히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이용 경향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 수 있고, 저소득층은 특히 체육 프로그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학 프로그램에서 고소득층보다 비율이 조금 높았다. 한편 고소득 가정일수록 미술과 영어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149만원 이하 가구에서도 영어 이용률이나 영유아교육전문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자녀가 어리고 가정을 이룬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부부 가구이므로 취업 경력이 낮아 소득이 적은 경우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X-2-2〉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영유아교육전문	한자	영어	기타	(수)
전체	32.0	23.9	51.9	1.6	4.2	4.4	6.3	0.5	8.6	3.4	(592)
영유아구분											
영어	28.7	16.3	46.3	1.3	0.6	3.1	22.0	0.0	1.3	5.0	(162)
유아	33.0	26.4	53.8	1.7	5.2	5.0	1.0	0.6	11.0	2.9	(430)
연령											
0세	11.8	18.0	37.3	2.0	-	4.0	46.0	-	-	-	(58)
1세	30.1	13.7	49.3	1.4	-	2.8	13.7	-	1.4	11.1	(63)
2세	48.7	18.9	52.6	-	2.6	2.6	5.4	-	5.3	-	(41)
3세	46.5	12.9	45.8	1.4	2.9	5.8	1.4	-	7.2	5.8	(68)
4세	39.2	14.5	55.7	2.5	2.5	3.4	3.4	-	8.5	2.6	(149)
5세	27.4	34.1	54.8	1.4	7.2	5.2	-	1.0	12.5	2.4	(213)
지역규모											
대도시	32.3	20.8	51.6	1.8	2.4	3.6	9.3	-	8.4	3.9	(292)
중소도시	34.0	27.3	48.5	1.3	6.7	7.6	3.1	0.9	8.4	2.2	(215)
읍·면	24.4	27.2	63.1	1.3	3.7	-	2.5	-	9.5	6.1	(85)
모 취업여부											
취업	28.1	26.5	51.2	0.9	4.4	6.5	3.5	1.3	11.2	4.5	(179)
휴직중	35.3	-	23.5	5.6	5.9	5.9	23.5	-	5.9	5.9	(17)
미취업	34.0	23.4	53.7	1.8	3.8	3.3	6.9	-	6.9	3.4	(380)
부재 등	-	-	-	-	-	-	-	-	-	100.0	(1)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50.0	-	14.3	-	-	-	57.1	-	14.3	-	(8)
150~199만원	23.1	26.9	68.2	-	-	-	7.7	-	-	7.7	(20)
200~249만원	15.5	29.3	43.3	1.7	5.2	12.1	3.4	-	1.7	10.0	(56)
250~299만원	24.1	6.9	63.9	1.7	5.1	5.1	8.5	-	-	-	(59)
300~349만원	27.5	29.1	46.5	4.0	5.0	1.0	7.0	-	11.0	2.0	(92)
350~399만원	29.7	25.4	60.3	1.6	1.6	3.2	6.3	-	4.7	1.6	(56)
400~499만원	35.8	18.3	48.6	-	6.8	9.6	6.8	1.9	16.2	3.9	(95)
500~599만원	40.7	26.7	47.5	-	3.3	-	5.6	-	13.3	2.2	(87)
600~699만원	31.1	37.9	50.8	5.1	1.7	1.7	1.7	-	5.1	1.7	(50)
700만원이상	44.6	19.7	59.2	1.3	3.9	5.3	3.9	-	10.4	5.3	(68)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

시간제 학원의 주당 이용 시간은 1~2시간이 4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5~6시간 33.6%, 3~4시간 10.9% 순이었다. 9시간 이상도 8.7%로 상당한 비율을 보이며 특히 5세 아동은 15%가 9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3〉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주당 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이상	계(수)	평균
전체	41.8	10.9	33.6	5.1	8.7	100.0(614)	4.03
영유아구분							
영아	92.2	4.8	3.0	-	-	100.0(167)	1.44
유아	25.7	12.9	43.2	6.8	11.4	100.0(447)	4.86
$X^2(df)$			231.3(4) ^{***}				
연령							
0세	96.2	3.8	-	-	-	100.0(59)	1.24
1세	98.7	1.3	-	-	-	100.0(66)	1.26
2세	74.4	12.8	12.8	-	-	100.0(42)	2.05
3세	65.3	6.9	23.6	2.8	1.4	100.0(69)	2.78
4세	32.8	18.4	32.0	8.8	8.0	100.0(153)	4.24
5세	13.8	11.9	52.4	6.9	15.0	100.0(225)	5.59
지역규모							
대도시	48.6	13.0	27.5	4.9	6.1	100.0(297)	3.51
중소도시	39.5	10.5	38.7	2.4	8.9	100.0(227)	4.14
읍·면	21.1	5.6	43.3	12.2	17.8	100.0(90)	5.74
$X^2(df)$			49.5(8) ^{***}				
모취업 여부							
취업	28.6	11.7	40.3	6.0	13.3	100.0(195)	4.81
휴직중	82.4	-	17.6	-	-	100.0(18)	2.08
미취업	48.0	11.3	29.7	4.8	6.2	100.0(400)	3.65
부재 등	-	-	100.0	-	-	100.0(1)	5.00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57.1	14.3	28.6	-	-	100.0(8)	2.92
150~199만원	26.9	3.8	42.3	-	26.9	100.0((23)	6.07
200~249만원	50.8	6.6	39.3	-	3.3	100.0(57)	3.24
250~299만원	43.5	12.9	33.9	6.5	3.2	100.0(59)	3.63
300~349만원	48.6	12.4	36.2	1.0	1.9	100.0(96)	3.15
350~399만원	46.5	11.3	33.8	-	8.5	100.0(60)	3.61
400~499만원	34.5	12.4	36.3	6.2	10.6	100.0(102)	4.36
500~599만원	44.9	10.2	29.6	4.1	11.2	100.0(88)	4.35
600~699만원	37.1	6.5	21.0	21.0	14.5	100.0(52)	4.87
700만원이상	33.8	14.3	33.8	7.8	10.4	100.0(68)	4.44

*** $p < .001$

이용시간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0세나 1세는 주당 4시간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5세의 경우 주당 1~2시간 이용하는 경우는 13.8%에 지나지 않았다. 영유아로만 구분해 보면 영아는 92.2%가 1~2시간을 이용하는데 반해 유아는 43.2%가 5~6시간을, 3~4시간을 12.9%가 이용하여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1~2시간, 또는 3~4시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에서는 5~6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읍·면에서 9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17.8%나 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장시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영아 부모가 대다수일 휴직중 어머니의 경우는 1~2시간 이용이 월등히 많았다. 가구소득 별 비교에서는 뚜렷한 일관성을 보기 어려우나 학원 1개만 이용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X-2-3 참조).

라. 시간제 학원 이용 비용

1)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 비용

각 학원 프로그램별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137,8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았고 다음은 음악 80,000원, 체육 79,000원, 수학 77,300원 등의 순이었다(표 X-2-4 참조).

〈표 X-2-4〉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표준편차)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미술	54.2	72.7	34.0	42.2	74.6	61.3	71.7	78.0	68.5(37.4)	(202)
음악	48.7	86.2	55.8	28.9	67.4	33.1	77.0	92.1	80.0(32.7)	(120)
체육	44.3	88.6	39.8	43.8	49.6	68.7	76.6	97.4	79.0(45.5)	(305)
과학	66.6	34.5	33.0	130.0	30.0	33.0	27.4	39.1	40.9(28.1)	(12)
수학	160.0	74.5	-	-	160.0	113.1	108.8	66.4	77.3(50.2)	(25)
언어	40.7	63.6	34.0	39.0	60.0	12.4	83.7	73.7	59.5(49.2)	(20)
교육관련	44.8	26.8	39.8	60.3	30.8	28.0	26.5	-	42.7(26.8)	(44)
한자	-	30.0	-	-	-	-	-	30.0	30.0(-)	(2)
영어	231.8	133.5	-	40.0	320.0	121.5	123.2	138.0	137.8(109.3)	(44)
기타	55.0	52.0	-	55.0	-	45.3	41.6	60.5	53.1(36.8)	(23)

영어의 경우 2세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20,000원이었고 5세 아동은 138,000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과목별 비용은 연령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특히 미술이나 음악, 체육 등 예체능 분야의 비용은 아동 연령에 따라 큰 폭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시간제 학원 이용 비용

<표 X-2-5>는 시간제 학원의 이용 비용을 조사한 표이다. 시간제 학원의 이용 비용은, 10~15만원 미만인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5~10만원 미만 28.8%, 5만원 미만이 25.6%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 보면 영아 65.3%가 5만원 미만의 비용이 들었으나 유아 32.8%가 5~10만원 미만, 35.7%가 10~15만원 미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비용 지출이 아동 연령에 따라 높아짐을 확연히 볼 수 있다. 5세아의 경우 15~20만원 미만이 10.3%, 20~30만원 미만이 6.9%, 30만원 이상이 5.6%로 나타나 고비용 학원 이용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학원 비용이 5만원 이하 또는 5~10만원 미만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고, 읍·면지역은 10~15만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만원 이상은 중소도시에서 1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는 38.9%가 10~15만원의 비용을 내고 학원을 다니고 5~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32.4%로 상당히 높았다. 미취업모는 5만원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15만원 이상 고비용 학원은 오히려 모 미취업 가정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므로 모 미취업 가정은 그 내에서 양극적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추측된다. 가구소득별로는 학원 비용 5만원 이하의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율이 낮아지고 15만원 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시간제 학원의 비용을 프로그램 종류별로 지역, 모취업 여부 등에 비추어 비교해 보면, 미술의 경우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77,200원을,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64,2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표 X-2-6 참조).

<표 X-2-7>은 가구소득 구간별로 학원 과목별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사례수가 소수인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비용이 다소 높으나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X-2-5〉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 원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5.6	28.8	30.3	7.0	4.8	3.5	100.0(614)	99.72
영유아구분								
영아	65.3	15.6	13.8	3.0	1.2	1.2	100.0(167)	61.14
유아	12.7	32.8	35.7	8.5	6.0	4.2	100.0(447)	112.22
X ² (df)			184.2(5) ^{***}					
연령								
0세	74.5	15.7	7.8	2.0	-	-	100.0(59)	47.56
1세	73.0	14.9	9.5	1.4	1.4	-	100.0(66)	53.58
2세	42.5	17.5	27.5	5.0	2.5	5.0	100.0(42)	93.39
3세	31.5	31.5	30.1	5.5	1.4	-	100.0(69)	77.80
4세	23.0	33.3	28.6	5.6	6.3	3.2	100.0(153)	96.47
5세	4.4	33.1	39.7	10.3	6.9	5.6	100.0(225)	126.23
지역규모								
대도시	28.5	30.5	25.4	8.4	3.5	3.7	100.0(297)	97.01
중소도시	24.7	25.1	34.4	4.5	7.3	4.0	100.0(227)	104.89
읍·면	17.8	31.1	38.9	8.9	3.3	-	100.0(90)	96.66
X ² (df)			23.4(10) ^{**}					
모취업 여부								
취업	15.8	32.4	38.9	4.5	5.3	3.2	100.0(195)	103.90
휴직중	25.0	43.8	31.3	-	-	-	100.0(18)	79.67
미취업	31.7	26.2	25.0	8.9	4.6	3.6	100.0(400)	98.2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8.6	-	57.1	-	14.3	-	100.0(8)	112.43
150~199만원	34.6	3.8	42.3	19.2	-	-	100.0(23)	90.88
200~249만원	38.7	35.5	22.6	-	3.2	-	100.0(57)	68.57
250~299만원	33.9	33.9	25.8	3.2	3.2	-	100.0(59)	74.84
300~349만원	41.9	31.4	16.2	8.6	1.0	1.0	100.0(96)	76.96
350~399만원	28.6	34.3	22.9	5.7	7.1	1.4	100.0(60)	91.53
400~499만원	22.1	22.1	39.8	6.2	5.3	4.4	100.0(102)	107.33
500~599만원	15.2	26.3	40.4	8.1	4.0	6.1	100.0(88)	121.44
600~699만원	6.5	48.4	30.6	9.7	3.2	1.6	100.0(52)	104.45
700만원 이상	15.8	18.4	34.2	7.9	13.2	10.5	100.0(68)	142.39

** $p < .01$, *** $p < .001$

<표 X-2-6>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미술	평균 (수)	67.5 (99)	69.5 (77)	70.0 (26)	77.2 (64)	72.5 (5)	64.2 (133)	68.5 (202)
음악	평균 (수)	82.6 (57)	73.6 (48)	89.6 (15)	83.9 (46)	- (-)	77.4 (74)	80.0 (120)
체육	평균 (수)	76.9 (138)	82.1 (113)	79.5 (54)	81.3 (94)	60.6 (4)	78.1 (207)	79.0 (305)
과학	평균 (수)	42.6 (7)	31.8 (3)	51.2 (2)	42.8 (3)	10.0 (1)	42.5 (8)	40.9 (12)
수학	평균 (수)	69.3 (8)	83.0 (13)	69.3 (4)	66.6 (8)	180.9 (2)	77.9 (15)	77.3 (25)
언어	평균 (수)	44.9 (11)	69.5 (9)	- (-)	80.5 (7)	159.8 (2)	29.9 (11)	59.5 (20)
교육 관련	평균 (수)	45.8 (31)	32.8 (10)	29.8 (3)	64.5 (6)	46.9 (4)	35.7 (34)	42.7 (44)
한자	평균 (수)	30.0 (1)	30.0 (1)	- (-)	30.0 (2)	- (-)	- (-)	30.0 (2)
영어	평균 (수)	126.4 (24)	177.7 (13)	79.5 (7)	96.1 (21)	100.0 (1)	179.8 (22)	137.8 (44)
기타	평균 (수)	52.3 (12)	60.1 (6)	48.0 (5)	49.2 (8)	43.0 (1)	49.2 (13)	53.1 (23)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월 평균 이용 비용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각 종류별로 30,000원에서 137,800원까지 다양하며 주당 프로그램 이용시간은 최하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차이를 보인다.²⁹⁾

<표 X-2-8>는 이용시간 당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시간당 비용이 가장 비싼 학원은 과학 프로그램 학원으로 시간당 40,900원이었고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비용이 낮은 학원 프로그램은 20,000원으로 조사된 음악이었고 다음은 21,900원인 체육, 29,800원인 언어 등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시간당 35,300원이지만 교육 빈도가 가장 많으므로 전체 비용은 가장 높다.

비용 만족도는 수학이 5점 만점에 4.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미술과 체육, 음악이 모두 4.0으로 상위권의 만족도를 보였다(표. X-2-8 참조).

29) 여기서의 시간은 60분 1시간 개념이라기보다는 빈도를 나타내며, 실제 활동 시간은 불확실함.

〈표 X-2-7〉 가구소득별 시간제 학원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149만원 이하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전체
	미술 평균(수)	114.3 (3)	62.2 (6)	37.4 (10)	68.3 (14)	55.1 (29)	76.9 (17)	65.7 (41)	73.3 (31)	70.8 (21)	75.7 (29)
음악 평균(수)	-	84.8 (3)	74.2 (14)	83.1 (5)	69.7 (21)	90.8 (12)	79.3 (16)	65.5 (20)	91.6 (15)	99.5 (14)	80.0 (120)
체육 평균(수)	108.6 (2)	88.9 (12)	71.3 (28)	67.4 (35)	58.9 (46)	63.2 (32)	86.5 (47)	84.3 (43)	79.7 (23)	108.7 (36)	79.0 (305)
과학 평균(수)	-	30.0 (1)	20.0 (1)	33.0 (1)	36.7 (2)	109.4 (2)	-	23.0 (1)	42.1 (3)	10.0 (1)	40.9 (12)
수학 평균(수)	-	-	70.0 (1)	68.0 (4)	89.6 (4)	120.0 (1)	47.3 (7)	97.3 (3)	55.0 (1)	107.2 (4)	77.3 (25)
언어 평균(수)	-	-	16.4 (4)	58.6 (3)	20.0 (1)	40.0 (2)	104.9 (5)	100.0 (1)	50.0 (1)	46.3 (3)	59.5 (20)
교육 평균(수)	30.4 (4)	31.6 (2)	36.2 (3)	32.9 (7)	32.0 (6)	34.4 (4)	53.9 (7)	56.7 (7)	50.0 (1)	64.0 (3)	42.7 (44)
한자 평균(수)	-	-	-	-	-	-	30.0 (1)	-	-	30.0 (1)	30.0 (2)
영어 평균(수)	125.0 (1)	-	40.0 (1)	200.0 (1)	83.9 (9)	170.3 (2)	92.6 (13)	239.2 (8)	163.0 (2)	138.4 (7)	137.8 (44)
기타 평균(수)	-	-	65.5 (5)	-	40.0 (1)	120.0 (1)	45.5 (3)	93.6 (4)	39.3 (3)	42.9 (4)	53.1 (23)

〈표 X-2-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비교

단위: 천원, 시간, 점

구분	월평균 이용비용(A)		주당 이용시간(B)		이용시간대비 비용(A/B)	비용만족도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	68.5	37.4	2.2	1.6	31.1	4.0(0.6)
음악	80.0	32.7	4.0	2.4	20.0	4.0(0.5)
체육	79.0	45.5	3.6	2.1	21.9	4.0(0.6)
과학	40.9	28.1	1.0	0.1	40.9	3.5(1.0)
수학	77.3	50.2	2.5	1.6	30.9	4.1(0.6)
언어	59.5	49.2	2.0	1.4	29.8	3.9(0.4)
영유아교육전문	42.7	26.8	1.1	0.4	38.8	3.7(0.7)
한자	30.0	-	1.0	-	30.0	3.2(0.4)
영어	137.8	109.3	3.9	3.8	35.3	3.9(0.6)
기타	53.1	36.8	3.3	5.6	16.1	4.0(0.7)

마. 시간제 학원 이용 만족도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보면 소수의 응답자가 있는 영유아 교육, 한자, 영어,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3.5~4.1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수학의 만족도가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 비율도 87.2%로 가장 높았다.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4.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과학의 경우 만족도 낮음이 23.3%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X-2-9〉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표준편차)	계(수)
미술	0.9	0.1	15.8	68.9	14.3	4.0(0.6)	100.0(202)
음악	-	-	16.6	70.5	13.0	4.0(0.5)	100.0(120)
체육	0.2	0.5	15.4	70.5	13.4	4.0(0.6)	100.0(305)
과학	-	23.3	16.2	48.6	11.9	3.5(1.0)	100.0(12)
수학	-	-	12.8	61.9	25.3	4.1(0.6)	100.0(25)
언어	-	-	12.0	86.7	1.4	3.9(0.4)	100.0(20)
영유아교육전문	-	-	45.4	38.9	15.7	3.7(0.7)	100.0(3)
한자	-	-	84.5	15.5	-	3.2(0.4)	100.0(3)
영어	1.8	-	16.1	72.4	9.7	3.9(0.6)	100.0(1)
기타	-	-	19.5	58.7	21.7	4.0(0.7)	100.0(3)

〈표 X-2-10〉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영유아교육전문	한자	영어	기타	(수)
전체	4.0	4.0	4.0	3.5	4.1	3.9	3.7	3.2	3.9	4.0	(592)
영유아구분											
영아	4.2	3.9	4.0	3.4	4.0	3.7	3.7	-	4.0	4.2	(162)
유아	3.9	4.0	4.0	3.5	4.1	3.9	4.0	3.2	3.9	3.9	(430)
t	2.7	-0.4	-0.2	-0.2	-	-1.1	-1.1	-	0.3	1.1	
연령											
0세	4.1	4.0	3.7	3.0	-	3.3	3.6	-	-	-	(58)
1세	4.2	3.9	4.0	3.0	-	4.0	3.6	-	4.0	4.2	(63)
2세	4.2	3.9	4.1	5.0	4.0	4.0	4.7	-	4.0	-	(41)
3세	4.0	4.0	4.1	4.0	4.0	4.0	4.0	-	4.0	4.0	(68)
4세	3.8	3.9	3.9	4.3	4.5	3.6	4.1	-	4.1	3.7	(149)
5세	3.9	4.0	4.0	2.9	4.1	4.0	-	3.2	3.8	4.0	(213)
F	7.5**	0.1	-	-	-	1.2	1.1	-	0.1	1.1	

(표 X-2-10 계속)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영유아교육전문	한자	영어	기타	(수)
지역규모											
대도시	3.9	3.9	4.0	3.3	3.9	3.8	3.6	4.0	3.9	4.1	(292)
중소도시	4.0	4.0	3.9	3.7	4.1	3.9	3.9	3.0	3.8	3.6	(215)
읍·면	3.9	4.0	3.8	4.0	4.8	-	4.6	-	3.9	4.2	(85)
F	0.6	0.6	3.5*	0.3	2.7#	0.8	2.7#	0.1	1.1	-	
모취업여부											
취업	3.9	4.0	3.9	4.0	3.8	3.9	3.1	3.2	4.0	3.9	(179)
휴직중	4.2	-	4.0	4.0	4.0	4.5	3.8	-	4.0	3.0	(17)
미취업	4.0	4.0	4.0	3.3	4.3	3.9	3.8	-	3.8	4.3	(380)
F	0.3	-	0.7	0.4	2.2	1.2	3.1#	-	0.9	2.1	

$p < .1$, * $p < .05$, ** $p < .01$

<표 X-2-10>은 특성별 각 과목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별 차이는 미술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연령이 낮은 아동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수학과 영어전문가관이 유의한데 모두 읍·면이 도시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모취업여부 별로는 휴직 중과 미취업모의 만족도가 취업모 만족도보다 높은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개별교육 이용과 비용

1) 개별교육 이용 현황

학습지, 개별, 그룹 교육 지도를 받는 아동 중 교육서비스의 형태 등 이용 현황을 보면, 학습지를 이용하는 비율을 91.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예체능 교육은 1.4%,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13.9%였으며 인터넷 교육은 0.4%에 지나지 않았다. 각 교육서비스별로 이용하고 있는 수를 살펴보면 학습지는 평균 1.5개를 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의 주된 교육형태는 학습지의 경우 개인이 98.1%, 그룹이 1.7% 등이었고 예체능 교육의 경우는 개인이 74.6%이고 그룹 지도가 25.4%로 상당히 높았다. 교재교구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이 90.3%, 그룹은 9.4%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비용을 보면 예체능 프로그램이 77,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교재교구 프로그램은 72,800원, 학습지는 평균 60,700원이었다(표 X-3-1 참조).

〈표 X-3-1〉 개별 교육 이용 현황

단위: %(명), 개, 천원

구분	이용 비율	이용 평균 개수	주된 형태			월평균비용	계(수)
			개인	그룹	개인+그룹		
학습지	91.6	1.5	98.1	1.7	0.2	60.7	100.0(962)
예체능	1.4	0.1	74.6	25.4		77.7	100.0(16)
교재교구	13.9	0.1	90.3	9.4	0.4	72.8	100.0(132)
인터넷교육	0.4	-	100.0	-	-	44.4	100.0(7)

<표 X-3-2>는 제 특성별 각 교육서비스 유형 이용률을 나타낸다. 연령별로 보면, 교육 지도를 받는 0세 아동 중 44.4%는 학습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2.5%는 교재교구 교육을 받고 있었다. 1세가 되면 교재교구 교육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학습지 이용이 65.7%로 늘어나며 1.6%는 인터넷 교육을 받고, 2세가 되면 81.5%가 학습지를 하고 예체능도 0.8%로 시작된다. 3세 이상은 학습지 이용 비율이 94~96.7%까지 높아지고 예체능 교육 비율로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표 X-3-2〉 제 특성별 개별 교육 이용 유무

단위: %(명)

구분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	인터넷교육	(수)
전체	91.6	1.5	13.9	0.4	(1,057)
영유아구분					
영아	75.1	0.5	35.0	0.5	(206)
유아	95.3	1.7	8.9	0.4	(851)
연령					
0세	44.4	-	62.5	-	(13)
1세	65.7	-	32.8	1.6	(69)
2세	81.5	0.8	33.9	-	(124)
3세	94.0	-	12.1	-	(226)
4세	94.6	1.3	11.4	0.4	(311)
5세	96.7	2.6	5.7	0.5	(314)
지역규모					
대도시	88.2	1.6	16.2	0.6	(447)
중소도시	96.2	0.5	11.4	0.3	(417)
읍·면	90.2	2.7	12.9	0.7	(193)
모취업 여부					
취업	93.0	1.6	10.5	0.3	(395)
휴직중	91.7	2.9	33.3	3.0	(33)
미취업	90.6	1.3	15.0	0.5	(627)
부재 등	100.0	-	-	-	(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학습지 비율이 96.2%로 가장 높고, 대도시는 교재교구 활동 비율, 예체능은 읍·면에서 지도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학습지나 예체능에서 더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교재교구 이용 교육에서는 미취업모가 비율이 높았다. 교재교구 교육은 주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취업모가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X-3-2 참조).

〈표 X-3-3〉 개별 교육 이용

구분								단위: %(명)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계(수)
전체	66.2	15.5	13.5	3.6	0.6	0.4	0.1	100.0(3,343)
영유아구분								
영아	87.5	8.9	3.2	0.4	-	-	-	100.0(1,802)
유아	45.0	22.3	23.8	6.8	1.2	0.9	0.1	100.0(1,541)
$X^2(df)$	772.0(6) ^{***}							
연령								
0세	98.8	1.2	-	-	-	-	-	100.0(802)
1세	86.3	12.7	0.8	0.2	-	-	-	100.0(538)
2세	71.1	17.0	10.6	1.3	-	-	-	100.0(462)
3세	54.2	27.1	14.8	2.4	1.0	0.6	-	100.0(503)
4세	47.8	23.4	21.6	5.2	0.8	1.0	0.2	100.0(556)
5세	35.8	17.6	32.4	11.5	1.7	1.1	-	100.0(482)
지역규모								
대도시	64.1	18.6	12.3	4.0	0.6	0.3	0.1	100.0(1,348)
중소도시	66.2	13.5	15.6	3.5	0.6	0.6	-	100.0(1,325)
읍·면	72.1	12.5	11.6	2.8	0.7	0.3	-	100.0(670)
모취업 여부								
취업	60.5	17.7	16.0	4.9	0.4	0.5	-	100.0(1,056)
휴직중	75.3	13.7	9.6	0.7	-	0.7	-	100.0(152)
미취업	68.4	14.7	12.5	3.1	0.8	0.4	-	100.0(2,115)
부재 등	96.0	-	4.0	-	-	-	-	100.0(20)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75.5	16.3	6.1	2.0	-	-	-	100.0(98)
150~199만원	80.8	10.2	6.1	2.9	-	-	-	100.0(245)
200~249만원	74.5	13.5	9.2	2.2	0.5	0.2	-	100.0(415)
250~299만원	76.0	11.2	10.2	2.2	0.4	-	-	100.0(537)
300~349만원	66.9	19.4	11.4	2.0	0.2	0.2	-	100.0(511)
350~399만원	62.1	16.4	16.8	2.1	1.4	1.1	-	100.0(280)
400~499만원	63.8	18.7	12.6	4.4	0.4	0.2	-	100.0(525)
500~599만원	63.7	19.7	10.9	4.0	1.4	0.3	-	100.0(350)
600~699만원	54.9	20.9	19.0	3.3	1.3	0.7	-	100.0(153)
700만원이상	60.9	20.0	10.2	7.1	0.4	1.3	-	100.0(225)

*** $p < .001$

2) 이용 비용

가) 아동 연령별 개별교육 이용 비용

개별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보면, 학습지의 경우 평균 58,600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예체능 프로그램 지도는 이보다 높은 81,300원, 교재교구 이용 교육프로그램은 75,800원,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는 월 40,400원이 소요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갈수록 지불 비용 또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아의 경우 평균 43,700원의 비용이 들고 유아는 61,400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왔다. 예체능은 4, 5세 유아만 개별교육 비용이 산출되었는데 4세가 오히려 비용이 높았다. 교재교구 이용 교육의 경우는 연령과 비용은 일관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영아가 유아보다 약간 많았으며, 인터넷 교육은 5세 아동의 경우 75,000원을 지불하여 4세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높았다(표 X-3-5 참조).

〈표 X-3-5〉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학습지	평균 (수)	43.7 (152)	61.4 (810)	42.5 (6)	40.2 (47)	45.5 (99)	52.1 (211)	60.9 (296)	68.3 (303)	58.6(36.5) (962)
예체능	평균 (수)	- (1)	86.7 (15)	- (-)	- (-)	- (1)	- (1)	108.3 (6)	81.3 (8)	81.3(47.6) (16)
교재 교구	평균 (수)	78.2 (63)	73.7 (69)	46.6 (7)	91.5 (22)	76.2 (34)	81.4 (22)	69.2 (28)	71.4 (19)	75.8(41.3) (132)
인터넷 교육	평균 (수)	30.0 (1)	42.2 (6)	- (-)	30.0 (1)	- (-)	- (-)	9.3 (3)	75.0 (3)	40.4(63.8) (7)

나) 부모 및 가구특성별 개별교육 이용 비용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불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5만원 미만이 44.7%, 5~10만원이 38.7%, 10~15만원이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영아의 경우는 86.8%가 10만원 미만이었고 유아의 경우는 82.5%가 10만원 미만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2.3%는 월 20만원 이상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낮은 비용으로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X-3-6 참조).

〈표 X-3-6〉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이상	계(수)	평균
전체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89
영유아구분								
영아	52.7	34.1	9.8	2.9	0.5	-	100.0(205)	57.04
유아	42.8	39.7	12.1	3.1	1.9	0.4	100.0(848)	67.91
연령								
0세	46.2	53.8	-	-	-	-	100.0(13)	45.09
1세	54.4	29.4	11.8	4.4	-	-	100.0(68)	58.49
2세	52.4	34.7	9.7	2.4	0.8	-	100.0(124)	57.16
3세	57.3	32.0	7.1	1.8	1.3	0.4	100.0(225)	60.85
4세	43.2	39.0	12.3	3.2	1.9	0.3	100.0(310)	66.49
5세	31.9	46.0	15.7	3.8	2.2	0.3	100.0(313)	72.64
지역규모								
대도시	48.2	34.1	12.8	3.1	1.6	0.2	100.0(446)	63.81
중소도시	42.1	42.1	11.1	3.1	1.4	0.2	100.0(416)	68.00
읍·면	42.4	41.9	10.5	2.6	2.1	0.5	100.0(191)	66.72
모취업 여부								
취업	42.4	39.1	14.0	2.8	1.8	-	100.0(394)	65.25
휴직중	48.5	39.4	6.1	3.0	-	3.0	100.0(33)	66.44
미취업	46.0	38.3	10.6	3.2	1.6	0.3	100.0(624)	66.30
부재 등	50.0	50.0	-	-	-	-	100.0(2)	60.4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70.8	25.0	4.2	-	-	-	100.0(24)	38.43
150~199만원	55.6	33.3	11.1	-	-	-	100.0(47)	49.07
200~249만원	47.8	33.6	14.2	3.5	0.9	-	100.0(107)	59.73
250~299만원	52.6	30.1	13.5	3.8	-	-	100.0(129)	60.33
300~349만원	48.6	39.9	9.8	1.6	-	-	100.0(169)	57.69
350~399만원	37.5	45.5	11.6	3.6	1.8	-	100.0(106)	69.28
400~499만원	33.7	48.0	11.2	3.6	2.6	1.0	100.0(190)	73.08
500~599만원	42.8	29.0	16.7	10.1	1.4	-	100.0(127)	72.38
600~699만원	24.4	55.1	15.4	-	5.1	-	100.0(69)	73.95
700만원 이상	22.9	55.2	13.5	7.3	1.0	-	100.0(88)	77.86

가구소득별로는 뚜렷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득 149만원 이하는 70.8%가 5만원 미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정은 22.9%만이 5만원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개별교육 형태 중 학습지의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 대도시에서는 58,300원이고 중

소도시는 63,200원, 읍·면은 61,000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학습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체능 교육은 대도시가 76,500원, 중소도시가 72,600원인데 비해 읍·면은 82,300원으로 읍·면지역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도 차이를 볼 수 있다(표 X-3-7, 표 X-3-8 참조).

〈표 X-3-7〉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학습지	평균 (수)	58.3 (398)	63.2 (393)	61.0 (171)	62.9 (365)	51.0 (29)	59.8 (566)	60.4 (2)	58.6 (962)
예체능	평균 (수)	76.5 (6)	72.6 (3)	82.3 (7)	75.6 (6)	50.0 (1)	81.5 (9)	-	81.3 (16)
교재	평균 (수)	72.6 (64)	70.3 (42)	79.2 (26)	63.8 (41)	48.1 (7)	79.7 (84)	-	75.8 (132)
인터넷 교육	평균 (수)	64.2 (3)	13.3 (2)	2.4 (2)	2.4 (2)	116.5 (2)	31.9 (3)	-	40.4 (7)

〈표 X-3-8〉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149만원 이하	150~ 199만원	200~ 249만원	250~ 299만원	300~ 349만원	35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 699만원	700만원 이상	
	학습지	평균 (수)	40.1 (23)	49.7 (52)	57.4 (104)	54.3 (130)	54.4 (166)	64.9 (105)	64.6 (171)	69.4 (122)	68.4 (73)
예체능	평균 (수)	- (1)	- (1)	- (1)	60.00 (1)	100.00 (1)	76.79 (2)	70.4 (2)	90.0 (1)	100.00 (1)	88.5 (7)
교재	평균 (수)	- (1)	40.0 (1)	55.6 (13)	83.3 (11)	68.4 (21)	71.7 (10)	89.5 (34)	69.5 (22)	63.0 (11)	63.9 (19)
인터넷 교육	평균 (수)	- (1)	30.0 (1)	- (1)	- (1)	5.0 (1)	- (1)	180.0 (1)	45.0 (1)	- (1)	23.0 (1)

3) 개별교육 이용 만족도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교육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을 보면, 학습지 72.7%, 예체능 83.7%, 교재교구 교육 89.6%, 인터넷교육 71.2%가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교재교구나 학습지에 대해 2.8%는 만족도가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X-3-9〉 개별 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구분						단위: %(명)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평균(SD)	계(수)
학습지	0.3	2.5	24.5	67.4	5.3	3.7(0.6)	100.0(962)
예체능	-	-	16.3	78.6	5.1	3.8(0.4)	100.0(16)
교재교구	-	2.8	7.6	82.5	7.1	3.9(0.5)	100.0(132)
인터넷교육	-	-	28.8	38.8	32.4	3.7(0.8)	100.0(7)

개별교육의 만족도는 연령별 비교에서 5세와 0, 1세 아동의 가정으로부터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응을 보였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X-3-10〉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명)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	인터넷교육	(수)
전체	3.8	3.9	4.0	3.8	(1,057)
영유아구분					
영아	3.8	4.0	3.9	5.0	(206)
유아	3.7	3.8	3.9	3.5	(851)
t	1.7 [#]	-	0.1	-	
연령					
0세	4.0	-	3.6	-	(13)
1세	3.8	-	3.8	5.0	(69)
2세	3.8	4.0	4.1	-	(124)
3세	3.7	4.0	4.0	-	(226)
4세	3.7	3.6	4.0	3.7	(311)
5세	3.7	3.9	3.6	3.5	(314)
F	0.8	0.4	3.7 ^{**}	2.0	
지역규모					
대도시	3.7	3.8	3.9	4.3	(447)
중소도시	3.7	3.8	4.0	3.5	(417)
읍·면	3.8	3.9	4.0	3.5	(193)
F	1.8	0.0	1.2	0.2	

(표 X-3-10 계속)

구분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	인터넷교육	(수)
모취업 여부					
취업	3.8	3.9	3.9	3.5	(395)
휴직중	3.7	3.0	4.0	3.4	(33)
미취업	3.7	3.9	4.0	4.4	(627)
부재 등	4.0	-	-	-	(2)
F	0.3	1.1	0.1	0.4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7	4.0	-	-	(24)
150~199만원	3.8	-	3.0	5.0	(47)
200~249만원	3.8	-	4.0	3.6	(107)
250~299만원	3.7	4.0	3.9	-	(129)
300~349만원	3.6	3.0	4.0	3.0	(169)
350~399만원	3.8	4.0	3.9	-	(106)
400~499만원	3.8	4.0	4.0	3.0	(190)
500~599만원	3.8	3.0	3.6	4.0	(127)
600~699만원	3.8	5.0	4.1	-	(69)
700만원 이상	3.9	3.8	4.1	4.0	(88)
F	1.5	1.1	2.2*	-	

$p < .1$, * $p < .05$, ** $p < .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시사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시간제 학원 및 개별 교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제 학원을 보면,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많아지고 이용 비용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5세의 경우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면서 반일제 이상 기관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95%에 가깝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 유아 특히 5세의 경우는 대부분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면서 반 정도는 시간제 학원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용이 얼마나 증폭되는지 짐작케 하고 아동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비록 보육·교육 비용은 낮아지더라도 사교육으로 인한 가정 내 비용 소비가 커짐으로써 육아비용은 줄어들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게 한

다.

둘째,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간 시간제 학원 이용 형태의 차이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영유아는 읍·면에 비해 다양한 여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한 가지 프로그램당 비용은 읍·면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즉, 전체 비용으로는 도시의 비용 지출이 크지만 그것은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는 결과이고,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지불은 오히려 농어촌에서 높은 것이다. 이는 읍·면 지역 아동들이 소비 정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얻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셋째,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에 대해 고비용의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 즉, 학습 바우처 이용의 내실화, 기관의 특별활동 수준의 지원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의 30%정도가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 이용 프로그램 등 개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점차 이용률도 높아졌다. 이러한 개별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특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36%가 이용한데 비해 읍·면은 28%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46%가 이용하고 있었다.

XI. 보육정책 관련 인식

제11장에서는 부모 대상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와 경험, 즉 정책 수혜율과 만족도 등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인프라 관련, 제2절은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관련, 제3절에서는 기타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보육·유아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현재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어린이집 36.9%, 유치원 49.4%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 대한 부족을 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어린이집이 주변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XI-1-1 참조).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충분한 지 질문한 결과에서 있다는 의견이 어린이집 72.5%, 유치원 61.9%로 신뢰할만한 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XI-1-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어린이집	36.9	57.1	6.0	18.1	62.2	10.3	9.3	100.0(2,528)
유치원	49.4	38.5	12.1	21.0	55.8	6.1	17.1	100.0(2,528)

1) 어린이집의 충분성 인식

<표 XI-1-2>는 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을 세 특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에 비해 어린이집 설치의 충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으로 잘 모르고, 좀 더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대체로 높아 영아 69.2%, 유아 77.9%로 유아가 영아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믿을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아 부모가 좀 더 많이 알고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인프라 체감이 다를 수 있다.

〈표 XI-1-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전체	36.9	57.1	6.0	18.1	62.2	10.3	9.3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6	54.6	7.7	18.8	60.9	8.3	12.0	100.0(1,595)
유아	35.8	61.1	3.2	17.0	64.3	13.6	5.1	100.0(933)
X ² (df)	26.0(2) ^{***}			49.3(3) ^{***}				
지역규모								
대도시	39.8	53.5	6.7	19.2	59.6	11.2	10.0	100.0(1,024)
중소도시	31.7	62.3	6.0	16.1	64.9	9.1	9.9	100.0(1,017)
읍·면	42.2	53.9	4.0	20.3	62.3	11.0	6.4	100.0(487)
X ² (df)	25.1(4) ^{***}			14.4(6) [*]				
모취업 여부								
취업	37.6	58.6	3.8	17.3	68.3	8.9	5.5	100.0(837)
휴직	45.5	39.6	14.9	25.7	56.4	3.0	14.9	100.0(112)
미취업	35.6	57.7	6.6	18.2	59.2	11.6	11.0	100.0(1,563)
부채 등	60.0	35.0	5.0	10.0	55.0	15.0	20.0	100.0(16)
X ² (df)	34.7(6) ^{***}			46.2(9)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1.5	43.9	14.6	14.5	63.9	1.2	20.5	100.0(75)
150~199만원	35.9	59.9	4.2	20.9	60.2	11.5	7.3	100.0(184)
200~249만원	28.1	60.4	11.6	11.9	60.7	9.6	17.8	100.0(305)
250~299만원	37.5	54.8	7.7	17.3	62.4	9.7	10.6	100.0(387)
300~349만원	29.2	67.6	3.3	10.6	72.8	11.2	5.4	100.0(405)
350~399만원	34.7	60.2	5.1	14.8	64.8	13.8	6.6	100.0(207)
400~499만원	37.8	58.0	4.1	20.9	59.4	12.4	7.3	100.0(402)
500~599만원	41.0	54.3	4.7	23.0	61.5	7.4	8.2	100.0(263)
600~699만원	41.1	57.5	1.4	26.5	55.1	15.6	2.7	100.0(125)
700만원 이상	57.6	35.9	6.5	29.0	53.8	5.3	11.8	100.0(173)
X ² (df)	102.21(18) ^{***}			128.62(27)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36.4	61.5	2.2	13.5	71.2	11.3	3.9	100.0(1,157)
유치원만 이용	35.3	61.8	2.9	18.8	62.5	13.0	5.7	100.0(566)
둘 다 이용	27.9	72.1	-	9.3	76.4	12.9	1.4	100.0(140)
미이용	41.1	42.9	16.0	26.9	44.3	5.9	22.9	100.0(665)
X ² (df)	203.4(6) ^{***}			307.6(9) ^{***}				

* p < .05, *** p < .001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어, 어린이집에 대해 주변의 일반적인 설치 수준과 보낼만한 곳 양자에 대해 중소도시에서 충분하다와 있다는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믿고 보낼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취업모 가구가 77.2%로 미취업모 70.8%에 비해 많았다. 이를 통해 취업모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미취업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대체로 저소득일수록, 그리고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어린이집의 일반적 설치와 믿고 보낼만한 기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반적 설치와 보낼만한 기관 양자에서 불충분하다 및 없다는 응답은 중간 소득 단계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어린이집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인프라 및 질적 수요에 대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별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현재 이들 기관 이용 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관 미이용 아동은 연령이 어릴 가능성이 높아서 연령별 차이와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XI-1-2 참조).

2) 유치원의 충분성 인식

<표 XI-1-3>는 유치원 설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에 비해 유치원 설치의 충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실제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의 불충분과 믿고 보낼만한 곳이 있다는 응답은 어린이집에 비해 다소 적었으며,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에 비해 유치원이 불충분하며 믿고 아이를 보낼 만한 곳이 없다는 응답은 더 많았다. 이는 유치원이 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와 보낼만한 곳 양자에 대해 중소도시의 충분하다와 있다는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불충분하다와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지역과 읍·면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에 대해 취업모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미취업모에 비해 많았으며, 미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대체로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유치원 설치에 대해 좀 더 알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

소득일수록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고소득일수록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별로 일반적 설치 인프라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불충분 인식이 많았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가 보낼만한 유치원 설치의 충분성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1-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전체	49.4	38.5	12.1	21.0	55.8	6.1	17.1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0.6	32.0	17.4	22.4	49.5	4.3	23.9	100.0(1,595)
유아	47.4	48.8	3.8	18.7	66.0	9.1	6.2	100.0(933)
X ² (df)	137.2(2) ^{***}			165.5(3) ^{***}				
지역규모								
대도시	55.2	32.7	12.1	22.2	55.2	5.8	16.8	100.0(1,024)
중소도시	42.3	45.4	12.4	18.9	56.7	6.4	18.0	100.0(1,017)
읍·면	52.0	36.3	11.7	23.0	55.4	6.2	15.5	100.0(487)
X ² (df)	40.9(4) ^{***}			5.6(6)				
모취업 여부								
취업	49.1	41.9	9.0	21.7	60.0	5.4	12.9	100.0(837)
휴직	51.5	28.7	19.8	28.7	51.5		19.8	100.0(112)
미취업	49.1	37.4	13.5	20.1	53.8	6.9	19.2	100.0(1,563)
부채 등	68.4	26.3	5.3	15.0	50.0	15.0	20.0	100.0(16)
X ² (df)	23.1(6) ^{**}			32.5(9)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9.4	32.5	18.1	22.9	51.8	3.6	21.7	100.0(75)
150~199만원	51.3	36.6	12.0	15.7	61.8	6.3	16.2	100.0(184)
200~249만원	41.9	38.3	19.8	18.2	47.5	6.9	27.4	100.0(305)
250~299만원	48.4	38.0	13.6	17.9	56.2	5.0	20.9	100.0(387)
300~349만원	47.0	45.1	7.9	15.8	66.4	5.5	12.3	100.0(405)
350~399만원	48.0	39.8	12.2	23.1	51.3	7.2	18.5	100.0(207)
400~499만원	46.6	42.4	11.0	19.7	56.9	8.3	15.1	100.0(402)
500~599만원	56.2	33.7	10.1	24.9	58.0	2.3	14.8	100.0(263)
600~699만원	61.0	34.9	4.1	35.4	46.9	12.2	5.4	100.0(125)
700만원 이상	56.8	29.6	13.6	32.2	48.5	4.1	15.2	100.0(173)
X ² (df)	58.06(18) ^{***}			118.97(27)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54.0	36.4	9.5	21.2	56.9	6.0	15.9	100.0(1,157)
유치원만 이용	44.4	53.7	1.9	15.4	72.8	9.1	2.7	100.0(566)
둘 다 이용	52.8	46.5	0.7	18.4	75.2	5.0	1.4	100.0(140)
미이용	45.2	27.0	27.8	26.1	35.3	4.0	34.6	100.0(665)
X ² (df)	283.0(6) ^{***}			340.0(9) ^{***}				

** p < .01, *** p < .001

나.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차이

공공형, 서울형·부산형 등의 공인어린이집을 알고 있는지, 안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공인어린이집에 대해 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45.8%로 절반이 조금 못된다. 안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공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을 질문한 결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0.7%로 약 1/3 정도이다. 나머지 69.3%는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질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52.0%로 부모의 공인어린이집 인지도가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약 4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응답도 긍정 의견이 대도시 34%, 읍·면 31.8%, 중소도시 26.1% 순으로 높았다³⁰⁾.

〈표 XI-1-4〉 공인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단위: %(명)

구분	'안다'는 비율	계(수)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유사성				계(수)	X ² (df)
			매우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전체	45.8	100.0(2,528)	4.0	26.7	52.7	16.6	100.0(1,228)	
지역규모								
대도시	52.0	100.0(1,024)	5.0	29.0	49.6	16.4	100.0(544)	
중소도시	41.7	100.0(1,017)	3.5	22.6	56.6	17.2	100.0(475)	10.0(6)
읍·면	41.0	100.0(487)	2.2	29.6	52.7	15.6	100.0(209)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돌보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시간제 돌봄, 영아 정기 돌봄 2가지에 대해 안다는 응답이 각 59.4%, 55.2%로 과반을 넘는데, 시간제 돌봄 인지도가 영아돌봄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지자 중에서는 이용 경험이 시간제 돌봄 4.6%, 영아 정기돌봄 2.1%로 조사되었다. 전체로는 시간제 돌봄 2.7%, 영아 정기 돌봄 1.2%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는 의견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 공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 자녀 연령,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XI-1-5> 아이돌봄비 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필요하다는 비율	안다는 비율	계(수)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경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계(수)
시간제 돌봄	67.1	59.4	(2,528)	1.1	3.5	95.4	100.0(1,468)
영아 정기 돌봄	62.3	55.2	(2,528)	0.2	1.9	97.9	100.0(1,468)

1) 시간제 돌봄

<표 XI-1-6>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경험과 필요성에 대해 제 특성 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XI-1-6> 시간제 돌봄 인지·이용경험 및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필요하다'는 비율	'안다'는 비율	(수)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경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계(수)
전체	67.1	59.4	(2,528)	1.1	3.5	95.4	100.0(1,46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9.5	57.7	(1,595)	1.3	4.0	94.6	100.0(906)
유아	63.6	62.0	(933)	0.7	2.8	96.5	100.0(562)
X ² (df)	46.0(4) ^{***}	4.7(1) [*]			3.3(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8.8	49.4	(75)	9.8	2.4	87.8	100.0(42)
150~199만원	55.2	57.1	(184)	-	4.6	95.4	100.0(98)
200~249만원	67.7	53.1	(305)	1.2	1.2	97.5	100.0(158)
250~299만원	70.1	57.7	(387)	0.9	4.7	94.4	100.0(228)
300~349만원	73.8	64.9	(405)	0.4	4.2	95.4	100.0(248)
350~399만원	66.9	65.3	(207)	-	0.8	99.2	100.0(131)
400~499만원	68.9	63.0	(402)	1.2	2.7	96.1	100.0(240)
500~599만원	64.9	61.5	(263)	1.9	2.5	95.6	100.0(160)
600~699만원	65.2	57.5	(125)	-	2.4	97.6	100.0(70)
700만원 이상	58.9	52.4	(173)	2.2	10.1	87.6	100.0(91)
X ² (df)	97.0(36) ^{***}	23.0(9) ^{**}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69.4	60.5	(1,157)	1.3	4.5	94.2	100.0(681)
유치원만 이용	64.0	60.5	(566)	1.1	3.1	95.8	100.0(340)
둘 다 이용	67.4	67.4	(140)	-	5.3	94.7	100.0(93)
미이용	66.2	54.9	(665)	1.1	1.9	97.1	100.0(354)
X ² (df)	30.7(12) ^{**}	10.2(3) [*]			-		

* p < .05, ** p < .01, *** p < .001

조사결과, 유아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다소 높았으나, 실제 이용 경험은 영아를

둔 부모에게서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50~599만원의 중간 소득계층의 인지도가 저소득과 고소득층에 비해 높았으나, 이용 경험은 저소득과 고소득층에서 중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이용 기관별 차이는 유치원·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가 인지 및 이용 경험률이 낮았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막내자녀가 유아인 부모보다는 영아인 부모에게서 더 많이 응답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다소 높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이용 기관은 유치원 이용 부모에게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는데 이는 아동 연령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시간제 돌봄 필요 비율이 높고, 이용 경험도 많았다.

2) 영아 정기 돌봄

<표 XI-1-7>은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의 인지, 이용경험과 필요성 조사 결과이다.

<표 XI-1-7> 영아 정기 돌봄 인지·이용 경험 및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필요하다'는 비율	'안다'는 비율	계(수)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경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계(수)
전체	62.3	55.2	(2,528)	0.2	1.9	97.9	100.0(1,35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4.3	53.3	(1,595)	0.4	2.2	97.5	100.0(829)
유아	59.2	58.3	(933)	-	1.6	98.4	100.0(521)
X ² (df)	40.4(4) ^{***}	6.1(1) [*]			-		
지역규모							
대도시	61.1	58.2	(1,024)	0.3	1.1	98.5	100.0(593)
중소도시	66.0	53.7	(1,017)	0.2	2.2	97.6	100.0(507)
읍·면	56.6	51.8	(487)	0.4	3.0	96.6	100.0(250)
X ² (df)	62.4(8) ^{***}	6.8(2) [*]			-		
모취업 여부							
취업	67.0	57.0	(837)	0.4	1.6	98.0	100.0(468)
휴직	72.0	53.5	(112)	-	5.6	94.4	100.0(61)
미취업	59.3	54.9	(1,563)	0.2	1.9	97.9	100.0(820)
부채 등	40.0	10.5	(16)	-	-	100.0	100.0(1)
X ² (df)	-	16.6(3) ^{**}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63.8	56.3	(1,157)	0.2	2.2	97.6	100.0(462)
유치원만 이용	59.8	55.9	(566)	-	1.2	98.8	100.0(591)
둘 다 이용	64.1	58.2	(140)	-	2.4	97.6	100.0(266)
미이용	61.7	52.1	(665)	0.6	1.7	97.8	100.0(31)
X ² (df)	20.7(12) [#]	3.8(3)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조사결과, 이용률이 인지자 중 2.1%로 저조하며 유아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영아 부모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자녀 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표 XI-1-7 참조).

영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부모보다는 영아인 부모가 더 높았다.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대비된다. 지역규모별로 중소도시 지역이 다소 높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필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시간제 아이돌보미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용 기관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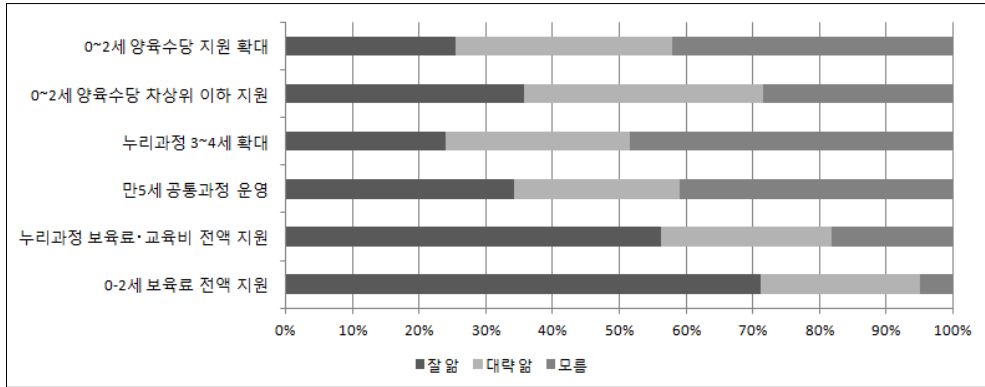
2.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가. 세부 비용 지원 정책 인지

정부의 최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이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잘 안다는 응답이 0~2세 보육료 전액지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95%이상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5세 누리과정 비용지원 81.8%, 0~2세 양육수당 차상위 이하 지원 71.6% 순으로 나타나, 2012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전액 지원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세 누리과정의 국가수준 공통과정으로서의 운영에 대해서 인지율이 59.0%로 비용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0~2세 양육수당의 확대 58.0%, 3~4세 누리과정 51.6%로 나타나 아직 시행 이전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졌으나, 부모의 과반 이상이 알고 있었다.

〈표 XI-2-1〉 최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잘 앎	대략 앎	모름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71.1	24.0	4.9	100.0(2,528)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56.3	25.5	18.2	100.0(2,528)
만5세 공통과정 운영	34.2	24.8	41.0	100.0(2,528)
누리과정 3~4세 확대	24.1	27.5	48.5	100.0(2,528)
0~2세 양육수당 차상위 이하 지원	35.7	35.9	28.4	100.0(2,528)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25.5	32.5	42.0	100.0(2,528)



[그림 XI-2-1] 최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도

<표 XI-2-2>는 각 정책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표이다. 0~2세 영아 보육료 전액 지원은 유아 부모보다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대도시의 인지도가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잘 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영아 자녀를 둔 부모보다 유아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의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취업모가 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좀 더 인지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50만원 미만의 빈곤층의 모른다는 비율이 34%로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 인지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대상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만 5세 공통과정의 운영에 대한 인지도는, 0~2세 지원과 달리 영아보다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대도시 지역의 인지도가 다소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잘 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표 XI-2-2〉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단위: %(명)

구 분	0-2세 보육료 지원	5세 누리 지원	만5세 공통 과정	3-4세 누리 과정	0-2세 양육수당 차상위	0-2세 양육수당 지원확대	계(수)
전체	95.1	81.8	59.0	51.6	71.6	58.0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6.2	75.0	50.0	46.8	72.7	54.0	100.0(1,595)
유아	93.4	92.5	73.3	59.1	70.2	62.7	100.0(933)
X ² (df)	44.7(2)***	158.0(2)***	140.1(2)***	44.5(2)***	1.9(2)	19.1(2)***	
지역규모							
대도시	96.2	84.7	60.3	53.1	73.6	60.0	100.0(1,024)
중소도시	94.0	79.2	58.9	51.9	71.3	57.8	100.0(1,017)
읍·면	95.0	81.1	56.2	47.3	67.4	53.8	100.0(487)
X ² (df)	27.2(4)***	23.5(4)***	6.4(4)	16.2(4)**	20.2(4)***	24.2(4)***	
모취업 여부							
취업	96.4	86.2	63.7	58.1	71.6	61.5	100.0(837)
휴직	99.0	72.2	54.5	49.0	69.6	52.5	100.0(112)
미취업	94.3	80.5	56.9	48.4	72.4	56.7	100.0(1,563)
부채 등	84.2	40.0	26.4	15.8	10.5	25.0	100.0(16)
X ² (df)	28.0(6)***	45.5(6)***	21.6(6)**	37.5(6)***	37.2(6)***	17.0(6)**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91.6	66.2	42.2	39.8	66.2	53.0	100.0(83)
150~199만원	96.3	75.4	56.0	41.4	79.6	63.9	100.0(191)
200~249만원	91.8	78.8	53.3	47.7	69.2	47.2	100.0(302)
250~299만원	95.3	73.8	54.3	49.4	74.8	56.7	100.0(403)
300~349만원	95.9	84.9	58.0	55.6	70.1	60.5	100.0(367)
350~399만원	99.5	88.2	67.8	55.6	75.5	62.4	100.0(196)
400~499만원	97.1	86.9	65.4	56.0	70.8	62.2	100.0(411)
500~599만원	96.5	86.1	61.5	55.1	70.8	61.5	100.0(257)
600~699만원	92.5	88.4	68.7	54.1	68.7	62.0	100.0(147)
700만원이상	89.4	81.8	56.8	49.4	64.9	46.7	100.0(170)
X ² (df)	47.3(18)***	95.7(18)***	52.7(18)***	43.0(18)***	30.3(18)*	42.1(18)***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98.3	83.4	59.6	53.5	73.4	61.6	100.0(1,157)
유치원만 이용	94.3	94.3	73.0	60.3	69.8	62.0	100.0(566)
둘 다 이용	99.3	97.9	79.4	62.0	77.3	65.2	100.0(140)
미이용	89.6	65.1	41.6	38.7	68.9	47.0	100.0(665)
X ² (df)	140.8(6)***	249.1(6)***	165.7(6)***	77.0(6)***	8.9(6)	47.2(6)***	

* $p < .05$, ** $p < .01$, *** $p < .001$

아직 시행전인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약 절반으로, 제시된 5개 지원정책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영아보다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인지도가 다소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모의 인지도가 미취업, 모 부재·무직 가구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대상의 0~2세 양육수당의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에 대해 안다는 응답이 71.6%로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 자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며, 모 취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모 부재 가구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대상의 0~2세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에 대해 안다는 응답이 58.0%로 나타났다. 영아자녀를 둔 부모가 유아 부모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향후 양육수당 확대 인지도가 높고,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6개 비용 지원 정책 모두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부모의 정책 인지율이 낮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0-2세 보육 지원과 양육수당, 유치원 이용 부모는 누리과정 관련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비용 지원 정책 수혜 및 만족도

1) 비용 지원정책 수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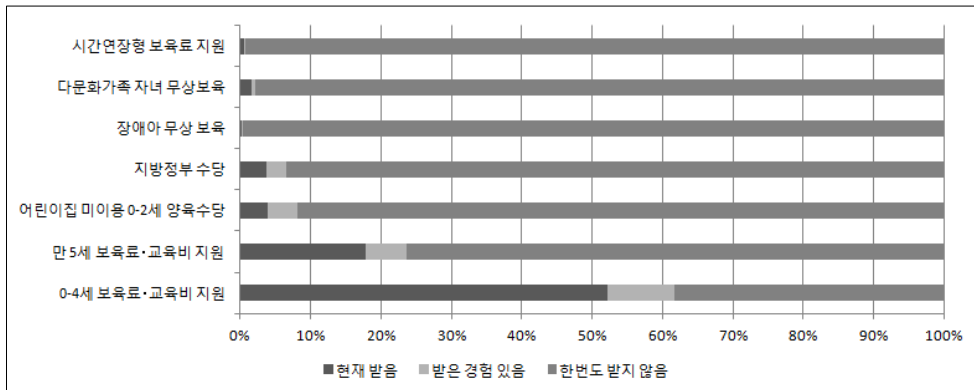
제시된 7개의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수혜 경험을 조사한 결과, 현재 및 과거에 받은 경험 즉 총 수혜율에 대해, 0~4세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61.7%로 가장 높았으며,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이 23.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대상 아동수의 차이에 따라 수혜율 차이가 존재한다. 0~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외에 다른 정책 수혜율은 10% 미만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책 수혜율이 양육수당 8.1%, 지방정부 수당 6.5%, 장애아 무상 보육 0.4%,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 2.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0.8%로 나타났다(표 XI-2-3 참조).

현재 시점 가장 높은 수혜율도 0-4세로 과반이 넘는 비율이며, 5세 지원은 17.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양육수당 3.9%, 지방정부 수당 3.7%, 다문화가족자녀 무상보육 1.7%로 조사되었다.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은 각 0.6%, 0.2%로 나타났다.

<표 XI-2-3>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단위: %(명)

구 분	현재 받음	받은 경험 있음	한번도 받지 않음	계(수)
0-4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52.2	9.5	38.3	100.0(2,528)
만 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17.8	5.8	76.4	100.0(2,528)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3.9	4.2	91.9	100.0(2,528)
지방정부 수당	3.7	2.8	93.6	100.0(2,528)
장애아 무상 보육	0.2	0.2	99.6	100.0(2,528)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	1.7	0.4	97.9	100.0(2,528)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6	0.2	99.2	100.0(2,528)



[그림 XI-2-2]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여부

<표 XI-2-4>는 아동 및 가구 특성별 7개 정책의 수혜율을 나타낸다. 먼저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은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가구의 수혜율이 유아 가구보다 높으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미취업모 가구보다는 취업모 가구,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만 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인 누리과정 수혜 경험은 최연소자녀가 유아인 가구 수혜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에서, 미취업모 가구보다는 취업모 가구, 700만원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5세 지원 수혜 경험이 완만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XI-2-4〉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단위: %(명)

구 분	0-4세 비용지원	5세 지원	0-2세 양육수당	지방정부 수당	장애아 지원	다문화 아동	시간연 장지원	계(수)
전체	52.2	17.8	3.9	3.7	0.2	1.7	0.6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6.9	7.5	6.4	4.3	0.2	1.7	0.6	100.0(1,595)
유아	44.6	34.0	-	2.7	0.3	1.7	0.6	100.0(933)
X ² (df)	147.1(2) ^{***}	340.5(2) ^{***}	67.9(2) ^{***}	5.0(2) [#]	-	1.0(2)	-	
지역규모								
대도시	47.8	16.6	3.7	3.1	0.4	1.8	0.5	100.0(1,024)
중소도시	54.0	17.6	3.3	4.3	0.1	1.5	0.9	100.0(1,017)
읍·면	57.9	20.5	5.7	3.8	0.2	2.0	0.4	100.0(487)
X ² (df)	25.9(4) ^{***}	10.7(4) [*]	17.7(4) ^{**}	34.1(4) ^{***}	-	-	-	
모취업 여부								
취업	58.3	23.8	0.8	2.9	-	2.9	1.7	100.0(837)
휴직	38.6	5.0	-	2.0	-	-	-	100.0(112)
미취업	49.5	15.0	6.0	4.3	0.4	1.2	0.1	100.0(1,563)
부채 등	55.0	31.6	-	-	-	-	-	100.0(16)
X ² (df)	57.9(6) ^{***}	52.7(6) ^{***}	-	-	-	-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7.8	16.7	15.7	8.4	-	1.2	0.0	100.0(83)
150~199만원	61.3	15.2	15.8	3.1	0.5	1.6	-	100.0(191)
200~249만원	59.6	13.9	5.0	3.6	0.7	3.6	0.3	100.0(302)
250~299만원	55.6	16.1	5.0	4.2	-	2.7	0.7	100.0(403)
300~349만원	61.3	18.2	1.6	1.1	-	1.6	0.3	100.0(367)
350~399만원	54.1	18.4	0.5	2.6	0.5	2.6	1.5	100.0(196)
400~499만원	50.6	19.5	2.2	3.2	0.5	0.5	1.0	100.0(411)
500~599만원	40.1	19.8	-	6.6	0.4	1.6	0.8	100.0(257)
600~699만원	41.8	28.1	-	-	-	-	0.7	100.0(146)
700만원 이상	26.3	14.7	2.9	6.5	-	-	-	100.0(171)
X ² (df)	138.4(18) ^{***}	53.4(18) ^{***}	176.6(18) ^{***}	78.0(18) ^{***}	-	-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84.0	11.3	2.6	3.1	0.4	2.7	1.0	100.0(1,157)
유치원만 이용	42.1	41.5	2.0	3.0	-	1.9	0.3	100.0(566)
둘 다 이용	91.5	50.7	5.6	6.4	0.7	2.1	2.1	100.0(140)
미이용	0.4	0.9	7.3	4.4	-	-	-	100.0(665)
X ² (df)	1546.0(6) ^{***}	532.1(6) ^{***}	74.0(6) ^{***}	43.6(6) ^{***}	-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에 대한 0~2세 양육수당 수혜 경험은 영아 가구의 현재 수혜율이 높으며, 읍·면지역, 취업모 가구보다 미취업모 가구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0~2세 양육수당의 수혜율이 높았다.

지방 정부의 수당에 대한 수혜 경험은 최연소자녀가 유아인 가구보다 영아인 가구에서 높으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부모 둘 다 무직인 가구에서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으나 저소득가구와 일부 중산층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 소득기준 외에 지방 정부의 수당 지급 기준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장애아 무상보육의 수혜 경험은 지원 대상 특성상 수혜 경험률은 낮는데, 상대적으로 미취업모가구에서의 수혜율이 높아 장애아 모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 외 자녀연령과 지역,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나 경향성은 없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 수혜 경험 역시 지원 대상의 특성상 낮은 수혜 경험을 보이는 가운데, 읍·면지역, 취업모가구에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수혜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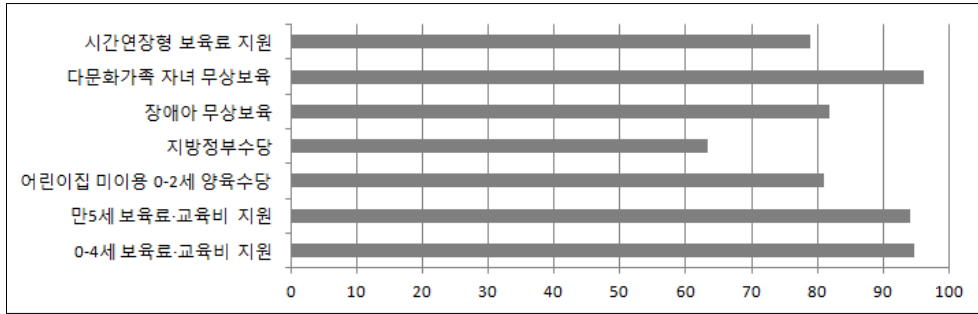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역시 매우 낮은 수혜율을 보이는데, 취업모 가구의 수혜율이 높았다. 그 외 자녀 연령과 지역,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비용 지원의 자녀양육 도움

제시된 7개 육아지원 수혜 경험이 있다는 경우에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도움된다는 응답률이 높아 비용 지원정책의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XI-2-5〉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구 분	단위: %(명)					
	전혀 안됨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됨	계(수)
0-4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0.1	0.4	4.7	56.6	38.2	100.0(1,557)
만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0.3	0.7	4.9	56.7	37.4	100.0(594)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	5.0	13.9	53.7	27.4	100.0(214)
지방정부수당	2.4	4.9	29.3	54.3	9.1	100.0(141)
장애아 무상보육	-	-	18.2	72.7	9.1	100.0(13)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	-	-	3.8	58.5	37.7	100.0(5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5.3	-	15.8	47.4	31.6	100.0(26)



[그림 XI-2-3]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항목별로 도움된다는 비율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무상보육이 96.2%로 가장 높고, 0-4세 및 5세 지원도 94~95%로 높았다. 다음으로 장애아 무상보육이 81.8%, 0~2세 양육수당 81.1%로 효과가 높았으며, 지방정부 수당의 도움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XI-2-5 참조).

7개 비용지원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를 제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0~4세 지원은 영아, 읍·면지역, 고소득일수록, 5세 지원은 읍·면지역, 취업모가, 0~2세 양육수당 지원은 영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취업모,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을 제외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양육부담 완화의 가계경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정부 수당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미취업모, 중산층에서 많았다. 5세 누리과정 지원과 0~2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취업모에게서 다소 높았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0~4세 지원, 5세 지원, 0~2세 양육수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높았다(표 XI-2-6 참조).

<표 XI-2-6> 정부 지원 비용 양육 부담 완화 정도

단위: %(명)

구분	0-4세 지원	5세 지원	양육수당	지방정부 수당	장애아 지원	다문화 아동	시간연장 지원	계(수)
전체	94.8	94.1	81.1	63.4	81.8	96.2	79.0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5.6	94.3	84.4	63.1	85.7	100.0	100.0	100.0(1,595)
유아	93.3	94.0	71.4	64.0	66.7	89.5	42.9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93.8	92.3	77.4	36.1	85.7	92.0	85.7	100.0(1,024)
중소도시	94.0	94.4	84.8	72.5	-	94.1	77.7	100.0(1,017)
읍·면	98.4	97.6	84.3	77.1	100.0	100.0	100.0	100.0(487)

(표 XI-2-6 계속)

구 분	0-4세 지원	5세 지원	양육수당	지방정부 수당	장애아 지원	다문화 아동	시간연장 지원	계(수)
모취업 여부								
취업	94.6	95.4	85.4	62.0	100.0	92.8	81.3	100.0(837)
휴직	97.5	83.3	100.0	20.0	-	-	-	100.0(112)
미취업	94.6	93.1	79.0	65.6	80.0	100.0	75.0	100.0(1,563)
부채 등	100.0	100.0	100.0	-	-	100.0	-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91.5	100.0	95.5	55.6	-	50.0	100.0	100.0(75)
150~199만원	94.2	89.8	91.7	64.0	100.0	100.0	-	100.0(184)
200~249만원	93.3	94.6	90.0	50.0	100.0	100.0	-	100.0(305)
250~299만원	94.8	94.6	71.1	79.2	-	100.0	100.0	100.0(387)
300~349만원	95.7	95.9	63.2	75.0	100.0	66.7	66.7	100.0(405)
350~399만원	94.0	92.0	83.4	71.4	50.0	100.0	100.0	100.0(207)
400~499만원	93.7	95.7	78.3	80.9	100.0	100.0	83.3	100.0(402)
500~599만원	96.1	96.8	100.0	58.0	-	100.0	100.0	100.0(263)
600~699만원	95.8	95.6	100.0	16.7	-	-	-	100.0(125)
700만원 이상	96.3	76.9	14.3	38.5	-	-	-	100.0(17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95.6	94.0	85.6	71.6	88.9	95.0	78.6	100.0(1,157)
유치원만 이용	94.3	94.6	89.2	62.5	100.0	91.7	66.7	100.0(566)
둘 다 이용	96.9	94.6	78.3	41.7	-	100.0	100.0	100.0(140)
미이용	80.4	87.5	69.1	61.0	-	-	-	100.0(665)

다. 비용 지원정책 평가

가) 가장 잘하는 정책

다음은 6개 육아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하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이다. 영아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3, 4세 누리과정 확대와 양육수당 지원 및 확대가 나타났다. 올해 실시한 5세 누리과정과 영아 보육료 지원의 부모 체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의 경우, 영아 부모에게서, 읍·면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어린이집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었다.

5세 누리과정 전액 지원은 유아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용하는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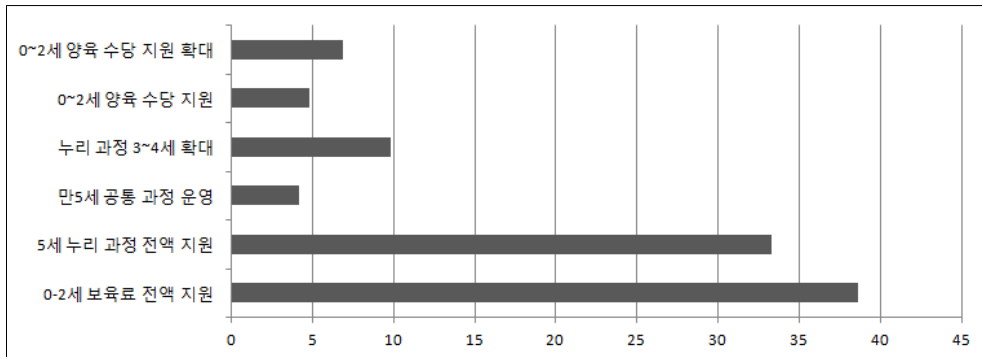
한편 만 5세 공통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 내에서도, 영아보다는 유아
가, 대도시 지역에서, 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여 체감 만족도는 중산층 이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XI-2-7〉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

단위: %(명)

구 분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5세 누리 과정 전액 지원	만5세 공통 과정 운영	누리 과정 3~4세 확대	0~2세 양육 수당 지원	0~2세 양육 수당 지원 확대	무응답 등	계(수)	X ² (df)
전체	38.6	33.3	4.2	9.8	4.8	6.9	2.3	100.0(2,528)	
취연소자녀구분									
영아	51.5	19.8	3.2	9.2	4.6	9.9	1.8	100.0(1,595)	460.6(6)***
유아	18.3	54.7	5.8	10.8	5.2	2.0	3.1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38.1	32.0	5.6	11.0	4.2	7.5	1.6	100.0(1,024)	38.8(12)***
중소도시	40.5	35.1	2.5	7.1	5.4	7.0	2.4	100.0(1,017)	
읍·면	35.5	32.7	4.9	13.0	5.1	5.3	3.5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37.1	37.0	5.3	10.9	4.5	2.4	2.8	100.0(837)	-
휴직	55.0	25.0	2.0	8.0	-	8.0	2.0	100.0(112)	
미취업	38.5	31.6	3.8	9.3	5.4	9.4	2.1	100.0(1,563)	
부재 등	35.0	55.0	-	10.0	-	-	-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8.5	25.6	2.4	1.2	6.1	6.1	-	100.0(82)	141.5(54)***
150~199만원	46.8	25.3	1.6	10.0	7.4	7.9	1.1	100.0(190)	
200~249만원	39.6	30.7	3.0	10.2	5.9	9.2	1.3	100.0(303)	
250~299만원	42.4	30.8	4.2	7.7	5.2	8.4	1.2	100.0(403)	
300~349만원	37.5	38.0	3.3	11.7	2.2	5.4	1.9	100.0(368)	
350~399만원	37.2	35.7	4.1	7.7	4.6	7.1	3.6	100.0(196)	
400~499만원	36.9	35.2	7.0	9.0	1.9	6.3	3.6	100.0(412)	
500~599만원	32.3	35.0	4.3	14.0	6.6	5.8	1.9	100.0(257)	
600~699만원	36.7	26.5	4.8	10.2	14.3	4.1	3.4	100.0(147)	
700만원 이상	28.8	42.4	5.3	12.4	0.6	6.5	4.1	100.0(170)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5.9	30.6	4.1	9.7	3.3	4.6	1.7	100.0(1,157)	344.3(18)***
유치원만 이용	19.8	54.4	6.6	11.0	3.4	2.7	2.2	100.0(566)	
둘 다 이용	41.1	36.2	3.5	12.1	3.5	2.8	0.7	100.0(140)	
미이용	42.7	18.9	2.5	8.4	8.8	15.0	3.7	100.0(665)	

*** $p < .001$



[그림 XI-2-4]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

누리과정 3, 4세 확대는 유아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모 취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영아 부모가, 도시지역에서, 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동안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중산층 이상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0~2세 양육수당 지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향이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용 기관별 차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아동 부모의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표 XI-2-7 참조).

2) 전 계층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2012년 실시된 0~2세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 전액 지원, 2013년 예정된 3~4세 누리과정 등과 같이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비율이 53.3%로 불만족 32.4%보다 20%p 정도 많았다. 만족도는 평균 3.26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영아 부모, 읍·면지역, 미취업 가구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다 이용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149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과 유치원 이용자의 전 계층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XI-2-8 참조).

〈표 XI-2-8〉 전계층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정책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7.6	24.8	14.4	40.4	12.9	100.0(2,527)	3.2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8	21.5	13.0	44.1	14.6	100.0(1,594)	3.38
유아	8.7	30.0	16.5	34.5	10.2	100.0(933)	3.08
$X^2(df)/t$			47.9(4) ^{***}				40.3 ^{***}
지역규모						100.0(1,023)	
대도시	8.4	22.9	17.2	36.3	15.1	100.0(1,017)	3.27
중소도시	7.1	28.2	12.0	43.3	9.3	100.0(487)	3.19
읍·면	6.2	21.2	13.2	43.5	15.9		3.42
$X^2(df)/F$			46.2(8) ^{***}				5.6 ^{**}
모취업 여부							
취업	8.7	27.2	14.8	36.1	13.1	100.0(837)	3.18
휴직	5.0	12.9	17.8	40.6	23.8	100.0(112)	3.67
미취업	7.0	24.1	13.9	43.1	11.9	100.0(1,562)	3.29
부채 등	10.5	36.8	15.8	10.5	26.3	100.0(16)	3.04
$X^2(df)/F$			-				5.9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8	39.3	20.2	25.0	10.7	100.0(75)	2.99
150~199만원	11.5	22.5	14.7	37.2	14.1	100.0(183)	3.21
200~249만원	9.3	33.8	12.9	32.1	11.9	100.0(305)	3.04
250~299만원	6.0	22.1	14.1	45.7	12.2	100.0(387)	3.36
300~349만원	5.4	26.2	13.4	43.6	11.4	100.0(405)	3.29
350~399만원	6.6	25.5	11.7	45.9	10.2	100.0(207)	3.28
400~499만원	6.6	22.4	14.6	42.2	14.1	100.0(402)	3.35
500~599만원	7.8	24.9	16.7	35.4	15.2	100.0(263)	3.26
600~699만원	12.2	19.0	15.6	38.1	15.0	100.0(125)	3.24
700만원 이상	8.2	18.1	15.2	45.6	12.9	100.0(173)	3.37
$X^2(df)/F$			68.04(36) ^{***}				2.5 ^{**}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7.4	23.3	14.4	39.9	15.0	100.0(1,156)	3.32
유치원만 이용	7.4	31.5	16.1	33.5	11.5	100.0(566)	3.10
둘 다 이용	8.6	14.3	12.9	45.7	18.6	100.0(140)	3.52
미이용	7.6	23.5	13.2	46.2	9.4	100.0(665)	3.26
$X^2(df)/F$			48.7(12) ^{***}				6.7 ^{***}

** $p < .01$, *** $p < .001$

<표 XI-2-9>는 보육료·교육비 확대 지원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형평성 부족에 대한 의견이 68.2%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23.9%, 실제 무상보육이 아니라는 의견이 7.3%

를 차지하였다. 제시된 불만족 의견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용기관별로는 유치원 이용 부모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부모가 형평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낮고 세금 부담감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았다.

〈표 XI-2-9〉 보육·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형평성 부족	세금 부담감	실제 무상보육 아님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68.2	23.9	7.3	0.6	100.0(76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0.3	22.8	6.7	0.2	100.0(419)	
유아	65.8	25.4	7.8	1.1	100.0(349)	-
지역규모						
대도시	73.2	17.8	8.9	-	100.0(322)	
중소도시	61.2	32.7	6.1	-	100.0(312)	-
읍·면	75.4	14.8	5.7	4.1	100.0(134)	
모취업 여부						
취업	71.8	22.7	5.5	-	100.0(283)	
휴직	83.3	5.6	11.1	-	100.0(22)	
미취업	64.8	25.9	8.3	1.1	100.0(455)	-
부재 등	100.0	-	-	-	100.0(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8.3	41.7	-	-	100.0(26)	
150~199만원	68.8	28.1	3.1	-	100.0(54)	
200~249만원	64.6	29.2	6.2	-	100.0(117)	
250~299만원	70.8	20.4	8.0	0.9	100.0(110)	
300~349만원	77.9	12.4	8.0	1.8	100.0(122)	
350~399만원	66.7	25.4	4.8	3.2	100.0(58)	68.72(27) ***
400~499만원	83.8	8.5	7.7	-	100.0(119)	
500~599만원	50.0	40.2	9.8		100.0(75)	
600~699만원	60.9	26.1	13.0		100.0(40)	
700만원 이상	56.8	31.8	11.4		100.0(46)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74.4	17.9	7.1	0.6	100.0(327)	
유치원만 이용	63.4	29.5	6.2	0.9	100.0(219)	
둘 다 이용	74.2	19.4	6.5	-	100.0(32)	-
미이용	61.9	29.0	8.6	0.5	100.0(190)	

*** $p < .001$

라.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과 추가 출산

다음은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출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향후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결정하는데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영향을 미쳤는지, 완전 무상보육·교육이 실시된다면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XI-2-10〉 출산 관련 의견 비율

구분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는 비율	보육비 지원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	완전 무상보육시 추가 출산 생각이 있다는 비율	단위: %(명)
				(수)
전체	23.1	23.7	17.4	(2,52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1.2	27.5	21.0	(1,593)
유아	10.5	17.5	11.7	(932)
X ² (df)	176.7(2) ^{***}	52.1(4) ^{***}	61.9(4) ^{***}	
지역규모				
대도시	25.1	25.7	19.5	(1,023)
중소도시	22.5	21.8	16.1	(1,016)
읍·면	19.9	23.6	15.6	(486)
X ² (df)	5.3(4)	37.3(8) ^{***}	52.6(8) ^{***}	
모취업 여부				
취업	18.8	19.3	16.5	(837)
휴직중	35.6	26.2	33.3	(112)
미취업	25.0	24.5	17.0	(1,563)
X ² (df)	29.8(6) ^{***}	-	-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27.5	14.9	17.3	(73)
150~199만원	20.0	28.3	18.8	(184)
200~249만원	26.2	28.8	23.8	(305)
250~299만원	29.6	26.4	16.9	(386)
300~349만원	23.4	27.4	19.4	(405)
350~399만원	24.1	23.2	19.9	(207)
400~499만원	23.4	22.9	18.1	(402)
500~599만원	17.9	22.8	13.7	(263)
600~699만원	12.9	15.2	13.7	(125)
700만원 이상	18.8	17.3	5.3	(173)
X ² (df)	43.0(18) ^{**}	10.9(36) ^{***}	117.4(36) ^{***}	

** $p < .01$, *** $p < .001$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 추가 출산 의향을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23.1%로 1/4 정도의 영유아 부모가 후속 출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추가 출산 의

사가 있다는 비율은 영아 가구와 대도시, 미취업모 및 휴직 중인 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육아 정책이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 23.7%로 영아, 대도시 지역, 미취업모, 가구소득 중하층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만약에 완전 무상보육의 실현 시,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17.4%로 나타났다. 대체로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부모에게서, 대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소득수준 중산층과 하층에서 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좀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이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부모들 중 약 82%는 보육·교육비 지원이 자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표 XI-2-11 참조).

〈표 XI-2-11〉 영향을 미친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정책

단위: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지원	양육 수당 등의 현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계(수)
비율	81.9	13.1	5.0	100.0(612)

한편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시기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임신 중 24.7%를 제외하고 1~3년 이내가 57%로 많았다. 영유아 가구 모두 1~2년 이내가 많지만 자녀 연령 터울을 고려하여 1년 이내는 유아 가구가 많고, 2~3년 이내와 3년 이후는 영아 가구가 많았다.

〈표 XI-2-12〉 추가 출산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현재 임신 중	1년 이내	1~2년 이내	2~3년 이내	3년 이후	잘 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24.7	8.2	36.3	20.7	6.8	3.3	100.0(57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2.2	7.5	36.9	23.2	7.9	2.3	100.0(478)	29.7(5)***
유아	36.3	11.8	33.3	8.8	2.0	7.8	100.0(95)	

*** p < .001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비용 부담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만족도가 35.4%로 높았다. 비용부담 응답은 도시지역과 외별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XI-2-13〉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 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9.8	27.2	4.1	3.2	35.4	9.2	1.0	100.0(1,95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1.6	24.8	4.2	3.8	37.4	6.9	1.4	100.0(1,115)	32.8(6)***
유아	17.7	30.2	4.0	2.6	33.1	12.0	0.3	100.0(837)	
지역규모									
대도시	22.6	24.0	4.9	4.0	33.6	10.5	0.5	100.0(764)	33.9(12)**
중소도시	18.9	28.3	4.5	2.1	37.4	7.9	0.9	100.0(796)	
읍·면	15.8	31.7	1.7	4.2	35.3	9.4	1.9	100.0(3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9	24.7	10.3	2.1	33.8	11.1	1.1	100.0(705)	144.1(12)***
외벌이	21.3	28.8	0.4	3.6	36.5	8.5	0.9	100.0(1,203)	
둘 다 무직	29.5	25.0	-	13.6	31.8	-	-	100.0(40)	

** $p < .01$, *** $p < .001$

3. 일반 보육·유아교육 정책 관련 의견

제3절에서는 일반적인 보육·유아교육 정책과 관련된 질문 결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책임 분담,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보육료 상한선, 추가 조세 부담 등에 관한 의견 등이다.

가. 영유아 양육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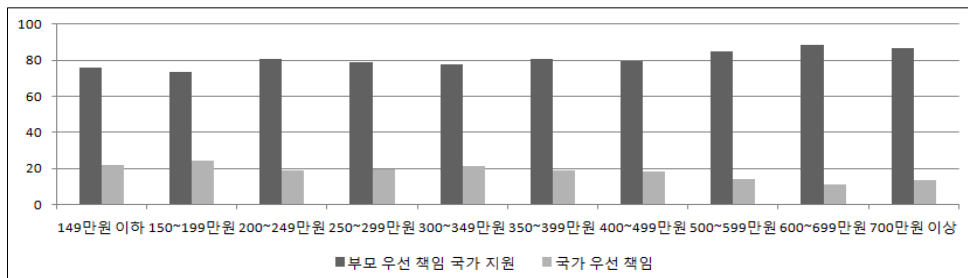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책임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모 우선 책임에 국가가 지원하는 의견에 대한 찬성이 80.5%로 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8.4%로 나타났다. 부모 우선 책임에 대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견이 많았다. 국가 우선 책임에 대한 의견은 영아, 대도시 지역, 미취업모, 저소득일수록 많아 양육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험하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양육의 국가책임 의견 집단이 국가 육아지원에의 수요도가 높은 집단으로 보인다(표 XI-3-1 참조).

〈표 XI-3-1〉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단위: %(명)

구분	부모 우선 국가 지원	책임 국가 지원	잘 모름	(수)	X ² (df)
전체	80.5	18.4	1.1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9.0	19.6	1.4	100.0(1,595)	5.5(2)
유아	82.6	16.6	0.8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76.6	23.0	0.4	100.0(1,024)	41.7(4) ***
중소도시	82.7	15.1	2.2	100.0(1,017)	
읍·면	84.1	15.5	0.4	100.0(487)	
모취업 여부					
모취업	82.3	16.6	1.2	100.0(837)	-
휴직중	86.1	12.9	1.0	100.0(112)	
미취업	78.8	20.0	1.2	100.0(1,563)	
부채 등	94.7	5.3	-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75.9	21.7	2.4	100.0(75)	29.77(18) *
150~199만원	73.8	24.1	2.1	100.0(184)	
200~249만원	80.5	18.9	0.7	100.0(305)	
250~299만원	78.9	19.4	1.7	100.0(387)	
300~349만원	77.9	21.3	0.8	100.0(405)	
350~399만원	81.0	19.0	0.0	100.0(207)	
400~499만원	79.8	18.5	1.7	100.0(402)	
500~599만원	84.8	14.4	0.8	100.0(263)	
600~699만원	88.4	11.0	0.7	100.0(125)	
700만원 이상	86.5	13.5	0.0	100.0(17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76.5	21.7	1.7	100.0(1,157)	23.6(6) **
유치원만 이용	83.6	15.2	1.2	100.0(566)	
둘 다 이용	79.3	20.0	0.7	100.0(140)	
미이용	84.2	15.4	0.4	100.0(66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XI-2-5]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나.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중 가장 바라는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고르게 한 결과,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9.7%, 양육비 현금 지원 18.1% 순으로 많았다.

〈표 XI-3-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단위: %(명)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 서비스 질 향상	육아 정보 상담 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유연 근무제 실시	기타	계	X ² (df)
전체	19.7	32.6	18.1	11.5	0.7	7.7	6.1	3.5	0.1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9.2	30.3	21.5	10.5	0.6	7.7	6.1	4.1	0.1	100.0(1,595)	40.2(8)***
유아	20.4	36.4	12.8	13.1	0.7	7.7	6.2	2.6	0.1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21.9	26.4	18.8	13.6	0.8	7.5	7.4	3.7	-	100.0(1,024)	44.3(16)***
중소도시	18.9	37.7	17.5	9.8	0.7	7.2	4.9	3.2	0.1	100.0(1,017)	
읍·면	16.6	35.5	18.1	10.2	0.4	9.3	6.2	3.8	-	100.0(487)	
모취업 여부											
모취업	19.2	33.3	12.7	10.8	-	10.8	8.5	4.6	0.1	100.0(837)	-
휴직중	17.8	20.8	12.9	5.0	1.0	11.9	13.9	16.8	-	100.0(112)	
미취업	19.9	33.2	21.6	12.3	1.1	5.5	4.4	2.1	-	100.0(1,563)	
부재 등	35.0	20.0	15.0	-	-	25.0	5.0	-	-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9.8	36.6	30.5	3.7	0.0	9.8	8.5	1.2	-	100.0(75)	-
150~199만원	13.8	33.3	30.7	9.0	4.2	3.2	2.6	3.2	-	100.0(184)	
200~249만원	15.9	39.1	25.2	6.3	0.7	8.9	3.6	0.3	-	100.0(305)	
250~299만원	19.4	36.6	15.9	12.9	-	10.7	2.7	1.7	-	100.0(387)	
300~349만원	21.5	38.7	13.4	12.3	0.3	7.6	4.4	1.9	-	100.0(405)	
350~399만원	22.4	38.8	14.8	5.1	-	6.6	6.1	6.1	-	100.0(207)	
400~499만원	23.6	26.8	17.0	14.4	0.2	7.3	6.6	3.9	0.2	100.0(402)	
500~599만원	19.5	30.4	14.0	12.8	0.4	7.4	8.9	6.6	-	100.0(263)	
600~699만원	24.0	24.7	11.6	15.1	0.7	4.8	15.1	4.1	-	100.0(125)	
700만원 이상	18.9	15.4	19.5	17.2	1.2	7.7	10.7	9.5	-	100.0(17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9.5	35.4	13.4	11.4	0.4	10.4	6.1	3.3	0.1	100.0(1,157)	-
유치원만 이용	19.1	37.8	14.9	11.3	1.2	6.6	5.7	3.4	-	100.0(566)	
둘 다 이용	17.7	34.0	15.6	12.8	-	9.9	8.5	1.4	-	100.0(140)	
미이용	21.0	23.5	29.2	11.5	0.7	3.8	5.9	4.4	-	100.0(665)	

*** $p < .001$

전반적으로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지만 보육 공공 인프라 구축 및 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보육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하위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아는 양육비 현금 지원이 유아보다 많았고, 유아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기관 서비스 질 향상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도시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소도시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읍·면지역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보육의 다양성 확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의 양육비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컸으며, 취업모는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와 보육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모 부재 가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및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중산층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소득층일수록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양육비 현금 지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이용기관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이용 아동 부모가 현금 지원 요구가 높고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선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XI-3-2 참조).

다.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은 시·도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한제가 아닌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부모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상한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1%,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 31.9%로, 정부의 보육료 제한 의견이 가장 많고, 상한선 설정이 정부 결정 의견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로 적은 수준이다.

정부결정의 의견도 유아보다는 영아가, 미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영아 자녀를 둔 부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정부의 비용 제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유아보다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 그리고 미취업모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의견 또한 다소 많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의견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용기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와 미이용 부모가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XI-3-3 참조).

〈표 XI-3-3〉 보육료 자율적 결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정부 결정	정부 상한선 제시	보육료 완전 자율화	기타	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31.9	62.1	4.6	-	1.3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3.9	59.8	5.1	0.1	1.1	100.0(1,595)	-
유아	28.8	65.8	3.8	-	1.6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33.5	59.9	5.3	-	1.3	100.0(1,024)	
중소도시	29.6	64.8	4.4	0.1	1.2	100.0(1,017)	-
읍·면	33.3	61.7	3.5	-	1.5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29.8	65.7	3.3	-	1.2	100.0(837)	
휴직	33.7	64.4	2.0	-	-	100.0(112)	
미취업	32.8	60.1	5.5	0.1	1.5	100.0(1,563)	-
부채 등	47.4	52.6	-	-	-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8.6	57.8	2.4	-	1.2	100.0(75)	
150~199만원	47.6	47.1	4.2	-	1.0	100.0(184)	
200~249만원	36.1	56.6	6.6	-	0.7	100.0(305)	
250~299만원	37.0	59.8	2.0	-	1.2	100.0(387)	
300~349만원	29.7	65.9	1.9	-	2.5	100.0(405)	
350~399만원	26.5	67.9	2.6	0.5	2.6	100.0(207)	119.1(36)***
400~499만원	27.7	64.7	5.6	0.2	1.7	100.0(402)	
500~599만원	29.7	66.4	2.7	-	1.2	100.0(263)	
600~699만원	26.7	63.7	9.6	-	0.0	100.0(125)	
700만원 이상	20.5	66.7	12.9	-	-	100.0(17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33.5	62.2	2.8	0.1	1.4	100.0(1,157)	
유치원만 이용	27.0	67.6	4.4	-	1.0	100.0(566)	
둘 다 이용	34.0	62.4	1.4	-	2.1	100.0(140)	-
미이용	33.1	57.2	8.4	0.1	1.2	100.0(665)	

*** $p < .001$

라. 추가 조세 부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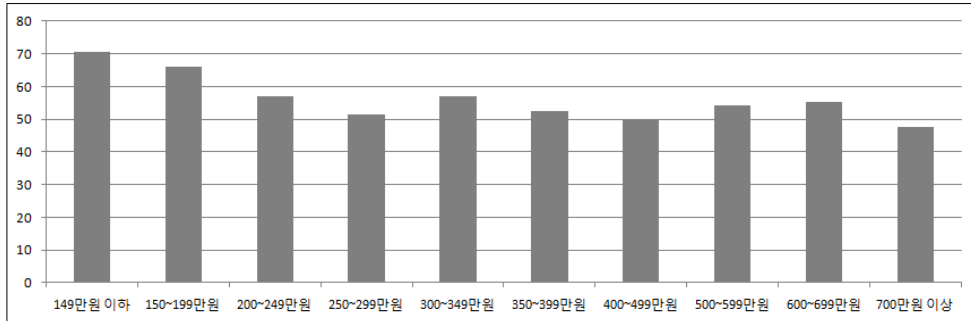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담 의사는 없다는 응답이 54.6%이며, 있다는 의견은 33.4% 정도였다.

추가 세금 부담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유아 부모, 도시지역, 유치원 이용 부모,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추가 세금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의견은 영아 부모에게서, 읍·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 두 기관 모두 이용하는 부모가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XI-3-4 참조).

〈표 XI-3-4〉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구분	단위: %(명)				X ² (df)
	없다	있다	잘 모름	계(수)	
전체	54.6	33.4	12.0	100.0(2,5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8.5	37.7	13.9	100.0(1,595)	61.4(2)***
유아	64.4	26.6	9.1	100.0(933)	
지역규모					
대도시	56.0	29.2	14.8	100.0(1,024)	27.4(4)***
중소도시	55.7	34.8	9.5	100.0(1,017)	
읍·면	49.0	40.0	11.0	100.0(487)	
모취업 여부					
취업	54.7	35.0	10.3	100.0(837)	7.5(6)
휴직	46.5	37.6	15.8	100.0(112)	
미취업	55.2	32.2	12.7	100.0(1,563)	
부채 등	50.0	35.0	15.0	100.0(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70.7	17.1	12.2	100.0(75)	55.1(18)***
150~199만원	66.0	21.5	12.6	100.0(184)	
200~249만원	57.0	27.2	15.9	100.0(305)	
250~299만원	51.4	38.5	10.2	100.0(387)	
300~349만원	56.9	28.6	14.4	100.0(405)	
350~399만원	52.6	36.2	11.2	100.0(207)	
400~499만원	49.6	40.1	10.2	100.0(402)	
500~599만원	54.1	34.6	11.3	100.0(263)	
600~699만원	55.1	35.4	9.5	100.0(125)	
700만원 이상	47.6	40.6	11.8	100.0(173)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9.9	36.6	13.5	100.0(1,157)	38.8(6)***
유치원만 이용	64.4	26.7	9.0	100.0(566)	
둘 다 이용	44.7	41.1	14.2	100.0(140)	
미이용	55.7	32.6	11.7	100.0(665)	

*** p < .001



[그림 XI-2-6]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없다'는 비율)

4. 시사점

이 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의견을 실제 수혜율과 도움정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아직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즉 인프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약 37%, 49%로 어린이집 충분성이 유치원보다는 10% 포인트 이상 높았으나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며, 읍·면지역에서 더욱 그랬다. 반면 믿고 보낼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있다는 긍정 응답이 어린이집의 경우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마찬가지로 유치원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인프라 대비 부모의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형 등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이 되기는 아직 역부족임을 나타냈다. 공공형 등의 공인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가 40%대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질적 수준이 유사하다는 의견은 인지자 중 31%로 조사되어서, 부모가 인식하는 공인어린이집의 정책 효과가 적었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60% 이상의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이용경험이 2.1~4.6%로 저조하게 나타나, 아이돌보미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영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도, 가장 잘하는 정책과 수혜자의 양육 어려움의 완화 등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0~5세 보육료·교육비에 대한 긍정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

이 가구소득과 상관없는 보편 지원으로서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는 53.3%(3.3점/5점평균)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불만족하는 경우에 이유는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형평성 부족, 세금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 실제 무상보육이 아니라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확대)에 대해서는 60~70% 이상의 인지도 및 80% 이상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등 긍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대체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이었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중 가장 바라는 정책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비 현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보육의 다양성 확보도 응답되었다.

넷째, 완전 무상보육이 실현될 경우에 17% 정도는 당초계획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정책 추진 여하에 따라서 출산정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아 부모, 대도시지역, 미취업모, 그리고 가구소득 최하층(월소득 150만원 미만)을 제외한 중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이 출산의도 형성과 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약 1/4 정도를 차지한다.

다섯째,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우선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부모들 중 아동 양육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8.4%이었다. 이는 영아자녀의 부모, 대도시지역, 미취업모, 저소득일수록 많아 양육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됨과 동시에, 육아지원정책의 수요도가 높은 집단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의견은 33% 이상이었다. 추가 세금 부담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유아 부모, 도시지역, 유치원 이용 부모,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마지막으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로 낮은 수준이다.

육아지원정책의 설계에 있어 수요자 부모의 요구와 의견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기관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만족도는 이에 비해 낮았다. 이로 인한 추가세금의 부담의사는 영유아 부모의 1/3로, 국가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공공의 책임의식은 지원 요구도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육아지원정책의 확대와 함께 영유아부모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의 국가 육아지원에 대한 책임의식의 공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XII. 영유아의 보육·교육 수요

제12장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계획과 현 이용기관 지속 이용기간과 이용 기관 변경 계획 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희망시기를 기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추가 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가. 향후 이용계획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정하여 앞으로의 이용 의사를 질문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영유아 중 20.2%는 어린이집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7.5%는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8.5%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7%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기관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다 보낸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에만 보내겠다는 비율이 읍·면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다소 높다. 모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어린이집에만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은 149만원 미만과 500~699만원 사이에서 유치원만 선호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 한편 소득 수준 600만원 이상은 두 군데 모두 안 보내고 다른 곳은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를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만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004년도 19.9%에서 2009년도에 25.7%가 증가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20.2%로 줄어들었다.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4년 34.1%에서 2009년과 본 조사에서 27%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은 2004년 37.6%에서 2009년도에 43.9%로 증가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48.5%로 2009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는 비율은 2004년도

7.5%에서 2009년도 2.5%로 감소하였다가 본 조사에서는 3.7%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의 의견 변화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또한 기타 기관을 원하는 특별한 수요도 고소득층에서는 상당수 있음을 잘 나타낸다.

〈표 XII-1-1〉 제 특성별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만 보냄	유치원에만 보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보냄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0.2	27.5	48.5	3.7	0.1	100.0(3,343)
영유아구분						
영아	14.1	4.8	80.4	0.7	0.1	100.0(1,802)
유아	26.3	50.5	16.3	6.8	-	100.0(1,541)
연령						
0세	10.1	3.8	85.7	0.4	-	100.0(802)
1세	11.4	5.2	83.2	0.2	-	100.0(538)
2세	23.3	5.8	69.2	1.5	0.2	100.0(462)
3세	19.7	39.1	38.3	3.0	-	100.0(503)
4세	28.7	50.1	15.6	5.6	-	100.0(556)
5세	29.5	59.7	0.2	10.6	-	100.0(482)
지역규모						
대도시	20.2	26.7	48.4	4.6	-	100.0(1,348)
중소도시	16.9	28.7	50.8	3.5	0.1	100.0(1,325)
읍·면	27.3	27.1	43.4	2.2	-	100.0(670)
모취업 여부						
취업	25.6	30.4	40.4	3.6	-	100.0(1,056)
휴직중	12.3	9.6	74.7	3.4	-	100.0(152)
미취업	17.7	27.3	51.1	3.9	-	100.0(2,115)
부재 등	28.0	32.0	40.0	-	-	100.0(20)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26.5	31.4	42.2	-	-	100.0(98)
150~199만원	31.6	20.8	45.7	1.9	-	100.0(245)
200~249만원	20.4	27.9	51.2	0.5	-	100.0(416)
250~299만원	25.2	21.0	53.0	0.6	0.2	100.0(537)
300~349만원	18.5	29.6	50.2	1.7	-	100.0(511)
350~399만원	21.2	27.0	49.6	2.2	-	100.0(280)
400~499만원	19.5	28.3	48.9	3.4	-	100.0(525)
500~599만원	14.4	38.0	43.5	4.0	-	100.0(350)
600~699만원	12.6	32.3	40.7	14.4	-	100.0(153)
700만원이상	10.6	23.8	46.8	18.7	-	100.0(225)
2009년	25.7	27.9	43.9	2.5	-	100.0(3,301)
2004년	19.9	34.1	37.6	7.5	0.9	100.0(2,963)

1) 현 이용 기관 지속 이용 기간

본 조사에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향후 언제까지 보낼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그만 보내겠다는 경우에 다른 보육·교육기관으로 보낼 의향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XII-1-2>와 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앞으로 더 다닐 예정인 기간은 1년 미만 44.5%, 2년 미만 29.9%, 3년 미만 18.3%, 4년 미만 5.8%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연령이 어려서 취학 전까지 기간이 길수록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기관을 모두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엿볼 수 있다.

<표 XII-1-2> 현 기관 지속이용 예상 기간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이상	단위: %(명)
							계(수)
전체	44.5	29.9	18.3	5.8	1.3	0.1	100.0(2,387)
영유아구분							
영아	25.6	31.1	21.4	17.4	4.0	0.4	100.0(879)
유아	54.1	29.2	16.7	-	-	-	100.0(1,509)
X ² (df)							461.5(5)***
연령							
0세	8.6	29.5	25.7	28.6	4.8	2.9	100.0(125)
1세	21.8	28.9	31.8	8.4	9.1	-	100.0(348)
2세	32.8	33.3	12.6	21.4	-	-	100.0(406)
3세	28.0	16.0	56.0	-	-	-	100.0(487)
4세	18.8	81.2	-	-	-	-	100.0(545)
5세	100.0	-	-	-	-	-	100.0(477)
X ² (df)							-
지역규모							
대도시	44.1	30.4	19.8	4.6	1.0	0.2	100.0(918)
중소도시	46.0	30.4	17.2	5.2	1.2	-	100.0(962)
읍·면	42.7	27.6	17.3	9.8	2.4	0.2	100.0(508)
X ² (df)							26.3(10)**
모취업 여부							
취업	44.4	29.6	17.0	7.3	1.4	0.3	100.0(929)
휴직중	46.8	29.0	17.7	4.8	1.6	-	100.0(66)
미취업	44.7	30.4	19.0	4.6	1.3	-	100.0(1,375)
부재 등	40.9	9.1	36.4	13.6	-	-	100.0(18)
X ² (df)							-

** $p < .01$, *** $p < .001$.

2) 이용 기관 변경 계획

취학 전에 기관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어떤 기관으로 이동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8.0%는 유치원으로, 20.8%가 어린이집으로, 1.1%가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4세는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겠다는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왔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다른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표 XII-1-3 참조).

〈표 XII-1-3〉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구분	(다른)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	(다른)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20.8	78.0	1.1	0.1	100.0(1,080)
영유아구분					
영아	28.6	70.2	1.0	0.1	100.0(748)
유아	3.0	96.4	0.7	-	100.0(332)
X ² (df)		-			
연령					
0세	40.4	57.8	1.8	-	100.0(128)
1세	37.4	62.2	0.4	-	100.0(304)
2세	16.5	81.6	1.6	0.3	100.0(316)
3세	2.4	96.7	1.0	-	100.0(228)
4세	1.1	97.8	1.1	-	100.0(101)
5세	75.0	25.0	-	-	100.0(3)
X ² (df)		-			
지역규모					
대도시	17.6	81.4	1.0	-	100.0(396)
중소도시	23.4	75.4	1.1	-	100.0(470)
읍·면	21.5	77.3	0.6	0.6	100.0(214)
X ² (df)		-			
모취업 여부					
취업	19.2	80.1	0.5	0.3	100.0(400)
휴직중	23.8	76.2	-	-	100.0(43)
미취업	21.9	76.6	1.4	-	100.0(628)
부재 등	9.1	90.9	-	-	100.0(9)
X ² (df)		-			

3) 선호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 35.1%이다. 민간이 49.6%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고, 비영리법인이 6.0%이다. 이는 2009년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이 38.9%, 민간 45.5%, 비영리법인이 7.9%에 비교하여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이 다소 줄고 민간어린이집이 증가하였다. 2004년 조사에서 나타난 선호도 국공립어린이집 56.2%, 민간어린이집이 29.3%와 비교하면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이용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표 XII-1-4〉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의 보내고 싶은 시설 형태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단체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계(수)
전체	35.1	6.0	49.6	7.9	0.1	1.3	-	100.0(2,373)
영유아구분								
영아	38.6	4.0	44.9	11.0	0.3	1.1	-	100.0(1,697)
유아	27.3	10.1	60.0	0.7	-	1.8	-	100.0(677)
$X^2(df)$				141.8(5) ^{***}				
연령								
0세	49.8	1.9	35.1	12.0	0.3	1.0	-	100.0(765)
1세	34.8	4.6	47.6	11.7	-	1.3	-	100.0(509)
2세	24.4	7.2	58.0	9.0	0.2	1.2	-	100.0(423)
3세	24.2	8.2	63.1	1.7	-	2.7	-	100.0(305)
4세	31.5	13.1	53.2	-	-	2.3	-	100.0(228)
5세	27.0	9.7	63.3	-	-	-	-	100.0(144)
$X^2(df)$				-				
지역규모								
대도시	38.6	6.9	45.6	7.3	0.1	1.4	-	100.0(963)
중소도시	30.3	3.7	56.1	8.5	0.1	1.3	-	100.0(929)
읍·면	37.0	8.5	45.3	7.8	0.2	1.2	-	100.0(482)
$X^2(df)$				37.3(10) ^{***}				
모취업 여부								
취업	30.7	7.3	51.0	8.0	-	3.0	-	100.0(729)
휴직중	44.9	5.5	25.2	18.1	0.8	5.5	-	100.0(131)
미취업	36.4	5.2	51.1	6.9	0.2	0.1	-	100.0(1,501)
부채 등	41.2	5.9	47.1	5.9	-	-	-	100.0(13)
$X^2(df)$				-				
2009년	38.9	7.9	45.5	4.6	0.5	1.8	0.8	100.0(2,297)
2004년	56.2	6.9	29.3	0.5	1.7	1.5	3.9	100.0(961)

*** $p < .001$

시설 유형 선호도는 영아보다는 유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고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다.³¹⁾ 아동이 어릴수록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은 2004년 조사나 2009년 조사와 같은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은 법인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도 높으며, 중소도시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별로는 미취업모가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다. 취업모 부모와 비교하여 정보가 빠른 미취업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 보육 유아교육 수요

제1절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의사와 이용희망 시기를 제시하였는데, 조사에서는 각 월령별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곳을 조사하였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추가 수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가. 어린이집 수요

수요 추정은 각 세별로 일정한 월령 도달 시에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각 기준 월령을 해당 보육연령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현재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육연령이 산출되어 그 해 12월까지 동일한 연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 세별 해당 월령 이용희망률을 수요로 보고, 현재 이용률과 비교하여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보육 추가 수요로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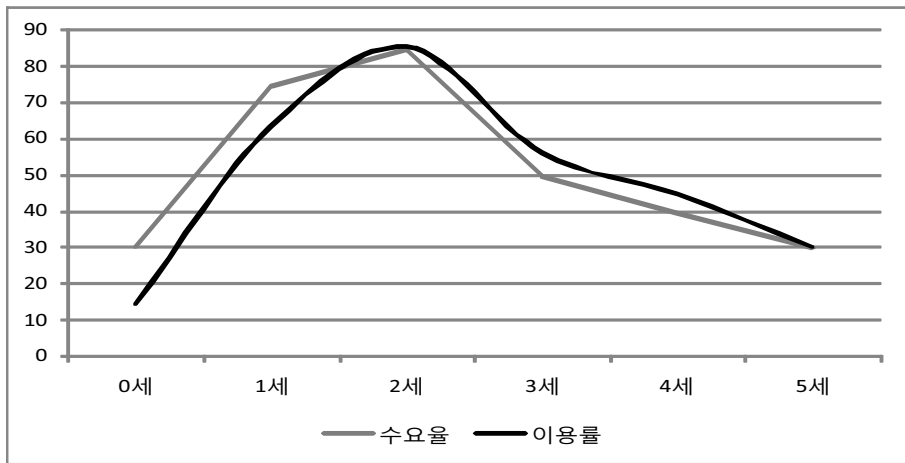
이러한 방식은 2009년 추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2009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의사와 희망 이용시기 자료에 근거하여 이용 희망률을 1년내 이용희망률, 동일연령이용희망률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1년내 이용 희망률은 그 이용시기가 1년 이내인 경우의 비율이며, 동일 연령비율은 이용하겠다는 시기가 현재 연령과 동일한 아동 비율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의 이용희망 시작 월령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연령으로 환산하여 현재 연령과 동일 연령인 경우만을 특정 연령의 보육 추가 수요로 파악하였다.

31) 가정어린이집의 낮은 선호도는 가정이 영아 중심의 어린이집이라는 점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구분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XII-2-1>은 각 세별로 1월 1일 기준 월령의 이용 희망률과 실제 이용률을 나타낸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월령 11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30.1%이고 0세 현재 이용률은 14.2%로 15.9%의 미충족 수요가 있고, 1세는 월령 23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74.7%이고 현재 이용률은 63.4%로 11.3%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 2세는 월령 35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84.7%이고 현재 이용률은 85.2%로 수요 대비 0.5%가 초과 이용하고 있다. 3세는 월령 47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49.7%이고 현재 이용률은 56.1%로 이용률이 6.4%가 높다. 4세는 월령 59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39.4%이고 현재 이용률은 44.5%로 이용률이 5.1%가 높고, 5세는 월령 71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29.9%이고 현재 이용률은 30.0%로 이용률과 수요율의 차이가 없다.

<표 XII-2-1> 연령별 해당 개월의 어린이집 수요

구분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	이용률	단위: %(명)	
								추가 수요	규모 (2013)
0세	30.1	64.1	86.2	66.3	19.3	9.8	14.2	15.9	(72,480)
1세	-	74.7	87.5	62.8	17.7	11.6	63.4	11.3	(51,341)
2세	-	-	84.7	64.7	31.2	22.7	85.2	- 0.5	(-2,411)
3세	-	-	-	49.7	28.7	20.7	56.1	- 6.4	(-28,502)
4세	-	-	-	-	39.4	30.4	44.5	- 5.1	(-23,012)
5세	-	-	-	-	-	29.9	30.0	- 0.1	(-485)
									(69,412)



[그림 XII-2-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과 수요율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약 69,400여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어린이집 공급 상으로는 유아가 일부 어린이집을 빠져 나가고 그 공급은 영아가 사용한다는 가정이다. 영아 추가수요는 0세가 7만 2천명이 넘고, 1세가 5만 명의 추가 수요를 보여서 총 121,421명이며, 유아는 오히려 52,000여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음 <표 XII-2-2>는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세별 이용률과 기준 월령의 이용 희망률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지역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인구추계가 지역규모별로 산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규모별 추가 수요를 추정할 수는 없다.

<표 XII-2-2> 지역별 연령별 해당 개월의 어린이집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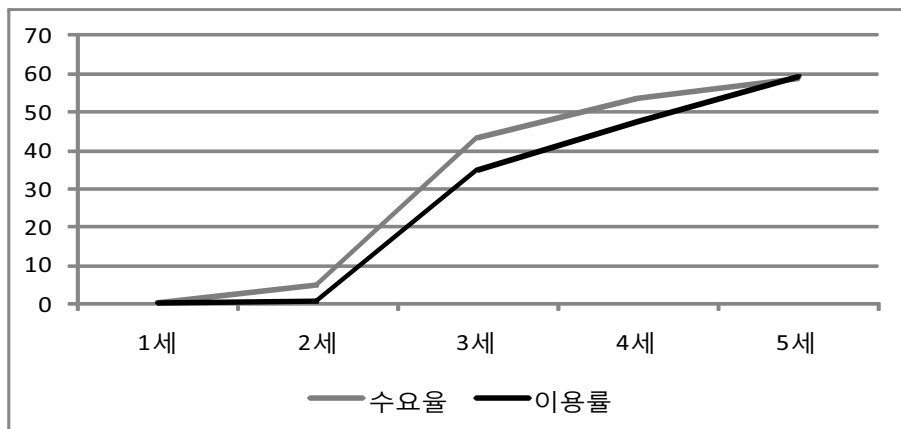
구분								단위: %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	이용률	추가수요	
대도시									
0세	26.3	61.4	83.8	65.1	14.9	7.4	11.7	14.6	
1세	-	68.0	83.9	59.6	16.5	10.7	56.6	11.4	
2세	-	-	79.5	67.4	26.3	20.1	80.4	-0.9	
3세	-	-	-	50.6	27.0	21.1	56.7	-6.1	
4세	-	-	-	-	39.4	35.8	42.9	-3.5	
5세	-	-	-	-	-	34.6	33.8	0.8	
중소도시									
0세	33.8	68.2	88.3	65.0	20.5	9.1	17.1	16.7	
1세	-	80.7	90.0	65.7	15.5	7.5	66.9	13.8	
2세	-	-	84.7	56.8	25.3	15.9	85.2	-0.5	
3세	-	-	-	49.7	31.7	19.7	57.3	-7.6	
4세	-	-	-	-	36.2	21.9	40.0	-3.8	
5세	-	-	-	-	-	24.5	25.3	-0.8	
읍·면									
0세	30.8	59.8	88.0	74.4	28.2	19.2	14.5	16.3	
1세	-	79.3	91.5	64.2	25.6	23.0	73.2	6.1	
2세	-	-	95.7	75.0	53.3	40.3	94.6	1.1	
3세	-	-	-	46.7	25.7	23.3	50.0	-3.3	
4세	-	-	-	-	45.5	37.1	54.5	-9.0	
5세	-	-	-	-	-	31.3	29.5	1.8	

나. 유치원 수요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XII-2-3>은 각 세별로 1월 1일 기준 월령의 이용 희망률과 실제 이용률을 나타낸다. 일부 영아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또한 수요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유아만 대상으로 하였다. 3세는 월령 47개월 기준 유아교육 수요는 43.4%이고 현재 이용률은 34.7%로 추가 이용이 가능한 비율이 8.7%이다. 4세는 월령 59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53.7%이고 현재 이용률은 47.5%로 이용률이 6.2%가 낮아서 미충족 수요이다. 5세는 월령 71개월 기준 보육수요는 58.8%이고 현재 이용률은 59.2%로 이용률과 수요율의 차이는 0.4%p 차이이다.

<표 XII-2-3> 연령별(1월 1일 기준) 해당 개월의 유치원 수요

구분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	이용률	단위: %(명)	
								추가 수요	규모 (2013)
0세	-	-	4.2	31.6	79.4	88.4	-	-	
1세	-	0.4	7.1	35.6	81.7	87.6	0.2	0.2	(909)
2세	-	-	5.2	31.8	65.8	74.4	0.6	4.2	(20,250)
3세	-	-	-	43.4	67.2	76.3	34.7	8.7	(38,745)
4세	-	-	-	-	53.7	63.8	47.5	6.2	(27,976)
5세	-	-	-	-	-	58.8	59.2	-0.4	(-1,941)
									(64,780)
									(85,939)



[그림 XII-2-2] 연령별 유치원 이용률과 수요율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약 64,780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를 포함할 경우에는 85,939명이다.

다음 <표 XII-2-4>는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세별 이용률과 기준 월령의 이용 희망률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지역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역시 인구 관련 자료 부족으로 지역규모별로 수요를 산출할 수 없다.

<표 XII-2-4> 연령별 해당 개월의 유치원 수요

구분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	단위: %	
							이용률	추가수요
대도시								
0세	-	-	7.0	33.3	83.9	90.4	-	-
1세	-	0.5	7.3	38.1	83.0	88.7	-	-
2세	-	-	5.3	27.9	68.9	77.1	-	-
3세	-	-	-	42.1	67.8	74.9	33.0	9.1
4세	-	-	-	-	51.7	56.8	46.8	4.9
5세	-	-	-	-	-	52.4	54.0	-1.6
중소도시								
0세	-	-	2.3	34.0	78.2	89.4	-	-
1세	-	0.6	7.2	33.7	84.0	91.8	0.6	0.0
2세	-	-	6.6	39.9	73.1	81.1	1.6	5.0
3세	-	-	-	42.2	63.8	78.3	33.7	8.5
4세	-	-	-	-	58.7	74.7	52.8	5.9
5세	-	-	-	-	-	62.7	62.1	0.6
읍·면								
0세	-	-	1.7	20.5	70.9	79.8	-	-
1세	-	-	6.1	33.3	73.2	75.4	-	-
2세	-	-	2.2	23.9	44.6	56.9	-	-
3세	-	-	-	50.7	74.3	76.7	43.4	7.3
4세	-	-	-	-	47.5	54.3	38.6	8.9
5세	-	-	-	-	-	65.6	67.9	-2.3

다. 기타 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기타 기관도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1세 아는 이용률과 이용수요가 동일하고 만2세는 0.6%의 미충족 수요가 있으며 3세는 0.2%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 한편 4세는 이용이 수요에 비하여 0.4%p가 높다. 5세는

현재 9.8%가 이용하지만 희망하는 비율은 10.4%로 0.6p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약 4,890명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XII-2-5〉 연령별 해당 개월의 기타 시설 수요

단위: %(명)

구분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	이용률	추가 수요	규모 (2013)
0세	-	-	0.7	0.5	1.2	1.6	-	-	
1세	-	0.4	0.4	0.4	0.6	0.9	0.4	-	
2세	-	-	1.9	2.1	2.8	2.9	1.3	0.6	(2,893)
3세	-	-	-	5.3	4.2	3.0	5.1	0.2	(891)
4세	-	-	-	-	6.4	5.9	6.8	-0.4	(-1,805)
5세	-	-	-	-	-	10.4	9.8	0.6	(2,911)
									(4,890)

3. 시사점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영유아 중 20.2%는 어린이집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7.5%는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8.5%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7%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각 세별로 1월 1일 기준 월령의 어린이집 이용 희망률과 실제 이용률을 보면 0세 아는 15.9%, 1세아는 11.3%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 그러나 2세는 수요 대비 0.5%, 3세는 6.4%, 4세는 5.1%가 희망하는 비율보다 실제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5세는 이용률과 수요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영아는 약 12만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69,400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유아교육은 3세는 8.7%, 4세는 6.2%의 미충족 수요가 있고, 5세는 이용률과 수요율의 차이는 0.4%p이다.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약 64,700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를 포함할 경우에는 86,000여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영아는 비교적 높으나 유

아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린이집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비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공급이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린이집 유아 수요는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특히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을 포함한 제반 질적 수준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XIII 정책제언

제13장에서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보육 공급과 이용, 보육지원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내용과 질, 보육 비용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보육 공급과 이용

가. 어린이집 수요 추정

2012년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로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아보육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연령, 전 계층 무상보육과 더불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아 수요는 누리과정 실시와 더불어 유치원의 수요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공급 전략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조사결과,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영아는 비교적 높으나 유아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린이집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비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세별로 1월 1일 기준 월령의 이용희망률과 실제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은 0세아는 15.9%, 1세아는 11.3%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 그러나 3, 4세는 5~6%가 수요 대비 초과 이용 비율이다.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이나 초과 이용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영아 추가보육 수요는 12만명이 넘으나 유아의 마이너스 수요를 고려하면 69,400명이다.

반면에 유아교육은 3세는 8.7%, 4세는 6.2%의 미충족 수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 미충족 비율을 2013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약 64,700여명 정도의 추가 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를 포함할 경우에는 86,000여명이다.

따라서 수요 추정이나 어린이집 확충 시에는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야 하고,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보다 적은 어린이집의 유아 수요는 누리과정 실시와 더불어서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기능을 포함한 제반 질적 수준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유치원의 수요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보편성과 선별성의 조화

모든 아동에게 일정 시간의 기본적 보육서비스를 보장하되, 취업모 등 장시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 높은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가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이 조화를 이룬 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본 조사에서 보육·유아교육 기관의 보편적 이용이 영유아 정책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반일제이상 기관의 처음 이용 시기는 평균 37.3개월로 최초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이용 이유는 사회성 발달 26.9%, 전인적 발달 16.9% 등 자녀 발달이 46%를 차지하여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인 24.6%를 훨씬 상회한다.

현재 기관 이용 이유도 사회성 발달 28.8%, 전인적 발달이 28.3%이고 대리보호는 12.6%이며, 이외 초등학교 준비 12.1%,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9.7%, 같이 놀 또래 필요성 3.7%, 예체능교육 2.6% 순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 계층 무상보육 등 보편성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전 아동 대상의 보편적 정책을 실시하되, 취업모 등 아동을 잘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한 대리보호 필요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 등 특별한 환경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다. 접근성 제고

전국적으로 질 높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균형 배치를 통한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에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9년 68.7%, 2012년 81.1%로 2009년 대비 2012년에 12.4%p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개선되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읍·면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영아 무상보육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 급속한 확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사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72.6%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아직도 나머지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이나 시·군·구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가 접근성이다. 그러나 영유아 이용하는 기관은 27.4%가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3%이었다.

3~5세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고려하여 지역 수요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의 부족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장거리 등하원을 하는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국공립 보육·교육기관을 확충하여 각 지역마다 일정 부분 아동 보육을 담당하도록 전국에 균형 배치 확충한다. 기본적으로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시장 중심 공급 구조 속에서 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이용 요구가 높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보육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어린이집의 공공성 재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조사 결과, 질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아직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즉 인프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약 37%로 유치원보다는 10%p 이상 높았으나,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며, 읍·면지역에서 더욱 그랬다. 반면 믿고 보낼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70% 정도이다. 또한 보육·교육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률은 22.6%이고, 대기 기간은 평균 6.4개월인데, 입소 대기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3.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국공립을 설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의 5%, 아동의 1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설치비 지원 기준이나 지원단가 등 지원 수준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공

립어린이집이 지역별로 아동 수 대비 일정 비율을 보육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 공공형 어린이집의 제 기준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이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물론 각종 지원이나 각종 운영기준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본을 갖춘 자가 시설로 한정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상의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활동과 같은 사항을 일반 민간개인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준하도록 내버려 두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본 조사 결과 공공형 등 공인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안이 되기는 아직 역부족임을 나타냈다. 공공형 등의 공인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가 40%대이고 안다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질적 수준이 유사하다는 의견은 30.7%로 조사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소수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수 있으나, 부모가 인식하는 공인어린이집의 정책 효과는 당초 기대보다 낮다고 하겠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 수준이 낮다. 교사 인건비가 아니고 규모별로 집단화하여 일정 금액은 운영비 형태로 보조한다. 지원 기준이 낮다보니 선정기준이나 각종 운영 기준도 높게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어린이집의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2. 보육지원의 다양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어머니 중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이다. 취업모는 34.5%가 부모 대리보호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휴직 중이나 미취업모의 각각 21.3%, 15.3%는 양육부담 경감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가. 부모 요구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서비스는 모의 취업여부 등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요구 맞춤형 서비

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부채를 포함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모가 현재 일하는 비율은 35.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아동 모의 취업률을 최연소 아동 중심으로 보면, 최연소 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34.2%, 유아인 경우는 46.9%이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나타낸다.

영유아 모가 미취업인 주된 이유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지적이 약 22%로 나타나고, 취업 중단 시 주된 사유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48.7%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취업모의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으로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간과의 불일치가 지적된다.

그동안 취업모를 위해서도 취업모 자녀 입소우선순위 1순위 지정,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비용 지원이 취업모 자녀 등 부모들의 보육 요구의 차이에 대한 차등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어 모의 취업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측면은 부족하다. 어린이집 중심의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에게 필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영아의 미취업모 자녀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취업모 자녀 입소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모 자녀 입소우선순위는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취업모의 경우는 비교적 이른 오전 7시부터 기관 이용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은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26%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취업모의 자녀들은 9시 이후 기관 이용이 본격화되어 오후 3시 반 이후 기관 이용률이 약 3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미취업모 자녀들의 경우 오후 3시까지 반일제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이용시간도 취업모 아동은 평균 8시간 23분인데 반해 휴직중과 미취업모 아동 7시간 15분, 6시간 56분으로 취업모 아동이 1시간 이상 길다.

취업모와 미취업모는 이용 시간대별로 양육 실태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재편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실제 이용시간에 맞추어 오후 2~3에 귀가하는 단축형과 종일제로 구분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장기보육 수요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를 위하여 일시보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용하는 프로그램은 종일제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별도 유형의 기관을 두는 방법이 있다.

시간연장형보육도 현재와 같이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어린이집이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이므로 일정 지역별로 거점형 보육기관을 두어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보육은 동일 연령이나 인근 연령 아동수가 일정 규모는 확보되어야 반 운영이 가능하며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나. 보육정보센터 전국 균형 배치

지역사회 보육정보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부모 대상 서비스 집행기관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현재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상담, 부모교육, 육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 사업은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유형을 센터마다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여 부모 지원체제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확보한다.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권역별로 복수 설치하고 지원한다. 현재 시·군·구 센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47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 없이 자녀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다. 본 조사에서도 특히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에서 어머니에 비해 턱없이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관련 정보나 상담을 육아관련사이트나 육아관련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약 40% 수준에 불과하고 친구나 동료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사회 전달체계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는 접근성도 낮다. 사업 중에서는 장난감·도서 대여 부문의 인지율이 약 29%로서 가장 높고,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서비스 항목들에서 90%를 육박한다. 그러므로 보육정보센터를 전국에 인구수에 대비하여 균형 배

치하고 집행기능으로 육아지원사업의 확대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여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 아이돌봄 인력 자격 관리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파견보육서비스 제공자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하고 관리한다.

현재 가정 내 파견보육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하여 아이돌보미 파견보육사업을 국고 지원 사업으로 실시한다. 이외에 비영리단체인 YMCA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보육도우미 파견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거점으로 보육교사 자격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파견보육사업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용은 경기도가 아동 연령이나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 영리부분에서 베이비시터회사들이 베이비시터 파견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베이비시터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에 대한 관리는 정부 사업인 아이돌보미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돌봄인력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나 베이비시터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보육 제공자들의 교육이나 관리는 각 사업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비혈연 주양육자 중 보육교사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고, 공식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 자격소지자의 비율이 각각 15.8%,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이 낮다. 본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혈연과 비혈연 모두에서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양육방식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앞으로 모든 파견보육 제공자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단기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관리하며 재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기 작동하고 있는 중앙건강가정진흥원과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육 받은 도우미 사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기관보육의 이용 시간 내실화도 필요하지만,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게 되므로 공인된 훈련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들에 한하여 개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라.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지원

혈연 개인서비스 이용과 요구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조사 결과 양육 지원 비율은 친조부모 15.2%, 외조부모 16.6%, 친인척 2.9%이므로, 특히 조부모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식은 기관 이용이나 부모 양육이 주를 이루나, 이외에도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4%를 나타내며, 2세 미만아인 경우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양육지원의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1세 자녀를 둔 취업모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기관 이용 없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영아는 혈연 특히 비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0세아와 1세아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기관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서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 지적하였다.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경향은 취업모에서 더 두드러진다. 취업모의 경우 해당 비율은 39.1%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취업모 위주로 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취업모 대상으로 기관 미이용 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양육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로는 기관서비스 이용 대체 지원금인 양육수당을 결국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취업모에 한하여 양육수당 수급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보육서비스 내용과 질

가. 취약보육 효율화

수요조사에 의하면 시간연장형, 야간 및 24시간, 토요일 및 휴일 보육 등 정규 보육 이외의 취약보육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미충족 수요가 커서 여전히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 아이가 아플 때, 긴급시 돌보아 주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는 비율은

1% 미만이고,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시간제 보육 0.8%이고, 시간연장보육이 1.6%이며, 나머지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1% 내외이다. 그러나 취약보육의 필요성은 상시 필요가 시간제 보육 10.6%, 시간연장보육 7.8%이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중 가장 바라는 정책도 보육료·교육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비 현금 지원과 더불어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보육의 다양성 확보도 응답되었다.

그러나 취약보육 수요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수요이고 또한 간헐적 수요이므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의 시간연장형 보육과 같이 전국 20%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이용하는 아동은 전 보육아동의 3%인 체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아 일시보육도 90개 어린이집에 150명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지역별로 이러한 보육 전담의 거점형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자가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반 아동의 연령대가 다양하면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특별활동 지침 준수

2011년 3월 14일자로 보건복지부는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내용은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선택권 보장,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운영 금지 등이다.

현재 아동의 65.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은 높아지면서 점차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0세는 5.8%인데 점차 증가하여 5세 이상은 88.7%가 된다. 영아와 유아 특별활동 2개와 3개가 각각 15.1%, 26.4%로 최다빈도를 나타내지만, 유아는 5개 이상이 19.7%로 특별활동 종류가 많다.

이러한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은 정부 특별활동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동 부모의 47.3%만이 오후에만 특별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무수강도 음악 63.5%, 체육 59.2%, 영어 58.3% 등으로 높다. 특별활동 금지 대상인 0세와 1세 아동도 각각 5.8%, 36.8%가 특별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정부 지침과 다르게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

이러한 특별활동 참여는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15.8%가 3만원 미만, 24%가 3~5만원 미만, 46.9%가 5~10만원, 10.7%가 10~15만원을 지불하고 15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2.6%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 비용은 평균 61,700원으로 추정되었다.

앞으로는 우선 특별활동 관리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0세와 만1세아의 특별활동 금지와 오전 특별활동 금지는 지켜져야 하고 부모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특별활동 중 보육교사가 과정에 포함하여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교육, 추가 비용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워서 보육교사 이외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예체능 등의 특별활동은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특별활동 강사 확보가 어려우므로 우선 적용한다. 거의 대부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특별활동 비용은 저소득층에 부모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취약계층 아동의 비용 지원 방법도 고려한다.

다. 건강·영양·안전 관리 철저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 건강검진 사전 안내와 사후 관리 등 아동 건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 결과, 건강검진 사전 안내 비율은 어린이집 91.5%, 유치원은 86.5%이고, 검진 결과 제출은 어린이집 77.1%, 유치원 65.5%이다. 건강검진 비율은 어린이집은 81.4%, 유치원은 71.1%이다.

또한 영유아의 영양 및 안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2004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5점 척도로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평균 1.80점 증가한 데 반해 2012년 조사에서는 증가폭이 낮다. 또한 13개 항목별로도 2009년보다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건강관리, 교육내용, 부모 참여 7개 항목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원장, 교사, 영양 및 안전 등 6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졌다. 만족도는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영양 및 안전 개선 정도가 결국 부모들의 기대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라. 프로그램의 질 제고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는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앞에서 어린이집 추가 수요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유아 부모의 유치원의 선호도가 어린이집 선호도보다 높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상당수가 유치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유치원의 선호도가 어린이집보다 높은 것도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특히 유아 누리과정 도입으로 두 기관간의 유아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질에 대한 수준 비교가 빈번하게 되었다.

연령과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보호자의 23.5%는 좋은 보육·교육 제공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고, 그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65,300원이다. 사교육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영어학원 등 반일제이상 학원도 결국은 차별화된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교사 교육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이러한 어린이집 지원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활동 여지를 넓힐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부모서비스 강화

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 본 조사 결과, 2009년에 비하여 보육계획표나 급간식식단, 가정통신문,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등의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자녀발달평거나 부모상담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의 도움 정도에서 부모상담이 2009년 3.68점에서 3.85점으로 높아졌고 급간식 식단과 발달평가, 부모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직 부모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등의 제공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우선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을 더욱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들 중 아동 양육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8.4%이었다. 이는 영아자녀의 부모, 대도시지역, 미취업모, 저소득일수록 많아 양육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됨과 동시에 육아지원정책의 수요도가 높은 집단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현재보다는 강화되어야 하므로 부모서비스 또한 제대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바.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평가인증 결과 세부적 내용을 비롯한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평가인증 여부 및 점수, 대피시설, 운영위원회, 수입지출, 규정위반, 사고발생 등의 어린이집 정보 중 평가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특히, 수입지출 정보 92%, 규정위반 87.3%, 운영위원회 80.3%, 평가인증 점수 78.9%, 사고발생 76.8% 순으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 94.1%가 사고발생 정보, 대피시설과 규정위반도 89%, 8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로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대상 정보는 어린이집 시설설비 정보, 보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료 및 기타 경비,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급식 식단표, 차량운행, 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평가인증 관련 정보,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등 사고 발생여부, 법 준수 여부 및 행정 지도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평가인증 결과도 현재는 정부가 공개의 주체이나 이보다는 어린이집 스스로 주도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 주 5일제 정착 대응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주 5일제 근로 정착과 더불어 운영일수와 운영시간 기준을 재조정하고 정규보육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 어린이집 이용일수는 아동의 99.1%가 주 5일 이용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34분으로 2009년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도 주 5일제 개념을 도입하고 토요일보육은 휴일보육과 연계하여 지정제나 거점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어린이집이 주말보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일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휴일 등 특수한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토요일 및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 취약보육 전체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 홍보 강화

본 조사결과는 부모 대상 정보 및 자료 제공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특히 누리과정 관련 홍보 및 담당교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이용 부모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낮았고, 누리과정과 기존 보육·교육과정과의 차이에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2.7%로 절반 가량 되었다. 특히 읍·면지역일수록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4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53.5%였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부모의 인식 결과는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이 새로운 보육·교육과정을 운영 하지만 종전 과정과 별 차이가 없던가 아니면 누리과정 내용이 부모에게 전달이 잘 안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교사 교육에 힘을 써야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대상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비용

가. 추가 비용 감소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하면서 부모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무상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올해 실시된 영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등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지도와 수혜자의 양육 어려움의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부모, 대도시지역, 미취업모, 그리고 가구소득 중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이 출산의도 형성과 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약 1/4이 그러하였다. 또한 완전 무상보육이 실현될 경우에 17% 정도는 당초 계획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정책 추진 여하에 따라서 출산정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가계 대비 지출 비용 비율도 감소하였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평균은 161,700원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53,500원이 줄었고,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7.7%에서 5.0%로 줄었다. 비용 내역을 보면 순 비용보다는 추가 비용이

더 많다. 순보육·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78,900원, 24,800원이고, 학원이 677,900원이고, 추가 비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평균 106,900원, 63,900원이고, 학원이 154,400원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이 2004년 28,300원, 2009년 53,800원에서 2012년 63,900원으로 늘어났다. 어린이집 비용 부담에 대해 33.5%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비용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추가 비용으로 인하여 정책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기관 이용 부모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개선사항도 비용으로 19.6%이다. 특히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보육 기능의 강화와 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1차적 정책방안이며 이외에도 지원단가의 현실화나 비용 규제 등이 채택 가능한 정책 대안이 된다.

나. 취약집단 추가 지원

전계층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이 실현되고 보편성은 강화되었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은 없다.

소득계층간의 차이 완화가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별활동에서도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개별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정도가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 이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점차 이용률도 높아졌다. 이러한 개별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특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36%가 이용한데 비해 읍·면은 28%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46%가 이용하고 있었다.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간 시간제 학원 이용 형태도 차이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영유아는 읍·면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교육받는 경향이 있으나 한 가지 프로그램 당 비용은 읍·면이 더 높다. 즉, 전체 비용으로는 도시의 비용 지출이 크지만 아동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교육 혜택의 측면에서는 읍·면 지역이 소비에 해당하는 적절한 정도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에 대해 고비용의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 즉, 학습 바우처 이용의 내실화, 또는 기관의 특별활동 수준의 지원 등의 방법을 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연계 기능도 어린이집의 주요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원 마련

부모 중에서 확대된 보육재정을 위하여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의견은 33% 이상이었다. 추가 세금 부담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유아 부모, 도시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현재와 같이 가구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는 53.3%이었는데, 불만족하는 경우에 이유는 세금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형평성 부족 다음으로 높았고 이외 실제 무상보육이 아니라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의견으로 보아 보육이나 양육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는 수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치원 현황.

권미경·김문정(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 외(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보육·교육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록

부록 1. 표본설계

부록 2. 부록 표

부록 3. 가구조사표

부록 4. 아동조사표

부록 1. 표본설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표본설계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2005년에 발효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부응하여 각종 영유아 관련 정책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수요자 지향적인 보육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여 지역, 아동연령, 소득수준, 母의 취업 등 가정 및 아동특성별 보육서비스 이용 및 수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수용자 특성,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생산함.
- 각종 육아정책수립을 위한 정부 공식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보육정책 수립 및 각종 육아정책을 위한 공식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함.

나. 모집단의 정의

- 목표모집단 : 2012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0~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 조사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섬 및 특수시설 조사구 제외)

다. 표본규모

- 표본의 규모는 전국 300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65가구를 조사하며 조사구내 아동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동보육 수요율을 약 16.7%(2009년 평균)로 추산할 경우 총 19,500가구를 조사하도록 한다.
- 200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층별 아동보육 수요율을 기초로 허용오차 5.3%를 만족하는 규모로서 다음의 산식으로부터 계산된다.

$$n = \frac{N \sum_h^H N_h P_h Q_h}{N^2 V + \sum_h^H N_h P_h Q_h}$$

여기서 $V = d^2/4$ 이며, d 는 목표허용오차, P_h 는 h 층의 모비율이다.

〈표 1〉 영유아 가구수 및 영유아수(2010년 센서스 자료)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가구수	영유아 수	가구수	영유아 수	가구수	영유아 수	가구수	영유아 수
전국	471,374	791,472	656,094	1,786,243	126,426	192,326	100,577	335,007
서울	146,410	247,749	123,142	308,107	0	0	0	0
부산	36,560	52,960	49,589	114,758	835	1,289	1,874	5,624
대구	25,941	39,163	36,065	91,351	1,244	2,020	3,637	11,782
인천	31,399	57,505	43,415	114,146	724	1,559	198	657
광주	11,050	16,034	30,227	86,511	0	0	0	0
대전	16,198	27,107	26,405	74,695	0	0	0	0
울산	10,429	17,877	15,437	43,088	1,844	2,898	3,643	11,974
경기	104,522	187,316	172,961	503,748	25,093	42,614	31,325	105,680
강원	8,221	11,971	17,754	46,142	9,741	14,658	4,974	15,250
충북	9,385	15,027	17,394	48,456	8,524	12,448	6,386	21,282
충남	6,435	9,968	17,122	52,697	16,916	24,624	14,252	47,941
전북	10,389	16,045	25,885	71,061	9,438	13,209	2,715	9,011
전남	6,471	9,672	16,729	47,847	15,038	21,712	6,266	21,601
경북	15,731	24,825	24,137	69,261	18,202	26,113	10,399	31,975
경남	23,016	37,424	36,292	103,808	14,972	22,109	14,702	51,614
제주	9,217	20,829	3,540	10,567	3,855	7,073	206	616

2. 표본설계의 개요

가.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전국보육실태조사는 가구단위 조사로서 조사 관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 및 가구를 1차 및 2차 추출단위로 고려한다. 층화기준은 전국을 7대시, 기타시, 읍·면부로 구분하고, 조사구 유형(일반, 아파트)을 함께 고려하여, 전국의 만 0~5세 이하의 아동 분포에 따라 표본을 층별로 다음과 같은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다.

$$n_h = n \times \frac{N_h}{N}$$

〈표 1〉 층구분

표본추출단위	층화 변수	표본추출방식	표본수	허용오차
조사구	1) 지역(7대도시, 기타시, 읍·면부) 2) 조사구유형(일반, 아파트)	확률비례추출	300조사구	±5.3%
가구	-	계통 추출	19,500가구	

나. 층별 표본규모의 결정

표본규모는 전국 300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조사구내에서 65가구를 기준으로 65가구 이하는 추가 조사구를 이용하고, 65가구 이상은 계통추출하도록 한다.

〈표 2〉 7개 층별 표본배분결과

층	모집단		표 본		
	조사구수	가구수	조사구 추출확률	표본 조사구수	조사대상 가구수
1. 7대시 일반	74,823	4,272,936	0.000989	74	4,820
2. 기타시 일반	51,224	2,881,060	0.000996	50	3,250
3. 읍·면 일반	43,169	2,309,268	0.000996	43	2,770
4. 7대시 아파트	59,820	3,607,375	0.000986	59	3,840
5. 기타시 아파트	57,424	3,456,383	0.000993	57	3,710
6. 읍·면 아파트	16,733	930,444	0.001016	17	1,110
전 체	303,193	17,457,466	0.000993	300	19,500

라. 표본의 대체

2010년도 인구 주택총조사 당시에 확정된 조사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2012년 현재 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한다.

다. 추정방법

1) 가중치 계산

각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 규모에 따라 모집단 층으로부터 추출된 단위들의 추출 확률(p_{hij} : sampling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hij} = p_{hi} \times p_{hj(i)} = \frac{n_h}{N_h} \times \frac{m_h}{M_{hi}} = \frac{n_h m_h}{N_h} \times \frac{1}{M_{hi}}$$

비례배분 하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가중치(w_{hS} : sampling weight)는 다음과 같다.

$$w_{sh} = \frac{1}{p_{hij}} = \frac{N_h}{n_h m_h} \times M_{hi}$$

한편 추출가중치 이외에 조사과정의 무응답, 모집단의 변동을 고려하여 최종가중값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w_{hij} = w_{sh} \times w_{hr} \times w_{ph}$$

w_{rh} 는 무응답 조정 가중값, w_{ph} 는 사추조정 가중값을 나타낸다.

2) 추정

□ 기호정의

$h = 1, 2, \dots, L$: 층을 나타내는 첨자

$i = 1, 2, \dots, n_h$: h 층 내의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j = 1, 2, \dots, m_{hi}$: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

n_h : h 층의 1단계 표본 집락수(표본조사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표본 집락의 표본 가구수

$n = \sum_{h=1}^L n_h$: 표본 집락 총수(표본 조사구 총수)

$m = \sum_{h=1}^L \sum_{i=1}^{n_{hi}} m_{hi}$: 총 표본 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의 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보육아동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f_h : h 층의 조사구 추출률

□ 아동의 보육수요율 추정

○ 전국 아동의 보육수요율(P)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hat{P}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여기서 y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보육서비스 아동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의 분산추정량

$$\begin{aligned} \hat{V}(\hat{P}) &= \sum_{h=1}^H \hat{V}_h(\hat{P}), \\ \hat{V}_h(\hat{P})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e_{hi.} &= \left(\sum_j^{m_{hi}} w_{hij} (y_{hij} - \hat{P}) \right) / \sum_h \sum_i \sum_j w_{hij}, \\ \bar{e}_{h..} &= \left(\sum_{i=1}^{n_{hi}} e_{hi.} \right) / n_h. \end{aligned}$$

—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의 상대표준오차

$$\widehat{CV}(\hat{P}) = \frac{\sqrt{\hat{V}(\hat{P})}}{\hat{P}} \times 100 (\%)$$

부록 2. 부록 표

〈부표 IV-2-1〉 맞벌이 여부별 부모의 양육 태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모						부					
	자기 힘으로 하게 함	모르는 것 반복 설명	칭찬을 자주 함	기본생 활습 관 교육	TV, 컴퓨터 시간 준수	(수)	자기 힘으로 하게 함	모르는 것 반복 설명	칭찬을 자주 함	기본생 활습 관 교육	TV, 컴퓨터 시간 준수	(수)
전체	3.89	3.86	3.99	4.15	3.76	(1,881)	3.79	3.77	3.91	3.87	3.54	(1,855)
맞벌이	3.92	3.92	4.07	4.14	3.74	(713)	3.83	3.84	3.94	3.88	3.51	(709)
외벌이	3.89	3.87	3.97	4.15	3.76	(1,135)	3.82	3.77	3.92	3.88	3.53	(1,130)
둘다 무직	3.86	3.73	3.61	4.07	3.38	(33)	3.85	3.63	3.54	3.61	2.75	(16)
F	0.6	1.9	9.5	0.4	2.7		0.0	1.9	1.6	0.7	3.8*	

* $p < .01$

〈부표 IV-2-2〉 맞벌이 여부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모			부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	(수)	양육시 혼란	귀찮고 짜증	(수)
전체	3.34	2.65	(2,512)	3.02	2.44	(2,472)
맞벌이	3.31	2.59	(895)	3.02	2.42	(891)
외벌이	3.35	2.66	(1,567)	3.03	2.45	(1,557)
둘다 무직	3.68	3.13	(46)	2.94	2.94	(24)
F	3.3*	7.8***		0.1	4.3*	

* $p < .05$, *** $p < .001$

〈부표 IV-2-3〉 맞벌이 여부별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이른 출근	퇴근시간	야간근무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수)
전체	3.00	3.03	3.20	3.02	2.76	(938)
맞벌이	2.98	3.02	3.19	3.00	2.76	(887)
외벌이	3.41	3.03	3.38	3.27	2.74	(51)

〈부표 V-1-1〉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계(수)
전체	61.4	33.1	4.9	0.5	100.0(2,392)
맞벌이	64.0	31.1	4.7	0.2	100.0(934)
외벌이	59.6	34.5	5.3	0.7	100.0(1,417)
둘다 무직	65.0	35.0	-	-	100.0(41)

〈부표 V-1-2〉 맞벌이 여부별 현재 이용기관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4.8	13.0	(1,536)	12.2	9.5	(744)	13.0	10.4	(92)	15.1	14.3	(20)	13.9	11.9	(2,392)
맞벌이	16.5	13.3	(625)	12.8	9.9	(269)	11.0	9.4	(35)	8.6	14.3	(5)	15.1	12.3	(934)
외벌이	13.6	12.6	(886)	12.0	9.3	(459)	14.3	10.8	(57)	16.5	14.6	(15)	13.1	11.5	(1,417)
둘다 무직	14.1	9.4	(25)	9.0	8.3	(16)	-	-	-	-	-	-	12.3	9.3	(41)
F	9.0***			1.5			2.8#			0.5			8.3***		

$p < .1$, *** $p < .001$

〈부표 V-2-1〉 맞벌이 여부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3	18.3	21.7	24.9	17.0	11.8	100.0(2,392)	26.7	12.4	
맞벌이	8.7	21.6	20.5	21.7	16.6	10.9	100.0(934)	24.2	12.5	
외벌이	4.8	15.9	22.5	27.1	17.6	12.2	100.0(1,417)	28.5	12.1	
둘다 무직	2.5	22.5	22.5	22.5	7.5	22.5	100.0(41)	25.7	11.4	
$X^2(df)/F$									36.5***	
									41.2(10)***	

*** $p < .001$

〈부표 V-2-2〉 맞벌이 여부별 최초 이용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반일제 이상)	기타	계(수)
전체	88.1	8.5	3.0	0.5	100.0(2,441)
맞벌이	92.2	6.0	1.6	0.2	100.0(943)
외벌이	85.0	10.3	4.0	0.6	100.0(1,455)
둘다 무직	93.0	7.0	-	-	100.0(43)

〈부표 V-2-3〉 맞벌이 여부별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 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봄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상 대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기타	계(수)
전체	16.9	1.4	0.7	24.6	26.9	8.8	2.9	17.6	-	100.0(2,441)
맞벌이	14.2	1.0	0.5	39.9	18.4	6.0	2.1	17.9	-	100.0(943)
외벌이	18.6	1.7	0.8	14.3	32.8	10.7	3.5	17.5	0.1	100.0(1,455)
둘다 무직	20.9	-	-	25.6	27.9	7.0	2.3	16.3	-	100.0(43)

〈부표 V-3-1〉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월 평균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가구				비용 지불 가구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대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대비 비율
전체	208.7	286.7	(3,343)	5.4	274.1	300.0	(2,482)	7.1
맞벌이	290.9	330.7	(1,141)	5.8	336.7	333.4	(972)	6.7
외벌이	166.1	250.5	(2,141)	5.1	234.5	269.5	(1,472)	7.3
둘다 무직	81.7	116.8	(61)	5.5	131.8	124.3	(38)	8.6
F	81.5***			3.7	40.6***			3.2*

* $p < .05$, *** $p < .001$

〈부표 V-3-2〉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교육비 부담 정도 및 미지원시 이용 의사

단위: %(명), 점

구분	기관 비용의 부담정도						미지원 시 이용의사				
	매우 부담되는 편	적당	아님	전혀 아님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전체	8.1	35.9	22.9	22.9	10.3	100.0(2,138)	2.9	74.7	22.0	3.3	100.0(2,392)
맞벌이	5.8	32.6	21.8	27.2	12.6	100.0(821)	3.1	85.0	12.9	2.1	100.0(934)
외벌이	9.5	37.9	23.8	19.8	8.9	100.0(1,279)	2.8	68.4	27.6	4.1	100.0(1,417)
둘다 무직	17.9	41.0	15.4	25.6	-	100.0(38)	2.5	47.5	47.5	5.0	100.0(41)
$X^2(df)/F$			43.8(8)***				18.0***			101.8(4)***	

*** $p < .001$

〈부표 V-3-3〉 맞벌이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3.5	76.5	100.0(2,392)	165.3	116.4	30	700	(555)
맞벌이	26.0	74.0	100.0(934)	175.3	123.3	30	700	(253)
외벌이	22.2	77.8	100.0(1,417)	158.3	110.0	30	550	(299)
둘다 무직	10.0	90.0	100.0(41)	43.2	33.5	30	100	(3)
$X^2(df)/F$	8.7(2)*			3.0#				

$p < .1$, * $p < .05$

〈부표 V-4-1〉 맞벌이 여부별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시간제보육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토요보육		휴일보육	
	상시	주 1~2번	상시	주 1~2번	상시	주 1~2번	상시	주 1~2번	상시	주 1~2번
전체	12.1	16.9	7.8	9.8	1.2	1.4	2.5	4.3	1.8	1.7
맞벌이	11.1	14.4	10.6	10.5	0.9	1.7	2.7	4.3	0.8	1.6
외벌이	12.3	18.5	5.7	9.3	1.3	1.1	2.0	4.2	2.0	1.5
둘다 무직	24.6	11.5	25.0	11.7	1.7	5.0	18.3	8.3	11.7	6.7
$X^2(df)$	29.0(8)***		78.9(8)***		-		72.4(8)***		-	

*** $p < .001$

〈부표 V-4-2〉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기관 이용의 도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업무능	여가·취	육아기	학업	양육부	추가	가족갈등	기타
	구직	률 향상	미활동	술·지식	훈련	담 완화	출산	완화	
전체	4.12	4.04	3.96	3.84	3.92	4.09	3.99	3.87	4.16
맞벌이	4.15	4.07	3.93	3.84	3.95	4.10	3.98	3.92	4.00
외벌이	4.04	4.02	3.97	3.83	3.90	4.10	3.99	3.84	5.00
둘다 무직	3.74	3.95	3.93	3.90	3.66	3.80	4.07	3.68	-
F	5.4**	3.2*	0.6	0.2	0.6	5.2**	0.0	4.3**	-

* $p < .05$, ** $p < .01$

〈부표 VI-2-1〉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및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등원시간				구분	하원시간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7:30까지	1.8	0.4	-	0.9	14:00까지	2.3	6.1	5.3	4.6
7:31~8:00	16.1	1.9	11.5	8.0	14:01~15:00	9.9	19.0	13.2	15.3
8:01~8:30	32.1	12.0	30.8	20.7	15:01~16:00	18.4	33.2	26.3	27.3
8:31~9:00	24.6	34.1	38.5	30.2	16:01~17:00	31.8	24.4	18.4	27.3
9:01~9:30	16.6	35.1	11.5	27.0	17:01~17:30	10.2	9.7	7.9	9.8
9:31~10:00	6.4	13.9	3.8	10.6	17:31~18:00	13.8	5.0	21.1	8.8
10:01이후	2.4	2.6	3.8	2.5	18:01~19:00	13.5	2.5	7.9	7.0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620)	(886)	(25)	(1,531)	(수)	(594)	(884)	(23)	(1,501)
$X^2(df)$	250.5(12)**				$X^2(df)$	263.8(12)**			

*** $p < .001$

〈부표 VI-2-2〉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 및 희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실제 이용시간				희망 이용시간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5시간까지	4.3	6.9	3.8	5.7	2.9	5.1	-	4.1
5~6시간	5.2	14.7	-	10.5	4.6	13.1	-	9.3
6~7시간	12.7	36.9	15.4	26.3	8.6	27.0	19.2	19.1
7~8시간	24.2	27.9	34.6	26.5	16.3	25.2	30.8	21.6
8~9시간	22.3	9.3	19.2	14.9	21.7	11.4	3.8	15.6
9~10시간	18.5	3.5	11.5	10.0	19.5	7.3	19.2	12.6
10시간 이상	12.7	0.8	15.4	6.1	14.3	4.7	15.4	8.9
11~12시간					2.4	0.9	-	1.5
12시간 이상					9.8	5.2	11.5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25)	(886)	(25)	(1,536)	(625)	(886)	(25)	(1,536)
평균	8시간 20분	6시간 58분	8시간 17분	7시간 34분	9시간 7분	7시간 45분	9시간 15분	8시간 21분
표준편차	1시간 39분	1시간 17분	1시간 36분	1시간 36분	1시간 57분	1시간 52분	2시간 11분	2시간 2분
F	161.4***				95.1***			

*** $p < .001$

〈부표 VI-2-3〉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반일제 이용 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전체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chi^2(df)$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chi^2(df)$	
어린이집									
전체	83.9	3.9	12.2		65.2	32.4	2.5		100.0(1,536)
맞벌이	83.5	4.0	12.5		65.6	33.1	1.3		100.0(625)
외벌이	84.6	3.4	12.0	-	64.6	32.0	3.4	7.8(4)	100.0(886)
둘다 무직	69.2	19.2	11.5		69.2	30.8	-		100.0(25)
유치원									
전체	84.4	6.3	9.4		60.9	34.8	4.3		100.0(744)
맞벌이	83.7	3.3	13.1	-	61.1	35.9	2.9	-	100.0(269)
외벌이	84.5	8.4	7.1		60.1	34.8	5.1		100.0(459)
둘다 무직	93.3	-	6.7		85.7	14.3	-		100.0(16)
기타반일제									
전체	85.1	5.2	9.7		69.4	28.4	2.2		100.0(744)
맞벌이	83.7	2.0	14.3	-	79.2	20.8	-	-	100.0(40)
외벌이	85.9	7.1	7.1		64.7	31.8	3.5		100.0(72)

〈부표 VI-2-4〉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 반일제의 도움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률 향상	여가·취 미활동	육아기술 ·지식	학업 훈련	양육부담 완화	추가 출산	가족갈등 완화	기타
어린이집									
전체	4.13	4.06	3.94	3.86	3.94	4.13	4.04	3.88	4.00
맞벌이	4.15	4.06	3.88	3.85	3.89	4.12	4.01	3.92	4.00
외벌이	4.09	4.06	3.97	3.86	3.98	4.15	4.06	3.86	-
둘다 무직	3.67	3.79	3.80	3.87	3.76	3.73	3.00	3.66	-
F	2.3	3.4*	2.1	0.1	0.5	6.7**	1.2	2.5#	-
(수)	(568)	(1,368)	(773)	(987)	(212)	(1,459)	(304)	(834)	(3)
유치원									
전체	4.09	4.01	3.96	3.80	3.85	4.04	3.90	3.87	-
맞벌이	4.16	4.10	4.00	3.83	4.04	4.07	3.84	3.94	-
외벌이	3.91	3.95	3.94	3.78	3.74	4.03	3.90	3.82	-
둘다 무직	3.85	4.32	4.14	4.00	3.00	3.93	4.43	3.78	-
F	5.9**	10.6***	0.6	0.7	3.8*	0.7	0.6	2.1	-
(수)	(253)	(663)	(394)	(491)	(107)	(686)	(96)	(384)	-
기타 반일제									
전체	4.18	3.98	4.15	3.83	4.15	3.96	3.79	3.70	-
맞벌이	4.17	3.98	4.16	3.83	4.10	3.90	4.17	3.68	-
외벌이	4.19	3.98	4.14	3.83	4.21	4.00	3.73	3.71	-
(수)	(31)	(93)	(70)	(73)	(16)	(93)	(19)	(58)	-

$p < .1$, * $p < .05$, ** $p < .01$

<부표 VI-3-1> 맞벌이 여부별 표준보육과정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압	대략 압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21.6	39.2	39.2	100.0(1,297)	
맞벌이	25.5	35.1	39.3	100.0(528)	11.8(4)*
외벌이	19.1	42.1	38.8	100.0(747)	
둘다 무직	9.1	40.9	50.0	100.0(18)	

* p < .05

<부표 VI-3-2>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반일제 선택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전체
원장	9.4	10.3	16.0	9.9	5.6	6.9	14.3	6.6	4.3	2.4	2.3
교사	6.8	8.3	20.0	7.9	8.8	8.6	-	8.5	4.3	3.5	3.8
운영시간	4.9	1.7	4.0	3.0	1.0	2.0	-	1.6	2.1	-	0.8
비용	1.1	4.2	-	2.9	4.2	6.9	-	5.8	2.1	3.5	3.8
프로그램	14.3	13.8	16.0	14.1	29.1	25.3	35.7	27.1	53.2	63.5	61.4
건강·영양	3.3	2.7	4.0	3.0	2.0	2.0	-	2.0	-	2.4	1.5
기관 학급 규모	0.8	0.9	-	0.9	0.7	0.4	-	0.5	-	4.7	3.0
내부 분위기	2.5	3.4	-	3.1	1.6	1.2	7.1	1.5	2.1	2.4	1.5
안전한 보호	3.0	3.7	-	3.3	3.6	0.8	-	1.7	12.8	5.9	8.3
집과의 거리	28.5	30.4	32.0	29.5	19.3	20.6	28.6	20.4	2.1	4.7	3.8
기관설비	1.0	1.3	-	1.3	1.0	2.2	-	1.7	2.1	-	0.8
국공립 여부	6.5	2.8	-	4.4	2.6	3.1	7.1	2.8	-	-	-
주변의 평판	8.7	11.6	8.0	10.4	6.2	16.1	7.1	12.2	10.6	3.5	5.3
주변입지	0.3	0.9	-	0.7	1.6	1.0	-	1.2	-	-	-
평가인증 여부	0.6	1.1	-	0.9	-	-	-	-	-	-	-
차량 운행 여부	2.9	0.2	-	1.3	4.6	0.8	-	2.1	-	-	-
특별프로그램	0.3	0.4	-	0.3	3.3	0.4	-	1.5	4.3	2.4	3.0
형제가 다님	3.5	2.0	-	2.6	3.9	1.0	-	2.1	-	1.2	0.8
기타	1.4	0.4	-	0.8	1.0	0.4	-	0.6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25)	(886)	(25)	(1,535)	(269)	(459)	(16)	(744)	(40)	(72)	(112)
X ² (df)			84.9(36)***				-				

*** p < .001

<부표 VI-3-3>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을 안다는 비율과 참여 시 도움정도

단위: %(명)

구분	부모참여 활동을 안다는 비율				참여 시 도움정도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수)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9.6	34.1	42.7	(1,297)	56.4	(112)	55.2	(40)	56.3	(73)
맞벌이	52.7	37.0	46.3	(528)						
외벌이	47.1	31.6	40.0	(747)	66.0	(50)	55.8	(21)	47.1	(35)
둘다 무직	54.5	43.5	45.5	(18)	49.0	(62)	50.0	(19)	66.7	(38)

〈부표 VI-3-4〉 어린이집 부모참여 비율 및 참여 의향

구 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수)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전체	8.0	2.4	5.3	41.7	43.0	42.6	(1,296)
맞벌이	9.4	3.3	6.7	34.9	35.4	36.0	(528)
외벌이	7.2	1.7	4.2	47.3	49.3	48.0	(747)
둘다 무직	-	-	-	22.7	22.7	31.8	(18)

〈부표 VI-4-1〉 맞벌이 여부별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분	긴급상황시 돌보는 사람					이플 때 돌보는 사람				계(수)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 집	기타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 집	
전체	61.3	33.4	2.8	1.7	0.8	77.4	20.2	1.3	1.1	100.0(1,536)
맞벌이	50.2	45.2	2.4	1.9	0.3	65.6	30.6	1.7	2.1	100.0(625)
외벌이	69.3	24.8	3.3	1.4	1.2	86.2	12.4	1.1	0.4	100.0(886)
둘다 무직	69.2	30.8	-	-	-	76.9	23.1	-	-	100.0(25)
X ² (df)							90.9(6) ^{***}			

*** p < .001

〈부표 VI-6-1〉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정도						비용 미지원 시 이용의사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부담 적당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평균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어린이집											
전체	4.7	28.8	23.9	28.9	13.7	100.0(1,314)	3.2	66.4	29.4	4.2	100.0(1,536)
맞벌이	3.4	24.8	22.3	32.8	16.8	100.0(521)	3.3	80.2	16.8	3.0	100.0(625)
외벌이	5.6	31.4	25.2	25.8	11.9	100.0(769)	3.1	56.9	37.9	5.2	100.0(886)
둘다 무직	4.0	36.0	20.0	40.0	-	100.0(24)	2.9	40.7	55.6	3.7	100.0(25)
X ² (df)/F				25.2(8) ^{**}			10.2 ^{***}				97.6(4) ^{***}
유치원											
전체	11.6	45.1	20.6	16.3	6.4	100.0(712)	2.6	86.6	11.5	2.0	100.0(744)
맞벌이	8.4	43.0	20.5	21.1	7.0	100.0(260)	2.8	92.2	6.8	1.0	100.0(269)
외벌이	13.0	46.3	21.1	13.6	6.0	100.0(438)	2.5	83.5	13.8	2.6	100.0(459)
둘다 무직	38.5	53.8	7.7	-	-	100.0(14)	1.6	64.3	28.6	7.1	100.0(16)
X ² (df)/F							9.1 ^{***}				

** p < .01, *** p < .001

〈부표 VI-6-2〉 맞벌이 여부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어린이집								
전체	25.0	75.0	100.0(1,536)	162.6	115.8	30.0	700.0	(368)
맞벌이	27.3	72.7	100.0(625)	178.3	124.2	30.0	700.0	(174)
외벌이	23.6	76.4	100.0(886)	150.5	106.6	30.0	550.0	(191)
둘다 무직	15.4	84.6	100.0(25)	43.2	33.5	30.0	100.0	(3)
X ² (df)/F	3.9(2)			4.2*				
유치원								
전체	20.4	79.6	100.0(744)	158.5	106.8	50.0	500.0	(154)
맞벌이	22.8	77.2	100.0(268)	153.2	109.3	50.0	500.0	(65)
외벌이	19.4	80.6	100.0(459)	162.3	105.3	50.0	500.0	(89)
둘다 무직	-	100.0	100.0(16)	-	-	-	-	-
X ² (df)	5.0(2) [#]							
기타 반일제								
전체	26.7	73.3	100.0(112)	230.34	148.66	50	500	(33)
맞벌이	27.1	72.9	100.0(40)	249.90	153.80	100	500	(14)
외벌이	25.9	74.1	100.0(72)	217.02	147.61	50	500	(19)
X ² (df)/t	-			0.3				

p < .1, * p < .05

〈부표 VI-7-1〉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기타 반일제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F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F	맞벌이	외벌이	F
원장	3.93	3.82	3.94	3.9*	3.93	3.82	3.81	1.5	3.94	3.78	1.9
교사	3.92	3.88	3.72	1.2	4.05	3.91	3.44	6.4**	3.92	3.95	0.0
주변환경	3.62	3.58	3.58	0.7	3.73	3.74	3.12	4.0*	3.47	3.28	1.3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71	3.59	3.37	6.4**	3.81	3.79	3.40	2.1	3.37	3.55	1.2
교재교구 및 장비	3.69	3.64	3.57	1.2	3.87	3.71	3.52	5.0**	3.99	3.68	6.9*
내부 분위기	3.77	3.73	3.56	1.7	3.84	3.86	3.56	1.3	3.98	3.88	0.7
비용	3.78	3.56	3.51	12.1***	3.54	3.27	3.05	7.4**	2.80	2.89	0.3
건강관리	3.79	3.71	3.40	5.7**	3.77	3.74	3.62	0.6	3.79	3.61	2.7
급간식관리	3.82	3.72	3.69	3.3*	3.83	3.70	3.69	2.9 [#]	3.82	3.67	1.9
안전관리	3.83	3.78	3.36	6.3**	3.86	3.74	3.48	4.1*	3.81	3.77	0.1
교육내용	3.79	3.76	3.50	3.1*	3.95	3.78	3.74	6.2**	4.07	4.03	0.3
부모참여	3.50	3.39	3.27	4.0 [†]	3.76	3.58	3.72	5.6**	3.50	3.50	0.0
부모교육 및 참여	3.52	3.48	3.26	2.0	3.68	3.53	3.56	3.9 [†]	3.57	3.53	0.1
전체 평균	3.74	3.67	3.52		3.81	3.71	3.52		3.69	3.62	
(수)	(624)	(886)	(25)		(269)	(459)	(16)		(40)	(72)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VII-2-1〉 맞벌이 여부별 유치원 실제 이용 시간 및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실제 이용 시간				희망 이용 시간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5시간까지	2.9	10.4	14.3	7.5	1.6	6.9	-	4.7
5~6시간	10.7	27.8	28.6	21.4	8.4	18.9	37.5	15.4
6~7시간	17.9	24.1	28.6	21.9	13.6	28.3	18.8	22.5
7~8시간	24.1	20.7	-	21.7	19.5	24.2	-	22.1
8~9시간	24.8	11.5	14.3	16.5	24.4	13.2	18.8	17.5
9~10시간	13.0	4.7	14.3	8.0	13.3	4.7	18.8	8.1
10시간 이상	6.5	0.8	-	3.0	13.6	1.8	6.3	6.3
11시간					1.3	1.0	-	1.1
12시간					4.2	1.0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69)	(459)	(16)	(744)	(269)	(459)	(16)	(744)
평균	7시간 52분	6시간 47분	7시간 53분	7시간 12분	8시간 33분	7시간 15분	7시간 30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1시간 29분	1시간 23분	1시간 42분	1시간 31분	1시간 46분	1시간 29분	1시간 46분	1시간 42분
F		54.6***				62.8***		

*** $p < .001$

〈부표 VII-2-2〉 맞벌이 여부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및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등원시간				구분	하원시간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맞벌이	외벌이	둘다 무직	전체
7:30까지	1.0	-	-	0.4	14:00까지	2.0	10.4	14.3	7.1
7:31~8:00	9.8	3.5	-	5.8	14:01~15:00	13.0	27.8	35.7	22.5
8:01~8:30	36.8	23.5	20.0	28.5	15:01~16:00	20.7	27.3	21.4	24.7
8:31~9:00	26.7	43.4	40.0	37.0	16:01~17:00	35.0	17.6	-	23.8
9:01~9:30	23.5	24.9	33.3	24.4	17:01~17:30	10.3	9.0	7.1	9.5
9:31~10:00	2.3	4.7	6.7	3.8	17:31~18:00	10.7	4.5	7.1	6.9
10:01이후					18:01~19:00	8.3	3.5	14.3	5.5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269)	(459)	(16)	(744)	(수)	(269)	(459)	(16)	(744)
$X^2(df)$					$X^2(df)$				

*** $p < .001$.

〈부표 VII-2-3〉 어린이집·유치원 유형 및 맞벌이 여부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비용(A)	순교 육비(B)	(A-B)	(수)	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비용(A)	순교 육비(B)	(A-B)	(수)	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88.8	24.8	64.0	(1,536)	3.5	193.8	86.9	106.9	(744)	6.0
맞벌이	83.3	55.4	28.0	(625)	2.5	197.6	91.6	106.1	(269)	4.6
외벌이	94.1	71.0	23.1	(886)	4.2	193.1	85.1	108.0	(459)	6.8
둘다무직	50.2	43.4	6.8	(25)	3.5	132.8	45.2	87.6	(16)	10.8
F	2.6	17.0***	5.3		38.6***	1.2	0.4	1.1		19.5***

*** $p < .001$

〈부표 VIII-2-1〉 맞벌이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실제 이용 시간 및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실제 이용 시간			희망 이용 시간		
	맞벌이	외벌이	전체	맞벌이	외벌이	전체
5시간까지	4.1	10.5	8.0	2.1	7.1	5.2
5~6시간	53.1	39.5	43.5	46.8	17.6	27.6
6~7시간	20.4	16.3	18.1	12.8	42.4	31.3
7~8시간	10.2	27.9	21.7	14.9	23.5	20.1
8~9시간	8.2	4.7	6.5	14.9	5.9	9.0
9~10시간	2.0	-	0.7	4.3	2.4	3.7
10시간 이상	2.0	1.2	1.4	4.3	1.2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0)	(72)	(112)	(40)	(72)	(112)
평균	6시간 30분	6시간 22분	6시간 25분	7시간 10분	6시간 48분	7시간 7분
표준편차	1시간 12분	1시간 6분	1시간 9분	1시간 45분	1시간 6분	1시간 39분
F		0.4			2.1	

〈부표 VIII-4-1〉 맞벌이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함	부담되지 않음	모름	계(수)
전체	20.9	50.7	26.1	2.2	0.1	100.0(112)
맞벌이	14.6	58.3	22.9	4.2	0.0	100.0(40)
외벌이	24.4	47.7	26.7	1.2	0.0	100.0(72)

〈부표 IX-1-1〉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용 애로	비용 부담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들	테리고 다니기 번거 로움	시설 환경 열악	한 사람이 돌봐 불안	환경 변화로 정서 우려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타	계(수)
전체	68.5	2.0	7.2	0.5	1.2	4.1	3.7	5.8	5.9	1.2	100.0(391)
맞벌이	72.5	2.0	2.7	0.7	2.0	2.7	6.0	6.7	2.7	2.0	100.0(158)
외벌이	64.9	2.2	10.2	0.4	0.9	4.9	2.2	5.3	8.0	0.9	100.0(227)
둘다 무직	87.5	-	-	-	-	-	-	-	12.5	-	100.0(6)

〈부표 IX-2-1〉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동거	비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계(수)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친인척	
전체	21.3	12.7	22.4	35.2	0.9	7.5	100.0(1,133)
맞벌이	19.9	12.8	22.1	38.5	0.5	6.2	100.0(599)
외벌이	23.5	9.7	23.9	32.7	0.8	9.3	100.0(514)
둘다 무직	8.0	72.0	-	4.0	16.0	-	100.0(20)

〈부표 IX-2-2〉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혈연 단독	비혈연 보완	기관 보완	비혈연과 기관 모두 보완	계(수)
전체	30.3	0.2	68.7	0.8	100.0(1,133)
맞벌이	20.6	0.3	77.7	1.4	100.0(599)
외벌이	42.2	0.2	57.6	-	100.0(514)
둘다 무직	36.0	-	64.0	-	100.0(20)

〈부표 IX-2-3〉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이용 빈도							제공 장소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전체	10.3	5.6	24.9	3.7	55.1	0.4	100.0(1,133)	71.1	28.9	100.0(1,133)
맞벌이	8.6	8.6	40.3	4.5	37.4	0.6	100.0(599)	69.0	31.0	100.0(599)
외벌이	10.5	2.3	6.8	2.7	77.4	0.2	100.0(514)	72.6	27.4	100.0(514)
둘다 무직	48.0	-	-	4.0	48.0	-	100.0(20)	96.0	4.0	100.0(20)
X ² (df)										9.461(2)**

** p < .05

〈부표 IX-2-4〉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장소와 집과의 거리

단위: %(명)

구분	차로 30분 이내	차로 30분~1시간	차로 1~2시간	차로 2시간 이상	도보로 10분 이내	도보로 10~20분	도보로 20분 이상	계(수)
전체	28.3	8.6	3.3	2.5	42.4	13.5	1.5	100.0(339)
맞벌이	27.0	7.0	2.0	2.5	48.5	12.0	1.0	100.0(198)
외벌이	30.5	10.6	5.0	2.1	34.0	15.6	2.1	100.0(140)
둘다 무직	-	-	-	100.0	-	-	-	100.0(1)

〈부표 IX-2-5〉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맞벌이 여부별 자녀 데려오는 주기

단위: %(명), 일

구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빈도			
	매번 데려오거나 가서 보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보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F
전체	89.2	7.1	3.7	100.0(339)	11.1	17.5	(44)	
맞벌이	87.9	7.0	5.0	100.0(198)	9.8	14.1	(26)	
외벌이	91.5	7.1	1.4	100.0(140)	7.3	4.4	(17)	21.4(2)***
둘다 무직	-	-	100.0	100.0(1)	90.0	-	(1)	

*** p < .001

〈부표 IX-2-6〉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 ² (df)
전체	24.2	8.9	3.7	63.2	100.0(1,133)	
맞벌이	38.5	11.4	3.4	46.7	100.0(599)	208.812(6) ***
외벌이	7.4	6.0	3.3	83.2	100.0(514)	
둘다 무직	-	4.0	20.0	76.0	100.0(20)	

*** $p < .001$

〈부표 IX-2-7〉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F
전체	287.5	269.7	1,500	(420)	
맞벌이	321.9	272.7	1,500	(328)	14.3(2)***
외벌이	166.7	220.7	1,000	(89)	
둘다 무직	55.4	17.2	100	(3)	

*** $p < .001$

〈부표 IX-2-8〉 맞벌이 여부별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 비용 지불 여부 및 조정 비율

단위: %(명)

구분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 지불 여부				조정시, 현재 금액 대비 비율			
	동일하게 드림	비용 조정	드리지 않음	계(수)	평균	최소	최대	(수)
전체	54.3	36.1	9.6	100.0(397)	46.18	5	90	(158)
맞벌이	48.3	41.5	10.2	100.0(311)	46.26	5	90	(139)
외벌이	75.0	16.7	8.3	100.0(83)	45.21	13	60	(18)
둘다 무직	83.3	16.7	-	100.0(3)	50.00	50	50	(1)

〈부표 IX-2-9〉 맞벌이 여부별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이용시간	이용비용	양육방식	양육공간
전체	4.10	4.02	3.79	3.97
맞벌이	4.16	4.01	3.85	4.01
외벌이	4.01	4.06	3.73	3.94
둘다 무직	4.13	4.00	3.47	3.72
F	10.0(2)***	0.2(2)	6.2(2)**	4.3(2)*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IX-3-1〉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비혈연	아이 돌보미	베이비 시터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기타	계(수)
전체	11.0	26.0	13.7	1.4	27.4	20.5	100.0(84)
맞벌이	16.0	24.0	16.0	2.0	36.0	6.0	100.0(59)
외벌이	-	30.4	8.7	-	8.7	52.2	100.0(24)

〈부표 IX-3-2〉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자의 결혼·자녀양육 경험 및 자격 소지 비율

단위: %(명)

구분	결혼 및 양육 경험				자격 소지 비율(중복 응답)				
	미혼	기혼·양육경험 유	기혼·양육경험 무	계(수)	보육교사	아이 돌보미	시설업체 시터	기타	(수)
전체	2.4	92.5	5.0	100.0(84)	4.9	22.3	15.8	4.3	(84)
맞벌이	3.8	90.4	5.8	100.0(59)	5.8	17.6	19.2	5.8	(59)
외벌이	-	100.0	-	100.0(24)	4.5	31.8	9.1	-	(24)

〈부표 IX-3-3〉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인의 출신국 및 제공 장소

단위: %(명)

구분	비혈연인 출신국				제공 장소		
	한국인	중국조선족	중국 한족	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전체	87.9	9.5	2.6	100.0(84)	64.2	35.8	100.0(84)
맞벌이	82.7	13.5	3.8	100.0(59)	69.2	30.8	100.0(64)
외벌이	100	-	-	100.0(24)	54.5	45.5	100.0(1)

〈부표 IX-3-4〉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

단위: %(명)

구분	평소 알던 사람	지인의 소개	지역신문광고	인터넷	시설 인력전문기관 소개	기타	계(수)
전체	25.6	29.3	0.8	8.4	29.7	6.2	100.0(84)
맞벌이	13.7	39.2	2.0	7.8	33.3	3.9	100.0(59)
외벌이	52.2	8.7	-	8.7	21.7	8.7	100.0(24)

〈부표 IX-3-5〉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및 주당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빈도							돌보는 시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11.5	57.4	3.1	24.0	2.1	100.0(84)	25.4	22.5
맞벌이	2.0	13.7	72.5	3.9	7.8	-	100.0(59)	32.4	22.3
외벌이	-	4.3	26.1	4.3	56.5	8.7	100.0(24)	9.0	12.4

〈부표 IX-3-6〉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지불 여부						지불시 금액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전체	75.0	1.4	2.8	20.8	100.0(84)	57.96	47.12	180	(68)
맞벌이	86.3	2.0	5.9	5.9	100.0(59)	64.70	45.49	180	(56)
외벌이	45.5	-	-	54.5	100.0(24)	25.79	43.10	160	(12)

〈부표 IX-3-7〉 맞벌이 여부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공간	전문성	성실성	(수)
전체	3.97	3.48	3.78	3.92	3.59	4.04	(84)
맞벌이	4.00	3.39	3.81	3.97	3.59	4.11	(59)
외벌이	3.94	3.92	3.76	3.81	3.60	3.90	(24)

〈부표 X-2-1〉 맞벌이 여부별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전체	79.6	15.0	4.3	0.8	0.2	0.1	100.0(3,343)
맞벌이	78.4	16.9	3.6	0.8	-	0.3	100.0(1,141)
외벌이	79.9	14.2	4.8	0.8	0.2	-	100.0(2,141)
둘다무직	91.5	5.1	3.4	-	-	-	100.0(61)

〈부표 X-2-2〉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영유아교육전문	한자	영어	기타	(수)
전체	32.0	23.9	51.9	1.6	4.2	4.4	6.3	0.5	8.6	3.4	(592)
맞벌이	35.2	22.5	46.5	2.1	4.7	4.7	5.3	1.1	11.4	4.8	(198)
외벌이	33.7	19.6	54.4	2.1	4.2	2.9	8.4	-	5.8	3.7	(388)
둘다무직	33.3	16.7	33.3	-	-	-	33.3	-	-	-	(6)

〈부표 X-2-3〉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주당 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이 상	계(수)	평균	F
전체	41.8	10.9	33.6	5.1	8.7	100.0(614)	4.03	
맞벌이	31.4	11.4	39.2	5.9	12.2	100.0(205)	4.64	
외벌이	48.2	10.9	30.3	4.0	6.6	100.0(403)	3.66	8.0***
둘다무직	20.0	20.0	20.0	40.0	-	100.0(6)	4.82	

*** $p < .001$

〈부표 X-2-4〉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F
전체	25.6	28.8	30.3	7.0	4.8	3.5	100.0(614)	99.72	
맞벌이	16.1	32.9	39.2	4.3	4.3	3.1	100.0(205)	102.37	
외벌이	31.5	26.5	25.1	8.3	5.0	3.6	100.0(403)	98.18	0.3
둘다무직	20.0	-	40.0	40.0	-	-	100.0(6)	108.49	

〈부표 X-2-5〉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영유아교육전문	한자	영어	기타	(수)
전체	4.0	4.0	4.0	3.5	4.1	3.9	3.7	3.2	3.9	4.0	(592)
맞벌이	4.0	3.9	3.9	4.0	3.9	3.9	3.4	3.2	4.0	3.7	
외벌이	4.0	4.0	4.0	3.3	4.3	3.9	3.9	-	3.8	4.2	
둘다무직	4.0	4.0	3.5	-	-	-	3.0	-	-	-	
F	-	0.2	2.9 [#]	1.0	3.8 [#]	-	2.7 [#]	-	1.7	3.2	

$p < .1$

〈부표 X-3-1〉 맞벌이 여부별 개별 교육 이용 유무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개별교육 이용 유무					만족도(5점 척도)				
	학습지	예체능	교재 교구	인터넷 교육	(수)	학습지	예체능	교재 교구	인터넷 교육	(수)
전체	91.6	1.5	13.9	0.4	(1,057)	3.8	3.9	4.0	3.8	(1,057)
맞벌이	93.6	1.8	11.9	0.3	(371)	3.8	3.9	4.0	3.2	(402)
외벌이	90.2	1.3	15.5	0.5	(578)	3.7	3.9	3.9	4.3	(641)
둘다무직	100.0	-	-	-	(13)	3.8	-	-	-	(13)
F						1.6	0.08	1.5	1.8	

〈부표 X-3-2〉 맞벌이 여부별 개별 교육 이용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계(수)
전체	66.2	15.5	13.5	3.6	0.6	0.4	0.1	100.0(3,343)
맞벌이	62.8	16.4	15.6	4.3	0.3	0.6	-	100.0(1,141)
외벌이	67.9	15.2	12.5	3.2	0.7	0.4	-	100.0(2,141)
둘다무직	78.0	10.2	6.8	3.4	1.7	-	-	100.0(61)

〈부표 X-3-3〉 맞벌이 여부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이상	계(수)	평균
전체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89
맞벌이	41.1	40.1	13.7	3.0	1.7	0.2	100.0(401)	66.69
외벌이	46.4	38.1	10.5	3.1	1.6	0.3	100.0(640)	65.52
둘다무직	75.0	16.7	8.3	-	-	-	100.0(12)	57.82
$X^2(df)$			-					0.4

〈부표 XI-1-1〉 맞벌이 여부별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어린이집								
전체	36.9	57.1	6.0	18.1	62.2	10.3	9.3	100.0(2,528)
맞벌이	38.6	57.1	4.3	18.3	67.9	8.1	5.7	100.0(895)
외벌이	35.7	57.4	6.9	17.8	58.9	11.9	11.4	100.0(1,581)
둘 다 무직	43.4	47.2	9.4	24.5	60.4	1.9	13.2	100.0(47)
$X^2(df)$		10.4(4)*			41.2(6)***			
유치원								
전체	49.4	38.5	12.1	21.0	55.8	6.1	17.1	100.0(2,528)
맞벌이	49.5	40.9	9.6	22.5	59.5	4.7	13.3	100.0(895)
외벌이	49.2	36.9	13.8	19.8	53.6	7.0	19.6	100.0(1,581)
둘 다 무직	51.9	40.7	7.4	30.2	58.5	3.8	7.5	100.0(47)
$X^2(df)$		11.9(4)*			29.3(6)***			

* $p < .05$, *** $p < .001$

〈부표 XI-1-2〉 맞벌이 여부별 공인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단위: %(명)

구 분	'안다'는 비율	계(수)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유사성				계(수)
			매우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전체	45.8	(2,528)	4.0	26.7	52.7	16.6	100.0(1,228)
맞벌이	46.2	(895)	2.8	29.1	50.4	17.7	100.0(410)
외벌이	45.9	(1,581)	3.7	20.4	61.1	14.8	100.0(59)
둘 다 무직	35.8	(47)	4.4	26.2	53.2	16.2	100.0(755)

〈부표 XI-4-1〉 맞벌이 여부별 시간제 돌봄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 분	'필요하다'는 비율	'안다'는 비율	(수)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경험			계(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없음	
전체	67.1	59.4	(2,528)	1.1	3.5	95.4	100.0(1,468)
맞벌이	72.2	60.7	(895)	1.9	3.4	94.7	100.0(506)
외벌이	63.8	58.9	(1,581)	-	10.3	89.7	100.0(65)
둘 다 무직	80.0	49.7	(47)	0.7	3.2	96.1	100.0(895)
$X^2(df)$	34.5(8)***	9.5(6)			-		

*** $p < .001$

〈부표 XI-2-1〉 맞벌이 여부별 영아 정기 돌봄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 분	'필요하다'는 비율	'안다'는 비율	(수)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경험			계(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없음	
전체	62.3	55.2	(2,528)	0.2	1.9	97.9	100.0(1,348)
맞벌이	68.0	56.3	(895)	0.4	1.6	98.0	100.0(494)
외벌이	59.0	55.1	(1,581)	-	5.6	94.4	100.0(836)
둘 다 무직	64.7	41.5	(47)	0.2	1.9	97.9	100.0(18)
$X^2(df)$	27.1(8)*	-			-		

* $p < .05$

〈부표 XI-2-2〉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단위: %(명)

구 분	0-2세 보육료 지원	5세 누리 지원	만5세 공통 과정	3-4세 누리 과정	0-2세 양육수당 차상위	0-2세 양육수당 지원확대	계(수)
전체	95.1	81.8	59.0	51.6	71.6	58.0	100.0(2,528)
맞벌이	96.8	84.8	52.9	57.7	72.0	60.9	100.0(895)
외벌이	94.1	80.6	57.1	48.2	71.3	56.4	100.0(1,581)
둘다무직	94.3	63.4	50.9	43.4	67.9	51.8	100.0(47)

〈부표 XI-2-3〉 맞벌이 여부별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단위: %(명)

구 분	0-4세 비용지원	5세 지원	0-2세 양육수당	지방정부 수당	장애아 지원	다문화 아동	시간연장 장지원	계(수)
전체	52.2	17.8	3.9	3.7	0.2	1.7	0.6	100.0(2,528)
맞벌이	55.8	21.7	0.8	3.0	-	2.6	1.6	100.0(895)
외벌이	49.9	15.6	5.1	3.8	0.4	1.2	0.1	100.0(1,581)
둘다무직	50.9	15.4	22.6	11.3	-	-	-	100.0(47)
$X^2(df)$	57.9(6) ^{***}	16.0(4) ^{**}	-	-	-	-	-	

** $p < .01$, *** $p < .001$

〈부표 XI-2-4〉 맞벌이 여부별 정부 지원 비용 양육 부담 완화 정도

단위: %(명)

구 분	0-4세 지원	5세 지원	양육수당	지방정부 수당	장애아 지원	다문화 아동	시간연장 지원	계(수)
전체	94.8	94.1	81.1	63.4	81.8	96.2	79.0	100.0(2,528)
맞벌이	95.1	95.3	88.5	58.4	100.0	92.3	81.3	100.0(895)
외벌이	94.5	93.1	75.7	67.3	80.0	96.3	66.7	100.0(1,581)
둘다무직	97.4	94.1	100.0	50.0	-	-	80.0	100.0(47)

〈부표 XI-2-5〉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

단위: %(명)

구 분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5세 누리과 정 전액 지원	만5세 공통과 정 운영	누리과정 3~4세 확대	0~2세 양육수 당 지원	0~2세 양육수 당 지원 확대	비해당	계(수)	$X^2(df)$
전체	38.6	33.3	4.2	9.8	4.8	6.9	2.3	100.0(2,528)	
맞벌이	38.0	35.6	5.3	11.0	4.1	3.2	2.9	100.0(895)	
외벌이	38.7	32.3	3.7	9.4	4.9	8.9	2.1	100.0(1,581)	55.0(12) ^{***}
둘다무직	41.5	26.4	1.9	3.8	15.1	11.3	-	100.0(47)	

*** $p < .001$

〈부표 XI-2-6〉 맞벌이 여부별 전계층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정책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전체	7.6	24.8	14.4	40.4	12.9	100.0(2,527)	3.26
맞벌이	8.3	25.1	15.1	37.1	14.4	100.0(895)	3.24
외벌이	7.0	24.9	13.7	42.4	12.0	100.0(1,580)	3.28
둘 다 무직	9.4	17.0	20.8	39.6	13.2	100.0(47)	3.30
X ² (df)/F			11.9(8)				0.3

〈부표 XI-2-7〉 맞벌이 여부별 보육·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형평성 부족	세금 부담감	실제 무상보육 아님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68.2	23.9	7.3	0.6	100.0(768)	
맞벌이	74.0	20.1	5.9	-	100.0(288)	
외벌이	64.2	26.6	8.2	1.0	100.0(463)	-
둘 다 무직	78.6	21.4	-	-	100.0(15)	

〈부표 XI-2-8〉 맞벌이 여부별 보육비 지원의 출산 영향 및 추가 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출산계획 있음	보육비 지원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음	완전 무상보육시 추가 출산 생각이 있음	계(수)
전체	23.1	23.7	17.4	100.0(2,525)
맞벌이	21.0	19.3	17.9	100.0(895)
외벌이	24.6	26.2	17.4	100.0(1,579)
둘 다 무직	18.9	24.5	15.1	100.0(47)
X ² (df)	7.1(4)	33.9(8) ^{***}	35.8(8) ^{***}	

*** p < .001

〈부표 XI-2-1〉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9.8	27.2	4.1	3.2	35.4	9.2	1.0	100.0(1,952)	
맞벌이	16.9	24.7	10.3	2.1	33.8	11.1	1.1	100.0(705)	
외벌이	21.3	28.8	0.4	3.6	36.5	8.5	0.9	100.0(1,203)	144.1(12) ^{***}
둘 다 무직	29.5	25.0	-	13.6	31.8	-	-	100.0(40)	

*** p < .001

〈부표 XI-3-1〉 맞벌이 여부별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단위: %(명)

구분	부모 우선 책임	국가 지원	국가 우선 책임	잘 모름	(수)	X ² (df)
전체	80.5		18.4	1.1	100.0(2,528)	
맞벌이	83.3		15.5	1.2	100.0(895)	
외벌이	79.0		19.8	1.2	100.0(1,581)	10.3(4)*
둘 다 무직	73.1		26.9	-	100.0(47)	

* p < .05

〈부표 XI-3-2〉 맞벌이 여부별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단위: %(명)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육아정 보 상담 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유연근 무제 실시	기타	계
전체	19.7	32.6	18.1	11.5	0.7	7.7	6.1	3.5	0.1	100.0(2,528)
맞벌이	19.8	31.9	12.4	10.5	0.1	10.5	8.4	6.1	0.1	100.0(895)
외벌이	19.9	32.7	21.2	12.3	1.0	5.8	4.9	2.1	-	100.0(1,581)
둘 다 무직	11.1	44.4	25.9	3.7	-	13.0	1.9	-	-	100.0(47)

〈부표 XI-3-3〉 맞벌이 여부별 보육료 자율적 결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정부 결정	정부 상한선 제시	보육료 완전 자율화	기타	잘 모름	계(수)
전체	31.9	62.1	4.6	-	1.3	100.0(2,528)
맞벌이	30.0	65.5	3.4	-	1.1	100.0(895)
외벌이	32.4	60.7	5.3	0.1	1.5	100.0(1,581)
둘 다 무직	50.9	45.3	3.8	-	-	100.0(47)

〈부표 XI-3-4〉 맞벌이 여부별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단위: %(명)

구분	없다	있다	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54.6	33.4	12.0	100.0(2,528)	
맞벌이	53.1	35.9	11.0	100.0(895)	
외벌이	55.2	32.5	12.3	100.0(1,581)	11.8(4)*
둘 다 무직	62.3	17.0	20.8	100.0(47)	

* p < .05

〈부표 XII-1-1〉 제 특성별 앞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의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만 보낼	유치원에만 보낼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 보낼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0.2	27.5	48.5	3.7	0.1	100.0(3343)
맞벌이	23.8	27.3	45.4	3.6	-	100.0(1141)
외벌이	18.0	27.8	50.2	3.9	-	100.0(2141)
둘다무직	26.7	23.3	48.3	1.7	-	100.0(61)

부록 3. 가구조사표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조사표 종류	조사 번호	거처 번호	거처내 가구 번호	조사구내 가구번호
1	24	5-6	7-8	9-11
1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약 15,000가구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아동 개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선정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표본 추출되었으며, 귀 닥이 표본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조사내용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문희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읍/면/동 _____로 _____길 _____ _____통리 _____번지 (공동주택명 _____동 _____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집() - H.P() -
방문 횟수	방문 일시	방문 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2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가구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드 번호 12.13. 조사구형태 응답자 가구원 번호 조사대상이동수 조사완료 이동 수

1. 가구원 일련번호	2. 이름 가족과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재 등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가장 아닌 이이부터 차례로 명칭해 주십시오. 최연소 아동의 부모는 별거중이라도 자녀 포함합니다.	3.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부분은 관계입니까? (01) 가구주 본인 (02) 배우자 (03) 자녀 (04) 자녀의 배우자 (05) 배우자의 부모 (06) 배우자의 형제자매 (07) 가구주의 형제자매 최연소 아동의 부모는 별거중이라도 자녀 포함합니다.		4. 성별 남자인지 아저입니까? 1) 남자 2) 여자		5. 연월일 5-1. 생년월일 이 부분은 연월일 기초로 작성하십시오. (※ 최연소 아동은 출생연도를 작성하십시오.) 5-2. 만나이 이 부분은 작성하십시오. 기초로 작성하십시오. (※ 최연소 아동은 출생연도를 작성하십시오.)		6. 교육정도 6-1. 학교 이 부분은 작성하십시오. 기초로 작성하십시오. (※ 최연소 아동은 출생연도를 작성하십시오.)		7. 건강상태 7-1. 이 부분은 작성하십시오. 기초로 작성하십시오. (※ 최연소 아동은 출생연도를 작성하십시오.)		8. 혼인상태 8-1. 이 부분은 작성하십시오. 기초로 작성하십시오. (※ 최연소 아동은 출생연도를 작성하십시오.)		9. 경제활동 9-1. 이 부분은 작성하십시오. 기초로 작성하십시오. (※ 최연소 아동은 출생연도를 작성하십시오.)	
		년	월	일	연월	개월수	1	2	1	2	1	2	1	2	
19-20		23	24-25	26-27	28-29	30-31	32	33	34						
35-36		39	40-41	42-43	44-45	46-47	48	49	50						
51-52		55	56-57	58-59	60-61	62-63	64	65	66						
67-68		71	72-73	74-75	76-77	78-79	80	81	82						
카드번호	0 2	1213													
가구주	0 5	16-17	19-20	21-22	23-24	25	26	27	28	29	30	31			
	0 6	34-35	37-38	39-40	41-42	43	44	45	46	47	48	49			
	0 7	52-53	55-56	57-58	59-60	61	62	63	64	65	66	67			
가정원	0 8	70-71	73-74	75-76	77-78	79	80	81	82	83	84	85			
카드번호	0 3	1213													
	0 9	16-17	19-20	21-22	23-24	25	26	27	28	29	30	31			
	1 0	34-35	37-38	39-40	41-42	43	44	45	46	47	48	49			
	1 1	52-53	55-56	57-58	59-60	61	62	63	64	65	66	67			
발거부	1 1	70-71	73-74	75-76	77-78	79	80	81	82	83	84	85			
카드번호	1 2	1213													
	1 2	52-53	55-56	57-58	59-60	61	62	63	64	65	66	67			
발거도	1 2	70-71	73-74	75-76	77-78	79	80	81	82	83	84	85			

(※ 아동이 부모와 별거중인 경우에도 그 부모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카드번호
04

12-13

※ 조사원 확인

10.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명

11. 이 닥의 자녀 수를 아동 별로 각각 기입하십시오.
(※ 영아와 유아의 연령은 2012년 7월 1일 기준임. 대상이 없는 경우 0을 기입함.)

① 영아 (36개월 미만)	② 유아 (만 3세 이상 미취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생 이상	⑤ 총 자녀 수
명	명	명	명	명

12. 가족 유형을 기입하십시오.

① 조부모+부모+자녀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③ 한 조부모+부모+자녀
④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⑤ 부부+자녀 ⑥ 어머니 한부모+자녀
⑦ 아버지 한부모+자녀 ⑧ (한)조부모+자녀 ⑨ 친인척+자녀

13. 조부모 동거 여부를 기입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에는 1, 비해당은 0을 기록함.)

① 친조부 동거 ② 친조모 동거 ③ 외조부 동거 ④ 외조모 동거

14-15
10

16-20
11
① ② ③ ④ ⑤

21
12

22-25
13

II.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최연소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모
※ 조사원 확인 최연소 아동의 부모가 현재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가를 구분하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1번 질문을 하십시오. ① 동거(질문 2로) ② 비동거 ③ 비해당(부재)		
1. 동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혼 및 별거 ② 직장 때문에 ③ 입대(병역의무) ④ 기타 ⑤ 비해당(동거, 사망, 부재)		
2. 최연소 아동의 현재 부모는 결혼 이민자(다문화)입니까? ① 결혼 이민자임 ② 결혼 이민자 아님 ③ 비해당(부재)		
3. 최연소 아동의 부모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부모가 별거 상태인 경우에도 기입함.)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 ④ 무직(주부 포함) ⑤ 휴직중 ⑥ 비해당(부재) ⑨ 모름		
4. 최연소 아동의 부모는 현재 종사상 위치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별거 상태인 경우에도 기입함.)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⑧ 비해당(부재) ⑨ 무응답, 모름		

26-27
1
부 모

28-29
1-1
부 모

30-31
2
부 모

32-33
3
부 모

34-35
4
부 모

III.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드번호 12-13
05

1. 다음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 (※ 조사원은 만 2세 이상 아동만 조사함. 부모 부재 및 만 2세 미만 아동은 비해당 8 기입함.)

구분	어머니	아버지
	① 전혀 아니다 ③ 보통 ⑤ 매우 그렇다	② 아니다 ④ 그렇다 ⑧ 비해당
1) 아이가 무슨 일든 자기 힘으로 해보게 한다		
2) 아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몇 번이라도 설명해준다		
3) 아이에게 칭찬을 자주 한다		
4) 아이에게 기본생활습관(이 닦기, 정리정돈 등)을 가르친다		
5) TV 시청, 컴퓨터 게임시간을 정하고 지키게 한다		

1 모 부

1)			14-15
2)			16-17
3)			18-19
4)			20-21
5)			22-23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양육정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 (※ 부모 부재 아동은 비해당 8 기입함.)

구분	어머니	아버지
	① 전혀 아니다 ③ 보통 ⑤ 매우 그렇다	② 아니다 ④ 그렇다 ⑧ 비해당
1)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2)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2 모 부

1)			24-25
2)			26-27

3. 현재 남편 이외에 자녀양육 등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 보기에서 골라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번호	【보기】
1) 육아정보, 조언 제공		① 시부모 ② 친정부모
2) 아이 직접 돌보기		③ 남편 형제자매 ④ 부인 형제자매
3) 경제적인 지원		⑤ 이웃, 친구 ⑥ 기타
4) 가사 지원 등		⑦ 없음

3

1)		28
2)		29
3)		30
4)		31

4. 평소 자녀돌보기(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남편이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한 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음 ③ 보통 정도로 참여함
④ 참여함 ⑤ 적극적으로 참여함 ⑧ 비해당

32

4)	
----	--

5. 부모 이외에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는 어디(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별로 아래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만1세 미만	② 만1세 이상 2세 미만	③ 만2세 이상 3세 미만	④ 만3세 이상 4세 미만	⑤ 만4세 이상 5세 미만	⑥ 취학전 (만 5세 이상)
【보기】					
01) 조부모		02) 친인척		03) 탁아모 등 비혈연인	
04) 가정어린이집		05) 유치원		06) (반일제)학원	
07) 기타()		08) 기타()		09) 없음	
10) 잘 모름					

5

①			33-34
②			35-36
③			37-38
④			39-40
⑤			41-42
⑥			43-44

6.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 ① 집안어른 ② 친구, 동료 ③ 육아관련 사이트 ④ 육아관련 전문가
 ⑤ 관련 서적 ⑥ 기타() ⑦ 없음

45
6

7. 귀하는 보육정보(지원)센터(영유아프라자)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보육정보(지원)센터는 시·도 또는 구에서 운영하며, 영,유아기 자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정보와 놀이, 체험공간을 제공함.)

구분	1) 인지여부	2) 이용경험	3) 이용시 자녀양육에 도움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자주 이용 ② 가끔 이용 ③ 1-2번 이용 경험 ④ 이용 경험 없음	① 전혀 안됨 ③ 보통 ⑤ 매우 도움됨	② 안 됨 ④ 도움 됨 ⑧ 비해당
1) 육아정보제공				
2) 육아 상담, 아동 진단				
3)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4) 장난감/도서 대여				
5) 공동육아나눔터				
6) 시간제 보육				
7) 기타()				

7
1) 46-48
2) 49-51
3) 52-54
4) 55-57
5) 58-60
6) 61-63
7) 64-66

8.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 대해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인지여부	① 안다 ② 모른다
2) 이용경험	① 자주 이용 ② 가끔 이용 ③ 1-2번 이용해 보았음 ④ 이용 경험 없음

8
1) 67
2) 68

IV. 보육·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드번호
06 12-13

1. 귀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① 과거에 이용했음 ② 현재 이용 중임 ③ 이용한 적 없음
유치원	① 과거에 이용했음 ② 현재 이용 중임 ③ 이용한 적 없음

1 14-15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최근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1)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2)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3) 만5세 공통과정 운영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4) 누리과정 3~4세 확대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5)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차상위 이하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6)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2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3. 가장 잘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번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함. 없으면 8을 기입함)

()

22
3

4. 귀하는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이 있는 경우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구분	수혜경험	양육 부담 완화 도움 정도
	① 현재 받음 ② 과거 받은 경험있음 ③ 한번도 받지않음	① 전혀 안 됨 ② 안 됨 ③ 보통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됨 ⑥ 비해당
1) 0-4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2) 만 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누리 과정 포함)		
3) 어린이집 미이용 0-2세 양육수당		
4) 지방 정부 수당		
5) 장애아 무상보육		
6)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		
7)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시간연장,야간보육 등)		

4

1)		23-24
2)		25-26
3)		27-28
4)		29-30
5)		31-32
6)		33-34
7)		35-36

5.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출산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아동을 잘 길러서 국가 인재로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②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③ 양육비 현금 지원 ④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 ⑤ 육아정보·상담 제공 ⑥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보육의 다양성 확대
-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⑧ 유연근무제 실시
- ⑨ 기타()

37

5

6. 귀하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책임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②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짐 ③ 잘 모르겠다

38

6

7. 정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 전액지원에 이어서 내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로 확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육료·교육비 전액을 가구소득 제한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질문 7-1로) ② 불만족(질문 7-1로)
- ③ 보통(질문 8로) ④ 만족(질문 8로) ⑤ 매우 만족(질문 8로)

39

7

7-1. 보육료·교육비 전액을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원하는 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소득층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 ② 세금에 대해 부담감이 느껴짐
- ③ 실제로는 무상보육이 아닌 것으로 인식됨 ④ 기타 ⑤ 비해당

40

7-1

8. 보육료·교육비·양육수당 등 전반적인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재정비용 확보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③ 잘 모르겠다

41

8

9.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은 각 시·도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상한선을 없애고 각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가 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②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
- ③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하는 것이 좋다 ④ 기타()
- ⑤ 잘 모르겠다

42

9

10.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인어린이집(공공형, 서울형, 부산형)을 아십니까? 안다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질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유사하다 ② 약간 유사하다 ③ 약간 다르다 ④ 매우 다르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공공형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모른다

43
 10

--	--

11.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가정에 아이 돌보는 사람을 파견하는 제도를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인지 및 이용 경험	필요성
	① 현재 이용 ② 과거 이용 ③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④ 인지 잘 모름	① 매우 필요 ② 필요한 편 ③ 보통 ④ 불필요한 편 ⑤ 전혀 필요치 않음
1) 시간제 돌봄		
2) 영아 정기 돌봄		

11
 1)

--	--

 44-45
 2)

--	--

 46-47

12. 현재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이들을 믿고 보낼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일반적 설치	아이를 보낼만한 곳
	① 불충분 ② 충분 ③ 잘 모름	① 없음 ② 1~2곳 있음 ③ 많음 ④ 잘 모름
1) 어린이집		
2) 유치원		

12
 12-1

--	--

 48-49
 12-2

--	--

 50-51

13.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없다면 ⑧비해당 기입함.)

-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⑧ 비해당

52
 13

--	--

14.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는 보육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또한 앞으로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용	참여 여부	도움 정도	앞으로 참여할 의향 (모두 있다고 가정)
	① 적극 참여 ② 소극 참여 ③ 미참여 ④ 모름 ⑧ 비해당(없음)	① 전혀 도움안됨 ②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됨 ⑧ 비해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⑧ 비해당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 부모 모니터링단			
3) 부모 자원봉사			

14
 1)

--	--	--

 53-55
 2)

--	--	--

 56-58
 3)

--	--	--

 59-61

참여 도움 의사

VI. 다문화 가정에 묻는 질문입니다.
 (*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이민자인 경우만 조사합니다)

카드번호 09 12-13

1. 최연소 아동의 부모가 이민자인 경우 어디 출신입니까?

보기	부	모
01) 중국(조선족, 한족) 02) 베트남 03) 일본 04) 필리핀 05) 몽골 06) 캄보디아 07)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가 08) 기타() 88) 비해당		

1 14-17

부		모	

2.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각 질문에 대해 어려운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어렵지 않음	⑤ 전혀 어렵지 않음
1) 아이와 의사소통능력 부족					
2)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3)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4) 대외적 자신감 결여					
5)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대응					
6)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 없음					
7) (영유아 포함)자녀지도·교육					

2

1)		18
2)		19
3)		20
4)		21
5)		22
6)		23
7)		24

3. 귀댁 자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받아 본 자녀 발달지원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는 1, 비해당은 0을 기록함.)

- ① 한국어 교육 ② 이중언어교육 ③ 학습 지도
 ④ 예체능 교육 ⑤ 자녀건강검진 ⑥ 상담 및 치료
 ⑦ 멘토 프로그램 ⑧ 견학 및 체험활동 ⑨ 기타()

3 25-33

VII.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가(절문 2로)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기타()

34

1

1-1. (전세, 전·월세 및 월세, 기타인 경우) 가구원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

35

1-1

1-2. (전세, 전·월세 및 기타인 경우) 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무상주택일 경우 비해당 88888을 기입함.) 보증금 만원

36-40

1-2 만원

부록 4. 아동조사표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표)

조사표 종 류	조 사 구 번 호	거 처 번 호	거 처 내 가구 번호	조사구 내 가구번호	아동 가구원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1	2-4	5-6	7-8	9-11	12-13	14-16
2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로 _____ 길 _____ _____ 통리 _____ 번지 (공동주택명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 성명			아동 성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집() - H.P() -	
방문 횟수	방문 일시		방문 결과			
1	___월 ___일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2	___월 ___일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__)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원은 가구원 사항에서 아동의 가구원 번호와 이름, 그리고 이 아동의 부와 모의 가구원 번호를 옮겨 적고, 이 아동에 관하여 질문하십시오.

아동 가구원 번호 ()	이름 _____
아동 부의 가구원 번호 ()	아동 모의 가구원 번호 ()

카드번호 17-18
11

19-20		
부		21-24
		모

1. 보육·교육 이용과 지원 개요

※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명의 자녀 중, () 번째 자녀

25-26	명
1	번째 자녀

2. 현재 낮 시간동안에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01) 부 02) 모 03) 부모의 형제자매 04) 친조부모
05) 외조부모 06) 기타 친인척 07) 비혈연 08) 육아전문인력
09) 주로 기관에 맡김 10) 없음(혼자,형제끼리 지냄)

27-28	
2	

3.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질문 4로) ⑧ 비해당(모 부계)(질문 4로)

29
3

3-1.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 번 있을 경우는 이 아이 때문에 그만둔 최초의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 ① 임신했을 때 ②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③ 만 1세 이전 ④ 만 1~2세 때
⑤ 만 3세~취학전까지 ⑧ 비해당(없음)

30
3-1

3-2.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수입보다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③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 ④ 직장에서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⑤ 몸이 힘들어서 ⑥ 기타()
⑧ 비해당(없음)

31
3-2

4. 아이가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학원(반일제 이상)
④ 기타() ⑤ 기관 이용경험 없음(질문 5로)

32
4

4-1.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것은 몇 개월 때부터 입니까? (※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은 비해당 88을 기입함.)
()개월 때

33-34	개월
4-1	

4.2. 이 아이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⑦ 보육료·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⑧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⑨ 기타() ⑩ 비해당

35-36
4-2

8-1. (양육 수당 수혜 시)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101
 8-1

II. 미취학 아동,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등

카드번호
12

17-18

※ 이 아이는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반까지 보통 어떠한 보육·교육 기관과 누구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30분 간격으로 기입합니다.)
 ※ 기준일은 방문 전날이며, **방문날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 전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중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요일)

【보기】

<기관> 01. 어린이집 02. 유치원 03. 학원 I 만일제이상이용
 04. 학원 II 특기 및 보습학원 05.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공적기관
 06. 문화센터 등 기타 사설기관 07. 기타()

<개인> 11. 부 12. 모 13. 친조부모 14. 외조부모
 15. 친인척 16. 비혈연 17. 육아전문인력 18. 아이 혼자, 자녀끼리

<기타> 21. 교육 서비스

시각	번호	시각	번호
07:00 ~ 07:30	19-20	15:00 ~ 15:30	51-52
07:30 ~ 08:00	21-22	15:30 ~ 16:00	53-54
08:00 ~ 08:30	23-24	16:00 ~ 16:30	55-56
08:30 ~ 09:00	25-26	16:30 ~ 17:00	57-58
09:00 ~ 09:30	27-28	17:00 ~ 17:30	59-60
09:30 ~ 10:00	29-30	17:30 ~ 18:00	61-62
10:00 ~ 10:30	31-32	18:00 ~ 18:30	63-64
10:30 ~ 11:00	33-34	18:30 ~ 19:00	65-66
11:00 ~ 11:30	35-36	19:00 ~ 19:30	67-68
11:30 ~ 12:00	37-38	19:30 ~ 20:00	69-70
12:00 ~ 12:30	39-40	20:00 ~ 20:30	71-72
12:30 ~ 13:00	41-42	20:30 ~ 21:00	73-74
13:00 ~ 13:30	43-44	21:00 ~ 21:30	75-76
13:30 ~ 14:00	45-46	21:30 ~ 22:00	77-78
14:00 ~ 14:30	47-48	22:00 ~ 22:30	79-80
14:30 ~ 15:00	49-50		

※ 조사원은 기준일이 무슨 요일인지 기록합니다.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81

1. 아이가 최근 평일,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이었습니까?(※ 부모 부재일 경우 해당 칸에 88 기입함.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함.)

어머니	최근 평일	() 시간
	지난 주말	() 시간
아버지	최근 평일	() 시간
	지난 주말	() 시간

1	82-89	시간
		시간
		시간
		시간

4.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 0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0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03) 특기교육을 위하여 04)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질문 4-1로)
- 05)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0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 07)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08) 보육료·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 09) 기타() 88) 비해당

25-26
4

4-1.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집에서 돌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아무데도 안 보냄 ② 다른 기관으로 옮김(질문 4-1-1로)
- ③ 현재 이용 기관에 계속 보냄 ⑧ 비해당

27
4-1

4-1-1. (다른 기관에 보내겠다는 경우) 그 곳이 어디입니까?

- ① (다른) 어린이집 ② (다른) 유치원 ③ (다른) 반일제 이상 학원
- ④ 일반 학원 ⑤ 기타() ⑧ 비해당

28
4-1-1

5. 이 아이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 7월 1일 기준)

자녀가 ()개월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 ()개월째 다니고 있음

29-32
5 월령 기간

6.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01) 원장	02) 교사	03) 운영시간	
04) 비용	05) 프로그램	06)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07) 기관 학급 규모(아동 수)	08) 내부 분위기	09) 안전한 보호	
10) 집과의 거리	11) 기관설비	12) 국공립 여부	
13) 주변의 평판	14) 주변입지	15) 평가인증 통과 여부	
16) 차량 운행 여부	17) 특별프로그램	18) 형제가 다니고 있어서	
19) 기타()			

33-36
6 1순위
 2순위

7. 현재 이 아이는 이용하는 기관에 매일 갑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토요일 매주) 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토요일 격주)
- ③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④ 일주일에 1~2번 ⑤ 일주일에 3~4번

37
7

8. 평상시에 이 아이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이용시간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작성합니다.)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38-45
8 동원시간 하원시간

9. 부모 사정으로 이 아이가 평소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3~4회
- ④ 매일 ⑤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음

46
9

10. 이 기관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시작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2) 끝나는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47
10
1)
2) 48

11.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하고 싶으십니까?(※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11

49-56									
		시	분	시	분				

12.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만 응답)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까? 한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1) 저녁 식사	① 거의 매일 식사	② 가끔 식사	③ 식사하지 않음	④ 비해당
2) 비용 지불 여부	① 비용 지불	② 가끔 지불	③ 지불하지 않음	④ 비해당

12

1) 57

2) 58

13.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입학할 때, 입소료나 입학금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원복과 체육복 비용 등 입학했을 때만 내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 합계를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지불한 금액이 없으면 연도에는 88, 금액은 0 기입함.)
 (20)년도에 ()천원

13

59-63									
		년							
				천원					

14. 매월 내는 정해진 보육료 또는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또한 이외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인지 항목별로 각각 기록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은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낸 경우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천원 단위로 기입함. 없으면 0 기입함.)

항목		금액
일정한 월 보육료 및 교육비 (※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0-2세, 5세는 0 기입)		()천원
납부 현금	1) 특별활동비	()천원
	2) 교재비	()천원
	3) 급간식비	()천원
	4) 종일반비	()천원
	5)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등	()천원
	6) 소계	()천원
7) 총계		()천원

14

64-95									
		천원							
1)			천원						
2)			천원						
3)			천원						
4)			천원						
5)			천원						
6)			천원						
계			천원						

※ 조사원 확인사항

15. 가구 월평균 소득대비 이 아이가 다니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지불한 월평균 총비용 비율을 계산해 주세요. (※ 입학금 제외함. 소수점 없음. 지불한 금액이 없으면 비해당 888 기입함)
 총 () %

15

96-98									
		%							

카드번호	17-18
14	

16. 이 아이는 다니고 있는 기관의 월 보육료나 교육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 있습니까?
 (※ 영아 기본보육료, 학습바우처는 제외함)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감면 ③ 아무런 혜택 없음(질문 17로)

16

19									

16-1.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 받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0-2세 무상보육 ② 5세 누리과정 ③ 3-4세 소득하위 70% 이하
 ④ 놓여진 자녀 ⑤ 다문화가족 자녀 ⑥ 장애아동
 ⑦ 기타() ⑧ 비해당

16-2. 월 면제 또는 감면 액수는 얼마입니까?
 (※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함. 비해당일 경우 888 기입함.)
 월 ()천원

16-1 20

16-2 21-23 천원

17.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용을 전혀 안내는 아동은 비해당)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⑧ 비해당

17 24

18.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8 25

19.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질문 20으로)

19 26

19-1.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다면) 월 최고 얼마까지 추가로 더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비해당은 888을 기입함.)
 현재보다 추가로 월 최고 ()천원까지 더 부담할 수 있음

19-1 27-29 천원

20. 이 아이는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등원시 ()	하원시 ()
【보기】	
①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질문 20-1로)	② 가족이 자가용으로(질문 21로)
③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질문 21로)	④ 자녀 혼자 걸어서(질문 21로)
⑤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질문 21로)	⑥ 기타()

20 30-31 등원 하원

20-1.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경우, 교사가 차량에 동승하고 있습니까?
 ①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 ② 등원시만 동승한다
 ③ 하원시만 동승한다 ④ 동승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⑧ 비해당(차량을 이용하지 않음)

20-1 32

21. 위의 방법으로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등원 ()분

21 33-34 분

22.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원장이 보육 또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	제2순위 ()번
----------	-----------

- 01) 균형있는 발달 02) 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 03) 안전한 보호 04) 자유 놀이 중심 활동
- 05)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06)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 07)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08) 특별활동프로그램
- 09) 충분한 휴식 10) 기타() 88) 없음

22 35-38 1순위 2순위

23. 귀하께서는 아이가 다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서비스 내용	제공/잠석	도움정도	만족도
	① 매일 ② 매주 1회 ③ 월 1회 ④ 분기 1회 ⑤ 연 1~2회 ⑥ 제공 안함 ⑦ 모름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 도움 안됨 ③ 보통임 ④ 도움되는 편 ⑤ 매우 도움 ⑧ 비해당 (제공 안함/모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제공안함/모름)
1) 보육·교육 계획표 제공			
2) 급식·간식 식단제공			
3) 가정통신문(연락장 등) 제공			
4) 자녀발달평가 통지 제공			
5) 부모 상담			
6) 부모 교육 자료 제공			

23

1)				39-41
2)				42-44
3)				45-47
4)				48-50
5)				51-53
6)				54-56

제공 도움 만족

24. 다음은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 부모가 선택하는지 여부, 비용은 얼마이며, 일주일간 이용빈도는 몇 회이고,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0일 경우, 1) 문항에 프로그램수 0만 기입하고 2) 이후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음)

특기교육	1)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를 기록	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3) 별도로 비용을 지불합니까?	4)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5) 일주일간 몇 회 이용합니까?	6) 해당 특별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미이용시 0을 기입하고 이후 빈칸)	①선택 가능 ②무조건 이용	①지불함 ②지불하지 않음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록 (미지불 888)	※일주일 기준으로 횟수 기입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01) 미술				천원	회		57-64
02) 음악				천원	회		65-72
03) 체육				천원	회		73-80
04) 과학				천원	회		81-88
05) 수학				천원	회		89-96

카드번호 15 17-18

06) 한글(국어)				천원	회		19-26
07) 컴퓨터				천원	회		27-34
08) 교구이용프로그램				천원	회		35-42
09) 한자				천원	회		43-50
10) 영어				천원	회		51-58
11) 기타 외국어				천원	회		59-66
12) 기타				천원	회		67-74
13) 총계				천원	회		75-79

25.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어머니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24번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 번호 기입. 특별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경우 비해당 88 기입함)

80-81
25

26. 귀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는 특별활동을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비해당)

82
26

- ① 오전, 오후에 한다 ② 오전에만 한다 ③ 오후에만 한다 ④ 모른다 ⑤ 비해당

27.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카드번호
16 17-18

구분	만족 여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01) 원장					
02) 교사					
03) 주변환경					
04) 시설설비, 실내환경					
05) 교재교구 및 장비					
06) 내부 분위기					
07) 비용					
08) 건강관리					
09) 급간식관리					
10) 안전관리					
11) 교육내용					
12) 부모참여					
13) 부모교육 및 상담					

27
1) 19
2) 20
3) 21
4) 22
5) 23
6) 24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31

28. 현재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번 항목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	제2순위 ()번
-----------------	------------------

32-35
28 1순위
 2순위

29.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으로 아이에게 미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서 발달 ② 사회성 발달 ③ 인지 발달 ④ 언어 발달
⑤ 표현능력 발달 ⑥ 예체능 능력 발달 ⑦ 기타()

36
29

30. 자녀의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귀댁이나 귀하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도움이 된 정도는 어떠합니까?

변화내용	도움받은 일	도움이 된 정도	
	① 있었음 ② 없었음	① 전혀 도움안됨 ③ 보통 ⑤ 매우 도움됨	② 도움 안 됨 ④ 도움 됨 ⑧ 비해당
1) 취업 및 구직(신규)			
2) 업무(가사)능률 향상			
3) 여가·취미활동			
4) 육아기술·지식 확대			
5) 학업 및 취업훈련			
6) 양육 부담 완화			
7) 후속 자녀 추가 출산			
8) 가족갈등 완화(해소)			
9) 기타()			

30
1) 37-38
2) 39-40
3) 41-42
4) 43-44
5) 45-46
6) 47-48
7) 49-50
8) 51-52
9) 53-54

1-3. 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⑧ 비해당

35
1-3

2. 아이사랑 카드를 어떻게 결제하십니까?

1) 결제 빈도	① 매달 ② 분기 ③ 없음
2) 결제 방법	① 방문 ② 카드 전달 ③ 카드 말걸 ④ 인터넷 ⑤ ARS ⑧ 비해당

2
1) 36
2) 37

3. 귀하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귀하는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점수 수준 아는 정도 비해당 가능)

구분	현재 아는 정도	부모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 정도
	① 전혀 모름 ② 모르는 편 ③ 대충 알 ④ 잘 아는 편임 ⑤ 매우 잘 알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한 편 ⑤ 매우 필요
1) 원장 학력, 자격, 전공 등		
2) 교사 학력, 자격, 전공 등		
3) 평가인증 통과 여부		
4) (평가인증 통과시) 점수 수준		
5) 비상시 대피시설 등 대처방법		
6)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7) 어린이집 수입-지출 회계		
8) 법, 규정 위반 발생 여부		
9)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 사고 발생 여부		

3
1) 38-39
2) 40-41
3) 42-43
4) 44-45
5) 46-47
6) 48-49
7) 50-51
8) 52-53
9) 54-55

4.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IP-TV 포함)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설치 ② 미설치(질문 5로) ③ 모름(질문 5)

4-1. CCTV(IP-TV 포함) 이용자로 가입하셨습니다? ① 가입 ② 미가입 ⑧ 비해당
4-2. CCTV(IP-TV 포함)를 자주 보십니까? (※ 미가입자도 다른 집에 가서 볼 경우도 포함) ① 매일 이용 ② 주 2-3회 이용 ③ 주 1회 정도 ④ 가끔 이용 ⑤ 전혀 이용 안함 ⑧ 비해당
4-3. CCTV(IP-TV 포함)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⑧ 비해당

56
4
57
4-1
58
4-2
59
4-3

5.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IP-TV)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60
5

IV. 미취학 아동 전체에 질문

카드번호
17-18
18

※ 모든 미취학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대기 신청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질문 1-1로) ② 없다

1-1.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대기하였습니까?
 ()개월 (※개월수로 환산하여 작성함. 비해당은 888 기입함.)

19
1
20-22
1-1 개월

1-2.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 곳일 경우, 가장 오랫동안 대기한 어린이집 유형을 기입함.)
 01) 국·공립어린이집 02) 비영리법인단체어린이집 03) 민간어린이집 04) 가정어린이집
 05) 부모협동어린이집 06) 직장어린이집 07) 학교 병설 유치원 08) 공립 단설 유치원
 09) 사립유치원 10) 기타() 88) 비해당

1-2

23-24	
-------	--

2. 현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상태 및 보낼 계획을 아동의 연령단계에 맞추어 해당하는 기관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아동의 현재 연령은 2012년 7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계산함. 아동의 현재 연령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의 칸에 해당번호를 씀. 아무 곳도 안보내면 8을 기록함. 표 안 작은 글씨 숫자는 해당 개월이 지났음을 나타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 ④ 기타

만연령/개월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세 미만	0	1	2	3	4	5	6	7	8	9	10	11
1세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세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세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세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5세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6세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7세	84	85										

25-36
37-48
49-60
61-72
73-84
85-96
97-108
109-110

※ 조사원은 위의 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 기록해 주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는 현재 아동의 개월수를 기록해 주세요(해당이 없으면 비해당 88 처리함.)

질문	어린이집	유치원
2-1. 현재 이용 여부를 기록해 주세요.	① 현재 다님 ② 현재 안다님	① 현재 다님 ② 현재 안다님
2-2. (새로 다닐 아동은) 언제부터 다닐 계획입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은 현재 월령을 기록)	개월때부터	개월때부터
2-3.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다닐 계획입니까?(새로 다니는 아동은 시작시점부터 계산)	개월동안	개월동안

카드번호
19

2-1		19-20
2-2		21-24
2-3		25-28

3. 이 아이를 현재 다니는 기관에 몇 살 때까지 보내시겠습니까?
 (※ 조사원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기록함. 기관 미이용 시 88 비해당)

아이가 만 ()세 ()개월 될 때까지
 현재부터 ()개월 더 이용

29-32

3				개월
				개월

3-1.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만 보내겠다는 경우) 그러면 다른 곳에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보내겠다는 미취학 아동은 비해당)
 ① 아무 곳도 안 보냄 ② (다른) 어린이집 ③ (다른) 유치원
 ④ (다른) 반일제 이상 학원 ⑤ 특기교육 학원 ⑥ 기타()
 ⑧ 비해당

33

3-1	
-----	--

4.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계속 또는 다른 곳에 새로이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 ① 어린이집에만 보낼 것임(질문 5로)
- ② 유치원에만 보낼 것임(질문 6으로)
- ③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보낼 것임
- ④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안 보낼 것임(질문 5, 6 모두 응답)
- ⑤ 잘 모르겠음(질문 7로)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⑧ 비해당

34
4

5.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겠다고 하면 다음 중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질문 5-1로)
- ② 비영리법인단체어린이집
- ③ 민간어린이집
- ④ 가정어린이집
- ⑤ 부모협동어린이집
- ⑥ 직장어린이집
- ⑧ 비해당

35
5

5-1.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시겠다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저렴해서
- ② 신뢰가 가서
- ③ 가까워서
- ④ 교사 자질이 좋아서
- ⑤ 보육내용이 좋아서
- ⑥ 기타()
- ⑧ 비해당

36
5-1

6.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하면 어느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 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질문 6-1로)
- ② 공립 단설 유치원(질문 6-1로)
- ③ 사립유치원
- ④ 기타()
- ⑧ 비해당

37
6

6-1.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시겠다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1번 질문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38
6-1

7. 현재 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과거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어디서 제공받아 보셨고, 1회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구분	필요성 정도	(최근 6개월 간) 이용 빈도	서비스 제공기관 (중복응답 가능)	1회 이용 시간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없음	① 없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주당 1~2번 ⑤ 주당 3회 이상	① 어린이집 ② 공공유아지원센터 ③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④ 기타() ⑧ 비해당
1) 하루 중 잠깐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시간 39-44
2)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				시간 45-50
3) 1박 2일 등 2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4시간보육)				시간 51-55
4) 토요일보육				시간 56-61
5) 휴일에 이용하는 경우(휴일보육)				시간 62-67

8. 긴급한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주로 누가(어디서) 돌보아줍니까?

1) 긴급한 상황	① 부모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③ 비혈연 ④ 어린이집 ⑤기타
2) 아이가 아플 때	① 부모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③ 비혈연 ④ 어린이집 ⑤기타

8
1) 68
2) 69

9. 만약에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오전만 이용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 오후만 이용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 오후 2~3시까지 이용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9
1) 70
2) 71
3) 72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에 질문

카드번호 17-18
20

※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일반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이 아이가 시간제로 이외에 특기교육을 위하여 다니는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은 몇 개이며, 1주간 평균 이용 시간과 1개월간 학원에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이용하지 않는 종류의 경우, 프로그램 수에는 0을 기입하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는 모두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이용	프로그램 수	이용시간	비용		전반적 만족도	
	()개	주 평균 () 시간	월 총()천원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임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미술관련	개	시간		천원		19-25
2) 음악관련	개	시간		천원		26-32
3) 체육관련	개	시간		천원		33-39
4) 과학관련	개	시간		천원		40-46
5) 수학	개	시간		천원		47-53
6) 언어(한글, 독서) 관련	개	시간		천원		54-60
7) 컴퓨터	개	시간		천원		61-67
8) 영유아교육전문	개	시간		천원		68-74
9) 한자	개	시간		천원		75-81
10) 영어	개	시간		천원		82-88
11) 기타 외국어	개	시간		천원		89-95
12) 기타	개	시간		천원		96-102
13) 총계	총 개 총	시간 총		천원		103-108

VI. 전체 아동 중, 현재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에 질문

카드번호 17-18
21

※ 현재 학습지 활용교육, 개별, 그룹 교육 지도를 받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이 아이가 개별 또는 그룹지도를 받는 경우 종류별로 몇 종류의 지도를 받고 있고, 지난 1개월간 낸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에 0을 기입하고, 형태, 비용, 만족도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항목	수	주된 형태	비용		만족도	
	()개 (0개는 이후 공란)	① 개인 ② 그룹 ③ 개인+그룹 ④ 비해당(개별·그룹지도없음)	월 총()천원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만족
					⑤ 매우만족	
1) 학습지	개			천원		19-24
2) 예체능	개			천원		25-30
3) 교재교구	개			천원		31-36
4) 전화 교육	개			천원		37-42
5) 인터넷 교육	개			천원		43-48
6) 총계	총 개		총	천원		49-52

4. 규칙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비해당일 경우 88 기입)

오전 ()시~()시까지
 오후 ()시~()시까지

4

30-37	
부터	까지

5.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지불
- ② 부정기적으로 지불
- ③ 현물로 지불
- ④ 지불 안 함

5-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주십시오.
 (※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함. 비해당은 8888을 기입함.)
 월 () 천원

5

38

5-1

39-42	천원
-------	----

6. (조부모가 돌봐주며 비용을 지불한 경우만 응답)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도 돈을 드릴 계획이십니까?

- ① 돌보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드림
- ② 돌보지 않을 경우 비용 조정(질문 6-1로)
- ③ 돌보지 않을 경우 일체 드리지 않음
- ④ 비해당(조부모 비용 미지불)

6-1. (문항 6에 ②에 응답한 경우) 어느 정도 조정할 것입니까?(※ 미조정시 888 기입함.)

현재 지불하는 금액의 ()% 지불

6

43

6-1

44-46	%
-------	---

7.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돌보게 하면서 시간, 비용, 양육방식 및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 2번 비해당일 경우 8을 기입함.)

구분	만족도
1) 시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비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3) 양육방식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양육공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

1) 47

2) 48

3) 49

4) 50

※ 비혈연인이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비혈연인이 돌봐주지 않는 경우 1~10번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은 누구입니까?

- ① 동거 비혈연(주5일 이상)
- ② 아이돌보미
- ③ 베이비시터
- ④ 가정보육교사
- ⑤ 파출부·가사도우미
- ⑥ 이웃보육모
- ⑦ 기타()

1

51

2. 이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의 출신국은 어디입니까? 또한 아이를 돌봐 주시는 분은 결혼을 하셨고, 자녀 양육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자격 여부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기
2-1. 출신국	① 한국인 ② 중국 조선족 ③ 중국 한족 ④ 필리핀 ⑤ 베트남 ⑥ 기타()
2-2.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① 미혼 ② 기혼, 양육경험 유 ③ 기혼, 양육경험 무 ④ 모름
2-3. 자격 (해당되면 1, 해당 안되면 0 을 각각 표시)	① 보육교사 ② 유치원교사 ③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사설업체 교육 시터 ⑤ 기타()

2

2-1 52

2-2 53

2-3 54-58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02) 2023-8930
팩스: 02) 2023-8951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61-12